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301-10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부산구술문화총서 5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강서구 편

박경수·황경숙 편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6

일 러 두 기

1. 구성과 체제

(1)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를 동부산 문화권·서부산 문화권·중부산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설화자료와 민요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2) 이 책은 부산구술문화총서 제5권『서부산 문화권 설화(Ⅰ)』로 서부산 문화권에 해당하는 강서구의 설화자료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3)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Ⅰ. 현장조사 설화,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Ⅲ. 문헌 소재 설화로 편성하고, 각 장의 설화를 동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 Ⅰ부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현장 조사한 자료를 수록한 것으로, 각 설화마다 제목, 구술자(이름·성별·출생년도), 구술 일자, 구술 장소, 본문 순으로 정리하였다.

(5) Ⅱ부는 부산광역시 외에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했거나 개인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여 출판된 것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각 설화의 자료 끝에 출처를 밝혀 두었다.

(6) Ⅲ부는 기존에 발행된 문헌에 수록된 설화를 엮은 것으로, 동일한 설화의 경우 먼저 출판된 설화를 저본으로 수록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설화라도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나 표현이 다르면 출판년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아 함께 수록하였다. 각 설화의 출처는 자료 끝에 밝혔으며, 동일한 설화가 여러 문헌에 수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각주를 붙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7) 이 책의 끝에 구술 자료의 제목, 구술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색인을 붙여 자료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표기 원칙

(1) 모든 자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①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지역 방언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방언에 대한 표준어나 뜻풀이는 소괄호 ( ) 안에 넣어 표기하였다. 뜻풀이가 길거나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였다.

② 한자, 외국어, 숫자 등을 별도로 밝히는 경우에도 소괄호 ( ) 안에 넣어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책 이름은 겹낫표『 』, 작품명은 낫표「 」, 혼잣말은 홑따옴표‘ ’, 대화는 겹따옴표“ ”로 표시하였다.

(3) Ⅰ부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조사자와 청중의 개입 부분과 구연 상황은 대괄호[ ]에 넣어서 제보자의 구술, 내용과 구분되도록 표기하였다

(4) Ⅱ부 기존 현장조사 설화의 경우, 원전 표기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되, 단락별 들여쓰기만 별도로 했다.

(5) Ⅲ부 문헌 소재 설화의 경우, 원전의 표기를 충실하게 따르되, 현행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수정하였다.

각권별편제

제1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Ⅰ)』-기장군 편-[2012년 발간]

제2권 『동부산 문화권 설화(Ⅱ)』-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2013년 발간]

제3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Ⅰ)』-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2014년 발간]

제4권 『동부산 문화권 민요(Ⅱ)』-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편-[2015년 발간]

제5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강서구 편-[2016년 발간]

제6권 『서부산 문화권 설화(Ⅱ)』-북구·사상구·사하구 편-[2017년 발간 예정]

제7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Ⅰ)』-강서구 편-[2017년 발간 예정]

제8권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북구·사상구·사하구 편-[2018년 발간 예정]

제9권 『중부산 문화권 설화(Ⅰ)』-금정구·동래구·연제구 편-[2018년 발간 예정]

제10권『중부산 문화권 설화(Ⅱ)』-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편-[2019년 발간 예정]

제11권『중부산 문화권 민요(Ⅰ)』-금정구·동래구·연제구 편-[2019년 발간 예정]

제12권『중부산 문화권 민요(Ⅱ)』-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편-[2020년 발간 예정]

제13권『부산광역시 설화·민요』-보유 편-[2020년 발간 예정]

목 차

일러두기 ····· i

Ⅰ. 현장조사 설화 ····· 1

1. 가락동 설화 ····· 3
2. 강동동 설화 ····· 26
3. 녹산동 설화 ····· 88
4. 대저동 설화 ····· 128
5. 명지동 설화 ····· 181
6. 천가동(현 가덕도동) 설화 ····· 194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 223

1. 김승찬 현장조사 설화 ····· 225
   1) 녹산동 설화 ····· 225
   2) 눌차동 설화 ····· 240
   3) 대항동 설화 ····· 248
   4) 동선동 설화 ····· 255
   5) 미음동 설화 ····· 304
   6) 범방동 설화 ····· 346
   7) 생곡동 설화 ····· 414
   8) 성북동 설화 ····· 419
   9) 송정동 설화 ····· 421
   10) 지사동 설화 ····· 481
   11) 천성동 설화 ····· 527

2. 박경수 현장조사 설화 ····· 576
   1) 설화 ····· 576
   2) 현대 구전설화 ····· 619

Ⅲ. 문헌 소재 설화 ····· 623

참고문헌 ····· 630

제보자 색인 ····· 631

설화 제목 색인 ····· 634

Ⅰ. 현장조사 설화

1. 가락동 설화
2. 강동동 설화
3. 녹산동 설화
4. 대저동 설화
5. 명지동 설화
6. 천가동(현 가덕도동) 설화

1. 가락동 설화

[가락동 설화 1]

은혜 받아 벼슬한 사람

김대식(남,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고기가 막 인자 막 날씨가 가물어 놓으니 웅디에(웅덩이에) 마 소복하이, 마 입을 내 놓고 복작거리고 있는 기야. 그기 다 하나하나 생명이다 이리 되가지고 애들을 교육 받으몬 그런 야아기를 했지. 그거로 자기가 생명을 도와준 은인으로서 큰 그걸로 했다. 베슬자리(벼슬 자리)를 베슬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가락동 설화 2]

새끼 낳고 미역국 먹는 메뚜기

김대식(남,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옛날에 할배들이 어데 가서로 질로 간다꼬 가이께네, 막 어데서 홀짝홀짝 소리를 해싸서로, 가마히 두룸(논두렁) 밑을 내다보이께네, 메뚜기란 놈이 새끼를 놔 놓고 미약국 먹는다고 홀짝홀짝 하더라 캐싸코. 그런 이야기로 할배들이 마이 했지.

[가락동 설화 3]

거짓 부고로 딸을 훈계한 아버지

이정순(여, 1947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딸네 집에 간다고 봄에, 날이 인자 해동되다 보니까, 딸네 집에 간다고 가니까, 아 딸이 아버지가 오시는데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이고,

"아버지, 저 오는데 나시꽃 안 팼습디까?"

이라거든.

[조사자: 나시꽃?] 냉이. 그 꽃이 필 무렵이몬 보릿고개 이래가지고 쌀도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안 나고 참 어려울 때라. 어려울 시긴데, 아버지가 오는데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인자 그런 왜 왔냐는 식으로 해서, 너무 아버지가 섭섭해가 집에 가가지고 그 딸한테 부편을 보냈어. 아버지 죽었다고 거짓말로.

그래서 죽었다고 인자 평풍을 치놨고, 아버지는 뒤에 눕어 있고 막 벌게이겉이(벌레같이) 뛰어 오더만 그 딸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 어제 아래 오시가지고 어던 앞뜰에 돈, 땅 줄라 안 했나. 어데 논 줄라 안 했나."

이라고 통곡을 하거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나가지고,

"니 울음이 정 울음이가? 내 죽음이 정 죽음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더.

[가락동 설화 4]

고깃국 먹고 싶은 며느리

이정순(여, 1947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옛날에 시아버지가 얼마나 고기를 못 사 먹게 해가지고, 이 메느리는 고기 그 좀 사 먹고 싶은데 고기로 못 사 먹게 해가지고, 저 봄이 돼가지고 쑥을 캐서 쑥국을 끓있는데, 쑥국에다가 인자 굴을 넣어가지고, 굴장사가 왔길래 굴을 넣어가지고 끓이가지고, 굴은 다 껀지 무뿌고 메느리가. 그냥 끓이 드렸더만은,

"야야, 이 국은 쑥국이 똑 꿀국(굴국) 겉네."

이리 하시더랍니더. 안 봐도 그래 그만큼 맛이 있는데도 못 사 묵게 하니까, 건더기는 다 자시고. 예. 그런 일도 있고.

[가락동 설화 5]

호랑이에게 묵을 빼앗긴 할머니

임말연(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옛날 옛적에 할매가 딸네 집에 갈라 카이 옛날에는 묵을 거는, 가 갈 거는 없고 묵을 한 반티(바구니) 해가 가잉께네, 옛날에는 산에 고개로 넘어 가야 돼. 한 고개 넘어가이 호랭이가 앉아가,

"할마이! 할마이!, 묵 한 덩거리 주몬 안 잡아 묵지."

캐서 또 한 덩거리 주뿌고. 또 한 고개 넘어가이 또 줄라 캐서 또 주뿌고, 그러고로 저러고로 해도 지고 마 묵도 다 뺐기뿌고, 마 그렇더라 카는데, 나는 거 또 뒤에는 모르겠다.

[가락동 설화 6]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구두쇠

정광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옛날에 저저 메느리가 골목에 이리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 그래 인자 지나가던 옆집에 할매가,

"니 와 우노?"

이라이께네,

"시어머니가 잘못 됐다고 쫓가냈다."

카는 기라.

"그래, 왜 그렇냐?"

물은께네,

"생선을 샀는데, 그냥 생선을 안 사고 말하자면 생선을 쭈무려(주물러) 가지고, 그걸 가 국을 낋있는데, 그 인자 국을 끓있는데, 그 국을 인자 말하자면은 저거 식구만 묵었다고, 시어머니가 그걸 간장독에다가 손을 씻겄으몬 일 년 내내 묵을 꺼로, 그래 돼가 쫓가냈는데(쫓아냈는데)."

그래 인자 울고 있으니까, 그 이웃의 할매가 하는 소리가

“아이, 이년아. 잘 쫓기났다 니는. 그걸 우물에 가 씻겄으믄 온 동네 사람이 물 꾸로(먹을 것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가락동 설화 7]

어머니에게 진 한석봉

최복님(여, 1921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가락중앙노인정]

떡을 하도 잘 맨들어 가지고 팔았어. 그래 한석봉이가 글로 씨기로 불로 꺼 놓고 글로 썼거던. 그래 한석봉이 글씨가 고른가? 저거 어매 떡가래가 고른가? 불로 꺼 놓고 써 놓고 보인께네 저거 어매 떡장사가 졌단다. 한석봉이 저거 어매 이깄고. 그래.

[가락동 설화 8]

친정아버지 묘에 시아버지를 몰래 묻은 딸

안순덕(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친정이 부자라, 친정이 부잔데. 지는 시집을 가서 몬(못) 살고 이래 하이끼네, ‘명산에다가 인자 모(묘)를 쓰몬, 이 인자 부자가 된다.’ 이러 카는. 그래서러 명산, 명산 찾아 댕기거든. 그라인끼네(그렇게 하니까) 저거 아부지 뫼를 파내고, 저거 시아부지 뫼를 그 갖다가 인자 묻는다 카는 그런, 그기 마 다 전설이지. 그기 그리 됐다. 명산에 씨믄 부자 된다 카는 그런 뜻으로.

그 인자 저거 친정에는 그 명산 쓰는 부잔데, 지는 몬 사이까네(못 사니까) 친정 아버지 뫼를 밤에 가서 몰래 파고, 저거 저는 저거 시아바시는 몰래 할라 카이 다 몬 하고 두(頭,머리)만 띠다가(떼어서) 그 자리다 묻었어.

[가락동 설화 9]

개로 환생한 어머니

안순덕(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메느리가 부석(부엌)에다 고기를 여 놔 넣고 꿉아(구워) 놓고. 옛날에는 불 떼고 나면 석쇠에다가 고기를 꿉고, 물 여다 묵고 이래 안하는가배. 그래 하니까 그 인자 개가 아마 묵고 짚아서러(싶어서) 그걸 묵어뿠는 기라. 묵우뿌니께네, 메느리는 개를 갖다가 주디(주둥이)를 탁 껄거서러(움켜쥐고),

"요놈의 개, 요놈의 개. 또 무라, 또 무라."

카면서 마 입을 때리가지고, 마 부리키(부어서) 터져뿠는 기라. 그 등넘에 딸이 있었는 기라. 꿈에 딸 꿈에,

"내가 어찌기 어찌기 묵고 짚아서러 묵었디만은, 니 올키가 나를 이래가지고 입이 다 터짔다."

이러 카이꺼네. 그래 꿈에 그리 해서러, 인자 참 울고불고 떡 친정을 오 보이끼네, 개가 마 입이 말캉 참 다 그거 해가 있고 그리 카이까네. 그래 인자 저거 엄마 꿈에 들은 고대로 딱 돼가 있으니께네, 그래 그 아들이 둥지리다가 개를 담아가지고, 호- 누른밥을 뭉치서러 짊어지고 댕기면서 개 한 덩거리 믹이고, 배고프면 지도 묵고, 절마다 댕기면서러 이 절에 가서도,

"엄마 아무 데 절입니더."

카고. 또 짊어지고 또 어느 어느 절에, 절마정(절마다) 댕기다가 보이까네, 한 군데는 가이까네 제를 하더라 카는 기라. 그래 인자 제를 하는데, 제 구경을 하고, 그래 인자 이래 그거 하는데, 그리 별안간에 마 우기작 우기작 구름이 둥둥둥둥 뜨고 이렇더만은,

"야야, 니 공에 나는 환생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간다."

카더만은. 그러 캐서 보이까네, 개 둥지리에 개털만 있고 그래가지고 개가 환승을 했다 카는 그런 이야기. 절에 댕기이 법문으로써 들었어. 법문으로써 들었어.

[가락동 설화 10]

우렁각시

안순덕(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옛날에 참 몬 살고 장개도 못 가고 이런 총각이 혼차(혼자) 살았어. 혼차 사인끼네 팔밭(풀밭)을 쫏는 기라. 그런께네,

"이 풀밭을 쪼싸가지고 누캉 묵고 누캉 살꼬."

카이,

"내캉 묵고 내캉 살지."

또 하루도 가서러 팔밭을 쪼싸사이 인자 밭 이거 팔밭.

[청중: 풀밭을, 풀밭을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인자 개간. 개간하는 거.]

그래 인자 풀밭을 쫏는 기라. 인자 몬 씨는(못 쓰는) 땅을, 인자 밭을 이루는 기라. 그런끼네 내가 팔밭을, 대기도 대고(힘들기도 하고) 몬 묵고 하이, 힘도 들고 노래라꼬 하는 기가 인자.

"이 팔밭을 쪼싸가지고 누캉 묵고 누캉 살꼬?"

이리 하이께네,

"내캉 묵고 내캉 살지."

암만 그리싸도 사람도 하나 안 보이고 그거 해서 보인까네, 그 얖에(옆에) 이래 샘이가 있는데, 참 옹당샘(옹달샘)이가 있는데, 고동이 한 마리 있는데, 거서 소리가 나더라 카는 기라. 그래서러 그 고동을 잡아다가 집에 갖다 여 놓고, 인자 또 갔다 오몬(오면), 풀밭을 쫏고 오면 밥을 다 해서러 해놔 놓고. 또 인자 바로 어데 갔다가 일하고 오몬, 또 밥을 딱 해놓고, 그 인자 고동이 각시를 화해(변해)가지고 그 밥을 해서러, 그 인자 그 사람이 묵고 그래 그런 전설 이야기지.

[청중: 우렁각시.]

우렁각시. 우렁각시 아이가 그기.

[조사자: 그 고동이 여자로 안 변했습니까? 여자로 안 변했습니까?]

그래 여자로 변했지. 변했으니께 거 밥을 해 주는 기라. 여자로 변해가지고 밥을 해 주고. 그기 그래서로 우렁각신 기라.

[가락동 설화 11]

여자를 몰랐던 스님

안순덕(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옛날에는 암만 카몬 업수룩한 산골 중놈 카고, 참 마 아주 옛날에는 산에 사는 사람이, 마

세상에 마 이거 여자라 카는 거 이거 모르고, 쪼깨난(어린) 상제(상좌)를 하나 데리다 키아가 상제 그거만 저어(저기) 가서로 심부름을 시키는 기라. 시키고,

"갔다 온나."

카고 이라인께네. 이놈의 상제라는 놈이 마, 돈 좀 벌이고 쪼깨 크기도 크고, 돈도 쫌 있고 이라인게네, 한 집에 보이끼네 과부가 참 못 살아가지고 마,

"내 한 번 도고(다오) 마."

카면서,

"돈을 얼매 주꾸마."

이라인께네, 돈을 쫌 주고 한 번 해무이께(해보니) 억수로 재미가 나는 기라. 그래가지고 가서러,

"시님요, 씹맛 봤소?"

"야 이놈아, 씹맛이 어떻노?"

"씹맛 보이 좋대요."

"시님 씹맛 봤소?"

자꾸 약을 올리는 기라.

"씹맛 보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인자 이 여자도 과부가 둘인데, 한 사람은 보인께네 그 봄에 묵고 살 끼 없는데, 그 마 그거로 한 분썩 주고 마 상제한테 돈을 쪼깨꿈 얻어가 이상쿠로(이상하게도) 아들하고 살거든.

"니는 어째서로 그래 혼자서러 남편도 없고, 그래 이 봄을 잘 살아 나가노?"

이러 카이까네,

"나는 마 이만큼 이만큼 이래가지고 그래서러 묵고 산다."

카이, 이 여자도 가만 생각하니, '이 빌어물 거, 이거 마 나도 한 번 마 주고, 마 돈이나 쫌 거 하몬 아들하고 이거 좀 마 먹고 살게 안 수월 캤나' 싶어서러 보리밭을 메고 떡 산삐알에(산비탈에) 보리밭을 있으이게네, 한 시님이 걸망을 지고 오다가, 그래 오더만은 마 씹맛 좀 비 줄라 카거든. 그라인께네,

"거시기 맛 좀 봅시더."

이러 카이꺼네, 보리밭에 발가락 벌시고(벌리고) 누워가지고 턱 있으이끼네 마 이 얼매나 그거 했든지 나무 숟가락 가(가지고) 자꼬(자꾸).

[청중: 스님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 경험이 없으니까, 싹 훑아가 빨아 무보이(먹어보니) [웃으며] 영천에 꼬랑내가.

[조사자: 스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 모르이끼네,

"아이고, 씹맛 좋다 카는 그 놈이 미친 놈이다." [웃음]

카민서러, 돈을 그래 얼마나 줬다 카이, 지도 그만치 떤지(던져) 내삐리고 마,

"씹맛 좋다 카는 그 놈이 미친 놈이다."
카민서러, 마 고마 달라 빼뿌더란다(달아나 버리더란다).

[가락동 설화 12]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1)

안순덕(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인자 한 방에 이래 자는데, 아캉(아이들과) 인자 마 장모도 자야 되고.
[청중: 장모도 딸네 집에 오가지고 한 방 자고.]
한 방에 자야 된끼네, 마누라 젙에(곁에) 살살 간다꼬 가이까네. 주우로(바지로) 옛날에는 빤스나 입었나? 이래가 실실 가이까네. 이기 마 장모 입을 실- 거치고 갔는 기라.
각시 찾아 간다꼬 이래 갔는데. 그래 또 각시 자는데 쪼깨 그거 하고, 지 자리 누우(누워) 자러 온다꼬 또 실실. '하이고 우짜꼬, 내가 이짝을(이쪽을) 누워 있은께 날로 입을 시치고 갔는데.' 마 꺼꿀로 또 누웠는 기라. 마 사우 이거는 장모 입이 걸거치나노이, 지도 인자 꺼꿀로 또 오는 기라. 또 오니까 장모 입이 실- 걸거치가,
"하이고 우짜꼬 마, 온 방 마 장모 입이다."
카이,
"아이고 무시라(무서워라) 온 방 사우 좇." [웃으며 중단]

[가락동 설화 13]

단칸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순서

안순덕(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한 부부가 이래 살몬(살면) 아니, 한 쌍썩(한 쌍식) 한 쌍썩, 만약에 이래 방이 한 갠데, 지 저금(제각기) 부부, 두 쌍이나 멫(몇) 쌍이나 딱 한 방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 거울 딱 갖다 걸어 놓으몬 두 쌍은 딱 밖에 나가고. '너거는 인자 일 쳐라.' 이기고. 또 이 사람이 할라 카몬 거울로 딱 갖다 놓고, 그걸 표시라 카데.

[가락동 설화 14]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는데, 그래 인자 엄마가 얼라로(아이를) 보듬고 그래,
"아무것도 동냥을 줄 기 없다."
고 하거든.
"아무것도 줄 기 없는데 뭐를 주꼬."
카이께네,
"우리 봉덕이를 주까?"
이러 캐뿠어. 종을 만들라꼬 인자 철물 이런 거 숟가락이나 이런 걸 인자 얻으러 왔는데, 동냥을 하러 왔는데, 그래 동냥이 줄 기 없다 카이께네,
"하이고! 아무것도 줄 기 없는데, 우리 봉덕이를 주까?"
이러 캤어. 아 인자 아가 조아가주(좋아서) 인자 안고. 그래 놔 놓으니께네 그 스님이 돌아가서 종을 맨드는데, 아무리 종을 맨들어도 종이 안 맨들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언자 그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종이 안 맨들어지고. 종을 만들어야 소리가 안 나는 기라.
그래서 그래, '아무래도 이 종에 대한 어떤 사연이 있을 꺼다.' 캐가지고, 그래 알아보니까 어느 스님이 동냥을 하러 갔는데, 그래 봉덕이를 주까 카는데, 봉덕이를, 봉덕이를 몬 데꼬 왔으니까, 그러이 인자 그때는 국법이 엄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 봉덕이를 데꼬 온나."
캤는 기라. 그래 봉덕이를 데꼬 와서 아를 종에다 옇어가지고 만드니까, 종에서 종을 치니까,
"에밀레~."
카는 종소리가. 어마이가 잘못 해서 그 아가 인자 죽어가이고(죽어서) 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에밀레종. 아마 고 정도만 내가 알고 있어.

[가락동 설화 1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5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아, 옛날에 옛날에 그 밥이 없어가지고 안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 엄마한테 들은 이야긴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인자 참 뭐 뭐 고붓질에(고부간에) 시어마이하고 메느리하고 사는데. 그래 인자 먹고 살 길이 없고 이러니까, 땅을 파가, 옛날에는 땅이 지렁이겉은 게 많았겠지. 지렁이를 파가지고. 할매가 눈이 어둡아, 시어마이가. 그래 인자, 그래서 인자 지렁이 그거를 파가 삶아가지고 그래 국물로 따라가 드리고 이러이께네,

"아이고, 참 맛있다."

캄서, 그 지렁이를 묵고 살아가지고 살이 팡팡하이 찠어, 할머니가. 그래 찠는데, 그래 인자 아들이 탁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막,

"뭐로 묵고 저리치나 살이 찌고 좋아짔는가?"

카이께네, 그래 인자 그 말을 못 하고 뇌성번개가 막 치는데, 메느리가,

"내가 어무이한테 지렁이를 삶아 줬으니까, 나를 벼락이 칠라꼬."

그래 아마 저래 뇌성번개를 치니까,

"내가 바윗돌 있는데 가서, 번개를 인자 벼락을 맞아가 죽을라꼬 탁 인자 가가 있으니까, 그래 바윗돌이 막 벼락을 치가 탁 깨지더만은 금덩어리가 탁 나오더라."

카는 그런.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 효부라꼬. 부모한테 잘해서 효부니까, 효자 메느리. 효부라꼬 하늘에서 상으로 내리가지고 그런 금덩어리가 그 바위 깨져가지고 나왔다 카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우리엄마한테 들었는데, 그건 아마 부모들한테 잘하라 카는 그런 뜻으로 지어낸 이야기겠지.

[가락동 설화 16]

아들의 꾀로 효부가 된 며느리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메느리가 시아부지잔테 너무 잘못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인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인자 아무래도 저거 아부지잔테 잘못하니까, 좋은 꾀를 내가지고,

"요새 내가 시장을 한 분 가보니까 노인네들 파는 데가 있더라."

카는 기라.

"근데 살이 찌고 이 좋아야 팔리지. 돈을 주고 사지. 빼짝 말른 시아부지, 할배는 아무도

안 사."

그라이께네, 그래 인자,

"시아부지를 팔라 카몬, 우리도 팔라 카면, 좀 잘 믹이가지고 아부지를 내다 팔자."

이래 됐어. 그라이께네 그래 메느리가 마 자꾸 해가 잘 믹이께네, 마 살이 찌고 이라이께네, 마 할배가 마당도 씰어 주고, 나무도 딜라 주고, 재도 치 주고 마 이리 하이께네,

"그래 보소 보소, 할배로 사가(사서) 팔아가, 팔몬 사가 가는 사람은 뭘 할라꼬 사가 가는공?"

카이께네,

"아 다른 게 아니고 할배를 사가 가몬 마 심부름도 시키고 마당도 씰고 옛날에 농사 짓는데도 도와주고 나무도 하고 그런 거 한다고 모두 사가 간다."

카더라 카이께네, 아 이 시아부지가 나무도 해다 주고, 마 메누리 안 일어날 때 일어나서 불도 때 주고 마 이라이께네, 가만 보이 참 좋거던.

"하이고 마, 다른 사람도 사가 가는데, 우리도 마 팔지 말고 사가지고, 시아부지로 우리가 인자 모시자."

그래.

[가락동 설화 1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아부지가 아들을. 인자 지게 지고 갔던 거.

[조사자: 아, 고래장 하는 거.]

어, 고래장 하는 거. 그 이야기는 또 가만히 있어 봐 보소. 내 그 줄거리를 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인자 시초로 나는 모르겠네.

[조사자: 그 나이가 칠십이 다 돼가지고 어머니를 지게에 싣고 가는 거부터가 출발 아입니꺼?]

아이지. 집에서 그래 인자 너무 할배가 오래 살고 이라이께네, 묵을 거는 없고 지옥증이 나가이고, 그래 마 아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산에 갖다 내삐리뿔라꼬. 그래 인자 아부지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손자가 따라 가는 기라 촐싹촐싹. 따라 가인께네, 그래 인자 저 산에 갔다가 저거 아부지를 갖다 탁 내삐리뿌고(내버리고) 지게만 지고 마 왔는 기라.

집에 오이께네(오니까) 그 손자가 지게를 받아가지고 막,

“이거를 잘 모시놔야 된다.”

카거던.

“그래 와 그라노?”

카이께네,

“아부지가 할아버지 나이가 되면, 내가 인자 그 지게를 가지고 저거 아버지를 져다 버리야 되니까, 그래 이 지게를 탁 단디 놔둬야 된다.”

하이께네, ‘이거 이래가지고 지도 안 되겠다’ 싶아서 도로 가서 저거 아부지를 참 지고 왔다 카는 그런 이야기도 옛날 할무이들한테 마이 들었지. 그런데 잘 모르겠네.

[가락동 설화 18]

딸 집에 가서 실수한 아버지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어 인자 딸이, 아버지가 참 배도 고프고 이럴 시절인데, 딸네 집을 탁 갔어. 딸네 집을 떡 갔는데, 그래 딸이 잣을 갈아가 죽을 끓이가 주는데 엄청 맛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쫌 더 주몬 좋겠는데 더 안 줘. 근데 그 잣죽이 인자 어데 있노 카면은, 안사돈 방 벽장에 잣죽을 딱 끓이가, 묵고 남은 잣죽을 갖다 옇어 놨는 기라. 여 놨는데.

옛날에는 초가 지붕이 낮아가지고 밤에 자다가 가마이 생각하이 잣죽이 먹고 짚아서 안사돈 방을 살짝 몰래 들어 가가지고, 그래 벽장 안에 잣죽을 탁 훔쳐가지고 들고 탁 나오는데, 사돈 눕어(누워) 자는데 탁 걸치가지고 인자, 다리가 인자 사돈이 이 안에 딱 드가 뿠어. 그런데 상투가 천장에, 못에, 옛날에는 여 초가집에다가 이 못을, 인자 세까래가(서까래가) 이래 보이는데 그 세까래 거게 못이 쳐져가 있었는데, 그것도 순쪼록한(순전한) 거짓말이겠지.

그래 그 못에 상투가 걸린 거야. 상투가 걸리가지고. 자, 잣죽을 놔 뿌면 사돈한테 널찌겠고(떨어지겠고), 또 이거 인자 상투가 걸맀으이 빼야 되는데, 어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래가 커캉 이래 싸인께네, 마 바지가 벗겨져가지고 마 흘러내리뿠는(흘러내내렸는) 기야. 그라인께네 사돈 걸 타고 서서 바지는 흘러내맀고, 머리는 상투는 걸맀고, 잣죽은 보듬았고.

안사돈이 눈을 딱 떠 보니까 바깥사돈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돈이 내를 갖다가 이래’ 인자 안사돈이 생각할 때는 잣죽 때문에 그런 기 아이고, 자기를 탁 걸치가지고, 잣죽을 보듬고 인자 주우는 벗어졌다 그라인께네,

"이럴 수가 있나."
카이께,
"이랄 사돈 있고 저랄 사돈 따로 있지."
카이께네, 자기는,
"그럴 귀이할(귀하게 여길) 사돈 따로 있고 저랄 사돈 따로 있지."
그 잣죽 유죄지, 자기가 그라고 싶은 게 아이다 카는 그런 거.

[가락동 설화 19]

내 복에 산다는 셋째 딸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딸로 서이로 키았는데, 그래 인자 하루는 아부지가 딸 서이를 탁 불러놓고,
"그래 니는 누 덕에 사노?"
카이께네,
"아부지 덕에 산다."
카거던 큰 딸은. 또 둘째 딸한테,
"그럼 니는 누 덕에 사노?"
이케.
"아이고, 나도 아부지 덕에 삽니다."
카거던. 그래 인자 셋째 딸은,
"나는 내 복에 삽니다."
카거던.
"그러면 니가 니 복에 사는 것 겉으몬, 니는 아부지 밥을 묵지 말고 나가거라."
카고 쫓가냈어. 그래 인자 쫓겨 나갔는데, 쫓겨 나가가지고 그래 어디 언덕 밑에 이래가 탁 앉아 있으니까 꺼지, 꺼지가 인자, 남자가 한 개 탁 왔는 기라. 그래서 꺼지하고 둘이서 인자 같이 있게 됐어. 그래가지고 언덕 밑에 거기 자리 잡은 자리니까, 마 여게다가 움막이라도 하나 매가지고 밥을 얻어먹더라도 움막을 하나 매가지고 살라꼬. 움막을 맬라꼬 땅을 파니까 땅 속에서 이상한 쇠 소리가 나는 기라.
그래서 인자 그 쇠 소리를 듣고 자꾸 파니까, 그 속에 마 살림살이, 돈, 이런 기 막 나오는 기라. 그래 그놈을 인자 딱 꺼내가지고 움막을 지가지고 인자, 거서 인자 살림을 차리가지고

사이께네, 땅을 쪼싸가 밭도 맨들고 그래가 자꾸자꾸 부자가 됐는 기라. 그래 저거 아부지카마(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됐는 기라. 그래서 인자 떡 저거 아부지가 참 보니까 마 그 딸이 지 복에 산다 거기 맞는 기라.

그래 인자 참 어느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도인인데, 그래 그 사람이 전생에 참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묻어놓고 전쟁이, 난리가 나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 그래가 그 묻어난 재산을 파내가지고 잘 그리 잘 묵고 잘 살았다 카는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었지.

[가락동 설화 20]

강태공과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강태공은 참 선빈데, 천날 만날 책만 보고, 책만 보고, 강태공은 책만 보고 있어. 이라인께네 마누라는 항상 피밭에 가서 피를 훑어가주고 그거를 쪄가지고 인자 밥 해 묵고 그래 사는 거야.

사는데, 그 인자 하루는 마 비가 와서로 마 강태공을 갖다가 책을 보고 있는데, 마누라가 비가 되게 오는데, 핏방석이 다 떠내려 갔는데도 강태공이 그걸 돌아보지를 안 하고 책만 디다 보고 있는 거라. 그라고 그래 하니까 마누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하고 내가 살아봤자 평상 여지가 없으니까 이놈하고 내가 안 산다.' 카고 강태공을 버리고 가뻐맀잖아.

가고 나니까 인자 강태공은 뭐로 하나 하몬, 낚시를 하는 거야, 강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그래 낚싯대를 바늘을 딱 곧은 바늘을 그 낚시는 오글랑해야 고기가 물 건데, 물고 올라 올 건데, 항상 강태공 낚시는 곧은 바늘로 가지고 낚시를 하는 기라. 그라니까 고기가 낚일 택이 없지. 그런데 맨날 강태공은 낚시 그놈만 강에다 띄아 놔 놓고 인자 있는 기라. '강태공이 곧은 낚수로 문왕을 기다린다' 이러 캤거던. 문왕을. 강태공 곧은 낚수로 문왕을 기다렸다.

그래 인자 그 문왕이라 카는 그 왕이 강태공을 찾으러 완 기야. 강태공을 찾으러 와서 보니까 강태공이 곧은 낚수를 가지고 인자 문왕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인자 강태공을 만나가지고 정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에 나가서 큰, 강태공이 큰 벼실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탁 지내 가는데, 그 들판에 자기 마누라는 그대로 갱피를 훑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마누라를 불렀어. 그래서,

"왜 이때꺼정 이래 갱피만 훑고 있느냐?"

카이께네, 그 사람은 강태공의 마누라가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지 사주가 피만 훑어

묵고 살아라 카는 팔자라. 강태공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더라면은 그 벼슬을 해가지고 그 강태공이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좀 자기가 좋은 자리에 참 부인, 강태공 부인이 됐을 건데, 그거는 피죽만 묵고 살 팔자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 강태공 곧은 낚수 문왕을 기다리고 강태공 마누라는 피밭에 영원히 피만 훑어가지고 묵는 그기 됐다. 훑은 갱피 다시 훑는다.

[가락동 설화 21]

아들 따라 벌거벗고 벌 받은 아버지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인자 가족이 사는데, 항상 아들이 인자 나무를 해가지고 와. 나무를 해가지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질들인다꼬, [청중: 손자가 말을 안 들었어.] 손자가 말로 안 들이니께네 손자를 매초리가 때리가지고 빨가이 뱃기가지고(벗겨서) 바깥에 딱 세아 놨어. 그라인께네 아들이 와서 보니까 지 아들을 빨가이 뱃기가지고 바깥에 딱 세아 놨거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옛날에는 부모한테는 이리 말이라도 한 마디 해가지고 야단 치는 그런 기 몬 하는 시대였지. 그때 시절에는 뭐 어른이 지붕에 소로 몰아 올리라 카몬 몰아 올리야 되고. 뭐 어른이 위주로 사는 그 시대니까.

그런께네 인자 아부지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복수할 길이 없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부지 내 아들 떨유나(떨게 하나) 내가 아부지 아들 떨유나.' 지 빨가이 벗고 저거 아들 옆에 딱 서가 있은 거야. 그라인께네 사람들이 봤으몬 그 모습이 어떻겠노?

"그래, 와 그라노?"

카이께네,

"아버지한테 복수한다."

꼬. 아부지가 내 아들을 떨얐으니께 나는 아부지 아들을 떨라야 될 거 아이라.

[가락동 설화 22]

여우 여동생을 물리친 오빠

정경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그래 그 옛날에 어느 집에 아들을 서이를 낳고 그 인자 부모가 딸을 한 개 낳기를 원을, 원을 해도 딸이 안 낳아져. 그래가지고 아 우째 우째 해가지고 딸을 한 개 낳은 기가 뒷산에 여우가 그 마 죽어가지고, 마 그 할무니한테 딸로서 태어났는데, 이기 마 진짜 여운(여우) 기라. 너무 그래 인자 여우가 사람을 괴롭히고 마 이래 하니까, 그 식구를 마 식구들이 다 잡아먹히뿠어.

먹히고 인자 저거 오빠 한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그래 인자 가가지고 인자 저거 집 한 분와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 여우 하나, 고것만 살아 있는 거라. 근데 마당이캉 전부 쑥대밭이 되고 마 얄궂는 거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인자 이래 가는데, 아, 처음에 인자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참 병을, 병을 세 개, 절에 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 병을 세 개 얻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병은 급할 때 써라."

그런. 그래가지고 걸망에다 딱 옇어가 짊어지고 도망을 가는데, 여우가 인자 막 따라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우가 따라오는데, 인자 이 사람은 말을 타고 도망을 치는데,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두 때 꺼리가 생깄다."

카고 인자 따라 오는 기라. 잡으러 오는데 그래 인자 참 말 꼬랑대기까정 여우가 따라가 가친가친 하면은, 병을 하나 흰 병을 하나 던지니까 물바다가 돼가지고 헤우적 거리다가 물에서 또 건져 나와가지고 또 따라 오고, 또 인자 마 잡힐라 하인께네, 또 인자 그 참 빨간 병을 떤지몬 인자 불이 되고, 그리 인자 불이 돼가지고, 또 불 속에서 안 죽고 따라 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판에 인자 병을 떤지가지고 하늘에서 줄이 내리 와가지고 옥황상제가 태아가지고 올라갔다 카는 그런 이야기.

[가락동 설화 23]

짐승 말을 알아듣는 며느리

정소임(여, 1941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옛날에, 참 이 부잣집 가정에 큰 처녀가 짐승 말로 참 잘 알아듣는 기라. 짐승 말로. 짐승이 무슨 말로 하믄 쥐나 뭣이나 말로 잘 알아듣는 기라. 그래 인자 그래 참 그래 살다가 그래가 처녀가 갤혼을(결혼을) 하게 됐는 기라. 그래 갤혼을 하는데, 참 부잣집에는 말이지 이래 갤혼을 하인께네, 신랑캉 옛날에는 상각도 자고 간다 카대.

[청중: 상각도 잔다.]

신랑 각시 하고, 인자 예를 올리고 밤이 돼 인자 잔다. 아랫방은 사돈이 자고 웃방은 인자 그 뭐 신랑 각시, 신부가 이래 자고 이랬는데, 그래 자다가 마 각시가 막 웃는 기라. 허겉이 웃거든. 그래서 마 이상하이 신랑이 마, '아이고 이거 돌안기나(돌았거나) 무슨 이유가 있다.' 함서(하면서) 마 아릿방에 내리 가가, 사랑방을 가가 저거 아버지를 기어코 가자 카는 기라. 신부가 웃는다면서. 그래 가자 캐가 그래 할 수 없이 아들 따라 갔다. 집에 갔다.

그래 가 있으이 그래 인자 이 사람은 마 첫날밤에 소박당했다고 얼마나 그래 싸캤노? 그래 가만히 저 집에 인자 신랑한테 물으이끼네 그래 카거던.

"그래 처녀가 웃어서러 그래 돌았는가 싶어가 그래 갔다."

이라인께, 그래 인자 처녀를, 그러고로 인자 그때는 옛날에는 해로 묵했는 갑데(해묵이를 했는가 보데). 우리도 해를 묵했다 그제? 그래 일 년을 그 사람이 그래 있는 기라. 그래 있으믄서 그래 인자 시아바시가 하도 기가 차서러 그래가 메느리로 찾아 왔는 기라. 와가지고 그래,

"와 그랬노?"

이래 물으이끼네,

"아부님, 저가예, 짐승 말로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 저 갤혼식 한다고 집 뒤 그게, 솥을 따로 걸어놔 놓고 고기를 한 거 볶아가지고 솥에, 서마지기 솥에다 한 거 해 놨는데, 옛날에는 밖에 솥 걸어가 뭐 안 하나? 그래 인자 그래 해 놨는데 내가 가마히 들으니 쮜가(쥐가) 오더만은 쮜가 천지로 오가지고. 그래 저저 내물라 해도 소두뱅이 닥이이(닫혀) 있어가 절대 못 내 묵거던. 그런께 큰 쥐가 오디만은,

"그래 너거 여기 문(모든) 쥐야 여 다 온나."

이래가지고 이 솥 걸어 논데 야불떼기를(옆을) 물어 뜯어라 카는 기라. 그래 물어 뜯으몬 그래 솥이 찌부러지갖고 인제 솥뚜뱅이 열리거던. 그래 물고 온나 이래 되니. 그래 그 소릴 들으니 억수로 그래가 그래 마 웃었다 카거던. 그러고 싶어 있다가, 그러고로 인자 마 해를 묵하갖고, 가을이 이래 칠팔월, 칠팔월이 되몬 제비새끼 나오나?

[청중: 아이지, 봄이라야지.]

아, 몰라. 그래 인자 으으응 봄에는 제비가 오고, 새끼를 까릴 때, 까리가 날라갈 때. 일 년이 이리 다 돼 가가지고, 그래 인자 메느리로 인자 신행을 할라꼬 인자, 뭐 죄가 없다 카이께네 짐승으로 잘 알아듣는다 카이, 신행을 할라꼬, 그래 인자 딱 날로 받아, 며칠날 신행을 해갖고 이리 하는데, 그래 그때만 해도 춤새에 제비가 새끼를 낳아 났는 기라. 그래 그 새끼 한 마리를 딱 내갖고, 지금은 거 현굴례(見舅姑禮를 말함) 안 받나? 그쟈? 시집 오몬. 옛날에 현구례 카몬 모를 끼다.

제비새끼를 한 마리를 시아바시가 물통에 딱 옇어 낳고, 그래 인자 저 현굴례를 받는 기라. 이리 받으니까, 막 뭇 제비가 와서 조잘거리는 기라. 뭇 제비가 와서 조잘거리싸서, 그래 인자 시아바시가 하는 말이,

"야야 오늘겉이 좋은 날에 와 저 제비가 와서 저러치 저래 우노? 메느리는 그래 짐승 말을

잘 알아듣는다니까 와 저라노 한 번 알아봐라.”

카이께네,

“아버님, 제비가 하는 말이, 니는 자석을 낳아가지고 며느리를 봐가 이리 좋은 일이 이라면서 와 내 자석을 물병 밑에 넣어 놓고 칭가지는(눌러 죽이고) 말아라 카면서 그래 운다.”

카거던. 그래 할배가 그러면 그렇지 무릎팍을 치고 그 메느리로 신행을 해가 잘 사더라요.

[청중: 확인 해 본다고 일부러 그랬는 갑다.]

[가락동 설화 24]

짐승 말을 알아듣는 선비

정소임(여, 1941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어떤 이런 선비가 참 이것도 마 짐승말로 참 잘 알아듣는 기라. 이리 알아 들으먼서 막 이리 막 옛날에 막 그래가 인자, 거랑꾼겉이(거지처럼) 떠다니면서 한 군데는 어데 떡 간다고 인자 댕김서 가이께네 가각질로(뜀박질을) 하고 가이까네, 개가 막 이래 막 허리가 말키(모두) 뭉캐졌는 기라. 허리가. 이리 뭉캐 헐어가지고 그래 있으먼서 여러 오만(온갖) 개들이 마 그래 있으면서 해가 다 지이까,

“지는 집에 가야 된다.”

하거든. 들으니께 개가 개들이 여럿이 있는데,

“나는 집에 가야 된다.”

이러니까 또 젙에 개들이,

“니는 와 갈라 카노. 여기 똥이나 한 무디(덩어리) 주 묵고 있지.”

이라거든. 그러니까,

“가야 될 일이 있다. 꼭 있다.”

카거든. 그래 인자, 그래 개가 인자 저저 뭐꼬 그 선비가 그래 그 개를 잡고 물었는 기라.

“우째서 갈라 카노?”

이래 물으니, 그래 저거 집에 삼대 외동이 있는데, 그래 인자 할매, 아, 증조할매, 할매, 저거 엄마 삼 과부가 살고 있다 하는 기라. 삼 과부가 지 하나를 믿고 살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래 아, 내가 뭐라 카노? 그래 개가 그 한 사람 아들을 하나 보고 살고 있다 카는 기라. 그런데 옛날에 그 집이 억수로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 인자 마 돈 안 있나? 돈. 동전 이 쪼깨난 돈, 이리 맨날 어디 묻어 놨는 기라. 그 돈을. 그래 묻어 놨는데 그 돈에서 사(邪)가 일나

가지고 사가, 사가.

[조사자: 싹이?]

사라 카더라 마. 사가 일나가지고 마 지네가 됐는 기라. 큰 지네가 돼갖고 지불독 만디(지붕 꼭대기) 올라 가갖고, 그래 인자 그 솥 우에 거 있는 기라. 솥 우에 거기 딱 이래 내리다 보고 이래 맨날 거서.

그래 그 인자 그 할배, 아부지 뭐 전부 다 그 지네가 독을 내라가 다 직있는 기라. 야로 인자 만자(마저) 직일긴데, 그래 내가 하도 주인이 그렇고, 야로 직이몬(죽이면) 이 집에 손을 놓겠다 싶어서로 그래 내가 진킨다(지킨다) 캄서러(하면서) 그래 소뚜뱅이만 열면 지네가 딱 안개를 내리는 기라. 독을 내루는데, 그 외동이라고 또 아들을 똑 그 밥을 머이(먼저) 펀다 하는 기라. 그래 지가 소두배이만 열면 건너가는 기라. 건너가이 그 독을 지가 허리다 이래 맞아가 그래갖고 지가 허리가 뭉캐짔다 카더란다. [청중: 그래 지가 막을라고 집에 갈라 칸다.] 만날 지가 머이(먼저) 건너가는 기라.

그래가 인자 그래 싶어서 간다고 인자 그래 그 선비가 인제 갔는 기라. 이리 가인께네 그 집에 가니까, 참 과부가, 삼대 과부가 서이서로(셋이서) 그래 저저 뭐고, 그래 딱 소복을 입고 그래 있더란다. 그래 인자 저녁에 가서 밥을 이래 푸는데, 소뚜배이를 딱 여이께네 개가 풀떡 머이(먼저) 뛰어넘는 기라, 그래 인자 그 이야기를 했는 기라. 하이께네,

"와, 개가 저러노."

물으니께네,

"저놈의 개가 만날 소뚜배이만 열면 뭐이(먼저) 뛰 넘는다."

이러거던. 인자 그 선비한테 주인 할마시들이. 그래갖고 그래 인자 내가 그래 지가 좀 안다 카면서로,

"내가 아이께네 이 집에 천하 없어도 지붕 우에 뭐가 있을끼인께네 그래 내 시킨대로 할랍니꺼?"

이래 할라 하이꺼네 할라 하거던. 과부들 서이가,

"그럼 내일 일꾼들 멫이 하고 저 솥에다 밥을 하지 말고 지름을 한 솥 낋이라."

하는 기라, 기름을. 한 솥 낋이고 그래 인자 저저 뭐꼬 그 일꾼을 해가지고, 그래 저 바로 솥 우에 그 지불독 만딩이(지붕 꼭대기) 거를 파 카거든. 그래 인자 일꾼을 해갖고 인자 그 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인자 밥도 안 하고 인자 그래 인자 낋있는 기라. 지름을 낋이 갖고, 그래 인자 일꾼들이 올라가 거를 파이꺼네 그래 커다란 챙이창겉은 지네가, 거 마 지름통, 그 솥에 지름 낋인 데 그 널찌가(떨어져) 죽는데, 그 죽어뿌고 나이까 지네더란다. 지네.

[가락동 설화 25]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2)

하시영(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신기마을회관]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옛날에는 방이 작고 이러이께네 같이 자는데, 저거 엄마 때문에 자기들이 홍콩 함(한 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기야. 홍콩 가야 별을 볼 거 아인교. 그런데 사실 못 가겠서러(못 가서) 그래 우짜다 보니까 저거 어매가 옆으로 쪼깨 누워서 지가 한번 거사로 시작했다. 시작하니 마 되기 좋는 기라.

좋아서러 지가 막 인자 막 되게 좋다 보니 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힘이 빠질 거 아인가배. 그래 마 다리를 쫙 뻐테가지고(뻗쳐가지고) 하는 기 마, 뻗텐 기 마 저거 엄마 턱에 다 뻗텐는 기라. 힘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마 실컷 자기 볼 일 볼라 카이꺼네, 텍이 인자 이래 받히야 힘을 받제, 체력이 부족하니까.

그래 하이께네 마 인자 마 너무너무 힘드는 기라, 엄마가. 아들이 그라니까. 그 꼬라지 볼라 캐도 으슥한 데다가. 그래 인자 이 아들이 홍콩 갈 즈음 다 돼 가먼서 더 뽄투는(힘을 주는) 기라.

"좋나? 좋나? 좋나?"

이러더만, 이 여자는 마 각시는 좋아가지고 마 너무 좋아가지고, 마 그기 좀 더 연속됐음 좋아서 아무 소리 안 했는 기라. 그래 마 아들은 뻐티서 마,

"좋나?"

어찌 캐사도 안 돼가 엄마가, 시어머이가,

"아이고~ 야야. 좋으몬 좋다 캐라. 니 애미 택(턱) 떨어진다." [일동 웃음]

[가락동 설화 26]

며느리의 방귀 힘

이종연(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시아바이가,

"야야, 니 왜 얼굴이 그래 노랗노? 왜 그렇노? 왜 그렇노?"
카인께네,
"아버님요, 저게 저 배에서러 까스가 못 나와서 이렇습니더."
카이,
"그래 야. 그러믄 뀌라. 얼매든지 니 방구 뀌라."
"아버지요, 아버님일랑 대문 붙잡으소. 신랑일랑 방문 붙잡으소."
그래가지고. 그래 참 방구를 뀐께네, 왔다라 갔다라 왔다라 갔다라 왔다라.
"아유 야야 고만 뀌라. 아유 야야 고만 뀌라."
카더랍니다. 그 얘기지 뭐. 다른 얘기 있습니다. [웃음]

[가락동 설화 27]

고양이 죽인 벌로 아들을 잃은 사람

이종연(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가락동 죽림마을회관]

엄마캉 인제 모자가 살았는데 엄마는 괭이를(고양이를) 좋아하고, 이 총각어는, 아들어는 괭이를 안 좋아해요. 그랬는데 괭이를 한 마리 요래 믹이다가(먹이다가) 그래 아들은,
"어무이요, 이거 공원에 고마 갖다 버립시더."
카이.
"야야, 손 타는 거 그래 버리지 마라. 그래먼 안 된다."
이 카이, 고마 이 아들이가 예전에 오장치라고 있어요. 짚을 가지고 요래 엮어 논 오장치 요런 게. 그다 괭이를 열어가지고 찬찬히 새끼를 가지고 묶어가지고, 돌 고리만 한 개 마 달아가지고 소에다가 갖다 빠쯨더랍니더.
그래 빠쟈(빠트려) 놓으이, 자기 아들이가 둘이 낳거던. 연년상으로 둘이가 장개를 가가지고 낳답니다. 그래 나가지고, 키워가지고, 학교 예전에는 오데 가방이가(가방이) 있었습니까? 책보루 가지고 이래 하고 배에다 이리 걸치고 이리가지고 안 댕겼습니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나불나불 오다가 그 괘내기(괭이) 빠져 죽은 데 그 둘이 빠져 죽어뿌렀거덩. 그래가 어디가 물어도 괘내기(괭이) 동토(동터) 때문에 아가 둘이 죽었다 카더랍니더.

[가락동 설화 28]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김쌍순(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아가 대기(매우) 울어산께네,
"저저 호랭이가 와서 아 잡아묵는다고. 함부로 울지 말라."
캐도 그냥 운다 쿠대. 그 뭐 꽂감을 하나 준께네 아가 안 운다 쿠더나. 아가 안 운께네, 호랭이가 뛰달나면서로,
"아, 곶감 거기 뭣이 그리 겁나노."
카면서 뛰 달난다(달아난다) 쿠대.

[가락동 설화 29]

꼬부랑 이야기

김쌍순 (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꼬꾸랑 할마탕구가(할머니가), 꼬꾸랑 짝대기로 짚고, 꼬꾸랑 개로 탁 쌔리준께네(때려주니까),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하더란다.

[가락동 설화 3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이필례 (여, 1929년생) 구술
2014년 2월 22일 채록
[가락동 통전마을회관]

아들이 그래 떡 엄마 지고 갖다 안자 지고 갖다 내삐린께네, 손자가 따라가가지고 지게로

지고 오거든. 그래 마,

"지게를 와 지고 오노?"

카이께네,

"아부지도 죽으몬 내가 갖다 내삐야될 거 아이요?"

글 카이께네, 할 수 없어 저거 엄매 다부 업고 오더란다.

2. 강동동 설화

[강동동 설화 1]

통시란 말의 유래

강소남(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옛날에는 통시라 했거든. [조사자: 통시?] 어어, 칙간이라 카는 데도 있고, 통시라 카는 데도 있고. 지끔은 화장실이라 칸다 아이가?

근데 통시라 카는 건, 와 통시라 했나 하면은 옛날 사람들 생긴 나오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앞에는 오줌 눈다꼬 세- 하고, 뒤에는 똥 널찌주 변소 빠지는 소리가 통! 한다꼬, 그래 통시라 했거던.

[강동동 설화 2]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1)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이 선비하고 인자 두 부부가 살았는데, 하도 몬 사이께네(못 사니까), 선비들은 옛날에 일로 안 하이께네 그죠? 글 공부만 하고. 그래 살다가 보니까, 한 날은 인자 막 피로, 들에 가서 피로 이래 훑는데 소내기가 되게 오는 거라.

그래 집에 피로 훑어다가, 이래 덕석에다가, 마당에다 널어놓고 갔는데, 그래 쫓아오이께네 피가 다 흘러가 뿠는 기라 소내기 비에. 그 피 그거, 뭐 거 그 다 흘러가뿌렀어.

그래 가만히 이 여자가 생각하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아무리 살아봤자, 이기 이기나 좀 걷어주지 카이, 신랑은 들은 체도 만 체도 안하고 글만 씨고 있고. 그래서 그 질로 여자가 나가뿌릿는 거라. 나가뿌릿는데 [조사자를 보고] 맞나? 그래 나가뿌릿는데, 그래가 인자 이 선비가 그래도 혼차서 마 묵든지 굶든지 어째 해가지고, 벼슬자리로 나갔는데 벼슬을 했어요. 어사로 했는데. 그래 인자 여다 꽃을 꼽고 막 오니, 말로 타고 오니까, 참 부인이 그 또 피를

훑고 있더래요. 딴 가정을 갔는데, 딴 가정에 가서도 복이 없으니까. 또 그래, 또 그 피로 훑고 있는 기라. 그래,

"저게 있는 저 부인은 훑던 쟁피 다시 훑네."

그러 카면서 그 부인한테 갔더라 하더라꼬요, 그 옆에까지. 가서 그래,

"우째서 이래 다시 훑노?"

카이,

"이놈의 복이, 이놈의 복이 무슨 복이라, 무슨 복이라서 이렇습니더."

그라면서 고개로 못 들더라 그래.

[강동동 설화 3]

겨울에 나물을 뜯어온 효녀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계모가, 오동지 옛날에, 오동지 섣달에 죽순이 어디 있노 그자? 그래 또 나물이 오데 있노? 아파 누워서 나물이 묵고 싶다는 기라. 죽순이 묵고 싶고. 근데 이 인자 전처 딸이 그래 산에 나물 뜯으러, 오동지 섣달에 나물 뜯으러 갔어.

아 이거는 계모 아이네, 친엄마다 친엄마. 그래 갔는데, 가가지고 희안하이 나물로, 새파란 나물로 한 소쿠리 뜯어 왔는 기라. 그래 그 나물로, 이 그 엄마가 아팠는데, 그래 그 나물로 인자 데아가지고 문치가(무쳐) 묵고 엄마가 일어났어요, 낫았어(나았어). 일어나가 그래,

"아무것이야, 인자 이 나물이, 오데서 이런 나물이 이 눈구딩이 오데 가서 있더노?"

카이까,

"엄마, 어떤 산에 가이께네, 그래 나물이 한그(가득) 있더라. 새파란 나물이.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그렇더라."

"아 그래. 그라만 니가 명지실(명주실), 명지실로 한 꾸러이 주면서로, 명지실로 내가지고 바늘로 끼가지고 니가 요걸 가지고 가서, 그 나물로 또 뜯으러 가라. 또 뜯으러 가가 명지실, 요 바늘 요거로 그 나물 이파리에다가 요래 끼아놓고 오너라. 끼아놓고 그래가 오너라."

그러이, 그래 또 뜯으러 갔어. 그 명지실은 한없이 풀리, 풀리가 그래 인자 산에 가이, 진짜로 이래 마 한 밭떼기 있는 거라. 그래 그 그 나물에다가 이 나물 이파리에다가 요래 그걸 바늘로 꼽아 놔놓고 그래 왔어예. 뜯어가 왔어. 뜯어가 왔는데 그래,

"엄마, 가이께네 친구가 있더라."

"아, 친구가 있더나?"
"어."
"그래 무슨 옷을 입었더노?"
"우에는 초록 저고리, 밑에는 빨간 처마로 입었더라."
그래,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 했는 기라. 그랬는데 그래 인자 아가 나물로 뜯어가 오고, 그 실을 걷어서 잘잘 가이께네, 동삼이라 카데, 동삼 [조사자: 어, 동삼] 예. 그 동삼을 캐다가 그래 떼부자가 됐다는데. 그 아이에 효심에 그래 신령이 도왔다. 참 못 살았어, 못 살았는데 그래 마.

[강동동 설화 4]

구렁이 총각과 결혼한 셋째 딸[구렁덩덩 신선비]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그 어느 집에 인자 애기로 하나 놨는데, 진짜 구리가(뱀이), 큰 구리로 나았는 기라. 그 구리로 인자 둥지 속에다 이래 놔나놓고 키우는데, 그 구리가 자꾸 큰다 아입니꺼 그자, 그것도 묵으니까. 그래 크는데, 그래 인자 한 날은,
"아이고, 이 내가 자석을 놓는다 카니 구리로 낳았다이."
엄마가 한탄을 하면서,
"저걸 키아가지고 장개도 못 보내고 우짜겠노?"
카이, 그 둥지 속에서,
"내가 아무 부잣집에 셋째 딸한테 날로 장개로 보내주몬 되지."
그래 카더란다, 구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된다. 그기 니가 무슨 소리고?"
그리 말을 인자 구리하고는 통하는가 봐 엄마하고예. 그랬는데 그기 참 우째 말이 인자 이래 연줄연줄 나가가지고, 그 셋째 딸 귀에까지, 그 집까지 들어갔는 기라. 그라이 큰 딸이, 큰 딸한테 어마이가 물었대, 그 딸 엄마가.
"니가 그 아무 집에 그 구리가 우리 집으로 장개 올라 칸단다."
카이, 하이고 큰 딸이,
"하이고, 내가 그 구리한테로 와 시집가노."
그죠? 부잣집이 딸인데.

그래 또 둘채도 그런데, 셋채 딸이,

“내가 가지.”

카더라 카네. 그래서,

“뭐라 카노?”

카이,

“내가 가지. 구리몬 어떻는데?”

그래 카더랍니다. 그래가 그기 진짜 혼사가 됐는데, 구리가 온다 카이 이 새이(형이) 둘은 다 과년한 처녀들이라, 처녀들인데. 그래 첫날밤에 이래 인자 모두 디다 본다 아입니꺼 그제? 옛날에는 첫날밤 모도(모두) 문구녕을 뚫고 디다 봤어.

디다 보니까 아이 이 구리가예, 참 구리로 혼례를 하고 첫날밤을 채맀는데, 방에 들라나놓이 이 구리가 이 사람이 되는데 홀랑 벗어뿌는 기라. 근데 마 아주 미남으로 마, 아주 금자로 인자 사람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 새댁이로, 마누래로 맞이하는 기라. 그러이 이 마누래도 얼마나 좋노 그자? 그래 인자 그 둘이가 연이 됐는가봐예. 그러니까 그 허물로 그서 벗고, 그래 허물로, 착 벗은 그 허물로 이 남자가, 신랑이 차곡차곡 개가지고 마누래로 주더랍니다. 마누래로 주며,

“절대로 이 이 허물로 당신이 가지되, 절대로 잊아뿌지마라. 함부도록 놓지 마라. 절대로 잊아뿌몬 나를 못 만낸다.”

그래 당부로 하고 마누래한테 그날 첫날밤에 맡깄어. 맡기는 걸 배겉에(밖에) 여여 여우겉은 언니들이 들었는 거라. 들어가 ‘아이고, 내가 갈걸, 저랄 줄 알았이몬 내가 갈걸, 니가 갈걸’ 그래 둘이가 마 배겉에서 실랭이를 했는 기라.

그래가 참 첫날밤을 치루고 쫌 이래 있는데, 과개할 운이 있어가지고 과개 하러 서울로 갔는데, 신랑이 서울로 보냈는데, 신랑이 돌아올 줄 모르는 거라. 근데 이 언니 둘이가 그걸 어째 찾아가지고, 그 허물로 찾아가지고 태아뿠는 거라.

태아뿌이(태워버리니) 이 남자는 가서 그 질을 잊아뿠는 기라. 이 과거를 다 잊아뿌리뿌고(잊어버리고) 모르는 거라. 내가 이 오데다 누구를 두고 왔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래가 과거를 보고 벼슬로 하고 그래 어느 고을에 인자 또 큰 부잣집에 큰애기하고 결혼을 해가 사는 거라.

근데 세월은 많이 흘러 몇 삼년 이래 흘러 지내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자는 아무리 있어도, 인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이 허물, 자기 신랑이 주고 간 그, 참 보물 중에 보물인데, 그 보물로 찾아보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라예.

“아! 내가 이걸 실수를 했구나. 이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못 오는구나.”

그 질로 머리로 깎고 바랑을 짊어지고 중이 돼가지고, 집집마정 고을마정 동냥을 하러 댕기는 기라. 톡탁톡탁 뚜드리면서 고을마정 댕기다가, 그래 어는 고을에 탁 들어가니까, 이래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래서 오는 저 오데 외처에서 완 선비가 벼슬을 해가지고 어느 고을에 이런 말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이래 모여 앉으이, 그래 들으니까, 그 선비가 인자 벼슬로

해가지고 어떤 큰애기한테 혼인을 해가 잘 산다꼬 그런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어오는 기라.

그래 그렇다 싶어가, 신랑은 그걸 몰라. 그래 인자 질을 모르니까네, 그래 인자 그 집에 들어갔는 기라, 또 뚜드맀는 기라. 그래,

"동냥을 하러 왔다."

카이, 그래 밑, 인자 자리에다가(자루에다가), 뭐고 밑구영을 안 집고 밑구영 없는 자리에다가 좁이로, 좁이쌀(좁쌀)로 줄라 카는 거라. 쌀로 줄라 카는 기 아니고. 좁이쌀로 줄라 카는 기라. 그래 좁이쌀로, 멋 모르고 좁이쌀로 참 한 바가지 퍼다가 턱 부어 주이 주루룩 다 흘러뿌고. 그래 흘러뿌서 그걸 그것도 손으로 씰어도 안 담고 나무저까치로(나무젓가락으로) 한 올썩 한 올썩 주아 담는 거라.

그래 주아 담으니까, 그러다가 보이 내가 아침에 갔는데, 해가 져도 이거는 그냥 있고 요거는 주안지(주운지) 얼마 안돼. 제까치로 주어 담아가 얼마다 주아 담노? 그러다가 보이 자기 신랑을 만냈는 거라.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선비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라. 그래 인자 이래 좋으니까, 지내, 들어가다가 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막,

"오시느냐고, 대감 오느냐?"

카고 인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내가다가 휙 돌아보이 자기도 그때 깨치지는가봐. 그래서 휙 돌아보면서 돌아보이 뭔가는 맘이 이상해졌는 갑지, 인자 그 선비도. 그래서 이래 떡 쳐다보니까 맘이 이상해져서 그래 그,

"그게 있는 그 부인은 무엇을, 무엇을 하고 계시오."

그래 물으이까, 그래 이 부인이,

"이 좁이로 줍고, 주아 담고 있습니다."

좁이로 줍는데, 손으로가도(손으로도) 안 줍고 손가락가도 안 줍고 제까치를, 나무제까치로가 하나씩 주아 담으이 뭣이 붓겠노, 그쟈? 그래서,

"그것을 어찌하여서 손으로 안 줃어 담고 제로(젓가락으로) 줃어 담느냐?"

[청중: 신랑 만낼랄고 그랬다.] 그라이께네, 그래 인자 그래 해가지고, 그 인자 선비가,

"고개를 들어보시오."

이거 와 고깔, 고깔모자로 이래 썼는데,

"그 고개로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맘은 좀 이상하이, 이기 왔는데도 그래 그때는 이기 내우라(내외라) 카는 기 많이으께네, 그래 고개를 이래 드니까,

"이거 벗어라. 고깔로 벗으시오."

고깔로 벗으이까 자기 부인인 기라.

그래서 그 쫓아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 여자 손을 잡았더라고예. 그래 손을 잡고, 그래 인자 그 과거로 인자 다 알아. 그 내 허물로 다 태았다 카는 그거를 알았어. 그래 그 부인을 정실부인을 삼아 됐고요? 그래 그래가 잘 살았다 그래요. 순 거짓말이지. [일동 박수]

[강동동 설화 5]

구슬로 혼을 빨아먹는 구미호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그 아이가 말라 죽더라고요. 구슬로 입에다 옇어주만(넣어주면), 그 정기로, 야(아이) 정기로 내가 다 빼 묵는 거라. 내가 다부 받아먹는 기라. 입 맞추는 거 한가진데, 입을 맞차야 이 구슬이 입에 드가지 그죠?

입을 맞차가 구슬로 빼가지고 옇어주다가 그걸 다부(다시) 받는 거라. 다부 내가 받는 거라 입을 맞차가(맞추어). 받으면 그 구슬이 그 아의 정기를 전부 내가 빼가 오는 거라. 그러몬 내는 성장하고 니는 죽는 거라. 골아 죽는 거라.

[강동동 설화 6]

도깨비와 살다가 부자 된 여자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우연히 이 토채비로 만내가지고 여자가. 처년데 토채비하고 사는 거라. 토채비하고 사는데 아주 잘 살아요. 은금보화가 많으이께네. [청중: 토채비 만내몬 부자된다 쿠대.] 부자랑 이래 사는데, 그래 사는데 애비는(야위는) 거라. 자꾸 야벼져. 그래 인자 올키가 인자, 친정 올키가,

"어무이, 어무이, 애기씨가 자꾸 애비집니더. 저거 우짜몬 좋습니꺼?"

"그신(그렇게) 말이다. 우짜몬 좋겠노?"

인자 뭐 무슨 그기, 토채비로 우째 쫓겠노 그죠? 근데 토채비 인자 그랬는데, 그래 올캐가 시누한테 가서,

"애기씨야, 이래 이래 있지 말고, 니가 자꾸 애빈다. 니가 살아야 안 되나?"

그라이께네 그래,

"그럼 내보고 우짜라꼬?"

마 부러울 거 없이 해가 살아요 마 어리둥길(어리둥절). 그래가 마 그래 내가 우짜라꼬.

"그라면 토채비한테 제일로 겁나는 기 니가 뭣인가 물어봐라."

그래 오늘 저녁에 오거들랑, 밤에만 오는 거라 토채비가. 그래,

"온(오늘) 저녁에 오거든 함 물어봐라."

그래 인자 완전한 사람이라요 밤에는. 사람으로 변해가 오니까. 그래 그래 인자 자면서러 인자 물었어.

"니는 뭣이."

애기씨 보고,

"니는 뭐가 무십노? 하면 은금보화가 무십다 캐라."

그래, 그래가 인자 이야기를 하고 이래 있은께, 이야기를 하다가,

"보소, 보소, 당신은 뭐가 제일 무섭소?"

"나는, 안 할란다."

그래,

"아이 해보소."

인자 이래 달개가지고(달래가지고), 인자 안 할라 카더래요. 그래서 자꾸 달개면서,

"함 해보소. 해보소."

"나는 제일 말피가 무섭다."

"말피가 와예?"

"나는 말피가 제일 무섭다. 니는 뭐가 무섭는데?"

"나는 은금보화가 제일 무섭소."

은금보화가 무섭다 카이,

"그래, 별것도 아인 거 무섭네 니는?"

그래, 그래 카고, 그래 자고 나갔어. 나갔는데 그래 올캐가 와서 물으이께네 말피가 무섭더라. 그래가지고 고마 말로 잡아서 말피로 마 전신에(전부) 종이에다가 묻히가 마 대문에고 오데고 전부 담에고 마 들어오는 골목에다 다 붙이놨어. 아 밤에 들어오이 마 몬들어오는거라 말피 때민에. 그래서 토채비가,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여도 말피네, 저도 말피네."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는 기라. 못 들어와가지고 해창을 치는데, 내 밭에 일하면서 한 번썩 그래,

"아이고 동네사람아, 한 품에 있던 여자라고 믿지 마라."

카는 그 소리를 한 번썩 한다, 그래,

"한 품에 드는 여자라고 믿지 마라 이 사람들아, 동네사람아!"

카고 그라더란다. 그래 [조사자: 도깨비가?] 어 도깨비가. 그래 카디만은 이놈의 마 오데가디만은, 마 참 은금보화로 마 갖다 마 담너머로 넘가 재치는데 그라만,

"아이고, 무섭아라."

하고 쫓아 들어가고,

"아이고, 무섭아라."

카고, 여자가 쫓아 드가고. 근데 은금보화는 못 가져가더라 카대. 이 여자가 무섭다 캐나놓으이 캐네. 무섭아가, 니 무섭아가 몬 살아라꼬. 그래가지고 안 오가지고, 이 집에는 부자 되가 사는데, 토채비는 도와주면은, 그 내가 그거 해준 그거로, 배반을 하면은 땅을 사줬으면 땅 그것도 파가 간단다. 구딩이로 판단다.

[강동동 설화 7]

산신령이 돌보아서 살게 된 며느리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하다 조왕이 찌릉내가 나서 못살겠는 기라. 조왕에, 옛날에. [조사자: 조왕에?] 조왕, 조왕, [조사자: 부엌에 조왕.] 부엌 조왕. 그래서 하다하다 춥어서 인자 만날 이 여자가 나오만, 고마 마 부섴(부엌) 앞에 와서 오줌을 잘 누는 거라. 누고 들어가. 칩어서 그러다가 그래 조왕이 산신한테 산신을 불러서,

"산신아, 산신아, 내가 찌릉내 나서 몬 살겠다. 니 우리 저 여자 저거 우리 집에, 여자 저거 좀 잡아가라."

그래 시키 놨는 기라.

"그래, 그럼 내가 함 보지."

그래 인자 그 날 또 오줌 누러 나왔는 기라.

"아이고 춥어라이."

궁디를 감싸면서,

"아이고 칩어라. 아이고 우리는 방에 자도 이래 칩은데 뒷동산 신령님은 얼마나 칩겠노. 저 칩은데."

그래카면서 궁디를 까고 오줌을 누. [웃음] '저 여자가 저기 아이고, 너무 칩고 오줌 누러 나갈 수가 없으이 부섴 앞에 눴구나, 아 그기 아이구나.'

"이 사람아 자네가 잘몬했다. 그 좀 살구로 해주지."

"아침마정, 아 밤마정 와서 오줌을 누면 찌릉내가 나서 몬 살겠는데 내가 뭐로 저 돌봐주겠노?"

그러 카이께네, 그러 카더란다. 그래서 뒷동산 신령이 돌봐도 돌봐야 된다 안 카더나. 그래가 참 우째 좀 돌봐주놔놓으이 잘 사는 기라. 집을 새로 짓고 마 잘 해놔놓으이 요강도 사고

해놔놓으이 다시 조왕 부섴에 와서 오줌을 안 싸는 기라.

"봐라, 이거는 찌릉내 나나?"

카이,

"오 찌릉내 안 난다. 요새는 찌릉내 안 난다."

"그래 진작 좀 돌봐주지, 와 그랬노?"

그래 뒷동산 신령이 돌봐도 돌봐야 산다.

[강동동 설화 8]

여우 여동생을 물리친 오빠(1)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메구도 부잣집 딸이잖아. 막내딸. [조사자: 어떻게 됐는고예.] 막내딸인데. 아들이 삼형제든가? 그러고 저거 집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부잣집이라. 부잣집인데 딸 이거로 마 참 귀하게, 아들 서이구만 그거로. 그래 키았는데, 그래가 이래 있는데, 참 재미나게 부자로 잘 살아.

잘 사는데, 어느 날부터인고 마굿간에 말도 죽아뿌리고, 소도 죽어뿌리고, 그런데 이상한 기라. 아무 상처도 없이 마 죽어뿌리고 죽어뿌리고. 그러는데 그래가 고마 이 집에 인자 마 절단이 나는 기라. 고마 마 사람도 뭐 그러이께네 자꾸 살림이 망하니까 식구들도 종들도 머슴들도 나가고 그래 사는데, 큰오빠가 한 날 밤에 '행여나 저 말 한 마리 남았는데, 저거 인자 마저 죽이뿌면 진짜로 안 된다.' 이래 생각하고, 나가가지고 이래 이래 망을 봤어. 망을 보이 아 참 별당 안인가 어데 안에서 딱 여동생이 딱 나오더란다.

여동생이 나오는데 복살로 세 번을 할딱 할딱 뛰넘더라 카네. 그러고 나이께네 머리가 화~악, 옛날 처녀들 다 머리 땋았다. 머리가 화~악 풀리는데 소백이 딱 됐더래. 소복을 딱 하고 신 질로 정지 드가더만은, 그 옛날에는 나무통, 그릇 씻는 통을 기문통이라 카거든. 나무로 가이고 요래 다라이 같은 거 만들어 난 거 있어요. [청중: 요새 다라이 같은 거로.] 나무가 맨들어. [청중: 기문통이라 캐.]

그래 거 가디만은 마 손을 싸~악 씻는 거라, 손을. 손을 싹 씻더마는 마 신 질로 마굿간을 쫓아가거든. 그래 사살(살며시) 따라가 보인께네 마굿간에 가디만은 마구가, 말이 마 어흥하거든. 그래 하이께네 마 언제 날쌔게 그 마구 저게 말 속에다 손을 고마 똥구딩이다 잡아옇가지고 간을 싹 빼내뿌는 기라. 그래 간을 빼내뿌이까네 이 말이, 짐승이 상처 안 나고 죽어뿌리는 거야. 그래가 인자 그래 싹 내디만은, 맞 고마 마마마 다 뜯어 묵는 거라. 그래 뜯어

묵더만은 입을 싹 닦아뿌리고 복살 세 번 넘어뿌이께네, 본래 모습을 해가지고 방으로 드가뿌는 기라.

그래 하 분명히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쟈? 우리 식구들은 몰랐다 이래가, 그래 그 이튿날 아부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

"아부지, 사실은 우리 집에 큰 일이 있습니더."

그래,

"무신 일이고?"

그래 인자, 다 사람들로, 우리 둘이만 인자 부자간에 앉아서,

"사실은 동생이 아무것이가 어떻습니다."

그라이,

"이 놈우 자석이 동생 하나 있는 걸로 갖다가 여동생 하나 있는 거로, 여동생 하나 있는 거로 그걸 몬 없애서 니가 그런 음해를 입히냐?"

고, 인자 막 나가라고 막 난리를 치거든. 호령을 받았다. 받아가지고, 어는 그 오데 가서 어떤 도사한테 가서 물었는 기라.

"도사님 사실은 우리집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다 이야기로 하니까, 도사가 그래서 인자 병을 세 개로 줬는, 파란병, 빨간병, 또 뭣이더라? [청중: 노란뱅이지.] 노란병. 모르겠다 마. 노란병이라 캐라. 그래 세 개로 주면서,

"아주 급할 때게(때에) 인자 병을 하나 돌아보고 떤지고 도망가라. 도망을 가야 니라도 살지, 도망을 안 가만 니도 죽는다. 어서 도망가라. 그 질로 니 이 질로 집으로 가면 안 된다. 바리 가라."

그래 인자, 그 질로 도망가는, 막 도망가는 거라. 도망을 가는데, 그래 도망을 가다가 참 오데라꼬 천지도 없이 지향도 없이 도망가는 거 아이가? 도망을 가니까, 그기 말이 한 필이 있었더라. 오빠가 말을 탔더라고. 말로 타고 도망을 가는데, 아~ 도망을 간 게 아이라, 그때 그랬는 기 아이라 오데 갔다가 이 나갔다가, 이 오빠가 집에 들어오이 이래 이걸 봤어. 집에 돌아가 집이 다 망해졌어. 근데 여동생은 팔팔하고 엄마 아부지는 행핀(형편) 없고.

그래 나갔다가 들어오이 이래서 그래 인자 구제를 받는 거라. 그래 도사한테 가서 물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다꼬 우째서 이렇는가 싶어서 보이 인자 말이 그래 됐는 기라. 그래서 말로 타고 들어왔더라고예 오빠가. 말로 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어서 가거라. 니는 어서 가야 살지, 니도 몬 산다. 너거 집은 쑥대밭이 된다."

그래. 그때 인자 막 가는 기라. 도망을 가는데 말로 타고 가이. 그거 이 여동생이 참 매구라. 알아가지고 쫓아오는 기라. 그래 쫓아오니까 푸른병을 떤지니까 물이 되고, 빨간 거는 불이고, [조사자: 가시덤불인가?] 까시덤불이 하나 있더라고. 그기 이 노란병인가 내 모르겠어. 그래서 인자 물은 제일 뒤에 떤짔는가 봐. 그래가 인자 돌아보고 까시덤불 노란병을 던지뿌나놓이 확 변해가지고 마 온 이 오는데, 내 뒤로는 전부 까시덤불이 돼가지고 그래 인자 그래가 도망가는 기라. 나는 도망가는 기라. 나는 이상없고 내 뒤에만 그러이.

"오라비 하나 말 한 필, 두 땝꺼리 생깄는데. 두 땝꺼리 생깄는데."

카면서, 마 죽기 살기로 그 흐적거리고 그래가 쫓아 따라와요. 그래 그 가시덤불 다 헤치고 따라왔어. 따라오는데, 그래 인자 돌아보고 인자 빨간병을 떤지뿌이 불이 확~ 나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따라오더라 카네. 매구가, 여동생이. [청중: 얘기는 있대,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두 땝꺼리 놓칬다고.] 두 땝꺼리 생깄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막 오는 거라. 오는데 그 인자 불 속에서도 인자 히이가(헤쳐) 나왔는데 난제(나중에) 안 되니까 가칭가칭 하이께네 돌아보고 푸른 거 그거 떤짔는갑데. 그런께네 물바다가 됐뿌니까네 물에서는 몬 이기더라, 몬 따라오더라 카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단다. 근데 저그 집은 아버지도 엄마도 전부 다 잡아무뿌고 없어. 오라비도 다 잡아무뿌고, 전부 다 잡아무뿌고 없어. 그래 메구가 그래 무섭더라.

[강동동 설화 9]

빗질해서 손님 쫓고 망한 집안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부잣집인데 손님이 참말로 몬 살아. 손님이 많애서. 그래서 그래 참 어느 도사가 이래 언자 시주하라고 왔는데, 그래,

"도사님요, 도사님요, 나는 집에, 우리 집에 손님이 너무 많애서 몬 살겠다. 이 손님 좀 안 오구로 해주이소."

카이,

"내 공양은 얼마든지 주꾸마."

그라니까, 참 기가 찬다 아이가 그쟈? 손님 많은 기 얼마나 좋은 긴데. 그래,

"그래요?"

그라면서, 그래서,

"당신이 아침밥 딱 묵고, 상 딱 옆에 딱 놔나놓고 내다보고 머리 삣어라(빗어라)."

[조사자: 아, 밖을 내다보고?] 어. 밖을 내다보고 머리를 삣어라. 아침 딱 묵고 나몬 무조건 하고 상을 옆으로 내 놓지 말고 옆에 밀치 놓고, 이 머리를 삣어라. 그럼 알도가(알 도리가) 있을 거다.

근데 한 그기 그래도 한 이삼 년 걸리던가봐요. 그래 쌀로 얼매나 퍼다주뿌고. 그랬는데, 그기 와이고 세상에, 글로 마 그래 돼서. 마 머리 삣고 또 내 놓고, 밥 먹고 머리 삣고 이랬

디만은, 아 손님이 자꾸 떨어지는 기라. 근데 손님만 떨어지는 기 아니라 내 재산이 가는 거야. 살림이 없어지더래. 그래서 삼 년을 삣고 난께 내가 물(먹을) 밥이 없더란다. 그만치 내다보고, 그래 내다보고 머리 삣지 마라 그 소리라.

[강동동 설화 10]

신랑에게 맞고 사는 팔자 벗어나기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신랑이 하도 때리사서, 어찌 뚜드려패는지 실컷 돌아댕기고 놀다가 오몬 뚜드리 패고 뚜드리 패서, 그래 여자가 도망을 갔어. 한 날은 안 돼서 도망을 갔어. 도망을 보따리 달밤에 도망을, 어서 달밤에 도망을 가가지고 보따리 옆으로 끼고 떡 가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 따라오더래. 저기 무슨 사람이 내 따라 오노 싶어서, 그래 가다가 인자 돼서(힘들어서) 바위 우에 앉으면서, 그래가지고 인자 바위 옆에 앉으니까, 이 사람이 턱 내 옆에 앉더래.

"그래 보소 당신은 누군데 내 따라오요?"

"당신 팔자지 누구라."

"뭐라고요?"

"당신 팔자."

그래서 내 팔자. 내가 오데로 가도 내 팔자. [조사자: 따라다닌다.] 그래서 다부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인자 이놈의 팔자가 따라오니까, 내가 가도 또 뚜드리 맞는 거라. 그래서 다부 집에 와가 이래 있으이, 참 그때도 도사가 인자, 중이 그래 와서 시주하라 하는데 그래 그걸 하니까, 그래 인자 하니까, 도사한테 가서 물었어,

"보소, 보소, 시주요. 도사님요. 내는 신랑한테 맞아서 내가 못살겠다."

사는 거는 괜찮은가봐예.

"어찌하면 내가 이 매를 면하겠노?"

그라이, 그래 당신 얼굴을 딱 쳐다보디만은,

"과거세에 당신은 마부였고, 당신 신랑은 말이었다. 근데 말이, 마부가 말로 얼마나 때맀겠노 그죠? 가자꼬. 그래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당신이 마부였으니까 말로 얼마나 때맀겠노? 당신이 말 때린 거만치 때리고 나몬 당신 신랑이 안 때릴 거다."

"그게 언제냐?"

그 없다아인교 그죠? 그래서,

"그라면 어째 해야 하노? 방법이 없나?"

"있죠. 그라면 말 꼬랑댕이로 열 개로 묶우라"

카더랍니다. 빗자리로 매라 카더래.

"열 개로. 말 꼬랑댕이 열 개로 묶아가 둘둘 이래 말아가지고 그 신랑 들어오는 손 제일 먼지(먼저) 가는 데 퍼뜩 가는 데 그다가 옛날 집이 뭐 있나? 문 힐떡 열몬 그, 그 요 세아 놓으라."

그래. 그래 마 참 돈이 인자 좀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 말 꼬랑댕이로 열 개로 구해가지고 묶아놔놓으이, 와서 막 탁 문 열디만은 고마 눈이 둥글둥글 하디 확 이걸 말 꼬랑댕이 그 빗자리 매난 그거를 잡디만은 와가 고마 뚜드리 패더래 마. 실컷 두드리 맞았대. 맞고 나이 고마 훌쩍 던지뿌더래. 그래서 얼마만치 맞고 나이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뚜드리 패더래. 뚜드리 패더만,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카면서 문을 헐딱 열더니, 말 꼬랑댕이 그 빗자루 내삐리뿌더라. 그 질로부터 안 때리더래요.

[강동동 설화 11]

신랑 코로 드나드는 뱀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어느 사람이 딸만 서이고 아들이 없어 양개아들로(양자 아들을) 얻어놨는 기라. 얻어놨는데 인자 아들을 얻어가지고, 손자를 보고 이래 아들 서너씩 되고 이렇는데, 그래가 사는데, 그 엄마가 아들로 나가라 카는 기라. 비가 장대같이 오는데, 봄인데, 그래,

"엄마, 비라도 피하고 가꾸마."

이 딸 때문에 몬 있는 기라. 딸 서이한테 쪼짝 거리가 인자 아들이 쫓기 나가는데, 그래,

"엄마 이 비라도 피하고 가자."

그래 하이께네,

"그것도 필요 없고 인지(지금) 나가라."

그래가 아들 서이로 데리고 인자 다섯 식구제. 그래가 안자 나갔는데, 질로 오도록(어디로) 인자 마이 갔어. 마이 갔는데 해가 꺼무룸하이 지는 기라. 지는데 어느 인자 논 가새(논 옆에) 오데 논막 같은 그런데 허물한 집이 있어서, 거 드가서 인자 비를 맞고 인자 갔는데, 그 비도 피하고 또 조금 쉬가 가자 이래가 드갔어. 드갔더만 그래가 있는데, 자는데 자니까,

"하이고, 니 내가 좀 귀라도 좀 한 문 히비 봐라(후벼 봐라)."

카메, 옛날 사람들이 상투 꼽으니까, 귀라도 좀 히비라 카고 마누래 무릎을 이래 비고 누웠어. 누워서 잠을 자고, 아들도 잠을 자고 묵는 거는 없고 묵을께 없으이. 그래가 신랑 코에서 귀를 히비고 이래 있으인께 신랑 코에서 실뱀이가 소르르르 나오더라 카네. 나오더라 카네. 그래서 초로로로 나가더란다.

아따 싶어서 신랑을 살 눕히놔놓고 실뱀이 따라갔어. 실뱀이를 떡 따라가니까, 아 마 논질로 논 질로 막 가는 기라, 논 질로 논 질로 오데. 진짜로 참 그도 허무룩하이 인자 논막 비슷한데 그런 막이 하나 또 있더래. 그래 떡 가이께네 요 인자 문이 있으니까, 요래요래 사티(하더니) 문틈으로 요래 드가뿌는데 그 문을 열고 드갔데. 이래 문이 있는데.

그래 거 드가니까 드가니까 보이께네, 그 이래 널이, 널이 이래 커담한(커다란) 널이 하나 있는데, 널새 거 드갈라꼬 실뱀이가 요리 갔다 조리 갔다 막 요라더라네(요렇게 하더라네).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이께네. 고 인자 틈이 인자 오래 됐으니까, 틈이 있은께 틈새 쏙 드가뿌더라 카네. 그래 그 틈에, 진짜 이 틈에 우리 신랑이 요 들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틈에 요 송장이 들었는가 싶어서 뜨껑을(뚜껑을) 여이까네, 금이, 금이 고마 마 한 널에 들었더란다. 그때는 그걸 생금이라 카더라고. 금을 인자. 하 그래서 고서 그 실뱀이가 나오더래. 나오더라요. 그래서 따라오이께네 졸졸졸졸졸졸 가디만은, 마 저거 신랑 코에 쏙 드가 뿌더라네. 그러고 나이께네, 그러고는 앉아가 쳐다보고 있으이께네,

"아 한숨 시원하게 잘 잤다."

이래 그래,

"잘 잤는교?"

"응."

"당신 오데 갔더노?"

"화아 그 그래, 희안하다 내가 꿈을 꿨는가 기이하다."

"그래 뭐가 기이하는교?"

"괴상하다."

그래 뭐 자꾸 물어, 그래 다잡고(다잡아서) 자꾸 물었어. 자꾸 물으니까,

"그래 그기 아니고, 거 가니까 오데로 내가 들질로 어들로(어디로) 갔는 겉는데, 꿈인데 널이 있는데 널 속에 금이 있더라. 금이 있더라."

"그래요, 맞소. 금이 있소."

그래가 그 금을, 가서 좀 인자, 없으이께네 밥 해 묵을 것도 없는데, 금을 가서 빌 여게도(여가도) 없고 쪼깨이 띴어. 신랑을 데꼬(데리고) 갔어. 데꼬 가가 금쪽을 요래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팔았어 장에.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래 인자 쌀도 사고 뭐 묵을 거 아들 물 것도 사고, 살 집은 요래가 요래가 참. 그래서 그서 밥을 하고 인자 나무새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제로 지냈더래. 제사를 지내고 고맙다고 하고 난 뒤 그 금을 갖다가 인자 파이 떼부자가 되죠 그죠? 천지 제일 부자라. 그 사람이 고 시간에 부자 될 그기 있었는 가봐. 고거를

못 넘긴께네 엄마가. 이 또 누나들이 쫓아내는, 쫓아내구로 만들어가, 그래 나가가 그 부자가 됐다고. 그래도 그 엄마 찾았다 가서. 그 덕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그래 가서 부자가 됐다 팔자로 잘 살았다 카더라꼬. 거짓말이지, 순 거짓말이지 옛날 이야기.

[강동동 설화 12]

큰사람이 못된 아기장수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애기로 놨는데, 그래 이기 얼마나 가난했던고, 탯줄 끊을 가위가 없어가지고 갈대, 갈대밭에 갈대 그걸 끊어가지고 탯줄로 끊었다 카대. 탯줄로 끊어가지고 놔놨는데(놓아 두었는데), 그래 이 언자 이 그기 궁전이라 캤나, 궁전이라 캐야 되나? 그게서 천기, 천기 보는, 보고 뭐지리 모도 박사들, 이런 박사들이 있잖아 그제?

근데 이래 하늘로 쳐다보디만은 어떤, 저게 뭣이고? 일기를 탁~ 보더만, 천기로 보더마는, 아 무슨 고을쯤에서 장군이 났다는거죠. 장군이 났다 캐가지고 큰 인물이 났구나 이리 하는데, 인자 옆에서 모도 보고 듣고 인제, 근데 이 사람은 본래 그 천기 박사들이 되나놓으이, 요새 카먼 박사들인 기라, 그랜께네 그랬는데 그 고을, 인자 그래 있는데, 큰 사람이 났다고 인자 했는데.

이 엄마가 물로 이고 마, 아이가 방바닥에 없더라 카대. 아이가 천장에 붙어다 카대. 천장에 붙었다가 벽에 붙었다가 지 맘대로 까늘아가(갓난아기가). 여 갔다 저 갔다 이라는데, 그래,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그래 턱 내리면서,

"엄마, 내가 만약에 나를 잡으러 누가 올 건데, 누가 오면, 절대로 내가 날로 안태 끊을 적에 뭣가 끊었다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라. 안태 끊을 때로, 뭣가 끊었다 소리로 절대로 하지 마라."

[청중: 안태 끊을 때 뭘로가 끊었다꼬?] 갈대. 갈대 끌티기. 갈대 끌티기 가지고, 갈대 이래 치고 나몬 끌티기 참 날카롭다 카대. 그래 그거 가지고 인자 이래 이래 했는데,

"엄마 절대 그 말만은 해주지 마라."

이랬다 하네.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구로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아 진짜로 찾으러 왔는데 우리 아는 없는 거라. 이 아는 없어.

"내가 만약에 없어져도 엄마가 놀래지 말고 절대로 고것만은 비밀로 해도고."

인자 했는데, 아 잡아다가 워낙 종치니까, 워낙 때리고, 마 오만 소리 거짓말로, 오만 거짓말로 다하고, 다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뭐 삽으로 끊었고, 뭐로 칼로 끊었고, 뭐로 땅을 파니까 땅이 안 파이는 거라. 삽으로 가지고도 땅이 안 파이. 그 그래 인자 묻힌 자리꺼정 아는 거라 이 박사들이.

그래가 파이(파니), 뭐시 파이야 우짜지 그쟈? 아이라꼬(아니라고) 또 때리고, 아이라꼬 또 때리고 마 무슨 연장이 가도 여는 땅이 안 파이는 거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매에 몬 이기가지고,

"갈대 가지고 끊었다. 갈대 가지고."

갈대 끈티기 가지고 땅을 파이 퍽퍽 파이더라 안 하나.

그래 쪼끔만 더 있었으만 날라 올랐을 낀데, 말을 타고 이기 뒷다리는 들었고 앞, 이거 뭐고 무릎 하나만, 하나는 뻗칬고 하나는 안죽 꿇리고 있더란다. 그래 쪼끔만 더 있었으면 날아올랐으마 무슨 장군이 돼도, 무슨 큰사람이 됐을 건데.

[강동동 설화 13]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1)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와 아주 옛날에 귀한 딸인가 아들인가 몰라예, 애기로 하나 얻었는, 내가 낳았는데, 그 아주 귀한 기라. 귀한께 주야로,

"내가 니로 뭐로, 누가 날로 뭐로 주면, 니로 주겠노?"

이런 말로 하면서 이래 인자 어라가(어루면서) 키았는데, 어 키우는데, 그래 한 날은 어떤 인자 스님의, 이 스님이 될라면 도사 그쯤 되는가 봐요. 그래 와서 인자 와서 통통 뚜드리이,

"하이고, 요 내가 줄기 어딨노? 뭣을 주면 내가 이 아이로 주겠노?"

이 소리로 했는 기라. 근데 인자 지금 시주 받으러 얻으러 완 이 어른이 그걸 머리다 딱 새깄는 기라. 새기가지고 그래 한 바꾸 돌고 가서러 관아라 카나 그런 동네라 카는 옛날에 관아 거 가서,

"그래 니가 돌아 댕기면서 무슨 귀한 소리로 들었노?"

이라니까, 그래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온 고을에 다 대도(다녀도) 어느 고을에 한 고을에 가이 어떤 부인이 애기를 안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이 인자 관아에서 뭐 좀 높은 사람이,

"아, 그 말이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마이 잊아뿌릿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을에 갔는 기라. 그 집에 갔는 기라. 가서 그래 또 똑딱 똑딱 인자 첨에는 똑딱 똑딱 뚜드리면서 시주하라꼬 인자 이래 염불로 하는데, 그래 언자 또 어루면서 애기로 뭣이라 뭣이라 카면서로, 하면서로,

"숟가락 하나를 주면은 이 아이를 주까, 내가 천지 줄 끼 없다."

카면서, 막 이래. 그래서 관아 그 사람들이 따라 갔지. 그래가지고 그 진짜로 숟가락 하나, 종을 만들 적에 천지 것 다 해도, 놋쇠 그거를 갖다다가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라 카대예. 나는 들은 이야긴데. 그래 그래서 인자 고을로 댕기면서 인자 했는데, 그래 하도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

"주만 주고 말면 말지, 숟가락 한 가락을 주면은 될까 말까?"

그래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 숟가락을 인자 참 주고 아이로 뺏들어 왔어요. 뺏들어 와가지고 종 만드는 데다 옇었다 하대. 놋쇠 녹쿠는 데다가. 옇어가지고 종을 맨들어 가지고 종을 치이께네,

"에밀레~."

[웃으며] 카더라 안 하나.

[강동동 설화 14]

은혜 갚은 두꺼비(1)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그냥 평범하이 사는데, 뚜꺼비가(두꺼비가) 나오더라 카대. 뚜꺼비로 나오만 밥을 퍼다가 만날 밥을 한 숟가락썩 이래 뚜꺼비로 줬는데, 똑 밥 펄 때마중 나와서 이래 해줐는데, 그래 그 고을에는 일 년에 하나씩 처이로 잡아가, 처이로 데리고 가가지고 산신에다가 바치는데, 산신에다 바치는데, 인자 아무집이나 안 가고 차리대로(차례대로), 대놓고 안 가고 차리대로. 참 근데 이 처녀 차리가 된 거라. 돼가지고 그래, 뚜껍아 뚜껍아 그날 저녁에 그날 인자 밥을 주면서,

"뚜껍아 뚜껍아 니캉 내캉 살다가 나는 인자 오늘이 마지, 니 밥 주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우리 집에서는 니 밥 줄 사람이 없다. 니는 딴 데로 가 살아라. 내는 인자 간다."

그 뚜꺼비하고 이야기로 했는 기라. 뚜꺼비한테다가. 그래 놔놓고 인자 뚜꺼비, 이 여자가

처녀가 데리고 갔어. 산신에다가 인자 바치는데, 그 무슨 이래 쪼깬, 뭐 집이 뭐, 움막 같은 뭐 있는가 봐예. 그 거다가 인자 여놔 놓고, 지만을, 지로(제를) 지내는 갑더라고. 뭐 음석을 해다 놔 놓고. 그래가 인자 모두 절도 하고 모도 이러는데, 아무도 여게서는 항의할 사람이 없어. 그걸 안 하면은 이 마을이 망하는 기라. 그래 그래서 아무도 뭐 우째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인자 만날, 참 또 크만 여도 가고, 일 년만 하는가, 삼 년만(삼 년마다) 하는가 그것도 또 모르겠네.

그래 하나썩 데려다가 갖다 쳐넣는다. 그래 그날은 인자 지가 인자 이 방에 드갈(들어갈) 차례라. 그래 인자 모두 제만, 지로(제를) 지내고 이래 샀는데, 그래 막 지 놓은데 거 드갔는 기라. 드가가지고 가마이 앉아있으니까, 인자 처녀도 좀 목욕재계하고 이래 드가는 갑더라고. 옷도 입히고.

그래가 가만히 앉아 있으이까, 한밤중 고요해지니까, 한밤중 되이까네, 마 바람이 화~악 하고 이래 어수선하이 이래 하는데, 막 얼마나 무섭겠노 그쟈? 그래 있으이까, 지네가, 지네가, 커다란 지네가 기어 나오더라 카네. 지네가 나오이, 오데 가 있었던고 그 뚜깨비가 내 앞에 있는 거라. 뚜꺼비가 처녀 앞에 앉아가 있어.

"뚜껍다, 뚜껍아, 니가 와 왔노? 어서 가라. 니가 어서 가라."

그래, 그러 카면서 그러 카고 있는데, 저기 인자 저서 기 나오니까, 지네가 기 나오니까 이 뚜꺼비가 고마 달라드는 기라. 뚜꺼비 독도 그래 무십다 카네. 지네 독도 무섭지만은. 그래가 그 뚜꺼비하고 지네하고 싸웠는데, 뚜꺼비가 지네로 물어직있고, 지도 죽었는 거라.

그래서 그, 그 고을에는 뚜꺼비 무덤이 있다 카더라. 그 고을에는 옛날에 뚜꺼비 무덤을 해놔. 그라고 나서는 아무 재앙이 없는 기라. 그 지네 그기 아주 마 묵은, 늙은 지넨가 봐. 그래가 그 무슨 짐승들도 너무 오래 살만 그 영물이 되는가봐예.

[강동동 설화 15]

밥을 주어 모시는 조왕신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촌에서 밥 할 때는 항상 이래 솥뚜빼이(솥뚜껑) 열만 주걱으로 가지고 한 줌 첫 숟가락 이래 착 떠가지고 부섴에다(부엌에다) 떠다 옇었다. [청중: 그랬나?] 항상 이거 축 떠마 부섴에 한 쭈바락씩 옇고, 한 숟가락 옇고 그래가 밥 퍼가지고 묵고.

[강동동 설화 16]

호식할 팔자를 면한 아이

나정기(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대사할머니경로당]

귀한 아들인데, 그 참 스님 만내가지고 절로 보내라 했더라고요. 절로. 야는 호식할 팔자니까 가가 아홉 살이든강, 여섯 살, 아홉 살인가 모르겠다. 그래 이 어린 거로 우째 주노 그죠? 근데,

"절로 보내라."

그래서 절로 보냈는데, 아홉 살 묵는가, 여섯 살 묵는가 모르겠다.

그래 돼서 갔는데, 가니까 가가 컸는데, 그 시기가 되니까, 이 이 아이를 꼬두밥을 쪄가지고 말리가지고, 인자 꼬두밥을 쪄가지고 요래 주먹밥을 해가지고 말리가지고, 이 아이를 아홉 살 때, 아마 야로 인자 더 어렸을 때 갔는갑다 그죠? 그래,

"아홉 살 때 인자 나가라꼬."

가 인자 그때 팔자, 인자 그 호색해 갈 팔자 날짜 시간, 날짜가 돼서 그래가 내보냈는데, 내보내 놔놓으이께네, 그래,

"니가 가면서 배 고프면 이걸 묵고."

그때는 전부 산이고 차가 없으니까 산이고 질이 모두 이래 험한데, 그래 산으로 산으로 질로 이래 가다가 참 배 고프면 아 하나 묵고 잠을 자고 이래 했는데, 그래 하다가 보니까 한 산길에 이래 계단이 쪼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앉아서 쉬니까, 어떤 노승이, 노승이 한 분이 옆에,

"아이고 대라(힘들어라)."

이러 카면서 앉더라네. 그래 아주 시장해 비서(보여), 이기 인자 다 됐어. 꼬두밥 이기. 한 개가 남았는데, 이 한 개 노승을 주는 기라. 내 안 묵고.

"할아버지 이거 잡수이소. 시장해 보입니더."

그래,

"오 내가 시장해도 안즉 내 갈 길이 바쁘다. 근데 시장하다"

그래 주니까, 그걸 그 야물잖아 그쟈? 와삭 와삭 깨물더래, 그 꼬두밥, 찹쌀인데이, 찰밥 꼬두밥 그거를 확삭 확삭 카는데 그라고 나이께네,

"니가 이름이 뭐꼬?"

그래. 그래,

"아무것이요. 아무 고을에 아무것입니더."

그러이,

“니가 내한테 오늘 내 밥인데, 니로 내가 오늘 몬 잡았으니까 니가 내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니한테 은혜로 입었다.”

내가 시장 되게 배가 고팠다 이기라. 그래서 그 꼬두밥 그거 하나 얻어 문 그 죄로, 이 사람이 그 돌 덩거리로 쥐고 왁삭 왁삭 세 번을 그리 깨물더란다. 니 호식하는 대신에 돌로 깨물어가 그래 그라면서,

“니는 호식을 면했다. 자 가거라. 니 집을 가거라.”

니는 내 꼬두밥 그거 주먹밥 한 덩거리에서 호식을. 그래 그래도 내 물 거 없이도, 이 내가 배가 고픈데도 그 할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으니까, 그 니 마음이 인자 감동해가, 그래 그래서 그 아이가 호색에서 살았다 카더라고.

[강동동 설화 17]

날아다니는 도깨비 불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도깨비는, 우리 시골에, 옛날에 참 저 그거 할 때, 비가 부실부실 오몬, 우리 우리 동네에 서로 이래 내다 보면 읍인데. 산이 있는데 거는 비만 부실부실 오면 마 불이 안 있습니꺼? 이래 갔다 새파란 불이 마 이리이리 막 날라가고 이리 하대.

그거는 봤어. 그래 하는데, 그래 이튿날은 저 자고 나몬, 그 이야기 어른들한테 들으몬, 그기 저 빼땅귀가 날라댕기가(날아다녀가) 그래 그렇다 하대. 그기 내나 도깨비라 하대. 새파라이 해가 날라댕기대.

[강동동 설화 18]

상사뱀이 된 중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는 중이 이래, [옆 사람을 보고] 거 행님, 행님 아는가 모르겠다. 중이 와 저 그거 하러 다니면서, 동냥 하러 이래 다니면서, 그래 다니는데, 한 집에 떡 가가 이래 가서 목탁을 뚜드리니까, 그 인자 그 집에 처녀가 있는가, 문구멍으로 이래 내다 봤어. 너무 너무 중이 보기에 일색이라.

그래갖고 저 옛날에는 동네 밖에 인자 정지 나무 큰 거 있잖아요? 거 가갖고 중이 인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중 이래 딱 누우 자는데, 코에서 실뱀이 겉은 기 나오더라 하대. 그래 나오대. 그래 어떤 사람이 본께. 그거 나오는 거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기라.

"빨리 가가 마 저 변소 가서, 그 내나 그 여자들 입는 거, 그거 덮어 씌고 있으라."

하면서, 그래갖고 마 얼른 가가 연락해줘가 그 사람이 덮어씌고, 그 아가씨가 덮어씌가 그래갖고 그기 살았다 카대. 그 배암이 드가뿌몬(들어가 버리면), 그 드가면 상사뱀이 돼갖고, 그 사람이 끝끝내 죽는다 아이가.

[강동동 설화 1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과거 시험 치러 갔는가, 신랑이 그러고 없는데, 하도 몬 묵고 살아갖고, 인자 시어머니 봉양은 해야 되고. 뭐 물 건 없고, 그래갖고 지렁이를 잡아갖고, 맨날 삶아갖고 지렁이 물을 이래 주면서 저거, 저거 시어머니 봉양을 했는데, 저거 남편이 온께네, 너무너무 저거 어른이, 인자 저거 엄마가 인자 통통하이 해가, 뽀야이 해가 살이 마 통통 찌갖고 그래가 있었어. 그래 저거 며느리, 저거 마누래한테,

"어떻게 봉양을 해서 어문이가 이래 통통하노?"

카이, 그래 자기는 인자 그 죄가 될까봐 이야기를 몬 했어. 몬 하고 그래 인자 그거 했다 하대, 인자 저거 어머니가 한 때 한 때 줄 때마다 자리 밑에다가 그걸 한 마리썩 넣어놨어. 그래 넣어갖고, 그래 난중에 보니까, 그래 저거 아들이, 저거 언자 저 이런 고기를 뭈다(먹었다) 카면서 자리로 이래 들시 보니까, 저거 아들이 봤어. 그래갖고 그거 했다 카는 거.

[강동동 설화 20]

친정아버지 묘에 신랑 묘를 쓴 부인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묘로 쓸라 카만, 묘를 쓸라 카만 그 풍수가 본다 아입니꺼? 풍수가 보만, 그 그기 참 좋은 묘가 있는 명산이라 카는 거 그기 있는데 인자, 여 딸하고 인자 저거 아부지하고 저거 신랑하고 딸 신랑하고 같이 죽어뿠는 기라. 돌아가싰는 기라. 같이 돌아가시갖고, 인자 저거 아부지 쓸 데는 진짜 명산이고, 신랑은 인자 너무 몬 살아갖고 인자 쓸 데가 없고.

이래갖고 인자 그 명산에 인자 저녁 내 인자, 내일 저거 아부지 갖다 묻을 낀데, 저녁 내 인자 물이, 옛날에 물이 나오면 안 좋다 했다 아입니꺼? 그래 논께 저녁 내 물을 담아 갖고 부어갖고, 그래갖고 이튿날 물이 나와갖고, 인자 그 저거 아부지 몬 쓰고, 그래 저거 인자 저거 신랑 갖다 쓰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강동동 설화 21]

호식을 면한 아이들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산에 이래 사는데 인자, 그 엄마가 시골에 가갖고 참 읍에 내려와갖고, 인자 그거 하는 거 안 있습니꺼? 떡 팔러, 떡 팔러 댕기는 엄마라. 그래 인자 떡 팔러 인자, 떡 다 팔고 인자 이리 오는데, 호랑이가 엄마로 잡아 물라 카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엄마가 오면서 떡 한 개 주마, [말을 바꾸어] 아 호랑이가 인자,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 묵지."

이라이께네, 그래 또 떡 한 개 주고, 그래 집에꺼정 오민서,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먹지."

캐서 자꾸 주다가 본께네, 다 조뿠는 기라. 애들 줄라꼬 인자 떡을 남가 오다가 그래가 다 주뿌고 그래갖고 호랑이한테 인자 엄마는 잡아믹히고, 그래가 인자 산골이 오갖고,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이래 하니까 안자, 그거 한다 카대. 인자 아들 엄마가 오만 인자,

"꼭 손을 인자 내밀어 보세요."

인자 밖에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엄마 겉으몬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란께, 그래 인자 엄마 왔다 자꾸 문 열어라 캐도 안 열어니까, 인자 엄마 왔다 캐도 안 열어주고, 손을 내밀어 봐라 핸께네, 애들이 그래 인자 손을 내밀어 본께네, 호랑이 손이라. 그래가 애들이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갖고 인자 밤 새고 이래가 저거는 살아났다 쿠는 이야기.

[강동동 설화 22]

임금의 병을 낫게 한 버린 자식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임금이, 저 뭐꼬 왕비가 남매로 낳아놓고 돌아가시뿠는 기라. 그 근데 계모로 인자 하나 그걸 했는데, 애로 갖다가, 그 뭐꼬 쪼깬 보자기 싸가 물에 떠내려 보내뿠어. 그래 떠내려 보냈는데, 인자 어부가 이 건지갖고 인자 산에, 산비탈에 인자 키았는데, 또 멫 년 있은께 또 애기가 하나 떠내려 오는 기라. 그걸 인자 아들은 앞에 왔고, 딸이 또 내려와. 그래갖고 둘이 남매로 키었어.

남매로 인자 산 거, 어부가 키아면서 이래 키았는데, 그래갖고 우째 됐는고 모르겠다. 그래 하이튼 그래 캐아다가 생각이 안 난다 커네. 인자 임금이 그게 왔었는가, 임금이 그래 오갖고 인자 애기들로 보고 오째 했는가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 이거 저거 엎어지가 잘 모르겠어. 끝티에는.

[조사자: 그 앞에 거는 바리데기 아입니꺼? 애를 버리가지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아파갖고 약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버린 애가 거 저승까지.] 아이고 저 산에 올라가갖고, 그래 이름이 철인가 이렇는데, 큰 산에, 되게 큰 산에 약 구하러 가갖고, 그래갖고 인자 뒤에는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이름 암만 불러도 몬 부르게 하고, 그래갖고 이거 인자 약을 구해.

그때 옛날엔 딸기 같은 거 겨울엔 없잖아 그지예? 딸기로 구해 오라 캤는데, 참 간께네 딸기가 있어갖고 구해갖고 내러오는데, 인자 절대 뒤로 몬 돌아보구로 하고, 그래갖고 뒤에서 뭣이 자꾸,

"철이야, 철이야, 뒤를 돌아봐라."

하민서 유혹을 하고, 이래갖고 끝끝내 안 돌아 보고 내려오갖고, 그 애기는 인자 그 딸기로 갖다가 그 인자 임금한테 갖다 했는데, 그기 인삼, 그 뭐꼬 그 인삼이 아이고, 그 뭐고 산삼, 산삼. 천 년 묵은 산삼이라. [청중: 사램이 됐는갑다.]

그래갖고 그기 인자, 그기 임금 그래갖고 나사고(낫게 하고) 그래. 그 아도 임금 인자 알아갖고, 그래갖고 인자 대를 잇고 이랬는데, 그래 그 고을에 인자 하여튼 구하러 간 사람들은, 뒤를 돌아본 사람은 돌이 다 돼가 있는 기라, 돌이. 온 고을이 돌인 기라. 그래갖고 인자 이 아도 인자 그 내나 그거 한 사람이 보내민 절대로 뒤를 몬 돌아보구로 해갖고, 그래갖고 암만 유혹을 해도 마 안돌아보고 지 끝꺼정 갖고 내러 왔는 기라.

[강동동 설화 23]

내 복에 산다는 셋째 딸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되기(큰) 부잣집에 인자 딸이 서인데, 딸이 인자 서인데, 큰딸은 인자 저거 아빠가, 니는, 인자 무릎팍에 앉히갖고,

“니는 누 복에 묵고 사노?”

이러께네,

“누구 복캉 묵고 살아요, 엄마 아빠 복에 묵고 살지.”

이러 쿠고, 둘째 딸은 또 그래 물은께, 둘째딸도 그래 하는 기라, 그래 하는 기라. 그래 인자 셋째 딸한테 물은께네,

“누 복에 묵고 살아요? 내 복에 묵고 살지예.”

이러쿠던. 그래 그랜께네 저거 아부지가 밉어가 헤딱 던지 내삐면서, 그래갖고 저거 집에 머슴하고 소 한 마리 줘갖고 후쳐 보내뿠는(쫓아 보내버린) 기라. 그래 후쳐 보내뿌고, 이 인자 저거는 새가(혀가) 빠지게 살고, 그래가 인제 친정에, 인제 저거 해갖고, 저거 친정은 잘 살고 있고. 인자 이거는 소 한 마리 갖고 인자 저거 집에 머슴하고 같이 가가 사는데, 그래 살고 있는데, 뭐 그래갖고 인자 살고 있는데, 살면서 인자, 고서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래 그래갖고, 가갖고 저거 일 열심히 하면서 이 인자 친정에 논을 한 동가리 팔면, 이 딸이 한 동가리 사가지고. 계속 인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제는(나중에는) 큰 갑부가 돼뿌고, 저거 친정은 쫄딱 망해뿌고, 그러이께네 그 자기 셋째 딸 복으로 살았는 기라.

[강동동 설화 24]

스님 말을 듣고 잘된 집안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는 고을 이래 드가만 큰 부잣집이 있잖아예. 그해 큰 부잣집이 있는데, [청중: 이야기로 해싼게네 살살 생각이 나네.] 그 내나 저 스님이, 옛날에는 스님이 그거 하러 많이 댕깄잖아 그지예? 그래 인자 스님이 목탁 뚜드리면서 인자 한 집에, 부잣집에 거 드갔는데, 본께네 그 부잣집에 떡 드가 목딱을(목탁을) 치면서,

"이 집에 인자 석 달 안에 그거 안 하만 집에 식구들이 몰살하겠네."

이러 쿠면서, 이래 목딱을 치는 기라. 그래 저거 집에 식구들이 방안에 있다가 들은께네 이상하다 아입니꺼 식구들이. 그래 이상해서 그래 인자 쫓아 나오갖고 인자 시주를 하면서,

"그래 스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꼬?"

이래 물으니까, 그래,

"이 집에 인자 그 저 선산에 뫼 써놘 거 빨리 파가 디비야 된다."

카는 기라. 그래갖고 빨리 언자 파 디비야 된다 캐서, 그래 인자 그 말 듣고 세상에 그 저 파디비러 간께네, 야시가 세 마리야. 널 밑에서 꼼작꼼작 고기 인자 티나오몬(뛰어나오면) 식구들 다 잡아 묵는다꼬. 그래 인자 그걸 미리 그걸 갖다가 없애라 이기. 그래갖고 저 야시가 세 마리 새끼가 있더란다. 그래가 잡아갖고, 직있다 쿠더라꼬. 그래가 그 집엔 다 잘되고 그랬어.

[강동동 설화 25]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그 오대산에, 오대산에 인자 나물 뜯으러 서이가(셋이) 갔는데, 이거는 있었던 일이라. 오대산에 나물 뜯으러 인자 아줌마 서이서 갔는데, 그래 인자 나물 뜯다가 본께네, 너무너무 예쁜 호랑이 새끼, 저거는 호랑이 새낀가는 몰라 무슨 새끼가 있으니까 예뻐서 집에 가왔대요.

그래 집에 오가 한 마리썩 갈라갖고 자기 집에 갔대요. 저녁 된께네 호랑이가 내려와갖고 집집마다, 고 새끼 가간 집에 오갖고 마 막 대문을 긁고 마 난리를 지기고. 그래갖고 마 도저히 잠을 못 자고 겁이 나갖고, 그래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인자,

"호랑이 새끼로 고자리에 갖다 놔라."

이러 캐갖고 그래 인자 이튿날은 인자 그 호랑이 새끼로 세 마리 고자리 갖다 놨다 하더래. 그러고 나서는 호랑이가 안 그러더라 하대.

[강동동 설화 26]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부인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그 절에 인자 그거한데, 부부가 서울에서 인자 구경을 이래 내려왔는데, 구경을 이래 내려와갖고, 인제 절인데, 이런데 여관집 있잖아예?

그 인자 눕우 자는데, 눕우 자는데 이상하게 할매가 오줌 누러 나간다 카민서 행방불명이 되가 안 오더라 캐. 그래갖고 인자 할아버지가 저 뭐꼬 이거 나가갖고 인자 여관 주인한테 물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방에 가만히 내일 아침까지 있어라."

카더래.

그래 있어라 캐서 그래고 나서 아침에 자고난께네 세상에 여관 이래 앞에다가 옷만 홀랑 벗어놓고 사람은 잡아무뿌고 그런께네, 큰 짐승이 내려오가 호랑이가 잡아뭈다고(잡아먹었다고).

[강동동 설화 2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김봉진(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어떤 사램이 시집을 갔거든, 갔는데 시오마시가 내매이로(나처럼) 이래 오래 사는

기라. 얼마나 오래 살아놨던지, 한 사나흘 잘 믹이가지고 저거 영감캉 의논을 했는 기라. 산에 엎어다 내삐리뿌라 캤는 기라. 그래 내삐리고 오이꺼네, 인제 그러이꺼네 그 저거 할매 아들 저거 아가 손지 아이가. 그래 인자 할매로 인자 짊어지고 가는 걸 안 봤어.

안 보고 이래 있은께 할매가 없거든. 그래 쌓디만 짊어지고 갔는갑다 싶어서로 그랬더만. 참말로 짊어져다 내삐리고 왔거든 할매로. 그래가지고 와서 지게로 받치면서로 이래 있으이께네, 저거 아들이 나오더만은.

"아부지, 그 지게로 내삐리지 마이소."

"와?"

이러 칸께네,

"아부지도 할매만치 나이가 많으만 져다 내삐리거로 거다 놔 두이소."

[강동동 설화 28]

술독에 빠진 남편

김봉진(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웃으며] 안자 살살 생각이 난꺼네, 옛날에 시집을 가놔놓으께네, 어찌 나매가(남편이) 술로 묵는지 마 술 골뱅이(골병이) 들러서로 몬 살겠는 기라. 일은 안 하고 천날 만날 빨아 묵고 벌거이 해가 집에 와가, 욕이나 짜다라 [웃음] 술로 빨아 묵고 그래가지고 있었어.

연구로 하나 냈다 여자가. 그 이전에 도가지 큰 거 안 있었는교? 거다 마 탁주로, 마마 저 그거로 누룩을 빨아가지고 한 단지 해 옇었거든. 그래 마 거꾸로 쳐여어뿠다 영감을 [웃음]. 거꾸로 쳐옇어놓고 딱 단지로 봉해 놔놓고, 이래 있다가 한 멫 일 있다가 가이꺼네, 눈이 뺄가이,

"술 더 없나?"

카더란다.

[강동동 설화 29]

고동각시와 결혼한 노총각[우렁각시]

김봉진(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노총각이 장개로 몬 가고 저저 들에 인자 밭 쫓으러 갔거든. [조사자에게] 이리 해야 잘 될 거 아이가. 그래 밭을 꽹이가 쫓으면서로 낙이 없거든, 장개로 안가 놓으이.

"나는 누캉 살꼬?"

카이꺼네,

"내캉 살지."

카거든. 그 뭣이 이래 내캉 사지 카는가 싶어 보이꺼네, 나무에 고동이 커다난 기 한 바리 붙어있더라 카는 기라. 그 고동을 갖다가 집에 잡아왔는 기라.

잡아와가지고 버지기, 이전에는 버지기라 안 카나. 거다 물로 채아 딱 해놔 놓이꺼네 자고 나이꺼네,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이상시리 해가 밥을 채리놓고 각시는 없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기라. 그래서로 밤이 되서로 '오늘 우째도 누가 밥을 해놓는공 저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첫 새복에 일나서 가만히 이래 보이까네, 고동 안에서 각시, 처이가 하나 나오더마는 밥을 해 놓고 고 소로록 드가더란다. 그래서로 인자 발견을 해서 그래가지고 [청중: 그가 우렁각시.] 음. 그 각시캉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더라.

[강동동 설화 30]

총각을 찾으러 다닌 아가씨

김봉진(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인자 옛날에 시골에 되게 부잣집인데, 그 인자 옛날에는 이래 저 부잣집 아들이 말 타고 댕기잖아요? 그 말 타고 이래 가는데, 부잣집으로 이래 지나치는데, 여 언자 큰애기가, 옛날에는 뭐라 쿠노? 뒤에 웃채 있고 큰애기 있는 [조사자: 별당.] 별당이라 쿠나. [청중: 별장, 별장.] 별당이라 안 카나. 별당에 그 큰애기가 이래 담을, 이래 인자 이래 인자 밖에, 요새 겉으몬 운동하잖아. 그래 인자 떡 바람을 쐬고 있으니까, 그 말 타고 가는 도련님을 봤어.

그래 큰애기가 상사병이 들었는 거야 반해갖고. [청중: 어 상사병이 들었다. 그 총각이 마음에 드던갑다.] 그래갖고 인자 이 언자 오데 가서 총각을 찾노 싶아갖고 인자 중 행세를 해갖고, 인자 딱 그거를 해갖고, 그래 행사를 해갖고 인자 [청중: 바랑을 짊어지고.] 어, 바랑을 짊어지고 인자 끊임없이 가는 기라 인자. [청중: 지향 없이 간다.] 찾으러, 그 총각 찾으러.

그 가다가 본께네, 한 고을에 떡 드가니까, 아가 새막을 딱 지놓고 새로 보는데, 가을인데, 새로 보고 있는데, 저 뭐꼬 새로 후쳐면서 노래로 부르더란다. 그 아가, 꼬마가.

"저 새야 새야, 이 나락 까묵지 마라."

그 총각이 이름이 강철이야. 그래,

"강철 도련님 장개갈 때, 떡쌀하고 밥쌀 할 끼다."

쿠면서, 그래 몬 가구로 그래 노래를 하더란다. 저 아가, 꼬마가.

[청중: 그래 인자 스님이 그 인자 물으면 되겠네.]

어 그란께네, 그 새 보는 아한테 물은께네, 열 두 대문 집에 가만 그 집이라 카더란다, 그 마을 고을에. 그래 인자 이 갔는 기라. 가갖고 그래 인자 목딱을 톡톡 치면서 들어가니까, 그래 문을 열어 주는데 [청중: 목탁을 치면서. 그래야 인자 스님이 왔는가 싶어서 안 내다보겠나.] 예, 그래갖고 인자 안방마님인데 가갖고 인자 턱턱 치면서, 마당서 치면서 이러니까, 그래 인자 쌀을 고와서(가져와서) 쌀은, 쌀은 필요 없다 하민서 좁쌀을 돌라 카대. 좁쌀을 도라 카더래. 인자 이 저 내나 큰애기가. 그래 좁쌀을 도라 카면서 그래 좁쌀을 준께네, 밑구녕 없는 쪼마이다가(주머니에), 밑구멍 없는 쪼마이다가 붓는 기라. 그기 다 흩어질 거 아이가 마당에. 그런께네 인자 해가 지도록 인자, 그걸 한 개 한 개 인자 주 담고 있는 기야. 그래가 주 담고 있다가 인자, 그 주 담고 인자 해가 진께네, 집에로 몬 간께네 인자, 아무캐도 스님 행세를 했는데, 큰애기하고 또 종이 있다 입니꺼? 어디 몸종이 있다 아이가? 둘이서 인자 그래 저 뭐꼬,

"자고가야 되겠다."

하민서, 긍께네 그래 문간방에 하나 비있어 그게. 그래,

"문간방이 하나 비서 그 자라."

쿠더란다. 그래 인자 그 인자 잘라꼬 떡 누우서께네, 인자 뭐 잠이 오나 그지예? 그래 누우서께네 그래 도련님이, 그때 인자 도련님도 그때 인자 보고 반했어. 이 아가씨한테 반했는 기라. 서로가 반했는 기라.

그래가 이 아가씨가 인자 참 잠도 안 자고 인자 앉아 있으니까. 인자 도련님이 실컷 인자 달이 중천에 떴은께네 공부하다가 인자 나와갖고,

"달아 달아, 저 달은 나는 몬 보지만은 큰애기 볼 수는 있겠다."

카면서 그래 노래를 하더란다. 이 총각이. 그래 노래를 하니께, 그래 인자 이 인자 아가씨가 인자 그 문간방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그래 도련님, 도련님, 그 달 누구는 지금 그 아가씨가 인자 문간방에 있다."

꼬 이래 이야기를 했어. 그래갖고 인자 만냈어 인자. 그 인자 이 아가씨도 언자 큰애기도, 큰애기도 노래로 인자 불렀는 기라 방에서. 그래 부르니까 인자 그래 찾아와서,

"멫 십 년을, 그거 멫 년을 걸어가 찾아왔다."

카면서, 그래 해놔는게 노래 부른께 인자 총각이 듣고 아 그 아가씬갑다 싶어가 그래 들어오갖고 서로 만나갖고 그래갖고 잘 살았다 하대.

[강동동 설화 31]

여우 아내와 산 사람

김봉진(여, 1930년생), 김경선(여, 1951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김봉진 구술] 옛날에 노총각이 장개로 가야 되는데, 그래 저 저 뭣이고, 산에 갔다 카든가? 그기 맞는가 모르겠다. 산에 가이꺼네 처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둘이 맞아가지고 인자 그래가 인자 사는데, 밤만 되만 사람이 없어. 저 저 이 신랑이 인자 한참이 안 있나 사람이 밤에. 자다가 보니까 각시가 없어서러 '그 우찌된 일이고 날로 재아놓고 저녁마정 이란다.' 싶어 보이까네, 사살(조용히) 산에 묏등에 가보이꺼네 여우라 여우. 그래 인물이 좋더라 카네. 여우가 둔갑을 해가지고 사람이 됐어.

그 그래가지고 인자 보이꺼네 여우라. 또 가만히 요리 마 그치만 보고, 뫼 파디비는 걸 보고 퍼뜩 집에 와가 자는 체 하고 눕어가 있으이께네, 이상시리 각시가 돼 들오는 기라, 저 여우가 둔갑을 해가지고. 그래 사람이 돼나이. 이래가지고 이 여우캉 살아가 내가 안되겠다 싶어서러, 그 여우로 뭐 우쨌다 카드노? 대동댁이 때리 쥑있븄다 카더노 어짜더노? 그 우쨌다 카더노?

[이어서 김경선 구술] 때리 직인 기 아이고 그 여우가 인자 그거한데, 그거 메칠꺼정 달 뜰 때꺼정 기다리 달라 카는데, 이기 그날 저녁에 저거 신랑이 이야기 했잖아예. 이야기 해뿐께 고마 여우로 변했잖아. 그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거다. [김봉진: 그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다.] [청중: 다 끄티 알았는데.] 아니 그래 변해갖고, 고마 여우가 되고, 애는 그거 뭐고 그 남자로 갖다가, 그래 여우가 그거 그거만 참아줬으면 지가 득천해갖고, 사람이 돼갖고 같이 살낀데, 그 이야기로 날짜로 그래 하루밤 놔두고 그랬다 카더나? 그래갖고 이야기 해뿠어. 고마 여우로 변덕되고, 애기는, 애기는 지가 딕고(데리고) 가고 그랬잖아.

[강동동 설화 32]

먹는 사람과 짐승에 따라 달라지는 물

박어대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같은 물이라도 먹는 사람이나 먹는 짐승이나 따라서 다 틀리거든. 우음수(牛飮水) 하면 젖

을 내고, 사음수(蛇飮水) 하면 악을 이루는 거, 모르제? 소는 같을 물을 먹어도 젖을 내고, 뱀은 같은 물을 먹어도 악을 품는다.

[강동동 설화 33]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박어대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애가, 애가 울어샀는데, 할머니가 암만 울지 마라 캐도 울거든. 호랑이 온다 캐도 울고. 뭐 호랑이도 무섭지를, 무섭움을 안 타는 기라. 그래 꽂감 준타 킨께네는 안 울어.

그래 꽂감이 그래치 무섭어, 호랑이가. '아따 꽂감이 되기 무섭는 갑다.' 이래 생각한다 안 카더나.

[강동동 설화 34]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2)

박어대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저저 선비가, 선비가 인자 살았어. 살았는데 만날 선비 인자 공부 한다꼬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마누래가 만날 피만 훑어가지고 먹는 기라. 피, 피죽을 낋이 묵고 이랬는데, 그래 마누래가 한 문은 마 그 피죽 물라칸께, 응성이('화가'의 뜻인 듯) 나서로 도망을 가뿠어.

도망을 갔는데, 이 선비는 인자 과게를(과거를) 해가지고 말을 타고 저 인자 가니까, [청중: 어사가 돼가지고.] 그래. 그래 인자 선비가 인자 저저 어사가 돼갖고 갔거든. 갔는데 가다 본께네 저그 마누래가 피로 훑어샀는 거라 [청중: 논에서.] 논에서 피로 훑어샀는 기 본께 저거 마누래라. 그 마누래를 보고,

"저, 옛날에 자기한테 와서도 피 훑었는데, 자기 인자 버리고 가서도, 저 나를 버리고 간 저 아낙네가 지금도 피를 훑고 있구나."

캄서러 그래 카더라요.

[강동동 설화 35]

손자를 삶아 먹은 치매 노인

박어대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애로 놔놓고, 부모들은 저 아들하고 메느리하고는 어데 간 년에 그래 손자로 솥에다 옇어 놓고, 삶아놓고 아들이 온께네,

"닭 한 마리 삶아놨다 먹어라."

카는데, 본께네 저거 아라. 그래 그 아는 인자 껀지 내놓고, 닭을 삶아갖고 인자 부모를 줐다 쿠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

[강동동 설화 36]

머리가 둘인 뱀의 식사

박어대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뱀이가 이 얼굴은 두 개라. 얼굴은 두 개고 몸은 하나라. 그렇는데 인자 그 뱀이가 머리가 두 개가 움직일라 카몬 힘든다 아이가, 그래 힘들어놔놓으이 이 뱀이가 한 마리가 어데 고기 물(먹을) 기 많이 나왔어. 이 한 마리가 이거한테는 말로 안 하고 이걸 먹어뿠어. 그래 이쪽 뱀이가, 이 머리 뱀이가,

"어, 나도 먹을 건데, 왜 니 혼자만 먹었노?"

카니까,

"배에 들어가면 똑같이 배 부르는데, 너는 안 묵어도 괜찮다."

이라는 거라. 그라니까,

"먹는 맛이 있는데 왜 혼자 먹었느냐?"

꼬, 그라더래.

[강동동 설화 37]

손님 못 오게 해서 망한 집안

박어대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참 부잣집이 있었어. 그 부잣집에 손님이 그래 많이 오는 거라. 그래 많이 온께, 그래 메느리가, 여자가 인자 그 손님을 너무 치루산께네 지루해가지고 스님보고,

"인자 우리 집에 손님 좀 안 오구로 해 줄라."

고 카거든. 그란께네,

"그 저 앞에 가서 못을 하나 파내라."

카는 기라. 저 산에, 요 앞에서 딱 보이는 고 산에. 고 산에 못을 하나 파놔라 칸께, 그 가서 인자 못을 파 놔논께네, 참 손님이 안 오는 거라.

손님이 왜 안 오노 하몬, 인자 못을 파놓고 난께, 저거 집이 싹 다 망해뿌는 기라. 망한께네 부자 때는 손님이 많이 오고,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라. [청중: 거 참 그렇다.]

[강동동 설화 38]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2)

박어대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스님이 뭐 그거 하러 시주 하러 오니까,

"아무것도 줄 거 없고, 아들을 덕고(데리고) 가라."

고, 그래 캐가지고(그렇게 해서) [청중: 그래 우리 뭐 봉덕이라 카더나, 이름이?] 그거로 마이(많이) 시주로 해가지고, 인자 종을 만들었는데 암만 종을 쳐도 그 소리가 안 나서, 그래 인자 그 아들을 준다 캐나나이(해놓으니) 그 아들을 덕고 가갖고, 해가지고 한께네 인자 종소리가 나더라 카는 그런 거.

[강동동 설화 39]

철상(撤床)하면 주는 제사상의 고기

박어대자(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아버지가 죽었는데, 사우하고 딸하고 와갖고, 저 채리 난(차려 놓은) 거 돼지고기 그런 거 있거든. [청중: 빈상에, 옛날 빈상 차려 놓는 거.] 옛날에는 그 인자 차리 난 거 있는데, 거 있는데, 딸은 울면서러 인자 사우는 울면서.

"저 고기~, 저 고기~."

그러 칸께네, 딸은,

"새복 되몬~ 새복 되몬~"

철상 한다꼬, 그때 인자 준다꼬. [청중: "어둡거든, 어둡거든." 칸다 카더만.] 그래 인자 새벽에 철상하거든. 철상하는데 그때 인자 줄라고, 신랑 줄라고 그래 인자 핸 기 있다요.

[강동동 설화 40]

굼벵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배귀분(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할매가 인자 이래 눈이 어둡는 기라. 눈이 어둡우이, 엄마가 연세가 많은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인자 어데 오래 어데 가기가 됐는 기라. 어더로 인자 벌이 하러 나가고 없는데, 메느리가 시오마시가 연세가 많애놓이 너무 지업는(지겹는) 기라. 마 지금 세월이나 그때 세월이나 같는 기라.

연세가 너무 나가 많으이께네, 마 할매가 눈도 어둡제 이란께네, 마 인자 지업어사서러(지겹어서) 인자 신랑 없을 때, 할매로 마 인자 '신랑 없을 때, 할매로 마 머 마마 못 밀(먹을) 거로 미가지고 어서 마 죽구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러, 인자 이래 옛날에 저 초가집은, 이래 초가집 우에는 이런 구디리(구더기) 벌게가(벌레가) 하얀 게 나오거든. 초가집에 그 옛날에 초가집 구더리 나오는데, 그거로 가지고 마 반찬은 없제 마 이래 마 그거로 잡아가지고 인자 마 볶아가지고, 그래 그거로 볶아가지고 할매로 놔주이, 눈이 어둡아가지고 할매가 뭣인지도

모르고 무이 참 맛있는 기라.

하이고 그래가지고 때마정 주는 거로 자리 밑에, 지금은 장판이지만 옛날에는 자리 아이가. 삽자리 방, 그 밑에다 때마중 한 바리씩 옇어 놓는다. 아들 오몬 이거 무슨 고긴지 이래 맛있는 거로 해주는데 얼마나 맛있는 긴지 아들 오면 비야 되겠다 카매 자리 밑에 똑 때마정 밥물 때마정 고거로 한 바리썩 한 바리썩 놔났는데.

할매가 그거로 자시고 난께네, 아들이 며칠 있다 온께네, 우리 엄마가 딴 사람이 됐는 기라. 그래 자시고 나이 허옇이 해가 인물이 나는 기라, 할매가. 그거가 무면 거기 요새 참 거기 약이라 카대. 좋은 기라 카대. 그런데 그때 시절에 약인지도 모르고 메느리가 마 할매 인자 못 묵을 거로 믹이가지고, 할매가 세상 베리구로(버리게) 핸 기 할매가 마 건강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마 건강해가 눈도, 눈도 퍼뜩 떨어지고 그거로 자시고 눈도 퍼뜩 떨어지고. 아들이 오미 엄마가 딴 사람이 됐는 기라. 그래놓이 마 뭐 그래,

"야야, 야야. 이거 봐라. 이거 메느리가 이거로 해줬는데 막 그래 맛있다."

고 이래 자리 밑에서 엄마가 꺼냈는데 보인께네 그 참 벌게이 거기라. 근데 그 질로 시작해서로 할매가 눈도 떨어지고 마 기운이 나서 펄펄해 놔놓으이 마 집에 일로 마이 거들어 주이께네, 며느리가 더 좋아서로 마,

"아이고 우리 어무이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 카더라요.

[강동동 설화 41]

아내와 바람난 군서방을 징벌한 남편[범벅타령 이야기]

배귀분(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한 부락에서러 인자 신랑 있는 사람이 앞에 집 남자로 둘이 인자 연애로 했는 기라. 지끔 세월은 치몬 연애아이가. 옛날에는 군서방(샛서방)이라 캤다. 군서방질 한다 캤는데 지금은 연애아이가. 연애를 했는데, 가마이 본신랑이 아무리 처다 봐도 좀 눈치가 틀리거든, 저거 신랑이. 그래서 인자 배, 저 배 타러 옛날에는 배 타러 많이 나갔는 갑대. 저저 바닷가 배 고기 잡으러. 인자 나가몬 멫 달썩 있다가 오는 기라. 인자 이 남자도 지 본신랑도 그래 배 타는 사람인데, 인자 부로(일부러) 인자,

"내 인자 배 타러 간다."

카고, 인자 잡을라꼬, 그 연애하는 거로 잡을라꼬, 그래 인자 부러 간다 카고 안 가고 뒤에

인자 산이 집 뒤에 산이 있던 갑대. 산에다 딱 숨어가 봤는 기라. 망을 봤어. 망을 보이끼네, 그 이웃집 남자가 저거 마누래 있는데 가서 가거든. 밤에. 그래 가서러 가가지고 인자 드가가지고 얼매나 있는가 보고 사살 가가지고 인자 문을 마 문을 때리 잠가 논 거 툭툭 두드리이, 누고 카는 마누래가,

"누고?"

카는 거로,

"내다."

하이고 마 이기 마 마누래 이기 마마 우째 할 줄로 몰라가지고 마 이놈, 옛날에는 이렇게 궤짝 그런 기 하나 있거든. 옛날에는 다 궤짝이 있다 아이가. 궤짝 거다가 이 남자로 갖다가 막 인자 주다 옇어 놔놓고, 마 딱 잠가 놔놓고. 그래 인자 신랑 문을 끼라주고,

"하이고 당신 와 오늘 오노?"

카이,

"아 가다가 저게, 몬 갈 일이 있어서 내가 왔다."

이래 카면서로 거짓말로 하고. 인자 그래가지고,

"가다가 내가 어데 갔다가 누가 잘 본다 캐서러 인자 물어보이께네, 우리 궤짝 이기 갖다 내삐리야."

신랑 눈치로 딱 궤짝에다 딱 옇어 놨다 싶어가지고,

"궤짝 이거로 갖다 내삐리야 우리 집이 잘 산단다."

이리 돼가지고 내삘라 카이, 이 여자가 마마 '궤짝 내삐리면 그 사람이 들었는데 마 우짜꼬?' 싶어서 마 아이고 그래 마 기어이 남자가 마 꺼다가지고 저 물에다, 마 바닷물에다 마 떠내려 가면서로 그 또 노래가 있던데 그자. 그 떠내려가는 노래가 있던데, 그래가지고 떠내려가는 노래가 있던데,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떠내랐뿌고 그거로 인자 떠내랐뿌고 그래가지고 마 기척 없이 잘 살더라 카대.

[강동동 설화 42]

스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쑥떡 장사

배귀분(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떡장사가 떡장사 할매가 있었거든. 시장에 떡을 팔고 앉았거든. 떡을 팔고 앉아있는데, 스님이 중이, 스님이 인자 떡 사무러(사 먹으러) 왔는 기라. 그 할매 앞에. [청중: 떡이 그

런 기 아이고 쑥떡이라.] 그런께 마 우떻게 난중에 끝에 가서 쑥떡이 된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사무러 와서 떡장사한테,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거 저게 빤쥬가 전부 뭐 옛날, 아주 옛날에 전부 이래 속옷이 파짓더라 카대, 전부. 우리도 애릴 때 보몬 우리 엄마들 속곳이 파진 기 있더라고. 그래가 마 파진 기 요래 접고 접고 마 이래 옷은 마이(많이) 마이 처매로 또 입고 또 입고 막카는 말로 말처마로 마이 입어도 전부 이래 벌어지는 기라. 앉으면 벌어지고 인자 소변도 하고 인자 그것도 보고 인자 이래 하는데.

그 쑥떡할매가 인자 쑥을 캐가지고 쑥떡 장사를 하는데, 이래 떡 쪼글시 앉아가 인자 쑥떡 판다고 앉았은끼네, 그기 속곳이 떡 벌어졌는 기라. 벌어져가 있는데, 스님이 앉아서러 인자 떡 사묵는다고 마주 딱 앉았네. 그래 인자 떡 벌어지가 있거든. 마 밑이 다 나아가 있거든. 스님이 마 떡 사 잡시고 마 바리 가민 될낀데,

"하이고 쑥- 드가고 짚다. 쑥- 드가고 짚다."

이래카거든. 그러카이께네 이 할매는 말귀로 못 알아들어가,

"예-, 내일에는 쑥 마이 옇어가 오끼예. 예- 내일에는 쑥 마이 캐가 옇어가지고 오끼예. 예-."

또,

"쑥- 드가고 짚다."

카이,

"예- 쑥 마이 옇어가 드릴끼에, 마이 옇어가 떡 해가 올끼예." [웃음]

[강동동 설화 43]

은혜 갚은 두꺼비(2)

배귀분(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뚜꺼비가 그래 한 마리 어데서 부엌에 딱 부뚜막에 나타나가지고. 한 바리 있는 거로 그 저게 그 그집 메느리가 때마중 뚜꺼비로 이래 밥을 줬디마는 …….

뭐 뭐 우짠다 카더노? 모르겠다. 그라고 나서. 그래가지고 은혜로 하더라 카대. 은혜로 하더라 카는 그런 이바구는 있대. 그래.

[강동동 설화 44]

빚을 갚고 빚을 놓은 신발장수

이봉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강동동 덕계마을회관]

옛날에 어는 고을에 어떤 할아버지가 매신 이런 거 옛날에 매신 신었잖아. 매신을 사매면서 그래 누가 물으니,

"이래가 생활로 어떻게 해나갑니까?"

이래 카이,

"이래도 빚이로 갚고 빚이로 놓고 이래 한다."

카는 기라. 그래,

"왜 그렇냐?"

카이께네,

"그 뜻이 뭐냐?"

카이,

"부모님께 빚을 갚고, 자석인테 놓고 빚이로 놓고 그란다."

글캐(그렇게 해).

[강동동 설화 45]

사돈집에 와서 과식한 친정아버지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친정아부지가, 딸 데꼬 와가지고 어찌 마이 무놨던지(먹었던지), 그 옛날에는 마루가 대가, 대로 가 하이 궁디가 속속 나왔거든. 똥을 짜다라 싸놔 놓으니까네, 주우로(중우를) 벗어뿌고 두루매기를 이래 오마가(접어서) 있으이까네, 밑에 마루 밑에 개가 그 똥 빨아 묵는다고, 붕알을 빠이깐에,

"사돈네 개는 붕알이 암냄이라.

카더란다. [청중: 붕알이 뭐요?] 붕알이, 똥 빨아 묵는다고 사돈 개는 붕알이 암놈이라 캐. 붕알을 좋아한다 이기라. [청중: 아아.]

[강동동 설화 46]

자식 죽여도 노망한 어머니를 모신 효자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그 이야기는 신랑각시, 옛날에는 신랑각시가 아이지 쪼금 나가(나이가) 들었겠지. 밭에 일하러 가이까네, 어무이가 노망이 들리가이고(들어서), 자기 아들로 쪼깨난 아들로 '달(닭)이라꼬, 달이라꼬.' 잡아가 솥에다 고아가, 그래 가 인제 아들이 오이까네,

"솥에 거 달 고아놨다."

꼬. 이리 카더래. 열어보이 저거 아들이라. 그래서 '어무이가 닭이 얼매나 먹고 짚어(싶어) 저래깼노.' 카매 닭을 한 마리 잡아가 고아가 주고, 아들로 묻으러 가더란다. 암(아무) 말도 안 하고. 묻으러 가이카네, 파이카네 금덩거리가 나오더라요. 효자라꼬 하늘에서 내리가이꼬, 그런 효자도 있어요.

다른 사람 같이 지금 겉이 어마니 때리직인다꼬 난리가 났을 낀데, 뭣이 얼매나 먹고 짚어 닭이 얼매나 먹고 짚어 저래깼노 카이 한 바리 잡아가 고아 주고, 아로(아이를) 가이고 산에 묻으러 가더랍니다. 묻으러 가이카네, 파이카네 금덩어리가 나와, 하늘에서 내리가 묵고 살라고. 이 그런 효자가 있었다 안 카나.

[강동동 설화 47]

부인을 효부로 만든 남편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시어마시 시아바이가 거느린데(거느리고 있는데), 아들캉 메느리가 거느린케 좀 예비가(야위어) 있는데, 인자 메느리로 보고 자기 호감사를(부인을 말함) 보고 아들 저 어무이 잘 주라고. 아들이 인자 어무이가 아니고 아부진데,

"아부지 좀 잘 주가이고(줘서) 장에 갖다 팔라 카몬 살이 올라야 좋다꼬, 잘 주구로 좀 마이 주라."

카거든. 쪼깨큼 주이 살이 안 찌이카네. 그래 마 잘하거든 갖다 팔라 카이. 살이 찌야 좋아

야 산다 캐나노이(해 놓으니), 막 잘 주거든. 주이 살로 붙어가 일로 잘하거든.

그래 오늘 장에는 아부이 갖다 팔라 카이까네, 며느리 갖다 팔지 말라 카더래. 저거 일하라고, 일로 잘하이카네. 막 믹이놔놓이(먹이니까) 일로 잘하니까 그런 말이 있다. 아들이 메늘로 뚜드리 패도(때리지도) 안 하고, 오감사를(부인을) 패도 안 하고 교육을 잘 시키가이고 에나 효도, 효자로 맨드는 기라. 효부로 맨들어. 그런 이야기 있대.

[강동동 설화 48]

나무꾼과 선녀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그거는 인자, 나무 하러 가가이고 사슴을 만내 가이고, 인자 사슴이 그거로 하이카네, 사슴이 그래 인자 장개를 안 가이카네, 그래 사슴을, 총쟁이가 사슴 잡을라 카이까네, 사슴이 나무 하러 간 총각한테,

"좀 숨카 줄라."

카거든. 그래 나무 밑에다가, 나무 해난 밑에 숨카줬어. 숨카주이까 인자 총쟁이가,

"요 사슴 안 왔든고?"

"안 왔다."

카이카네, 딴 데 가뿠거든. 딴 데 가이카네 사슴이 나와 가이고 은혜를 한다꼬, 그래 하늘에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 옸는데(내려 왔는데),

"선녀 옷을 숨쿠라."

카더라 카네. 옷을 숨카놓으몬 못 올라가고 자기 혼사 된다꼬.

그래 선녀들이 여럿이 내려와가 못에 목욕을 하는데 옷을 한 벌 숨캈어. 숨쿠이까네 다른 사람 다 올라 가뿌고, 그 사람 옷이 없어 가 못 올라가 숨카놓으이. 그래 그 사람들이 못 올라가고 그 총각캉 사더라 카네. 사는데 인자 하릿밤에는, 사는데 인자 알라로(아기를) 하나 놓고 둘이. 사슴이,

"그 선녀가 아 서이(셋) 놓토록 말 하지 마라."

캤는데, 그래 인자 덕고(데리고) 와서 사는데, 둘이를 낳았다. 둘이 놓고 나이카네 하늘에서 하늘을 치다보고 달로 보고 떡 이야기로 하는 거라.

"그래 옛날에 내가 그래 나무 하러 가가, 당신의 옷을 숨카가이고(숨겨서) 그래 아를 둘이를 낳았다."

고, 그리 이야기를 한 기야. 사슴이 서이 놓도록 이야기 하지 마라 캤는데, 서이 놓으몬 서이를 못 덕고 가이카 산다고 이야기 하지 마라 캤는데, 둘이를 낳고 하릿밤에 떡 마음이 깊어가 이야기를 하는 기라. 당신 그래가 만냈다꼬.

그래 이야기를 하이카네 그 선녀가 아 둘이를 덕고 올라가뿠어. 한 끼에(어깨에) 하나썩 덕고. 서이 놓으몬 못 올라간다꼬 하지 마라 캤는데, 얼매나 기뻐 놨던지 그거는 까무뿌고(잊어버리고) 마 이야기를 해뿌놔 놓이카네, 그 선녀가 하늘에 하나씩 데꼬 올라가뿠어. 그 가마보이 뺐기뿠다. 그 올라가고 혼차 있으이까네, 그래 인자 꾀가 생기가이고 선녀가 하늘에 투루박(두레박), 투루박 그거로 못에다 던져 올려 가이고 목욕을 하는 기라. 그래 인자 그 또 저 그 사슴이,

"투레박이 내려오거든 투루박 안에 드가가 올라가라고."

걸챠 주더랍니다. 그 투레박 내려오는데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서 사더란다. [조사자: 그래 잘 살았네요.] 그래 사슴이 지를 구해 주나놓으이 죽을 걸 구해주노이 그만치 은혜를 한다 이기라.

[강동동 설화 49]

벌 받은 나쁜 스님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옛날에 어무이캉 딸캉 둘이 살았는데, 어무이가 딸 시집 보낼라꼬, 좋은 데 보낼라고 부처님 앞에 가서 만날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빌었어.

"부처님, 우리 딸 시집보낸데 정사감사한테 시집을 보내줄라꼬 좋은 데. 정사감사가 안 되몬 작은댁이나 작은 호감사라도 좋다."

꼬, 자꾸 부처님 앞에 가몬 그리 빌고 빌고 이러거던. 이놈의 스님이 들와보이 우습거던. 이상해. 딸이 얼매나 좋는고 싶어가이고, 부처님 뒤에 숨어 가이고 그리 또 인자 한 며칠 자꾸 댕기싸이 그리 예산이 나왔겠지 스님이. 스님이 몬땐(못된) 스님이지. 그래가 부처님 뒤에 숨어 가이고,

"너거 딸을 산골 중놈을 주라."

이랬어. 뒤에 숨어 가이고. 그리 어무이가 어질라가 어리석어가 몰라가이고(몰라서), 참말인가 싶어가이고, 부처님 그라는가 싶어가이고, 그래 인자 집에 스님한테,

"내가 매일 빌로 댕기는데, 오늘은 부처님이 너거 딸을 스님을 주라 칸다고. 주라 카는데

우짜면 좋겠냐?”

카이까네,

“주야 된다.”

카거든. 그래, 그라몬 날로 받아가이고, 저 스님이 날로 받아 저거 집 데불로(데리러) 갈라 카거던. 그래 참말인가 싶어가이고. 참 어질지요? 옛날 사람은. 집에 데불러 오라 캤어.

그래 아를 처이로(처녀를) 줬어. 스님이 인자 옛날에 궤짝, 궤짝 안에 옇어가. 궤짝 안에 옇어가 짊어지고 간다. 인자 자기 호감사(아내) 삼을라꼬, 지 있는 데로 절에 간다. 절에 가이까네 짊어지고 어찌 좋아놨든지, 마 ‘옥단처이 짊어지고 간다.’ 캄서, ‘산고개를 넘는다.’ 캐삼서 노래를 부르고 막 가이카네, 어디서 참 차 소리가 마 오거던. 보이(보니) 정사감사라. 놀래 가이고 그 함을 갖다가 논띠다(논두렁에다) 놔 놓고 논두름 밑에다 놔 놓고 숨었어.

숨었는데, 그 부처님 도술이지. 그래 스님 욕 비일라꼬, 스님 직일라꼬, 욕 비일라꼬, 도술이지. 그리 몬땐 그런 짓 하믄 안 되는데. 그래 인자 궤짝 안에다 화기가 나거던. 그래 인자 정사감사가,

“이쪽에 화기가 나는데 가서 문을 열어봐라.”

카이, 열어보이 옥단처이가 들어가 있다 카이,

“처녀를 덕고 온나.”

그래 그다 곰을 한 바리 여 놨어. 처이는 지가 덕고 갔어, 정사감사가 덕고 가뿠어. 덕고 가뿌고나이, 집에 이거는 숨어 있다가 가뿌고 나이꺼네, 처이가 그냥 들었는가배 문을 열어보도 안 하고 그양 짊어지고 가는 기라. ‘옥단처이 짊어지고 간다’고 노래를 쳐 부르고 고개 넘가 가이카네 집에 갔다. 인자 절에 가이카네, 스님들이 지 밑에 스님들이 있다 아이요? 지는 인자 좀 대가리겠지. 그래,

“오늘 밤에는 요 이 방 아무도 둘오지 마라고. 아프다고 감을(고함을) 질러도 오지 마라.”

고 카는 기라. 함부로 디다도(들여다) 몬 보구로 하는 기라. 그 놔 놓고 인자 궤짝을 방에다 턱 갖다 놔 놓고,

“오늘 크게 한 상 채리라.”

카고,

“오늘은 아만 죽는다고 감을 질러도 내 방 둘오지 마라.”

카는 기라. 그래 인자 크게 한 상 채리라 카이 채리 놔놓고,

“인자 너거는 가서 눕어(누워) 자라.”

카고,

“이 방은 난리가 나도, 아프다고 감을 쳐 질러도 둘오지 마라.”

카는 기라. 그래 인자 떡 그랬다.

저물어 가이고 인자 아가씨를 보고 묵으러 나오라, 한 상 채리 놔놓으이. 곰이 한 바리 그 갖다 옇었거던. 곰이 튀 나와가이고 막 이리 홅고 저리 홅고, 죽는다고 감을 쳐질러싸서, 마 감을 지르고 드가 봤으몬(들여다 봤으면) 홅차뿠 긴데, 함부로 둘오지 마라, 오야 가다가 돼

나 놓으이 둘오지 말라 칸다고, 죽는다고 감을 쳐 질라도 놨두더만을(놓아두었더니만) 아칙에(아침에) 가이(가니) 다 홅아가 뺏당구만 남아. 스님이 되몬 정직하게 해야지. 그래 부처님이 벌로 줬다예.

[강동동 설화 50]

자기 성도 모르는 바보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한날 인자 부잣집에서 일꾼을 대이까네 한 사람이 왔는 기라. 한 사람이 왔는데, 그래 인자,

"자네 성이 뭣인고?"

카이, 글로 몰라.

옛날에는 아만(아무리) 살림이 있어도 마 배우는 걸 안 배우고 해놘 사람이 글로 모르는 기라. 그래,

"나는 배서방입니더."

이래 카이까네, 그래 인자 글로 모르이까네(모르니까), 이거 배로 그리야(그려야) 된다 아이가. 배를 그리가이고 이름 부르라 카이, 이름은 모르고 인자 성을 배서방 칼라꼬, 인자 성을 이래 기리는데, 성을 공만 기리고 꼭대기를 안 기맀어. 꼭대기를 안 기리고 인자 뒤에 인자 일꾼을 부를라 카이께네, 보이카네 꼭대기는 없으 공서방이 돼뿠는 기라. [청중: 배서방이 아이고.] 그래 인자,

"공서방, 공서방."

불러싸이께네, 이 누를 부르는고 싶어가이고 배서방인데 공서방이라 카이 갈 수가 있나. 자꾸 불러싸이,

"와 공서방 불러도 안 오노?"

카이카네,

"나는 배서방인데."

카이,

"아이고, 꼭대기로 안 기맀구나. 꼭대기를 기리 놨으몬 배서방이 될 낀데 공서방이 돼뿠다."

꼬, 그런 이야기도.

[강동동 설화 51]

후사 보려고 소금장사를 자기 딸과 재운 대감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옛날에 인자 그거 집에, 대감의 집에 아를 못 낳아. 아를 못 낳아. 아를 못 놓을라 카이 아는 낳아야 되겠고, 소금장사가 소금 팔러 장 댕기 쌌는데, 소금장사 집에 아를 불러가 물으니 저거는 아가 한 일곱이나 된다 캐, 머스마가. 됐다 싶어서 돈을 마이(많이) 주고 소금장사 놔주고(그만두고) 저거 집에 하룻밤, 저거 메느리캉 재운 기라.

옛날에는 그래 마 아 못 놓으몬, 대감의 집에 아가 밑에 내리오야 될 거 아이가? 아를 못 놓으이카네 인자 그런 예산을 했지. 작은 호감사는(첩은) 얻을라 카몬 또 가치 없다고. 작은 호감사 낳은 사람 씨도 못 하거던. 이래 과개도(과거도) 몬 보고 하이께네.

그래 소금장수를 밥을 믹이, 또

"아 몇이고?"

카이까,

"아가 일곱이라."

카이, 자기 꿍끼가(꿍꿍이가) 있어. '옳다, 저거를 꼬와가이 돈을 마이 주가 꼬와가이고, 메느리캉 재아야 되겠다.' 메느리캉 자라 카몬 시아바이 영에 안 자고는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인자 하릿밤에 잘 믹이고 돈 주고 하이꺼네 안 자겠나 또. 메늘커지(며느리와) 자라 캐놓으이카네, 인자 알라 놓을라고 자라 캐놓으이 잤는데, 자고 인자 집에 갈 때, 어이, 이 사람들아. 소금을 반티 짊어지고 가는데, 그 집 아들이, 며느리캉 자는 아들이 지금 가는데, 가는데 총 놔가(쏘아) 직이삤어.

지 말 인자, 내 아 거 가서 하나 있다 낳았다 이 말 번진다고 직이뿠는 기라. 마 하지마라 카고 살리주야 맞는데, 그 대감이 마음이 잘 못 됐어. 그래 집이 망하더라요. 안 좋더라요. 그 지가 그 해 놔놓고, 또 돈 주가 보내가, 그래가 총을 쏴놓으이 소금 지고 가다가 단지가 채이가 구불러져 죽어뿠어. 그 그런 수가, 옛날에 대감 못된 거는 그런 기 더러 있어요.

[강동동 설화 52]

스님 푸대접에 망한 집안과 돌이 된 며느리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옛날 동냥바가치가 부잣집에가 가이커네, 동냥을 줄라 카이까네, 뭐 쌀이나 보리쌀이나 쪼깨(조금) 주가 보내몬 될 낀데, 어찌 독하놔놓인께네(독해 놓으니) 안 주고 머슴을 보고,

"저거, 소똥을 한 바가치 퍼서 주라."

카거던. 소똥을 한 대 퍼다 주고 나이카네, 그 스님이 맹물이 아이라 도사라. 그래 가다가 그 집을 돌아 보이까네, 물바다가 되어뿌고 집 다 흩챠뿠고(흩어서 없어져버렸고) 그래 메느리는 몬(못) 그라리까. 착한 사람이 되어가이고 돌이 돼가 있고, 그 집도 없이 물바다가 돼뿌고. 그 스님이 아이라 도사라. 그렇다 안 카대.

[강동동 설화 53]

여우 여동생을 물리친 오빠(2)

김덕렬(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안자 그거 한다고, 대감 집에 말캉(말이랑) 짜다라(많이) 있고 하는데, 딸로 키우고 아들 둘인강 서인가(세명이) 되고 딸이 하내이가 있고. 그런데 이놈의 영감쟁이가 대감이라 카는 기 딸만 자꾸 좋다 카고 아들 말로 안 들어. 그래 인자 공을 들인 게, 아들 놓고는 딸이 놓고 짚아서 공을 들이니카네, 너무 딸은 공을 들이 놔 봐야 안 되는데, 그런 공은 안 들이야 되는데. 그래 산신령님이 야시를 줬어, 메구로 내리 내 줬빘어. 너무 욕심 많고 나쁘다고.

그래 인자 그 딸이 났어. 났는데 커가이고 그래 인자 아들 서이가 있는데, 아들 서이 말은 안 듣고. 그래 인자 하릿밤(하룻밤) 자고 나이 말기 한 바리씩 죽어뿌는 기라. 말로 간을 내 먹어뿠어. 그 딸아가 커가이고. 그래 인자 아들로,

"뭣이 그라는고(그렇게 하는가) 보라."

카이카네,

"아버지, 저게 딴 게 아이고, 저거 동상 딸아 저기가 메구가 되가 간을 내 묵고, 저기가 간을 내 묵더라."

고 하이칸에, 막 아들로 머라 카고(야단하고), 아 그랄(그렇게 할) 아 아이라(아니라) 카고, 막 아들편을 들거든. 또 하룻밤 자고나이 또또또 또 그렇고 안 들어. 그때 들어가이고 조지뿌야 되는데 안 들어. 집구석이 안 될라 카이 그렇지. 그래 딸 놓을라고 공을 들이지 마라 이기라.

그런데 인자 말키(전부) 다 조지삐고 말키 뭣이 다 묵어삐고, 저거 아부지꺼지 다 죽고, 말키(전부) 다 절단 다 내뿌고, 한 애이가 딱 남았어. 오빠가, 오빠가 하나가 딱 남았어. '여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어서 인자 절로 가뿠어. 절로 가이까네, 절에 스님이,

"내가 오늘 궁금해서 집에 함 가보몬 싶으다."

카이,

"가지 마라."

카거던. 가몬 자아 믹힌다꼬. 그 스님 도사가 돼 아는 기라. 자기 집이 어째 됐다 카는 거. 다 가뿌고 지는 인자 혼차뿐이라 노이카네 인자 뭐 해코지 할 데도 없고 혼차 있는 기라. 그런데 가가, 하도 가고 짚다 캐서, 스님이 인자 가거들랑 인자 뱅이로(병을) 불 나오고 물 나오는 뱅이를 줬어. 세 갠가 줬어. 까시나무하고. 그래 세 개를 줌서, 요거를 가가거든(가져가거든) 만약에 동생이가 따라 오거든, 동생이가 아직 메구 돼 있는데, 가지 마라 캐도 갈라 캐서, 스님이 요거 따라오거던 요거로 떤지고 첫째는 물바다가 돼도 헤치 나오고 막 까시밭이 돼도 헤치 나오고 불바다가 돼가 타 죽으라고 인자 묶았다.

그래 하루 가이카네, 와이고, 오래비 옸다고,

"오랍아."

카고, 또 해코지 할라꼬, 내 묵을라꼬 막 이리 쌌는데 있을 수가 없어 도저히. 집을 보이 집은 보도 몬 하겠고 인자 쑥대밭이 되뿠지. 그래 인자 집을 갈라 카이 따라 갈라 카거덩. 그래,

"내 가는 데로 오지 마라."

카이까네, 마 우짤지 어데 가고 없는데 몰리(모르게) 오이까네, 막 뒤 보고, 막 인자 간 내 묵을라고 싹 따라 오는기야. 따라 오는 구로 첫째는 물로 떤짔다. 물로 떤지이 그리 헤고(헤치고) 또 따라 온다. 또 난지(나중에) 까시밭의 뱅이를 던지이까 까시가 되니 또 헤가(헤치고) 나와. 난주는(나중에는) 불, 불 그걸로 해 던지가 불에 타 죽었는가 안 오고 그리 왔다 카대.

그래 스님이 하도 가고 짚다 캐서 그랬지. 그래 집안이 안 좋아 마 집안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 딸로, 딸은 안 낳아도 좋으니 공을 들이지 마라 이기라. 산신령님이 그래 메구로 내맀다. 그래 딸 놓을라고 공 들이는 사람은 없거든. 아들 놓을라고 공 들이지.

[강동동 설화 5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배소열(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옛날에 그때는 옛날에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연세가 많으몬, 안 죽으몬, 인자

칠십이 넘으몬, 그때는 칠십까지 잘 못 사던 시절이라 세월이. 칠십이 넘으몬 요새 겉으몬 백 멫 살 될 거 아이요? 그런 기 드무이. 그래 인자 그때는 커다란 단지, 커다란 단지를 갖다가 그 아버지를 옇어가지고, 옇어가지고 양식, 생식 아이가 옛날에는. 그래 그거 다 잡수몬 죽는단 말이다. 그래가 인자 그거를 해가지고. 지게를 크게 해가 인자 지고 갖다 묻고 하던 그래 하는 시절인데.

그래 인자 아들이 따라 갔던 모양이라. 그 지고 가는 할아버지, 어머닌지 아버진지 몰라도 인자 고려장을 할라꼬 지고 가는데, 아들 쪼깬 기 따라 갔어. 그래 인자 거 거 인자 이래 파고, 파고 한 동안은 안 죽거던. 그 단지 안에 여었으니까. 단지 안에 여가 마개로 이래 심(숨)몬 쉴 정도가 아이고, 옇어가 있으몬 인자 그서 인자 생습을 해가, 옛날에는 그거 다 묵도록 산단 말이요. 그래 물 떨어지고 뭐 떨어지몬 결국에는 인자 죽을 거 아이요? 그 안에서.

그래 해가 하던 시절인데, 그래 인자 아들이 아부지를 인자 지게로 모시고 가가지고 인자 고래장 시킸는데, 아버지가 인자 그 지게를 안 지고 가거던. 그래 그 애가,

"아부지, 와 지게 이거를 안 지고 갑니꺼?"

이라이커네,

"나도 아부지 늙으몬 지고 갈라가지고 가야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청중: 그래 다부 덕고 오더라 카대.] 그래가 인자 몬 하고, 인자 그 아들 바람에 몬 그라고, 그 인자 고려장 할라꼬 인자 모시고 간 사람 도로 집을 인자 지고 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 나 확실히는 몰라요 그냥.

[강동동 설화 55]

방귀쟁이 며느리의 낭패

배소열(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북정할머니노인정]

옛날에는 보리밥 얼마나 묵었노? 그래 했는데 이 메느리가 방구를 원래부터 마이(많이) 뀌는 사람이라. 그래 시집을 왔는데, 그래 인자 어찌 그거를 해가지고, 시집을 방구를 못 뀌노인카네 얼굴이 노래지거던(노랗게 되거던). 음식도 옳게 몬 묵고 까스 못 내인카네. 그래 인자 시아바시가, 내 이 말이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겠고,

"야야, 며느리 와 그렇노?"

이라이카네,

"그래, 내가 할 일로 몬 해서 그렇다."

더라예,

“그래, 할 일이 무엇이고?”

카이카네, 그래,

“아버지가 질색을 할낀데.”

카니,

“괜찮다, 니 병을 낫아야지.”

“그럼 아버지가 지동을(기둥을) 딱 잡으라.”

하더라요. 지동을 잡는데, 빵구를 어찌 시게(세게) 뀌서러 아바이가 마, 마, 마, 고만 하라 할 정도로 마 그리 빵구를 뀌더라네. 그래갖고 있는데 그 질로 시작해서러 화장실도 마 자주 댕기고 이라는데, 메느리 간이 컸어 인자. 그래가지고 이놈 메느리 가마 보이 밥만 묵고는 화장실 가삐고 밥만 먹고 나믄 화장실로 가뿌고 그런데.

옛날에는 인자 그 뭐꼬? 그 짚 그런 거 신문지도 없고 짚 그거가지고 인자 이래 밑을 닦고 이라는데, 그래만 가몬 오래 있고, 오래 있고 있사서(있어서), 하도 불러서 메느리 불러싸인케네, 닦을 데가 없어가 지동에, 지동에 인자 그 못 대가리가 있었던 모냥이라. 그래가 인자 누가 불랐는고 부르이카네,

“한 동네가 두 동네가 돼가 죽겠거만은.”

막 그람서 나오는데, 그래 인자 똥을 닦으이카네,

“그래 뭣이 한 동네가 두 동네가 됐노?”

카이, 똥을 닦아노이카네, 인자 이리 앞에 하고 같이 마 싹- 기리뿠는 모냥이라. 그래가 인자 피로 흘리고 옸더라는 그런 말이 또 있고 그렇데. 진짠지 가짠지 나는 모르겠어요.

[강동동 설화 56]

날아다니는 갈치

송소금(여, 1929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송소금씨 댁]

한 문은(한 번은) 또 우리 동네서 모아가, 그때는 뭐하노 하몬 뭐 놀이 띠 뭐 이런 거 밤이라 저물도록 숨기놀이 그거 하거든. 구름이 찌가 비가 얼멋이 올라 카는데, 아레도 저 가서 얘기를 했다. 뭇이 지다란(길다란) 이런 기 불을 마 환하이 켜가 날라가는 기라. 날라가는데,

“아, 우짜꼬 저거 뭐꼬야~.”

카고, 마 우리가 막 보이께 꼬리가 이래 달맀는데, 칼치라, 칼치. 칼치 날라가는 걸 봤어.

그래 내가 용이 날라가더라 카는 이거 저 텔레비서 내가 얘기를 듣고, '아 참 칼치도 용처럼 그래 날라가는가배' 그런 걸 내가 봤어. 그거만 보고 그래 느끼고 이랬지. 내가 다른 얘기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조사자: 칼치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닌다고예?]

비가 오는 날인데, 비가 구름이 와갖고, 비가 약간 약간 이래 와도, 동무질에 노면(놀면) 비거 쪼게 맞는 그거는 치나 어데.

그래 그서는 아주 너른 운동장이 있었어. 일제시대 사람이 창고로 지나놓고 여서 농사지을 때 곡식을 거다 그 창고에다 가다 옇을 때, 그 창고 마당이 너른데 그게 일부 농민들이 가서 나락을 훑고 막 이랬거든. 거서러 우리 이 학교 저 운동장카모도 더 너른데, 아주 창고가 큰 기 세 개가 있었어. 그래 그거인데 우리 운동장에서로 마 우리가 놀기가 억수로 좋았어. 거기 놀 때 그 칼치를, 날라가는 거를 봤어요.

[강동동 설화 57]

불덩어리처럼 달리는 해치 불

송소금(여, 1929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송소금씨 댁]

옛날에 내가 그라몬 열 여섯 살 묵을, 아 열 다섯 살 무울 땐가배, 우리 친구하고 가깝게 있은 친구가 있었는데, 또 요동네 말고 저짝(저쪽) 동네라 카는 동네가 인자 있었어. 고 가까운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우리 친구가 친한 내가 단짝이 있었어. 놀러가자 카고 갔는데, 저 우에서 보이꺼네 뭇이 불덩거리가 이만한 기 으르르르를 막 오는 기라. 그래가 마 둘이서 아듬고 마, 가 이름이 덕남인데,

"아우~ 덕남아, 우짜고 저거 해치불이다."

이래 카니까, 그래 이리 보디만 지도 내를 아듬고 있었는데, 저게서부터 자그만한 불이 막 오는 기라. 그래가 보이꺼네 자전차 불이라. 그래 그때는 아저씨가 없고 만날 선생님이거든.

"선생님."

카고 부르이께네, 그 사람이 자전차를 딱 대대.

"그래 왜 부르노?"

이라데. 그래,

"아이구 선생님, 저게예 불이 이런 기 와서로 가도오도 몬 하고 우리 서가 있습니더."

이러 카니까,

"그래 어 나도 그 불을 보고 빨리 온다. 그래 어째서 그래 오노? 아, 어데꺼정 가노?"
이카대. 내가 그래,
"이짝에 평이도라 카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게 사는데, 가까운 동네 사는데 그래, 갑니다."
이러카이께네, 그래 그 아저씨가,
"나도 맹지에(명지에) 간다."
이라면서,
"그래, 그까정 내가 너거를 데려다 주꾸마."
이러카더만, 동네 입구 들어갈 때에,
"그래 니 성이 뭐꼬? 이름이 뭐꼬?"
이래 묻더마는,
"부친 성함이 뭐꼬?"
이래 묻는 기라. 그래 내가 성함이 그래 이렇고, 나는 송가고 그래 내 이름은 뭣이고 이렇다 가리키줐더마는, 그 분이 인자 밑천이 다 들난다. 내가 열 살 때 우리 생모가 세상 배릿어. 그래가 인자 새로 온 처녀한테 우리 부친이 결혼을 했어. 그래 새로 온 엄마 고모부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래 내가,
"아, 너거 집이 이기가?"
카면서 데비다 줘서, 내가 우리집에 가서 이래이래 얘기를 하이께네 그,
"선생님 성함은 뭣입니꺼?"
이러 카이,
"어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잘 알 끼다. 내가 아무 아무 것이다."
이라이, 가서 글카이 그래 우리 어머니 고모부 되는 기라. 그래 인자 아부지가 오자가자 고마 갈라고 갔습니다.

[강동동 설화 58]

도깨비의 도움을 거절하고 씨름 한 사람

송소금(여, 1929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강동동 송소금씨 댁]

시장 갔을 때 그래 허깨비로 봤는데, 내가 막 놀래가 울고 이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김해 갔다가 내리올 때에 그래 어느 님이(놈이) 아이고 어르신 어데 갑니꺼?"

카면서로,

“모시다 드리끼요.”

카고 이라는데, 보이 아버지가 보는 데는 허까비겉더라 카는 기라. 사람이 아이고. 그래가 있는데,

“모시다 드리끼요.”

카면서 잘 오더마는, 이님이 마 저거 뭐꼬 마 간 곶이 없이, 아버지가 마 술이 취해도 힘이 좋아서 마 그놈을 마 한 대 쳐뿠다 카는 기라. 그란이께네 이놈이 간 곶이 없는데, 그 다음에 부친이 충격을 마이 했다.

가서 보이께네 빗자리가 그 자리에 있더라 카는데, 빗자리, 빗자리가 있는데, 이거 지다란 마당 쓰는 비, 그 기가 있더라 하는 기라. 그래 그러카민서러 허까비가 내가 정신만 차리면 집에까지도 데려다 준다 그래.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 이 소리를 내가 들은 기억이 난다. 아버지한테.

[강동동 설화 59]

두 입에 놀라 도망간 호랑이

김소심(여, 1945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옛날에 나 많은 사람이 산에 갔는데, 마 호랭이가 나타났는데, 급하니까 마 이리 거꾸로 업치갖고(엎드려) 요래 있으니까 인자 밑에 그걸 보고,

“세상에 이때꺼정 봐도 입, 치째지는 입은 처음 봤다.”

함서로 달아나삐더래요.

[강동동 설화 6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2)

김정이(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저 아들 과개하러 가고 없을 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인자 이 할매를 얼매 해줄 기 없어가 지렁이로 그 해가지고 이래 해드리고 했더니. [청중: 메느리가?] 어, 메느리가. 할 게 없어서.

[청중: 할매가 눈치 어둡다.] 눈이 어둡고 이래 놓으니께 지렁인 줄 모르는 기야.

이래 살이 쪄가 복스리이 하이, 아들이 어데 과개게 고 와가지고 엄마가 그래가 있으이꺼네, 그 딱 심키 놨어(숨겨 놓았어) 샅자리 밑에. 고기는 몬 사줄 형편이고. [청중: 자리 밑에다 숨카 놨어.] 그러노이 지렁이로 그래 내 놓더라 안 카나. 엄마가. 하도 맛있고 그거 해서러 딱 감차 놨다 안 카나. [청중: 아들 줄라꼬?] 아니, 뷔(보여) 볼라꼬. 아들한테 뷔인다고(보여준다고) 그랬어. 그래가 눈을 퍼뜩 뜨더라 안 카더나.

[박성년] 지렁이로 내놓은께(내놓으니) 아이고 엄마 이기 뭐꼬 칸께 눈을 퍼뜩 뜨더라 카대.

[강동동 설화 6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3)

김정이(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옛날에 칠십만 되몬 그래 고래장인데, 고래장을 그 저 손주하고 아부지하고 인자, 아부지를, 저 할배를 지고 갔어. 가가 거기 뫼로 파로 가는데 마 옇는다 카대. 묵을 것도 옇고 여줬는 기라. 그래가 멫 년 묵을 거 여 준다 하제. 인자 뜨물이 이게 안 나오면 이기 돌아가싰는 기라. 그래가지고 지게를, 지게로 인자 손주 아들이,

"내삐리라."

이러칸께네 아부지가.

"아이고 아버지도 칠십 되면 져다 내삐리야지요."

그람서,

"져다 내삐리야죠. 와 지게로 내삐리."

집에 가(가지고) 가더라 안 카더나.

[박성년] 지게 가 와가이고, 그런 때민에 안자 칠십 고래장이 없어짔다 카대. 그 말이 있더라고.

[강동동 설화 62]

상주 노릇하고 부자 된 사람

박말년(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이전에는 보따리 장사 안 했는가배. 보따리 장사를 얼매나 마이 했노. 두 아지매가 인자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저 고개를 넘어 가야 되는 기라. 날이 저물어가지고 고개를 넘어가야 저 동네가 있는데, 그래 고개를 밤중 돼서 넘어갈라 카니까네, 자꾸 가도 마 집이 한 채도 없고, 우째 집이 한 채가 딱 있는데, 고 가 좀 자고 가자꼬,

"그래 날이 저물어서 너무 이거 고개 넘어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좀 자고 가자."

이래 카니께네, 총각이 하나, 주인을 찾으이께네 총각이 떡 나오는데 그래,

"몬 주무신다."

칸다. 그래 인자,

"부엌에라도 좀 자고 가자꼬."

이라이까네(이렇게 하니),

"부엌에도 자고 가몬 안 된다."

꼬. 그래,

"부엌에도 자몬 안 되요? 왜 안 되느냐고?"

이라이께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신양에 계시는데 그래 안 된다."

꼬. 그래,

"정 주무시고 가실라 카몬 우리 아부지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르니까, 세상을 베리몬(버리면) 상제 노릇을 하고 그래 가시라."

이카거든, [청중: 아 그 사람더러?] 어, 그 사람들로. [청중: 죽으몬 상제 노릇 해 달라.] 어. 상제 노릇을 해 달라 이캐. 아들 혼차서로 참말로 아바씨 세상 베리고 나몬, 그 외딴 데서러 얼마나 혼자 운독하고('막막하고'의 뜻인 듯함) 그 하노?

그래 놓으이케네 그 그래라도 인자 산길이 너무 먼께네, 그래 인자 자고 그래 마 하겠다 이래캄서, 아이 글차마자 참 세상 베리삔 기라. 세상 베리삐고 나이까네 상제 노릇 하라 카대. 참 얼척 없는 일 아인가배. 만고년에 그한데. 그래서 마 상주 노릇을 참 한다. 그래 인자 울라 카이꺼네 뭐라고 울겠노? 만고. 그래 운단 말이 인자,

"얼척없네, 얼척없네."

[청중: 곡 하는 소리가?] 곡 하는 소리가.

"얼척없네. 얼척없네."

카면서, 그래 인자 울었는 기라. 그래 울고 인자 초상을 참 쳤다. 초상을 떡 치고 나이카네 그 아들이,

"이때꺼정 장사 몬 핸 거 돈을 내가 보상을 해 주겠다."

카모 돈을 뭉티기로 내 놓더라요. 뭉티기로. [청중: 홍재 했네.] 홍재(횡재) 했어요. 홍재를 했어. 그렇게 했다.

[강동동 설화 63]

호랑이보다 무서운 똑딱이

박성년(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옛날에 아가 하도 울어서러, 알라를(아기를), 알라를,
"자장 자장"
카이 안 자서러. 호랭이가 인자 아 그거 할라고 와가이고(와서), 아무리 자자 캐도 안 자서러, 콩나물 물로 줘 놓고 똑딱똑딱 흐른께,
"호랭이 온다."
이래도 안 자고, 오만 짐승을 다 들먹이도 안자고, 콩나물 물이 똑딱똑딱 하는데,
"똑땍이 온다. 자자. 자자."
칸께, 아가 잔께네,
"왔다, 내카믄(나보다) 더 겁난 게 있는 갑다."
싶어서, 호랑이가 달라빼더란다(달아나더란다).

[강동동 설화 64]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4)

박성년(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옛날에 할매가 인자 나가 칠십 돼서러, 아들이 아바이로 인자, 인자 할매를 지아가이고(지게에 지고) 저 첩첩산골로 올라간께네, 아들이 따라 감서러, 그래 따라가는데 할매가 옷을 처매자락을 째가이고(찢어서) 솔나무다 탁탁 걸어주더라 카대. 그래,
"와 이라는고?"
물어본께네,
"너거 해나(행여나) 질(길) 못 찾을까 싶어서 질 찾아가라고 그란다."
캄서, 째가 얹어주더라 카대. 그래가 첩첩산중을 가가이고 참 할매를 고래장 해 놓고, 쌀캉 묵을 거를 많이 갖다 이리 해 놓고 오는데, 지게로 내삔께네(내버리니까), 저게 뭣고 손자가,

손자가,

"할배, 저 지게 가가지 와 놔느뇨?"

칸께네,

"지게 거 필요 없다. 놔 놓고 가야 된다. 내삐야 된다."

칸께네,

"후제 아부지도 인자 나가 많으몬 져다 내삐야 된다."

한께, 그래 고래장이 없어졌다 카대. 그래 없어졌다 카대, 그래 그 소리 있더라.

[강동동 설화 65]

부인을 효부로 만든 남편

배정순(여, 1943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옛날에 인자 시어머니가 밉어가지고(미워서), 인자 아들이 볼 때 밥을 쪼끔썩만 시어머니한테 대접을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아들이 가만히 연구를 대 보니까, '어무니를 어떻게 해야 밥을 좀 대접을 하겄는고.' 싶어 연구를 하니까,

"어디 저 시장을 가니까 나만 할매를 파라 하는데, 우리도 밥을 좀 잘 드리가 살을 찌아가지고 팔자."

이런께, 메느리가 마 밥을 굉장하이 대접을 주노이, 살이 쪄놓으니까 인자 마 일도 잘하고 마 이래논께, 어느날 사람을 시키가지고 인자,

"할매 파소~ 할매 파소~."

헌께,

"우리도 인자 할매 살로 찌았은께 팔자."

이래 된께네,

"아이구, 우리 어무이 인자 팔몬 안 돼요. 우리 일도, 아도 봐 주고, 일도 도와주고 한께 안 팔끼요."

커더란다.

[강동동 설화 66]

저승 갔다 온 사람

서원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우리 친고모가 애를 못 낳아서 소가를(작은댁을) 딜라갖고 오남매를 낳았어. 낳았는데 그 아들, 딸 놓으몬 자기가 받아 키았어 우리 고모가. 그래 시집 장개 다 보내고 이랬는데, 자기가 나이, 연세가 많은게네로 가만히 생각허네로, '내가 얼른 죽으몬 괘안은데, 안 죽고 자식들 고생을 시키몬 우짜고' 싶어가지고 수면제를 사다 모았는 기라. 묵기는 뭈는데 마이 안 묵으몬, 영 많이 안 묵으몬 안 죽는 갑더라. [청중: 메칠 자고 일어난다.] 음 며칠 아니고 인자 지붕에 옷 얹고, 사줏밥(사자밥) 해 놓고, 인자 막 팽풍 쳐 놓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살아났어, 깨났어. [청중: 인자 잠에서 깼다.]

그래 인자 저승을 간게네로 큰집에 시숙하고 동서하고 둘이 딱 나와갖고 질로 탁 막하놓고, 그 조카들이 예수를 믿어. 그래 제사를 안 지냈는 기라. 그래 항상 우리 고모한테 와갖고 배가 고파 못 살겄다 카더라네. 그래 아들 있는데 거 하나? 저거 자석도 제사를 안 지내는데.

저녁답에 인자 조기 한 마리 사고 나물 콩나물 쪼깨 사고 이래 해놓고, 저녁답에 밥을 해놓고 숟가락 걸치 놓고 정지에서(부엌에서) 그리 떠 놨어. 고모가 떠 놨는데. 그래 제수하고 동서하고 시숙하고 나와갖고 이래갖고 마,

"아이고, 제수씨가 올 때가 멀었는데 머 하러 왔이까?"

고. 동서도,

"행님이 여 벌씨로 뭐 하러 왔냐?"

고, 막 빨리 가라고 막 디리 쫓더란다. 그래 나왔는 기라. 그래 왔어. 왔는데, 그 깨놔갖고 지붕에 옷 얹은 거 내루고 사줏밥 해 놓은 거, 막 울고 디다보고 울고불고. 나도 갔거든. 내가 쪼깬 했어. 가서 본께네 막 울어쌌고 울어쌌대. 이래 쌌더만은. 병풍 필차논(펼쳐 놓은) 뒤에서 보시락 보시락 일어나서 기겁을 해 기겁을 사람들이. [청중: 일나도 기겁을 해.] 아.

그래 인자 자기가 인자 마 메칠 지난 연에(지난 후에) 이야기를 하더란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한 칠년 사다 돌아가싰다.

[강동동 설화 67]

뱀을 죽였다 화를 당한 사람(1)

서원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우리가 시집을 가 사는데, 남자가 군에 가갖고 여 총을 맞아갖고 손이 요런 기라. 아를 뱄는데 첫아를 뱄는데, 앞에 뽕나무가 쪼르륵 있는데, 뱀이가 뽕나무에 앉아가 있는 기라. 이리 턱 타고 있은께네로 아가 놓을 달이 됐는데, 이 집 남자가 마 못 본 척하고 놨됴으몬 됐을 긴데, 뱀이 그걸 잡아다 직있어.

직있더만 아를 놔놓은께 마 뱀이 행사로 하더라. 젖을 이리 믹일라 쿠몬은 세로(혀로), 눈이 똑 뱀 눈매로(눈처럼) 허~ 이래갖고 이래갖고. 아이고, 그래 좋다꼬 마 우리가 보고 이래 쌌는데, 세 살로 묵는데, 세 살 묵은께 더 해. 젖을 이래 믹이몬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을 하며] 이래.

그래 그기 첫 재앙을 저질러 놓은께네로, 그 안 살고 딴 데로 이사를 갔는데 아가 또 그렇더란다. 아를 서인가? 인자 고 여 안 살고 또 가고, 또 그라몬 또 가고. 이래갖고 마지막에 인자 또 다시 고향을 들왔는디 아를 낳아논께 이제 그때는 개안테(괜찮다). 좋다 쿠는 짓은 다 하고 절로 다 댕기고 했는데.

[조사자: 큰아이는 어쨌습니까?] 거 아이 서이 뱀매이로 그래가 서이 죽었지. 젖을 믹이몬 큰 거매로 새가(혀가) 그것도 마 마 이래 에~ 한께, 더 크대, 아가 마. 이래가 젖을 요래갖고 이래 믹이몬, 탁 뱀이 행사로 하더라. 마~ 팔다리가 이리 꾸부러치고, 어찌 그리 뱀 행사로 하겄네. [청중: 살도(살지도) 안 하던가배?] 그 살아가 우짜구로.

[강동동 설화 68]

뱀을 죽였다 화를 당한 사람(2)

이미연(여, 1944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통장하고, 동네 마을에 친구가, 한 사람은 통장이고 한 사람은 친군데, 저쪽에 여 오데 동네마다 돌무덤이 하나썩 있어. 거가 뱀이가 큰 게 나오더라 하대. 그 뱀이를 잡아가서 마 잡

아뭈어. 삶아뭈어 둘이서. [청중: 그거는 지킴인데, 무덤의 지킴인데.]

그래가 그거 묵고나서 아저씨가 돌아가싰뿠는 기라. 돌아가시고 난게 한 삼 일 된께네, 뱀이가 요만치 한 기 집에 마 바글바글하이 오는 기라. 오데서 마 많이 와갖고 방에도 뱀이, 부엌에도 뱀이, 지푸라기 좀 들치도 뱀이, 그래가 마 대밭에 뒤에 대밭인데, 온 대밭에도 뱀이고 이렇더라 하대. 뱀이굿을 크구로(크게) 했다 카더라.

[강동동 설화 69]

고양이를 죽여 화를 당한 사람

이미연(여, 1944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저 우리 고향에는, 우리 고향에는 어느 한 집에는, 고향에 어느 한 집에는 이리 그거 했는 기라. 고양이가 그때도 고양이가 많이 있었어. [청중: 고양이도 요물이다.] 고양이가 담에 딱 이리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고양이를 마 때리 직이뿠는 기라. [청중: 우짜꼬!] 그래 마 눈이 어두바지뿠어. 고양이를 직이뿌고 난께네. [청중: 아들이?] 어, 아들이.

그래가 인자 저거 엄마 저거 아버지도 좀 살다 다 죽어뿌고 없고. 아들 지 혼자서러 인자는 집을 막을, 이래 동네 사람들이 막을, 요래 옛날 집은 막을 요래 안 지었나?. 째삣하게 요렇게 옛날에는. 그래 지가 그 따다가 옇어 놨더만은 밥을 동네 사람이 이웃 사람들이 때때마다 집안사람들 죽 갖다주는 기라. 눈이 어둡아져서 밥 얻어 무러 댕기도 못 하고.

그래 동네 마을 사랑방 있는데, 사랑방아다 데리다 놓고 이래, 인자 촌에는 초가집을 일라면 이리 새끼를 꼬아야 집을 다 인다 아이가. 그래 새끼 그거로 잘 꼬았거든 눈이 어둡아도. 집집마다 동네 사람들이 짚을 이만치 추려가 딱 갖다주만은 마 오늘은 이 집 거 꼬아주고 적녁에는 저 집 거 꼬아주고 다 꼬아주고, 그래가 묵을 것도 다 갖다주고 그랬는데.

참 그것도 남자라고 봉사가 되갖고, 한 집에 하루는 마 우째 왔는지 짝대기를 짚고 어느 한 집에 갔어. 여자로 오데 알아. 여자로 생각이 나가 여자한테 마 그거로 하는 기라. 눈이 어둡아도 넘의 여자로, 젖먹이는 여자로 막 달라 들어가 덮칬어 봉사가.

그래갖고 [청중: 신랑도 없는 적에.] 신랑도 없는, 신랑이 있걸레 아를 낳겠지. 신랑 있는데 혼차 애기 젖을 믹이는데, 그기 봉사 우째 더듬아 갔어. 젖 먹는 애기로 뺏드리뿌고(빼앗아 버리고) 지가 달라들고 이라더라. 이래 해갖고 거도 거기 그래가 쌔리 가다놓고(가두어 놓고) 이랬다. 가다놨다 쪼끔 있다 죽었다. 그런 일도 있더라.

[강동동 설화 70]

불덩이처럼 보이는 도깨비 불

이영임(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옛날에 내가 열 다섯, 열 여섯 고럴 적에 살 땐디, 시골에 사는디, 우리 동네는 요 앞으로는 옆으로는 기찻길이 있고, 이쪽으로 뻐스, 뻐스 댕기는 자동차길이 있는디, 우리가 이렇게 동네가 가운덴디, 우리집에서 보몬 저기 철로둑 밑에 큰 농사짓는 물 내려가는 수문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동갑내가 다섯이여. 그럴 적에 사는디, 하루는 요 집에 가 놀고, 하루는 요 동상 또 친구네 가고, 하루는 또 우리 집으로 오고 그러는디. 우리 집이 좀 끄트머리거덩. 그러인께 친구들이 집이 멀으면,

"아이고 난 너거 집 갈래도 멀어서 무서워서 몬 간다."

이래.

"아니 내가 데려다 주게."

난 누가 오는 거 좋아서,

"아이고, 얘 내가 데려다 주게. 데려다 주게."

그래 인자 놀고서는 저녁에 앉아 양말 뜨고 이래 뜨개질을 하고 갈 적에, 한 번은 딱 내가 데려다 주러 가는데, 제일 멀은 애를 셋이 가몬(가면) 셋이가 딱 데려다 주고, 또 요 집 데려다 주고 그라는디.

내가 우리 집 대문을 딱 열고 나가니께, 그 철로등 옆에 수문에서요 이만한 불땡이가 나오대. 그건 내가 현재 봐서 알어. 이만한 불땡이가 나오더니 그 철로 둑, 이렇게 비탈이 올라가야 해. 철로 둑을 넓고 동네 들어오는 길으로. 이만한 불땡이가 올라오더니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매 철로 둑으로 가는 거라. 나만 봤지 걔들은 못 봤어. 걔들이 봤으몬 우리 집에 놀러 안 오는데. '하이고, 저게 무슨 불인가?' 나 혼자 보고 걔들 알까베,

"가자, 가자, 가자."

이래 막으매 데리고 인자 걔를 데려다 주고, 얘를 데려다 주고, 그라고서 내가왔는디, 집에 오니께 우리 아부지가 마실을 갔다 오셨어.

"넌 어딜 갔다 오니? 저녁에."

그래, 내가.

"하이고 아버지, 내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무개 오고 아무개 오고 서이 모여서 뜨개질하고 놀다가 가는디 데려다 주고 와요. 그라는디 아부지, 내 도깨비불이라고 그래도 몰랐는디 요만한 불땡이가 나오더니 철로 둑으로 뚝뚝뚝뚝 막 이 불방울이 떨어지는 게 뵈이는 거라,

그래 올라가데유. 그게 왜 그래유?"

그런께,

"아따, 야무지게 봤다 너. 그게 도깨비다."

도깨비는 불이 쳐진다네. 불이 쳐진다대. 밑으로 막 불땡이가 떨어지는디 불땡이가 요만 카대요 그랬디.

"야물게 야물지게 봤다. 그게 도깨비다. 그 도깨비불은 애들이 보몬 무서워서 그리 못하는디 너는 그걸 어떻게 봤냐?"

"나는 하나도 안 무섭대유."

이랬더니, 그게 도깨비불이다 그러시더라구. 그러더니 우리 아부지도 한 번 논에 물 대러 가서 밤 열두시까지, 그전엔 물이 귀하니께 그 모 심어 놓고 물 댈라면 밤을 새워 마. 그랬는디 그 얘기를 나한테 또 하더라고,

"니 도깨비불 봤지? 나도 도깨비불 야무지게 봤다."

그래셔. 그래 그런 걸 내가 본 것이 기억에 안 잊어버려.

[강동동 설화 71]

도깨비에 홀려 혼난 사람

이영임(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우리 동네 사람 하나는 딸을 시집을 보냈는디 자영(친영)을 왔어요. 왔는디 부잣집이여. 그 이네가 최고 부자여. 땅이 많어. 동네 집집마다 토를 다 가을이면 토토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부잣집이여. 김서방넨디. 그 집에는 두째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두째 딸 사위가 삼일 만에 자영을 왔어. 처갓집에 자영을 왔는디, 동네 청년들이 다 모여갖고 [청중: 그때는 다 모인다.] 예. 다 모여갖고 술판이 벌어져 술을 먹고 막 노래를 하고 놀다가 신랑이,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께요."

하고 나가더래요. 근데 그네 집이 부자라 안채 아래채 안채가 아주 크게 지었는디, 큰 대문이 있고 요짝으로 작은 쪽대문이 있는디, 그 쪽대문께도 화장실이 있고, 큰 대문으로 나가 문밖에 화장실이 또 있고, 지금은 수세식이지만 그때는 재래식으로 밖에다가 지었잖아. 그래서 인자 작은 대문이 안채에서 나오믄 화장실이 가까운께 작은 대문으로 나왔대. 나오니께 키가 크석같은(멀대같은) 님이 두 사람이 이리 섰더래요. 그러더니, [청중: 눈에 헛것이 빚다.] 예.

"야, 너 잘 나왔다. 니가 나 가자는 데로 안 가면은 이 몽뎅이로 팬다."

이라더라. 그래,

"아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왔다."

고 이라고. 화장실을 갔다 오라 하더니요, 두 놈이 서서 옆댕이로 못 가게 막더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얼마나 밤새 도깨비 홀린겨. 그런디 그 집이 원래 도깨비 터라 일 년에 한 번씩 가을이면은 햅쌀 나면은 도깨비굿을 해요. 그런 집인디, 새 신랑이 홀린 거라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유, 암만 앉았어도 신랑이 안 오니께네,

"아이 신랑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한 사람이 그라면 또 두 사람이,

"아이, 나가보자."

하고 나가 보니까 없어.

그러니께네 막 온 천지로 동네 다 디벼도(뒤져도) 없으니께, 사람을 품값 준다고 사가지고 그 신랑 동네를 찾아서 간겨, 도망갔나 하고.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달리니께 못 이겨 도망갔다 이렇게 해갖고 신랑 집을 찾아 갔는디, 안 왔다 하고 거기서 또 난리가 난겨.

"왜 얼마나 신랑을 다뤘으면 도망을 가게 했느냐."

아주 마 신랑 집에서 마 밤중에 찾아갔으니 얼마나 놀래? 한 20리 되거든 그 동네가. 마 식구들이 나서갖고 잠도 안 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무리 얼마나 볶았으면 신랑이 도망을 가느냐고, 난리가 나갖고 밤새 돌아대니다가 새벽이 훤한께 오더래요.

신랑이 찾아 오는디 명지바지 저고리가 후줄근하고, 주민등록이고 뭐 돈 지갑이고 다 어디 다 빠지고, 물독에 빠진 사람 마냥 밤새 이슬 맞고 돌아 댕겨갖고 옷을 다 버리고, 신발도 한 짝은 어디로 벗거졌는지 없고, 그렇게 초가 돼서 왔더래. 사람이 다 죽게 돼갖고. 그러이까 난리가 나고 그래도 안 죽고. [청중: 해치한테 홀리가.] 도깨비 홀려 산인지 들인지 어디로 돌아다녔는가 모르는데. 이 집 터가 센 집이여.

그래가지구유 그 도깨비굿을 안 하면은 막 나뭇가리서도 불이 나고, 짚가리에서도 불이 나고 일 년에 불이 몇 번씩 나. [청중: 그 집이 터가 제일 센 거라.] 그래가 도깨비 굿을 해마다 해거든. 그랬는디 살아 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유 인자 그 집에서는. 어디가 죽었을까봐 겁이 났는디. 그래가지고 명지바지저고리를 금방 빨아서 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장인 옷을 입히고 빨아서 어떻게 해서 사흘만에 갔는디, 그 예를 들어 저거집에서 얼마나 푸대접을 할까 싶어서, 떡을 하고 돼지 잡고 뭐 잘 해서 일꾼 지우고 이렇게 해서 데려다 줬어요.

그기 그이가 오래 못 살고 군인 가서 사고 나서 죽었어. 도깨비 홀린 사람은 오래 못 산단 말이 있다네.

[강동동 설화 72]

도깨비로 변하는 피 묻은 빗자루

이영임(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여자들이 멘스(월경) 해잖아. 멘스 할 때 옛날에 할머니들은 불을 땔라먼, 이래 앉아 불을 때면은 빗자락을 깔고 앉고 불을 땐다대? 그러면은 월경할 때 그거를 빗자루에, 예를 들어 옷에 묻어갖고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그게 도깨비가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면서.

3. 녹산동 설화

[녹산동 설화 1]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대화(1)

권차순(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경로당]

버버리하고 봉사하고 떡 살았거든. 저녁에 턱 이불을 덮고 둘이 내우간에 탁 끌어안고 자이께네, 어데서,

"불이야. 불이야."

카거든. 그래가 인자 할맘이 벌떡 이불로 들시고 일나이께네 영감이 더듬더듬 더듬거든.

"가만 있으소. 내 가보고 오께. 가만 있으소."

그래 글코 나가디만은, 나갔다 오가지고 그래 인자 저 그래,

"아이구이 누 집에 불이 났더노? 얼마나 탔더노?"

카이께네, 그래가 인자 영감이,

"가만 있으소. 가만 있으소. 불이 많이 났더라."

그래 이래이래 씨담은께,

"아이고이 상지동이 탔더나?"

카이, 그래가지고 상지동, [청중들을 향해] 상지동(상기둥, 안방과 마루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안 있나?

"아니."

라고 이래 하이,

"아, 그러면 세까리만(서까래만) 남았더나?"

이카거든. 그래 인자,

"아이라고."

세까리도 안 남고, 그래 인자 저저 뭐고? 그래 인자 난중에는 술 씨담다가 더듬어 실 건드리이끼네,

"아이고! 우짜꼬. 복판 지동빼끼 안 남았던가배?" [일동 웃음]

[녹산동 설화 2]

야한 소리로 들리는 말

권차순(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경로당]

옛날에 떡 언자 저거 아버지가 돌아가싰뿠거든. 그래 인자 상에 이래 모도 다 손지들하고 모두 자기들하고 울어싸이께네, 어디 어디 저검마가(자기 엄마가) 오디마는,

"[우는 목소리로] 아이구 답답해라. 아이구 답답해라이. 쏙 옇어주고 쏙 옇어주디마는 누가 쏙 옇어주꼬?"

이라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아들이 가만 들으이 이상하거든. 자꾸 그래 울거든. 그래 인자 그래,

"엄마. 엄마. 그기 무슨 소리요?"

이러카이께네,

"[우는 소리로] 아이고 야야, 옛날에 박자 캐도 안 박고 이랬다."

"그기 무슨 소리요?"

카이,

"영도 섬 다리 밑에서 시배 보민서로 한 번 박자 카는 거로 내가 안 박았다."

이라거든. [조사자 웃음] 왜냐하면 인자 저 어데 사람이 '쇠'로 갖다 '시'라 카는 기라 시. [조사자: 아! 시.] 저 저 저 저 저 어데고, 어데고? 거는 '시'라 카대. 그래 쇠배 쇠에 뻔덕뻔덕, 쇠배가 쇠 아이요? 요 경상도 말로. 쇠배가 번떡번떡 하이,

"저거 보고 사진 한 문 찍자."

'찍자' 이거로 '박자' 캔 기라.

"그래 야야, 그기 아이다. [우는 소리로] 옛날에 영도 섬 다리 밑에 거 구경하러 너가배캉(너의 아버지와) 갔디, 시배가 둥둥 떠오르는데, 거서러 시배 보면서 한 분 박자 카는 거로 내가 몬 박았다. 아이구 쏙 옇어 주디. 쏙 옇어 주디, 인자 누가 옇어 주."

"엄마. 쏙 옇어 주는 건 뭐요?"

카이께,

"옛날에 너거 아배가 너거 누부 집에, 너거 동상 집에 가몬 돈을 얻어와서 내 주머니 벌기라(벌려라) 카모 쏙 옇어 주고 쏙 옇어 주고 하디, 인자 옇어 줄 사람이 없다."

이기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그래도 그런 소리는 여게 사우도 있고 전부 외곽 손님들인데 하지 마소."

이러카이,

“아이고. [우는 소리로] 그래도 나는 할란다. 누가 쏙 옇어 주고 시배 보면서 박자 카는고? 마 박았으모 내가 한이 없제.”

“안자 엄마, 내가 용돈 드릴게요. 고만 치고 하소.”

카이, 그래 안 울더라요.

[녹산동 설화 3]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1)[온 방에 장모 대가리라]

김동림(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경로당]

사우하고, 이전에는 단칸방인데, 사우하고 장모하고 한 바아(방에) 사는데, 한 방에 자는데, 인자 신랑이 마누래 생각이 나서로 마누래 찾아 댕긴다고, 이래 쭉 아들하고 자는데, 그래 인자 찾아 댕기거든.

앞문에 인자 장모가 누어 있는데, 앞문에 인자 찾아갔다. 앞문께 가이께 장모가 툭 받치거든. 장모가 인자 미안코 시엄이 안 나아가지고 뒷문에 피해서 인자 달아났다. 저 뒷문에 누우가 있은께서로, 사우가 한단 말이,

“온 방에 장모 대가리라.”

카더라.

[녹산동 설화 4]

호랑이도 감동한 효부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사구마을회관]

옛날에 우리 조부님한테 들은 이야긴데, [청중: 맞다. 할매 밑에 있어서.] 예. 조부님한테 들은 이야긴데, 옛날에는 호부열녀(孝婦烈女)가 많았어예. [조사자: 그렇지예 예.] 열녀가 되는데. 인자 참 억수로 가난했는 기라예. 집이, 자기 딸네 집, 거 인자 처이(처녀) 집이 억수로

가난했는 기라예.

가난한 딸로 치울라 카이 그 집에 살림이 있는데, 참 앞 못 보는 봉사라. 그래 인자 신랑이 인자, 시집간 삼 일만에 신랑이 죽어뿠는 기라예.

시집간 삼 일 신랑이 죽어뿌. 죽어뿌니께네 앞 못 보는 봉사라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기라예. 옛날에는 한 문 그 집에 시집을 가몬 다시 못 오거든예. 아무리 해도 살아야 되거든예.

그래서 친정엄마시가 너무너무 딸이, 가잖으몬 안 오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는 기라예.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시 죽었다고 부편을(부고 편지를) 보냈는 기라예. 보내니까, 그래 딸이 참 시아바시보고,

"아부님. 엄마가 돌아가셨다 카는데 저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뭘 해야 여자 살았는가, 바늘받이 품을 두고 살았는 기라예.

[조사자: 무슨 밭이?] 바늘받. 바늘받. 예전에 바늘받을 해가 살았는데. [조사자: 삯바느질.] 그래 살았는데, 그 언자 방아질을 해주몬, 죽을, 이전에는 모자반죽, 시래기죽이거든예.

죽 세 그륵을 인자 가져 와가지고, 시래기죽 두 그릇, 모자반죽 한 그릇, 세 그릇 얻어가 와가지고, 인자 삯바느질 해줄라 카이, 미리 가, 그래 시아바치한테 가서,

"아부님예. 어머니가 돌아가싰다 카는데 안 갈 수가 없습니더. 그래 이 죽을 아부님 내 어떤 일이든 내일이몬 올 끼인꺼네(올 것이니까), 아부님 죽이랑 자시고 낼(내일) 아침 함(한 번) 자시고 낼 점슴 때, 낼 언자 신경을 쓰가 제가 오겠습니다."

카고 인자 가는 기라예. 참 곡을(고개를), 지금을 치면, 옛날에는 곡을 보고 댕깄지 질이 없었고 찻길이 없었거든예. 지금은 차가 있지만은.

그래 삼십 리 길을 걸어서 인자 갔는 거라예. 곡을 곡을 넘어서 가니까, 어마시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해가 꺼스름한데 마당에 빨래를 널어쌌거든예. 그래,

"엄마 돌아가싰다 카더마는 왜 엄마가 빨래를 너노?"

아, 저거 엄마가 막 잡아 땡기리고 아무리 해도 뿌리치고,

"나는 우리 아부님 때문에 가야 된다."

고 기어이 뿌리치고 오는 거라예. 뿌리치고 오니까, 그러고 그 재를 넘을라 카이 해가 꺼스름하이 다 졌뿠는 기라예. 그 주막집이서 한단 말이 있다가,

"야 이 사람아. 집도 못 간다. 그 고에는(곳에는) 당간이 구챈데, 사람만 가몬 그고는(그곳은) 죽는 잰데 그래 못 간다. 내일 가라."

카이,

"밤중이라도 가야 됩니다."

카거든예.

"암만 밤중이라도 우리 아부님 때문에 가야 됩니다."

카이, 그래 그 재를 넘어서 참 중두릎쯤(중턱쯤) 안자 오사이(오니까), 어디 마 불이 마 똑 사발떼기다(사방에서) 불이 환하게 캐이가(켜져서) 있거든예.

그래 딱 오이, 근데 큰 대호(大虎)라. 호랭이라예. 큰 호랭이가 복판 턱 가로막고 서가 있

거든예. 그래 이 여자가 그래,

"산신령님. 산신령님. 나는 부모를 위해서 가니까 나를 잡아 자실라 카면 자시고, 안 그라면 나를 태아다 좀 해주세요."

이러 카이, 그래 참 호랭이가 꼬리를 살 낮추더랍니다. 그래 이 등을 탔어예. 타고 저거 집을 참 지금겉으면 오 분 내로 가뿠는 기라예. 그래 저거 마당 턱 내라주고 가거든예. 그래 가니 저거 시아버님 …….

"아부님. 저가 돌아왔습니다."

"야야. 사부인 돌아가싰다 카는데 밤에, 이래 밤중에 왔나?"

이러 카거든.

"그래 아부님. 어머님 안 돌아가시고 저가 보고 짚아서(싶어서) 그래 그랬답니다."

이러 카이,

"그래, 아부님. 죽을 우쨌습니까?"

"야야, 니가 없으이 내가 마 죽을 한 그릇 무웄다."

이라 카거든예. 그러고 날 새서 아침을 떡 내다보이, 소고기 한 근하고 돈 석 냥하고 갖다 놨는 기라예. 아침 딱 자고 나이께네. 그래 인자 돈 석 냥하고 소고기 한 근, 그거를 갖다가 열흘, 근 보름을 딱 갖다 놨는 기라예.

갖다 놓이 소고기도 밀리고, 돈도 인자 그러고 많이 밀리가. 들판에, 동네 복판에 집을 사고, 논을 한 동가리 샀는 기라예.

그래 놓이, 그 동네 사람들, 유지들이가,

"저년이 도둑질 안 하고는, 앞 못 보는 시아바시 대가 뭐가 저래 부자가 될 것고?"

그래 저년은 관안에다(관아에다), 지금겉으몬 경찰서지예.

"관 안에 쳐 옇어야 된다."

카고, 그래 관안에다가 쳐 옇어뿠는 기라, 그래 여자를.

관안에서 말로 하기로,

"예. 나를 보름만 말미로 주이소."

이러 카거든. 그래가,

"그래 오냐. 보름 말미를 주꾸마."

그래 참 와가지고 여자가 밤낮 찬물로 목욕을 하고 공을 들있어예. 공을 들이이, 참 고 날짜 딱 돼 어기도 안 하고, 아침하고 아홉 시 딱 되이, 큰 대호가 마 마당 복판에 탁 나타나거든예. 자기 거 했던 호랭이가. 그래 나타나가지고 그 마당 고을에, 인자 경찰서 고을에 가서 세 바꾸로 싹 돌디마는 내라놓고 가더랍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고 이러한 죄라 카이, 첨어는(처음에는) 아무도 관아도 안 곧이듣더랍니다.

그래 인자 퍼주올래비(?), 그래 와가지고는 참 부모한테 호자고(효자이고) 열녀라고 호자라고 호자상을 내리고, 참 그때는 참 억수로 잘 해갖고 억수로 잘 사더랍니더.

[녹산동 설화 5]

자식 죽여 시어머니 살린 효부[산삼 동자]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사구마을회관]

이전에 참, 그전에 시아마이 고부질에(고부간에 같이) 살고, 아들하고 이래 사는데, 할매가 뱅이(병이) 나뿠는 기라예. 병이 나뿠는데 오만 약을 다 구해 드려도 약이 없는 거라예. 이때 조선 천지는, 이전에는 조선 ㅇ매라 카모, 조선 천지를 다 구해도 약이 없는 기라. 약이 없어.

그래 참 하루는 스님이 턱 들어와,

"시주 왔습니다."

이러 카거든예. 그래,

"시주는 아무나 들일 테니께 그래 우리 할무니 병환이 났는데, 지금 삼 년째 이래 끌는데(끌어가고 있는데), 그래 약이, 오만 약을 다 대도 약발을 안 보이 약을 ○○서러 어떤 약이 스님 좋습니꺼?"

이러 카거든. 그래,

"내 시기는(시키는) 대로 하겠나?"

이러 카거든.

"예. 스님 시긴대로 하겠습니다."

"너거 자석이라도?"

이러 카거든예.

"예. 자석은 놓으모 자석 아닙니꺼?"

이러 카거든예.

"그라몬 너거 자석을, 너거 큰아들로 할매를 고아 미면은(먹이면) [조사자: 아이구야.] 예. 큰할매, 너거 할매를, 너거 아들 삼 형젠데, 큰아들로 할매를 고아 미며는 그래 할매가 병환이 일어나을 기다."

이러 카거든예. 그래 가만, 지녁에 해가 져서 영감 일도 하고 들오이 의논하는 기라예.

"보소 보소. 어머이 약이, 아무 것이 어머이 약이라 카는데, 그래 어찌 할래?"

"씰 데 없는 소리 한다."

고 영감이 난리가 났는 기라예.

"어데서 그런 소리 듣고 쓸 데 없는 소리 하노?"

카모, 난리가 났는 기라. 그래 하리(하루) 지녁(저녁) 의논해도 안 되는 기라예. 이틀 뒤 또 영감을 또 꼬니까 또 마 잇금도 안 나가는 기라. 사흘 저녁을 꼬는 기라. 그래서,

"우리 자석을 놓으몬 자석 아인교? 자석은 놓으몬 자석인데, 부모는 한 문 가몬 다시 안 온다 아인교? [조사자: 그렇지. 다시 못 오지.] 예. 다시 못 온다 아인교? 부모는 하나임으로, 자석은 놓으몬 자석인데."

하거든. 그러 카이 마누래가, 자기가 그래도 못할 긴데, 마누래가 그래 카이 안 들어 줄 수가 없는 기라예.

"그라모 좋다. 니가 낼 아침 물로 끓이라. 장작불로 때놓고 물로 끓이라."

이러 카거든예. 그래 참,

"아무 것이 책을 찾아가 오소."

이러 카거든예.

"인자 그렇지. 아무거시 데꼬 오소."

이라 카거든. 그래 데불로(데리러) 갔다. 데불로 저 산 중도 니라(내려다) 보이 책을 옆으라(옆으로) 끼고 오거든예.

"하이, 아무것이 오나? 내가 니 데불러(데리러) 갔더만."

카이,

"말라고예(뭐 할려고예)?"

이러 카거든.

"아이, 집에 가보몬 알 일이 있다."

이러 카거든. 그래 오는 거로 저거 엄마가 목욕을 말큼 시킨 기라. 시이가지고(씻겨서),

"니 정지(부엌) 한 번 오보래."

이러 카거든. 정지 오는 거로 마 솥두방으로 마 확 밀어옇어뿠는 기라. 밀어뿌마 인자 불로 때는 거라. 그래 엄마이는 어떻겠습니까? 자석 아바이하고 마 어떻겠습니까?

저거 할매는 바아서(방에서) 마 맛있는 구신내 난다고 난리 났는 기라예. 아픈 사람 누우가지고. 아픈 사람 누갖고 마 구신내 난다고.

"날(나를) 거 한 그릇만 주모 안 되나?"

"예. 어머이."

자기는 울면서,

"어머이. 기다리소. 드릴기예."

카고 이라거든, 그래가 끓이가 참 물로 한 그릇 떡 디다 보이께네, 아무 것도 없거든예. 아무 것도 없더라. 실따람 하나도 아무 것도 없는 기라예.

그래 물로 한 그릇 떠들이(떠서 드리니), 물이 맬가이(말갛게) 해가 떠들이,

"하우 얘, 내 그거로 묵고 나이 살 거 같다."

이래 카거든. 그래 한 그릇 묵고 두 그릇 묵고, 그래 한 댓살 이래 묵고나더만 마 털고 일나더랍니다. 털고 일나 다니고 마 사살 화장실에도 가고, 삼 년을 누워 있던 사람이가. 오만 약을 다 써도 안 된다. 그래가 일나고 인자 화장실도 다니고, 밥도 잘 묵고, 인자 손주를 찾는 기라예, 이 할매가.

"아무 것이 어디 갔노? 와 안 비이노(보이노)?"

하이,

"어머이예. 아무개 서당 공부하러 갔습니다."

카고 인자 자꾸 속이는 기라예. 그러구로 야아 공부하러 가면 서당에 몇 달 있이야 내려오는 거라.

"그래 어머이. 아무 날 되면 올 겁니다."

이러 카거든. 그래 인자 하루는 의논. 인자 신랑 영감 할마이, 신랑이 의논했는 기라.

"그래 보소 보소. 아무래도 아는 없는 거고. 서당 가 책을 찾아와서 할매한테 야기를 합시더."

카고 인자 낼 아칙, 아침 자고나몬, 아침에 인자 가는 기라. 인자 데불러 간다고 촐래촐래 서당 간께, 아 아들이 책을 말큼(모두) 싸 짊어지고 내려오는 기라예.

[조사자: 오. 죽었던 아가?] 예.

"하유. 야야 니가 우짠 일이고?"

카이케네,

"내 서당 공부하고 안 오는교. 아부지, 와 그랍니꺼?"

이러 카거든.

"아, 그래 마 그럴 일이, 집에 가보몬 알 끼다."

카거든. 가서 가이 저거 엄마도 보이 저거 아들이고, 저거 할매 인사하는데 무사이 나오거든. 그래 하도 부모한테 열녀호자로 해서로 어찌 효자로 하는지, 동삼이 화해가지고(변화해서) 스님이, 스님이 동삼을 화해가 보내뿠는 기라.

인삼 동삼을 화해가 보내. 그래 할매, 그 할매가 낫고, 아들 찾고, 그래 장가 디리고, 손지 보고, 그 할매 사다가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래가 잘 사더랍니더. [일동 박수]

[녹산동 설화 6]

저승 가서 청조새가 된 애원애기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씨 댁]

한 살 먹어 엄마 잃고 두 살 먹어 아바이(아버지) 잃고, 올 때 갈 때 없어서러 삼촌집을 찾아가이, 삼촌님은 내리 차고 숙모님은 올리 차고, 그날부터 ○○ 좋아 없는 돈에 집도 못 꾸미나.

옛날에는 소학교라 카대, 소학대학 다 마치고 열 여덟에 시집을 가이, 시부님이 하는 말이,

"아가 아가 며늘아가, 우리 사는 풍성으는 내 일러 따라라."

카더든예. 그래 참,

"상칠이겉은 밭이 있는데, 니 밭에 가서 그 밭을 매고 온나."

카거든예.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삼 시벌로(세 벌을) 매고 나니, 해가 저물어 거물어졌거든예. 그러고로 집이라고 찾아오니 삼촌 죽었다 부편이(부고 편지가) 왔다 아닙이꺼. 그래 그 부편을 받아들고 친청으로 가서 그 초상을 치고 다시 오니 저승에서 애원애기 데꼬 오라고. 저승에서 영인들이 보는 기라예. 저승 염라대왕 영이 내맀부는 기라. 그래 참,

"아랫방에 아부님요 저 대신을 가실란교?"

카이, 그래,

"야야 그말 하지 마라. 니 명은 니가 가고 내 명은 내가 가지 와 니 대로 가."

카거든예.

"웃방에 시어머님, 내 대로(대신) 가실란교?"

카이,

"니 명은 니가 가고, 내명에 내가 가지. 와 내가 니 대신을 가. 야야 그말 말어라."

카거든. 시누부한테 이야기 하니,

"시술(심술) 궂은 시누부야, 내 대신 니가 갈라?"

카이,

"나는 아직 이팔청춘인데, 와 니 대신을 내가 가. 니가 가라."

이래 카거든. 시동상한테도 가가, 시동상어는 자기 대신을 갈라 카는 기라. 시동상은 갈라 카고,

"형수님 가는데 내가 따라 가야지. 가야지. 제가 가야지요."

카거든. 인자 서방한테 이야길 하니, 서방은,

"애기들 키아도 니가 키아야 되고, 니가 내가 가야지 니가 가가 되겠나."

이러 카거든예. [조사자: 그래도 남편이다 그지예.] 야. 그래가 참 그 소리를 듣고, 이 남편이 참 저승을 갔어. 가니까,

"니를 오라 안 캤으이 니는 오바야(와 보아야) 소용이 없으니 오지 마라."

안 카나. 그래 되돌아왔어예. 되돌아와 자기 마누래로 참 볼 일 하다 결국 간다고. 가니까,

"아기가 울거든랑, 젖이라고 찾거들랑 물이라도 주어주고, 엄마라고 찾거들랑 업어서러 주어지고, 배가 고파 울거들랑 재진밥을 잘 지어서 미어서 주라."

주라 카고, 인자 자기가 가는 기라예. 저승을 가니까 참 염라대왕, 저승 왕이 턱 대문에 서가 있거든예.

"애원애기 왔다."

카이, 그 곳에 연못에 물이 있어예. 물이 한거썩(많이, 가득) 있는데, 그 물을 잦을 사람이 아무도 업는 기라예. 애원애기가 가야 그물을 잦은 기라. 그 애원애기가 치마바람을 얄라 하

이 그 물이 하나도 다 없어짔부고. 애원애기가 치마바람을 얄라 하이 싹 그 물이 없어졌어. 그래놓고 인제 애원, 저승에서 한단 말이 다,

"니는 머리가 영리하고 좋으니 죽어서 청조새가 되라."

카거든. 새가 되라, 예. 청조새가 되라 카거든예. 곳곳마다 날라 댕김서 오만대 댕김서 인자 보라고. 그래 참 인제 이승, 후승을 나와서 온 데 곳곳마다 팔만봉을 다 댕김서 인자 구경을 다 하고, 새가 되니 날라 대이며 구경을 하고, 난중에 어디 앉노 하모, 정구지 밭에 앉았어예. 정구지 밭에 앉아서 정구지를 하루 열두 번을 비이(베어서) 묵는 거라예. 크몬 또 비 묵고 크몬 또 비 묵고, 그래 새 원앙이 돼서 그래 정구지로 열두 벌로 비 무라 카더랍니다.

[녹산동 설화 7]

며느리의 방귀 힘(1)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씨 댁]

"에라 와 니 얼굴이 노랗노?"
이러 카이끼네,
"아버님예, 제가 방구로 못 끼서 그렇습니다."
이러 카거든. 그래,
"아버님요."
"그럼 마 끼라."
하이,
"맘 놓고 끼라."
하이,
"아부님요, 지동을 좀 잡으소."

이러 카거든. 지동을 잡아야 방구 낀다. 참 지동을 잡고 있으니 방구 끼는 소리에 마 푸부부부푹 하이 마 지동이 흔들흔들 하거든예. 빵구소리가.

"아이고 니 메느리 니 방구 과연 거시기는(거칠고 세기는) 거시다. 지붕 따문에 또자하는('흔들거리는'의 뜻인 듯으로 말할 듯함) 거 보니까 그래."

[녹산동 설화 8]

처녀 혼령의 소원을 들어주고 인연을 맺은 총각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씨 댁]

총각이 장개를 못가서예, 참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참 저따노이(저렇게 해놓으니),

"나는 오만 사람 짝이 다, 나는 어째 짝이 없노?"

이라 카놓으이, 그래 어디서 참,

"내캉 살지, 내캉 살지."

하네. 그래 참 일로 가보만 밥상을 탁 채려서 요래 해나 놓고, 또 없고 이렇거든예. 또 인자 또 그래가 일로, 밤으로는 없고 낮으로는 일만 하고 가몬 밥상을 탁 채리놓는 기라. 반찬이랑 딱 차리서 놓고. 그라모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한 문은(한 번은) 총각이 지킸는 기라예.

일은 안 가고 그래 탁 보이카네, 어디서 참 예쁜 처이 아가씨가, 탁 인물도 미녀고 이런 처이가 와서로 참 밥상을 해놓고 가고, 가는 기라예. 그래 인자 한 문은 탁 붙잡았는 기라예, 이 처이를 탁 붙잡았는 기라. 그래,

"원혼이 무엇이고, 니가 무슨 원을 져서 밥을 해놓고 가노?"

카이, 그래,

"내 원한을 풀어줄라노?"

고 묻거든,

"그래. 니 원을 하는 대로 해봐라. 내가 풀어주꾸마."

"그래 아무데 그 산골에 우리 아부지가 누워 있는데, 우리 아부지를 파다가 그래 이장을 해주면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띠이."

카거든.

"그람 니캉 살꺼마."

이러 카거든. 그래 총각이,

"해주지."

이러 카거든예. 그래,

"참 밤에 가야 된다."

하거든예. 낮에도 못 가고 밤에 가이 참 중터리쭘(중턱쯤) 이래 중간중간에 마 호랭이도 울어쌓고, 야시도 울어쌓고, 마 늑대도 울어쌓고, 막 울어 쌓거든예. 총각이 갈라 하이 아무래도 용기가 안 나는 기라예, 갈라 카이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처이를 보니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래 처이가 탁 어느새 앞에 가가 있는 기라예. 처이가 주름을 잡았는(길을 주름 잡은,

즉 축지법을 쓴), 주름 잡은 처이라. 주름을 잡아 딱 가가 있는 기라.

그래 이 처이가 오만 소릴 다 내는 기라. [조사자: 아 아. 총각을 시험해 본다고.] 예. 오는가 안 오는가 볼라고, 오만 마 짐승 소릴 다 내는 기라예. 그래 총각이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자기 목숨 안 애끼는 사람 있습니까? [조사자: 그렇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아 못 가고 되돌아오는 기라예. 무섭아서 못 가고 되돌아오는 기라. 되돌아오니까 처녀가 또 차츰 날이 새서 또 밥상을 딱. 총각 아직 일하러 가고 없는데, 아직 또 밥상을 또, 가고 없거든예. 그래 또 총각이 가만히 기단아서(기대앉아서), '처이를 붙잡아야, 처이도 인물도 너무 좋고 너무 빤듯, 날도(나이도) 있는데, 붙잡아야 되겠는데.'아무래도 잡을 수가 없는 기라, 지(자신이) 그래. 처이가 또 나타나,

"내 역사를 연결을 잊을, 내 약속을 잊었으니, 당신을 잘 수가 없다."

안 캅니까. 그러니 이 총각이,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할텐게 내캉 인연을 맺자."

한카이(하니까), 그래 아모 날 지녁에(저녁에) 또 이 처이가 날로 받아주는 기래. 또 가는 기라예. 또 마마 짐승이 방금 지 앞에 막 다가오는 것치 우는 기라. 지 앞에 방금 앞에 가리는 듯이 우는 기라. 불로 환하이 불로 캐나 놓고 마 울어쌓는 기라. 이 총각이 죽을 대로 그 때는 큰맘 먹고 마 몽댕이를 하나 들고 탁 가는 기라.

가(가서) 그 자리를 찾아 갔어예. 찾아 딱 가이 처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랍니더. 그래 놔논(놓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 그 뫼로 파야 되는 기라예. 파야 지가 이 처이하고 사는데, 그래 그 뫼를 파는 이약입니다. 그 뫼를 팠어, 총각이예. 꾀이로(괭이로) 하나 매고 갔는데, 파내이, 뫼를 파이께네 아주 곽을 딱 해가 놨는데 너무 마 그란쿠로(그렇게) 해놨는 기라. 그래가 그 곽을 처이가 딱,

"띠 보라."

카이, 띠이께네 달덩이겉은 처이가, 딱 내나 그 처이라예. [조사자: 와아, 거 누워 있는.] 예. 그 처이 혼이 와서 인자 해놓고 가고, 해놓고 가고 이라는 기라. 그래 이 처이가 탁 일어나면서,

"참 날로(나를) 살리줘서 참 고맙다."

카는 기라예. 저거 아부지가 아라(아니라) 처이가 이 화(化)해서, 그 자리에 혼이 와서 자꾸 해놓고 가고, 해놓고 가고. 그래가 서울 장안에 쫌 가가지고 이 처이, 총각 처이가 이름을 하나 딱 적어 주. 이름 석 자를 딱 적어주는 기라. 적어주는데,

"서울 장안에 가서러, 그래 아무것이 저 이름을 찾으몬, 그래 서울 별장에서, 별장 안에서 정승이 나올 기거든, 나오거들랑 이 팬지를(편지를) 보이라."

카거든예,

"그래 팽이, 안 보이 있으몬 날로, 그래 본인은 못 볼 끼이꺼네(것이니까), 묶아서 묶아놓고 뚜리려 팰기니께, 대기(매우) 다급하몬 요오 딱 내놓으라."

카거든예. 그래 처이 이름, 서울 장안에 가서 애는(외치는) 기라. 애이끼네(외치니까) 아 참

지금 겉으몬 인자 무슨 하인들이 나오는 기라. 하인들이 나오면서러 그래 이 그거로 엽서를 탁 뵈주이(보여주니),

"이게 우리 큰애기 이름이라."

카거든예. 우리 큰아씨 이름이라 카거든예.

"우리 큰아씨 이름인데, 이 이름을 어떻게 해서 구했노?"

그렇게만 딱 묶있는 기라예.

"어떻게 니가 이 이 넘의 뫼를 갖다, 묻어놘 뫼를 갖다가 니가 팠느냐? 팠느냐? 그래 저놈을 묶아라."

하는 기라예. 묶아놓고 때리 패는 기라. 때리 패이끼네, 그래 이 팬지 뵌 엽서를 이 총, 처녀가 한단 말이,

"이 사람은 때리지 말고 딱 지 자는, 지 자는 방에다 모시(모셔) 놔라."

카는 기라. 고래 딱 팬지를. 지 자는 방에다 모시 놓고. 그래 지 자는 방에다 참, 저거 아부지 정승이 되이께네 뭐라고 몬 하겠습니까. 그래,

"아모 날 아모 시에 날로 파러 온나."

이래 캐놨는 기라예. 그래가 안자 총각이 그때까진 못 가고, 아무도 꼼짝 못 했는 기라예. 그러이카 그 총각하고 안자, 그날 안자 약속핸 날로 안자, 일꾼들로 데꼬(데리고) 그 뫼로 파로 갔는 기라.

파로 가니까 비가 마 짱대로(장대같이) 내리 따루는 기라. 따루고 그래 뫼로 팔라 카이, 포장을 딱 쳐야 하겠거든예. 그자 포장을 딱 쳐놓고, 뫼로. 딱 하늘에서 마 뇌성벡락을(뇌성벽력을) 하고 막 탁 베락을(벼락을) 뚜드리. 뚜드리이까네, 그 베락이 탁 뚜드리이 뫼가 탁 갈라지더랍니더. 탁 갈리지믄서 처이가 딱 일나더라네. 일나면서 저거 아버지를 보고,

"그 총각 왔는가?"

묻더랍니더.

"그래 왔다."

하이께네,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인연이라."

카더랍니더.

음 아주 몬 사는데, 총각은 몬 사. 아주 없도록 마, 남의 집 머슴, 머슴 살고. 옛날 마을 거러지로(거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내 이 처녀가 인연을 맺어놓고 시집을 갔는데 인저 죽었는 기라예. 인연을 맺어놓고 왜 죽었나 카믄, 지금 겉으몬 심장마비쯤 됐겠지예. 갑자기 마 죽어뿠는 기라. 죽어놓으카 그 인연 맺은 총각이 나타났는 기라예. 이 처이가 살았다 카이께네.

"난 당신하고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더러 내가 살았으니까, 난 이 사람 없어도 이 사람하고 있어도 이 사람하고 인연이다."

그래 참 그 사람은 인연을, 혼사를 맺아가 아들 딸 놓고 삼판서 육판서를 하고 잘 사더랍니더. [일동 박수]

[녹산동 설화 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1)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씨 댁]

스님이 동냥을 왔는데, 그래,

“동냥 왔습니더.”

카이,

“뭐로 주꼬, 우리 에밀레로 주까?”

이래 카이꺼네,

“그래 에밀레 주까?”

“에밀레로 그래 줄라.”

카고 인자 갔는데, 그 종이 소리가 안 나는 기라예. 종이 소리가 안나예. 암만 쳐도 종 소리가 안 나는 기라예. 그러이 그 스님이 그 고을에 가서 어데 가이꺼네, 그 스님 마이(많이) 알아예.

“그 고을에 가니까 어떤 부녀가 무슨 소리 안 하더나?”

이러 카거든.

“예, 그래 스님 가이께네, 그래 저저 뭐꼬, 뭐로 주꼬 우리 에밀레로 주까 이래 카더랍니더.”

카이,

“그라몬 그 아가씨를 데꼬(데리고) 온나, 그 아를 데꼬 온나.”

카더라. 그 아를 데꼬, [조사자: 아 이름이 인자 에밀레네?] 예.

“에밀레를 데꼬 온나.”

이러 카거든, 그래 참 가서 줄라 카이께네 줄라 캅니꺼? 말은 에밀레를 주까, 뭐로 주까, 우리 에밀레를 주까 뭐로 주까 해놔노이까네, 그래,

“스님이 와서러 안 줄 수가 없다.”

카더랍니더.

“안 주면은 너거 집 구족이 망한다.”

카더랍니더. 그래 마첨(마침내) 그 에밀레로 가(가지고) 종을, 그 애를 갖다 지가 종을 만들어. 종을 만들어. 그때는 에밀레 에밀레 카더라. 애미가 잘 몬 했기 때문에 에밀레 에밀레 예.

[녹산동 설화 10]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대화(2)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씨 댁]

참 봉사하고 버부리하고(벙어리하고) 살았는데, 그래 우째 해야 우째 말을 통하고 살겠습니꺼 그지예?

그래 그 동네 지망 궂은 청년이 있었어. 그래 딱 하루 지녁에(저녁에) 가서 봉창 밑에 있으니까, 아 버부리하고 봉사하고 신나도록, 어덴지(어디엔지) 골짝에 불이났어예. 골에(고을에) 불이 났는데, 그래 그래 저 저 봉사가 불났다고 '화-' 이러 카거든. 물이 도우(동이) 가 오라고 '화-' 이러 카거든.

그래 버부리가 눈치는 빠르거든예. 그래가 밖에 나가서 온 데 휘둘러보이 없다 카거든. 와서러,

"없다."

"그래 물로 이고 척 가라. 이래 골짝으로 가라. 골로 가라."

카이, 그때 눈치로 물로 해서 이고 막 골로 찾아가니까 참 불이 났뿠어예. 불이 다 탔는데, 그래 아들 마 고마 그 저 저 뭐고 올가미 커는데, '근데 와서 뭐라고 우째 신호, 불이 났는데 우째 신호로 하는고?' 싶어. 이 또 이 청년이 또 따라 와서 뒤 봉창을 살 들었어예.

"어데 불이 났더노?"

이러 카이, 영(영감) 앞에 구정을("검은 숱으로"의 뜻인 듯함) 쪼르르 기리거든예(그리거든), 솔을 가 쪼르르 기리는데,

"골에 옆에 산집 불났다."

카거든. [조사자: 골에 뭐?]

"골에 배산집에 불이 났구나."

이러 카거든예. 뱃구녕(배꼽), 영감 뱃구정을 쫄 기리이끼네,

"골에 배산집에 불이 났구나."

이러 카거든,

"아하! 머(무엇을) 삶아 묵다 그랬는고?"

카이, 영감 저 불알로 주무럼서로(주물이면서) 그래 한다.

"아하! 감자 삶아 묵다 불이 났구나."

이러 카거든예, [조사자 웃음] 감자 삶아 묵다가 불 났구나 카거든예,

"그래 얼매마침 뭐 얼매 마이 탔는고?"

카이꺼네, 인자 자기 그거 들어 틀면서,
"그래 십만치 타. 하하 불이 십만치 탔구나." [조사자: 십만 어치.]
이러 카거든예,
"뭐만 남았노?"
카이,
"좇대만 남았다."
카더라요. 지동만 남은 거, 좇대만 남았구나 이러 카더랍니더.

[녹산동 설화 11]

스님 덕분에 호식할 팔자를 면하고 잘된 사람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씨 댁]

옛날에는 저 정승이 사대로 외동을 키웠는 기라예. 사대로 외동을 키았는데, 그래 어는 대사가 턱 와서 보이,
"야(얘는) 열 살 무으면 호식(虎食)해 가겠다."
카거든예, [조사자: 호식.] 호식해, 산에 호랭이한테 잡히 가.
"열 살만 무몬(먹으면) 호식해 갈맹기 자기를 줄라."
카거든예.
"안 그라몬, 그러면 씨종자로 말루고 몬 키울 낀께네, 나를 달라."
이러 카거든.
"살룰라(살리려거든) 카거든 나를 달라."
카거든. 그래 참 그마 스님을 주뿠어예(줘버렸어).
주어서 데꼬 갔는데, 열 살 되든 고 해가 된께네, 고 해 밤이 되이께네 호랭이가 왕왕 울고 내려오는데, 말도 몬 하게 이 산 저 산 울고 내려오더랍니더. 카- 울고 내라오는데, 야는 그제 자물싰뿠는(까무러쳐서 기절을 했는) 기라예. 호랭이가 오다 자물싰뿠는 거라예. 살았겠습니꺼 죽었겠습니꺼? [조사자: 호랭이 그래 야단인데.] 야. 호랭이가 양 사방 내려와서 막 거 하는데 야가 야가 기절했뿐 했는데, 죽었겠습니꺼, 살았겠습니꺼? [조사자: 그래 호랭이가 그래 왔는데 살 수 있겠는교?] 살았습니더.
그래 스님이 진언(嗔言)을 치는 거라예. 진언, 호랑이 달아나는 진언을, 팔만대장 진언이 있습니다. 진언을 치니까네 호랭이가 말큼(모두) 다 물러가거든예. 물러, 야 그러구로 가자 또

물러가도 또 다시 또 해야 또 오거든. 또 오이까네 다시 꼽고, 하하 내 밥을 떡 갖고 오라 카고, 산신이 인자, 호랭이가 화해가 산신이 돼가지고, 산신할배가 돼가, 아하 내 밥을 떨카가(떨어뜨려, 놓쳐서) 울면서 올라 가더랍니더. [조사자: 내 밥을 떨캈다.] 예. 내 밥을 떨캇구나, [조사자: 아 떨어뜨렸구나.] 예,

"내 밥을 떨캇구나, 네 이년! 내 밥을 떨캈구나, 니가 천 살 묵은 내가 니 잡아무러 올라캤는데 내 밥을 떨캈구나!"

호랭이가 울고 올라가더랍니더. 올라가고 이 야는 커서 큰 그기 돼가지고 [조사자: 스님이?] 스님은 안 됐어예.

그래가 스무 살 넘은께네 저거 집을 찾아왔어예, 스무 살 묵어 찾아오니까 저검마(자기 엄마) 적아부지(자기 아버지) 호호백발이 되고. 그래가 참 인연을 맺을라 카이 처이가(처녀가) 있습니까? 아주 가난한 없는데 참 불출이겉은 데를 인연을 맺았는 기라. 그래 인연을 맺어서 참 장개로 갔는데, 그래도 아들딸 놓고 가게운(과거 운) 하고 잘 사더랍니더.

[녹산동 설화 12]

빈대로 망한 절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씨 댁]

저 미음동에 쇳방울 카는 바우가 있습니더. 쇳방울, 쇳방울. 쇳방울 카는 바우가 있습니더. 그 밑에 가서 모도(모두) 공을 딜이고 다 정성, 옛날에 쇳방울 카는 바우가 있어. 절골이라 카는 이름이.

그 절이 참 성했는데, 빈대가 많아 절이 망해뿠어예. 망했뿌고 쇳방울 카는 방구가 있고. 예 쌀 많이 무을라고(먹으려고). 양석, 시님이(스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한 때 무울 만침만 그 절에서 나와. 나와 줬는데, 그 절골 절골에 줐는데, 스님이 욕심이 많아. 너무 많이 묵을라고 만날 천날 마 다 파뿌네. 땅을 다 파내이 자기 무을 만치 놔놓이 그래 나중에 파고 나이 없고, 큰- 구리가(구렁이가) 막 큰 빈대가 살찌가 나와 시님 손을 물어뿌더랍니다.

시님 손가락을 물어뿌더랍니다. 물어뿌고 그라니 그 절에서 빈대가 마 억우로(엄청나게) 나오니 절이 망해뿌는 기라예. 절이 홀딱 망해뿌리.

그래서 [조사자: 아하! 절골, 그 얘기가 그래 전해 오는교?] 야. 그래 전설이 나. 예, 그 절이 말큼 망해뿌고, 빈대가 나와가지고 온 천지 마 망해 퍼져뿌고, 빈대도 마 억수로 크더랍니더. 큰 빈대가 나와갖고 하얀, 절이 다 망해뿌고, 그리 절골 밑에 쇳방울 카는 방구가, 커다

란 방구가, 똑 아름 되는 방구가 해가 있습니더. 영판 똑 부처님 서가 있는 매꾸로(것처럼) 서가 있습니더.

[녹산동 설화 13]

여우 여동생을 물리친 오빠

이영애(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녹산동(구 범방동) 사구마을 오갑득씨 댁]

옛날에 자식을 몬 나아서예(못 낳아서) 야시골에다(여우골에다) 정신을 들있는(정성을 들여 빌었는) 기라. 야시골에다가 정신을 들있는데 딸로 하나 낳았는 기라.

이 딸이 크니까 자-꾸 밖을 나가더랍니더. 자꾸 밖을 나가고. 저거 오빠가, 오빠가 서인데, 맨 큰오빠가 탁 지킨께네, 저 어데 넘어가서 마 마굿간에 가서 마 독살을(도술을) 실덕 넘자마자 마 소를 한 바리 탁 잡아뭅부고 오거든예. 소를 한 바리 탁 잡아뭅부고 오거든예. 또 그래 저거 아부지 보고,

"아부지예 아부지예, 그래 아무것이가 그렇다."

카이, 막 저그 아부지가 난리가 났거든예. 저 동성(동생) 모함, 동생 모함 잡는다고. [조사자: 동생 모함 잡는다고.] 예.

하룻밤 동안인데 그 동네 마 소, 소 죽었다고 난리가 나거든예. 그래가 또 언자 그러구로 그랬으니, 또 언자 이 처이 동생이 또 나가더랍니더. 밤중 똑 밤중 돼 나가이까네, 어데로 가노 카이, 넘 닭을 말큼(모두) 다 잡아묵고 오는 기라예. [조사자: 아, 닭을.] 닭을 자묵고. 그래 하릿밤에 인자 오더만은, 그래 지 두러왔는데(들어왔는데), 이 닭이 그 동네 몰살했다 이래 죽었다 카거든. 그래 저거 아부지잔테 카이, 저그 아부지 안 듣는 기라예. 절대 없애자 카이 안 듣는 기라예.

그러구로 그러고 세월이 와가 동네 다 망해뿌고, 그래가 저거 아부지 자(잡아) 묵고 저그 올키 다, 식구들 전부 다 잡아뭅부는 기라예. 나중 저거 오빠만 살았는 기라예. 저거 오빠만 살았지. 저그 오빠는 멀리 도망을 가뿠는 기라.

그래가 참 멫 십년을 있다가, 한 지금겉으몬 한 사오십년 지내고 오이께네 뽀하이 늙어가 있더랍니더. 야시가 안 되가 사람이 되가 있더랍니더. [조사자: 사람이 돼 있어?] 예. 그래가 저거 오빠 오이께네, 하이 저거 오빠 왔다고 마 마 안 듣는데,

"오래비 한 때, 말 한 때, 두 때거리 생깄네."

캐사매, 이기(이것이) 막 군소리 해쌓거든예. 그래,

"아무거야, 그래 집 밖에 거 정구지좀 비(베어) 온나."

하이,

"오빠 가뿔라고."

카는 거라.

"어, 내 안 가꺼마. 갔다 온나."

이러 카이, 그래 인자 저거 오빠가, 옛날이야기가 그렇지 거짓말 좀 보탰겠지, 야 이거 저 오빠가 똥을 네 방구석에 딱 놔놓고,

"똥아, 똥아 니가 대답해라."

이래 카고, 놔아 놓고 고마 저그 오빠가 달아나뿠는 거라.

"오빠."

카이 똥이 대답을 하고, 또,

"오빠."

카이 또 대답을 하고, 또,

"오빠."

카이,

"어, 밥 해가 온나, 밥 해가 온나."

그래 밥을 해가 채리가, 참 반찬 해가 오니 저그 오빠가 없거든예. 저거 오빠가 막, 저그 올키가 임이 든 모양이지예. 그래 색깔 뱅이로(병을) 세낱을(세개를) 딱 주더랍니더. 주면서,

"다급하거든 이 뱅이로 던지고 당신 해가 온나."

몬 가주고 저그 오빠 올키, 몬 가주고 억지로 갔는 거라. 그래가 그래가 이기 마 막 오빠 카고 헤어서 말 꼬랑대이 내리는데, 야시로 인자, 야시로 변해가 오는 기라. 한 데 있디 마 천리만침 오는 기라예. 오는데, 저그 오빠가 마 빨간 뱅이를 확 던지이 마 온 데 불이 확 나뿠는 기라. 그 벌판에 불이 확 났는데, 그 불 속으로 헤어 또 오는 기라예. 또 온다, 또 오이께네, 또 저만침 또 가친가친(닿을 듯 가깝게) 하는 기라예. 또 뱅이 하나 떤지매, 물이 마 시-푼 기 [조사자: 파란 뱅이 떤짔는가?] 예. 파란데 시퍼런 바다가 돼뿠는 기라예. 바다 돼뿌이 또 이기 또 헤어서 또 오는 기라. 또 오이 노란 뱅이 하로 확- 떤지이 마, 노랑 그거 꽃이 마 확- 패가 마 화산이 딱 돼가, 이 거 죽어뿌더랍니더, 오다가 오다가 죽어뿌더랍니더.

그래 죽어뿌. 그때 저그 오빠는 살아이, 저그 오빠는 오이께 저그 마느래,

"허 내 몬 가라 안 카던 기요. 당신 목숨이 중한데 머 할라고 그래 그곳으로 갔는 기요? 쑥대밭이 돼 있는데 머 할라고 갔는 기요?"

카이, 그래 저그 오빠는 살고, 저 올케하고, 그 애기들 하고, 그 호수를 이루고 잘 사더랍니더.

[녹산동 설화 14]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1)

강계정(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호랑이가 밖에 와서 가만히 듣고 앉아있으니까, 호랑이가 온다 캐도 울고, 오만 거 늑대가 온다 캐도 울고, 오만대 온다 캐도 울거든. 울더만은 곶감을 곶감을 준다 카는지, 인자 곶감을 곶감 준다 했겠지. 곶감을 주니까는 울음을 그치서 그러니까 호랑이가 생각하기로, '아 저 놈우 곶감이 내보다 더 겁나구나.' 호랑이가 온다 캐도 울었는데. 그래가 저 호랑이가 도망을 갔다.

[녹산동 설화 15]

며느리의 방귀의 힘(2)

강계정(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옛날에 거 부잣집 한 며느리가 하도 사람 얼굴 며느리가 밥도 잘 묵고 하는데 얼굴이 노래지가지고 보기 힘이 들어. 그래서 인자 시아바시가 하는 말이 안차 놓고,

"며늘아 니가 왜 얼굴이 그리 노랗느냐?"

그러니까 인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말하기가 쫌 곤란하는데예. 해도 됩니까?"

이래 카니께네,

"그래 뭐 해봐라. 니 얼굴 그래 노래, 노래가 안 된다."

캄서 이래 말로 하니께네, 그래 인자 며느리가 그래 마,

"방구를 참아서 그렇다."

캄서 이래카거든. 그래 카이 인제 시아바시가,

"그럼 방구를 끼지 왜 참노?"

"며느리가 방구를 대놓고 끼가 되겠습니까?"

그래 카니께네 인제 시아바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고 다 알아줄테니까 끼봐라."
"내가 끼믄 우리 집이 날라간다."
이래카거든.
"그라믄 내가 기둥을 잡고 있고, 너거 어매는 저 앞지둥 잡고, 난 뒷지둥 잡으면 안 되나?"
그래 카니께네,
"그럼 함 잡아보이소."
그래가 인자 방구를 낑께네 앞으로 휘떡 넘어. 뒤 가서 낑께네 시아바지 잡은 게 인자 힘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 인자 그만 낄라 카니께네, 그래도 인자,
"함 더 끼바라. 또 그람 우째 되는거 함 보자. 내가 잡고 있는 거 또 넘어가겠나?"
이래 카니 그래 또 끼니 뒤로 또 히딱 넘어가거든.
"어구야 아가 이라면 안 된다, 니 방구 그만 끼라."
이래, 카니께네,
"그럼 집이 이래 넘어가도 방구를 그만 끼면 되겠습니꺼. 바로 세아야 안 되겠습니꺼."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인자, 바로 인자 그라믄 우째 되느냐
"그믄(그러면) 양쪽에서 다 둘이서 다 이래 붙잡고, 하모 일나서가(일어나서) 있어 보이소."
그래 카니께네, 그래 나놓고 인자 자기가 복판에 서서 끼는 기라. 방구를 복판에서 끼니까는 집이 바로 서더랍니다.

[녹산동 설화 16]

제삿밥을 못 먹은 귀신

강계정(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영도 가게에서, 가겟집에 인자 시간이 얼마 한 열 시나 됐는데, 제사 모실 인자 시간 됐겠지. 그래서 문을 닫을라고 인자 이래 그걸로 하니까노 어떤 할매가 하나 와가지고,
"빵하고,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고. 빵하고 우유하고 달라."
했어. 그래 인자 그 가게에 여자 주인이 빵하고 인자 우유하고를 그 손님을 디맀어(드렸어). 그러니까 그 저거 집에, 저거 집에 앉아서 인자 가게 앉아서 빵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이러고 갔는데.
뒷날엔 인자 날이 새가지고 인자 있으니까는, 친구 집에서 제사 모싰다고 밥 먹으러 인자 오라 하더랍니더. 그래 가가지고 인자 밥을 묵다가 그래 친구끼리 여럿이 앉아서 묵다가 이

리 쳐다보니까네 백에(벽에) 사진이 하나 걸리가 있어. 그 사진을 쳐다보니까 그 사진이 영판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조사자: 밥 무러 온 사람이네.] 그래 그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나서 보니까, 엊저녁에(어제 저녁에) 먹고간 우유하고 빵하고 고대로 있더래요.

그랬는데 그래 인자 쫌 있으니까 친구가, 아이고 우리 밤에 우리 어머니 제사 모싰는데, 우리 집 오라 캐서 그래 갔더만은 그래 가가지고 먹다가 쳐다보니까 사진이 걸려가 있는데, 저거 집에 우유하고 빵하고 먹고 간 그분이더랍니더. 그러이게 꼭 구신이 있다 카는 기라.

열두 시 열 시가 넘어가서 열두 시나 돼야, 제사를 지내야 구신이 와가 먹을낀데, 그 거 구신이 오니께네 제사를 일찍 모시가 대문을 닫아뿌놔노이, 그래 몬 먹고 배가 고파 갔답니더.

[녹산동 설화 17]

차를 타고 제삿밥 먹으러 간 귀신

강계정(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기사가 저 저 가는데, 인자 젊은 사람이 젊은 여자가, 젊은 여자도 아이다 카든공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인자 차로 이래 세아서 그래 타고 갔는데, 태아가 가는데, 우째 보이, 뒤에 보이 이상한 사람 겉고 우째 보이 또 이런 사람이고 이러는데. 어데 가가지고 내라 줄라 해서 그 자리에다 내루고 보니까는,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분이 자기가 죽은 그 망인이더라 카대. 제사, 그집에 제사를 지내더랍니더.

그 내라 줄라 캐서 내라주니까, 그 집에 그 대문에 열고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문을 열어 놓고 제사를 지내더랍니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인제 제삿밥 무러(먹으러) 간다고 차로 탔는 기라 구신이(귀신이).

[녹산동 설화 1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강계정(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옛날에 그 엄마로 그 자기 모친을 고래장 할 나이가 돼가지고, 딴 사람 다 고려장 하는데, 자기도 자기 엄마로 나이가 들어서 고래장을 하러 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고래장을 하겠노' 싶어서 생각다가 생각다가 인자 아들이 지게에다가 엄마로 짊어지고 산을 갔는기라.

산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놔노코 올라 하이께네 기가 차서 앉아서 둘이서 울다가 엄마가 하는 말이,

"가거라 어서 가거라, 내가 오다가 솥가지로 나무로 딱딱 끊어서 길로 표로 해나놓고 왔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라."

하더랍니더, 엄마가. 그래 길을 따라서 가라 캐서, 그래 인자 그 그래 내러왔는데, 그 길 따라 내러왔는데, 자기 집에 그 지게를 갖다 놔놓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지게 그거를 딱 간수를 해나놓거든.

"그래 왜 그 지게를 왜 그래 놔놓노?"

이러 카이,

"나도 후지(후에) 아버지가 할매 나이가 되면은, 이 지게를 가지고 져다가 갖다 버릴라고."

그래가지고 인자 [청중: 고래장이 없어짔어.] 고래장이 없어, 거 거 뭣이 있어 또. 그런데 그 모르겠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지게를 가지고 자기가 다부 가가지고 엄마를 지고 왔어요. 지고 내려 왔어요.

[녹산동 설화 1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2)

강계정(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옛날에 어떤 중이 동냥을 왔어. 동냥을 쌀로 주까, 우리 뭐 뭣이 아 이름이 있는가 모르겠다.

"이걸 주까? 우리 애기를 주까? 쌀로 주까? 동냥을 멋을(무엇을) 주꼬?"

캄서, 이래 어라(얼러) 사이께네,

"애기를 줄라."

했어. 예 애기를 줄라 캤어.

"쌀로 주까? 우리 뭣이를 주까?"

그래 하니까,

"그라몬 그 애기를 달라."

딸이 그 딸이대. 여자대. 여잔데, 그래가지고 언자 그 중이 댕김서 동냥을 해가지고 종을 만드니까 종이 안 돼.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서, 안 나는데 인자 이 사람이 그 애기를 갖다가 가서 달라 했어. 내가 그때 그 동냥을,

"애기를 갖다가 종에 넣어야 종이 소리가 난다."

그래가 안자 그 애기를 받아다가 종에다 넣었는갑대. 넣어가지고 종을 뚜드리니까 종이 에미가 그랬다 해서 '에밀레 에밀레' 이런 소리가 났다. 에예. 에밀레 에밀레종 아임니꺼. [조사자: 그렇지요 예.]

[녹산동 설화 20]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2)

이상순(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저녁에 어찌 아가 버텨 울어싸서, 그래 인자 엄마가 하는 말이, 온마슬(온갖 말을) 다 해도 안 달래지거든. 그래,

"꽂감 하나 주꾸마."

카이께, 그 아가 울음을 딱 그치뿌더라 카대. 꽂감을 줄라 카이. 그러이께 호랑이가,

"아이고 내보다 더 무섭운 놈이 있는 갑다."

함서 그래 달아뺐다(도망갔다) 하대.

[녹산동 설화 21]

부모에게 진짜 효자란?

이상순(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효자가 있었는 기라. 어느 마을에 그래 그 효자는 부모한테 억수로 잘하는데, 또 어떤 마을에서는 또 효자가 났다고 소문이 나거든. 이 효자가 가만히 들어보이, '어찌 내보다 더 효

자가 어디 있겠노’ 싶어 효자 집에 놀러를 갔는 기라. 간께 그 효자가 논에 갔다 이 발에다 흘로(흙을) 이래 뭍히가 오더라고. 오서를 세면에 떡 서 발로 씩더니(씻더니) 엄마에게 주창자석 알뜰을 전부 다 씩어주는 기라. 그 씩기주믄 마 왕관성에 마 엄마 노사 커 털찟뿌겠나(떨쳐버리겠나). 그래 마 씩어주는 대로 다 씻고 들어오더라요. 그래 그 효자가 마 보이, ‘우째서 효잔고? 저런대도 효잔가?’ 싶어서러 효자한테 물었는 기라.

“그 당신은 그 하도 이 마을에서러 효자란 소릴 듣고, 내 효자한테 왔는데, 엄마가 발을 씩어 주는데.

“그래 가만히 있는 기가 뭣이 그래 하지. 부모 마음 편토록 카는 기 효자지, 다른 기 뭐 있는고. 우리 엄마는 마 내가 안 씻글라 캐도, 우리 엄마한테서 씻기주이 그 내가 이 엄마 마음에 안 사는교. 그래서 나는 그대로 받는다.”

카더랍니더.

[녹산동 설화 22]

저승 다녀온 사람

이상순(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꼭 죽을 기라 캤는데, 지가 한 번 꿈인지 뭣인지 지가 죽어가 살아났다 카대. 지 말이 어디 거 강을 강을 건너가는데 이 강목(광목 천)을 가지고 배를 이리 줄로 매놨더라 카대. 그래 그 그걸를 타고 이래 건너가는데 지가 그마 우쨌는고 꿈같이 탁 깨뿌니까는 살아났다 카대. ‘죽었을 건데 마 그래 지가 살아났다’ 최복희 지 만날 그라대.

옛날에는 백장이 있었거든. 그다가 인자 뭐를 단지를 모시(모셔) 낳는 모양이지. 그래 무슨 배로 가지고 갈 땐 안 매더란다. 갈 땐 딱 요라가지고 매깠다 카대. 그래가 지가 인자 아팠단다.

[녹산동 설화 23]

꿈에서도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

이상순(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산양마을 산양경로당]

저 골마을에 동길이 저 저거 아버지 죽고나서, 전에 그 동길이 저거 아버지 돈을 빌리주가지고 뭐 쫌 받았다 카고 줬다 카고. 그거 저거 시아바시가 그래했거든. 안 저 집에서 안주고 이래 하니까네 받으러 가고 그 할배가 그래 아래도(그저께도) 그래 카대. 오짜가(어쩌다가) 그래가지고 그래가 인자 동길이 저거 할배가 돌아갔는데, 저거 할배는 돌아가시고, 한 쫌쫌 있다가 동길이 저거 아버지 안 죽었슴니꺼? 죽고 나서 제사를 지냈다 카든가 우찌 이래 했는데. 동길이 저거 할배를 제사를 지냈고, 동길이 저거 아버지 죽고 나서. 요 와 옛날에 요 샘이 요 뭐 고랑 요 뭐 있고 돌다리 쪼깨 행님들 물리고 건너갈 길이 안 있습니꺼? 쩝쫍하이 거기 둘이서 말을 서면 몬 건너거든. 한 사람만 건너거든. 그런데 지가 지 꿈에 동길이 저거 아버지 건니오고 저거 시아바시들이 건너가고 안 미요.

"이 사람아, 내 돈 내놔라!"

그래 카더라 카대. 지 꿈에, 며느리 꿈에 그래 꼭 구신이 있다 카는 기라. 그래가 저 둘이서 마주 이야기하는 거를 봤다 카믄서 자기 꿈속에 며느리.

[녹산동 설화 2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1)

송영자(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성산마을 성산경로당]

옛날에 장가를 가가 산다고 사이께네 마, 엄마가 봉사라. 이 저저 나는 들은 대로 해야 되거든. 장님이라 카고 이러 카먼 안 되고. 지거 엄마가 봉산데, 몬 살아서,

"보소 야, 내가 돈 벌어 갈낀께네 당신 우리 엄마 살만 빼면 당신은 이별이다."

이리 캐놓고 갔거든요, 돈벌이 하러. 그래 어디고 돈벌이 가 떡 삼 년만에 있는데, 이놈의 마누래가 베를 짜다가, 뭐를 하다가 어마시를 살 빼면 이별을 할 기고 해줄 기 있어야제. 그래 어데 갔다 판다 카이 꺼시가(지렁이가) 나오거든. 꺼시가. 지렁이라 카면 안 되고.

꺼시가 나와서러 그 놈을 씻거가 삶아놔놓이 물이, 국물이 보하이 해갖고, 하늘이 벼락 맞을까 싶어서 지가 한 숟가락 떠 묵고 그래 어마시를 시어마시를 주나노이, 눈 감은 봉사가 무보이(먹어 보니) 무슨 고긴고 뼈도 없고 얼매나 맛이 있던지. [청중 웃음] 아들 오몬 보이줄라고 자리 한 바리 띠가 옇어 놓고. 또 주몬 묵고, 또 자리 한 바리 옇어 놓고.

삼 년만에 턱 오이께네, 턱 오이께 마, 저거 마누래가 쫓아나가이,

"니는 치우고. 니는 치우고. 오매. 오매. 살쪘나? 오매. 얘빘나? 우쨌노?"

캄서 이래 턱 가보이께네, 이 할마시가 마 보하이 해가지고 살이 쪄가 이래 앉아서, 앉아

있거든. 그래 저거 마누래보고,
"당신 욕 봤다."
이카고,
"오매, 오매. 뭐로 주건데 그래 살이 쪄가 이렇는교?"
카이,
"이놈우 자석아. 니 오몬 뵈이 줄라고 요 자리 밑에 있다."
이래 들으시께네 아들이 쳐다보이 마 새카만 꺼시가 마 오글오글오글 하이 말라 있거든.
"오매. 꺼시네요."
이래 카이 눈을 팔딱 뜨뿠다(떴다) 아이요.

[녹산동 설화 25]

아들 덕분에 천 냥 빚을 갚다

송영자(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성산마을 성산경로당]

옛날에 살면서 정승 돈을 천 냥을 빌맀는 기라. 정승 돈을 천 냥을 빌맀는데, 아-무리 살면서 갚을라 캐도 몬 갚는 기라. 그래 이래 턱 그래 갔디만, 정승이 뭐라 카는 게 아이라,
"니 천 냥 빚 갚을라 카지. 마 황소 새끼 낳는 거 구해가 온나."
카거든.
"황소 새끼 놓는 거 구해가 온나."
돈 천 냥은 벌이가 갚다가 갚다가 못 갚으몬 자석이 갚아도 안 갚소? 글치만 황소 새끼는 어데서 잡을 기요? 세계적으로 어데 댕깄는데 어데 있노?
[조사자: 그렇지. 그렇지. 암소 새끼몬 몰라도, 그지예?] 집에 와서 그래 걱정이 돼서 밥을 안 무인께, 여덟 살 묵는 넘이,
"아부지. 와 밥 안 묵노?"
옛날 말이 안 글나?
"아부지. 니 와 밥 묵노?"
하이,
"야 이놈아. 니 알 일이 아니다."
삼 일채,
"아부지. 와, 와 밥 묵노?"

이카이,

“오냐. 내가 저 저 저 나랏돈을 천 냥을 썼디 황소 새끼 놓는 걸 잡아오라 카는데, 아부지는 도저히.”

“아부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밥 무라. 아버지. 밥 무라.”

그카고 부엌에 들어,

“오매. 누른 밥 그걸 좀 말랴 도고. 말랴 도고.”

카디, 그래 마 아들이 시킨 대로 한다고 누른 밥 말라가지고 줐디, 한 삼 일 앞시아가(앞에 세워서) 떡 갔다. 가갖고. 그래 그날, 그래,

“아무 고을에 김 아무개 왔나? 왔나?”

이카이, 쪼깨낸(조그만) 기(것이) 촐래촐래 가거든. 아! 그래찮애(그렇지 않아). 삼 일 동안에 누른 밥 그거 묵고, 물 묵고 지동을(기둥을) 뺑뺑 돌고 삼 일만에,

“그래 아무 고을에 김 아무개 왔나?”

카이, 쪼깨낸 기 여덟 살 무봐야 얼매마나 쪼깬 기, 요런 기 촐래촐래 가이,

“김 아무개이 왔나?”

이러 카이껜,

“예.”

이러 카거든, 쪼깨낸 기.

“와 니가 왔노?”

카이,

“예. 우리 아부지 얼라(아기) 놓고 미역국 묵고 있심니더.” [일동 웃음]

고을 원이,

“네 요놈. 니 저 사람이, 남자가 우째 아로(아이를) 놓노?”

원님이 이카이, 이래 툭 치다,

“원님은 와 황소 새끼 놓는 거 구해 오라 캤소?”

그래 천 냥 빚 갚았더라요.

[녹산동 설화 26]

마누라 덕분에 명판결을 한 원님

송영자(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성산마을 성산경로당]

아무데 고을에 친구간에 돈 천 냥을 빌리 줐는데,

"빌리 준 사람 '빌리 줐다' 카는데, 안 빌리 준[1] 사람은 '안 빌리 갔다' 카이, 그 일로 우짜노?"

카이,

"걱정하지 마소."

마누래가,

"걱정하지 마소."

그래 인자, 이래 인자,

"둘이를 데부다(데려다) 놓고, 딱 내 시킨 대로 하라."

카거든. 저고리를 딱 입히가 치마로 만들어가 인형을 딱 만들어 주는 기라, 고을 원 마느래가. 그래,

"요 사람 앉아놓고, 요 사람 앉아놓고, 안 빌리 갔다 카는 사람한테 머이(먼저) 물어라."

이기라. 그래 인자 이래,

"안 빌리 갔다 카는 사람하고, 빌리 줐다 카는 사람하고 그래 인자 인형을 복판에 놓고 안 빌리 갔다 카는 사람한테 머이 물어라."

"어째 묻는고?"

하이레,

"돈 빌리 갈 적에 누가 있었나 이리만 물어라."

카거든. [조사자: 응. 응. 돈 빌리 갈 때.] 옳지.

"돈 빌리 갈 적에 누가 있었나, 이래 이래 물어라."

카거든. 원 마누래가 원을 보고, 그래 인자 인형을 데비다(데려다가), 인형을 안 만들어 놨나? 사람을 이래 딱 안차서(앉혀서), 그래 인자 원이,

"돈 빌리 갈 적에 누가 있었나?"

이래 딱 물었는 기라.

"새빠질 놈, 아무도 없다."

캤는 기라. 그래 안 맞나? 돈 빌리 갖다 아이가. 아무도 없다 캤으니 돈 안 빌리 갔나. 답이 안 나왔소?

[녹산동 설화 27]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1)

송영자(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성산마을 성산경로당]

1) "빌려 간"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실수로 말했다.

참 학자가 되나놓인께네, 쟁피를 홅어다 마당에 늘어놨는데, 비가 악수로 왔는데도, 마누래가 쟁피를 홅어가 오이 그냥 있어. 학자가 되놔(되어 놓으니) 글 한다고.

마 그래 '옛다' 보굴이(화가) 나서 마 어두로(어디로) 내뺐는데, 그래 이 학자는 공부로 해가지고, 과거로 해가, 그래 턱 내려온다고 내려오이, 그 마느래가 그 쟁피로 다시 홅더라요.

그러이께네 팔자 더럽은 놈은요 내나 그대로 살아야 돼요. 비로 맞았거나 우쨌거든 홅었거나 맞았거나 있었으모 그래도 과거 해갖고 지가 편할 거 아이가?

[녹산동 설화 28]

부인 때문에 발복 못한 남편

송영자(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녹산동 성산마을 성산경로당]

죽을 낀데,

"야야. 내가 넘이 있어서 말로 못 한다. 넘이 있어서 말로 못 한다."

이카이, 아들이,

"아부지. 아부지. 엄마하고 내하고, 아부지하고 내하고 엄마하고 서인데, 넘이 어데 있습니꺼?"

그래도 기어이,

"넘이 있다."

카거든. 기어이 넘이 있다 카거든.

"아부지예, 넘 아입니더. 마 아부지예, 말씀 하이소. 말씀 하이소."

카이,

"응, 그래. 내 죽거드런 내 죽은 뒤에 내 두(頭)로(머리를) 비이다가 마을에 묵는 우물에다 옇어뿌라."

[조사자: 어허-. 머리를 비이가지고.] 응. 두를 비다가 마을에 묵는 우물에다가 갖다 옇어라. 샘에다 갖다 옇어라. 그래 참 지거 엄마도 들었다. 죽고 나서 참 아부지 영대로 한다고 비이다 옇었디, 이놈의 동네 사람이 묵는 샘이가 디비져서 마 마 굉장하고 난리가 나고 마 이렇거든. 이렇는데, 모자간에 싸웠다. 모자간에 싸울 일이 있어서 싸았다. 그러고로 물이 디비져가지고 마을이 마 엉망이 됐는데, 싸웠는데 이 놈의 애미라 카는 기가 뭐라 캤는 게 아이라,

"야 이 사람들아. 저놈 저저 저거 아부지 두를 비이다가 우물에 옇었다."

이리 됐는 기라, 저거 엄마가. 저거 엄마가. [청중: 돌아서면 넘 아이가.] 응. 그래 여자가 넘이라. 그래,

"야 이 사람아. 저저 동네 사람아. 저놈이 저거 아부지 두를 비이다가 우물 안에 옇었다."

이러 카이, 고 우물로 퍼 재치는 기라. 하얀 백말로 타고, 아부지가, 저거 아부지가 백말로 타고 한 짝 발 딱 올리는데, 물로 퍼부어서 몬 갔다요.

[녹산동 설화 29]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2)

김옥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7일 채록
[녹산동 신호마을 신호노인정]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러, 그래가 인자 어머니, 시어머니로 디릴 기 없어서, 쌀이 없어서러. 그래서 인자 땅을 파가지고 지렁이로 인자 잡아가지고, 마 매매(매우) 이래 씻거갖고 삶아가지고, 그래 시어머니로 이래 디리이꺼, 디리니까(드리니까), 그 어머이가 그 물로 자시고 나디만,

"아이고 언자 내 눈이 띠인다(뜨인다)."

카고 이라더래.

[녹산동 설화 30]

곶감이 무서워 도망간 호랑이(3)

조귀주(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미음동) 세산마을 세산경로당]

애기가 밤에 자꾸 우는 기라. 밤에 울고 울고 해도 아무리 달래도 안 달래지는 기라. 그래 그라이 인자,

"이거 주까? 저거 주까?"

마 오만 거를 말해도 안 달래지는데,

"아이고. 저, 저게 호랑이 온다."

캐도 안 되고,

"꽂감 주꾸마."

카이, 덜렁 그치뿌거든. 끄치뿌니까 호랑이가, '아. 내보다 겁나는 꽂감이 있구나.' 카민서 그래 도망을 갔부더랍니다.

[녹산동 설화 31]

꼬부랑 이야기

조귀주(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록 채록
[녹산동(구 미음동) 세산마을 세산경로당]

옛날에 꼬꾸랑 할매가 꼬꾸랑 짝대기로 짚고 꼬꾸랑 남게(나무에) 올라갔거든. 그래 꼬꾸랑 남게 올라가 꼬꾸랑 똥을 누니까 꼬꾸랑 개가 와서 꼬꾸랑 똥을 줃어(주워) 먹거든. 그래 꼬꾸랑 짝대기를 가 탁 쌔리주니까(때려주니까)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카더란다.

[녹산동 설화 3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조귀주(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9일 채록
[녹산동(구 미음동) 세산마을 세산경로당]

자기 그거 아버지가, 인자 저저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를 칠십 돼서로 지게를 지고 인자 산에 갖다버리러 갔는 기라. 버리러 가는데 손자가, 손자가 따라 갔는 기라. 인자 말하자면 자기 아들이 따라갔는 기라. 따라가면서, 그래,

"아부지. 어데 갑니까?"

카이,

"내 따라만 온나."

이래 캤어, 그래 산에 올라가서 그 할아부지, 자기 아부지를 버리고 뒤로 돌아설라 카이,

"아부지. 그 지게 가지고 갑시다."

이라 카는 기라. 그래,

"지게 가지고 갑시다."

카이,

“왜?”

카이께,

“그래 아부지도 아버지를 산에 갖다 버리는데, 나도 아버지를 칠십 되면 갖다 버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캐나 노이께 아부지가 그 지게를 도로 아버지를 짊어지고 도로 내려오더랍니다. 그래가 인자 고래장이 없어짔는 모냥이라.

[녹산동 설화 33]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2)[엄마 어서 좋다 해라]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아는 둘이나 서이나 되고, 방은 마 이불은 없고. 이래가 인자 삼베 홑이불로 하나 가지고, 이래 마 덮고 잘라 카이, 아들이 차 내서 복판에 딱 넙히 놓고, 이래 마 가다 목안 줄, 아들 이불 귀역에다가(귀퉁이에다가) 이거 구멍을 이래 뚤버(뚫어) 놓고, 목안지다(목에다) 걸어놓고. 이래 니(네) 군데 딱 탱기 놓고, 인자 영감 할마이 복판에 자다가 마 재미를 봤어.

이놈의 영감쟁이가 암 말도 안 하고 하몬 될 긴데,

“좋나? 좋나? 좋나?”

이래 싸이께, 할멈은 암(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들이,

“엄마 어서 좋다 캐라. 목안지 떨어지겠다.”

카더란다. [일동 웃음]

[녹산동 설화 34]

한 발을 들고 소변 보는 이유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할머니경로당]

오줌을 싸몬, 와 전봇대 밑에 가 싸몬, 와 다리를 하나만 들고 싸는고 모르겠대예. [조사자: 와 그라는교?] 모르겠습니꺼? 다리 두 개 들몬 엎어진다 아입니꺼. [일동 웃음]

[녹산동 설화 35]

혀 짧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또 인자 메느리를 하나 봐놔놓은께, 시오마이가 세짤래기 소리를(혀 짧은 소리를) 하는데, 메느리로 봐놓으이, 이 큰며느리가 영판 세짤래기라.

그러니까 이 시오마이니가 메느리로 얼마나 구박을 했겠습니까. 세짤래기 소리를 한다고. 지 세짤래기 소리 하는 건 안 치고, 그래갖고 인자 구박을 받다가 받다가 둘채 메느리로 봤는데, 둘채 메느리는 더하는 기라. [일동 웃음] 둘채 메느리는 더 세짤래기 소리를 하인께, 이런 큰며느리 인자 시어마이한테,

"아따 배쭈(별 수) 없네."

이라거든. 아 배쭈 없네, 벨 수 없네 이거거든. 지보고 구박 주놓고, 작은메느리 더하이께네, 더 세짜른 소리 하이께네, 아따 배쭈 없네 이러 카이, 시어머니가 뭐라 캐섰겠습니까? 배쭈 없네 카몬 뭐라 했겠습니까?

"허, 허, 화추(할 수) 있나?"

카더랍니다. [일동 웃음]

[녹산동 설화 36]

두 영감의 거짓말 시합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우리 동네 저 저 공갈할배하고, 인자 공갈할배가 둘이가 살았는데, 둘이가 인자 대회가 붙었는 기라. 둘이서.

그래 어지겉이(어제같이) 태풍이 딱 부른 겉으몬, 태풍이 딱 불었는데, 둘이 딱 만내가지고 하는 말이,

"아따야 우리는 어짓밤에 얼매나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마리(마루에) 나난(놔 놓은) 따디미 돌이(다듬이돌이) 없어졌어. 날라갔부고. 그래가 집 뒤에 살짝 돌아가이 거무줄에다(거미줄에다) 알록달록 딸리가(달려서) 있더란다." [일동 웃음]

달리가(달려서) 있더라고 카더라 카네. 그래 인자 빨랫돌이 거무줄에. [청중: 빨랫돌이 안 있습니꺼?] [조사자: 빨래 뚜드리는 거.] 예. 뚜드리는 거 안 있습니꺼? 그기 거미줄에 딱 붙어가 집 뒈에서 달랑달랑 하더라 카거든. 그라이,

"하따야 나는야 어지야(어제) 보리타작을 했디만은, 보리타작 도르께(도리깨) 열 거어(그것) 떨어져 달아나뿌고, 꼭두말이로 가 점도록(저물도록, 하루 종일) 뚜드맀더만은, 거 안날(다음 날) 저 보개산 넘어 가이께, 거 넘어 가가 날아 가가." [일동 웃음]

[녹산동 설화 37]

참다가 뀐 방귀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딱 내가 핸 일인데, [청중: 실화.] 그래가 한밤에 열한 시나 돼서, 이 동네 전기가 없다가 인자 전기가 탁 들왔는 기라.

우리 같이 젊을 때 쫌 젊을 때, 그래가 인자 가로등을 환하이 캐이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 인자 여 약방에 요 요 있었다고예. 우리 집은 저 아래가땅(아래쪽에) 쫌 있고, [청중: 바로 요 집 옆에.] 응. 배가 살 아파서러 약을 사러 왔거든예.

약을 사가지고 인자 불 딸딸이 그거로 신고 아장아장 내려가이, 방구가 나올라 카는데 마 어지 크기 나올 판이라. [일동 웃음] 그래서러 '야 이거 참 뒤에 사람이 오는가 안 오는가?' 싶어서 인자 사람 안 오몬 크기 한분 뀌이뿔라고. 탁 돌아보이께 개가 한 마리 오쫄오쫄 [일동 웃음] 따라 내리오는데, 맘 놓고 마 팍 캤디만은 개가 마 탁 요러더만은 마 옆질로 달아나는데 마, 이거 진짭니더, 실홥니더.

내가 집에 몬 들어 가가지고 전봇대 붙어서 내 혼자 웃다가 웃다가 집에 들어갔다. 영감을 쳐다보니 몬 들어가겠는 거라, 우섭아서. 그래 부엌에 드가가 싱크대 붙어가 내 한참 웃고.

[녹산동 설화 38]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시아바시 상을 들고 가서러, 인자 메느리 시집 가갖고 시아바시잔테 살 놓으면서러 방구로 마 뽕- 뀌뿠는 기라. 그러이까 시아바시가 메느리 무안타고(무안해 한다고),

"아이고 메늘아, 니 방구는 복방구다."

이러 카이께,

"하모 아부이예(아버님예) 정지서(부엌에서) 또 낐습니더."

카이. [일동 웃음]

[녹산동 설화 39]

삿갓 보고 놀란 소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애릴(어릴) 때 소를 믹이러 갔는 기라. 소를 인자 날이가 인자 비가 와서러 시커먼 삿갓, 와 옛날에 이거 떨어진 거 안 있습니꺼? 그놈을 턱 가지고 인자 소를 믹이러 갔는데, 이 무슨 죄작이 나서러 거 시커먼 썩은 삿갓을 소 이까리다 맺는 기라.

소 이까리다 매나노께(매어 놓으니), 이놈 소가 풀 함분 뜯어먹고 일나이 삿갓이 시커먼 게 웅줄하이 소가 놀래는 기라. 자꾸 놀래가 지도 자주 놀래이 삿갓이 더 뛰거든. 그라이 마 이 소가 마 달아나다 어덕에다(언덕에다) 널찌가 다리가 뿔라졌어. 진짜 이거 똑 내가 소를 믹이러 가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청중: 참 벨라기는 벨라다.] 그래가지고 이거로 인자 우리 오빠도 참 별나거든예. 집안 겁나거든예. 그래갖고 '이거로 내가 삿갓을 맺다 카몬 맞아 죽을 기고' 절대 삿갓 맺다 소리 안 하고, 삿갓 퍼뜩(빨리) 끌러뿌고,

"소가 어데 풀 뜯어 묵다가 어덕에 널찌가 다리 뿔라졌다."

캤는 기라. 소를 가지고예 소로 잡았어예. 잡아가 동네 그래가 마 갈라묵고 그랬어예.

[녹산동 설화 40]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3)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엄마가 봉산데 놔뚜고, 언자 마누라한테다 맽기 놓고. 아들이 뭐 그때 옛날에는 뭐 뭐 어대 뭐 징용에나 뭐 그런데 안 갑니꺼.

가가 인자 몇 년만에 한 삼년만에 오이께네, 메느리가 머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옛날에 샅자리방 아닙니꺼? 샅자리 방밑에다가 옇어가 말리는 기라.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말라가 봉사 시어마이로, 고거로 멫 마리씩 넣고 국을 낄이다 주이께, 억수로 피부가 좋아지고 살이 보들보들해지고 얼굴이 좋거든.

아들이 오이께네. 그래 아들이 아가(와서) 인자,

"엄마, 얼굴이 어찌 이리 좋노?" [청중: 샆자리다 묻어 놨어.]

그래 깔아놓고, 그래 인자,

"엄마 얼굴이 참 좋네. 뭐로 무서(먹어서) 얼굴이 이래 좋노?"

하이께,

"야야 모르겠다. 때마정 메느리가 국을 낋이주는데, 그 국을 묵으께 그래 좋다. 내 피부도 좋아지고 내가 참 좋다."

이러 카이께네,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 저 저 마누라잔테 물었어.

"엄마로 뭐로 미서(먹여서) 저리 얼굴이 좋아졌노?"

카이, 샆자리 그거로 희뜩 들면서,

"이거로 때마정 내가 반찬은 없고, 해드릴 건 없고, 그래 이거로 가지고 국을 낋이고 그래가 내가 때마정 내가 줬다."

이러 카인께,

"엄마 어데, [놀란 듯이] 어이구! 엄마 꺼시더라(지렁이더라)."

이래 카이께,

"으악!"

카디 마 눈을 떠뿌(떠버렸어). 그래가 마 눈을 버뜩, 눈도 곤치고 좋아지고.

[녹산동 설화 41]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대화(3)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언자 버부리(벙어리) 할멈하고 봉사 영감하고 살았는데, 동네에서,
"불이야! 불이야!"
이라거든. 이라이께, 버부리는 인자 귀가 어둡아 몬 듣고 눈은 보는 거는 볼 줄 알거든예. 그래 봉사는 귀에 듣기만 듣고, 몬 보리께네. 그래 인자 할멈을, 집 지킴서러,
"불났다. 나가 봐라."
캤거든.
"나가 봐라."
캤거든. 그래가 나가 오디만은,
"그래 누 집에 불이 났더노?"
카이께네, 영감 복숭씨로 살 더듬거든. 이라이께,
"아하! 복순네 집에 불이 났구나."
이라거든, 그래가 인자 또 그래,
"우짜다가 불이 났다 카더노?"
카이, 또 영감이 여 본부로 갖다 건드리거든. [일동 웃음]
"옳지. 고구마 삶다 불났구나. [일동 웃음] 아 감자 삶다가 불났구나."
이카이,
"그래 뭐만 남았더노?"
카이께, 진짜 인자 참 본부로 또 또 언자 붙잡거든. 이라이께,
"옳지. 인자 좇 지둥만 남았구나!" [일동 웃음]
[조사자: 그것만 남았는데.] 예. 그래갖고 인자,
"재산 피해가 얼매나 났더노?"
카이, 또 지꺼로(자신의 것을) 또 만지거든.
"옳지. 10만원치를 태았구나!"
카더란다. [일동 웃음]

[녹산동 설화 42]

낮거리 하는 놈 다 잡아 오라

정재수(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비는 부실부실 오고, 반상회는 한다고 오라 캐쌌고. 이래 샀는데, 천상 할마이를 놔뚜고 갈라 카이 생각이 나싸서 몬 가고, 아들로 인자 보내는 기라.

"오늘 야야, 야 임마, 오늘 저 반상회 한단다. 가서 함 뭐라 카노 들어보고 올 때는 호걸로(호루라기로) 사고 온나."

카민서 돈을 주거든.

"호걸 사가 올 때는 불고 온나."

이라거든. 그러이께 아가 인자 시키는 대로 하고, 반상회 가서 말로 듣고 인자 호걸로 사가 인자 막 불고 오이께, 저거 아버지가 인자 하는 말이,

"반상회 가이 뭐라 카더노?"

이러 카이께네,

"씨이, 낮걸이 하는 놈 전부 다 잡아오라 카더란다." [일동 웃음]

[녹산동 설화 43]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2)

최복금(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녹산동(구 송정동) 송정마을 송정할머니경로당]

장개로 턱 가는데, 가고 나이꺼네, 마누래가 보이꺼네 신랑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에다 방에 들앉아가지고 책만 디다 보고 있거든. 그래 여자가 저 손을 가지고 그 나락밭에 가서러 생피로 이러 해가지고,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믹이고 나도, 비가 와도 그거로 안 걷어 딜놓고(들여놓고) 떠내려가도록 놔줐는 기라. 그래서러,

"보소 당신은 물(먹을) 기 없는데, 이 생피를 저 뜯어가지고 말루는 이거꺼정 와 당신이 떠내려 보냈소?"

그라이꺼네,

"그것도 니 복이고 나도 내 복이고 그래 사는데."

이래 캄서러, 그래가 인자 그래가지고 샀다가 과게 보러 갔어, 남자가. 과게 보러 가서 과게를 했어. 과거를 해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여자로 하믄 겉으도 안 보고 도랑에, 도랑에서러 빨래 씻었다 카더라, [청중들이 아는 이야기와 달라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청중1 : 갱피를 안 걷어 놔노니꺼네, 여자가 마 '니는 몬살겠다' 나갔뿠는 기라. 나갔는데 이 남자는 공부를 그래 해가지고 서울 가서 과거를 봐가지고, 저 인자 말하자몬 급제를 해가지고 내러 오는데, 참 저거 마누래가 그것도 나간 마누래가 도랑에서 빨래를 씻거든예.] [청중2 : 빨래를 씻는 기 아이고 저 그 나락밭에서러 그 갱피를 훑더란다. 그란께, 그래 그 사람이 오민서 하는 말이,

"저 저가 저 논바닥에 있는 저 부인은 무슨 그기 많아서러 훑던 갱피 다시 훑노?"

카고, 옛날에 이전에 저거.]

4. 대저동 설화

[대저동 설화 1]

개울을 건너는 도깨비불

박술이(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우리 클 덕이(점에) 들에 보리타작 할라고 논에다가 마당을 맨들어놨는데, 거게 우리 주인 아줌마가 밀로 볶아가 갖다 주매, 묵고 놀아라 쿠는데,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막 저 도랑을 개고랑을 마, 큰 막~ 달구통겉은 기 구불러 가더라고. 그런 거는 봤어 우리가.

[대저동 설화 2]

창녕 대박골의 개비석

박술이(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창녕 이방 대박골이라 커는데, 그 동네 개비지로(개비석를) 세아 놨어. 개비지로 세아 놨어. [조사자: 개비석을?] 어, 개비석을 세아 놨는데, 저 그 여자 남자는 밤나무골 사람이고, 동네 이름이 밤나무골이고, 근데 그 사막에 그게 인자, 전에는 풀 비러 갔거든. 풀 비가 논에 [조사자: 사막이 뭔데예.] 동네 이름이 사막이라고 있어, 합천하고 창녕하고 거리가.

사막에 풀 비러 가가 오다가, 여름에 오다가 덥어서러(더워서) 낙동강에 모욕을 하고 있다가 개는 요 오가 있고 있는데, 드가갖고 신랑이 안 나오는 기라 주인 아저씨가.

안 나오고 하이께네 개가 뛰 드가인께네, 죽어가 있거든. 그러논께 개가 쫓아가 집에 가서 자기 마누래 밥 하는데 가갖고, 치마 꼬랭이를 물고 들어와갖고 거 가서 같이 서이가 빠져 죽었어요. 서이가 빠져 죽어갖고, 그거를 건지갖고 민에(면사무소에), 지금은 인자 경찰서라 카지만 그때 저 파출소라 캤거든. 그서 오갖고 건지가지고 한 구딕이 사람, 신랑 각시하고 개하고 한 구딕이 묻어갖고 개비석을 세아 놨어요. 지금도 그 비석이 있어, 대박골.

[대저동 설화 3]

임신중에 뱀을 잡아 먹어 부정 탄 부부

박술이(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저 우리 문경에 거 살았던 팔십, 칠십 구년도에 거 살 떼기(살 때에), 저 젊은 사람은 논두렁에 가갖고, 뱀이를 잡아 왔는 기라, 커다란 구리를(구렁이를) 잡아오갖고, 비료 포대다 옇어 갖고 집에다 갖다 놨는 기. 그때 뱀 마이 잡아 묵었거든.

그래 잡아 묵는다꼬 거 갖다 놔났는데, 그래 마누래가 임신 한 오 개월 이래 됐는데, 몬가 자고 내주라 캤는 기라. 내주라 카이, 안 내주고 있는데,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인자 마누래가 신랑 자는데 갖다 풀어 내 줄라고 가이께네 '엉엉' 울어사갖고 놀래가 다부 들어왔어. 다부 들어와갖고 그래 고마 집에 누워잤는데, 이튿날 아즉에(아침에) 신랑이 들에 갔다 오가 그놈을 삶아 고아묵고 죽어뿠다 아이가.

신랑이 죽어뿌고 그 아로 놔논 게 뱀이 됐어. 온 몸이 구링이고 햇바닥도 뱀 샛바닥이고(혓바닥이고) 이래가지고 젖도 못 미기고 굶가가(굶겨서) 직있다 아이가.

[대저동 설화 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1)

박술이(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아들이 군대 가고 없는데, 못 사는데. 인자 해줄 기 없은께, 메느리가 인자 지렁이로 잡아가 국을 끓이주이 맛있다고 자꾸 묵고 이러이, 아무래도 이상해서러, 인자 아들 오몬 비이(보여) 줄라고, 그 지렁이를 한 마리 건져 자리 밑에 여어놔가(넣었다가) 말란 기, 바짝 말라가 비 주이께네. 그래 인자 아들이 나와가, 군대 갔다 나와가,

"야야 이기 뭔고 며느리가 해주이 맛이 있더라. 이기 뭐고 보라."

캐.

"엄마, 지렁이네."

칸 께네, 놀래가 눈을 퍼쩍 뜬다 이 소리만 들었어.

[대저동 설화 5]

당산을 모신 어머니

○○○[2] (여, 1930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우리 엄마가 참 당산을 오래 모싰거든. 저 아무 것이, 얼매나 그 우에 공동묘지고 이렇는데, 당산을 오래 모싰는데 우리 엄마가. 꼭 우리 엄마한테로 모시라고 우리 아버지한테로 오시는 기라.

꼭 찬물에다가 정신을 들이거든 일주일로. 정신을 들이고 가몬 저 우에서러 호랭이가 딱~ 내려다보고 돌로 떤지, 돌로. 돌로 떤지도 우리 엄마가 절대로 그 신경 안 씨고 당산을 모싰는 기라. [청중: 실제로요?] 어, 실제로. 당산을 모신께네. 그래 마 딱 정신 들이가 모신께네, 그래가지고 인자 마 당산 모시고 나이께네, 보이께네 마 어디로 가고 없더란다. [청중: 돌을 와 던지노?] 정신 달아본다고. 요 할매가 정신 들이 하나 안 하나 그래 인자 겁이 나면 인자 우리 엄마가 당산을 못 모시고 인자, 그 못 모시고 내려오 뿌는 기라.

[대저동 설화 6]

개로 환생한 어머니(1)

장점덕(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너무 구경을 안 댕기도 죄가 많다네.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인자, 오데서 이야기를 들어보이, 저 그 개가 자기 엄마의 환승을(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개로 태어났다는 기라, 엄마가 죽어가지고. 그래 이 저게 개를 업고 팔도강산을 업고 댕기면서 구경을 시키라 하는 기라. 시키주야 이 사람이 은덕을 해가, 인자 은덕 행상을 해갖고 인자 하늘로 올라가지 안 그라면 은 안 된다 카대.

그래 그 개로 업고 마 아버지가 개로 업고 팔도강산을 댕기면서로, 마마 참 몇 년을 하고 댕기면서로 구경을 시켰어. 시키 놔나이(시켜 놓으니) 나중에는 인자 이 개가 그래 사라지더라 카대. 없어지더라. 인도하사(인도환생).

그래 사람이 너무 구경을 안 하고 댕기고 집에만 있어도 죄가 많대요.

2)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함.

[대저동 설화 7]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1)

장점덕(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아들이 아부지가 인자 돌아가싰는데, 인자 저 아들이, 아부지가 인자 돌아가시 놔놓으이, 지게다 짊어지고 인자 그 고래장 하러 올라갔는 기라. 올라가는데 이 아들이 인자 뒤에 따라가면서러, 인자 고래장을 해나 놓고, 이 아들이 인자 [청중: 돌아서이.] 아서고, 아들이 인자,

"아부지, 이 지게 이거는 와 안 가가고 와 내삐리고(내버리고) 가느냐?"

이리 인자 아들이 인자 이야기로 하니까, 그래 아부지가 하는 말이, 아들이 인자,

"다음에 이 가지가야 아부지도 돌아가시몬, 이걸 짊어지고 아부지도 이리 고래장을 이리 해야 될 거 아이냐?"

카니께네, 그래 인자 그 아부지가 그 엄마를 다시 파가지고, 짊어지고 집에 오더라는 그런 전설도 있고.

[대저동 설화 8]

나무꾼과 선녀

장점덕(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뭐 전설에 뭐, 저게 저 저 나무하러 가가지고 보이께네, 저 강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거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인자 그 옷을 갖다가 뚬치(훔쳐) 가뿠는 기라. 옷을 뚬치 노삐놓으이(훔쳐 놓으니) 여자가 오도가도 몬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인자 집에 데꼬 와갖고 갤혼해가 살았어. 살았는데 [청중: 책에도 나오고.] 그래. 그거는 옛날 책에도 있고 다 있다 아이가. 그 얼라를 서이만 낳고 나거들랑 인자 이 옷을 주라 이랬는 기라. 주라 했는데 얼라 둘이 낳고 마 얼라 주삣는 거라. 주나놓으이 양쪽에 하나썩 이래 끼고, 마 마 마 하늘로 올라가뿠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뚜루박이(두레박이) 인자 이리 저녁에 인자. 이이 인자 선녀가 인자 하늘에 올리가가지고 만날처럼(예전처럼) 내려오지는 못하고 뚜루박을 가지고 물 내라가지고 물로 담

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인자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고 인자 그래 그런 전설도 있고 이렇지.

[대저동 설화 9]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장점덕(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결혼을 해가지고 시오마시를(시어머니를) 모시놓고 있는데 시오마시가 메느리가 밥만 하몬, 저 구녕을(구멍을) 딱 떫어놔놓고 이래 쳐다보고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라거든.

그래 이 메느리가 이 시오마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이기 질을 잡겠노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자 이 메느리가 또 이 문을 이리 내다보는 걸 가지고 인자 돌미(돌멩이)로 가지고 입을 탁 때려 주삣는 기라. 때리 주삐놔노이 그라고부터는 마 메느리인테 겁을 내가지고, 이래 내다보도 안 할라 카고, 인자 밥을 하는데 내다볼라꼬 이래 하면은 마 돌미로 들몬은 시오마시가 막 겁이 나가지고, 마 마 마 뒤로 마 물러앉고 물러앉고 그래가 질을, 시오마시 질 잡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대저동 설화 10]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1)

장점덕(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이 할매가 인자 얼라를 인자 엎고, 우리 집에는 인자 동냥하러 왔거든. 동냥하러 인자 중이 동냥하러 왔는데,

"저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이 아나(아이나) 주까?"

캄서 이래 어랐는(얼렀는) 기라. 한 문 이야기로 밭은 말은 주 담을 수가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아로 갖다가 인자 데려와가지고, 그 에밀레종 맨드는데 그다 같이, 같이 인자 이 아를 갖다가 그거 해가지고 종을 만들었는 기라. 그래가 종을 맨들어놔놓으이 이 아가 인자 만날 천날 종을 뚜드리몬은,

"에밀레~ 에밀레~."
인자 이 소리가 난다.

[대저동 설화 11]

앙갚음을 한 고양이와 은혜 갚은 개

장점덕(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할머니경로당]

고양이를 갖다가 집에서 이래 키았는데, 이 고양이가 너무 아가, 아로, 머스마가 하나 있는데 고양이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마 이래가지고. 그래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지만은.

이 인자 부엌이, 옛날에는 부엌이 얄궂다 아인교. 그 인자 밥을 이래 이래 하고 있는데, 천장 우에서러, 천장에서 마마 뭣이 구리가 막 탁 떨어지는 기라. 구리가 떨어지는 기 아니라, 이 개가 인자 만날 이 밥을 펄라카몬, 이놈의 개가 와서로 고양이가 와서로 마 탁 지내가가지고 밥을 문지로(먼지를) 안추고(앉히고) 안추고 이래가지고,

"저 놈의 고양이 저거를 갖다가 우째서 잡아 때리 직이야 되겠노?"

싶어가 남자가 그래, 우찌 우찌 해가지고 고양이로 잡았어. 잡아가지고 마 부엌에 불 때는데다가 마, 개도 한 바리 있고 고양이도 한 바리 있고 이렇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고양이로 갖다가 불 때는 데다가 잡아 넣어가 고양이가 죽어삤는 기라.

죽어삐놔놓으이 이 아가, 쪼깬한 아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 행세를 하는 기라 이기. 그래 보면은 마 저 천장 우에 올라가가지고 오데, 오데라도 올라가가지고 마 "야옹, 야옹" 카고, 고양이 행세를 하고 마 이래 이랬어. 그래가지고 어넌 중이 와가지고 부로 써주면서로, 요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이래 부로 딱 써가지고,

"절대로 무슨 소리가 나도 문을 열어 주지 말라."

카거든. 문을 열어 주면은 큰일 나니까, 문을 열어주지 마라꼬 인자 이래 놔나놓으이, 그래 인자 한밤중에 절대로 자몬 안 된다 카는 기라.

"자몬은 안 되니께네 절대로 자지 말고, 딱 있다가 무슨 소리가 나도 문 절대로 열어주지 말고 이래 있으라고."

그래 한밤중 된께네, 밖에서러 막 자기 아(아이) 소리가 자꾸 나는 기라, 얼라 소리가.

"엄마, 엄마."

얼라 소리가 나사이(나니), 그러이 이거 문을 안 열어 줄 수도 없고, 열어줄라 카이 막 남자는 절대로 못 열어 주구로 여자를 잡고 막 이라거든. 잡고 이라는데, 그래가 여자가 마마마

안 돼가지고 문을 열어 주뿠는, 부로 띠고(떼고), 부를 갖다가 문에다 딱 이래 붙이놨는데, 부로 띠고 문을 열어 주뿠는 기라.

열어주놔노이,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마마 와가지고 아로 갖다가 그거 해삔 기라. 직이(죽여) 삐고. 이 개가, 그 직인 기 아니고, 이 개가 한 바리가 있었는데 개가 그래가지고 인자 불이 나삤는 기라. 불이 났는데 그 개가 인자 막 뛰드가가지고 그 아로 갖다가 물고 나왔는 기라. 물고 밖에다 내놔놓고 개는 마 그 불에 마 타가 죽었는 기라.

죽었는데, 그래 그만큼 인자 옛날에는 신을 인자 모신다 카는 것보담도, 너무 저게 너무 말도 안 들어도 안 되고, 문 열어 주지, 중이 와서 문 열어주지 카지 마라고 캤는데, 문을 열어 주나놓으이, 그 인자 막 불이 나가지고 아가 마 타죽기가 됐는 기라. 그래가지고 개가 인자 뛰드가가지고 아로 데꼬 나와가지고 아는 살리고, 개 그거는 인자 죽어삤는 기라. 불에 타가지고.

그래 인자 사람은 구해놔몬 앙물을(앙갚음을) 하고 짐승은 구해놔놓으몬 은혜를 한다는 그 말이 전설이, 그 말이 나왔는 기라요.

[대저동 설화 12]

하늘에서 내린 산삼으로 남편을 살린 효부

장점덕(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대저 할머니 경로당]

신랑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 인자 여자가 인자, 산에 산에, [생각이 난 듯이] 아 이쪽에 여자, 남자 다리로 갖다가 끊어가지고 삶아 믹이면 낫는다 이랬는 기라. 이 남자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안 낫아서. 그래 여자가 인자 밤중에 산에 올라 가가지고, 저게 뫼를 파가지고 그 다리를 끊었는 기라. 끊어 나이, 그 인자 그 구신이,

"내 다리 내놔라."

고 막~ 막~ 잡으러 오거든. 여자 이거는 죽자 사자 다리로 마 쥐고 막 도망을 옸는 기라. 오가 인자 집에 오가지고 문을 열고, 마 솥에 물이 벌벌벌 끓어 샀는데, 거다 탁 잡아여삤는 기라. 그 다리로 갖다가. 잡아 옇는데, 그기 저게 다리가 아이고 큰~ 인삼, 산삼. [청중을 보고] 그래 그기 이야기 아이가 내나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산삼을 먹고 인자 이 사람이 살았는 기라. 살아가지고, 저게 이 산삼 이걸 갖다가 자기가 묵고 그 마당에다가 묘로 파가지고 거다가 묻어놨어. 묻어놔가지고 이래 난중에 보이께네, 그 산삼이 그대로 또 올라오더라네. 그러이 그만큼 효자라 이 여자가.

[대저동 설화 13]

말이나 한 번 해 보지

김분녀(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동상은 뒤에 가고 누나는 앞에 가는데, 옷이 호빡 젖어 낳노니 옷이 얇아갖고. 요 보지 터랙끼 다 뷔이던 가배. 그래갖고 그 좇을 빼서, 좇이 일어난께로, 젊은 마음에 꼬치가 일어난께네 돌에다 콩콩 찧어가 죽었어. 동생이. 죽은께네 아듬고 울맨서,

"말이나 하먼(한 번) 해 보지, 와 그랬노?"

그러더랍니다. 그래 동생이 죽고 누나가 그래 원망을, 한통을, 한탄을 하더란다. 그래 죽어 삤디야 ―래.

[대저동 설화 14]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1)

김분녀(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옛날에 아가 하도, 키우는데 울어 싸이, 그래 인자 저 한 데, 저 한 데,

"호랭이 온다! 호랭이 온다."

해싼께, 아가,

"그라믄 꽂감을 주까?"

이란께로,

"응."

이람서, 아가 끈치더라(그치더라) 카네요. 그래서 꽂감을 줘서, 아를 주인께네 아가 안 울더란다. 저 한 데 있던 호랭이가,

"저 호랭이 온다, 우지 마라."

이람서 곶감을 주인께네, 아 이놈의 호랭이,

"나보담 더 무서운 게 있는가배?"

이라맨서, 그래 아가 근치더라요. 그래 그건 기 전설로 내리오는 이바군 기라.

[대저동 설화 15]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

김분녀(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하도 몬 살아가지고, 그래 저 저 남자가 저 과개를 하러 가는데 갱피를 훑으면서,

"니 갔다 오이라(오너라). 나는 묵고 살기 위해서 갱피로 훑을란다."

이라면서 갱피를 훑는데. 아니 공부를 하는데, 저 과개 하러 갈라고 과개 하러 갈라고 갱피를 저저 공부를 하는데, 비가, 갱피를 훑어다 놔놓으니, 비가, 널어놓고 갱피를 훑으러 갔어. 갔는데 갱피 훑어 놓은 그 덕석일랑은 걷어다 놓도 안 하고 마 둥둥 뜨내려 가고 공부한다고 앉았거든. 그래 얼매나 보골이 났든고,

"니는 공부를 하든가 마든가 나는 또 갱피 훑으러 가야 되겠다."

이라면서 그래 갱피를 훑어다 묵는데, 서울로 저 과개 하러 가더라요. 그래서 과개를 하든가 말든가 나는 갱피를 훑어야 되겠다 그라면서, 그래 인자 뒤도 안 돌아 보더란다. 과개 하러 가는데 마누래가. 그래 놔놓으니 과개를 해갖고 말을 타고 오이께네,

"아이고, 내가 말이도 말꼬배이도(말고삐도) 매고 말똥도 치우고 내 하마."

카인께네,

"헤~ 저 마누래 오나가나 갱피 훑네."

그라면서,

"내 종 쨉고 내 말똥 치울 사람 있고, 말꼬빼이 매 줄 사람 있은께 너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여자를 반대를 하더라요. 과개를 할라카맨은 또 쪼깨 받들어 줄거 아인가배. 이 여자 세근에, 뭐 세근이 있는교? 과거를 할라카몬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거 아인가배. 마 그마큼 공부를 하몬 큰 사람이 안 되겠나. 그런데 세근이 없으니께 고상을 했겠제. 아, 누구나.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인 기래요.

[대저동 설화 16]

누구 복으로 사는지 다투다 망한 집안

김분녀(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그거는 나락을 베는데, 아니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남자가. 남자랑 여자랑 농사를 짓는데, 그래 인자 아 남자가 홀애비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사를 이래 지서 뉘랑 먹고 살꼬?"

이란께네.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매] 나랑 먹고 살지. 누랑 먹고 살아."

그러더랴 남자를 보고. 뭣이 그래 이기 뭣이 이라는고 싶어 논구석에를 간께네, 손을 폭 옇은께 고동이 요만한 기 나오더라요. 그래서 그 놈을 갖다가 궤짝을 짜갖고 옇어 놓고, 일을 하고 오몬 밥을 해 놓고, 또 어디 갔다 오몬은 머리 싹 깜아 빗은 여자가 밥도 해 놓고 막 청소도 해 놓고 그러더라 카네. 이기 뭣이 그라는고 싶어서 그 인자 어데 살짹이 보이께네, 이쁜 각시가 나와갖고 머리 싹 깜아 빗고 밥을 하더라요.

그래서 인자 저, 밥을 하는 거 와서 모른 척 하고 밥을 묵고, 또 일하고 온께 밥을 해 놓고 그러더랴. 그래 인자 아를 자꾸 놓더라요. 그래 놓고 인자 잠을 잠서 좋다고 남자가 다리를 딸딸딸 까불랐는 가배. 그기 사람이 여자라. 잡아서 본께 사람이더랴. 이 이쁜 각시가,

"나랑 삽시다."

카고 사는데, 아를 마이 놓고 잘 사는데, 다리를 찰찰찰찰 까불어 싼께 다리를 까불지 말라 카더래.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 다리를 까불면 복 나가요."

그란께,

"와, 내 복으로 먹고 사지 니 복으로 먹고 사나."

인제 다탔어(싸웠어). 니랑 나랑 다탔는데, 자꾸자꾸 그런께네,

"정 니 복으로 묵고 사는가 보자."

아들로 머리를 싹 깜기고, 남자는 꼭 지 복으로 먹고 산다 카거든. 싹 깜아 빗고 저 바우 우에 앉혀 놓고 남자랑 싸움을 하는 기라. 인자.

"니 복으로 먹고 사나. 정 니 복으로 먹고 사나."

"난 내 복으로 먹고 산다. 내 복으로 먹고 산다."

이라다가 남자가 자꾸 세운께네, 인자 그 마 물에 전부 빠져 죽어삐더리야 전부. 여자하고 하모. 하하 그래가 아도 죽고, 저도 죽고, 여자도 싹 다 죽어뿌고. 그래 고집이 세면 안 된다 이 뜻인 기라. 다는 기 별 거 없어요.

[대저동 설화 17]

은혜 갚는 두꺼비

김분녀(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옛날에 물을 여다 묵고, 물을 이러 가는데, 뚜끼비가(두꺼비가) 샘물 가에 앉았더라 카네. 그래갖고 그 뚜끼비로 자꾸 밥을 주고 밥을 주고 했어. 그래 그 인자 그 동네, 어데 저 동네 우에 절을 짓는데, 사람을 일 년에 하나썩 갖다 잡아 옇어야 되더랴. 돈을 많이 주갖고 사가지고.

그래 인자 뚜끼비 그 놈을 밥을 주고 물을 이러 감서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뚜끼비가 컸어. 컸는데 그래 인자 '내가 고마 뚜끼비 밥을 주고 이러다가 그마이 컸은께 이제 오데 가서 뭘 주우 무우도 살겠지.'하고 지가 팔려서 갔어 절에로. 그래 가이께네로 가서 인자 딱 앉았은께 여자가, 사람만 드가면 없어져, 잡아 묵었는가 어쨌는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거 마 돈을 마이 받고 내나 마 친정을 살리고 고마 할란다.' 싶어갖고, 친정이 하도 못 산께 포부가 졌겠지. 그래 가서 문을 열고 가만히 이래 앉았은께, 마 마 같은 시렁 가래같은 능거리가(능구렁이가) 마 까 천장에서 내려 오더라요. [청중: 뱀이가?] 암, 능거리가. 그래갖고 문을 열고 딱 들와가지고 뭐가 짝짝짝짝 하더랴. 문을 살째기 열어준께 뚜깨비가 마 이만한 게 커가지고 오더란다. 오디니만 그래 딱 젙에 요래 앉았은께, 능거리가 마 발이 막 기둥막서(기둥만큼) 한 기 천장 가래에서 내려오더라네. 그래가 인자 뚜끼비가 화~악 하면서 안개를 피운다. 막 마 온 방바닥에 능거리가 죽어 자빠진 기, 천지 마디마디 인자 능거리 발모가진(발목인) 기라. 그래서 뚜끼비가 그래서 공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공을 하먼은 저기 원수를 갚고, 짐승은 키아 놓으몬 공을 하는 기라, 은혜를 갚는 기라. 그러기 때문에 짐승을 함부로 하면 안 되아.

[대저동 설화 18]

뱀을 본받아 병든 남편에게 돌아간 부인

유금엽(여, 1941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저 어느 집에 부잣집 메느리가 너무 힘들어가이고, 어떻게 힘들었냐면 남편이 고생을 해가지고 뱅이(병이) 들어가 눕우가 있으니까, 하 수발하다 수발하다 묵을 것도 없고 해가지고, 자기가 고만 도망을 나가지고 다른 집에 남편을 하나 얻어가지고 살았어예.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우물물을 길러 가니까, 그 까시밭 울타리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 탱자나무 까시 있죠? 거기를 지나오니까 뱀이 한 마리가 딱 까시에 걸려가이고 넘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삼 일 채 그리 그리 딱 걸리가 찔리가이고 가도 오도 못하고 그랬대. 사일 째 딱 물로 길러 가니까, 저 다른 뱀이가 와가지고 먹을 걸 딱 주고 가고, 그 인자 유심히 봤는

기라. 또 뒷날 보니까 또 와서 먹을 걸 주가. 그래 그때 자기가 뉘우쳐가 '아,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이래가 안 된다.' 그래가 본 남편을 찾아갔어. 그 가서 그 사람을 공경하고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대저동 설화 19]

제삿밥을 못 먹은 귀신

유금엽(여, 1941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그 또 옛날에 어느 날, 저 그 시골에 보면 상여 거기 있거든요. 동네서 상여를 그거 해 놓고 초상이 나몬 그 상여를 꾸미가이고 하고, 또 그다 들이놓고 그리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밤에 늦게 옛날에 차도 없고 하니까, 어느 상갓집에 가서 인자 밤이 오래 되도록 그 집에 못 오고 걸어오다가 비가 소낙비가 확~ 오니까, 그기 인자 '거시'라꼬, 그 초가집을 옛날에 해 놨거든 상여집을. 그기 딱 인자 비를 피하고 있으니까, 뭐가 막 떠드는 소리가 마을서 올라오더래요. 그래 가만히 들은께 귀신들, 귀신, 귀신이 올라옴서로 그리 인자 둘이서 올라오면서 인자,

"아- 아무것이 집에 가서 뭐 오늘 대접 잘 받고 왔는가배?"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대접이고 뭐이고 오늘 기분이 나빠서 내가 말이지 손주를 부엌에다가 마 팍- 밀어 옇어삐고 왔다."

고 그래 해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고 친구가 또 이리 말을 하니까, 귀신 한 사람이 있다가,

"밥에 머리카락이 들었다."

캐. 그래 머리카락 들어 있는 음식을 귀신이 제일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아를 부엌에다가 여 놨대. 그래서 인자 그 사람이 뒷날 인자 이 마을에 제사집이 누군가 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 가니까 애가 불에 타지가지고 그대로 아파 고생을 하더라요. 귀신도 없다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지. 그런 말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저동 설화 20]

실수한 방귀로 병든 며느리

유금엽(여, 1941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인자 마을에서 시아부니하고(시아버지하고) 남팬하고(남편하고) 메느리하고 사는데, 들에 인자 가는데, 인자 소를 몰고 인자 앞에 며느리가 가고, 뒤에는 그 인자 지게를 지고 남팬이 따라 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인자 남팬 앞에 마누라가 까분다고 정이 좋으니까, 방구를 뽕~ 끼놓고서,

"꼬시제(고소하지)? 달제?" [청중: 맞다. 그때 그랬다 캤다.]

근께, 남팬인 줄 알고 그랬는데 뒤에서 시아부이가,

"꼬시나 뭐나 빨리 가자."

그러더란다. 그 질로 뱅이 들어가지고 메느리가 길게 그대로 못 살았대요. 얼마나 부끄럽고 뱅이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로 쪼끔한 덕에(적에) 들었어요.

[대저동 설화 21]

여자 말에 가다가 멈춘 바위

이두연(여, 1924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진주 사천인데, 그 들 가운데 앉아가 있어. 그 바우가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름을 다 잊이 삐리고 말로 몬 한다꼬. [조사자: 여자가 저 바위 봤데요.] 응.

"저 바우가 저 떠내려 온다."

고 고마 몬 가고 그 앉았는 기라. 그래 그 바우가 참 앞에 지금 큰 사천, 진주 아줌매 용왕제 지내러 가지요, 가운데 방구(바위) 그기 그 바우요. 그기 들 가운데 방구 그 바우라.

[대저동 설화 22]

상극이 된 뱀과 돼지

이외조(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옛날에 나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옛날에 할아버지가 한 분이 산에 나무로 하러 가니까는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이, 그래 소나무가 이래 있는데, 바위 위에서르 인자 덥아서(더워서) 쉈는 기라. 쉰다고 이리 누가(누워서) 있으니께네 뱀이가, 뱀이가 이래 나오더만은 그게 소나무 위에로 올라가더라 캅니더.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는 또 멧돼지가 내려 와가지고 멧돼지가 내리 와가지고, 그리 인자 이래 인자 그 나무 밑에 이래 누우가 있으니까는, 그래가 뱀이가 알로(아래로) 내려 오더라요. 그래 내리 오가지고, 그게 또 우짜노 카몬, 뱀이가 요래 누우(누워) 자는데 입을 마 챙챙 감더라 카네. 감아가 그래 그 뱀이가 인자 입을 챙챙 감으이케네, 멧돼지가 빨딱 일나더만 요게 꾀가 많아가지고 일나더만은, 마 소나무 고다가 마 입을 갖다가 마 감고 있는 데다가. 옛날에 할배들이 그리 쌌더라고.

그래 이리 삭삭 문대뿌이께네(문지르니까), 그게 마 동가리 동가리 나뿔(날) 거 아입니까? 나니께 그 멧돼지가 그 주우(주워서) 먹고 그래가 그게 약이더랍니다. 그기 끝이라.

[최봉연 구술] 본디 뱀이하고 상극입니더. 돼지가 아무리 뱀이 커도 돼지잩에는(돼지한테는) 져. 돼지 잩에는. 그런 따문에(때문에) 상극이라. 그런 따문에 돼지띠하고 배암띠하고는 갤혼도(결혼도) 몬 하는 기라. 절대 그거는 안 하는 기라. 그기 다 있어요.

[대저동 설화 23]

주인집 아이를 살린 개

이외조(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다 까묵었다. 그래 옛날에 저 저 뭣이고, 또 어느 집에 저 뭣이고 부잣집인데 살고 있는데, 인자 첩을 하나 얻어 씨아(세워) 놔 놓으이께네, 첩상이는 아들로 낳고 본처는 인자 딸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이래가 있는데. 그래가 안자 우째 하다가 보이께네 또 본처도 아로 하나

가짔어. 가짔는데 인자 가지고 놓을 달이 다 되어서러 인자, 신랑이 인자 과게로(과거를) 갔다 카네. 과게로 가가지고 과게 가가 메칠만에 오는데, 과게 보러 갔는데 참 아로 낳았다 카더라. 아로 낳는다고 나이 아들로 낳았어.

그 아를 누가 받았노 카몬, 그 인자 첩이 받았는 기라. 첩이 받았는데 그것도 심술이 나가지고 방금 나오는데 아로 갖다가 바늘로 가(가지고) 찔러뿠는 기라. 그 뭐 찔러가 하여튼 아가 죽어뿠어.

죽었는데 하인을 시키가지고 인자 저 산에 묻으러 갔는 기라. 묻으러 갔는데 개가 졸졸졸 따라 갔어 인자. 따라 가가 인자 가 왔는데, 그래가 삼 일인가 있으이께네, 참 신랑이 과게로 보고 왔는 기라. 그래 인자,

"아로 낳았다."

카이케네,

"누가 받았는고?"

묻더라 카네. 그래 인자,

"작은 어마이가 받았다."

카이께네, 그래가 아가 한 번에 나오자 딱 찔렀어. 그래 아로 직있다고 참 그거 했는데.

그래 오이께네 그 저 뭐이고 과게로 하고 오이께네, 그 인자 개가 자꾸 그 과게 보러 온 그 인자 주인을 보고 주우 가랭이로 바짓 가랭이로 자꾸 물고 댕그라지더라 카대. 그래서러 '이 개가 와 이라노?' 캄서러 자꾸 때리도 기(기어) 올라 붙고, 그래 자꾸 옷을 찐득찐득 잡아 땡글고 이래 싸서러 인자 따라 가보자 싶어서 따라 올라갔다 카네.

올라가이 산으로 올라가더라 카네. 올라갔는데 그 개가 인자 세상에는 아 죽었다고 묻었는데, 개가 그거를 히비(후벼서) 파가지고 히비 파가지고 개가 인자 아로 끄집어 내가 젖을 믹이가지고 개 젖을 믹이가 키았는 기라.

그래가 이 남자가 따라 가 보이께네, 아를 참 전신에 개 젖을 먹고 빨아 묵고 해놔놓으이 온 전신에 마 털이 묻고 이렇더래요. 그래가 그 아를 안고 왔어.

[청중: 사람하고 개하고 똑같다고 안 하나.] 그렇다 카대. 그래가 안고 내러 오가지고,

"참 니가 아로 죽었다 했나?"

그래 작은 어마이 그거는 인자 마 보내뿌리고, 그래가 그 아로 키아 가지고 다시, 그 개가 살맀는 기라. 그래 데꼬 와가 본처가 아로 믹이가, 젖을 믹이가 그리 키아가 그걸 했다 이카대. 그거는 인자, [청중: 개한테 무슨 그걸 해 줬지. 해 줬다 하는 그거도 있을 끼라.]

그래, 개가 참말로 그래 했어.

[대저동 설화 24]

고양이의 복수를 피하게 한 삽살개

이외조(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진주 사람이 저 그거 하러 간다고. 장 보러, 아 장 보러 간다고, 모숨기 한다고, 내일 모레겉이 모 심는다고 영감이 장 보러 갔는데, 그래가 인자 장 보러 갔는데, 그 인자 뭐 이래에 옛날에는 와 그거 뭐 안 하나. 그 뭣이라 카노? 그 저저 질가 앉아가지고 그 뭐 하는 거 안 있나?

[청중: 뭐 책력 본 거?] 책력 본 거 말고, 뭐 옛날에 그기 있었다. 그 뭐 하는데 디다 보고 그 쭉~ 있더라 카네. 서가 있으니께네,

"그래, 다른 사람은 보지 마고 저 아저씨로 봐 주라."

이러 카더란다. 그래 봐 주라 카이께네, [청중: 점 보는 거?] 음~ 몰라. [청중: 점 본다 카몬 된다.] 아~ 몰라. 그래가지고 봐 주라 이래 캐서러 봐 주이께네,

"그래, 당신 집에 아, 저 고양이가."

이 할배가 뭐로 했노 카몬, 옛날에 와 딱기칼(접이칼) 쪼맨핸 거 있었다 아이가, 그거 와 요런 거 차고 댕기는 거. 요래 열먼 딱 닫끼고 뭉치기 있었다 아이가? 고거 차고 인제 그 와 있는데, 할배가 인자 그 떤진다고 떤진 기 고양이 등에 꼽히뿠는 기라. 그래 꼽히가지고 그 고양이가 마 나가뿌고 안 들어오더라 카네 또. 안 들어 와가지고 그래서러 거 그거로 보이께네, 뭐로 본다꼬 그 사주도 아이고 그 뭐로 봤다 카네. 책력을 보고 있는데, 그래 저 다른 사람 다 놔 놓고 저 사람 봐 주라 이러 카더라네. 그래가 인자,

"당신이, 당신 집에 고양이를 믹있지요?"

이러 카더라 카네.

"그래, 믹있다."

카이께네,

"그래 그 고양이가 저 갈 때 당신이 뭐 칼로 꼽고 간 적이 없느냐고?"

카이,

"그래 내가 모르고 마 칼 그거로 어데 떤진다고 떤진 기가 그 꼽히 갔다."

하니,

"그 고양이가 삼 년을 지나고 나몬 올 긴데, 그래 집에 당신 집에 올 때가 됐는데, 그 잡살이, 잡살이개(삽살개) 한 바리하고, 개로 한 바리하고 우쨌기나 세 마리로."

인자 그거 했는 기라. 아, 그래가 인자 고 개로 잡살이로 한 바리 사오라 카더라네. 장 보러 갔는데,

"내가 낼 모레 장 보러 가는데 그거 사믄 안 되는 돼요."

카이께네,

"사 가소. 내 말 듣고로."

카더라 카네.

그래 그 잡살이 개로 한 바리 사 갔어. 그래 고거로 매가지고 놔 놓으몬 그 고양이가 삼 년 만에 둘아온다(돌아온다) 카더라네. 둘올 끼께네 마 앙물(앙갚음을) 하러 오는 기라. [청중: 고얭이 영물이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낀께네 잡살이로 매 놔 놓으몬 집에 또 개가 한 바리 있었는 기라. 고거 하고 인자. 그래 참 보이께네,

"당신이 메칠 있다가 딱 보몬 고양이가 눈에 불로 캐가 올 끼라."

이러 카더란다. 그래 참 문에 내다본께네 눈에 마 불로 시퍼런 캐고 왔더라 카네. 그래가지고 내다보고 있으니께네, 잡살이 그 개하고 마 고양이하고 싸움을 해가 난리더란다. 물어뜯고 싸우이께네, 그래가 마 저저 뭐꼬 고양이는 죽고 잡살이하고 개가 시(세) 마리가 물어 뜯으이께네 그기 죽을 빽기는(죽을 수밖에는). 그래가 마 그거 해뿠더라 카네.

[청중: 고양이가 그 남자 부랄을 물고 흔들더라 안 하나. 그래가지고 개들이 그랬다 안 하더나.] 몰라, 그래 그러카대. 아이고 무시라. 고양이 그 겁나더라. [청중: 고양이가 영물이라서 안 글나.] 고양이가 꼽고 삼 년 만에 둘왔더란다. 고양이 그기 앙물이라 안카나. 겁나더라. 그거.

[대저동 설화 25]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2)

최봉연(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뭐 저저 괴기는(고기는) 사줄라 카이 돈은 없고, 그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삶아가 주고, 그래 묵고 나이 그 할매가, 그래 그기 보가(보신이) 되는가 입맛도 돌아오고 얼굴도 좋아지고 이라이, 아들이 우째서 그렇노코 동네 사람들도 물어쌌고 해싸이께네, 그래 할매가 그라더라 카네. 시어마씨가,

"우리 메느리가 고기를 자주 사주가지고 묵고 나이께네 내가 이렇다."

고. 자기는 고긴 줄 알고 있는 기라. 그래 메느리는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몬 해 주고, 그 지렁이를 잡아가 고와 주고 나이 할머니가 그마이(그만큼) 몸에 보신이 되고 약이 되더라 이기라. 그런 이얘기 우리도 마 나 많은 사람들잩에(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지.

[대저동 설화 26]

자신의 피로 아버지를 살린 효자

최봉연(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이 사람이 무슨 짐승이기나, 이 사람 피로 이래 딱 죽을 머리에(죽기 직전에), 그 병이 따로 있다꼬. 피로 한 빨 딱 널쭈이께네 그 사람이 살아나더랍니다 그 아부지가. 그래 자기 손을 탁 비갖고(베어서) 피로 딱 빨아땡기 널짜(떨어뜨려) 주가지고 아부지가 살은 적이 있다고 이런 얘기로 우리가 들었지.

[대저동 설화 27]

개로 환생한 어머니(2)

최봉연(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사람이 죽어갖고, 딱 지가 죽어가 개로 태여난 기라. 개로 태이났는데, 그 개는 항상 집에서 집을 보지 놀러 한 번 못 댕깄는 기라. 그래논께 죽어 가가 한이 돼가지고, 그래 어데가 물으이께네 엄마가 죽어갖고 태이갖고(태어나서), 제일 처음 태이가(태어나) 개가 돼 갖고, 아무 데도 놀러 못 가고 만날 집에서 집만 봤는 기라.

이란께 한이 된다 카이께네, 그 개를 업고 태이났다 캐서, 개를 짊어지고 온데 효자 아들이 구갱을(구경을) 시키더랍니더. 그래 그거 전설이 인자 우리 얘기로 마이 들었지.

[대저동 설화 2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최봉연(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고래장은 또 왜 고래장을 시킸노 하몬, 옛날에는 칠십만 되몬 고려장을 시키더랍니다. 칠십 이상 더 살몬 안 된다꼬, 산에다가 구더기로 탁 파가지고 한 달 물(먹을) 꺼, 일 년 물 꺼 캐도 일 년 물 꺼 못 넣거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물 꺼를 딱 옇어 놓고 그 다 요래 봉을 해 가지고 할매를 그 여 놨는 기라. 여(넣어) 놓고 고 뜸물이 만날 나오다가 뜸물 안 나오몬 죽은 줄 알고 파가지고 초상을 치는 기라.

이라는데, 그래가 인자 저거 엄마 인자 딱 지고 와가지고 딱 묻어 놓고 인자 다 묵도록 해 놓고 지게를 고다 딱 놔 놓고 오이께네, 그 지 아들이 손지 아이가? 그 안에 드가 있는 사람 손지고, 저거 아들이,

"아부지, 와 지게 저거로 놔 주고 갑니꺼?"

이러 카거든. 그라이,

"인자 마 할매 여 더부다(데려다) 줬으니 내삐리지 뭐."

카이,

"그 지게 가(가져) 가입시더. 나도 아부지로 후제 고래장 할 때, 고 지게로 갖고 지고 와야 안 됩니꺼?"

이러 카이께네, 그래 전설에 '아~ 이기 이랄 게 아이다. 나도 져다 내삐릴(내버릴) 껜끼네(것이니) 절대 이럴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싶어서러 그 지게를 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고래장이 없어졌답니다.

[대저동 설화 29]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2)

최봉연(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이거는 인자 종, 종 달 때, 옛날에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종 달 때 인자 그거로, 그거로 인자 에밀레, 끝에 가서 에밀레종이라 카는 거는 저 경주에 있거던. 그래 에밀레종 맨들 때, 아무리 종을 맨들어가 뚜디려도 종이 소리가 안 좋고 그해서로 그래 인자 아 업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 종 그거로 가는데, 그래 에밀레 종 소리를 듣고 그러더란다.

"우리 아들 주고 바꾸까? 이 종을 바꾸까?"

이래 싸이께네, 그 들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이께네, '아, 이것 참 저 말하는 것도 아로여야만(넣어야만) 이 종이 잘 나올란 갑다.' 이리 돼가지고, 그 아로 사가지고 그다 옇었는데(넣었는데) 그 어마이는 모르는 기라 그래도.

그래가 그 아로 여가지고 종을 맨들어 노놔이께네 한이 돼가지고 끝에 가가지고는 '에밀레~ 에밀레~' 칸다. 어마이가 잘 몬 해가지고, 경솔시럽어가(경솔해서) 잘 몬 해가 거 들어갔다고.

그래가 그 원이 맺히가 안죽까지(지금까지) 저 경주 불국사 가몬 저 종을 우리가 보고 오거던. 오몬 그래 에밀레 캐. 그때 가서 우리가 들어도 '에밀레' 캐. 내가 생각하기로. 그 전설로 따라서 에밀래 칸답니더 그 종이. 그래 어마이가 인자 그 까불고 그라다가 그래 됐어. 그래 애미 때문에 죽었다고, '에밀레~ 에밀레~.'

[대저동 설화 30]

상객 가서 실수한 사돈

최봉연(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왜 그랬노 하믄, 상각(상객) 따라 가가 옛날에는 길이 멀어 하룻밤 자야 오거던. 자야 오이께네, 그날 잘 얻어 무웃제(먹었제), 그 화장실에 간다고 가이께네 음식이 또 있거던. 그 놈 또 무웄다. 마 설사삥이(설사병이) 나가지고 마 옷에다가 실수로 했는 기라.

해가지고 탁 벗어놓고 겉에 옷만 입고 있으이께네, 마 개가 그 놈을 쥐 뜯었는 기라. 그 씻고 입어야 되는데.

[청중: 옛날에는 개가 똥도 묵었다.] 옛날에는 개가 똥을 묵고 살았거덩. 막 개가 다 뜯어뿌고 난께네, 이거 막 아즉에(아침에), 저녁에 마 낼 아즉에 올라칸께 입을 옷도 옳게 없는 기라. 맨 주로(맨 몸으로) 올 판이라. 그래논께네 그 잩에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어, 이런데 와가지고 똥 누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는 갑다' 싶아,

"예이, 갯놈아."

이래 카이께네,

"갯놈아!"

사돈 되는 사람보고, 사돈이 안 그래 캐도 그 사람이,

"에이~ 갯놈아."

똥 누놨다고. 개짓 했다 이기라. 이래 칸께네,

"예이~ 더런 놈아. 똥 누는 놈이 개가 니 홀치 먹는 놈이 개지."

이러 카더란다. [청중: 웃음] 다부(도로) 애나 떨가뿌고 오더랍니다. 그러 카더랍니더. 똥 누는 놈이 개가, 모르고 똥 그기 모르고 된장인 줄 알고 찍어 묵었더란다. 그걸 참 모르고. 찍

어 묵고 나이께네,

"에잇, 개놈아. 니 똥 누 놘 거를 내 묵고 나이께네 똥이더라."

이러 카거든. 그래 카이꺼네,

"에잇, 갯놈아. 똥 누는 놈이 갯놈이가 묵는 놈이 갯놈이지."

카더란다. 그래 모르고 찍어 묵고, 찍어 묵고 그랬다 이러카대. [웃음] 내 그 이야기 듣고 우스와서 죽겠다.

[대저동 설화 31]

오누이와 달래강

최봉연(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누나하고 저거 동생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비가 마이 오니까 옷이 젖어가 옷을 못 입잖아. 그 옷을 인자 입고 있어도 여자들 와 옷이 젖어도 여가(가슴을 말함) 다 불거진다 아이가.

그래 그거로 보고 동생이 그래 저게 누나 보고 그래 그거로 인자 요구로 했는 기라. 그래 누나 그거는 동생이고 형제간이니까 안 된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안 줐다 아이가. 그래가 그 강 그기 달래강이 됐단다.

[대저동 설화 32]

일광산 스님과 월광산 스님 때문에 생긴 성씨

최봉연(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대저1동 신장로경로당]

내가 이얘기 하나 해주께. 다른 기 아이고. 하도 옛날에 어찌 성 안(安)가 가진 사람이 안가가 있고, 그 인자 그 뭐꼬, 성이 안씨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맹(明)가 가진 사람이 있었어. 성이 맹가하고 안씨하고 그 동네 살았는데, 만날 명가 가진 사람이 양반이고 안씨 가진 사람 상놈이라고.

"야, 이놈아, 저거 가 온나."

카몬,

“예.”

카고, 안씨가 맹가 가진 사람잩에 만날 절로 하고 그랬거던. 이래 했는데, 그래 하도 하다가 보골이 나서러, 저 절에 시님이 그 전에는 다 동냥을 하고 댕깄거든. 동냥을 해가지고 떡 그 집에 오니꺼네,

“그래, 스님 내가 동냥은 내가 줄 수가 있는데, 쌀로 마 한 되든 두 되든 줄 수 있는데, 내 안가 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가 성이 상놈이라고 만날 내가 동네서러 이라는데, 내가 어째야 이거로 민하겠습니꺼(면하겠습니까)?”

이래 카이께네, 그 절에 중이,

“민할 수가 있지.”

이러 카거든.

“어째서 민하겠습니꺼?”

이래 카이,

“암말도 하지 마고 그 맹가 성 가진 사람 요 놀러 오라.”

카는 기라. 놀러를 오라캐가 무조건 놀러 오라 카는 기라. 그래 가서 탁 오라 캐노이께네, 놀로 왔는 기라.

“그래, 명가 놈 있는강?”

카이께네,

“예.”

캄서, 아,

“안가 놈 있는가?”

카이니께,

“예.”

캄서러 인자 들어가이께네, 그래 그 인자 스님이 있으이,

“그래 어데 절에서 왔느냐?”

고 물으이께네, “월광사 절에서 왔다.”

카거든. 그래 인자 거서러

“스님이 여 왔었그든.” 그 안가 성 가진 사람이

“얘기라도 하나 하고 가이소.”

이러 카이꺼네,

“아, 내가 얘길 하나 하지.”

카거든.

“그래, 내 얘기로 단디 들어라.”

카는 기라. 그 사람 민해 줄라고. 안가 성 가진 사람 민해줄라고.

그래, 내가 저 월광산 절에 있는데, 옛날에 월광산 절에 올라가면 주막집이 하나 있고, 또

그 주막집을 지내갖고 월광산 절에도 가몬 고 집에서 하룻밤 자야 산에 올라가고, 일광산 절에 가자 캐도 요 가야 요 그기 있는 기라. 고 집에서 자야 가고 이러이께네. 고 혼차 사는 인자 술 장사 하는 사람이, 요 시님도 하룻밤 잤고, 요 시님도 하룻밤 잤으니 거서 아가 생깄는 기라. 그래가지고 아들로 낳았는 기라.

그래가 이 시님 성을 따를라 캐도 안 되고, 저 시님 성을 따를라 캐도 안 되고, 이래서러 그래 스님이 가만~ 생각헌께네, 그래 이 사람도 그랬고 저 사람도 그랬고, 그 여자가 맹랑한 사람이라. 월광산 절에 가는 중도 붙었고, 일광산 절에 가는 사람도 붙었고 이라이께, 날 일(日)자 달 월(月)자 보태믄 밝을 명(明)자가 되는 기라. 한문으로. 그라이께네 니는 마 명가로 해라.

그래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기라.

"니는 명가로 해라.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놈이 누구 하몬 아부지 둘 가진 사람이 상놈이거든."

이라이께네, 우리 이 명가 가진 사람은 지는 아부지가 둘이라. 그 일광산 가는 중놈도 붙었제 저거 어매가. 월광산 가는 중놈도 붙었제. 이러이께네 지가 나가지고(태어나서) 밝을 명(明)자 명가백에 못 되는 기라. 성을 태아주기로, 양쪽에 얻어야만 성이 나오는 기라. 그래 지는 명가가 됐고, 안가가 그 질로 시작어 서러 양반이 돼뿠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절에 시님이 그러캄서로,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놈이 밝을 명자다. 성 더럽운 거 가지 있는 사램이 밝을 명자다. 아바이가 둘이니까."

이러 카고 스님이 올라갔다. 올라가고 그 질로 시작어서는 생진에(생전에) 안가 이놈 소릴 안하더란다. 지가 상놈이 돼 놓으이. 마 그때부터 인자,

"예-."

카고, 안씨라 카더란다. 그때부텅. 그래갖고 그 사람 그거로 면했다고, 그 절에 많이 공양을 하더랍니더. 그래 그랬다 안 카나. 그래 밝을 맹자가 제일 상놈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예, 맹가가 제일 상놈이래요.

[대저동 설화 33]

고려장 하는 방식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칠십 고래장이 뭐고 카몬, 인자 할배로 인자 덕고(데리고) 지게에 짊어지고 고래장

해놔 놓는갑대. 그해놔 놓으몬 만날 아부지가 죽었나 우째 됐나 싶어 가보몬은 꾸중물이 나온다 카네. 뜸물이, 뜸물이 찔찔 나오몬 그래 인자 또 가보몬 일년 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년까지 살고. 오래 사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마, 물 안 나오몬 마 죽어뿐다 카네. 옛날에는 고래장을 그래 해뿠다 카네.

지금은 무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예.

[대저동 설화 34]

금도끼 은도끼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어떤 나무꾼이 몬 살아가 이래 떡 있는데,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로 하다가 도끼가 마 연못에 빠짓뿠거든. 빠지 뿌가 지는 도끼도 몬 사이(못 사니), 나쁜 아주 쇠도 나쁜 도끼 아이가 그래. 그래 지가 앉아 울고 있으이, 나무도 몬 하고 옛날에는 나무 몬해 가몬 큰일 아이가. 지금 공무원 한 가지거든. 그래가 울고 앉아 있으이께네, 참 어떤 선녀겠지. 그 도끼 그 두 개로 들고 떡 왔더란다. 두 개로 떡 가와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금도끼를 주더란다.

"이기 금도끼, 이기 니껏가?"

이칸께네, 도끼를 내가 껀지가 할배가 허연 할배가,

"금도끼, 그 내꺼 아입니다."

마음이 착해놔놓으이, 몬 살아도 마음이 착하이,

"금도끼는 내꺼 아닙니다."

이러 카이, 그래 인자 고다음에 은도끼를 떡 내 주이께네,

"이기 내 낍니더."

그래가 착하게 되가 금도끼도 하고 착한 아들이 됐다 카대. 예, 그 연못에 금도끼 은도끼 거 그런 얘기다.

[대저동 설화 35]

흰 닭의 피로 도깨비를 떼어낸 사람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토깨비하고 친했는데, 그래가 억수로 친해가 돈을 마이 주는데, 이 도깨비로 몬 띠겠는 기라. 사이를 몬 띠가(못 떼어서) 그랬는데. 그래가 그, 도깨비 니는, 친구가 된께, 술로 도깨비가 술로 참 좋아한다 카네.

"니는 뭐로 하몬, 니는 제일 겁나노?"

카이,

"백달(백닭, 즉 흰 닭) 피가 제일 겁난다."

카더래. 그래 앗따 알았다 싶어서러, 그래가 이 사람이 백달로 피로 마마 온 전신에 뿌리 놔놓으이 마, 마 그 사람이 마 뚝 떨어지더라 카대.

[대저동 설화 36]

도깨비가 준 돈으로 땅을 산 할아버지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할배가 술이 취해가, 도깨비랑 억수로 친했는 기라. 친해노이 도깨비가 땅을 사줬는 기라. 도깨비 돈 주는 걸 땅을 사야 돼. 땅을 사가 딱 놔나놓고 있으이까, 그 이튿날 되몬 막 집에 다가, 도깨비하고 가 있으몬 고기도 달아놔놓고 막 그래.

한 날 저녁에는, 도깨비가 마 땅 띠(떼어) 간다고요 온 여러 뭇놈이, 고을이 떠들썩하게,

"으이쌰, 으이쌰."

카모, 지 땅 돈 준 거 띠간다고,

"여이쌰, 여이쌰."

캐샀더란다. 그래가 그래샀더만 아이구 저놈의 땅 오늘 다 띠간다. 마 소리는 억수로 마 여러 뭇놈이 마 소리가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이 수건포(삶) 한 발쭉도(한 발자국도) 몬 띠 갔단다. 도깨비 소리는 그래 많이 나도. 그렇더라요.

[대저동 설화 37]

봉사와 벙어리 부부의 대화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아, 할매가 인자 불난 데 인자 갔거든. 가가지고 그래 보고 오이, 그래 할매가 보고,
"어데 불 났더노?"
칸끼네, 처음에는 인자 여서 불이, 다리를 떡 만치끼네,
"아, 그래."
그래 낸중에는 어데 또 불났더, 제일 중요한,
"어데 났더노?"
카이께네, 영감 꼬치를 떡 만지이,
"아, 복판 지둥만 남았구나."
그래 칸다 카더라.

[대저동 설화 38]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3)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메느리가(며느리가) 인자 시오마이 마 싫어한다꼬, 싫어한다고 메느리로 만날 인자 지렁이를 메느리가 시오마이로 줬는 기라. 보약이라고 시오마이를 줬다 카더라. 그래 주나놓으이께네, 할매가 그래 지렁이 안 묵고 껀지가지고 돗자리 밑에다가 딱 옇어놔가(넣어두고) 있었다 카대. 있으니까 그래가 인자 낸직에(나중에) 저거 딸이 왔다 카든가 와가,
"야야, 여 너거 올키가 만날 날로 이 무라고 주는데 내가 안 묵고 여놨다."
카이, 그래 낸죽에(나중에) 보이 지렁이더란다. 보약 지렁이라. 그래 그거 묵고 할매가 더 좋아지고 그래 몸이 건강해지더라 카대.

[대저동 설화 39]

나무꾼과 선녀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나무꾼이 몬사는(못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 인자 한 문 선녀가 내려와가, 그래

자기하고 아, 선녀가 그 나무꾼하고 살았는 기라. 마 아주 몬사는 나무꾼하고 살았는데, 아로 서이만 나아가지고, 그 선녀 말로 안 들어야 될 낀데, 둘이만 놓고 선녀 말로, 마 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뿌고 놔놓인께네, 마 둘이로 안고 가뿠어.

서이 되몬 못 안고 선녀가 몬 갔을 낀데. 그래가 이 나무꾼은 선녀를 올리 뿌리고, 아 둘이 덕고 올라가뿠는 기라. 서이만 놓고 하지 말라 캤는데. [조사자: 그래 뒤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고예?] 어 다른, 그래 뭐 뭐 그 사람은 선녀 올라가 아 둘이 덕고 올라가뿌고, 서이가 됐으면 몬 올라갔을 낀데, 지캉 평상을 살 낀데.

[대저동 설화 40]

자기 새끼 귀여워하는 것을 아는 호랑이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옛날에 아가씨들이, 아가씨가 산에 나물 캐러 아홉이나 갔거든. 밀양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홉이 갔는데, 산에 가이 강아지가 예쁜 기 졸 나와가 꼬랑대로 흔들고 오더랍니다. 그래 와서로, 이 참 옛날 얘기다.

그래 와가지고 와서로 그 강아지를 마 칼로 쑤시뿌시. [말을 바꾸어], 나물 캐러 갔거든. 마을에 아가씨들. 칼로 쑤시뿠으몬, 그날 그 처녀들이 아홉이나 열이나 간 기 절단 났을 낀데, 그래가 마 강아지로 안거(안아서) 바구미에 나물 바구미에 담았는데, 담아 놓으이 산이 어흥~ 카고 산이 깡 울리는 기라. 호랑이가 좋다고, 지 새끼 해준다고 좋다꼬 웃는 기 어흥~, 아이고 그래 핸 기 온 산이 깡 울리가 바구미를 전부 던지 내삐리삐고 와뿠는 기라.

처녀 아홉이가 구부리지 오고 넘어지고 오고 왔는데, 이 재미난 얘기요. 그래 왔는데 집에 떡 와가 인자 떡 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인자 그날, 그날 일은 그래 됐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되이께네, 집집마다 지줌 바구미를(자기 바구니를) 정치(정확하게) 다 갖다 놨다. 호랑이가 다 갖다 놨더랍니다.

그래가 그 처녀들이 그래 살아나고, 그래 그래 참 마을에 그래 좋더랍니더. 만약에 처이 하나가 해코지 했으몬 그날 처이가 다 죽는데, 지 새끼 좋다 칸다꼬 안아주이께네, 호랑이 지도 좋다꼬 어흥 캔 기 온 산이 쫙 울맀는 기라. 그래 울리가지고, 그래가지고 마 마 바구미 내삐리고 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나이, 정치 집집마다 다 갖다 놨더랍니다. 하나도 바구미도 안 틀리고 칼도 안 틀리더랍니다.

[대저동 설화 41]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2)

문필순(여, 1938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대저1동 신촌할머니경로당]

알라로 엎고 있으이, 알라가 어찌 울어사서. 그래가 저그 엄마가, 호랑이가 아가 자꾸 울어 산께네 거 딱 지키고 앉아 있으이, 아가 아무리 뭐로 주도 안 달개지거든(안 달래지거든) .

그래 꽂감을 주도, 그 좋아하는 꽂감을(곶감을) 주도. 그래 호랑이라 칸다 카더나? 아 꽂감! 아 꽂감을 주꾸마 이러 카이께네, 그래 아가 마 떨걱 울다가 그래 울다가 아가 떨(떡) 그 친게네, 호랑이가 마 거 아 자아(잡아) 물라고 왔는데, 아 자아 물라고 왔는 기라.

왔는데 그래 그러면 호랑이 온다 캐도 그양 울고, 꽂감이라 캤제? 꽂감 카이께네, 그래 마 아가 떨걱 그치뿌거든. 와이고 호랭이가 놀래가 자빠지가, 마 '내카마 더 무섭운 짐승이 있구나' 싶어가 달라빼뿠더란다(달아나 버리더란다).

[대저동 설화 42]

나물들의 재미있는 대화

김봉자(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씬내이가(씀바귀가) 인자 그러카이께네, 돈내이가(돈나물이) 돌아가면서로 하자, 하러 가자 카이께네, 미나리가 미쳤나, 아 나시(냉이)가 나도 이러 카이께네, 미나리가 미쳤다 카더란다.

[대저동 설화 43]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3)

김외선(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이거 와 저 따딤이 하면, 맹지(명지) 따딤이를 하모, 홍두깨에다가 이리 감아가지고 명지 다딤이를 하몬 그기 좋거든. 그래 놔놓으이께네, 어디 시험 치러 가이께네, 그래가지고 홍두깨로 갖다가,

"그래 우째가지고 시험이 걸맀노?"

카이께네, 그래 우리 할아버지로 갖다가 고래장을 할라꼬 핸 기가 너무 억울해서러 뒤에다가 굴로 파고 것따다가(거기에다가) 인자 모시놨는 기라.

그래 인자 시험 때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젙에 가서러 인자,

"이거 우짜몬 할아버지, 이거 홍두깨가 대가리 꽁지가 모른다 아이가. 반듯하게 따듬어 놔놓으이께네."

"그래 놔노몬(놓아 두면) 물에다 담가봐라. 물에다 담구몬 웃 대가리는 우에로 뜨고, 밑뿌리는 까라앉는다."

인자 까라앉는 쪽이 밑뿌리고, 우에 뜨는 거는 그기고 그렇다꼬 인자. 그래 놔놓으이께네 고래장을 없애더란다.

[대저동 설화 44]

팥죽으로 지킴이를 모시기

김외선(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집안이 안 될라 카몬, 이기 집안 찌끄미가 나온다 카대 이래. 나와가지고 담을 타고 온데로 두르고 댕기는데, 그래가지고 집안이 그 구렁이를 나오몬 마 집안이 안 되는 기라. 망하는 기라. [조사자: 그라몬 어짭니꺼?] 그러이께네 그 하는 사람은, 잘 모시는 사람은 죽을 낋이가지고 그 업이라고, 집안 업이라고 인자, 그 업장군이라고 인자 이래 모시드릴라 카몬, 팥죽을 낋이가지고 그래 도장에다가 갖다 놔놓고 그거로 모시드리면, 그 구렁이가 걸로(그기로) 들어와가지고 없어진다 카대. 눈에 안보인다 하대. [조사자: 그 팥죽을 다 묵는다데예? 다 먹었는지 하나도 없다 그러던데.] 그 묵지도 안하고, 그래도 팥죽을 낋이몬 거기가 거 하는 모냉이지(모양이지).

[대저동 설화 45]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4)

임경출(여, 1935년생), 최필선(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노인정]

[임경출] 고래장을 해가지고 뭐에 묻어 놔놓으이께네, 묻어놓고 인자 오는데, 막- 음식캉 다 갖다 놓고, 기한이 되몬 인자 그기 인자 죽는 기라. 그래 다 묵고 나몬 죽는데, 인자 아들이 인자 지게 그거로 지고 가가지고 묻어놨는데, 인자 집에 인자 돌아오는데,

"말라 그거 지고 가노?"

카이, 지도 인자 저거 아부지 죽으몬 고래장 한다꼬 그 지게를 지고 간다 카대. 그런 것도 있다.

[최필선] 나(나이) 칠십에 고려장을 했는데, 했는데 [임경출] 옛날에 육십이지. [최필선] 칠십에 고래장 아이가. 칠십에 고래장을 했는데, 그 할배로 짊어지고 가가지고 인자, 그 묻어놔 놓고, 고 지게로 내삐리뿌고 올 낀데, 다부(도로) 짊어지고 오이께네, 저거 아부지가,

"니 와 지게 가 가노?"

이러 카이,

"아부지도 칠십되몬 해야지요."

카이께네, 그 질로 고려장이 없어지뿠단다.)

[대저동 설화 46]

호랑이를 피한 아이들[해와 달이 된 오누이]

지성분(여, 1944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금호경로당]

옛날에 딸네집에, 옛날에 삼베 했잖아. 인자 비몬(삼베를 베면) 비 메주러 갔는갑대. 삼베 있잖아, 삼베 비가 이 이래 마당에 늘어놓고 매잖아. 풀 발라가모(풀을 발라가며) 풀 발라가 인자 그래가지고 다 매주고, 인자 어느 등너메에 넘어 오다보이께네, 뭐 뭐 인자 뭐 딸네집에서 뭐 해잤든지(해줬던지) 이고 오다보이까네, 그래 그,

"할매, 할매 그 인 기(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뭐고?"

하이께네,

"뭐고?"

이러이께네, 인자 이 자식을 믹이야 될 거 아이가. 인자 집이 쪼그만한 있시이까네. 그래 그러이까네 그래 뭐,

"니 팔이 하나 주몬 내 그 떡 안 잡아 묵고, 니 팔이 하나 도가."

이라이까네, 그 팔이 끊어졌는갑대. [청중: 주다주다 없어가지고.] 아 떡을 다 주고 그랬다 하더나 뭐? 그래 뭐, 또 그래 참말로 뭐, 다 줬는 기라.

저 한통 주고, 또 여 한 자 주고, 다 주고 그 다 잡아묵고, 인자 자식집에 가가지고 [청중: 다 자아(잡아) 무뿌고(먹어버리고).] 응. 인제 나도 모른다. 다 잊아뿠다. 옛날에 다 알았는데. 그래가 자석집에 가가지고 인제,

"아무것아 문 열어 도가(열어 달라)?"

이러이께네,

"울 엄마 목소리 아일세."

이러이까네, 그래 [청중: 손을 여봐라 캐서 손을 쑥~ 옇어이께네, 털이 숭숭 나가지고.] 그래

"엄마 손이 아닐쎄"

"야야, 내가 저 비 메니라고 풀이 묻어 그렇다. 풀이가 묻어 그러이께네, 그 문 열어 돌라."

꼬, 뭐 그래가지고 열어줬는가 그 또 모르겠다.

그래가 또 아들을 다 자아(잡아) 묵고 남매가 있었던동, 그 하나는 그래가이고 뭐 뭐 [청중: 하나가 뭐 낭게 올라가고.] 낭게 올라가, [생각이 난 듯이] 어, 그래 우물이, 옛날에는 뜨레박질 해가지고, 인제 그 물 먹었잖아 옛날에는. 그래가 인제 우물가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 달이 환하이께네, 그 우물에 그늘이 비쳐가지고, 그런께네 그 아가 우물에 있는 줄 알고, 이 호랑이가 물에 껀지 무러 들어가가 죽고, 아는 살았다 이라대. 그늘이, 그림자가 인자 있으이꺼네.

[대저동 설화 47]

심봉사와 하직하는 효녀 심청이

이채련(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심청이 저거 아버지하고 할 적에, 상당에 목욕하고 중탕에 손발 씻고 그래 인자, 그 제사 지내는 데가 다 있는 갑더만은. 그 제사 지내는데 거 가서러 하적하고, 그래 저거 아부지한테 와서 하적할 때, 하도 코를 골리 싼게,

"아가, 감기가 들었나?"

"아부지, 감기 안 들었소."

"그래 왜 니가 코를 훌쩍훌쩍 해 쌌노?"

카이, [말을 바꾸어] 이기 우리 엄마가 이바구 책을 이르는데 쪼깬(조금) 들어서 그래 압니더. 그래,

"아부지 봉사 딸이라고 어떤 놈이 뭐라 카더나?"

"아버지, 그것도 아이요."

그래 심청이가 저거 아배를 볼라 카이 기가 차서, 저거 아배로 보고 그래 인자 하직을 함서, 그래 움서 그래 아버지 칸다 안 캅디꺼.

"내가 어디에서 있어서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겠소."

봉은사 화주 시님이 그래 절로 지을라꼬 나왔다가,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그거 하이께네 공양미 삼백 석에 지가 그래 몸을 팔고, 그래 저거 아배 보고 절하고, 그래 심 봉사 죽는다고 굿을 빼고(굿을 하듯 난리를 부리고), 심청이 바리 모시가지고, 그래 남경 장사가 모시가고 영감이 죽는다고 굿을 빼고 안 캅니꺼?

[대저동 설화 48]

왜장을 죽인 평양 기생

이채련(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이바구를, 일본 조섭이를 패양(평양) 영광전에 가서 잡았어. 일본 조섭이로. 옛날에 하우라 카는 기상이(기생이) 저 패양에 있었어. 이 한국 사람하고 했는데, 우리 조선이 난이 나서 사람이 딱 전멸되겠더란다. 딱 전멸되겠서러. 저녁을 먹고 자 아무래도 인구는 다 죽겠고, 우리 나라 장수가 둘이 밤에 지하 밤쯤에 나오이까, 천지가 아무것도 안 비이고 몸띠(몸둥이) 돈 천 냥만 딱 가지고 나왔어.

나오이까네, 어느 산을 함번 쳐다보이, 저 산꼭대기서러 불이 빤이 있더란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갔더란다. 우리나라 장수가 올라가이, 그래 가서 주인을 찾으이 할매가 하나 나오는데,

"할매는 여 이 산 중에서 뭘 합니꺼?"

이러 카이,

"나는 청조산 마고할마인데, 이 산중에서 딸로 하나 잃어뿌고, 요서 혼차(혼자) 있는데, 서방님 너거는 어데 가는 사람고?"

이러 카더래,

"우리는 조선이 난이 나서 인구가 말캉(전부) 멸종될 상 싶어서 우리나라로 구핼라고, 외국에 장수를 구해러 나갑니다."

이래 카이, 그래 카이께네,

"우신에(우선) 배가 고프이, 밥이나 오로좀 시키주라."

하니 밥을 오로좀 시키 주더란다. 오로록 시키 줘서 오로록 먹고, 그것도 또, 한 여남은 살 무읐어. 우리 어머니 이바구 책을 읽으이까네 듣고 했다. 그래 점심을, 밥을 오로록 시키주먼서러 농문을 실부시 잔더마는(살짝 열더니만) 이런 화상을 내 놓더란다.

"이와 같은 화상을 가져 가서 외국 가서 외국 장수로 구해 가야만이 조선을 구하지, 그렇지 않으몬 못 구한다."

하니,

"할매, 그 화상 값이 얼매냐고?"

하니,

"돈이 돈 천 냥이다."

카더란다. 그래 천 냥을 내 주고, 둘이서러 인자는 뭐 돈도 한 닢도 없고 죽을 판이라서, 밥은 요구는(요기는) 했는데, 한 심(한 숨) 자고 보이꺼네, 칩아서(추워서) 함 보이꺼네, 아무것도 없고 큰 반석 우에 둘이 눕어가 있더란다.

그래서러 일나 보이꺼네, 돈도 함 보이 행자 들어가 있고, 사진도 그 외국 장수 구해라 카는 사진도 그 다 들어가 있더란다. 그래 우리가 정신이 생각하이 '외국에 가서 이런 장수로 구해 오라 카는 갑다' 싶어서러 그 질로 나왔더란다. 그 질로 나와서 외국을 갔더란다. 가서 그 장수를, 외국 장수를 구해가 오이, 우리 한국 장수가 어떻게 못났던지 외국 장수 구해고 오이꺼네, 외국 장수가 지는 지국으로 반송할라 카더단다. 할라 카이까네, 저 한국 장수가 하는 말이 뭐라 카냐면은,

"미국에 반승했으면 반승했지, 전실로 생긴 얼굴 지금이야 고칠 것가."

카더란다. 그기 딱 펴양 영광전이 있으몬, 그 저 뭣이고, 고 장수가 칼가 때린 칼금이 있단다. 우리 엄마가 칼금이 있다 하더라. 그 인자 만약을 해서 그 절이 없어졌으몬 몰라도 있단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런가 하면은 진주, 갱주(경주) 가이꺼네,

"저 천장 우에 가거들랑 예사로 보지 말고 그 하늘 함 쳐다보라."

캐서 보이, 아가 하나 났는데 거다 큰 이런 학이 와서 애로 구해 돌라고, 그 학이 아로 구했다 카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니 조국을 반승했으면 반승했지, 지금은 생긴 거 곤치도 못한다."

그러 카더란다 우리 장수가. 그래가지고 그라이 이 장수가, 장수들이 독 안에 들어가 좀 울어라 카더란다. 독 안에 들어서 우이까,

"이 무슨 소리고?"

카더래. 그래가 우리 장수가,

"당신 국을 반송을 할라 카이, 우리 한국을, 백성을 생각해서 우는갑다."

이러 카이, 보이 장수가 울음이 아무 데 아무 강에 청룡이 우는 소리 장수하고도 남겠다 카더란다.

그래가지고 그래 인자 저저 펴양을 갔더란다. 펴양을 우리 장수들 하고. 조섭이 잡으로 가니까 이 한국에 하울이라는 기생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을 거카다가(그렇게 하다가) 한국 사램이 찾고. 옛날 기생들은 수청하는 기생이라, 아무나 몸띠 안 주거든. 가이(가니) 그래 그 하울이보고 그러 카이 카더란다.

"니는 여자되기 참 아깝고, 우린 남자되니까 니 보기가 미안하다."

그러카이, 그래가,

"마러(뭣 하러) 왔노?"

이래 카이까네,

"니가 보고 짚어 왔다."

카이 그러더란다.

"너거 여기 조섭이 잡으러 와놓고 뭐 그리 잔소리 하노?"

카더란다. 그래,

"조섭이를 너거 잡을라 카몬 너거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몬 너거 조섭이 몬 잡는다."

"우찌하꼬?"

카이,

"암말도 하지 말고 탁 다 들앉아 있고 내 시키는 대로 하라."

카더란다. 그래 하라 캐서 그래 참 시키는 대로 하이, 일본놈 그 얼마나 마이(많이) 바글바글 마이 끓었더란다. 옛날에는 마이 끓어놔노이. 일본놈을 저거 아배 지사라고 거짓말로 하고 술로 몇 단지를 했는데 마 독주로 마 했더란다. 해가지고 마 오늘 밤에 마 갖다가 막 퍼믹있어. 퍼 믹이노이 다 눕어 자는 기라. 다 눕어 자이, 조섭이라 카는 장수는 눈이 중발띠만하고 온 몸띠에(몸뚱이에) 비늘이 달리서러 막 붙었더란다.

그래서 함 들어가 보이, 잠이 오직이 딱 들몬 눈이 반이나 뜨고, 인자 반잠이 들몬 눈이 반히 뜨고 그렇더란다. 인자,

"목을 눌리몬 그래 목 비늘이 썩어삔다고 그 새로(사이로) 칼로 옇어서 목을 치라."

하더란다.

그래 쳐서, 우리 한국 장수가 드가 쳤어. 쳐가지고 그래 인자 목 없는 장수가 일나서러, 지배 맡에 든 칼로 들어서 펴양 영광전을 때리서 안주꺼정 칼금이 있을 끼다, 우리 엄마가 죽금이(주름이, 즉 칼금이) 있다 카더라. 있으니꺼네 펴양을 가거들랑 그 영광전에 한 번 들어가 보라 카더라이까.

그래가지고 그래 인자 딱 그 장수를 잡아가 베 놓고 나이, 그 저 하울이가 하는 말이,

"나를 목을 비다 우리 엄마를 주라 가다가."

"니를 어째 목을 베노?"

"내 지금 쪼금 있으몬 일본놈들 다 일나몬 뜯기 죽는다."

그래 그 목을 비가 명주수건에다 싸고 와가지고, 그래 인자 저거 어매로 십 리 밖에서로 하울이가 죽어서러 목 비가 온다고 바깥에 나왔더란다. 그래 우리 이, 옛날 이바구라도 이거는 고담이라도 이거 여사로 들으몬 안 돼.

[대저동 설화 49]

일본을 제압한 사명대사

이채련(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4일 채록
[대저2동 맥도할머니경로당]

지금 사명대사를 일본에서 멫 번 불렀다 안 카나. 멫 번 불렀다 그거는. 어떤 거는 고담책에 다 나올 끼다. 멫 번 불러가지고, 그래 뭐 막 쐬(쇠) 그걸로 해놔 놓고 쐬말로 태아가, 뭐 그게 해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이꺼네, 그래 어디 대판(오오사카)인가 어데 저서러(그곳에서) 그랬다 안 카더나? 쇠말로 태어가지고 얼마나 그거로 했던지, 하늘로 쳐다보고 멫 번 안 하이꺼네, 고마 하늘이 그기 뭐꼬, 폭우가 쏟아져서 그 사명대사, 그 일본이 떠내려가고 그래 손 들었단다. 손을 들고.

[대저동 설화 5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5)

이순이(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옛날에 그래 아들이, 손자가 할배를 지고 갔다 캤나? 아들이 할배를 지고 갔는데, 산에 지고 갔는데, 인자 아바시 내비리뿌고(내버리고), 지게는 내비리뿌고, 마 아바시 마 산에다가 내삐리뿌고 지게를 내삐리고 오거던. 머시매가 따라오매 가만 보이께네 지도 내년에 지고 가야 되는데 지게를 안 가지고 가는 기라. 저거 아부지가.

"그래, 아부지 지게는 와 안 가가는교? 나도 아부지 뭐로가 지고 가꼬(갈까요)?"

쿠대.

"예이 이놈의 자석, 그라먼 안 된다."

쿠이,

"그럼 아부지는 와 할배 지고 오는교?"

그래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 지게로 내삐리고 오이까네, 아들이, 머시마 따라 갔다 오면서, 지고 가자고 집에 가 가자 안 캤나 지게로. 그래,

"이놈의 자석, 말라고 그거 안 가도(가져 가도) 된다."

칸께네,

"나는 아부지 뭐로 가 지고 가는교?"

그런게 할 말이 없더라요. 옛날에. 아한테 어른이 못 된 짓을 한다. 못 이기지 그쟈?

[대저동 설화 51]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3)

이순이(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옛날에 그래 범이 인자, 그 집에 아 하나 잡아 묵을라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집에 갔어. 그 집에 가가 문 악에(앞에) 가만히 있으이까네, 아가 다 울어쌌거던. 일마가(이 아이가) 울어가,

"범 온다. 범 온다."

캐도 자꾸 우는 기라. 범 온다 캐도 아가 모르게 자꾸 울어. 그래,

"울지 마, 울지 마, 꽂감(곶감) 주꾸마."

카이, 떨컥 그치거던. '하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무숩는데(무서운데), 내카마 무섭운 사람이 또 있구나. 곶감이가 무섭구나. 아가 근치는(그치는) 거 보이.' 그래 범이 꽂감한테 못 이기더란다. 못 이깄단다. 꽂감 주이까 아 꽂감 이기 묵는 기 아가(아기가) 근치지지, 범이라 카몬 아 안 근치지는 기라. 그래 그런 말도 있더라 이야기가.

[대저동 설화 52]

호랑이 처녀와 결혼한 사람

이순이(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그래 옛날에 중이, 옛날 스님 중이 인자 어데라꼬 인자 간다고 간다. 이래 가이까네 산이, 산이 가리가 마, 산이 있고 마 그래 산중으로 산중으로 드가이꺼네, 참 어데 드간다고 밤이, 밤이 야심했는데, 불이 쪼매 있더란다.

참 그래서 인자 주인 찾아 드가이께네 참 예쁜 아가씨가 있더란다. 그래가 인자 반갑게 해가 저녁을 해가 주는데 묵고 앉자 있시라고 있시몬, 쪼매 있시몬 영감재이 하나 오거던. 영감재이가 하나 쿵쿵 하고 오더만은, 넘의 아가씨 있는 방에 웬 남자가 왔다고 감을(고함) 호령을 백낙같이(벼락같이) 지르거든. 그럼 아가씨가 퍼뜩 하는 말이,

"꿇어앉아 빌어라."

카거던. 그래 인자,

"하~ 내가 참 오다가다 갈 데 올 데가 없어가지고 왔다."

고. 그래 반성해가 비이까네,

"그래, 그놈 씰만 하구나. 그럼 우리 딸하고 결혼해라."

이라거던. 이 사람 처자도 총각도 아인데, 다 부인이 있고 하는데 가다가 그래 됐는데, 그 어쩔 수가 있나 인자. 마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럼 하지요."

그래 참 쟁반에 물로 떠 놓고 언자 밤에 인자 그 처자하고 절로 하고 인자 거 자고. 그래 인자 자고나이 만날 천날 돈 벌러 오라 카는 기라. 묵고 살아야 되는데, 저거는 안 무도(먹어도) 되는데, 범인데, 범이고 일는데, 지는 무야(먹어야) 된단 말이다.

그래 만날 나무를 한 줌 해가지고 저 장에 가 팔아 와가지고 쌀로 한 덩어리 팔아 와가이고 밥을 해가 묵으만, 그래 영감재이 이거는 밥도 안 묵고 뭐로 어디를 댕기는지, 범이라 범이, 범이라. 만날 뭐 토까이같은(토끼같은) 그런 거나 먹고 두어 마리 차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처자는 마치 집에 장(내내) 있어.

그래 이 사람도 처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래 하리는 회심이(의심이) 드는 기라. '하~ 내가 산골짝에 여(여기) 앉아가지고, 여 아무것도 아인데 여기 있어가지고 인생이 우예 되겠노.' 그래 영감재이는 어데 가뿌 없고, 그래 그 각시잔테,

"부인, 나는 인자 집으로, 고향으로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 카이까네,

"그래 가라."

카거던. 그래 인자 온다. 어디라꼬 온다. 오다 돌아보몬 집이고 뭐이고 간 곶이(곳이) 없는 기라 마. 질은 또카이 질인데. 앞은 질인데 뒤로 보니 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 인자 타박 가다가 이래 인자 한 번 보이 각시 처자 그거 있던 저 산에 어데 있더란다. '하, 저게 내가 보던 각신데,' 싶어 보이까네, 그래 인자 질로 어디로 가라고 거서 처자 그기 연질로 해 줘.

그래 이리 나오니까네 참 어데 좋은 기티이, 그기 잊어뿌고 모르겠네. 좋은 인자 그기 가가지고 처자도 만나고 결혼했는 저거 집도 찾아오고, 짧게 할라니까 다 잊어뿌고 모르겠다.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

[조사자: 그래가 어찌 됐는데요?] 그래 살았단다. 와가 살았는데, 그래 사램이 이 사는 기 구신도 아이고 사람도 아이고 그래 됐다는 기 있어. 그래 남자 그기 그래 가가 잘 살았, 나와 가지고 우째 됐더라 내가 참 다 봤는데, 모르겠네. 책에 다 있다.

[대저동 설화 53]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4)

이순이(여, 1931년생), 장유선(여, 1933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이순이] 아들이 그전에 어디 갔다 카더노? 아들이 어데 갔부고, 군대 갔부고 없고. 그래 마 할매가 눈이 어둡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다. 눈이 어둡었는가, 어찌 잘해주는지 살이 쪄 가지고 아들이 오이 그래 이리 마 아들 오몬 인자 구경이 하나썩 하나썩 자리 밑에 옇어 놨어.

[장유선] 그래 메느리는 효자가 되나노이, 고기는 살 행핀이(형편이) 못 되고 그래, 뛰지가(뒤져) 전신에 뛰지가 지렁이 그놈을 잡아다가 자꾸 고와 믹있는 기라. 그 고와 믹이 놓으이 살이 쪄가 늙은이가 보하이 해가지고 요래가 있는데, 하도 맛있고 만일 그걸로 주싸서러 이 자리 밑에다가 옇어 놨어 지렁이로. 아들 오몬 준다꼬. 그래 그래구로 하다가 아들이 왔던 모냥이지. 와가지고 인자 아들을 아들이 보이 어마이가 보야이 해가 너무 좋거던. 그래,

"엄마 얼굴이 참 좋다."

카이, 그래 인자,

"저 메느리가 만질 맛있는 거로 해 와가지고 날로 믹이서 내가 이리 살이 쪘다."

캄서로,

"그래 여 있다."

캄서로 디비가지고(뒤져가지고) 인자 그놈을 비인(보인) 기라. 비인까네 그 보이 인자 거시기, 지렁이 아이가. 그래 아들이 마 끔쩍 놀래는 기라,

"하이고, 엄마 그거 이거 지렁이요."

카이까네 마 눈을 퍼뜩 떠뿌더라요. 그래가 눈을 떠가지고 잘 사더라요.

[대저동 설화 54]

개로 환생한 어머니(3)

장유선(여, 1933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개로 태이났다 카는 그거는, 또 옛날에 그거 하대. 생전에 놀러도 안 가고 살림만 살림만 보고 아들 집에 묵고 새고 살림만 살아 주다가 돌아가시 놔놓으이, 죽어서 개가 돼가지고 너거 집 징키주라(지켜주라) 카고, 개로 태어나게 해가 다부(도로) 보냈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있지.

[대저동 설화 55]

딸의 재치로 실수를 모면한 부모

장유선(여, 1933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옛날에 한 저 산골에서러, 딸로 서이를 낳아가지고 잘 키았는 기라. 잘 키아가 딸 서이로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래 영감 할마이가 가만히 생각허이, 이 딸들로 인자 저거가 인자 좋을 대로 했는 기라.

큰딸로 치았는데, 해편가다(해변에 있는 집에다) 치았는 기라. 해편가다 와 치았는가 하몬 그 해삼하고 안자, 해산물 마이 얻어 묵을라고 해편가다 치아 놨는 기라. 치아놓고, 두채(둘째)딸은 또 어둘로 치았는고 하몬 산에를 치았는 기라. 산에다 치아 놓으몬 또 머래 다래, 안자 산에 나오는 열매 그거 얻어 먹을라고 거다 치아놓고. 인자 막내이 딸은 인자 또 농촌에다 치았는 기라. 농촌에 치아놓고 농사 지이몬 인자 가서 쌀밥도 얻어묵고 찰밥도 얻어묵고 찰떡도 얻어묵을라고 거다 치아놨는 기라.

서이 딱 치아놔 놓고 그래 언자 내띠 섰는(나섰는) 기라. 영감 할마이 둘이서러 큰딸네 집에 인자 찾아갔어. 찾아가가 해산물 얻어 무울라고 인자 턱 가서러 있으이, 하루 점도록(저물도록) 있어도 해산물로 안 주거던. 아무것도 안 주는 기라. 그래 마 그날 못 얻어묵고 눕어 자는 판이라. 눕어 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는 기라.

'저거꺼정 묵고 나는 좀 안 주나' 싶어가지고, 영감 할마이 무울 인자 찾으러 추러(훔치러)

나갔는 기라. 추러 나가가지고 사살 디비이까네, 어데 한 쪽에 가이까네, 저 사랑방, 영감 자는 방, 사돈 영감 자는 방 가이 단지로 딱 문 앞에 요래 놔 뚜고 따까리(뚜껑) 딱 덮어놨는 기라. 그래 살살살살 더듬어가지고 단지 고 손을 살 옇어 보이 미끌미끌 하거던. 마 해삼이라고 마마 영감 할마이가 붙어가 막 껀지 뭈는 기라. 껀지 묵고 입을 닫고 인자 들어와 눕어 잤어. 자고 아침에 턱 언자 나가이까네 사돈영감이,

"야들아 엊저녁에는 저저 내 가래단지를 일찍 부었나. 오늘 아직에(아침에) 보이까 왜 맬갛노? [일동 웃음] 맬갛노?"

카거던. 막 앵꼽아서러 죽을 판인 기라. 그래 그놈 사돈 영감 청담 걸리가 가래 밭은 걸 그놈을 주어 무웄는 기라. [일동 웃음] 주우 묵고 그래 앵꼽아 못 젼디가(못 견뎌) 근근이 밥 한 숟가락 먹고 그 질로 인자 또 작은 딸네 집에 인자 머래 다래 얻어무러 갔는 기라. 사위 집에, 사위 집에 가가 그놈의 집구석도 가도 또 안 주는 기라.

그래 한 번 속았으몬 말 것 아이가. 또 안자 저녁에 도 내띠 섰는 기라. 둘이서 찾아 댕기이까네 그래 또 어디 한 쪽에 가이까네, 조마이가 이래 달리가 있는데 몬치 보이까네 마 쟈글쟈글 하는 기 들어가 있거던. 들어가 있는데, 또 영감 할마이 붙어 서가 그놈을 또 바싹바싹 뽀사 뭈어. 뽀사 묵고 또 잘 무웄다고 인자 들와가 자고 아침에 나가이, 아침에 또 안자 저저 사위가 그래 카는 기라. 저거 마누래 보고,

"그 저 내 소 가분지 띠 여 놨는, 조마이 누가 갖다 부었노?"

이러 카거든

[조사자: 가분지가 뭔디예?] 옛날에 소 가분지. 피마자맨치로 아주까리겉은 거 요런 기 있거든. 고런 거 인자 그 소 젖 밑에 딱 붙어가 있으몬 그거는 띠 준다 아이가 우리가. 우리도 그 소 믹일 적에 띠 쌌다. 띤 그걸로 인자 띠가 쪼마이 옇어노는 그거로 빠사 뭈는 기라. 그래 또 죽을 판 아이가, 그놈을 뭈으니.

그래가 그서 또 씻고 닦고 해가지고 인자 막내이 딸 집에 갔는 기라. 인절미 얻어 묵으러. 막내이 딸 집에 가이, 농사로 지가지고 인자 쌀로 안자 다 여 놨다 아이가. 여 놨으이 응당 어마이가 가면 밥도 해 주고 찰밥도 해 줄 것 아이가? 가도 찰밥도 안 해주고 마 있는 그대로 주는 기라. 주서러 그러몬 말 낀데, 또 안자 아침에 찾으러 나가, 밤에 자다가 또 찾으러 나갔는 기라. 그만치 속았으몬 말 것 아이가.

그래 딸네 집에 간다고 옷을 인자 풀로 해가 딱 빠다래가(빳빳하게 해서) 입고 가놔 놓으이, 이거를 입고 나가몬 인자 쌔쌔하이 소리 난다고 홀랑 벗고, 벗고 안자 영감 할마이 가서 막 이래 더듬으이 큰방 문 앆에(앞에) 실겅이(선반이) 있는데 그 반티가 얹히가 있거던. 반티가 얹히가 있는데, 그래 '하이고 여(여기) 얹여놔 놓고 너거꺼정 먹는다.' 싶어 가지고, 요 있다 싶어가 반티로 이래가 잡아 땡기는 기라. 땡기니까네 마 미끄러져가 마루청 마마 휘닥닥 영감 할마이 벌거벗고 가 다 자빠져 있는 기라.

그래가 양 사방서, 큰방서 사우, 아들, 딸, 어마이 마 다 나오는 기라. 다 나오이까네, 저거 쟁인장모 키대로 벗고 눕어가 있다 아이가. 누워가 있고. 사돈도 나오니 사돈이 인자 다 자빠

져가 있다 아이가. 이래 놔 놓이 마 난리가 났는 기라. 난리가 나이 딸이 퍼뜩 둘러대가 그래,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데 가서 물으이까네, 사우(사위) 명이 짜르다 캐서러, 이런 우사로 해야 사우 명을 잇순 답니다. 그래서 이렇답니다."

카이, 그래가 칙사대접을 받고 왔다 아인교. 딸이, 막내딸이 참 시근이 퍼뜩 돌아갔다.

[대저동 설화 56]

저승 다녀온 사람

장유선(여, 1933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옛날에 저승 갔다 왔다 카는 꿈은 그 실지로 우리 동네에서 있은 이얘긴데. 옛날에 와 대석댁이, 옛날에 대석댁이라 카는, 우리 동네 살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라이 그기 날짜 많은 병을 그걸 뭐라 그랬노. 열병이라 캤나? 그 병을 해가지고 사람이 마 죽어뿠어. 가뿠는데, 그래 한참 아파 있으니 마 시커먼 사람들이 오디만은 마 등에다 엎우더란다. 멫 놈이 이래 와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 마 등에다 엎아가주고 이래 나가는데 막 울음소리가 귀에 빡 차더라 카대. 차는데 옷을 입히 난 기가 버선도 오질게 안 신기고 방즉 벗거질라 카고, 옷 끄내기, 치마 끄내끼(끈) 이것도 바로 안 매가지고 오지게(야무지게) 안 매가 끊어질라 카고 이렇더라 카대.

그래가 그 집 밭 모팅이 이래 키잽이 쭉 있는데, 그꺼정 이래 휙 돌아나오더록까지 울음소리가 귀에 듣기더라 카는 기라. 귀에 듣기는데, 그래가 집을 지내 나가고 나이 울음소리 안 나가는데 처매도 질질 끄끼가(끌려서) 벗길라 카고 버선도 벗길라 카고 막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 카는 기라.

그래 어찌 갔는데, 가이까네 또 우리 이승 한 가지더라요. 한 가진데, 사무관 사람이 착 앉아가 있더라 카네. 그래 여서로 조사하고 여서 조사하고, 조사하고 쭉 나가이고, 우리 와 표찍으러 가몬 주민등록 그거 하듯이, 그래 쭉 하디만은 끝에 가디만은 막 야단이 났다라 카는 기라. 안 올 사람을 데꼬 왔다 캄서로, 안 올 사람을 데꼬 왔다 캄서 뭐러 카더란다. 뭐러 캄서 손바닥에다가 마 도장을 하나 찍어 주더라 카든가 뭐, 그때 되몬, 요때 되몬 오라 캄서로 그래 찍어주고,

"어서 바삐 데비(데려다) 주라."

캄서로 난리가 났더라 카네. 그래가 그 데꼬 간 사람이 다부 업고 안자 나왔는데, 나와가

지고 딱 내라 주는데, 이래 안자 큰 바단 기라. 바다가 돼가지고, 그다 내려놓고 이 외나무다리가 딱 있는데,

"요리 건니 가라."

카더란다. 건니 가라 카는데, 그래 내라 놔놓고 저 사람들은 갔부고, 이놈의 다리를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몬 건니 가고 있다가 결국 건너 갈라고 탁 올라가 멫 발자죽(발자국) 안 가이 푹 빠지뿌는 기라. 푹 빠지이 고때 살아나는 기라.

그래 집에서는 죽었다고 삼베 이불로 탁 덮어 놓고, 신랑도 젙에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고, 친정 엄마도 와가 보고 있는데, 그래 인자 폭 빠지이 살았지. 인자 살아가 홑이불 딱 덮어놘 거로 부시럭 부시럭 했던 모냉이라. 부시럭 부시럭 하이 영감은 무섭다고 단발에 나갔부고, 저거 엄매가 요래 살째기 들씨(들춰) 보더란다. 들씨 봐가 그래 그 사람이 더 사다가 죽었다 아인교. 그래 그 사람도 그때 논매로 댕기면서 얘기로 하더라 당시. 오래 살아도 일찍 갔다 아인교.

[대저동 설화 57]

차를 타고 제삿밥 먹으러 간 귀신

장유선(여, 1933년생) 구술
2014년 2월 18일 채록
[대저2동 사두경로당]

그래 그전에 그래 쌌대. 저 어디 진해 어데서러 손님을 하나 태아 드맀는데, 보하이 입은 색시가 오르는데, 그래,

"어데까정 가자."

카더라 카대. 그래 어데꺼정 가서,

"차비는 내가 돈이 없으이 거 가서로 가 오겠다."

이리 캄서러 그 내리가지고,

"차비 가 오꾸마."

카고 내리가 고 집엘 솔~ 드갔는데, 드가이까네, 그 저 드가디만은 마 안 오더라 카대. 그래 밖에서 내- 기다려도 안 와서러, 이상하다 싶어서 드가이까네, 제사로 채리놓고 제사 모시더라 카대. 그래 그때는 그런 말 마이(많이) 있었다.

[대저동 설화 5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6)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옛날에 저, 저, 저, 과거를 보이까, 과거를 보러 가이꺼네, 인자 저저 과거 문제가 말이 두 마리 있는데, '이 말이 어느 기 어미고 자석이고?' 그 문제가 떡 나왔더라 카네. 그래가지고 가마 누가 보이 아나 그제?

그래 옛날에 할매가 저거 저 저 저 아들이 있는데 그라더라 카네. 이래 한 구시에다가 여물로 같이 주보면은, 어마이는 자석을 무라꼬 자꾸 이래 밥을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자석을 자꾸 밀어주고 그래 하더라 카네. 그래 그 문제가 나와가 그거 합격이 됐는갑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자, 나라에 인자 그 임금이,

"어째서 니가 이걸 알았노?"

카이까네,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할매가 그라더라."

캐나놓이까네, '아 노인네들도 필요가 있구나.' 카고, 그래 고래장 해제 했다 카대.

[대저동 설화 59]

고려장 이야기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할매 얘기 들으이까네, 고래장 터를 요래 만든다 카대. 요래 만들어가지고 요래 사람이 하나 딱 들어가고 요래 물이, 물하고 나무하고 며칠 동안 물 거(먹을 것) 딱 들라준다 카대. 들라주면은, 고 양석(양식) 떨어지몬 고서 죽어뿌는갑대. 그래 고기서 뜨물 씻겄는 물이 쫄쫄쫄 안 나오몬 '양석이 떨어졌구나, 아, 얼마 안 있으몬 죽었구나.' 이래 생각한대.

[대저동 설화 60]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고양이가 산적 물고 간다]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옛날에 떡~ 제사를 지내고 눕어 자는데, 방은 하나뿐이제, 자석은 오물 오물 오물 앉아 있제, 할마이인테 갈라 카이께네, 아 새끼가 달랑 달랑 쥐새끼맨치로 딸리가 있으이 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인자 근거이(간신히) 할마이한테 가가지고, 할마이인테 가가지고 할마이 맛을 보고 오민서, 그놈의 주우발로 안 올리고, 그 막 덜렁덜렁 끄집고 [청중: 웃음] 아들 있는데 줄줄 줄줄 줄줄 이리 넘어왔는갑대. 넘어 오이까네, 그 아 마침 잠 안 자고 있다가,

"엄마, 고양이가 산적 물고 간다."

[대저동 설화 61]

누나를 탐하다 자책하며 죽은 동생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두 오누부가(오누이가) 가는데, 소낙비로 맞고나이, 누나가 앞에 가는데, 그 뒤에 동생이 따라가다가 누가 그거로 마 어째 생각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라몬 안 된다.' 싶어서러 마 이거로 [남자의 생식기 부분을 가리키며] 마 지가 짤라뿠다 이라대.

[대저동 설화 62]

당산제를 안 지내 우환 든 집안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우리 친정에서 이래 마을이 요래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큰 마을에서 떨어져 나와가 요래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서 아랫 당산, 웃 당산 지낸다꼬. 정월 보름날만 되몬. 인자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전부 주동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누 집이 깨끗하겠다. 누 집이 몬 지내겠다. 요 집에 지내몬 되겠다.' 카고, '요 집에 좀 지내소.' 카고 지정을 하주고 이러는데, 만날 책임을 지고 이래 하는데.

그래 마 한해께는 아무도 마 지낼라 카는 사람이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부지가 마 그래 믹카뿠단 말이(묵혀 버렸다 말이다) 믹카놓이까네 [조사자: 동네 우환이 안 생기던가예?] 그래 우리 엄마가 보름 저저 새복에 세 시나 네 시나 되가, 보름 밥 하러 가이까네, 억수로 무섭더라 카네 마. 무섭운데 새근에, 뒤에 새카만 기 싹 지나가더라 카네. [청중: 그기 산신령이다.] 산신령이던 모양이라. 그래 마 소름이 지치더라. 억수로 무섭더란다. 그래도 나가 밥을 했다 캄시.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 우리 친정이 마 마 마 아들, 아들이 차 모이까네 차 사고 나제. 마 집안이 마 싹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이, 큰 동생이 인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저 사엽이 되나 놓이까네 산에 나무하러 갔어. 나무하러 가이까네, 우리 엄마가 아무리 있어도 안 오더란다. 해가 져가 어둡은데, 캄캄하는데 안 오더란다. 그래 '야가 와 일노?' 카고 살 나가이까네, 아가 우리 동생이 오는데 땀을 폴죽같이(팥죽같이) 흘리고 오더란다. 그래,

"와 그랬노?"

카이까, 짐을 질라 카이 뒤에서 새카만 기(새까만 것이) 싹 잡아땡기리뿌고, 또 짐을 질라 카이 뒤에서 싹 잡아땡기리뿌고, 한 시간을 씨름을 했다 카는 기라.

그러이 당산제만을 안 지내고 그양 해뿌나노이 넘가뿌나노이까네, [조사자: 고하고 안 지애야 되는데, 그냥 안 지냈다가는.] 그래가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이 그래가 마 싹 그, 그래 돼뿌더란다. 그래 저 미신도 너무 하내가 책임지고 이래 해줄 기 몬 되더라.

[대저동 설화 63]

밤마다 처녀 방에 자고 가는 지렁이 총각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옛날에 차암(참) 예쁜 저저 처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 옛날에 다 들었던 얘기다. 참 어느 고을에 예쁜 처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마 저녁만 되몬 어떤 총각이, 참 좋은 총각이 저녁마정 와가 눕어자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저거 부모들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마 저거 딸로 머라 카고 이랬는데, 그래 저거 딸은 모른다 카거든.

그래가 또 밤에 보이까네, 딱 와가 눕어자고 눕어자고 이라이, 멫 메칠로 그래 눕어자고 가이까네, 이 이상하다 싶어서로 인자 명지술(명주실)로 해가지고 바늘에 실로 끼가지고 고 도포 자락에다가 실로 딱 꿔매 달아놨다 카대. 그래 인자 맹지실 졸졸졸졸졸졸 풀리갈 거 아이가.

풀리 가이까네, 이 사람들이 어데꺼정 가이까네, 명주실이 그거 땅 밑으로 살 들어가가 있더라 카네. 그 들어 그 가보이까네, 마 이거만한 지렁이가 거 있더라 카대. 그래 지렁이가 화해가지고, 사람이 화해가지고, 지녁마정 와가 눕어자고 가더라 카대.

[대저동 설화 64]

부정 타 동티 난 법기 당산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그래가지고 우리 저 저 법기 있을 때는, 그 인자 법기, 양산 법기 거 있는데. [조사자: 양산 법기는 당산 모시는데.] 당산 모시지. 아릿당산 놓고 다 있거든, 어째 아는데요? [조사자: 전에 법기, 양산지역 당산 조사했습니다.] 아 그래 있었는데, 내 얘기로 하께. 웃마을에 새동네는 여 여 산신제를 지내거든.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중에 산골짜기 쏙 들어가 법기 수원지 안에 들어가 산신제로 지내는데, 그때 마 이래 저저 어른들끼리 지냈으면 될 낀데, 우리 바로 집 옆에 요래 인자 담을 뚫어놓고 요 물로 가 서로 씨고(쓰고) 그라는데, 요 집에서 지냈는데 아 그 집에 며느리 임신도 했던 모양이라. 어른도 모르거로 임신을 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마 저거 작은 아들하고 영감 할마이 갔이몬 될 낀데, 임신도 했제, 거 버시러(벌써) 부정아이가 그제. 저거 시오마이는 모르고 그 제당을 맡아가 했어. 그래가 그날 산신제로 지내가 왔는데, 산신제 지낼라고 날 받아 놓이까네, 마 메느리 유산 돼뿠더라 카네. [조사자: 저거 임신 하몬 못하지.] 유산이 됐뿌더라 카네, 그 유산이 됐는데 제당 지내고, 산신제 지내고 나서로 그 이튿날 저녁에 도장에 쌀 이래 큰 도라무깡 세 도라무 옇어 놨는데, 새까마이 다 퍼가 나갔뿠어.

우리 집 뒤로 바로 이래 우리 이래 큰 채가 있는 것 겉으몬, 여 문이 뒷문이 있고 뒷문을 요래가지고 요로가(요리로) 다 퍼가뿠어. 아이 그거 미신이라고 말 몬 하겠다.

그래가지고 인자 한해께는 인자 그래 싸이까네 산신제로 누가 지낼라 카나 그제? 그래놓으까네 고 웃마을에서러, 그라면 고 웃마을에 마을에 청년들이 멫이 어불라(어울려) 지냈어. 어불라 지냈는데, 앞에서 주동핸 사람들이 인자 청년들이 가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인자 하고

제문 읽고 앞에서 마 뒤에 이래 주동핸 사람 서이가, 아이고 소로 싹- 뭣이 도둑놈이 다 몰고 가뿠어. 그래 소로.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 찾으이까 소가 있나?

그래 주동핸 사람 집 소만 싹 다 갖다 잃어뿌는 기라. 그러이 요래 신이라고 모시 놓으면은 그기 없지는 안 하는 갑더라. 없지는 안 하는갑대. 눈에 안 비도(보여도) 뭣이 그거 하는 모양이라 그래. 그래가 소 세 마리 싹 다 잃어뿌고 그래. 그래가 인자 우리 이사 와뿠는데 어째됐노 모르겠다.

[대저동 설화 65]

아이를 넣어 만든 에밀레종(3)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종을, 저저 경주 불국사 종을 하나 만들어가 치이까네, 도저히 종이 소리가 안 난다 카대. 소리가 안 나더라 카대. 그래가지고 또 그 몰라 나는 대충 들었다. [조사자: 대충 이야기만 해주. 그래가 어찌 됐는데.] 그래가 그 소리가 안 나서러 인자 또 종 만들라고 이래 동냥하러 나갔다 카대. 그래 안자 동냥을 다 하는데, 한군데 가이까네,

"동냥 좀 주소. 에밀레종 만들라, 종 만들라고 저 갱주(경주) 불국사 종 달라고 그렇다."

카이,

"내 자석을 줬으면 줬지, 곡석은 몬 준다."

이라더라 카대. 그래 우리 자석을 줬으면 줬지 곡석은 몬 준다 이러 카더라 카대. 그래가지고 뒤에 그 자석을 덕고(데리고) 갔다 카대. 자석을 가가 거 에밀레종 만드는데, 쇠 고울 때 마 밀어여뿠다 카대 아로. 그래노이,

"에밀레~, 엄마~, 에밀레~."

이란다 카대.

[대저동 설화 66]

여우 여동생을 물리친 오빠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어 옛날에, 어느 저 저 고을에 그거 참 큰 부잣집이 살았는데, 그 부잣집에 자석을 못 낳아가지고, 공을 공을 딜이가지고 자석을 하나 낳아놔 놓으이까네 딸이더라 카네. 그 큰 대가집에 그래 딸이더라 카대. 그래가지고 저거 오빠는 과거를 보러 가고 없는데. 그 저거 동생을 맽기놓고 갔더마는, 저거 동생이 인자 그 집에 종도 마이 데리고 이래 사는데, 그래가지고 인자 저거 동생이 인자 이만큼 커가지고, 이래 크이까네 소가 천 마리 있고, 말이 천 마리 있고, 달(닭)이 천 마리가 있는데, 저녁마정 소가 마굿간에 소가 한 마리씩 툭 자빠지고 마 저녁마정 소가 자빠, 소가 한 마리썩 자빠지거든.

그래가지고 종들이 아무리 살피도 마 살필 그기 없는 기라. 그래 인자 소 천 마리 다 자아(잡아) 묵고, 인자 또 말 천 마리가 또 저 말이 또 한 마리썩 한 마리썩 다 죽더라 카네. 그래도 그거로 발견을 몬 해가지고, 말 천 마리 다 자아 묵고 그 딸아가. 그래가지고 인자 달 천 마리 다 잡아 묵고 그 딸아가. 낸중에는 인자 이기 우째 [청중: 간을 빼뭈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기 우째 됐노 싶어서러, 그 집에 하인들로 시키가지고 저녁에 저거 아부지 경비로 하라 캤다카네. 딸 저거 아부지로. 경비로 하이까네, 그 딸이 밤에 막 둔갑을 해가 백야시가 되더라 카대. 백야시가 돼가지고 마굿간에 드가더만 마 손을 쑤-욱 궁뎅이로 옇어가 간을 쑥 꺼잡아내가지고 마 벌건 간을 마 묵고 치아뿌더라 카대.

그래가 소로 다 잡아 묵고 인자, 그래 인자 서울 과게 보러 간 저거 오빠가 인자 집에 턱 오이까네 집이 전부 다 망해뿠거든. 그래 와보이 저거 아부지도 없고 저거 아부지 다 죽고 저거 엄마 다 죽고 없는데, 저거 여동생만 살아있거든. 그래 집이라고 떡 찾아가이까네, 그래 가이까네 저거 여동생이,

"하하 하하하 오랍아, 오랍아, 호호 호호 오랍아."

카고, [청중: 야시가 돼가 그렇다.] 그기 인자 정신을 들이가지고 아로 낳아 놓으이까네, 백야시가 둔갑을 핸 기 그거 화해서, 그래 놓으이까네, 마 밤만 되몬 그 잡아 무러(먹으러) 나가는 기라. 짐승을 잡아 무러. [청중: 어마이 아바이도 간을 빼가.] 그래 다 잡아 묵은 거라. 그래가 저거 오빠가 오이까네 인자 잡아 물라꼬,

"하오 하호 아 울 오랍아, 울 오라비 온다, 호호 호호 울 오라비 온다."

이래 샀거든. 그래 그 어데쯤 내려오이까네, 스님이,

"너거 집에 가거들랑 되게(매우) 다급할 때 씨라."

카민서로 뱅(병)이로 몇 개로 주더라 카네. 그래, 하나는 뺄간 기고, 하나는 새파란 기고, 하나는 뭣이고, 뱅이로 멫나를(몇 개를) 주더라 카는데, 그래 되기 다급하거들랑 이 뱅이로 떤지라 카더라 카대.

그래가지고 인자 마 저거 여동생이 저거 오빠 자아 물라꼬 막 따라오가 잡히 물라 칼 글때 마 뱅이로 하나 던지뿌이까네 불바다가 돼뿠더라 카네. [웃음] [청중: 옛날에 거짓말도 그란다.] 전 거짓말이지. 그 그래가지고 또 또 또 인자 그 불로 피해가지고 저거 오빠 잡아무러 오더라 카네. 그래가지고 마 뱅이로 하나 자아(잡아) 던지이까네, 또 마 강이 돼뿌더라 카네. [청중: 물바닥이 됐다.] 그래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래 저거 오빠는 피해가고. 그 집안은 뒤에

와 보이까네 저거 동생도, [청중: 빨간 거는 불이요, 푸른 거는 물이고.] 저거 동생은 죽고, 저거 집에는 마 쑥대밭이 돼가지고 마 이래가 있더라 카대.

[대저동 설화 67]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뫼를 바꿔 쓴 며느리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옛날에 딸이 떡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가 얼매를 사다가, 마 저거 친정아부지하고 시아부지하고 한날 죽어뿠어. 한날 죽어뿌고 나이까네, 저거 친정아부지는 뫼가 더럽고, 시아부지 뫼터는 참 뫼터가 좋더라 카네.

그래 딸이 와가 보이까네 저거 아부지 터는 참 뫼터가 좋고, 저거 시아버지 터는 뫼터가 더럽다 카네. 그래가지고 [청중: 시아버지 뫼터가 더럽다. 좋았지.] [부정하듯이] 으어, 친정아버지 뫼터가 좋고, 시아버지 뫼터가 더럽더라 카네. 파이 물이 나오고 그래가. 그래가 인자 딸자석이 친정에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부지 파논 이 뫼터가, 시아부지 파놓은 뫼터가 참 좋단다."

이레캐놔 놓으이, 저거 친정아부지로 저거 집안 잘 될라꼬, 딸 저거 자석들 잘 되라꼬. 그래 친정아버지 판 데는 밤 새도록 딸이 가가지고 물양철이로 가지고 물로가 한거(가득) 채아놓고, 그래가지고 인자 저거 시아부지 파놘 데는 바가치로 밤새도록 퍼내뿠고. 그래 저거 친정아부지는 물구딩이 갖다 묻고, 저거 시아부지는 그 묘터 좋은 자리 써놔놓으이, 지는 잘되고 저거 친정은 망해뿌더란다.

[대저동 설화 68]

아버지를 구하고 죽은 효자[효자 웅덩이]

김검선(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그 효자 웅딩이가 이래 있는데, 비가 되게 와가지고 독아지가(독이) 떠내려 갔다 카든가. 도가지가 떠내려 가놔놓으이 뭣이라 카더노?, 그거 껀지러 드간다고 자석이. 아 아부지가 드

가이 자석이 드가 끄잡아 내가지고, 그래 뭐 자석이 죽었다 카더나 뭣이라 카더노? [청중: 아부지는 꺼내고 그기 인지 효자가 돼가.] 몰라. 그래가지고 효자가, 효자 웅덩이다고 저 있어요.

[대저동 설화 69]

하늘이 내린 산삼으로 부모를 구한 효자

김검선(여, 1936년생), 김석연(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옛날에 부모가 되기(매우)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효자가 억수로 그 자석이 효자더라 카대. 내 전설의 고향 그 봤다. 그래가지고 효잔데, 그래가지고 억수로 효잔데, 약이라 카는 약은 다 구해 믹이도 안 낫고 이래서러, 하루 지녁(저녁) 떡 꿈을 꾸이까네, 어느 산에 가몬 그 그 뭐꼬 산삼이 있을 낀데, 거가 삼을 캐라 카더라 카네. 거 가가지고 인자 뭣이라 카더노? 삼을 캐 왔다 카더나? 뭣이라 하더노?

[김석연: 삼이 아이고 다리로, 구신(귀신) 다리로 비가 오라 안 카나.] 아, 그래 맞다. [김석연: 저거 마누래라. 그 항간 신랑한테 정신에 낫울라 칸께네 아무래도 못 낫우겠거든. 그래 어는 뫼가, 뫼가 묻어난 그기 있는데 다리로 하나 비 왔는 기라. 파가, 구디기로 파가.]

그래 꿈에 그 산에 가가지고 뫼가 하나 있는데. 그 뫼로 파가지고 염장 다리로 하나 비오라 카드라 카대.

[김석연: 달간지로(다리로), 이 다리로 비오이, 막 따라오거든 구신이.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쿠고, 문 딱 닫아놓고 보이께네, 난주(나중에) 구신이 가뿌고 난께 보이께네 삼이라 삼. 다리가 구신 다리가.]

그래가지고 내 다리 내놔라 캐서로, 인자 문을 탁 닫아놓고 그 삼을 솥에 여어가 그 다리를 고았는갑대. 고아놓으이까, 낸주(나중에) 보이, 고우고 보이까네 멫 천 년 묵은 삼이 더라 카대. 그래가지고 그거 묵고 부모를 낫았다 이라대.

[김석연: 산에 안 갔어. 저거 마당이라 거. 난주 보이께네. 마당에서 다리를 띴는 기라. 산에 안 가도.]

[대저동 설화 70]

사람은 혼이 세 개라는 이야기

김검선(여, 1936년생), 김석연(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사람이 혼이 삼 혼이라 카대. 하나는 여 있고 하나는 꿈꾸러 저~ [김석연: 그기 나와가 가자 카는 기라. 그때 되몬.] 우리 꿈을 꾸몬, 옛날 고행인데도 가고 마, 밤에 그래 안 가나? 집에서는 집에서 숨을 쉬고 혼이 하나 있고, 꿈꾸러 또 저- 저 꿈을 꾸몬 막 고향 그런데 가 가지고, 마 어데 산에가 나물도 캐고 뭐도 하고 그 안 하나?

[김석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비는 기라.] 또, 또 무슨 혼이 하나 있다 카더노? 혼이 세낱이다(세 개다) 카대. [김석연: 세 갠데 한 바리 나가면 가자 카는 기라 자꾸. 그 놈이 가자 카몬 따라가몬 자꾸 가몬, 난주(나중에) 그거마 꺼리비 보몬 뭐 짜다리 갖다놔도 모르거든. 저 까리비가지고 그래놓으몬 낮에는 없는 기라 또. 자기 눈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 안 비는(보이는) 기라 나가는 거로.]

[대저동 설화 71]

지킴이 구렁이를 잡으려 한 영감

김복년(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옛날에 우쨋나 하면은, 우리가 쪼끔 우에 이래 살고 밑에 이래 있는데, 내가 그래 사는데. 저 옛날에는 전부 초가집 아이가. 전부 요래 산이 져가 초가집인데, 고 밑에 바로 밑에 집에, 그러이끼네 아 저녁에 눕어 자는데 아하고 인자, 쪼깬 얼라도(아기도) 있고 전부 식구대로 옛날에는 마 방 하나가 식구대로 자고 이랬거든. 없는 사람은.

그래가 자다가 보이께네, 알라가 에~ 카고 울어서러 어마이가 인자 젖 물룰라꼬 이래 끌었더이 아, 알라 뒤에 뭐시 되기 찹더라 카네. 찹아서로 딱 보이께네로, 와이고 불로 켜가 딱 보이께네, 옛날에는 뭐 호롱불이지, 전기가 있었나 사이가 그런데, 우리 클 때, 쪼깬 고만할 때는. 그래가 그 인자 호롱불로 인자 탁 캐가 함(한 번) 보이께네로, 뱀이가 막 뚜끼비로(두꺼비로) 한 바리 물고 아 쮜다(쥐다), 쮜다 카대, 뚜끼비가 아이고 쮜로. 쮜로 물고 툭 널찌가

아 젙에 있었어. 상체가 딱 있드라 안카나.

그래가 인자 그 집 영감이 좀 마 좀 그하던 거로. 그 영감이 마 배겉에(바깥에) 나가더만은 새끼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뱀이를 살 개가지고, 우째 모간지 있는 고로(거기로) 살 맺어. 매가지고 인자 그 담벼랑 우에다 저거 담벼랑 우에 고다 탁 얹어놔 놓고, 매 놔놓고 매가, 실로 인자 새끼로 갖다 맺다고 안심하고 인자 고다 딱 얹이 놓고, 그래 인자 이부지(이웃집) 할매 잔테 물으러 갔어.

"저거로 태아가 직이뿌까? 우째 해보꼬?"

인자 그 물으러 인자 턱 가이께네로, 고 옛날에 그 동네에 할매가 술장사로 하고 있었가뿠더마는. 그래 인자 그 집에 가가 턱 물으이께네,

"아이고 너거 집에 찌꺼미다. 직이지 마라."

이래 됐어. 너거 찌꺼민데 직이몬 안 된다 이래 됐어. 그래도 이 영감쟁이가 마 와가지고 마 그놈 저거 방에 널찌고 해나놓으이 마, 지붕 우에 이래 널쪘는데(떨어졌는데) 하늘이 환하이 비더란다(보이더란다). 옛날에는 흘(흙)로가 이개가 이래 붙이고 이래 해놔놓으이 마, 그래가지고 인자 와가지고 인자 이놈의 뱀이 직인다고 담으러(달려가) 오이, 이 뱀이가 그 매끄럽다 아이가. 오덜로 들어가뿠는지 마 솔 새끼를 놔놓고 마 솔 빠지 나가뿠더란다. 그래 마 몬 잡았지 뭐. [조사자: 그래 그 집 망했지예?]

그래가 그 집에 아침에 일나가지고, 이 영감쟁이가 인자 막 막 올라가가지고, 그 소시랑을 가지고 막 파디비가, 그 집에 안 산다고. 그 뱀이 집이라고 그거 한다고. 막 파디비가지고 그래 마 그 집을 그래 없애뿌고 딴 데로 또 이사로 갔지 저거는. 고 우에 동네로. 그 영감을 그래 있다가 직이진 안 해도 저 영감이 한량이야. 그래 좀 있다가 그 동네 사다가, 사다가 그 죽고. 또 고 집은 다시 지아가지고 또 딴 사람이 살고 그래 했다.

[대저동 설화 72]

도깨비에게 홀려 죽은 사람

김석연(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그래 달로(닭을) 마 잃어뿠거든 밤에. 누가 차적질(도둑질) 했는지 그거는 모르고 마 도둑놈이라고 마, 저 솔배이거지 가뿠다 아이가. 같이 밤새도록 깔고 찾아 댕깄거든. 찾아도 없어 그러면 탁주집 아저씨가 아침에 올라오는데, 저 솔에 돌아오는데, 솔배이 있거든 저 가몬. 거 밤새도록 댕기는 기라 마. 정신도 없이 자꾸 홀리가가지고(홀려서). 그래도 했다 카이 이전에

는. [청중: 저 또깨비인테 홀치 가가지고, 친정아부지 그랬다 카대.] 우리 아버지 그래가 돌아가싰다 아이가.

[대저동 설화 73]

몸에서 쥐가 나오는 도둑

김석연(여, 1932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대저2동 월포노인정]

쥐를 닮은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가면은, 가만 있으몬, 밤쯤 되몬 요 쥐가 세 바리라네(세 마리라네). 한 바리 나오거든, 고거 나오몬 가는 기라. 자꾸 인자 가몬 야수로 파고 뭐 파가 오몬, 다 파는 기라, 그 여자가 가가지고. 그래 째비(훔쳐) 나르더라 안 카나 그 인자. 그런데 그래 안 할 때는 드가뿌는 기라, 그라면 낮에는 멀쩡한 기라 또.

5. 명지동 설화

[명지동 설화 1]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박부인(여, 1926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자기 엄마로 갖다가 안자 고래장 옇어 놓고, 지게를 지고, 그 엄마가 지게를 지고 가가 내라놓고 오이꺼네, 그 아들이 오이꺼네, 저그 손지가 딱 나오면서,

"지게를 그거 놔 놓으라."

커더란다. 저그 아부지를 보고.

"와 놔 놓으라?"

카이,

"지게 그거 내중에 나도 언지(언제) 그래 아부지 한 눈개로(한 번은 지게로) 져다 내삐릴라."

캐가 캐놓이, 그래가 없어졌답니다.

[명지동 설화 2]

주인을 살린 충견

박부인(여, 1926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불이 나가지고 내러 오이까, 주인 할매, 주인은 그 눕어가 있는데, 개가 보이까 주인 잩에(곁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 개가 물에 두굴두굴 구불러(굴러) 가가, 그 주인 잩에 가가, 이래 있다 막아가 있다가, 그래 개 그거는 불이 나가 죽고, 주인은 살았다 안 캅니까?

개가 물에 가가 풍덩 적셔가 주인 앞에 갖다 물로 축으고(적시고) 주인은 눕었는데 그래 해놓이, 주인이 술에 취했는가 봐.

[명지동 설화 3]

후처가 버린 본처 아이를 살린 개

박부인(여, 1926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그래 본처가 아를 못 낳아가, 저게 그 남자가 새장개를 갔던 모양이지. 근데 새장가를 가이, 그 아, 그 사람한텐 아가 있고, 본처한테 아가 있는 기라.

그래 아들로 낳아가 참 남자는 출장을 가고 없는데, 그 동안에 아를 낳는데, 개는 검은자가 새끼를 놓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저게 상 가른 여자가 등언을 했어. 저 큰엄마이하고, [말을 바꾸어] 참, 첩사이하고. 큰엄마이는 아를 낳았고. 첩사이하고 둘이,

"아 저거 놓거들랑 저게 갖다버리라고."

시키노이, 놓기는 아들로 낳았는데, 이기 인자 방아, 어마이한테 마 아 낳은 사람한테 뚤뚤 싸가지고 마,

"아이고. 아가 저 그거 했다이. 우디마는 마 아가 언간이 안 됐다."

그래 노이꺼네, 거 큰 두디기(포대기) 싸가 마 아를 들고 나갔는데, 개가 뒤에 쫄쫄쫄쫄 따라 갔는 기라. 아 안고 가는 뒤에 따라 가이, 개 새끼 놓은 지도 얼매 안 되고, 이래 따라 가가 가만 보이 아를 보리밭에 갖다 내삐거든요(내버리거든요). 내삐리 놓고 놔놓고 오이꺼네, 그 젙에 놔노이 남자가 한 사나흘 있다가 출장 갔다 왔는데, 아를 낳았다 카는데, 개가 대문 안에 못 들어도록 바짓가랑이를 물고 흔들어가 자꾸 끄짚고(끌어서) 가는데, '왜 개가 와 이카노?' 저 안에 들바 보도,

"개가 와 이카노. 날로 못 들어오도록 하노?"

카이, 그 캐도 마 바짓가랑이 안 놓는 기라. 개가. 자꾸 땡기(당겨서) 저리 땡기 밀고, 그리 개를 따라 갔는 기라. 이 사람 하도 수상해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따라가이 퍼른 보리밭에 가디이 아가 살아가 있더래요. 개 지 젖을 믹이가 살리 놨더라요. [조사자: 아. 지 젖을 지가 믹이가지고?]

지가 새끼를 낳으이께네 지 젖으로 아를 믹이꺼네 아가 살아갖고 꼬물락 꼬물락 걷더라네.

[명지동 설화 4]

버스를 보고 도망간 호랑이들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지금 우리 강서구에 저 조마이포산이 있거든예. 조마이포 다리 딱 건너면은 거기 저게 산이 요래 있어. [녹음 하는 것을 보고] 녹음을 하몬 안 할란다. [조사자: 산이 있는데.] 산이 있었는데, 이 주변에 인제 호랑이들이, 야시(여우), 그거 호랑이하고 갈가지, 호랭이 새끼. 고양이 막상도 이런 기 많이 있었다 하대예. 있고, 혼자 가면 사람도 물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인제 우리 이런 야산에도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 하대예.

우리들은 모르는데. 그래 살았는데, 인자 그러구로 뭐 세월이 지내가지고 인자 뻐스가 김해읍에서 조말포까지 오는 뻐스가 하나 생깄어예. 그래 인제 지금 우리 여 보몬 시간뻐스 같은 거.

그런 게 인자 한 개 떡 생겼는데, 호랑이가 산에서 장마포산, 저게 조마이포산에서 가만히 보이꺼네, 저거가 사람도 잡고 막 밤에 막 댕김서러 훑치고 하고 짐승도 자아묵고 최고였는데, 아 크단한(커다란) 기 저거는 집에 댕김서러 잡아무야 되는데, 잡아묵고 끌고 가고, 끄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크단한 기 소보다 큰 거, 막 이런 기 오디마는 떡 대인께네 마 동네 사람이 한거썩(많이) 나와가지고, 저거 보기에는 다 죽을 마시는 기라. [일동 웃음]

그런께네 다 마 그 딱 드가더만 삑 돌리가 마 또 가고, 또 무가 그 안날도 그래. '아 우리도 여 있다가 저거한테 틀림없이 잡아 묵히겠다.' 그래가지고 마 저 백두산을 다 올라갔답니다.

[명지동 설화 5]

호랑이에게 묵를 빼앗긴 할머니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어떤 할머니가 인자 묵을, 묵을 하모는 이걸 쪄가지고(쪄서) 걸러가지고 오래오래 쫌 있다가 인자 고아가 묵을 맨든다 아입니꺼? 그렇게 만들면 자기 혼자 다 못 묵고 저짝 마을에 언자 딸네 집이 있는데, 지금은 마 오만 도로가 잘 돼 있지만, 그때는 한 동네 갈라캄(갈려고 하면) 몇 고개를 지내서, 지금도 그런 산 있어예.

이 산대로 질로 내가지고 산 밑에. 그래 인자 저 어데고 거기 가면 그런 산 마이(많이) 있는데. 그래 이래 이고 가니까 호랭이가 딱 앉아가지고,

"할마이. 할마이."

카이,

"와?"
카이껜,
"묵 한 덩거리 주면 안 잡아묵지."
카이,
"아, 그래 인자, 그러몬 한 덩거리 묵고 내 잡아묵지 마라."
카민서. 또 한 덩거리 줬다. 또 쪼깨 있으이 저 모퉁이 가서,
"할마이, 할마이. 묵 한 덩거리 주마."
"니 와 자꾸 돌라 카노?"
카이,
"자꾸 배가 고픈데 우짜능교?"
그래 딴 집에 가이까 다 줬부고 한 개도 없더라요.

[명지동 설화 6]

어머니를 위해 다리가 된 자식들[팔달교의 유래]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딸 여덟을 낳아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아를 인자 키아가지고 아들이 마 처녀가 되고 차례차례 크지 않게 여덟 명인데, 그래 인자 저녁으로 이래,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설입니더. 팔달교 카모 관광 가몬 있어예.

다리가 인자, 딸 여덟이가 이렇게 이래 엎드리가지고 다리를 맹그라준(만들어준) 그기(그것이) 하늘에서 보이 너무 가상하니까, 그대로 굳어가 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름이 팔달교라고.

근데 그 내연이 인제 어 저 아버지가 인자 돌아가시고 엄마가 좀 젊을 때 갔던 모양이지, 아도 연년생을 이렇게 일찍이 낳아놓고. 영감 생각이 나서 도랑 건너 저 한 모랭이 넘어 개울을 건너야 되는 동네에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를 언자 우짜다가 사귔어예.

그래 인자 저녁을 남자가 안 하고 여자가 가는 거라. 그래 갔는데 이거만치 마 물에 빠지가지고 갓을 매다가 새벽 되모 오고. 그래 인자 딸아들이,

"우리 엄마가 저녁마다 어데 저리 갔다 오는고? 한 문 우리 가보자."

캐가, 딸 여덟이가 다 같이 인자 저거 엄마 뒤에 밟아 따라가니깐 이런 물이 마 건너더랍니다. 건너가지고 새벽 되니까 오는데, 그 인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마 쫌 그렇는 갑다."

그래도 아들이 인자 이성을 알고,

“그래.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식 된 도리로 엄마가 저녁마다 저래 춥으나 덥으나 저래 흐린 물을 건니 다니니 우리가 마 다리가 돼 드리자.”

우리 짜다라 다리가 넓도 안 하고, 딸 여덟이 엎드리서 이라모는 다리발이 되는 그런 꼬랑이라(개울이라). 그래 마 차례대로 키 작은 거는 가까운데 앉고, 짚은 데는 큰 기 그거하고, 이렇게 동구룸하이(동그랗게) 여덟, 여덟 명이서 이렇게 언자 엎드리니까, 무지개매꾸로(무지개처럼) [조사자: 돌다리가 되네.] 엎드리니까 다리가 되는데, 올 찍에(적에) 새복에(새벽에) 인자 저거 집에 안 오고 있다가 올 찍에 다리가 됐어예. 그러이께 저 에미가 저거 아아들인(아이들인) 줄 모르고,

“다리가 있노?”

캄서, 건니 오더랍니다. 그래가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보고,

“참 안 된 일이지마는 아아들 참 효성이 지극하다. 저거를 다리를 맨들아뿌라.”

그래 막 거서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하더만 그 사람들 다리가 되가 그 아아들이 어미를, 어머니를 위해서 다리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기 이름이 팔달교입니더.

[명지동 설화 7]

부인 때문에 들어주지 못한 남편의 기도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나락을 언자, 산이 논에 요런 것, 옛날에 ‘삿갓 한 개 들어내면 논 한 개 나온다.’ 카는 거. 고른 논도 있고 이렇는데, 그래 인자 영감이 만날 댕김서,

“올개는(올해는) 우리 식구도 한 개 늘었으니 쌀 나발이 나거로 해주이소. 명천 하늘님요.”

자꾸 이래 빌거든. 그런게네, 본게네, 그게 마 사이 논이고 별로 농사도, 쌀 나발이도 안 나겠는데, 자꾸 저래 빌어싸이께네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그렇고. 인자 안에 옥황상제 자꾸 내다보이 기가 차거든예. 그라이께네 고마 자꾸 빌어싸이 인자 옥황상제 할배는 해주굴, 해 줄라고 마음을 딱 묵고 있는데, 인자 진짜 알이 들고, 나락 수확이 되도록 알이 꽉꽉 들어가 살이 될 때까지 다 되갈 때 얖에서(옆에서) 그 저 언자 옥황상제를 돕는 상제가, 그래 언자,

“저 아저씨가 저 사람이 만날 저래 쌀 나발이 식구 한 개 더 났다고 해 달라 하는데, 저걸 우짜겠노. 보이 그래 안 나겠는데.”

이라이께,

"아 마 그 말대로 마 그래싸도 있어 보이소. 지금 도끼로가 쪼서로 하나 올낍니더."

이러 카이께, 그래 저거 마누래가 나락 빌(벨) 때 다 돼 가이께 쫄래쫄래 오디만 [웃으며] 마 쫓는 기라. 뭘 쌀 나발이는 진짜 많이 난 거고 옛날에예, 근거이 마 지 대거리만 알고 해달라 하는 그거는 마 숨갔는데(심었는데), 한 대 숨갔으면 두 대 나오는 그런, 근거이(간신히) 마 지 대거리라 그기.

"그래 마 그래 나구로 명천 하늘님요 해주이소."

"봐라 내 온다 안 카더나."

캐도, 마 그기 그 식구의 양석이 안 되도록. 그래 그 여자가 쪼사가지고(쪼아서) 마 식량이 안 되는 그런. 남자 말대로 늘 그렇게 내우간에 같이 기도를 하고, '참 우리가 이래 몬 사니까 식량을 되도록 해달라'고 빌었어모, 끝내 그기 쌀 나발이 마 나왔으몬 일 년 양석이 되는데, 쪼사가지고 지 대거리나. [웃음]

[조사자: 복이 다 나가뿠는갑다.] 아, 입을 쪼사가, 그 놈의 입이, 입이 마 [청중: 입이 도치라(도끼라).] 입이. 우리들도 이래 살아있지마는 말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명지동 설화 8]

못난 딸을 입으로 예쁘게 키운 부모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아는 씽씽이 겉은 거로 낳았어. [웃음] 아는 진짜 못난이를 낳았는데, 그래도 마 에미 애비가 그거로 지 새끼라고, 사람은 마 불구자는 아닌 사람인데. 인물이 참 못 생깄어. 엄마, 아부지를 안 닮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마 입이 날랜 사람겉으모, '이거 어데 잡아 묵겠노? 이 몬나이를 우짜겠노?' 이래 할 낀데, 마 천하에 없는 기라. 보배로운 자식을 입으로 만드는 기라.

"이쁠 기다. 니는 미인대회 나갈 기다. 우째 이래 이뻐노."

이웃사람이 입을 막, 이런 사람 그 소리 듣고,

"하이구. 저 모개로 [웃으며] 좋다고 저래저래 사이께네 참 같잖다. 눈이 이상한갑다. 우리 눈하고 다른갑다."

인자 이래 샀는데, 결국은 그 아가 아주 아름답고 이쁜 아가씨로 변해더랍니더. 엄마가 아부지가 그런 사랑으로,

"니는 이뿔 기다. 좋을 거다. 훌륭할 거다."

자꾸 이래 축복을 하니까 그대로 닮아지가지고, 그대로 안주 아주 예쁘고 신랑 고 잘 만내고 일류의 딸이 되더랍니더.

[명지동 설화 9]

잘못된 꿈 해몽을 바로 잡은 점쟁이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남편이 참 몬사는데, 근거이(근근이) 근거이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여자가 방아를 찧고 바느질하고 이래가, 남자를 일 안 시키고 공부를 시기고(시켜서) 과거를 보냈는데, 그래 인자 오는 날이 됐는데, 지금은 뭐 전화를 해서 알 수 있지마는 그땐 저거 집에 와야 안다 아입니까?

그래가지고 인자 이 사람들이 인자 그 급제를 해가 오는 날인데, 석 달 열흘 대충 날이 걸어 가가지고 그 과거 보고 오는데, 또 석 달 막 걸리고 그렇다 아입니꺼? 이번에 한양이.

그래가지고 올 날이 다 됐는데, 그래 인자 밤에 꿈을 꾸니까는 여자가 오늘 자기 남편이 오실 날인데, 꿈을 꾸니까는 이래 술뱅인데(술병인데) 우째가 있다가 마 딱 모간지가(목아지가, 목이) 딱 뿔라지는 그런 꿈을 꿨어예, 여자가.

그래서 인자 너무 기가 차서 '오늘 올 날인데 이런 꿈이 꾸이는가.' 이래 싶어서 인자, 옛날에는 와 뭐 모르니까 점쟁이, 거짓말로 하건 참쟁이 참말로 하건 점쟁이가 더러 있다 아입니까? 여자 점쟁이. 그래 그 집에 애법(제법) 용하다 캐서 인자 그 집에다 떡 가니까는 처이가 딱 나오면서러,

"그래 하이고. 아주매 어째 왔습니꺼?"

카이께,

"야야.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쫌 그거 해서로. 너검마(너 엄마) 어디 갔노? 물어보러 왔는데."

"아, 내가 배아가지고 나도 잘 합니더. 말씀하이소."

이래 하이께네,

"그래. 내가 오늘 그거 우리 아저씨가 아매(아마도) 급제는 했을 긴데, 올 날인데 꿈이 너무 그래서 물어보러 왔다."

마 참고 있었으면 될 낀데. 그래 가이께네,

"고 뱅(병) 모간지가 딱 뿌사지더라."

이라니까, 그래 딸아 그기 요요한 기 그리 입이 보살인 기라. 그래 인자,

"말 타고 내려오다가 모간지가 뿔라져 죽겠네요."

이러 카거든. [웃음] 그라이, 딸이 그라이께네 마 그 남자, 그 아지매가 마 대성통곡을 하고 마 술 묵은 거매쿠로(것처럼) 마 대성, 공부도 잘 하고 이렇는데, 지독시리(지독하게) 해가 갔는데, 알성급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서 마 두 말 안 하고 암(아무런) 말도 안 하고 흐청흐청 하면서 오니까니, 거 점쟁이, 진짜 그 아 처이 아 엄마가 오맨서,

"아이고. 무슨 댁이요. 그래 어디 갔다 옵니꺼?"

카이께네,

"아, 내가 그래 이만코 이만코 해서로 꿈을 꾸었더만, 그래서 내가 무슨 댁이 만나러 왔는데, 딸이 그래 해몽을 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다."

"하이고 우짜꼬. 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라 합디꺼?"

카거든. 그라이께네,

"그래. 말 타고 오다가 모간지가 뿔라진다 카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마마 그 여자를, 점 했던 여자를 저거 집에 데꼬 가가지고,

"이놈우 딸아가 시상 오늘 그 분이 알상급제 해가 올 긴데, 조딩이를(주둥이를, 입을) 이래 놀리가지고 큰 일 났다."

카민서, 그래 마 그 저 말했던 그 여자를,

"저그 남편 알상급제 해가 올 아지매를. 니도 왼발로 세 분 굴리라. 나도 굴리꺼마."

세 번, 세 번을 굴리고 마, 애미가 마 가시나 귀싸대기로 세 찰, 세 차례로 쌔리뿌고(때리버리고),

"그래 이거는 아입니더."

캄서,

"알성급제 해가 올 깁니더. 기다리소."

카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방침을 안 했으모 오다가 그 여자의 입살에 그래 될 수도 [조사자: 죽울 수도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인자 그래가 급제를 해가 왔더랍니다.

[명지동 설화 10]

나쁜 마음을 고치게 한 스님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 순아1구마을회관]

그 마누래가, 어떤 마누래가 [웃음] 남자가 언자 죽고 난 뒤에 진짜 남자하고 살고 싶어서, 자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마 그거로 저 저 스님이 하내이(한 명이) 왔는데, 그래 마 동냥을 쪼깨이(조금) 주고,

"이 소원이 뭐고?"

하니까는, 그래 마,

"남자하고 살고 싶고 자고 싶은 거."

이라이꺼네,

"그래, 원대로 내가 해 준다."

캄서러, 이놈을 마 쌀 독아지 안에 쌀도 없고 영감 꼬치가 한거썩 들었고, [웃음] 아침밥을 해 놔도 마 솥에 영감 꼬치가 한거썩 들어 있고. [일동 웃음] 마 마 오만 데 가는 데마다 마 전부 다 영감 꼬치가. [일동 웃음]

그런 이야기를 우리 들은 적 있고예. [조사자: 그런께 그래가 어쨌는고?] 그래가지고 그래 인자 마 절에 가서 인자 그 절을 찾아가가 빌었다 하대예.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고 열심히 살겠다."

고 기도로 하니까, 그래 말끔 없어지(없어져).

[명지동 설화 11]

좆총 때문에 호식 면하고 부자 된 사람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저 뭐꼬. 이래 마을에 그 산에 올라가면 무조건 마 호랭이가 다 자아묵는(잡아먹는) 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꾸 그 마을에 올라갔다 카모는 자아무뿌고 아무도 못 살아 나오는 거라예.

그래 인자 호랭이가 마, 진짜 호랭이 담푸가("덤프트럭같은 큰 호랑이가"의 뜻인 듯함) 살았어. 그런데 그래 언자 광고를 써 붙있는 기라. '우리 이 산에 뭣이 있어서 올라가는 사람마다 …….' 주로 남자들이 주로 많이 가고 이라는데, 그래 참 이상해서 그래 마 광고를 써붙이니까 마, '나도 그래 방방, 돈을 많이 주. 평생 묵고 살만치 줄 낀꺼네, 저 산에 올라가도 살아 내리 올 수 있는, 그런 그거로 알고 내리 오고, 가모 안 죽고 살아 내리 오는 사람을 그런 상을 주겠다.' 안자 이래 딱 그걸 해논게, 마 사람이 마 줄줄이 오는 기라. 돈 벌이가 평생 묵고 살라고. 오는데, 가몬 다 다 자아믹히고(잡아먹혀서) 안 오는 기라.

그래 마 어느 고을에 간 큰 넘이 광고를 보고 떡 인자 올라갔는 기라. '뭣이 있어서 이래

사람을 다 자아묵고, 여서 살아나가기만 나가면 지 평생 살 거는 걱정이 없는데, 에라지 내가 연구를 함 해보자.' 인자 간 크고 참 유명했던 젊은 아저씬데.

그래 인자 가마이 이래 보인께네, 별로 뭣도 없는데 넙덕한 방구가(바위가) 언자 한 개 있고, 저 짝에서는 언자 큰 이거만한 낯이 이거만한 호랭이가 딱 앉아 있는 기라. [웃음] 방구, 방구는 언자 이래 넙덕한 기 하나 있고, 쫌 높으게 이래 된 기 우가(위가) 넙덕한 기 이래 하나 있고, 그래 인자 그 우 올라가서로, '뭐시 이래 자아묵는공?' 싶어 보이께네, 낯이 익은 이거만한 호랭이가 떡 보고 있거든.

'아아 저기 날로 자아묵구나.' 그래서 인자 '이거 어찌 해야 되겠노.' 싶어서 살 이래 이 앞에 둘러보이께네, 쪼깨난 이래 오두매이가(오두막이) 한 개 있는데, 거 언자 살 오줌 누러 가는 치(척) 하고 살 내려가이께네, 호랭이가 보기만 보지 안즉(아직) 오지는 안 하거든. 그래서 그래 이래 디다(들여다) 보이, 보한 할매가 한 개 이래 딱 앉아가지고 담뱃대로가 요래 앉아 있는데, 그래,

"어르신. 요 산 제가 얼매나 오래 됩니꺼?"

카이께네,

"아, 나는 여서 수십 년 산다. 수십 년 사는데 그래 거 여 오면 죽는데 와 왔노? 여 가서 여 와서 살아나간 사람이 없는데, 내한테 오는 사람도 없는데, 거 참 이상하다."

그래 인자 생각을 탁 이래 하다가 보인까네, 이 남자가 연구가 났는 기라. 그래가지고,

"가만(잠깐) 할마이 내 따라 좀 얖에 오몬 어떻겠노? 당신은 안 자아묵는다 아이가?"

이라이께네,

"그래 갈 수도 있지."

그 할매는 호랭이가 안 자아묵는 기라. [조사자: 와 안 잡아묵는고?] 모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산신령이 하도 자아무우싸이 요술로 부렸는가 모르겠고. 그래 그 할매가 인자 그 반석 우에 있는데, 얖에 그게 인자 떡 아가(와서) 앉아 있는데, 호랭이가 안자 밤이 될라 카이케네 오더랍니다. 안 어덥아서(어두워서) 옸는데 자아물라고 입을 딱 이래 벌리고 인자 오늘 자아묵는다고 [웃으며] 인자 이래 있는데, 그래 마 이 남자가 마 할매도 거 있고 힘도 좀 나고 이래서 마 그 방구 우에 거 납딱한 데 거 올라가가지고 마 호랭이가 살살 걸어오는데 마 오줌을 마 하늘로 보고, [웃음] 아랫도리 탁 벗고 마 오줌을 마 요래가지고, 착 되게 인자 오래 참았다가 되게 매렵을(마려울) 적에 마 시기(세차게) 누이꺼네 마, 비매꾸로(비처럼) 마 찰찰 내리오거든. [조사자 웃음]

그라이꺼네 호랭이가 할매하고 통하는 기라.

"할매. 저기 뭐고? 저기 뭐고? 뭣이 저렇게 저리, 입 떨어진 그런 거로 여러 수백 명 자아무도 안 봤는데."

[조사자: 뭣이 비같은 기.] 요른 기 요른 기. 막 방울이 톡톡톡 높으게 쏘모 방울이 안 나오는교? [일동 웃음] 그래 인자 쏘니까, 할매가 이 앞에 앉아인디,

"저기 뭐고?"

카이께네,

“내 안다. 갤차(가르쳐) 주까?”

호랭이를 보고 그래.

“응.”

카이껜,

“그래 그기, 저게 니 안 봤재?”

카이, 호랭이가,

“응. 난 안 봤다. 난 처음 봤다. 그래서 저래 내 안 자아묵고 보고 있는데.”

“그기가 좇총이라 카는 긴데. 좇총이라 카는 긴데. [웃으며] 어, 좇총이라 카는 긴데 니 한 번 볼래? 봐 바라.”

캄서 할마이가 마 아랫도리로 벗고 마 이래 하이껜, 엇비스듬하이 해가지고 마 또 그기 있는 돌멩이 요 앉아가지고,

“한 봐 바라. 내가 백 년 전에 저 좇총에 맞아가지고, [청중: 좇총에 맞아가지고.] [일동 웃음] 저 좇총에 [웃음] 맞아가지고 이째까지(이때까지) 안 아물고 이래 만날 물이 질질 나오고 썩어가지고, [일동 웃음] [조사자: 구멍이 뚫있는데.] 그러이꺼네 이 좇총한테 맞으모 죽도 안 하고 니도 썩는다이. [일동 웃음] 함부로 자아묵지 마라.”

그래 마 호랭이가,

“그런 기 다 있었는가베?”

마 가뿌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인자 살아 내리 와가지고, 그 산신령이겠지 할매가. 그래 가지고 인자 할매가 마 그 사람을 살맀어. 그기 머리가 좋으니까 인자 할매한테 물어봤고, 또 인자 할매가 도와줬고 그런 일이 있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은 다시 산을, 산을 내리 가가지고, 그 그거 인자 이래 계약핸 돈을 받아가지고. 머리 그 정도 좋으몬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명지동 설화 12]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정자(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아들이 뭐 어데 뭐 돈 벌러 갔다 카든가 이렇는데. 그래 인자 살림은 없고, 시어머니가 참 고기도 못 사주고 맨날 천날 밥만 얄구지(얄궂게) 시락밥을 해가 미이는데(먹이는데), 그래 몸이 아파 누우가(누워서) 있는데.

그래 인자 뭐로 인자 메느리가 호성이(효성이) 지극한데, 돈이 없어 고기는 몬 사주고 호매이로(호미로) 가지고 인자 꺼시로(지렁이를) 파가지고 삶아주는 기라.

그래 꺼시 그기 약, 보약이라 하대예. [청중: 그기 보약이지.] 그러이께네 인자 그거로 가 삶아주는데, 마 무보이 마 너무 맛있고, 마 할매가 마 보하이 해가지고, 마 다시 다부 살이가 되가지고 잘 살아나는데.

[말을 바꾸어] 내가 안경을 씌고, 안 씌고 와가 눈이 얄궂다. 그래가지고 아들 오모 인자 이 맛있는 이 고기가 뭣인고 뵐라고, 눈도 어덥은(어두운) 봉산데, 할매가. 그래 인자 샅자리 밑에다가 그거로 한 마리 껀지가(건져서) 옇어 놨는데, 그래 그기 인자 말라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왔는데, 그래,

"이거로, 야야. 내가 니 없을 적에 이거로 묵고 이래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기 뭐고?"

카이 꺼시거든. 내나 땅꺼시 고기 낚는. [조사자: 응. 꺼시, 지랭이. 지랭이.] 예. 지렁이. 그래가지고 마 저그 엄마를 갖다가 거 꺼시 잡아 믹있다고 마 억수로 난리가 나이, 소문이 나가지고 메느리로 잡으러 왔는데, 꺼시 믹있다고. 그래 나라님이 꺼시는 보약이라고 상을 되려(도리어) 주더랍니다.

[명지동 설화 13]

며느리의 방귀 힘

홍두리(여, 1924년생) 구술
2014년 2월 21일 채록
[명지동 순아1구마을회관]

그래 메느리가 하도 얼굴이 노래서러, 안자 시아바시 되는 사람이,

"와 메느리가 와 얼굴이 노랗노?"

그라이께,

"아이고. 지가 방구를 몬 껴서 그렇다."

이카거든. 그럼,

"그렀음 야야 끼라."

이카거든. 그래 놔노이,

"아버님 그렇거들랑 뒤에 가서 집 잡으라."

카거든. 그래 뒤에 집을 잡으이꺼네, 방구를 앞에서 낀게 집이, 집이 마 융 넘어가뿌더라카네. [일동 웃음] 그래가지고 또 뒤에 가서,

"아버님. 앞에 가 쪽 잡으이소."

카이, 앞에 가서 잡으이, 뒤에서 뀌니 딱 바로 서더라요.

[명지동 설화 14]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

강병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아나 꽂감 꽂감 그라니까, 꽂감을 아이를 주니까, 그 꽂감 소리에 아가 울음을 뚝 끄칬어.

끄치니까 그 인자 호랑이가, '와 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구나!' 싶어서 호랑이가 도망갔다 안 하대요.

[명지동 설화 15]

꼬부랑 이야기

강병이(여, 1940년생) 구술
2014년 2월 20일 채록
[명지동 진목마을 진목경로당]

지팽이로 짚고 꼬꾸랑 나무에 올라 꼬꾸랑 똥을 눈께, 꼬꾸랑 개가 와서 꼬꾸랑 똥을 주문께(주워서 먹으니까), 꼬꾸랑 짝대기로 꼬꾸랑 개를 때려준께,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하고 가뿠다 하대.

[다시 반복하여] 꼬꾸랑 할머니가 꼬꾸랑 길을가다가 꼬꾸랑 똥이 누럽아서(누고 싶어서) 꼬꾸랑 나무에 올라가 꼬무랑 똥을 누니까 꼬꾸랑 개가 와서 꼬꾸랑 똥을 주문께, 꼬꾸랑 짝대기로 꼬꾸랑 개를 때려준께 꼬꾸랑 깽깽 꼬꾸랑 깽깽 하고 가뿠다 합니더.

6. 천가동(현 가덕도동) 설화

[천가동 설화 1]

날개가 나서 날라 간 아기장수

권덕선(여, 192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옛날에 이가들 집에서러 그런 장수가 생겨가지고, 인자 방에서, 방에서 그래 날개로 그래 틀고 나가는 바람에 그래 알았답니더.

거 거 장수가. 여기서 장수가 많이 났어예. [조사자: 옛날에.] 옛날에 났답니다. [조사자: 그러모 태어나자마자 날개가 어데 달맀든교?] 날개가 달리가지고, 그래 인자 엄마 들어 가보니까, 날개를 치고 온 방에서 이라다가 문을 여이까 고만 날라 나가더라 카대.

[천가동 설화 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

권덕선(여, 192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고려장으는, 저게 그래 인자 [청중: 아들하고.] 아들하고 손지하고, 짊어지고 아바이가 가고. 손지는 뒤따라오고. 그래 가는데 가가지고 인자 큰 굴로 파놓고, 옛날에는 굴로 파놓고 안을 옇는다 카네.

이런데, 옇을 때 그에 하녀가 따라간다 카네. 그 쌀로 한 말로 가 가모는(가면) 그 굴 안에서러 한 말 묵도록까지는 살아계신다 카네.

그래 인자 그 놈을 갖다가 인자 캐서 하인을 덱고(데리고) 가서 그래 할매를 옇어 놓고, 그래 인자 지기로(지게로) 저게 내삐릴라 카이꺼네, 그 지게를 저거 아부지가 내삐릴라 카니까, 손지가 그 지게로 가(가지고) 올라 카더라요.

"왜 가 올라 카? 이거 말라고(뭐 할려고) 내삐리는 기다."

카이께,

"나도 이 지게로 가 가가지고 우리 아부지가 팔십, 칠십만 되몬 지고 올라와야 된다고."

[천가동 설화 3]

명나라를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 준 고려장 한 노모

권덕선(여, 192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아무리 멍청이같에도 영리하더랍니더. 그래 인자 굴에다가 옇었는데, 그 인자 명나라서러 이리 치고 인자 태근쯤(지금쯤) 전장을(전쟁을) 치고 둘올(들어올) 긴데, 가만 저그 아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둘올 긴데 막을 수가 없는 기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아무리 생각타가 안 돼가지고 어마이한테 물으러, 굴에 옇어 났는데 인자, 물으러 갔더랍니더. 물으러 가인께, 안죽꺼정(아직까지) 살아계시더랍니더. 뭐 쌀로 한 말로 무야(먹어야) 마, 묵으몬 안 죽거든.

그래서 가서,

"어머이 이만저만하고 저 명나라서 치고 들오는데 톡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더."

이러 카이께,

"그거로 몬 막나. 초를 많이 사라."

카더랍니더. 초를.

"초를 사가지고 쪽 옴서 줄로 치고 불로 캐라."

카더라, 불로. 그 사람 치고 들오는 데로 불로 줄로 지고 켜라 카이, 불로 캐놔노인께네, 명나라도 몬 쳐들어 들오더랍니더. 그걸 보고 겁을 내서로 명나라에서 가삐리고. 그러이꺼네 여자가 암만 멍청이라도 꾀가 많애요. 거 그런 꾀로 그래 아들한테 시키더랍니더. 그래가 이 깄, 그 그 나라에 자기가 이겼더랍니더.

[천가동 설화 4]

단칸방에서 나누는 사랑

권덕선(여, 192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한 방에서 자이, 아들이가 그 뭐 아방들이 아, 아가 설라 카모는 똑 뭐 아는 거다 아이가.

[조사자: 그렇지.] 남자는 마 너구리 아이가. 늑대 한 가지 아이가. 이래 노이까네 이전에 농채도 이리 이리 놓고 안 있나? [청중: 초갓집에 농채가.] 농채가 초가집에 요래 있거든. 있는데, 아무리 생긱키도 저 할맘한테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쭉 누우노이께네(누워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기라.

'어데로 가가지고 이기 내가 할맘을 저거로 오늘밤에 조지겠노' 싶은데, [웃음] 몬 조지고 아무리 해도 생각을 해도 몬 가겠어. 아들 머리 우로 해서 그 농쩍 밑으로 드가이, 농채를 들어삐놔 노인께 농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다 깨삤네.

[천가동 설화 5]

잘못 찾아온 저승사자

권덕선(여, 192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사자가 딴 데로 사가 가몬, 그 사람이 그 사던 사람이가 죽을 때가 됐으모는 더불로(데리러) 오몬, 그 사는 사람을 갖다가 그거 있더라. 있는 거는 내가 그건 젊은(겪은) 사람이고, 저 저 저 여게 동선리 살다가 성북리로 갔는데, 그 사람이가 자기는 또 성북리로 살아도 집을 지가 나오고, 오두막을 나오고. 우리는 또 그 집을 사가 드갔는데.

한 날 꿈에, 꿈이러 눈을 감고 이래 자는데, 뭣이 시커먼 기 한 놈이가 들어오더마는, 보이 한 놈은 배껕에(밖에) 있고, 한 놈이 이만한 방맹이로 하나 들었어. 그게 하나도 잊어삐지를 안 한다. 두 차례로 때리더라고, 궁딩이로.

"와이고 왜 때리노?"

막 잘겁을(기겁을) 하겠더라고. 그래 그 인자 내가 우째 답을 했노 카모,

"우째서 날로 때리노?"

그거 내가 그래가 말을 하니까,

"니가 아무개 아이가?"

이래 말하는, 세 차례로 그리 때릴라 카는데, 그 그 아지매 이름을 내가 알았는 기라. 그때 당시 알아가지고,

"아, 그 사람 이 밑에 사는데 니가 뭐 할러(하려고) 날로 때리노?"

이러 카이께,

"참말로 그렇나?"

묻더라고.

"그렇다."

이라이께, 그 사람이 이름을 내가 대주이께 가는 기라. 아측에(아침에) 내나 고장 수무말이다. 죽었다 아이가. 아측에 내 나가이께 죽었다. 내가 두 차리를 맞았다. 그 만날 내 그 생각한다.

[천가동 설화 6]

귀신이 무서워 장사를 그만 둔 사람

권덕선(여, 192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변소가 큰 기(것이) 있거든. 변소가 큰 기 있다. 고게는 가모, 그 거서 인자 만약에 저기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고서(거기서) 내리가, 또 우리 장사한다고 그래 오모, 고기 오면 딱 나오거든. 탁 보따리 요만한 거로 요 딱 찌고 젊은 여자가 딱 나오모 앞에 딱 서거든. 뒤에 오는, 우리는 가모 둘이서 오거든. 장사를 둘이서 가가지고 오는데, 내가 앞에, 똑 날로 앞에 서라캐, 요것들이.

그 인자 지는 뒤에 오고 이란데, 요게 앞에 딱 서이께, 그때 상님이 지가 십겁했다. 그래가지고 날로 보고 이라이,

"저저저 태근 뭣이 있다."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 와!"

이러 카고, 지는 뒤에 오고 내가 앞에 이래 가고, 앞에 가고 이라는데. 세상 그거를 몬쩐디 가지고(못 견뎌가지고) 이 사람들이 떠밀어가지고 거머쥐고 흔, 이래가 가마로 타다가 남아가지고 들고 이래 이고 오는데, 막 주 흔들어가지고 엎질라가지고 세상에 이래 놓고, 횃불로 보는 기 아이라 사람이 젊은 여자가 하나 섰거든. 지도 눈에 쫌 뵈던 모냥이라.

이래가 고마 날로 흔들어가 엎어삐리고, 그때 그 저저저 거 뭣이고? 고기 집이 있었다. 그 뭣이고 죽은 사람 안 있나 그게 와? 흠 점방(店房, 가게) 하고 할 때다. 아 마 그리 다 가삤는 기라. 지는 가삐리고. 그래가 거기서 가만 요래가 날로 보이께, 그 둑이 터졌거든 그때. 둑이 터져가 있는데, 세상 그 놈을 아까배가지고(아까워서) 주 담아가지고 내가 와야 되는 기라. 그 놈을 다 주 담아가지고 디비(뒤집어) 씨고(쓰고) 오이꺼네, 저그가 거서 보이께네 앞에 섰더란다.

그런데 그 둑이 터지고 요만치 남안(남은) 데가 있었거든. 고게 내가 올라 딱 서이께, 싹 비키더라고. 비키 가더란 말이다. 뒤로, 뒤로 딱 가고 나는 이고 이래 왔는데. 세상에 사람을

이 가덕꺼정 둘와야(들어와야) 우리 집을 둘올 거 아이가? 사람을 붙잡고 흔드는 대로 사람 죽을 판 아이가?

오이까네, 요요요 고장 저저저 밭 있제? 거게 오이까, 과수원 오이께네, 또 딸아, 딸아가 하나 딱 나서더라고. 고 있거든. 내가 있는 줄, 고거는 내가 맨날 만나뵈서 알거든. 딸아가 딱 단발로 하고 딱 나오더라고. 나오이께 이기 그마 또 주 흔들어서 사람을 마마마마 해가지고,

"인자는 니 따라 절대로 장사하러 안 갈 기라."

카더라. 그라고 장사를 안 했다. 말았다.

[천가동 설화 7]

제삿밥을 못 먹은 귀신(1)

이정년(여, 1941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경로당]

지사를(제사를) 안 지냈어예. 안 지냈는데, 예 안 지냈는데, 그래 저거 엄마가, 저거 할아버지가 그래 가게 와가지고,

"그래 아무개 아야, 아무개야. 우리 저저저 집에는 와 오늘 대입장인데, 와 오늘 제사로 안 지내더노?"

카이께,

"그래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래 내리오이께네 제사로 안 지내더라."

카는 거라. [청중: 그 말이 있더라.] 그랬어예. 예 그래가지고 그 가게 인자 와가지고, 인자 그 가게 할아부지 가게 물건을 파는데 거게서 빵을 두 개로 사가지고예, 빵을 두 개를 사가지고, 그래 인자 그 할아부지가 낯서로예(낯을 보아서) 빵을 두 개 주이꺼네 사람이 없더라 카대예.

[천가동 설화 8]

며느리의 방귀 힘

최정숙(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2통(성북동 성북마을) 성북노인정]

옛날에 어는 참 시골에 그래 메느리로 봤더마는, 메느리로 봤는데, 시아버지가 보니까 그 메느리가 얼굴이 자꾸 노래지는 거라예. 그래,

"야야, 아가야. 왜 니 얼굴이 그렇게 노래지느냐?"

이러 카이꺼네,

"아버님, 저가 방구를 못 끼서 그렇습니다."

이러 카거든.

"아이고 야야. 날라가는 방군에 왜 몬 끼노. 끼라."

이러 카거든. 그라니까,

"아이고, 아버님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내가 끼이겠습니다."

이러 카거든.

"오냐."

"그러면 아버님 저 삼 칸."

옛날 초가삼칸 아입니까 그지예?

"저 쪽에 가서 지둥을(기둥을) 잡으이소."

이러 카더라 카는 기라. [청중 웃음] 그래 기둥은 인자 시아버지하고 모두 신랑하고 잡고 있으이께네, 이쪽에서 방구를 끼이꺼네, 마 집이 마 기울어지거든예. [웃으며] 그러이까네, [청중: 사우하고 메느리하고 다 날라갔다.] 잡아가 있다가 한단 말이,

"아부님, 내가 그쪽에 가서 낄 테니까 이쪽에 와서 잡으이소."

이러 카거든. 그래 인자 그쪽 기울어진 데 가서 잡으이께네, 잡아가지고 끼이께네, '붕~ 붕~' 끼이꺼네, 이 마 집이 마 딱 빠딱 서뿌는 기라. 딱 서는데, 또 또 한 방 더 끼뿌니까, 또 시아부지하고 시어무니하고 있는데 고마 또 이래 기울어지는 기라. 그런 시아부지 시어무니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마 이쪽에 '붕~' 하이 저리 지울어지고, 이쪽에 '붕~' 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이라거든. 그래 마 시아버지 이래 가 여 갔다 저 갔다 감당을 못할 판이라. 그래서,

"하이구 야야, 젊으이야. 인자 고만 끼라."

그라시더랍니더.

[천가동 설화 9]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최정숙(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2통(성북동 성북마을) 성북노인정]

옛날에 거 참 시집을 오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거 저게 눈이 참 시어머니가 봉사라예. 그러니까 인자 신랑이 돈 벌이러 가민서,

"그래. 어머니 봉양 잘해라. 내 올 때까지."

이러 카고 집을 떠났는데, 봉양하라 캐도 보리쌀 한 도구이도 없고. 보리밥을 해가지고 줄라 캐도, 죽을 끼리다 줄라 캐도 아무 것도 없는 거라예. 그러니까 참 이 메느리가, 개 보리밥을 묵고 똥 누면 그냥 보리쌀 그냥 나오잖애. 소화 안 되고. 그래 그놈 개똥을 줃어다가(주워서) 살 소쿠리 담아가지고 살랑살랑 살랑 씻어가지고 그래 그거를 죽을 끼라가지고(끓여가지고) 시어머니를 하루 세 끼 드리고.

그래 봉양을 하라 카는데, 아무 것도 할 기 없는데. 그래 수채 이래 가면은 이래 파내면 지렁이가 많이 안 나옵니까? 굵은 지렁이 안 나옵니까? [조사자: 거시라 하지예.] 예. 그래 그 지렁이를 가와가지고(가져 와서) 소금에다 싹 미꾸라지 씩듯이(씻듯이) 씩어가지고 그래 폭 삶는 거라예. 뭐 옛날에 기름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이꺼네 아무 것도 칠 안 해도 고마 그거로 가지고 폭 삶으니까 기름이 동동 뜸서 보하이 이렇거든예.

그래 그걸 시어머니로, 그래도 이 메느리가 '안 묵는, 땅에 기(기어) 댕기는 짐승을, 눈 멀다고 어머니 드리고 하면 내가 그 죄를 어떻게 받을까?' 이래 싶어서 그 개똥을 눟는 그 보리쌀을 죽을 끼려도 자기부텅 먼저 한 숟가락 묵고, 묵고 시어머니 봉양하고. 그 거시를 지렁이를 캐다가 삶아가지고 그 국물 보하이 기름이 동동 떠도 '이거를 몬 묵는 아무도 안 묵는 짐승을 갖다가 내가 어머니 주면 이것도 죄악을 받을 거 아이냐.' 이래 싶어서 자기가 한 숟가락 떠묵고 또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이꺼네,

"하이구 야야. 이 고기가 무신 고기가 이렇게 꼬시고 맛있노?"

이람서, 지렁이가 이래 이래 지단하이(기다랗게) 동동 뜨이 껀지가지고, 옛날에는 다 삺자리(돗자리) 밑이잖아요? 삺자리 밑에 옇어 놓는 거야. 아들 오면 줄 거라고. 인자 여 또 옇어 놓고. 그러며는 그것도 한 때 두 때지 자꾸 할 수 없고, 그래 어데 지내가다가 넘의 집에 강아지가 이렇게 나아가지고(낳아서) 뽈뽈 안 기(기어) 나옵니꺼 그지예? 그라면은 아무도 모르게 치마 속에 탁 파묻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싹싹 씻거가지고 직이가지고 씻거가지고 껍질을 빗기도 안 하고 털도 뽑도 안 하고 그냥 폭 삶는 거라예. 예, 그냥 자루겉은 데 인자 보자기겉은 데 싸가지고 폭 삶으면은 그것도 국물이 보할 거 아입니까? 그람 그것도 자기가 먼저 떠 묵어보고, 그래 시어머니 주고.

"하이구 야야. 이 무신 고긴데 이렇게 구시노?"

개가, 강아지 삶아 왔으이 얼마나 구실 겁니까?

"아이고 맛있다."

카민서, 그것도 인자 그래 예 삺자리 껍질 채로 인자 아들 오면 줄 끼라고 이렇게 넣어놓고, 그라다가 인자 세월이 가서 아들이 돈을 벌이가지고 인자 이래 오는데, 마 똑 자기 엄마가 자기 갈 때 카마 뽀하이 해가이고 봉두각시 모양으로 마 얼굴도 보얗고 마 살이 쪄가 있거든예. 그래,

"하이구 엄마요. 우째 이래 얼굴이가 이래 좋습니꺼?"

이러 카이께,

"하이구 야야. 니가 원하이 너거 너거 마누래가 날로 어떻게 고기야 뭐야 이래 삶아주서 그래 묵고 내가 이래 살이 찌고 좋제. 그래 내 니 줄라고 내 여게 삽자리 밑에 옇어가지고 말랐는데 니 무봐라."

이러 카민서, 이 삽자리 밑에서 내주는데 강아지 털 있는 껍질, 지렁이 껍질, 그래,

"하이구, 엄마요. 이거로 자싰습니꺼? 지렁이고 강아지 묵도 못하는 껍지고 이렇네요."

이라 카이까네, 엄마가 놀래가,

"어? 어? 어?"

막 이라면서 고마 눈이 버쩍 떠지뿠는 기라. [조사자: 아이고. 심봉사 눈 뜨듯이?] 예. 그래 가지고 그 엄마가 눈을 떴다 카는 그런 이야기 있어.

[천가동 설화 10]

강피 훑을 팔자의 부인[매미 유래담]

최정숙(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2통(성북동 성북마을) 성북노인정]

참 아주 마 남산골, 아주 가난한 마 저게 옛날 서울에 남산골 카마 아주 가난한 선비들만 모이가 사는 곳이라예. 그래 남산골 거 인자 가난한 선비 집에 가가지고 사는데 나락도 없고 만날 가을 되몬 강피로 훑는 기라, 댕기면서. 그래 강피로 훑어가지고 마당에 쫙 널어놓고 또 훑으러 가모 남팬이(남편이) 앞에 요만한 판 있잖아요? 탁자 같은 거 놔놓고 맨날 글 공부만 하고 글만 읽지.

한 번 소나기가 되게 왔는데, 그 강피 훑는 저기 뭣입니꺼 방석이 둥둥둥둥 떠나가도예 방석이 떠나가뿌도, 그래 떠나가버리도예 그거 겉으도 안 보는 기라. 그러이꺼네 그거를 해가지고 와서 또 도구에 찌이가지고 밥을 해주다가 뭐 죽을 끼라주다가, 이렇게 남편을 봉양을 했는데. 아이 남편이 너무 하다 아입니꺼 그러지예? 여자가 강피 훑으러 가고 없으면 비가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채가지고 덮든가 그렇게 할 건데, 그냥 놔노이께 둥둥 떠가 다 떠내려가뿠는 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후회가,

"내가 아무리 살라고 애를 써도 당신하고는 몬 살겠다. 나 갈란다."

이러 카면서 그래 마 그 길로 가뿠는 기라. 보따리 싸고 그래 갔는데, 이 사람은 남자는 그 선비는 공부를 많이 잘 해가지고, 그래 서울 한양에 가서 과게를(과거를) 보고 암행어사가

됐는 거야.

암행어사가 되가지고 저그렁 저그렁 저그렁 저그렁 카매 나귀를 타고 이래 오는데, 거 타고 오는데, 가만 지는 또 그래 강피 훑다가 보이께네 과게로('가마를'이라 해야 할 말을 이렇게 함) 타고 오거든. 그래 보이께네 자기 남편이라. 얼마나 부러울 깁니꺼 그지예? 고생핸 거는 간 곳 없고. 그래가지고 인자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인제 부럽어서, 그래가지고 인자 막 막 낯을로(낯에) 거느리고 지내가거든예? 그래가지고 마 그래가 지내가민서 그 사람이 뭐라 카는 기 아이라,

"저기 있는 저 부인, 저기 있는 저 부인, 훑던 강피 다시 훑고 있네. 훑던 강피 다시 훑고 있네."

이래 카면서 지나가뿌리거든예. 자기 남편도 자기 부인 알겠지요. 그래나노이꺼네 인자 막 가뿌고나이꺼네 한단 말이, 인제 지나가고나이께네 얼마나 애걸할거요, 그러이께네 이제 나무에 올라갔어예.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남편 나귀 타고 가는 거 끝까지 볼 거라고 이렇게 넘어보다가 마 목이 딱 떨어졌뿠는 기라. 목이 떨어가지고 거기 매미 혼신이 되가지고 저 가며는 와 매미가 '맴맴맴맴' 예, 예, 매달리가 우는 매미. '맴맴맴' 서럽어러(서러워서) '맴' 하고 우는 매미가 있어요, 여름에 가면은. 그 매미의 혼신이 그 여자의 혼이답니다. 예 예 예 혼이랍니다. 예, 맴맴맴맴맴.

[천가동 설화 11]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

최정숙(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2통(성북동 성북마을) 성북노인정]

"그래, 큰 골짝 산을 올라가다가 가지가 뿌러졌어. 그래 이바구가 또굴또굴 구불거든."

이러 카모, 그럼 인자 우째 되가 싶어 막 듣고 싶어서,

"우째 됐는데? 할머니."

이러 카몬,

"야야. 아직 굴러간다." [일동 웃음]

그럼 또,

"할머니. 또 굴러가요?"

카이,

"아직 굴러간다. 멀었지."

이러 카거든. 그게 제일 긴 이야긴 거라. 자꾸 '굴러간다' 카니까.

[천가동 설화 12]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2)

최정숙(여, 1937년생) 구술
2014년 2월 10일 채록
[천가동 2통(성북동 성북마을) 성북노인정]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무니가 칠십 살이 되니까 그래 지게를 지고, 인자 할무니를 지게에 지고 산을 가는 거라예. 옛날에는 고래 해도 죽은 사람을 안 묻고, 이렇게 토굴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 한 달이나 뭐 얼마나 묵을 식량하고 이렇게 준대요. 주며는 거기서 할머니가 씻어가지고 죽을 끼라묵든(끓여 먹든) 밥을 해묵든 그라면, 그 무덤 밑에서 뜨물이 인자 새나오잖아. 그래 새나오면 고기 떨어지면 그 할머니가 죽었다. 할아버지가 죽었다 카는 걸 거기 나온다 카대예.

그런데 그래 인자, 요 아들이 인자 그 할매 지고 가는 아들이, 이래 저저 뭣입니꺼 지게로 지고 엄마를 지고 그래 가는데, 뒤에 아들이, 손지가 따라 갔는 거라예. 따라가이께네 가가지고 고래를 해놓고 그래 내리오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그 지게를 지고 내러오거든.

"야야. 그 지게를 왜 지고 내려오느냐? 버리지."

이러 카이꺼네,

"이걸 왜 버리요? 아버지가 칠십 살 되며는 내가 저 이 지게에 얹어가지고 갖다 버리야 안 됩니꺼?"

예. 그래 그때부텅 고래장이 없어졌다 그 말이 났어예.

[천가동 설화 13]

며느리 무안을 재치로 면하게 한 시어미니

김금순(여, 1936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천가동 6통(눌차동 항월마을) 항월노인정]

새댁인데예 새댁인데, 시집을 가이꺼네,

"오줌을 퍼라."

하더랍니더. 옛날에는 오줌동이를 이고 이랬거든예. 그래 오줌을 이고 가는데 뒤에는 신랑이 따라 오는가 장군을(똥장군을) 지고 오는 줄 알았더만은, 시아바지가 따라 왔어. 밭을 가

는데 그래 이래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이 방구가 끼고 짚아서(싶어서) 각시가 방구를 뽀옹 끼면서,

"당신 까잡소."

이라이,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가마이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시아바시거던예. 메느리가 미안해가지고 집에 와서 마 방에 딱 들어누운 기라예. 그러이까네 시아마시가 꾀가 많지예.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가요 보름은 귀가 밝고 보름은 귀가 어둡다."

이래 카이, 메느리가,

'하, 우리 시바아지 그먼 내 방구 끼는 소리, 내 그 까잡소 캔 소리 몬 들었는 갑다. 그람 내 일나야 되겠다' 카믄서 일나디 일로 하더랍니더. [웃음]

[천가동 설화 14]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1)

양이덕(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천가동 6통(눌차동 항월마을) 항월노인정]

해줄 기 없어서 수채 구녕을 파고, 호매이로 갖고 파이꺼네, 꺼시이가(지렁이가) 나와서러 꺼시기 그놈을 씻거갖고 물에다 살랑살랑 씻가갖고, 국을 끼리갖고, 세 번을 국을 끼리 가가 잡순께 눈을 뜨더라 카대.

[천가동 설화 15]

자식 죽인 죄로 벌 받은 어미

양이덕(여, 1931년생) 구술
2014년 2월 13일 채록
[천가동 6통(눌차동 항월마을) 항월노인정]

인자 남자가 인자 어사로 갔어예. 어사 출동을 하러 갔어예. 공부를 마이 배아갖고, 배아갖고 인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어사 출동을 갔는디, 아로(아이를) 인자 세 살로 묵어, 아가 세 살 묵는 기라. 아들인데, 그래 저 년이 그 아로, 저 여자가 아로 끌러놓고 도망을 갔으몬 될 긴데, 아로 문을 잠가놓고 가뿠어.

문을 잠가놓고 간께 아가 울다가 울다가 기가 넘어서 문꼬리를 잡아갖고 죽어뿠는 기야, 아가. 그래 인자 아가 죽어뿠는데, 그놈을 사또가 인자 와가지고 인자 어사 사또가 됐는디, 와가지고 인자 아 배를 땄는 기라예. 아 배를 따가가지고 거따(거기에다) 소금을 여가 딱 재렸어.

재려갖고 짚에다가 똘똘 요래 싸가지고 어사출동하몬 그 짊어진 거 그거 뭐 뭐꼬? [조사자: 배낭.] 예 짊어지는 거 거게다가 인자 배낭을 해가 짊어지고 인자, [조사자: 괴나리봇짐. 괴나리봇짐.] 예. 그것을 짊어지고 산산곡골로 이 이를터몬 인자 우리 조선 땅에 다 찾았어, 여자로. 여자를 다 찾아도 몬 찾았는 기라예. 찾다 찾다가 못 찾아서 인자하도 기가 차서 '내가 섬에나 한 번 가볼란다' 싶어서 인자 요원을 왔는 기라예. 요원을 옹께나,

"주인양반, 주인양반."

한께, '예' 이라고 나오더랍니다, 여자가.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여자라.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때는 그라몬 산밭(산과 밭) 전신을 다 댕길라 캐이 많이 안 늙었겠소? 사람도 늙었고 여자도 늙었고 이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여자더라 카는 기라.

그래 술집에서 술로 팜서 남자로 얻어가 사는 기라. 그래갖고 인자 아를 딱 끌러가 인자, 그날 저녁에 그 집서 인자 술로 묵고 그 집서 인자 주막에서 잤는 기라.

"내가 오늘 저녁에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겄다."

한께는 그 집 주인양반이,

"그래 자고 가라."

카더라요. 자고 가라 캐서 방을 하나 줄라 칸께, 작은 방을 하나 주서 군불로 때가 주더라 카네. 그래 인자 거기서 누 잤는데, 누 자고 인자 아직에(아침에) 떡 일난께(일어나니까) 밥을 채리다(차려서), 여자가 밥을 채리다 주더라 카네.

"그 당신 그게 쪼끔 있어 보시오."

이란께,

"내가 돈 계산해주께. 있으시오이."

여자로 보고 이랬는 기라. 그런데 여자가 서가 있는 기라. 서가 있은께 인자, 망태를 끌러갖고 아를 배게 줌서,

"아 이거 니 젖을 믹이갖고 깨나도록만 니가 젖을 믹이라. 젖을 믹이면은 내가 닐로 상을 주꾸마."

그라더랍니더. 그래갖고 그 아 그 죽은 아로 배로 따가지고 소금을 칠해 가갖는디 그 아가 우찌 살겠습니꺼 그지예? 그래갖고 그라몬,

"아가 이리 죽었는디 우찌 젖을 믹이노?"

이란께네,

"니 우찌 했든가 말았든가 이 아를 니가 살리몬 내가 닐로 살리주꾸마."

그런께는 살릴 수가 없는 기라. 아가 죽어뿌고 소금을 간했는디 우찌 살낌니꺼. 그래갖고 인자 할 수 없이 인자 저 쇳돌모탱이라고 있거든예. 거 가서 수군포로(삽을) 하나 얻어가더랍

니다. 그래갖고 딱 손을 줄로 갖고 딱 묶아 새끼라고 딱 묶아갖고 그때는 옛날이 되이 줄도 없지. 새끼라고 손을 묶아갖고 끄꼬(끌고) 가가지고 구데기로(구덩이를) 억수로 짚이(깊게) 파더랍니다. 구딩이를 짚이 파가 목안지 요거 마 빼쪼롬 하이 놔놓고 묻어뿌더라 카대. 그래 묻어뿌몬 거기서 요 핏줄이 통하로(통하지) 몬 해서 죽는다 카대예. 그래갖고 그 여자가 죽었다 카대예. [조사자: 아 그래 묻어가지고.] 예. 그래 묻어 그래 묻으몬 죽는다 카대. [조사자: 그렇지.] 예, 그래갖고 [청중: 여자로 묻는다고.] 여자로 그 인자 그 인자 자기 자석을 죽있은께는 직있은께는 지도 죽어야 안 되요? [조사자: 죄인이니까.] 예.

"니가 죄인이니께 죽어야 된다. 와 자석을 문을 끌러놓고 갔으몬은 자식이 그래도 어데 돌아댕김서 기댕김서람어도(기어 다니면서도) 얻어묵고 할 긴데, 와 자석을 직있는자?"

거기라. 그런께 그 원수 갚는 기라. 그 이바구는 내가 똑똑히 들었지예.

[천가동 설화 16]

총각바위 때문에 바람이 난 거제 처녀들

김복연(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바우 둘이)[3] 마주보고 이래 있는데, 사람겉이. [조사자: 어디, 어디예? 거제?] 여기 여 여기에. 예, 사람겉이 이래 딱 거게가(그렇게 해가) 있는데, [청중: 코바위라고 있었거든.] 그런데 코바우 끈티(끝에) 그, [조사자: 코바위라 그랬어요.] 총각바위, 처이바위가 있었다고예.

그래 있었는데. 그래 거기 딱 거제서 보몬 정면이더라 카는 기라. 거제 저서 보모. 그라께네 마 거제도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이상하게 바람이 나가 나가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래 어데 좋은 학자한테 그래 물어본께노, 그래 가덕섬에 어는 그게 돌아가는 바닷가에, 그게 저 저 총각바위 처이바위가 그 마주보고 있는데,

"그 바위로 하나 넘가삐리야(넘어뜨려야) 그거 저 거제 처자들이 바람이 안 나겄다."

그래 거기 전설이 내려아가지고(내려와서) 거제서 배를 타가 저 그 바위를 걸어 넘가삤다 안 합니까. 그서 한 개 떨어지삤어. 한 개는 있어도 한 개는 떨어지고 없다.

3) 미처 녹음하지 못한 부분이다.

[천가동 설화 17]

날개가 달린 아기장수

김복연(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그 아이가 날개가 나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로 정상으로 이래 글(그렇게) 안 놓고 애꾸리를(옆구리를) 떫고(뚫고) 나왔다 카는 거기 있거대. 그래 애꾸리를 떫고 나왔는데.

그래 저 아이가 밖에 나가 부모들이 소문을 이래 뻐뜨리나논게 그 모도 관에서 경찰서고 형사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그거로 아를 보러 와가 들어갔는데 아이가 없는기라예. 어드로(어디로) 가삤는고. 고래가 그 사람들이 와가 운장에 본 아이가 없으이께로 다 가삤다 아입니까. 가삐고 없는데, 가고 난 뒤 본께 저검마가(자기 엄마가) 본께 천장에 딱 붙어가 있더라 하대.

[조사자: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 날개가 있어노이 천장에 이래 딱 붙어가 있어서로. 그 사람들 안자, 만약 그 사람들 왔을 때 여 아 있으면 그 아 데꼬 가삐릿지예. 덕고(데리고) 가가지고 뭐 장수가 되든가 아니몬 무슨 그게가 해가지고 마 고래가 그 아이를 뭐 뭐 직일란가 살릴란가.

[천가동 설화 18]

은혜 갚은 두꺼비

김복연(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처녀가 바닷가에 이래 고마 그 쪼깨는(조그만) 갯마을에 살았는데, 그리 그 동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례가 그 재물로 여자들로 아가씨로 그 재물로 이래 바치는 기라. 그라모 이무기 거튼 기 와가지고 사람을 차고 가고 옛날 그래 그거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래 인자 거기 거기 돼가지고 그 인자 그 아가씨가 들어갈 재물이 돼가지고 바칠 차례가 됐다 아입니까. 그래 차리가(차례가) 됐는데, 아가씨로 바칠 그거 차리가 돼서 실고(싣고) 바닥을(바다를) 나갔는 거라예. 배 질러가 나가이께, 그래 그 아가씨가 인자 추마를(치마를) 둘러 씌고 물에 이래 툭 이래 빠진께네, 난데없는 그 뚜꺼비가, 지가 밥 무가 키안 뚜끼비 거기라예.

그 뚜꺼비가 물에서 푹 올라와가지고 그 아가씨를 딱 받았다 아입니까. 그래 받아가지고 어디론가 그거 했삤는데, 뱃사공도 모르고 선원도 모르게 뚜꺼비가 아가씨를 담아 싣고 헤나가삤다 아입니까.

[천가동 설화 19]

똑똑한 바보 형

김복연(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강원도 골짝에서 두 형제가 나무를 해가 팔아묵고 바보같이 이래가 살았는데, 낫 놓고 기역 자도 몰랐거든예? 그래 몰랐는데. 그래 한 날은 인자 지게목발을 울러메고 뚜드리고 나무하러 가는데, 가이께네 중간에 전봇대다가 '불조심'이래 써붙이 놨더래요. 그란께,

"형님아."

"응!"

"니 저거 글 무슨 글인고 아나?"

카인께,

"하이고 자석아. 그 글로 모르나?"

"나는, 난 못 배아서 모르겄다."

카인께, 아이 그거 '불조심' 써놨는데.

"전봇대라고 그 안 써놨나. [웃음] 전봇대라고 안 써놨나."

카이께,

"아, 형아. 니 어째 그래 아 글로 잘 아네?"

그래 또 노래를 하고 지게 뭐 뚜드리고 인자 산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가이께 또 인자 '산불조심' 이래 써놨는 기라. '산불조심.' 그래서,

"형아, 니 저것도 알것나?"

카이,

"그럼. 내가 아까 그것도 알았는데 이걸 모를거까."

이래.

"그러면 해라. 뭐꼬?"

카이께,

"하이고 자석아 자석아. 그거 '또 전봇대' 아이가." [일동 웃음]

또 전봇대 아이가. 그런께네 안 맞소? '산불조심' '또 전봇대' 아이가.

그래 마 또 이제 올라간다. 막 올라 가이께네 고로 가이께네 글자를 마이(많이) 써놨는 기라. '자나깨나 불조심' 이래 딱 써놨는 기라.

"하이고, 형아. 저거는 글이 많애서 애럽다(어렵다). 저거는 진짜로 니 모르것제?"

카이,

"에이 자석아. 그 다 읽은 내 저거 모를 것가?"

이란께, 그런께,

"그럼 형아 그건 뭣인고?"

"'가도가도 전봇대' 아이가." [일동 웃음]

[천가동 설화 20]

새 소리를 알아 듣는 사람

김복연(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저저 옛날에예 이 선부가 서울로 과거로 보러 갔다 아입니까? 그래 옛날에는 서울로 가모 그때는 거리가 멀고 과거 보러 가이께, 눈썹을 빼고 간다 안 했습니까? 그랬다 아입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그래 이래 그거를 짊어지고 바낭을 짊어지고 과거를 보러 산길로 해서 넘어가이께네, 그래 저 까마귀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저기 가는 선부님요. 여기 아서(와서) 볶아 무."

그래. 까마귀가 깍깍 우는 기 그 선부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기라예. 그래서러 인자 그 선부가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 헌장을(현장을), 그 과거를 가다가 헌장을 드다(들여다) 보러 갔다 아입니까? 그 곡을. 그래 가니까 사람이, 남자가 한 분이 이래 죽어가 있는 기라예. 그래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래 이래 샀는 중에, 뭐 요즘은 다 빠른 새지만, 옛날에는 그 어덥은 시절이 되나노이, 그래 이 아저씨가 과거 보러 가는 길에 그 까마귀 소리를 듣고, 거 가서 보이 사람이 죽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깁니까? 몬 하지예.

그래 참 노심초사 그 졑에(곁에) 앉아가지고 이래 근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이께네 사람이 행방불명이다 캐노이께, 뭐 경찰들, 수사관들이 나가 수사를, 수색을 해가 올라았겠지예? 그래 오다 그 현장에 고마 거 드다 보다 그 검거가 됐다 아입니까. 그래 살인자로 그 사람이 몰리가 가삤는 기라.

그래 갔는데, 그래 이 사람이 뭐냐 할 것 겉으모, 산 속에서 자기가 마음을 수양한다고 이

십 년 삼십 년을 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산에 우는 새 울음소리로 전부 다 자기가 가늠을 하고 기억을 하는 거라예. 그래서로 '내가 이기 무슨 까마귀 소릴 듣고 가가지고 내가 살인죄로 몰린다.' 카는 이거는, 과거 가는 길이 그 얼마나 그거 합니까? 과거 못 보고 인자 잽히(잡혀) 갔다 아입니까, 살인자로.

잽히 갔는데, 인자 공판을 하는 중이라예. 공판을 하는데, 그 말하자면 옛날에 고을에 원님, 사또님 이렇게 했다 아입니까? 요즘 겉으모 마 도지사니 검사니 국회위원 이렇지만, 옛날에는 고을 원님이 최고라. 안 그랬습니까? 그래 고을 원님이 그 살인자로 불러가 자기 앞에 인자 뭐 결박을 해가 묶아 놨겠지. 그래 안차(앉혀서) 놔놓고,

"그래서 어째서 니가 그래 그기에 가서 드다 봤노?"

카인께네, 그래 저 도사님, 그 저저 말하자몬 그 마을에 원님인데.

"원님, 저가 멫 십 년을 산 속에서 내 마음 수양한다고 살다가 보니 산 속에 있는 새들의 이름을 제가 전부 다 내 귀로 들으모 어떻게 운다 카는 거로 압니다."

그래. 그런께네 인자 그 사또님, 원님이,

"그라몬 내가 닐로(너를) 한 번 시범을 한 번 해본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거 그거 맹매이[4]라 카는 새가 있었어예. 맹매이라 카는 새가. 쪼그만한 맹매이라 카는 새가 있었어예. 그래 맹매이 새를 그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울모, 소리 나몬 그 할끼라고 조디를(주둥이를) 매가, 임금님 옛날에 도복이 안 이렇습니까, 도복 소매 안에 딱 여놔놓고. 그래 그 죄인하고 안차 놔놓고, 그래 그 인자 원님이 그 인자 맹매이라 카는 새로 그 에미 새로 잡아다가 거 놔았는 기라. 놔놓고 그래 인자 나무에 이래 앉아서 이래 울어싸인께네,

"그라몬 저 새가 어떻게 우는고 그거를 판단을 하모, 니가 살인죄를 면해 주고, 까마귀 소리로 듣고 갔다 카는 거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꾸마."

그래가지고 인자 그 맹매이를 잡아가지고 도복 소매에 이래 옇어가 딱 입을 묶아 놓으이 울지는 몬하고 이래 앉아 있는데, 그래 인자 그 맹매이 에미가 와서 막 울어싸인께네,

"그래 사또님, 저 맹매이가 '하늘겉은 사또님요 구름겉은 사또님이요. 와 내 죄 없는 맹매이 새끼로 잡아가지고 임금님 도복 소매 안에 옇어 놨습니까?' 그래 운다."

카는 기라예. 그래 이 저저 사램이 그래. 그래 저 저 원님이 무릎팍을 턱 침서,

"아하. 그래 자네가 새소리로 가늠한단 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이구나. 그래 까마귀 울음 소리 가가 범인이 됐는데, 오늘 이 맹매이 새끼로 잡아놓고 보이께나 확실히 새, 새 울음 소리로 니가 아는 사람이다. 그런께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캄서 그 사또가 그 맹매이 새끼로 그거로 해가지고 도사를, 그 저 저 서울 과거 가는 거 사람을 풀어주더랍니다.

4) 명매기. '명매기'는 귀제비라 하는 제빗과의 여름 철새.

[천가동 설화 21]

계시를 받아 산삼을 캔 사람

김복연(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삼을 캐로 갔는데, 캐로 가가지고 이래 짚은(깊은) 산속에 들어가 캐로 갔는데, 산삼을 캐러가 온 데 헤매고 다니는데, 배낭을 울러 메고 댕기는데, 자기가 소변이 하고 싶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래 어느 나무 밑에서 소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아이가 이래 뭐로 파고 그 엎드리서(엎드려서) 뭘 하더랍니다. 이래서로 지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 사람은. 그래가 이래 가서 졑에(곁에) 가가지고 이래 가이께네, 저게서 졑에 가이께, 그 자리에 딱 서이께, 아이가 간 곳이 없는 기라예. 간 곳이 없고 주위를 삥 둘러보이, '이상하다' 싶어 보이께네, 삼이, 삼대가 하나 그 딱 서가 있었는 기라. 그래가 그 아저씨가 그 산삼을 캐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아가 부자 됐다 안 카입디까(하지 않습디까)?

[천가동 설화 22]

큰사람인 줄 모르고 죽인 아기장수

박연이(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옛날에 인자 아주 다 양반들이 안 있었습니까이? 양반들 살 때에 그 한 집에 인자 자석이 귀하다가 아들로 나았는 거야. 아들로 나았는데 금이야 옥이야 인자 키우는데, 아가 우짜다가 젖을 믹일라꼬 밥을 하다가 들어와 보며는 아가 없어. 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요. 인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우짜다가 보몬 들어와 보몬 가만히 있어요. 아가 누워가 있어. 그럼 젖을 주고 이랬는데.

한 번은 보니까, 문꾸녕을 그 아 우째 되는고 볼라고, 문구녕을 이래가지고 보이께네, 아가 퍼리가(파리가) 돼뿌더라 카는 기라. [조사자: 예, 파리로.] 예, 파리가 돼뿠어. 마 천장에도 붙고 마 벼룩박에도 붙고 마 이라더랍니다. 그라더마는 또 인간이 돼가지고 탁 눕더라 카는 기라.

그래 그 부모가,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퍼리를 그 잡을라고 지작았는가봐요. 아를 직있는(죽인) 거지요이. 퍼리가 됐을 때에 그거로 가지고 퍼리채로 가지고 잡아가지고 마 직이뿠는 거야.

직이고 나이 뒷동산에서 호랭이가 우는데 마, 엄청난 고을이 째지도록 우더랍니다. 큰 큰 벼슬장내(벼슬을 할 사람) 갖다가 그만치 둔갑을 하는 아를 갖다가 고마 직이뿠는 거여. [조사자: 나중에 장수가 되고 큰사람이 될 긴데.] 예, 큰사람이 될건데. 그 그 아를 직이뿠다 아닙니까.

그라니 그 고을에서 마 그 말도 울고 범도 울고 그렇더랍니더. 고을이 째지도록 우더랍니더. 그래 그 아까운 자석을 직있다.

[천가동 설화 23]

저승 갔다 와서 적선하게 된 사람

박연이(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옛날에 아주 유복한 부자가 막 공장도 하고 잘 사는 거야. 잘 사는데 딸뿐이라. 딸이 서이뿐이라. 근대 마 고을로 차지로 하고 공장을 하고 사는데, 아 고마 한 문(한 번) 그 사장이 죽었뿠는 거요.

죽어서 인자 마 그 사장이 죽었으이 메칠 마 놔뚤(놓아 둘) 거 아닙니꺼. 한 일주일 놔뚰던가 봐. 인자 염꺼정 다 해냤는데 그 살아났뿠는 거요, 그 사람이, 인자 칠라꼬 하는데, 막 먼 소리가 나서 그 하니까 막 묶아난 기 툭툭 터지고 깨나더랍니다. 그래 깨나더마는 하는 말이,

"내가 저승을 가니까 온 천지에, 대항에서("대왕이 있는 곳에서"의 뜻인 듯함) 덕고(데리고) 댕긴데(다니는데), 이승서 몬 사는 사람 고방이 마이(많이) 있더랍니다."

고방이 막 총총들이 이래 있는데, 이 사람을 덕고(데리고) 댕기면서 고방 고방이 다 디다봐도 꽉꽉 찼는데, 이 사람은 고방이 없는 거야. 이승서만 인자 마 부자로 살았지 저승에 가몬 고방이 없는 거야. 이승서 지 잘산다고 아무것도 핸 일이 없어. 적신을(적선을) 핸 일이 없고, 없는 사람 밥 한 그릇 준 것도 없는 거요. 그러다가 보니까 고방이 딱 빘는 거야. 그래서 저승 대항에서 하는 말이가,

"니가 나가거라. 나가서 안중(아직) 니가 맹이(명이) 남았는데, 나가서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아무 데 아무 데 그 지금으로 치면은 용심골같은 저런 꼴작에(골짜기에) 아주 자석도 많고 몬 살아서 방아품을 들어가지고 묵고 살고, 칠로(칡을) 캐가지고 묵고 사는데, 손님들이 오면

은 저거는 아들도 긺기도(굶겨도) 그 방아품 들은 거로 죽이라도 한 그릇 믹이고, 칠이라도 캐서 삶아난 거를 믹이고, 물이라도 한 그릇 믹이는데, 그 사람들은 고방이 꽉 찼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로 더버다가(데려다가) 그래 너거 살림을 분배를 해라. 그래 하면은 너가 몇 십 년 살 기다."

하더랍니다. 그래가 깨나가지고 그 고을로 자기 죽었다가 죽어서 그 방 그 골로 가자 캐서 신구로 타고 갔답니더. 가이 마 산꼴작을 산꼴작을 가이까네 마, 머스마가 오글오글 했고, 아들이 마 할매들캉 오글오글 해가지고 참 몬 묵고 사더랍니다. 그래서 이 얼거럭 철거럭 가나 노이 직이러 오는가 싶어서,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겁을 내서 마 벌벌 떨거든예.

"겁도 내지 마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이 마을에 우리 집에 기경(구경) 하러 가자."카더랍니더, '아마 겁을 내가 직일까' 싶어가지고 몬 사이께네,

"몬 가라."

카는 거여.

"그러서나 내 말 듣고 아무 걱정하지 마고, 따라갔다가 요기 실어다 줄 긴께네 가자."

고. 그래 공구대로 실고 왔는 기라. 실고 와서 들어와보니까 저런 축담에 어찌 으리으리해서 신을 몬 벗겄더랍니다. 그래,

"몬 드가겄다."

고 주춤주춤하니,

"아무 상심도 하지 마고 벗어놓고 들오라."

하더랍니더. 들어 가보니까 마 차삼상을 억수로 채리 나놓고 마 대접을 참 잘 하더랍니다. 잘하면서 인자 저승 가서 그 들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저승을 가니까 이렇는데 그 꼴짝을 찾아가라 캐서 어른들 모시러 갔습니다. 갔으니까 나는 딸이 서이니까, 거기는 아들이 서이니까, 그라며는 인자 이 아들로 인자 큰딸로 줄라."

하더랍니다. 그집 큰 아들로. 그래 하자면 인자 한 집안이 안 됩니까. [조사자: 그렇지.] 그래가지고 인연을 맺어서 부부로 살아놓는 기 인자, 그람 지금 치며는 대상 들은 사우 아닙니까. 그라니까 인자 그 밑에 아들들도 와서 공장을 모두 일로 하고 하니까 마 떡 벌어지고, 고마 부자로 그 사람들이 사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오래 사더랍니다.

[천가동 설화 24]

죽어도 빚은 갚아야 한다

박연이(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옛날에 몬 살아가지고 그 이발하는 집에 가서 돈을 체(빌려서) 썼던가 봐요. [조사자: 이발하는 사람.] 예. 이발하는 사람 집에 가서 돈을 체 썼는데, 이 사람이 몬 갚고 죽었는 거야. 죽고 가니까는, 저승을 가이꺼나 그 돈을 몬 갚았다고 꼭 갚아주야 된다 하더랍니다. 안 갚으면은 저그 자손들이 다 몬 산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인자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꼭 그 집에 돈을 갚아 주라. 얼마 얼마다."

돈 계산까지 해주더랍니다.

"그래 해야 우리가 발복을 하고, 네 자식이 산다."

그라고 나서 인자 그 귀신이 잦아지고 없어예. 그 아들한테 일러주고. 그래 참 가서 찾아가가지고 돈을 갚으니까,

"참 고맙다고. 받을 길이 없었는데."

아부지하고 둘이만 이거로 계약을 해가지고 죽었으니까, 자석들이 모르고 뭐 아무 집안 사람 모르이 어데 가 받을 곳이 없다 아입니까. 너가배가(너의 아버지가) 돈 체 썼는데 내놔라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 그런 일도 있더랍니다.

[천가동 설화 25]

강피 훑는 어머니와 성공한 아들

박연이(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옛날에 그러 안 합디까, 공부를 시키는데 참 방아품을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게로(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가삤는 기라. 한양으로 갔는데, 그 아들을 보내놓고 묵고 살 기 없어서 들에 나가서 안자 갱피를 훑는 기라. 피, 나락 숨가 놓으몬 피.

그 갱피로 훑어싸니까, 막 가게를 해가지고 궁굼히 응그럭 철그럭 말로 타고 오는데, 겁을 내가지고 저게 쫓아가서 숨는다고 이라니, 그 아들이 보이께네 저검매라(자기 엄마라). 넘세시럽아서 울그럭 칠그럭 앞뒤로 막 차고 오는데, 엄마라 카겠습니꺼 뭐라 카겠습니꺼?

"저기 가는 저 할마시 갱피 훑는 저 할마시, 일월 해가 가거들랑 남산 밑을 찾아 오소."

카더랍니다. 남산 밑에 가몬 자기도 만낼 기라고.

[천가동 설화 26]

다리 털면 복 나간다

박연이(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또 인자 발로 와 몬 터라(털라) 캅니까? 다리로. [조사자: 복 나간다고.] 복 나간다고 몬 터라 카거든.

한 요부한(부유한) 집에 머슴이 한 개 가서, 그 집에 인자 머슴을 사는데, 한 가객이(과객이) 떡 그 집에 가서 하릿밤 자는데, 밤에 자는데 보니까, '이기 한 만석을 천석만석을 살겠는데 어데가 복이 없어서 저렇게 머슴을 사는고?' 싶어서 그날 밤에 그 머슴 젙에(곁에) 잤는 거요.

자니까, 밤새도록 발가지('다리'를 말함) 탈탈, 탈탈 털거든. [일동 웃음] 그래서 '에이 요놈 저놈의 발가지가 다 털어 내삐는구나.' 싶어서 마, '니야 우찌 되든가 마든가' 새복에(새벽에) 나움서, 도꾸로(도끼로) 한 개 가지고 가가지고 마 발가지로 마 탁 끊아뿐 거든. 탁 끊아뿌고 갔더마는 삼 년만에 가이 만석을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쨌거나 말간 발가지 이거 털지 마라 안 하는교.

[천가동 설화 27]

시주 잘 해서 부자 된 동생과 욕심 많은 형

박연이(여, 1925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마을할머니회관]

또 한 산중이나 아주 몬 사는 사램이 있는데, 형제간에 몬 살고 있는데, [말을 바꾸어] 아 큰집에는 쪼깨 잘 살고, 작은집에는 몬 살던 모양이요.

하리(하루) 마 신중이, 저 중이 스님이 이리 내려오더랍니다. 산에서. 내리와가지고,

"시주를 하라."

해요. 그 집에 와서, 방아품을 들어 묵고 사니까, 시주 줄 기 없는 거라. 좁쌀 방아품 들은 좁쌀로 쪼깨이(조금) 이래 갖다 옇어주이, 한 접시 갖다 옇어주이, 밑이 따져가지고 초로로 흘러뿌거든요. 그래 그 스님이, 대사가,

"재까치로(젖가락을) 줄라."

하더랍니더.

“이거로 한 개도 안 놔뚜고 주야 된다.”

하더랍니다.

“아이구 내가 더 떠다 줄께이카네 그마 가시소. 그거는 우리가 씰어가 우찌 하든가 할 긴께네 그마 가이소.”

카이,

“천하 없어도 안 된다.”

하더랍니다. 그래 그놈을 재까치로 가지고 줍고 앉았는 거라 삽작걸에서(대문 있는 곳에서). 고마 그래 저래 해가 졌는 거요이. 해가 지이 어두로(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잘 데가 없으니까 그라몬 저게 웃목에 자라.”

캤는 거요. 자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가,

“내가 한.”

[말을 바꾸어] 아 그러카면서 하는 말이,

“그 어데 짚을 한 오콤(움큼) 구할 수가 없느냐?”

이라거든예.

“아이구 우리 몬 사는 사람이, 부잣집은 천지지만은 가서 줄라 카면은 도둑질하러왔다고 주도 안 할 긴데 우짤까예.”

“가서 우쨋거나 사정을 해가지고 한 오콤만 얻어 오라.”

하더랍니다. 그래 가가지고 인자 그 대사 시킨 대로 한 오콤 얻어가 와서 갖다 놨디마는,

“자라.”

하더랍니다. 마 갖다 놓고. 새복에 나가면서 하는 말이가,

“내가 한 십리 밖에 가고 나거들랑 소도방을(솥뚜껑을) 한 번 열어보세요.”

하더랍니다.

그래 십리 밖에나 가고 나서 소도방을 여이(여니), 쌀밥이 하얗이 한 솥이, 자고나몬 한 솥, 자고나몬 한 솥. 그래 인자 천석만석이 안 불런(부러운) 거야 안자 뭐. 밥만 있으이께네 아무리 곤구가(식구가) 많애도 마 우쨌거나 자고 나몬 밥이 한 솥썩이다. 그기 인자 소문이 나이, 저 큰집에서, 밥 밥 저거는 굶도 않하는 사람인데,

“너거는 우째서 이래서 잘 살고, 자고 나몬 밥이 이래 이래 있고 하노?”

그래 만구 편는(편한) 거야. 그래,

“이만코 저만코 이런데, 대사가 와서 이래 해서 이렇게 거꾸러 줍고 앉았다가 해가 져서 자고 가면서, 그 짚으로 한 오쿰 구해다 줬디만은, 십리 밖에 가고 나거들랑 열어보라 캐서 보고 나이, 이렇게 방마다 날만 새민은(새면) 한 솥씩이다.”

그래가지고 이 연놈이 또 인자 욕심이 생기가지고 조사자: 흥부 놀부다.) 예. 매 한 가지라. 또 한 분 대사가 오거든예. 와서 인자 시주 줄라 카이 마 좋다고 반갑다고 한 접시 떠다 주이까네, 또 제까치 줄라고 앉자 줍거든예. 그만 또 해가 지이까는 저거 집에 자라 캤는 거라.

그래,

"저 짚을 어데 가서 한 오쿰 구해 오이소."

하거든. 그라이께네 가가지고 넘의 짚을 마 한 단만 쫄라가 왔는 기라, 웅치가 왔는 기라. 웅치다 갖다 놨는 기라. 많으면 더 좋을 기라고. 그래 인자 새복에 자고 가면서 하는 말이가,

"내 십리 밖에 가거들랑 그래 열어보라."

이라거든. [조사자: 솥뚜껑을 열어보라네.] 열어보이 똥이 소도락. [일동 웃음] [청중: 욕심을 너무 채았다.] 예. 자고 나몬 똥이 한 솥, 똥이 한 솥. 퍼다 내삐리께네 마 온 천지 똥이고. 마 도저히 그만치 사람이 욕심을 채리지 마라 하는 거라.

[천가동 설화 28]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3)

윤경애(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아들이, 손지가 그 할배를 지다 내삐리니까, 저가부지가(자기 아부지가) 따라 와가지고,

"아부지, 그 지게로 와 버리고 가노?"

이라이, 손지가 다부 가지고 내려오이께네,

"와. 이 니 말라고 지게 가(가져) 가노?"

한께네,

"나도 후지(후에) 아버지 니 늙으면 지다 내삘라 칸다."

그라더라요. [조사자: 그래가지고 안자 아.] 그기 고려장이 없어진 이얘기요.

[천가동 설화 29]

논을 떼어가는 도깨비

윤경애(여, 1934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토깨비 영감을 얻어나 노몬, 토깨비가 그 할맘이가 안 그거 하모는 토깨비가 그거 한다 안

합디꺼?

거 농사 지이가지고 할마이 다 묵고 아무 것도 안 주고 이라모는, 토깨비가 띠갈 거는 없고, 할맘 뺏들어가 잡아갈 수도 없고, 흘로(흙을) 양쪽 논 기기(그것을) 담아간다 안 하주요.

[천가동 설화 30]

고려장이 없어진 내력(4)

태금선(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2일 채록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고려장을 할낀데, 그 저 옛날에는 저저 우에서로 '그거 새끼로, 짚, 저 재 된 새끼로 꼬아가 올리라.' 이런 명령이 내렸어요. 저 우에서.

그래인꺼네 아무도 응대도 안 하는데, 한 집에 새끼 꼬안 그 짚으로 새끼, 꼬안 새끼로 때몬 영판로 새끼 꼬안겉이 쪼롯이 그양 있거든예. 그래 이런,

"그 마을에서는 이 저 뭐꼬 새끼 꼬안 거로 어떻게 발견해서 이래 했는고?"

이러 카이, 그래 제일 나 많은 할아버지가 몬 살아서, 그래 그거 고래장을 못 했는 기라예. 그게서 그런 인자 연구가 나가 칠십 고래장을 안 했다 이라대예.

[천가동 설화 31]

똑똑한 바보 형

강순선 (여, 1941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할머니경로당]

바보 두 형제가예, 인자 학교 갔다 와서로 인자 소 믹이러,

"야들아 인자 저그 엄마가 가서 소 풀 띠기고(뜯어 먹이고) 온나."

이라니까 바보 두 형제가 인자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소 꼬피(고삐) 돌리면서로 신나서 인자 소를 쫓아가 가는데, '불조심' 전봇대에 '불조심' 이라 딱 써놨거든예. 그렁께 동생이 있다가,

"형아, 니 저거 아나?"

이라니까, 모르 모르거든예. 글로 모르니까. 가만 또 동생이 생각, [말을 바꾸어] 아 형이 생각하니까 '에이 동생한테 모른다 카몬 내가 창피하고.' 가만 생각께네,

"아 맞다. 내 안다."

이라거든,

"그 뭐꼬? 뭐꼬? 형아 니 뭐꼬?"

이라거든,

"전봇대."

이라거든, [일동 웃음]

"전봇대."

이라거든, 이 또 쪼께 간께, '산불조심' 또 그래 써놨거든예. 전봇대에다가.

"형아, 니 저거 그라몬 저것도 니 아나?"

이라거든. 그런께,

"알지. 내 안다."

"진짜 아나? 진짜로 아나?"

이라거든, 그란께네,

"그래 안다. 또 전봇대."

이라거든. [일동 웃음] '또 전봇대' 이라거든, 또 저 간께네, '자나깨나 불조심' 딱 써놨거든. 아 바보라도 머리가 좋지예, 글자로 맞추니까.

"형아 니 저거 진짜로 아나?"

이라거든. 가만 생각핸께 전혀 모르겠거든예.

"진짜로 모르나? 형아 니 저거 알몬 우리 동네에서 최고다. 최고 똑똑하다. 진짜로 모르나?"

이란께, 가만 생각한께, 하 진짜 동생한테 창피하거든예, 모른다 카몬. 이죽지(이때까지) 알았는데, 야꾸 죽기는 싫고, 가만 생각하다,

"응. 안다."

"야 형아, 니 저거 알몬 우리 동네서 최고 똑똑하다. 최고다."

이라이,

"뭐꼬? 뭐꼬?"

이런께,

"가도가도 전봇대." [일동 웃음]

[천가동 설화 32]

욕쟁이 할머니의 손자

강순선 (여, 1941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할머니경로당]

어느 동네에 다섯 살 묵은 손주 머스마하고 욕쟁이 할머니하고 살았어예. 내 이거는 어디서 들었제? 욕쟁이 할무니하고 살았는데, 인자 하루는 인자 할무니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예. 손지는 집에 그냥 옆에 있고. 근데 할무니 친구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한께, 손지가 전화를 받았어. 긍께,

"너그 할무이 바까라."

이라니께네,

"아, 할무이 자빠져 자는대요, [일동 웃음] 자빠지 자는대요."

이란께,

"그래도 안 된다. 할무이가, 꼭 할매 바까가 무슨 할 이야가 있으니까, 할무이 바까 봐라."

"깨우면 지랄 할긴대요." [일동 웃음]

긍께,

"아이다 야야 바까 봐라. 할무이한테 할무니가 너거 할매한테 꼭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할무이 꼭 깨아갖고 바까 봐라."

이란께,

"헤헤, 깨우몬 개지랄 할긴데." [일동 웃음]

[천가동 설화 33]

지렁이국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한 며느리(2)

윤정옥(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할머니경로당]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뭐 신랑은 돈벌이를 가고 어째 했는데, 그 반찬은 내도록 메느리가 잘해주는 기라. '이기 먼공(무엇인가) 쫀득쫀득하이 맛이 있고 이래 이상하다. 이기 아들이 오믄 내가 함 물어봐야지' 이라고, 그걸 인자 그때는 샅자리 아님니까? 샅자리 밑에다 그걸 하

나 옇어놨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내도록 그 반찬을 해가 할매가, 언자 그 영감, 언자 눈 어두운 영감이 살이 찌고 이래 아들이 오이까네,

"하이고! 아부지."

이러이까네,

"하이고 야야, 애기가 이래 잘해주가지고 내가 살이 찌고 이래 맛있는 걸 때마당 이래 해 준다."

이라거든. 그이까,

"뭣을 그래 해줍디까?"

이라니까,

"모르겠다. 머시 맛있더라."

카믄서, 이래 샅자리 밑에서 내 놓는 기, 지렁이 말란 거, 그거 가 우째 요리를 해가 줬는가 봐. 그이까는 인자 아들이 있다가,

"아이구 아부지, 이거는 지렁입니더."

이러이까, 봉사가, 그 이야기라서 글치(그렇지) 지렁이랄 기 뭣이라 카는 기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렁입니더."

이라니까,

"지렁일 갖다 이걸 아부지가 자셨어요?"

이라니까,

"어! 지렁이라?"

이람서, 그 인자 아부지가 놀래가 눈이 번쩍 뗏! [웃음]

[천가동 설화 34]

꼬부랑 이야기

윤정옥(여, 1939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대항마을) 대항할머니경로당]

꼬부랑 개가 꼬부랑 똥을 눴는데, 그 꼬부랑 개가 와서 그 꼬부랑 똥을 먹었거든. 먹으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짝대기로 갖고 꼬부랑 개를 때렸어. 때리니까 꼬부랑 개가, 내두 꼬부랑이 자꾸 들어간께, 꼬부랑 개가 맞고는 꼬부랑 깽깽 꼬부랑 깽깽 그런 이야기지.

[천가동 설화 35]

제삿밥은 못 먹은 귀신(2)

고복연(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외양포마을) 외양포경로당]

지사를(제사를) 안 지내도 지사 때 되모는 그 혼이 온다 안 하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지사 때 되몬 그래 혼이 온답니다.

지주금(제각기) 인자 자석들은 지사를 안 잊아뿌고 다 하는데, 자석이 없이면은 뭐 사촌한테를 간다 카든가, 양자로 그해가(그렇게 해서) 보낸다 카든가 이래 하모는, 그 집에서러 잊아뿌가 안 지내는 수가 있다 하데예. 그래 하면은 그 혼이 이쪽 집에 저기 형지간 딸집에 와가 누나집으로 와가지고,

"그래 내가 배 고파 죽겠더라고. 가이 밥도 없고 이래 한다고."

그래 한다 하대예. [청중: 우리 숙모도 내 꿈에 나타나갖고 밥 안주 하면서. 하이구 배 고파 죽겠다고.] 그라이까네 그 사람들이 싹 가보이까네 그 집에 마 깜깜 소식이고 불 꺼놓고 누워 자더라요.

[천가동 설화 36]

바가지를 빌려달라는 해치

고복연(여, 1935년생) 구술
2014년 2월 11일 채록
[천가동 10통(대항동 외양포마을) 외양포경로당]

고 나가이까네, 그래 바가치로 빌리 줄라 캐서러. 이거를 주몬 물 떠가지고 배에다 물에 한 배 될 기고, 바가치 밑구녕을 빼가 줐다 이라데예.

밑구녕을 빼가 주면은 물로 뜨몬 밑에 이래 다 흘러뿐다 아닙니까. [조사자: 그래모 배가 괜찮다.] 바가치 밑구녕을 빼가 주면은 이래 뜨모는 물이 주루루 흘러뿌고 주루루 흘러뿌고 이라이까, 그래 한다 카더라.

Ⅱ. 기존 현장조사 설화

1. 김승찬 현장조사 설화
2. 박경수 현장조사 설화

1. 김승찬 현장조사 설화[5)]

1) 녹산동 설화

[녹산동 설화 1]

며느리 개오시킨 스님

구 술 자: 박이쁜(여, 8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지금은 사람이 다 내 부모를 잘 섬기어야 되는 기라. 그런데 이전 사람에 시어마씨로 옷도 옳기 헐벗기 놓고 밥도 옳기 잘 안 뮉이고 쳐박아놓고 며늘년이 절에 언쟈 아들 놓을라꼬 불공하러 떠억 간다.

며늘년이 막 쌀로 실코(씻고) 실코 해가 절로 가니, 절에 스님이 내리오거든.

"당신 어데 가요?"

"아이고, 내가 스님 절에 가서 내가 공을 드리가 아들 하나 놓을러 간다."

"당신 우리 절에 오지 마소. 오지 말고 그 쌀로 이고 온천지 댕기면 누구라도 신 꺼꿀로(거꾸로) 신고 나오면 그 사람을 잘 구완을 잘하면 아들 놓는다."

카거든. 이놈을 이고 아무리 댕기도 신 바로 신지, 꺼꿀로 신은 사람이 있나? 온 데 댕기도 없거든.

언쟈 시어마씨가 배가 고파가 며느리 언쟈 절에 가서 불공하면 내일 오지 싶어서 쌀로 한 가뜩이기 솥에 안치놨는 기라. 해가 묵을라고 안쳤는 기라.

이년 며늘년이 지녁에 해가 다 지가이 쌀로 다부 이고 들어오거든. 시어마씨가 며늘 앞에서 쌀 숨기뿔라고 며늘년 오면 밥해 묵는다고 뭐라칼까(꾸중할가) 싶어가, 마 급해가 마 신을 꺼꿀로 신고 쫓아나갔다. 신을 꺼꿀로 신고 쫓아나가놓이, 온천지 다 댕기도 신 꺼꿀로 신은 사람이 없더이, 우리 어무이가 신을 꺼꿀로 신고 나오구나 싶어서, 그래 어무이를 구완을 잘 하는기라. 잘 뮉이고 잘 입히고 이래 구완을 잘해놓이 마 아들을 놓더란다.

5) 김승찬의 현장조사 설화 중 미발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미발표 자료이다.

[녹산동 설화 2]

저승에 가 어미를 천상으로 보낸 이야기

구 술 자: 박이쁜(여, 8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본 남자는 나가 많고 젙에 젊은 남자를 하나 얻었는기라. 한 서방을 얻어놓이, 이 여자가 본 남자를 직일라고 단지에다가 뱀을 잡아 옇어가주고 방이 크다란데 남편이 누우 자는데, 거기에다 예비꾼의 남자를 하나 사가주고 뱀을 잡아 옇은 단지를 문을 열고 구불티 놨다 아이가. 단지를 구불티 놓이 뱀이가 나오는 기라. 예비꾼은 문을 딱 열고 내다보는 기라. 내다보는데, 이놈 뱀이가 처음에 나올 때는 쪼매낱이(조그만 하더니) 갈수록 커지는 기라. 그래가 영감의 목을 꽉 물어 직이뿠어. 영감이 죽어 초상을 쳤다. 그런데 그 사람 아들 이름이 '나백'인 기라. 나백인데, 나백이는 어두로 공부를 하로 가고 없는 기라. 없고 이라는데, 그래 인자 이 본사내 이기가 '저년이 저렇게 모질이니 나도 저년한테 잘못하면 나를 안 직이겠나' 싶어서러 본사내가 이 여자를 때리 직이뿠어.

직이놓이, 이 여자는 구신이 안 됐나. 됐는데, 나백이가 공부를 하고 턱 와보이, 아부지도 죽고 어마이도 죽은 기라.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공부를 지독시리 해놨던지 이기 좀 큰 높은 사람이 되었어, 나백이라는 이 아들이. 그래가 보이, 저기서 물이 안 넘어오더나, 고랑물이 팍팍 넘어오는데, 그 가운데 턱 물 가운데 앉아가주고 큰 작대기를 짚고 염불을 하고 있는 기라.

이란데, 거기는 지옥문인 기라. 구신이 거기에는 버글버글하는기라, 거기에는. 애자 이거는 영감으로 인자 뱀으로 물라 직이놓이 뱀이 그덩이에 들어 있는기라. 저승에 가가 지옥문에 드가 뱀이 우글우글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고, 구신들이가 막 영장을 뜯어 먹는데, 영장 다른 기 서로 뜯이 묵을라고 물고 뜯어묵고 귀신들이가. 그런데 구신 딜라(되려) 카는 것은 몬 얻어 먹고 왕초 구신은 막 뜯어 묵는 기라. 그런데 작대기로 턱 물에 짚고 앉았는데, 작대기만 턱 놓으면 구신이 확 달라드는 기라. 작대기만 짚으면 구신들이 다 도망을 가뿌고, 그래 기도를 했거든. 어마이가 막 그 아들을 보고 빌고 좋은데 보내줄라고 이래쌓이 그래 작대기를 우째 놓더니 천상으로 올리보냈다, 저그매로. 보내놓이 저그 애미가 하나 있는 기라, 처이가. 그것도 우째 죽어가 와가지고 지도 좋은데 보내줄라 캐서 또 작대기로 요술을 부리가 또 천상으로 보냈다고.

[녹산동 설화 3]

시부 구박한 며느리 버릇 고치기

구 술 자: 박이쁜(여, 8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한 사람은 또 호부시아바이가 있는데, 그년도 되(들) 됐던 기라, 며늘년이. 옳기 안 믹있던 기라, 저그 아바이로. 그러이 시아바시가 아무리 일로 해주고 아로 봐주는데 기운이 없어서 못하는기라. 이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오늘 장에 간께, 시아바이는 참 살이 쪘는데, 얼굴이 퉁퉁하게 살이 찌고 좋은데, 돈을 많이 받고 팔더라. 우리도 아바이 잘 믹이가 팔자."

이래 캐놓이, 저 년이 시아바이 팔아 묵을라고 잘 믹이네. 잘 믹이고 잘 입히놓이, 영갬이 기분도 좋고, 옷도 잘 해 주고 하이, 그만 기운이 나거든. 이래놓이, 아도 봐주고, 촌에 덕석에 곡식 같은거 널어놓으면 다 담아 주고, 돌솥도 얹어 주고, 이라거든.

살이 쪘다, 영갬이. 이래놓이 아들이 우째는가 볼라고,

"야, 이 사람아, 아부지 살 저만치 쪘는데, 장에 가서 팔자."

이러카이,

"아이고, 아부지 일도 잘 하는데, 안 판다."

카더란다.

[녹산동 설화 4]

성기 큰 남녀의 결혼

구 술 자: 박이쁜(여, 8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어마시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딸이 몸띠이가 굵어서 시집을 못 가는 기라. 시집 못 가는데, 저 거랑(내)에 가면 물레방아가 안 있나. 물에 방아 찧는거. 처녀가 그리로 올라가이, 아무도 방아를 안 찧는데, 쿵쿵 돌아가며 찧는 기라. 이 처녀가 한분 가보인께, 커다란 총객이 거기 눕어 자는 기라. 이놈 총객도 어찌 커나서 숨바람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기라. 이래가, 가서 총객을 깨뱄다, 처이가. 깨배놓이, 만나가주고 이얘기를 한다.

총객은 너무 커서러 장개를 몬 가고, 처이는 너무 커서 시집을 몬 가는 기라. 그래 저그 둘이서,

"살자."

캤는 기라. 저 산골짝에 총객이 살거든. 거기 가서 저그 둘이서 물로 떠다놓고 둘이서 예(혼례)를 하고, 떡 예를 해놓고,

"우리 어무이가 아무데 혼차 계신다."

카인께, 신랑 아이가? 예를 했으니 신랑 안 됐나. 그래 '모시러 가자.' 카는 기라, 저그매로(저그 어머니를). 처이하고 간다. 가서,

"어매야!"

칸께, 얼매나 기달맀겠노? 처이가 나가서 안 돌아오이, 반갑아가 어마이가,

"아이구, 야야, 오나?"

"어매요, 내가 결혼했습니다."

"야야, 결혼을 어째 했노?"

그래 사우가 안 됐나. 그래 들와서 인사를 하고, 장모를 업고 가서 잘 살더란다.

[녹산동 설화 5]

과부 유혹에 말려들어 죽은 스님

구 술 자: 박이쁜(여, 8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또 한 사람이 언쟈 과부가 아들 하나를 뎃고 사는데, 만날 나가면 저 이전에 서재 안 갔나? 지금은 핵굔데. 서재 가는 길목에 스님 하나를 만나면,

"에라이, 내 아들놈. 내 아들놈."

머리를 씨담거든. 그래가,

"어무이요. 내가 아무데 거 가면 스님 하나가 만날 날로 보고 '내 아들놈 내 아들놈.'하고 내 머리를 씨담는다."

이라카이, 저 년(과부)이 언쟈 음숭해가지고 스님 돈 뺏들어 묵을라고 그날 지녁 콩을 갈아가지고 콩죽을 한 그릇 퍼놓고 그래,

"니, 오늘 스님이 '내 아들놈' 카거들랑 그 스님을 모시고 온나. '우리 엄매가 오라' 캅디다 이래 카고 뎃고 오라."

카는 기라. 그라고 이부제(이웃에) 할매를 불러,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불 탁 끄거들랑 '아이고 야들아, 내가 오늘 지녁에 할 얘기가 있는데, 와 불로 끄노? 이라 카면서 날 새도록 얘기를 해주면 돈을 석냥 주겠다."

고 연을 짜놨다.

그래 지녁이 되이 스님 이것도 음숭해가지고 과부 집에서 오라 해노이 좋다 카고 갔다. 가노이,

"아이고, 스님 오실 줄 알았이면 오늘 지녁 밥을 할긴데, 우리가 콩죽을 낋있다."

콩죽을 그래 낋이가 퍼놓았는데, 그래 스님이,

"아이고, 우리는 만날 이파리만 묵어쌓아서 죽 이것도 별맛으로 좋다."

카는기라.

그래가 마 지녁이 저물어가 잘 때가 되이, 막 요캉 이불캉 깔아놓고, 그래가,

"스님 자자."

카는 기라. '자자'카인끼네 마 스님이 좋아서 하룻밤 잘까 싶어서 막 '옷도 벗어라' 카고, '옷을 벗고 자면 나도 옷 벗을기라' 카고, 그러이 이놈의 스님이 옷을 할딱 벗고, 자지가 종이 오입이 되도록 덮어씌았건만, 이놈의 스님이 음숭해가 한번 해볼까 싶어가 눕어가 있는데, 과부가,

"아이고 나도 옷 벗고 잘기요."

캐쌓며,

"이쟈 불 끄고 옷 벗을기요."

카며 저년이가 불로 탁 끄뿌는 기라.

그 때, 이우제 할마이 하나가 쏘옥 들어오더만,

"아이고, 야들아! 오늘 내가 지녁에 얘기해 줄라는데, 와 불로 끄노?"

일단은 스님이 할딱 벗어노이 어찌할 줄 모르네. 마 뒤에 문이 있는데, 마 뒷문 열고 마 내보내뿠다. 할딱 벗기가. 이놈이 마 배깥에 서서, 마 포수 좇 떨 듯이 떤다. 저놈의 할매, 저 이바구 끝나면 갈란가, 요 이바구 끝니면 갈란가, 그놈의 콩죽을 묵었제, 배는 아프지, 죽을 판이 아이가, 이래가 언쟈 문 앞에 붙어가, 저놈의 할마이 이바구 끝나면 갈까 밤새도록 있어도 안 가거든. 밤 새도록 해줄라 해놓이 가나. 돈 석냥 얻을라고.

먼동은 훤하이 트제, 인쟈 옷은 없제, 이 일로 우짜노 싶어가 절에 기 올라갔다. 할딱 벗고 절로 기 올라기이, 상좌가 언쟈 새북에 나와가지고 종을 치거든.

그래가 종을 친께이, 문도 잠가놓이 수채구녕으로 기 들어갔다, 할 수 없어서. 옷을 벗어놓이 할 수 있나? 수채구녕으로 기 들어가이 이 빌어먹을 상좌가 종을 치고 나무덩이를 가지고 개가 들어온다고 개라고 대가리를 쌔리가지고 마 그 질로 죽아뿠더란다.

[녹산동 설화 6]

맷돌을 지고 용궁에 간 두 사나이

구 술 자: 박이쁜(여, 8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한 남자가 못살아놨던지, 우째 가 살고? 해 묵을 노릇이 없는 기라. 이래서 인자 저 어데를 가이, 누가 말을 타다 놓고 여관에 들어간기라. 그래놓으이 이 놈 말을 몰고 가서 팔았다. 도둑질 했지, 돈은 없고. 말을 몰고 가 돈을 많이 받고 팔았네. 팔아가 돈을 가주고 기생들 노는 데 가서 술도 받아 묵고 이라이,

"아이구, 아무것이가 우째 가 무슨 장사를 했노?"

몬 사는 줄 알거든.

"우째 돈을 이래 주고 하노?"

카인께,

"저 아무데 그 가인께, 용왕님이 날로 돈을 주더라, 용왕님네가. 아무데 산을 산을 넘어가주고 바닷가에 그 밑에 용왕님네가 나를 주서 돈을 가져왔다. 가져와서 너그한테 쓴다."

이것들이 그 소리를 딱 곧이 듣고,

"거기 가도 물 밑에 들어가야 주지, 물 우에 있으면 안 준다. 그러이 가가주고 돌을 한 짐 징기고 들어가야 물에 푹 내려간다."

이래 캤는 기라. 맷돌이 두짝 아이가. 그래 돈을 벌이가 왔다 카이, 저가 따라 가는 기라. 맷돌 두짝을 하내이 한짝씩을 짊어지고 용왕님한테 가는데, 둥글한 맷돌로 등드리에 떡 짊어지고 첩첩 산중을 가는 기라. 지가 죽으러 가는 기라. 인자 그 놈을 가주고 물 밑에 들어가면 죽기밖에 더하겠나? 저들이.

[녹산동 설화 7]

산신령이 도와준 가난한 집

구 술 자: 박이쁜(여, 8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동짓달 되기 춥거든. 동짓날 산 끝에 집을 지아 못 살아서 부섭(부엌)에 오줌단지를 갖다놓

고 오줌을 누면서,

"올 겉이, 오늘밤 같이 추운 날은 산신령(범)은 추워 우째 사는고?"

걱정을 했다 아이가.

산신령이 그 소리를 들었어. '춥어 우째 사는고' 걱정해준다고 물걸(먹을 것을) 자꾸 갖다 주더란다, 범이. 갖다주고, 갖다주고 해서 그해 동짓달은 일 안 하고 잘 넘겼다는 이 얘기가 있데.

[녹산동 설화 8]

방귀로 화(禍)를 당한 며느리

구 술 자: 박이쁜(여, 8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시아부지 밥상을 들고 들어가다 방귀가 '뽕'나왔네. 그러이 자기가 염치없이 부끄럽다 아이가?

개가 만날 큰 개가 그 영감탱이를 따라 다니는 개가 있었어, 떡 할아부지 문 앞에 누워가 있는데, 마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다 방귀가 '뽕'나와뿠네. 시아부이한테 미안해가지고,

"이놈의 개가 왜 방귀를 낐노?"

이러 카거든. 그러 카고 며느리가 나가고나이 개가 며느리를 실실 따라나간다.

영감이 눈치를 채고 그래 며느리를 데불다가 큰 수티(동이) 안에 가둬놨네. 가둬놨는데, 이놈의 개가 법수를 두 번 넘고나이 큰 구리(구렁이)가 돼가주고 그 수티에 가서 빙빙 감아가주고 안개를 피아가주고 직이뿌더란다, 그 며느리를. 지 애먼소리한다고. 지가 방귀를 끼놓고 개를 낐다 칸다고. 그러이 애먼소리가 그중 죄가 많고, 나가서 남의 말하고 험담(險談)하는 기 죄가 많다고 한다.

[녹산동 설화 9]

선달바위 전설

구 술 자: 최필금(여, 66)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옛날에 녹산 여기는 '선달바우'라고 있거든. 한 장사가 처음에 와서러, 그 바우가 떡 누워가 있으인께,

"왜 저 바우로 안 일바끼고(일으키고) 저래 왔노?"

이래 카면서러 발로 한번 디디보이까네, 얼매나 힘이 셌던지 돌이 푹 들어갔비이.

"내 발이 이렇게 돌에 들어가이, 내가 이 바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 자기 혼자서 바우를 드니 바우가 벌떡 서. 그래 시아(세워)놓고 돌도 안 받치고 고자리에 시아놓고, 그래 술을 한 말을 가져와서 자기가 실컷 묵고 남는 것은 그 바우 옆에다 주루룩 부어놔. 그래 술 부어놘 그게 허여이 표가 있어. 그래 장사가 그렇더란다. 그래 그기 전설이지.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3쪽.

[녹산동 설화 10]

녹산 지명 유래

구 술 자: 최판돌(남, 55)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아주 옛날인데, 지금으로부터 6백 년 전이었어. 아주 옛날이지. 이 녹산 들판이 전부 다 갈대밭이야. 갈대밭인데, 저 산 밑에 한날 부부간에 달콤하게 살림을 살게 됐어.

한날은 어사가 나귀를 타고 지내 갔어. 나귀를 타고 떡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마을에는 전부 갈대밭이고 저 산밑에 부부간에 영감 할미 단 둘이 녹두를 심아가지고 죽을 낋어먹고 있었어.

그래가 이 어사가 녹두죽은 먹고 싶은데, 명색이 양반이 돼가지고 줄라 카지도 못하겠고, 그래 나귀에서 내맀어. 내려가지고 하인하고 같이 그 집에 딱 가니까 녹두죽을 먹고 있어. 들어갔는기라. 들어가서,

"왜 녹두죽을 낋여먹느냐"

카고 어사가 물어봤어. 그래 영감이,

"우리 요게는 인심이 좋은 곳이니까, 인심이 참 좋은 곳이니까, 인심 좋은 마을로 만들라고 녹두를 심었으니까 녹두죽을 낋여 먹습니다."

카는 것이야. 그래서 어사가 이곳을 녹두 녹자 뫼 산자라, 그래 이름을 녹산(菉山)이라 붙쳤다 카는 짤막한 이야기이지.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4쪽.

[녹산동 설화 11]

순아도와 처녀골 전설

구 술 자: 윤병태(남, 73)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여기 녹산 수문에서 한 삼사백미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 처녀골’이라는 산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처녀골’에 관한 얘기, 왜 ‘처녀골’이라고 했는지 하는 얘기, 고걸 대강 간추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때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 지역은 지금은 같이 이렇게 큰 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큰 마을을 이루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명지동만 해도 갈밭 속에 좀 둑 높은 자리에 집을 지어놓고 몇 집씩 몇 집씩 마을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동네쪽에도 요 마을 앞까지 바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고 지금 ‘처녀골’ 얘기를 하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고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명지동, 지금은 ‘순아도’ 카는데, 요 오다보면 요렇게 쪽바로 오다가 굽어오는 데가 ‘순아도’인데, 그 ‘순아도’서 녹산쪽으로 거게 ‘처녀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락쪽에 왜군이 쌓아놓은 왜성이 있어요. 그 왜성은 곧 일본 군대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 그러이까 네 침략기지가 되겠지요? 일본군대들이 성을 쌓아놓고 자기들 본국으로 배를 타고 오고가는 바로 길목이였거든요, 명지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화를 입었다는 처녀의 이얘긴데, 그 당시에 ‘순아도’라 카는 고 마을에 한 어부의 딸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과년한 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십칠팔세 됐던 모양이고 마침 혼사를 하기로 결정을 해놓았는데, 어느날 밤 왜군이 지나가다가, 그 마을 근방에 와서는 군인들이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부인네들이 있으면 또 욕을 보이고 하는 이런 때인데, 왜군 한 사람이 마침 문제의 처녀집을 목격하고 달라들었어요. 그러이까네 처녀집에서는 날 받아놓은 처녀를 갖다가 그저 뭐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참변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딸로 일단은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가, 딸 이름이 순아였습니다, 그래서,

“순아야, 이래다가 안 되겠다. 내 따라가자.”

그래서 고 섬에서 산쪽으로 오고가는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가서, 그 배에 딸을 태워가지고,

“어서 타거라. 우리가 피해가야 한다.”

그래 어머이를 혼자 두고 딸을 싣고 강 건너 쪽으로 왔는데, 그 찾아온 왜군이 그 아가씨를 봤는데, 고만 사람을 찾으니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가씨 어머니한테,

“애 어쨌느냐? 처녀 어쨌느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치니,

"그런거 나는 모른다."

하고 잡아뗐지마는 막무가내 칼을 목에 대고 위협을 하니까, 그래 마지못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왜군은 그 눈치를 살피고, 어디 틀림없이 짚삐까리 밑에나 나무 밑에 숨겨놓은 게 틀림없다 싶어서 두루두루 찾았단 말이지요.

밤은 이미 깊은데,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순아를 태워가지고 산쪽으로 부지런히 부지런히 노를 저어 강 복판에 왔는데, 이 왜군이 볼 때, 강 복판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보이니까네, '아 저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왜군이 생각하기를 강 건너 갔으면 단념해야 되겠는데, 이 이야기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아가씨가 굉장히 예뻤는데, 그거 내가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욕심으로 자기 가졌던 칼 자루를 등에다 꼽고 헤엄을 쳤어요. 헤엄을 쳐서 잡으러 가는 기라. 그래 추격을 받게 되는데, 이쪽 강 언덕쪽에 다 왔을 무렵에 순아 아버지는 추격을 받게 되는데, 이쪽 강 언덕 쪽에 다 왔을 무렵에 순아 아버지는 해이나 해이나 싶어서 돌아보니까, 물 복판에 무엇이 헤엄을 치고 오거든요. '아하, 저놈이 그놈이구나' 이래 싶어서 화급히 닿아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면 괜찮지 싶어서 가다가 보니, 더 다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처녀골 근방에 오다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올라가서 산으로 피해버리자. 그러면 행적을 모르면 추격을 못할 것 아이가' 이래 싶어서 행동을 취한 것이 그 골짜기로 순아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왜놈이 샅샅이 보고 따라왔어요. 산밑에 그 골짜기 밑에까지 와서 보니까, 벌써 산 위에 올라가는 돌소리가 나고 자국소리가 나고 인적이 나거든요. 밤이 되니까. 그래서 '옳지! 이리 올라갔으니까' 하고 따라 올라 오는 기라요. 그럴 쯤에 순아와 순아 아버지는 거의 산골짜기 먼당에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저놈을, 올라오는 놈을 돌로 내리 찍어 죽이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의 그 어떤 결단을 정해야 할 판인데, 순아도 어떻게 할 엄두가 안 나서 벌벌 떨고만 있을 때 아버지가 돌연 그 근방에 있던 큰 돌덩이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요놈이 요짬치 올라오면 요 돌을 탁 떨어뜨려서 요놈을 박살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를 악물고 딱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저놈은 씩씩하고 올라온다 말이지. 올라오는데,

"이놈아!"

하고 돌을 딱 굴렀는데, 어찌 불행하게도 굴러 떨어지다가 큰 돌에 부딪쳐 딴 방향으로 그만 돌이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래 저놈이 기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 되니까, 이미 가해자는 눈앞에 와 있는데, 맨주먹으로 저놈하고 어떻게 대항하느냐 하는 그런 뭣에서 우왕좌왕하는 판에 저놈이 기어올라와서 그만 아버지를 내려 쳤단 말이죠. 내려치고 할 때에, 순아도 참 단발마의 그 상황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왜놈 손가락을 잡고 댕긴다고 댕기니 그만 왜놈이 발을 비끗트리고 그만 그 절벽 아래 굴러 떨어져서, 순아 아버지하고 함께 떨어져 죽는 판에, 왜놈이 떨어져 내려가면서 칼을 던진 것이 그만 처녀한테 맞아서 처녀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안 죽어버렸습니까? 그랬는데, 인제 이 얘기는 그것이 끝인데, 여

기서 그 처녀와 결혼을 결정한 그 총각집에서 그러한 사연을 뒤늦게사 듣고, 거게다가 제단을 차려서 처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올렸다 안 캅니까?

그로부터 누구의 입에선가 '처녀골, 처녀골'하게 되었고, 처녀 이름을 따서 그 살던 섬을 '순아도'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4~557쪽.

[녹산동 설화 12]

사자바위 전설

구 술 자: 윤병태(남, 73)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지금 수문 있는 쪽에 조그마한 산이 안 있습디까? 그 산에서 명지 쪽으로 지금은 강을 막아가지고 길이 되어 있지마는, 옛날에는 바로 트인 하나의 강물이거든요. 그런데 저게가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사리목'이라고. 고게다 지금 새로 수문을 만들고 있는데, 그 수문 만드는 그 가장자리에 지금 강물이 있는 그 자리를, '이무기' 여기서 말로 '광철이'라 카는 기가, '용 못된 광철이'라 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철이 내외가 여기 살았는데, 암수컷이 살았는데, 수컷이 어찌 사나운지 굉장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지내가는 배들이나, 아니면 행인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서 악명이 높았답니다. 그런데, 암광철이가 그 부군더러,

"여보, 당신 너무 그렇게 사납게 하면 누구가 좋아하것소? 신이 안 좋아하는데, 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면 당신을 좋아하것소? 그러니까 부디 마음 좀 고치고 점잖아지시오."

이렇게 타일렀지마는 숫광철이는 그걸 듣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근방에서 물 따라가서 갈 만한 곳은 다 가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동 가는 쪽으로 물길이 트이가 있었거든요. 거게 압실(鴨谷)이라고 하는, 잠뫼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뫼 우에 잠뫼등이라 이래가지고 있었어요. 잠뫼등에서, 지금도 옛날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래 광철이가 하루는 거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는, 거기서 사나운 장난을 하니까, 거기 사는 산신이 내려와가지고,

"너 이놈! 여기는 너 살 곳이 아니고, 여긴 내가 사는 곳인데, 네가 여기 함부도록 와서 이런 장난을 하고, 여기 와서 인축을, 사람과 짐승을 해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 어쩔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 나하고 싸울 것이냐?"

그래서 그 사나운 광철이가 그 첫말에 다소곳이 듣고,

"예, 물러나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신이 이제는 노해가지고 그놈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욕을 많이 보였더니,

"다시 보다."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 광철이가, 그 뒤에, 그라고 얼마 며칠 사이가 아닌데, 그만 하루는 하늘이 새까매지면서 천둥이 일어나고, 바다물이 그야말로 참 옛말로 보태서 끓어 오르듯이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강 일대가 큰 난리가 났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천둥과 함께, 요새 같으면, 낙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봅니다. 그러더니마는 그만 이 광철이가 그렇게 버둥거리고 법석을 지기던 것이 일체 갑자기 딱 조용해지면서, 그 광철이가 간데 온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암광철이가 남편의 자취를 살펴보니까, 옆에 이때까지 없었던 자리에 큰 바위가 하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수컷의 영혼이,

"부인아,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진작 자네 말을 듣고 내가 점잖아졌더라면, 내가 진작 이런 꼴이 안 됐을 것인데, 한데 참 후회막급하다."

하는 이런 조의 말을 남긴 것 보니까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지금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만 일체 그 옛 얘기를 고쳐본다고 한다면, 왜군들이 여게 가락에 침략 기지로 성을 쌓아놓고 빈번히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에 얼른거리는 백성들이나 뭐 군인들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저놈들이 온갖 장난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먼 데 배타고 갔던 사람들 집에서 생각해 볼 적에는 아무 데 거서 배가 파산해 죽었다든가, 아니면 거서 뭐 큰 참변을 당했다든가 이런 얘기만 자꾸 들려오니까, 그 개(浦) 이름을 '놀구리모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왜군이 댕기면서 그런 장난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 앉아 듣기로는 광철이 장난이다. 이런 얘기도 될 거 같이 합리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네요.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7~559쪽.

[녹산동 설화 13]

도깨비 이야기

구 술 자: 윤병태(남, 73)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이전에 녹산에 한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어른이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야말로 주색잡기가 그만큼 그런 훌륭한 한량이 계셨어요.

노모를 모시고 계셨는데, 그 호탕한 마음씨가 언제나 어디 가서 화투 치고 즐기며, 어디 가서 노래하고 즐기며, 그런 것만이 보람 있는 생활로 여긴 그런 분인데, 하루 지녁에는 요 이웃 산양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가서 놀다가 술이 잔득대가주고 돌아오는 길인데, 지금같이 탄탄대로가 아니고 작은 소롯길로 오는데, 고게(그 곳에) 오면 지금은 다 형체가 없어졌읍니다마는 그게 큰 돌 바위가 두낱이 있는 그 사이를 오는 턱이 있었어요. 고 길에 오니까 키가 큼직한 시커먼 사람이 쑥 나타나디마는,

"여보게, 나하고 씨름을 해서 이기면 이 길을 통과하도록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름장을 놓는데, 대담하게도 이 어른이,

"니 어떤 놈인데, 나를 몰라 보느냐? 어디 한번 겨루 보자."

이래서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갈라고 하니까,

"아니다. 아직 두 판 남았다."

세 판을 했어요. 세 판째 할 때는, 그 분이 지금도 장도칼 안 있어요? 옛날에도 장도칼을 차고 있었거든. 이 어른 생각이 '이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세 번째는 꼼치가주고 고(그) 칼을 빼가주고 거기다가 콱 찔러놓으이, 그래 기척이 없거든요. '이놈' 하고 털털 털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잠자리에 들어서 생각하이, 술끼도 좀 깨버맀고 '그리 이상하다, 내가 어제 오늘 댕기본 길도 아니고 자주 이 길을 다니는데, 오늘 웬 놈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 이튿날 아침 자고 일어나서 아무래도 깨름직해서 그 자리에 가봤어요. 가니까 그 바위 중턱 밑에 마당 쓰는 빗자루 안 있습니까? 그 빗자루에 자기 칼이 꽂혀가 있더라. 밤새 빗자루와 씨름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녹산동 설화 14]

허깨비 이야기

구 술 자: 윤병태(남, 73)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이 동네에서 조 앞에 사암이라는 마을로 가는 길이 지금은 큰 대로가 되고 차가 빈번하게 오고 가고 하는데, 오십 년전만 해도 아주 한적했거든요.

그 때 문상을 갔다가 초상집에 문상을 갔다가 그래 인제 집으로 돌아오는 판인데, 옛날에

는 주로 맹건에다가 갓을 쓰로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래 갔다가 오는 길인데, 술이 잔뜩 취해가주고 그래 으슬렁으슬렁 걸어서 이쪽으로 오는데, 고 밑에는 개울이 있어요. 길가에 개울이 있는데, 그래 이 노인이 밤에 저물게 술이 취해가주고 평소에 뭣이 잘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지점에 오니까, 마음이 그만 동요가 되거든요. 술이 취했으면서도 혹시나 혹시나 하고 이렇게 오는 판인데, 마침 그날이 날도 우중충하게 뭣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그 길을 오니까 역시 뭣이 나타나는 기라요. 아주 꼬쟁이같이 길쭘만한(길쭉한) 놈이 키도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키가 얼매나 커노, 위로 보면 볼수록, 하늘로 볼수록, 키는 하늘까지 솟아 있어요. 그만 이 사람이 혼겁을 집어 먹었어요. '야, 이제 참말로 죽자라 인제 듣는 바와 같이 뭣이 나타나는구나!' 그래 겁을 잔뜩 먹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정신을 채려서 뭐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걷듯이 기듯이 혼겁을 집어먹고 마을까지 도착을 해서 집에까지 겨우 왔어요. 왔는데, 집에 겨우 도착하니까 식구들이 다 자고 있고 그래 문전에 와서는 '내가 왔다'고 하는 소리가 겨우 자기 목구멍 밖에 겨우 나는 소리가 '내가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놓았는데, 그래 인제 자기 부인이 자다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남편이 기어왔는데 옷은 구덩이에 빠져 형편 없이 지저분하게 돼가 있고 의관이 모두가 보기 사납게 되어 있어요. 그래 겨우 마루턱에 앉아가주고,

"여보, 왜 그랬어요? 술도 그렇기 자시고 오늘도 상당히 술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가 봐요. 정신 차리소.

이렇게 해서 부인이 입은 옷은 벗기고 정신을 차리도록 물을 휘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인제 거기서 가만히 정신을 채려 보니까 자기 눈 앞에 역시 그 사람이 안중(아직) 있거든요. 그래 눈을 이렇게 해서 봐보이 역시 있거던요. 쳐다볼수록 쳐다볼수록 그래 있거던요.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내 눈 앞에 뭣이 이래 서가 있노?"

부인이 살펴보니, 뭔가 오다가 허깨비한테 홀킨 것 같은 그런 정신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요, 내 눈 앞에 있는데."

그래 참 부인이 뭣이 있는가 살펴봐도 없고, 그 참 영감 얼굴 쪽을 쳐다본께네 맹건 끈이 풀어져가주고 달랑달랑하고 있더래.

"아무것도 없어요, 맹건 끈이 풀어져가 달려 있네요."

그제사,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져 보니까, 맹건 끄나풀이 풀려 있어, 이기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얘깁니다.

[녹산동 설화 15]

여근곡에 아버지 묘를 쓴 아들

구 술 자: 윤병태(남, 73)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녹산동 본동마을

명당자리 중 이야기 들은기 하나 있는데,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사랑방에 오면서 가면서 과객들이 자고 가고, 어떤 때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사랑방 옆에 머슴방이 있어가주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 들은께,

"아무데 가면 산이 요런 요런 기 있고, 그 밑에 가면 웅디(웅덩이)가 있고, 고(거기)다가 묘를 하나 쓰면 직호(直後) 다음 세대 아들 세대에 틀림없이 벼슬할 자리다. 누대(累代)를 이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마이 들어보이 지(자기가) 아는 곳이거던요. 아무데 어느 산에 어느 곳에 바위가 어떻게 있고 그 아래 웅디가 있고 하는 것을 아는 곳이라, 하루는 나무하러 가서 탐색을 했는기라. 가마이 보이까 밋자리가 있고 웅디가 있고 습(濕)한 자리가 있고 한데, 그래 알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었는데, 고 자리가 무슨 자리라 하면 바로 여자의 샅에 보지 자리다. 그까지는 이 사람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 형제간에도 말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해보니까 고 자리가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를 고 자리에 갖다가 묘만 쓰면 되느냐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 참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래 뫼를 쓸라고 초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현몽을 하기를,

"얘야 내가 묻힐 자리는 나를 반듯이 눕히지 말고 나를 엎어 도고(다오) 엎어 도고."

이라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때까지 엎어서 묘를 쓴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반드시 아버지가 무슨 고탈(가탈)이 있는 일이다.' 그래 인제 가마이 생각을 해도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의 현몽을 어길 수가 없어 그래 장사를 치뤘지요. 그러이 초상치는 사람들이 '상주 저거 돌았나? 우쨌나?' 카는데, 그래 인제 초상을 치루고 집이 피는데(번성하는데) 이만 저만이 아나라, 그야말로. 그래서 참 대감을 했는지 뭣을 했는지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마는, 그 자리에 그래 적응할 뫼 위치를 잡아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형세에 맞지 않는 자세로 아무리 갖다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세로 뭔가 그런 형국에서 참 정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눌차동 설화

[눌차동 설화 1]

천벌받은 며느리

구 술 자: 박말순(여, 72)
구술 날짜: 1991년 8월 3일
구술 장소: 눌차동 항월마을

옛날에 몹시 가난한 집이 있어가주고 아들이가 천날만날 산에 가서 똑 나무를 한 짐씩만 해다가 팔몬 하리(하루) 한 때꺼리 달랑 묵우삐리고(먹어버리고), 또 하리 한 때꺼리 달랑 묵우삐리고 이라인께, 며느리가 어디 점(占)을 해 봤어. '우리 시어마님으로 없애주우야 우리가 부자로 살겠다.' 점을 하니 이렇더라고, 그래 신랑한테 그 이야기를 하네.

"보소, 우리가 어무이를 없애야 우리가 나무를 안 하고 부자가 되겠답디더."

이래 카거든. 이래 카인께, 그래 하는 말이가,

"그렇지마는 엄마를 없앨 수가 있노?"

이래 카이, 열 분(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자꾸 밥을 묵고 남자한테 그래 쌓인께,

"그라믄, 그래 봐라."

이래 됐는기라. 그래 씻근(씻은) 옷을 입히갖고, 장을 봐다가 어마이를 잘 해 믹있어. 해 믹이가지고 한날 아들이 업었어. 업고 가이, 뒷동산 산천에 가인까네 그것도 하늘이 돌봤지. 묵은 고목나무가 두 낱이 딱 홈이 따로 파져가 있는 기라. 있으인께, 한 고목나무에 딱 저거매(자기 어머니)를 업어다 놓고, 한 고목나무에는 안 가고, 뿍디기(북더기, 검불)를 끌어다가 그 고목나무 밑에다가 놓고 불로 놔놨는 기라. 불로 놓은께네, 저그매(자기 엄마) 타서 죽을 거는 사실이거든. [구연자가 채집자를 향하여] 안 그렇나? 그래 저그매가 무슨 잠이 오겠노? 불은 나무에 붙어놓으이 밑구영은 뜨시는데. 어데서 도둑놈이가 마적의 떼라. 나무 밑에 불로 놔놓이, 이전에 도둑놈이 동네에서 털어다 갖다 엽전을 수디기(숱하게) 부우 놓고 세아리는 판이라. 할마씨가 지침을 해도 죽겠고 안 해도 죽겠고, 그래 애래이 빌어묵을, 지침을 안 할라꼬 안 할라꼬 해고 지침이 나오는 기라. 한 번 딱 해삤다 말이지. 아이고, 마적의 떼가 뒤에서 지(저희) 잡으러 온다고 다 달아나삤는 기라.

그래 다 달아나삔데, 불이 훨훨 붙었는데, 난데없이 학이 한 마리 푸루루 날아오디, 할마시로 꼭대기로 이리 덜렁 집어 물어가지고 불 안 붙는 고목나무에다 들어다 놨던 기라. 들어다 놔두이, 그래, 날이 훤하이 새고 보이, 할마시가 보이 돈이 수두룩하이 이래 있거든. 그 돈을 처매(치마) 앞에다가 많이 쌓는 기라. 그래 뒷동산인께 할마시가 저그 집으로 내려왔는 기라.

내려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억수로 샀는 기라. 사가지고, 나무도 안 하고 부자가 됐더라 말이지. 부자가 됐는데, 인자 얼매를 있다가 메느리가 남편한테 이란다(이렇게 말한다).

"보소, 보소, 어무이매로(어머니처럼) 날로 한 분만 업어다 고목나무 하나 있으이, 거기에 놔 주소."

이라는 기라.

"우리가 이것만 해도 잘 살겄는데, 뭐 할라꼬 그다지도 욕심이 있는 짓을 할라노?"

이러카이, 기우언차(기어코),

"데버다(데려다) 놔 줄라."

카네. 그래 열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지도 저그매매로(자기 어머니처럼) 옷을 턱 입히가지고 마누라를 업어가지고 안 탄 고목나무에 갖다 놓고, 도래도래 나무를 모아 놓고 불로 놔놓고 저그 집에 왔다가 아침에 가보이 소부래이 나무에 붙어 타 죽었더란다.

그래 욕심이 많으면 실물로 거두는 기라. 그거는 천하가 내리 덮히 가지고 천하지조화(天下之造化)로 해서, 참 신명(神明)이 내리서로 저거마이(자기 어머니)도 살리고, 저그도 나무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것만 처묵고 있지. 지가 그래쌓인께 지는 타서 죽어삤는 기라. 그래 너무 욕심이 많으믄 실물로 거둔다고, 이전에 할매들 하는 말 하나도 내삐릴 말이 없다이.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5~237쪽.

[눌차동 설화 2]

고창녕[6]의 범인(犯人) 잡기

구 술 자: 박상봉(남, 67)
구술 날짜: 1991년 8월 4일
구술 장소: 눌차동 항월마을

옛날에 고창녕이라는 사람이가 열네 살 묵우서 원질을 했어.

그 고창녕이가 원질을 떠억 하는데, 아침 조회를 하믄 부하한테 지시를 내리놔놓고 나와가지고는 열네 살 묵은 아인께, 동네 아이들을 덧고(데리고) 방두깨미(소꼽놀이)를 살아. 방두깨미를 하고 떠억 지내는데, 나(나이) 많은 원들이가 거 지내감서 보니께, 소위 원이라 카는 사

6) 高昌寧의 본명은 高裕,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경북 상주에서 경종 2년(1722)에 태어나 영조 33년(1757)에 창녕 현감을 지냈고, 정조 1년(1777)에 승정원 부승지가 되었으며, 정조 3년(1779)에 죽었다. 『國朝榜目』에 淸白吏로 기록되어 있다(정상박, 『전설의 사회사』, 민속원, 2000.).

람이가 아아들과 방두깨미를 하고 있으인께, 참 가짠시러울 거 아이가? 그래시러 비웃었어.

"아이구 저걸 세상 아무리 똑똑이지마는, 저기 무슨 재주가 얼매나 좋건대, 저걸 원이라고 세아놔놓은께, 아아들과 방두깨미한다."

이라거든.

그래 저 흉(숭)보던 원들이 저그 고을로 돌아갈라믄 여기를 지내가는 기라. 그래 지내가도록 떠억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고창녕 원이가 하는 말이가, 하인을 시켜서,

"멀건 죽을 한 독 낋이고 몽땅빗자루를 하나 구해 놔라."

카거든. 그래 떠억 구해놓고, 죽을 한 동 하고, 몽당빗자루 하나 구해놓고 있으인께, 고을 원이 오니께 따라 보내는 기라.

"이거 가지고 가서 해석을 해 올리라 캐라. 고을 원님한테 가아(가지고)가서 해석을 해 올리라 캐서 가져 왔습니다 캐라. 그라믄 뭐라 카는고 듣고 온나."

이라거든. 그래 하인 이놈이 짊어지고 쌔(혀)가 빠지도록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해석을 해줄라고 죽 한 동하고 몽당빗자루하고 내놨어. 알믄 숩운데(쉬운데) 각중에 내놓으이 깜깜 모르는기라. 다음에 해석을 해 보내겠다 카고 가뿠는 기라. 요 대목 해석은 이래 제끼놓고.

인자 죽 한 동하고 몽당빗자루 받은 그곳에서 사건이 하나 생깄어. 므슨 사건이 생겼노 카믄, 동네 바깥에 외딴 부잣집이 있었는데, 별당을 짓고 딸을 공부를 시기가지고 이래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별당 우에 질(길)이 하나 나가 있고, 그 밑에도 질이 있는데, 처이가 참 만고일색이라. 참 잘났어.

그런데 서재에 댕기는 한 총각이 하리(하루) 두 번씩, 서재에 갈 때 한 분 얼굴을 뵈주고, 올 때 한 분 얼굴을 뵈주고, 먼 데서라도 짝사랑을 이래 하고 있었어. 이랬는데, 한 분은 서재 총각이 서재를 갔다오니까 처이가 뭣을 뵈주노 카믄, 거울로 한 분 앞을 따악 뵈주고, 뒤로 따악 한 분 뵈주고 고만 들어가뿌거든. 그것도 해석을 잘 하믄 숩는데, '죽 한 동이 몽당빗자루' 해석같이 모르니께 답답하다 아이가? 그래가 총각이 빙(병)이 생겼어. 그걸 지(자기) 머리에다 넣고 있으이, 꼬랑꼬랑 마르고, 그래 서재에도 못 가고 빙이 나서 폴폴 몰라서(말라서) 죽게 됐어. 그래 저그 누부(누나)가 생각해보인께, 일마가(이놈이) 틀림없이 무슨 여자관계 상에 빙이 나서 눕우가(누워) 있는상 싶거든.

"야 이놈의 자슥아, 니가 죽을 때가 됐으인께 남매간에 무슨 말을 못 하겠노? 내한테 털어놓고 말을 해라."

이랬어. 그래,

"누부야, 사실 아무데 가믄 질 밑에 집이 안 있나. 그 집 처이가 참 만고일색인데, 내가 서재 갈 때 얼굴을 한 분 뵈주고 올 때 한 분 뵈주고 매일 서재 댕길 때마다 뵈준께, 하리는 서재를 갔다가 오인께 처이가 거울을 가아 나와가지고 앞을 한분 뵈주고 뒤를 한분 뵈주고 들가어뿌리더라."

이랬어. 이란께 저그 누부가 하는 말이,

"야 이놈 축구야. 그걸 해석 못해가지고 빙이 나다니? 거울 앞은 환하게 안 밝나? 그럴 적

은 어느날 저녁인고 하니, 보름날 저녁이다 아이가? 그리고, 거울 뒤는 컴컴하인께, 그믐날 저녁 아이가? 이제 보름은 지났고, 그믐이 안중꺼정(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께, 빨리 약 묵고 털 털 털어뿌고 일나라."

이랬어. 그래 총각이 일나가지고, 잘 묵고 해서, 대번에 살이 붙고, 그래 그믐날 저녁을 기다리는 판인데, 그 때 중놈이 하나 동녕을 하러 댕기다가, 해가 다 져서 어둡을 정도라. 동네에 들어가야, 밤에 누우 잘 수 있을끼라고 동네를 들어가다가, 외딴 그 집 담 모팅이로 간께, 각중에 대변이 보고 짚어. 그래 대변을 보고 똥구녕을 닦을라 카이, 종이가 각중에 준비가 안 돼가 있으인께, 수씨깨 이파리를 뚜욱 따가지고 똥구녕을 닦았어. 이 때가 그믐날 저녁이 된께, 처이가 총각이 초저녁부터 올까 싶어서 담장 밑을 실실 걸어댕기다가, 줄베를 담장 너메로 넘가 놓고 안으로 따악 줄베 끝을 묶어놓고 별당으로 드가뿠는데, 그래 중놈이 보인께 각중에 줄베가 넘어오거든. 그래 이상하거든. 그래 중놈이 줄베 끝을 이짝에 따악 묶어놓고 줄베를 타고 담장을 넘어갔어. 넘어가가 보인께 별당이 있거든.

그래 별당을 중놈이 들어가 보인께네, 처이가 참 잘나고 이러인께, 탐이 날꺼 아이가? 사람 욕심에. 그래 중놈이 처이한테 말로 '들어달라' 카인께, 처이는 총각 올라오라고 줄베를 넘가놨는데, 중놈이 각중에 넘어와 '들어달라' 카인께 들어줄것가? 안 들어주거든. 말로 안 듣고 하인께네, 고마 중놈이 실랭이를 치다가 고마 칼로 목을 칵 찔러뿌고, 고마 칼을 빼지도 안 하고 도망을 가뿠어. 이놈이 도망감서 배껕(바깥)에 줄베 묶아놘 거 끌러뿌야 금방 넘어간 사람 흔적이 안 난다 아이가? 끌러뿌고 도망을 가뿠어. 그래 인제 처이는 죽었는데, 그래 총각 이놈은 담장에 와보인께, 줄베가 넘어와 있으인께, 처이가 넘가놘 기라고 좋다 카고 줄베 끝을 배껕쪽에다가 묶고 덜렁 타고 넘어갔어. 넘어가 별당 문을 여니께, 비린내가 나고 온 방에 피가 흥건했을꺼 아이가? 이놈이 놀래서 엉겁질에 줄베 타고 넘어오다가 신을 한 짹을 널짜뿠어. 신이 버어져뿠어(벗겨졌어). 얼매나 겁이 났던지 신을 주울 여가도 없이 자기 집으로 떠억 왔어. 왔어도 고민이 안 되겠나? 처이를 어느 놈이 쥑있는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저러나 할 수 없는 기고.

그래 인자 그 별당에 처이의 몸종이 있었어. 아침에 몸종이 세숫물로 떠가서 '아가씨 물 떠왔십니더.' 카믄 틀림없이 '거기 놔 놓아라.' 카든지 말이 있는 법인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옛날에는 별당에서 처이가 말을 안 하믄 몸종이 문을 못 여는 기라. 그래서 문구녕을 사알 뚫고 봤던 모양이라. 보인께 처이가 목에 칼을 꽂고 죽어 있으이 말을 할꺼가? 그래 처이 아부지한테 이야기를 했어. 별당의 아가씨가 목에 칼을 꽂고 죽어 있더라고.

그래, 처이 아부지가 담장이 우째 돼 있는가 한 분 돌아보라 이리 말했어. 그래 담장을 둘러보인께 줄베가 있고, 신이 한 짹이 널쪄가 있거든. 그래 줄베는 손을 안 대고 신이 한 짹 있는 거 이걸 떠억 가져왔거든. 이 신짹이 임재만 찾으면 되는거 아이가? 옛날에 서재 학생 신이 다르더란다. 그래 서재에 그 신을 가지고 몸종을 보냈어.

"신 임자를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 몸종이 서재에 가서,

"이 신 임자가 누구냐?"

이란께, 이 신 아무거시 신이라고 딴 사람이 말을 해준다 아이가? 그래 이 총각은 지(제) 신인데, 지 신 아이다라 칼 수 없는 거 아이가 말이지. 그래가지고 총각이 처이를 사랑하다가 졸지에 죄에 걸맀어.

그래 처이 아부지가 관가에 가서 원한테 상소를 했어. [청중: 어느 원입니까?, 제보자: 고창녕을 비웃고 간 그 고을 원이라.] 그래 원이 처이 아부지 말을 듣고, 신이 증거가 되이, 총각을 옥에 가둤어. 그래 옛 죄인을 사형을 시킬라 카믄 세 고을 원이 모이야만 사형을 시킬 수 있어.

그때 열 네 살 묵은 고창녕이가 딴 고을 나(나이) 많은 원 하나하고 떠억 가게 됐어. 고창녕이가 가인께네 저그 늙은 사람 둘이만 쏙딱쏙딱 이러인께네, 이 사람 나 적다고 이건(의견) 묻지도 안 하는기라. '사형을 시키는 기 안 좋겠느냐?'고 둘이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고창녕이한테 의논을 하는 법이 없는 기라. '니가 뭐 알아서'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기라. 그래 그때야 고창녕이가 하는 말이가,

"예이, 늙은이 자들아! 너그 원이면 다 원인 줄 아나? 개똥도 모르는 자식들이 원질을 하고 있으니, 이런 죄범도 하나 못 잡는 거 아이가? 그러나 저러나 이 늙은 원아! 내가 아무 때 죽 한 동이하고 몽당빗자루 하나 준 거 해석을 했느냐?"

이리 묻는단 말이지. 대답이 없으인께,

"왜 넘의 말 하는 거 씩은 죽 묵듯이 술타(쉽다) 이거다. 니 앞이나 씰고 앉았지 왜 넘의 앞까지 씰라 하나. 그 의미로 보낸기야 [청중 웃음], 그 해석도 못하는 너그가 무슨 원이냐? 이 사람이 왜 살인 죄인이냐?"

옛날에는 채칼이라 카는 칼이 있어. 그 칼은 중밲이 가지고 안 댕기(다녀). 고창녕이가 처이 죽인 죄범은 중이라는 걸 벌써 알았어. 그러이 죄범도 하나 못 잡는 너그가 소위 원이라고 껄떡거리고 지랄하고 있나 캐.

그래 고창녕이가, 옛날에 엽초 안 있나? 담배 말이다. 당장 담배를 말에다가 한 바리를 실어 줄라 캤는 기라. 그래 실리고 하인 하나 딸고 절로 몰아라 이랬어. 이제 절로 들어가는 판인데, 그래,

"어느 절이가 여기서 제일 가죽냐(가까우냐)?"

이래 물었어. 물으인께 합천 해인사 절이 제일 가죽다 캐. 죄범 못 잡으믄 절마다 갈 판이지. 그래서 합천 해인사 절로 떠억 가인께네, 해인사 절에 높은 놈이 있다 아이가? 그놈한테,

"너그 절에 중이 몇이냐?"

물으이, 그때 중이 팔십 세 명이라 카더란다. 중도 많았어. 그래,

"그 중들이 지금 이 절에 다 있느냐?"

물은께네,

"있는데, 동녕하러 많이 나갔다."

카거든. 그래 고창녕이가,

"임금이 불러서 내가 서울로 아무 때까지 갈낀데, 내가 몸이 쇠약해서, 여기 메칠 묵을라 카이, 좋은 조용하고 조그마한 방, 칼컬은 방 하나 마련해 달라."

캤어. 그래 어느 영이라고 절에서 안 해 줄 수 있나? 해 주거든. 그래, 또,

"너그 절에 중이 들어오거들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거들랑 다 들어왔다고 그때는 내한테 통지해라."

그라고 고창녕이는 공부나 하고 누워 있지. 밥해 주는 거 묵고 떠억 이래 있는데, 메칠 지나인께 동녕나간 중들이 다 들어왔다 카는 보고가 들온다 아이가.

그래 고창녕이가 담배를 하인을 시키서 꼽꼽하게 물을 주가지고 추가(축여)놔 놓으라 카고는, 절에 높은 사람한테 물었어.

"여게 팔십 세 명이 다 둘러 앉을 방이 있느냐?"

물은께네,

"예, 있습니다."

이기라. 그런데, 옛날에는 문짝이를 띠고 띠고 하믄 큰 방이 되고, 그 문을 다 걸어뿌믄 한 방이 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었거든, 큰 합천 해인사 절이.

그러니 문짝이를 다 띠뿌인께 큰 방이 하나 돼삔다 아이가? 중들 팔십 셋이 빼액 둘러 앉았어. 그러자 고창녕이가 실고 간 담배를 한 모씩 똑같이 고리(고루) 갈라 주는 기라. 갈라 주고, 고창녕이가 서서,

"절의 중들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꽃도 잘 맨들고, 비수 같은 칼로 가(가지고) 있으인께, 담배를 잘 쌍글 거 아이가? 나이 어린 날로 임금이 원을 시키 놔 놓고 내가 손재주가 있어 담배를 잘 쌍거나 못 쌍거나 그거 보기 위해서 담배를 한 바리 썰어 올리라 카는데, 특히 너그가 잘 쌍글어서 올리라."

이랬어. 그러이 채칼이라 카는 칼을 가진 놈은 잘 쌍글어서 맨들아쌓는데 한 놈은 놀고 있는기라. 이놈은 칼로 목에다 찔러뿌고 와삐맀으니 칼이 없다 아이가? 없으니 못 쌍글 거는 사실이다.

그래 고창녕이가 삥 돌아보다가,

"야 이놈아, 니는 왜 안 쌍글고 있느냐?"

"예, 저는 칼이 없습니다."

그래 카이 고창녕이가 도포 소매 안에 있던 칼을 썩 빼가지고 주면서,

"아나 이놈아. 여깄다."

그래 지(자기) 칼 지가 모르겠나 말이야. 알겠지. 그러이 처이를 쥑인 이놈은 명령만 기다리고 있지. 지가 처이를 쥑인 것은 확실하고 하인께네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그래 담배를 다 쌍글어서 몽치놔놓고 그래,

"내가 칼 준 놈은 솔직하게 내 앞에 나오너라."

이란께, 안 나올 수 있나 말이야. 나졸들은 저놈이 만약 불량한 행동을 하믄 그 할라꼬 짜고 있으인께 꼼짝 못하는 기라. 그래 나오거든.

"야 이놈. 바른 대로 이야기해라. 내가 준 칼이 니 칼이니, 그 칼이 어느 목에 꽂힜다가 왔는지 니 알겠느냐?"

그란께, 확실하게 목에 꽂힌 것을 가져왔으니, 할 수 없는 기라.

"예, 아무 때 연분에 어덕(언덕) 밑에 큰 집이 있는데, 거어 가서 똥을 누고 밑구녕 닦개가 없어서 수씨깨 이파리를 따가주고 밑구녕을 닦고나니 줄베가 넘어오기에 그래 줄베 끝을 묶어놓고 넘어가가지고 별당을 들어가니, 과년한 처이가 있는데 말을 들어 달라 카이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목에다가 칼을 꽂고 도망질했습니다."

이기라. 그래 바로 잡은 거 아이가?

"저놈을 똘똘 뭉쳐라. 야무치(야무지게) 묶어가 딱 당글라(매달아) 말 똥구녕에 달아라."

카는기라. 말에 태우지도 않고 말 똥구녕에 딱 당글어놓고 그래 원이 그라거든.

"에 이놈들, 이런 짓을 너그가 하고 댕기니께 너그를 다 몰살 죽임을 시키도 되겠지만 요번에 이 사건이 처음이고 하니 특별하게 요번에는 용서를 하고 죄를 지은 저놈만 잡아가니 이 다음에 만일 이런 타살수가 있고 이런 일이 나면 그때는 너그 절에 중놈이라 카는 거는 씨도 종자도 안 남굴 끼니 그리 알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다짐을 받고 그래 저놈을 끌고 고을 원한테 가는 기라. 다른 원들은 일이 안중(아직) 안 끝났으니 자기 고을에 가지를 못해. 우짜든지 고창녕이 오두록꺼정(오기까지) 둘이서 밥이나 처묵고 있는 기지, 늙은 원들 둘이는. 가인께네 턱 있다 이 말이지.

"야 이 늙은 이 자들아. 이런 죄범도 하나 못 잡는 너그들이 소위 고을 원이라고 앉아가지고, 뭐 넘의 말은 씩은 죽 묵기겉치, 니 앞에나 씰지 넘의 앞까지 씰라 카노. 너그가 소위 원이냐? 인자 이놈을 씨이(씹어)먹든지 잡아묵든지 띧어(뜯어)묵든지 쭉이든지 살리든지 너그 마음대로 해라. 이놈한테 물어봐라."

이란께, 그 죄인이 다 실토할기 아이가. 그래 사람 쭉인 그 죄인을 잡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열네 살 묵어도 고만치 원질로 잘 하고, 나 많은 원들로 훈계를 시키고 그렇게 잘하더란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56~263쪽, '고창영의 명재판'.

[눌차동 설화 3]

태운장군바위 이야기

구 술 자: 최병화(남, 69)
구술 날짜: 1993년 2월 13일
구술 장소: 눌차동 내눌마을

지금 우리 눌차리에는 태운장군바우라 카는 바우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그 태운장군바우에서 제(祭)를 모셨는데, 그 태운장군바우에서 일년에 한 분씩 정월 초사흘날이 되면, 그 태운장군바우의 태운장군이 말을 타고 우리 부락을 보고 달려와요. 오는데, 그 태운장군바우가, 지금에 가보면 현 위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눌차리에서 사는 사람만이 태운장군바우라 카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태운장군이 부락을 한 분 거쳐가면, 부락에 좋고 나쁜 거를 가리치거든요(敎示하거든요). 태운장군이 지나가고 나면, 부락에서 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운장군바우에서 제를 지냈고. 거기에 태운장군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부락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이래가주고 우리 할아부지들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요. 부락에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2쪽, '태운장군바위'.

[눌차동 설화 4]

헛배 이야기

구 술 자: 최병화(남, 69)
구술 날짜: 1993년 2월 13일
구술 장소: 눌차동 내눌마을

김돌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저녁에 어장을 놓았는데, 그날 저녁에 구름이 찌고 우수(雨水)가 꽉 짙었어요. 짙었는데, 사공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우수가 너무 짙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찌기 어장을 빼가 올라가자."

카는 차지에, 설마따나 이런 날씨에 어떻겠나 하고 배깄지요. 배짱을 부리고 배기고 있었는데, 잘라고(자려고) 불을 꺼놓고 뱃바닥에 등을 붙였는데, 느닷없이 큰 배가 하나 들어와요. 아직 잠이 안 든 때지. 들어오는데, 그만 우리 배를 보고 들이닫는기라. 우리 배를 보고 지박아버리는 기라. 콱 지박아가지고 그만 우리는 까물친 기라. 정신을 차려 보니 헛기였지요. 배도 없어지고 우리 배는 멀쩡했는 기라.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지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2~203쪽.

[눌차동 설화 5]

문필봉

구 술 자: 최병화(남, 69)
구술 날짜: 1993년 2월 13일
구술 장소: 눌차동 내눌마을

문필봉 저게는 과거보러 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본 기라, 문필봉 저기에서. 시험을 봤는데, 문필봉이라 카는 것이 오늘날까지 전설이 돼가 있지요. 돼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 올라가면 자리가 널이 핑핑하이 참 옛날 말로 시인(詩人)이라 할까 이런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글을 짓고 글을 쓰고 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지요. 그래서 오늘날 저 봉우리를 문필봉이라 합니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3쪽.

3) 대항동 설화

[대항동 설화 1]

숙종대왕을 살린 이인(異人)

구 술 자: 김두선(남, 75)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대항동

옛날에 숙종대왕이가 힘이 장사야. 힘이 장산데, 밤으로 여행을 마이(많이) 댕겨, 여행으로. 이 지팽이 짝대기로 짚고 자기 마음대로, 축지법을 하는 대왕인데, 그 짝대기 짚고, 내가 십 리 간다 카면 십 리 가고 이십 리 간다 카면 이십 리 가고 이런 대왕인데, 이분이 밤으로 똑 여행을 댕기는데, 그런데 저 백두산 못에, 거게 옛날에는 신선이 한 분씩 내려온다 카이, 그 못에 그 신선을 한 분 만나러 가겠다고 거게로 갔어. 그런데 가던 그날 저녁이 달밤이라. 보름달 달밤인데, 그런데 그런 대왕은 지팽이 몇 분 짚으면 가거든.

서울 장안에서 그 백두산 꼭대기 못에 인자 신선 만나러 간다고 가니까, 과연 그 못이 그 자리에 있어. 못이 있는데, 못이 주룩편편하게 있는데, 도시(도대체) 집이라고는 없거든. 집이

라곤 없는데, 그래 보름날 되니까 얼쭈(대강) 열한 시나 넘어 됐던기라. 그래 한 군데 보니까네 불이 빤히 켜가 있어. 이쪽에서 저쪽 건너 보이, 저쪽 건네(건너에) 불이 빤해이 해가 있는 기라. 못을 돌아갈라 카면 한참 걸릴 거라. 그런데 자기가 지팽이가 있으이끼네 축지법을 써서 퍼뜩 건너갔다 말이야. 가가지고 이제,

"주인장!"

부르이까네, 이쁜 처녀가 하나 나오는데, 가까이 보이 참 일색이거든. 그러이께네 숙종대왕이가 이것은 반다시 하늘의 선녀다. 선녀니까 내가 상대해야 되겠다고. 그래 떠억 인사를 하이께네,

"대왕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카면서 모시거든.

숙종대왕이가 내 이름을 숭기고(숨기고) 댕기니까 모를 긴데 이 여자가 나를 알더라 말이지. 그래 여자가 대왕을 방에다 모셔놓고,

"아이구, 여게 오신다고 시장하실 건대 진지를 내 오겠습니다."

카면서 나가더니 퍼뜩하이 메를 지어 왔어. 밥을 지어 왔어. 그런데 음식이 들어오는데 보이께네, 아주 별미라, 음식을 해가 완 기가(온 것이). 그런데 인자 숙종대왕이가 가마이 생각하이 '강원도 금강산에 호랭이 잡으러 간 사람이 백 명이 가서 한 사람도 살아왔다는 말이 없더라,' 카는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인자 여자가 물을 낋이가지고 숭녕(숭늉)을 해가지고 왔는데, 대왕이가 밥상을 웃묵으로 밀쳐놓고 그 동정을 볼라고,

"내가 냉수를 좋아하니까 냉수 한 그릇 채려 돌라."

그러 카인께, 그래,

"그럼 그러하겠습니다."

카면서 여자가 돌아 나가는데, 여자가 바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숙종대왕이가 지팽이로 쥐고 있다가 처마(치마) 밑을 떠억 들어 보이까 꼬랑대이(꼬리)가 있거든, 여시라. 천년 묵은 여시라. 그날 숙종대왕을 잡아묵으면 하늘에 득천해 올라가는 여시라. 여시가 둔갑해가지고 선녀가 돼가지고 있었는 기라.

그래 여자가 물 떠로 간 새 대왕이가 지팽이로 딱 짚고 그만 천리 길로 막 뛴다 말이다. 뛴께 따라오는데,

"니 이놈! 니가 가믄 몇 발 갈것고? 내가 니를 오늘 저녁에 잡아묵으면 대인을 갖다가 구백구십구 명 잡아묵었는데, 니를 잡아 묵으면 천 명을 묵는다. 니를 잡아 묵으면 내가 하늘에 득천해 올라간다."

카고 딸는데(따르는데) 이거는 한이 없어.

숙종대왕이 힘이 장산데, 그 지팽이로 한 분 딱 때리믄 저기(저것이) 맞으면 꼬꾸러져도 또 뛰면 또 따라오는 기라. 그래 서울 장안으로 와 온 장안에 숨어 댕기는데, 대왕이 후지끼(쫓겨)댕기는 택이지. 그래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제. 그 여시가 잡아 묵을라 해쌓아서.

그래 인자 숙종대왕이가 힘이 풀리가지고 여시한테 잽힐 판이라. 잽힐 판에 저 한 구티이

(귀퉁이)에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드가가지고 큰 수티(독)가 있는데, 수티가 깨지가지고 있는데, 거게 할매하고 할배하고, 육십 살 묵은 할매하고 할배하고 신을 삶아(삼아)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팔아 묵는 기라. 옛날 신을 삶아가지고. 팔아 묵고 사는데, 그래 그 수티는 말하자면 지금 겉으면 할배한테 오줌통 한 가지라. 거기에 소변을 보고 이라는데, 그래 한밤중이나 됐는데, 할매는 신줄을 꼬아 주고 영감은 신을 삼는데, 방에서 나오디,

"할마이 할마이, 내일 큰 일 났다."

캐. 그래,

"와 그라느냐? 영감 와 그래?"

카이,

"국상(國喪)이 나는데, 내가 내일 두건으로 하나 써야 되는데, 내일 쓸 두건을 지어야 된다."

이래. 옛날에는 왕이가 부모 한 가진데, 아무리 나(나이)가 많거나 나가 적어도 어른이니까, [제보자 웃음]

"신 삼지 말고 신줄 꼬지 말고 두건 하나 맨들 것 준비하라."

카거든. 마루 끄티이(끝에) 서가지고 저 하늘을 보면서. 그래 할마이가 한다는 말이가,

"각중에(갑자기) 무슨 국상이 날끼라고 두건 지으라 카느냐?"

고 이라면서. 할멈도 마루 끄트머리 나오고, 영감은 오줌통에 오줌을 누는 기라. 오줌을 누면서 하늘에 천기를 보고 별로 보고 천기를 보는 기라. 거게 오줌통 옆에 숙종대왕이가 엎드려가 있는 기라. 자기 뒤꼭지(꼭뒤, 뒤통수)고 등더리(등)고 낯이고 뭐시고 오줌빨이 막 널찌는기라(떨어지는 것이라). 널찌도 꼼짝 안 하는 기라. 안 하는데, 저놈 여시가 그 집에 빙빙 돌면서 못 들어오는 기라.

그래 할마이가 한다는 말이가,

"국상이 날 줄을 아는데, 국상 안 나도록 방침할 줄은 모르느냐?"

고, 저그 영감을 보고 이라거든. 그라이까네, 영감이가,

"참 어렵다. 방침이가 어려운데, 참 쉽잖다."

고 캐. 그라이끼네 할마이가 하는 말이가,

"어려운 일인데, 우짜든가 그 방침을 알 수 있나?"

물어. 그런데 숙종대왕이 수티 옆에 숨어가 그 소리를 듣네. 듣고 있으이까, 영감이가 하는 말이가,

"그래 방침은 하나 있긴 있는데, 어렵다."

"어렵운 기 뭐 있느냐? 말로 한 분 해봐야 내가 알지요."

이라거든, 할마이가.

"유가(柳家) 집에 피해믄(피하면) 국상을 면핼 수 있다."

이라는 기라. 그런데 그 소리를 숙종대왕이가 듣는다 말이지. 사실은 숙종대왕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

"그 유가집에만 피해믄 국상을 갖다가 면할 수 있는데, 그 유가 집을 우찌 알 수 있노?"

이라거든.

숙종대왕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서울 장안에 유가네 집이 쌔비맀는데(아주 많은데) 어느 놈의 집이 유가네 집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유가 집을 찾는다고 수티 옆에서 나오는 기라. 숙종대왕이가 짝대기를 짚고 나오니까 여시가 또 따랐다 말이다. 여시가 따르면서,

"니가 가면 몇 발 갈끼냐?"

카면서 따라오거든.

대왕이가 서울 장안을 돌아보이까네 안 돼. 유가 집을 알 수가 있어야제? 왕이가 낮에 유가 집을 봤던들 밤에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알 수 있나? 이래서 후지끼댕기다(쫓겨 다니다) 보니가 큰 버들나무가 있는데, 그만 버들나무 우에 올라 탔는 기라. 이것도 버들 유자(柳字) 유가다. 말하자면 숙종대왕이가 유가 집에 피해야 된다 카이 이것도 버들 유자 유가니까 내가 여게 올라갈 빽이 없다 카고 그래 딱 올라 서이까, 이 백여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가,

"니가 살 때가 됐다. 숙종대왕 니(네) 여산(豫算, 궁리)으로 니가 살은 게 아니다."

카면서 돌아가거든. 그래 여시가 신 삼는 그 집에 들어갈낀데, 그 집에 대 이인이 있어가지고, 영감이가 대 이인이 되이끼네 그 여시가 이인 집에 못 들어간 기라. 그런데 거게 영감이가 육십 살 묵우도 대 이인인데, 시(時)로 못 만내가지고 그때까지 있은 기라. 그때 대 이인이 시를 만낸 기라. 그래 숙종대왕이가 살아가지고 시컨(실컷) 있다가 그 집을 한 분 살핀 기라, 숙종대왕이가. 인자 변복을 해가지고 가 보이까 오두막집에 영감이 아주 형편없이 해가지고 살거든. 그래 그걸 아무 소리 없이 보고 왔어. 보고 와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왕이가 명령을 니맀지(내렸지).

"아무데 아무데 가믄 오두막집에 할매 영감이가 신을 삶아가지고 묵고 산단다. 그러이까 아주 참 불쌍이 사니까 심부름을 가서로 할배를 모시고 오너라."

숙종대왕이가 영을 니라이(내리니) 어느 영이라고 안 할 수가 있어? 그래 심부름을 가지고 신하가 가이까네 할매가 그날 저녁에 그 이얘기 핸 줄을 알고 잡으로 왔다고 저그 영감을 대처(매우) 나무래거든. 우리 인제 가믄 죽는다고 [제보자 웃음] 왕이 우리한테 심부름 보낸 때는 우릴 사형시킬라고 보냈지. 우리가 이래 사는데 말이지 왕이 우째 알아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보내겠느냐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영감은 알았어. 나를 한 분(번) 찾을 끼라고 알았어. 그래 영감을 떡 모셔놓고 숙종대왕이가 말하기로 뭐라 카는 기 아이라,

"영감님이 해가 사는 형편을 보이까 아주 난감하는데, 소원이 있느냐?"

고, 그래,

"내가 아무 소원이 없다."

고 그마 그라거든. 그란께 대왕이가 영감 방침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고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고, 숙종대왕이가,

"영감님이가 해가 사는 형편을 보이까 아주 딱하니까 내 평생에 평양 감사에 벼슬을 하나

줄 모양이니까 평양 감사를 가서 한 평생을 잘 살라."

고. 그래 평양 감사를 보냈더란다. 그래가지고 평양 감사로 간 영감이가 나(나이)가 육십 살이 돼서 그때 인자 복을 타가지고 자기 평생을 평양 감사로 지내는 기라. 정치는 불구하고 만날 묵고 놀고 이라는데, 이래 하니까 자꾸 궁실에 보고가 들어와. 정치 잘못한다고. [제보자 웃음] 그래 그 영감쟁이가 대왕한테 정치 잘 모른다 캐도, 잘하기나 못하기나 좋다 카고 그 자릴 그대로 두었어. 그래 그 영감쟁이가 때를 한 분 보더란다.

옛날에 숙종대왕이가 그런 일이 있었어.[7)]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7~242쪽.

[대항동 설화 2]

소금장사와 돼지 원수 갚은 각시

구 술 자: 김두선(남, 75)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대항동

엄두리 총각이가 장(늘) 소금을 짊어지고 시장에 돌아댕기면서 팔아 묵고 사는데, 소금을 짊어지믄 요새 같으믄 열 섬을 지고 댕기는 기라. 힘이 장사라, 엄두리 총각이가. 그래가주고 벌어서 모친하고 둘이서 묵고 사는데, 저 한 군데 가니까 간다고 가니까 비가 오는 기라. 비가 와서 주막집에 떠억 드갔어. 주막집에 드가주고,

"오늘 하루밤 유(留)하고 가겠다."

고, 이라인까 그래 주막집 주인이가,

"당신이 뭣을 짊어졌는냐?"

"소금이다."

소금을 열 두 가마니를 졌는데, 힘이 굉장히 세다 말이다. 그래서 바같방에 들이고 주인 자기는 안방에 자고, 그래 그 안날 '갈라' 카인까, '몬 가라' 카더란다. 여자가 혼자 사는데. 그래서,

"한 열흘 우리 집에서 쉬어 가라."

카는데, 총각이 힘만 세었지,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축귀 비슷한 이런 사람이라. 한 열흘간 잘 쉬는데, 아주 밥도 마이 주고 하이 힘이 더 안 세겠나! 한 열흘이 되이까네,

"당신, 내 따라 가자."

7) 『숙종대왕과 여우』 유형의 광포설화.

카거든. '당신이 내 따라 가자' 카는데, 그래,

"우리 남편이가 아무데 구데이(구덩이) 돼지한테 멕히 죽었는데, 돼지하고 오늘 내하고 싸움을 하러 간다. 싸움을 하러 가는데, 나를 후원만 좀 해도고."

"그러믄 후원을 하믄 우째 후원을 하는 거요?"

"내하고 돼지하고 공중에서 싸우거든 '얘 이놈 돼지야!' 카면서 과함(고함)만 한 분 질러 달라."

이라거든. 여자는 돼지가 자기를 부를 때 땅을 내려볼거니 그때 목을 칠 셈이라.

그래 산중에 가니까, 산에서 돼지와 여자가 오늘 싸움을 하는데, 돼지가 굴 안에서 나오는데 엄청 크거든. 그래 공중에서 싸우는데, 돼지하고 그 여자하고 싸우는데 본께 이 총각이 놀래가주고 까무러쳤다. 이 여자는 총각이 무슨 말이나 할까 싶어서, 기다리는데 결국 말 안 하거든. 그래 둘이가 한다는 말이가,

"오늘 그만 싸우고 쉬가주고 내일 싸우자."

카고 둘이가 헤어져 여자가 와 본께 이 총각이 까무러쳐 있어. 그래 근근이 업고 와가주고 미음을 쑤어가주고 믹이가주고 살렸더니,

"내 갈랍니다."

"왜 그러노?"

"둘이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이 내가 자물씨서(까무러쳐서) 내가 두 분만 보믄 죽겠습니다."

그래도 '못 가라' 하네. 가마이 보이, 싸우다 보이, 만약에 여자가 말하라 하는 것을 하다 보믄 지가 죽겠어.

"소금 가마이가 다 녹아도 내가 대가를 해 줄게."

소금은 자꾸 녹아쌓지, 그 여자가 못 가구로 하는데, 빠져나갔다가 여자한테 들키믄 '내가 죽는다' 이래 싶거든. 그래 며칠 있으니 또 '가자' 카거든. 또 가이 또 그 모양이라. 또 놀래가 자물씼어. 또 여자가 다부 싸움을 중단하고 또 총각을 뎃고 와서 미음을 쑤어 믹인 기라. 총각은 죽지 안 했어. 그래가주고 한 분 가, 두 분 가, 세 분째는 무슨 말 안 하겠나 싶어서,

"요번에 가서 당신이 나를 후원 안 해주믄 당신 죽고 내 죽고 할 기라."

고 하거든. 그래 둘이가 싸우는데 보이까 말도 몬 하겠어. 그래 이놈이 죽는다 카고 말이지, 둘이가 싸움하는 것을 보고,

"얘 이놈 돼지야!"

이렇게 부른께, 돼지 이놈이 잔뜩 여자하고 싸워쌓다가 여자하고 안 싸우고, 이제 총각을 잡아 묵을라고 총각에게 덤벼들 때 총각이가 겁을 내가주고 돼지 앞다리 둘을 딱 들고 붕알을 차고 칼로 끊었는 기라. 돼지의 힘이 붕알에서 나는 힘이라. 그래 돼지 이놈이 죽었어. 그래 여자가 총각한테,

"당신이 내 남편 원수를 갚았으니까 내 집에 보물이 마이(많이) 있다고, 그러인께 당신하고 나하고 인연이니까 당신을 남편을 삼아서 당신 엄마한테 가자."

고, 저그 어마이는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기라. 그래 여자가 총각을 옷을 해 입히 데리고 보물을 싸가주고 저거마이(자기 어머니)를 찾아 오이, 저거마이가 깜짝 놀래. 그래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고 카고, 그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대항동 설화 3]

아기장수 전설

구 술 자: 허 원(남, 72)
구술 날짜: 1991년 7월 12일
구술 장소: 대항동

우리 지방에서는 전설이라 카는 기가, 옛날 [청중을 향해] 영감님 와(왜) 절터에서 용마가 나왔다 카는 그런 전설이 안 있었습니까? 밤꿈(栗里)고개 가는데, 용마 발자죽 포(표지)가 있었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덕섬 이야긴데, 가덕섬, 지금 소양원이라 카는 고아원이 있어요. 소양원 우에 옛날에 우리가 모를 때 절터가 거기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옛날에는 장사가 난다고 이라면, 역적을 몰아서 그 집안을 멸망을 시기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앵이지요?

그래서 어린애를 해산을 했는데, 삼일만에 산모가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서 퍼리(파리) 소리가 '윙'하더라고. 퍼리가 있을 때가 아인데(아닌데) 퍼리가 '윙'하더라고. 그래 창문을 열고 가만이 보이까 사람이 보는 데는 퍼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없으면 왕퍼리가 방안을 꽉 메우고 하는 그런 것이기 있어가지고, 그래 그 산모가 그것을 발견을 했던 모앵이라요, 이상하다고.

그래 요새 겉으면 가족회의라 칼까 우(웃)어른들한테 이야길 하이까 '이(이것이) 장군이 틀림없다. 아이가 크면 장군이 될 아이다' 이래가지고 일주일만에 이 아이가 거동을 하고, 하는 행동이 영 달라서 가족찌리 해나(혹시나) 국가에서 죄책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멧돌, 예전에는 멧돌로 가지고 나락도 찡코(찧고) 보리도 찡코 하던 멧돌을 가슴팩에다가 한 짝을 얹으니까 한 짝이 그냥 펄쩍펄쩍 뛰고 놀아서 두 짝을 얹으니까 숨을 못 쉬고 그 애가 죽었다 카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죽어가지고 그 애는 매장을 하고, 일주일만에 용마가 내려 왔어요. 용마가 내려오니까, 말 탈, 장군 될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없고 이러니, 그 말이 지내가다가 밤꿈고개에 가다가 돌삐(돌맹이) 아래에 그 발자죽을 흔적을 남겼다 카는 그런 전설이 우리 지방에 있지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1~202쪽, '애기장수 전설'.

[대항동 설화 4]

연대봉 전설

구 술 자: 허 원(남, 72)
구술 날짜: 1991년 7월 12일
구술 장소: 대항동

저 산이 연대산인데, 왜놈들이 침범하믄 웅천 시리봉(시루봉)하고 거제 옥녀봉하고 이 연대산봉하고 밤에는 봉화로 서로 연락했는데, 왜놈들이 상륙을 어데 머이(먼저) 했노 하믄 외양포(外洋浦), 외양포에 해가주고, 거게서 조선 사람이 통역을 해가주고 이리 넘어왔어. 넘어와 가지고 연대산이 명지(名地)인 줄 알고, 그놈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 명지의 혈은 다 끊어뿠어.

그래 거게도(연대봉에도) 올라가가주고, 망치하고 쇠말(쇠말뚝)하고 가주고(가지고) 올라가가주고, 연대봉 바위돌을 뿌룰라고(부수려고) 바위돌에다 쇠말을 박을라고 한께, 그 바위돌에서 까치가 한 마리 나와서 세 번 울고 남으로 날라 갔어. 그래 왜놈들이 물팍을 탁 치고 바위돌을 못 뿌랐어. [채집자: 왜 거기서 까치가 날아 나왔습니까?] 까치가 안 죽을라고 날라간 텍이지. 이를테면 그 까치가 산신이지. 산신이 안 죽을라고 도망간 기지.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8쪽.

4) 동선동 설화

[동선동 설화 1]

아기장수 전설

구 술 자: 이영순(여, 66)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한 백년 전의 이야기라. 경주 이씨 가정에 부인이 어린애로 가져가 아이로 막상 놓으니까네, 집안에 수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흘만에 사동이를 이고 샘에 물을 길러가지고 오이까네, 닢헤(눕혀) 난(놓은) 어린애가 없더랍니더.

그래서러 방에 가서 살피니까네, 그 어린애가 변해가지고 포리(파리)가 돼가지고 벽에 붙어 있더랍니더. 그라고 몌칠(며칠) 지나이까네, 어린애 겨드랑이에 작은 날개가 생기더랍니더.

그때는 장수를 놓을 것 같으면 역적이라 이래가지고, 그 일 가문을 구족을 다 직이뿌는 기라. 관가에서 전치(전체) 고마(그만) 사돈 팔촌까지 다 몰살시키뿌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를 갖다가 이씨 부인이 직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맷돌 한 짝을 갖다가 아이 배 우에 얹었는 기라. 얹어 사흘이 돼도 죽지 않고 들썩들썩 하는 기라. 그래 이씨 부인이 직이야 되겠다 싶어 다시 맷돌 한 짝을 얹으이까네 그제사 들썩거리지 않고 죽는 기라.

죽고 나이까네, 그 어린애가 죽은 사흘만에 용마가 와가지고 사립짝 문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울어쌓는 기라. 어린애를 안 직있으면(죽였으면) 용마를 타고 갈긴데, 직이뿌리 놓이까네 용마가 울고 가는데, 어데가 제죽(자국)이 있노 카면 요(여기) 독뫼라 카는 산에 가면 제죽이 딱 하나 있고, 또 저게(저기) 딱거리(정거리) 끝이라 카는데 가면 물가 거게(거기에) 제죽이 있는 기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0~201쪽, '애기장수 이야기'.

[동선동 설화 2]

동묘산 아기장수 전설

구 술 자: 김판수(남, 72)
구술 날짜: 1993년 2월 1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성주 이씨 문중에서, 우리 부락의 동뫼산(東妙山)에, 동쪽에 있는 모양 좋은 산이라고 동뫼산이라 이라거든. 똑 말같은 형세가 있어. 거 사람이 타는 말 안장에다가 이씨 집안에서 모(묘)로 썼던 모양이지. 자기 선친 모로 썼는데, 그 집안에 인자 장수가 났어. 내가 옛날 그대로 노인들로부터 들은 바를 전하자면, 그래 장수가 났는데, 삼일만에 산모가 물로 이고 오니까, 그때는 모두 일 주일이나 이 주일 편안하게 간호도 못하고, 삼일만에 물로 이고 오니까 삼 일 전에 낳은 애 방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벽에 붙어 있는 포리(파리)를 보고 애가 날아다니면서 포리하고 조롱을 하면서 놀고 있거든. 옛날에 그때 어느 임금 때 시대인고 모르지만, 장수가 나면 그 집안을 다 멸망을 시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아차! 이거가 문중을 망치겠다.' 싶어서. 그래가주고 애 배 우에다가 맷돌, 옛날 우리 조상

들이 콩 갈아 먹던 맷돌 한 쪽만 얹어 놓니까, 아기가 피덩어리 한가지니까 한 쪽만 얹어 놓아도 죽을 것 같거든. 그래 한 쪽만 얹어 놓니까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았더라 말이지. 이래서러 두 쪽을 얹어 놓아가지고 결국 그 애를 직이고 나니까 그 뒤에 삼일만에 말이 한 마리, 동쪽에서 용마가 와가지고 울다가 갔는데, 예전에 두 군데 용마 발자국이 바위에 뚜렷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다 오래된 옛 이야기가 되어서러 다 용마 발자국이 묻혔다 카는데 분명히 용마 발자국이 있었다 카거든.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3~204쪽.

[동선동 설화 3]

북두칠성이 생기게 된 사연

구 술 자: 이영순(여, 66)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북두칠성 별들이가 첨므이(처음에) 아부지가 죽고 아들 칠 형제를 낳아놓고 아부지가 세상을 떴는 기라. 그러인께 아들 칠 형제를 터울지게 낳았지마는 곤란하게 살았던 모양이지. 이래 사는데, 아들 칠 형제를 낳아도 옛날에는 열 다섯 살, 열 네 살에 시집을 가거든. 아들 칠 형제를 시집을 가놔놓아도 어무이가 젊었던 모양이지.

이래가주고 저 강 건네를 건네 갈라 카믄 옷을 이만치 거지고(걷고) 갈 그런 강이 있는데, 그 강 너메 갈밭이 있는데, 갈밭에 호불영감님이 하나 살고 있는데, 우쨌든 간에 칠 형제를 낳은 어무이가 그 강을 건네가주고 호불영감한테 자로 가기 된 기라. 이래가주고 아들네가 자다가 가마이 보이 어무이가 밤중만 되믄 나가고 아직 때는 들어오고 이상하거든. 아들 칠 형제 중 막내아들이가,

"형님, 어무이가 밤마중 어두로 가는가 오늘 지녁에는 자지 말고 우리 칠 형제가 어무이가는 데로 뒤를 밟아 가보자."

카거든.

그래 그날 지녁에 자지 않고 가마이 있으인께, 밤중 쭘 집은 단칸 집인데 부엌 한 칸, 나무 한 칸인데 살모시 문을 열고 사알 빠져나가는 기라. 뒤를 따라 간 기라. 가인께 그 동지 섣달 칩은데 이 만치 옷을 거지고 벌벌 떨고 가는데, 아들들도 옷을 거지고 그 집에 간께, 아주 초라하게 사는 갈밭에 있는 오두막 집에 호불영감재이가 있는 거기 가서 자거든.

그래 와가주고 그 안날은,

"형님, 오늘 지녁에는 가가주고 어무이 가는 그 길에다 엎딜라가주고 다리를 놔주자."

이라는 기라. 그래,

"좋다. 그래 하자."

참 그날 지녁에 밤중이나 되어 어무이가 나가는 그 시기에 아들 칠 형제가 나가가주고 그 강에 쭉 엎디리서 잇아서 다리를 놔준께, 어무이가 갈 시간이 돼가주고 밤중 쭘 오디마는 자기 옷을 거지가 건넬라 칸데, 다리를 딱 놔서 안 춥고 다리를 건네이 얼매나 좋아가주고 다리를 건네가주고 하는 말이가,

"하늘님네, 여게 다리 놔 준 사람은 북두칠성이 돼 줄라."

캤는 기라. 그래가주고 참 사다가 그 엄마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어, 지금 북두칠성이 그 사람 아들들이랍니다. 그래 북두칠성 별이가 그 아들 칠 형제가 북두칠성이 됐는 기라. 엄마가 너무 좋아가주고 발도 안 빠주고 춥지 않고 얼마나 고맙아가주고 그래 그 아들들이 북두칠성이 됐더랍니다.

[동선동 설화 4]

도둑질할 줄 몰라 대감 덕을 본 이야기

구 술 자: 이영순(여, 66)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어떤 부부가 참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자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슥이 생기다보이 낳았는 기라. 어린애를 낳아놓고 너무 묵을끼 없고 자기가 방애품 들어 묵고 살다가 어린애 낳아놓고 아무것도 묵을끼 없는 기라. 남자는 옛날에는 서재를 댕겨 공부를 마이 해가주고 과개를 본다든지 출세를 할라고 공부만 하고 있고, 아주 몬 살아도 양반의 집이던 모양이지. 그래 출세를 할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린애를 낳고 배가 고파 죽겠거든. 그래,

"여보, 저 건너 편에 대감의 논에 가가주고 나락 한 곡만 잽이가주고 고거를 뜯어가주고 날로 죽을 낋이가주고 좀 줄라."

고 그라인께, 이 남자가,

"도둑질을 안 해봤는데, 어찌 도둑질을 하겠노?"

마누래는 어린애를 낳아놓고 굶어 죽겠다고 도둑질을 해가 오라 카고, 나는 도둑질을 안 해 봤는데 어째 할고 큰 수심(愁心)인 기라.

밤이 되니 조그마한 장종지를 후주머니에 옇고가가주고 대감의 나락을 비(베)가주고 가을에 구시월인데 주말이 쳐놓는데 거기 가가주고 그 위에 물이 흐르는데 세수를 딱 하고 장종지에

떠놔놓고 '하늘님 아부지 건너 편에 대감님 나락을 한 단 째비(훔쳐)가주고 가도 내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래 캐놓고, 자기가 한다는 말이가 '안 되지' 왔다. 집에 와가주고 '오늘 지녁만 남가(넘겨)놓으면 또 도둑질 하러 가라고 안 카지' 싶어서 가인께, 문 앞에 가인께네,

"여보, 내가 대감님 논에 가서 나락 한 단을 째비올라 카이 머슴들이 나와 지키는데 어째가 오겠습니까? 몬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그라거든. 또 대감님 논에 가서 또 그 일을 어째 할고 죽을 지경이라. 또 할 수 없어서 또 갔다. 가가주고 또 종지에 물을 떠다놓고 '하늘님 아부지, 대감님 나락을 한 단 째비가주고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지' 또 이래 카는 기라. 이래놔놓고 집에 왔는 기라.

집에 오다 보이 진짜 그날 지녁에는 머슴들이 일찍 와가주고 가마이 보이, 건너편 오두막살이 몬 사는, 집을 움막같이 지아가주고 몬 사는 그 집에 어린애를 낳아놓고 곤란하다 하디마는 참 나락을 째비러 왔다 빈 손으로 가는 것을 보고, 머슴이 대감한테 일렀는 기라.

"대감님, 건너편에 어린애 놓고 배가 고픈가 와가주고 남자가 '나락을 째비가 안 되지, 참 안 된다' 카면서 그래 정신을 들이고 가더라."

이거라. 대감이 가마이 생각하이 너무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이라서 창고 열쇠를 가주고 창고 문을 끄르(끌러)가주고 말에다가 쌀과 미역을 실고 머슴을 보내놓인께, 세상에 대감님 나락 도둑질하러 간 것을 알고 있으인께,

"살리 줄라."

고 비는 기라. 가 오지는 안 했지마는.

"그래 대감님이가 너무 곤란하게 산다고 이거를 끓이가주고 해 잡수라고 캅니다."

카인께로, 그래도 '살리 줄라'고 이란께,

"그것이 아이라 해 잡수라 캅니다."

캐가주고, 그래,

"이거로 가주고 다 잡수고 나믄 또 대감님이 주겠다."

캐가주고, 그 쌀로 가주고 밥을 해가 묵고 잘 사는데, 대감님이가 또 재산을 그 사람 평생 묵고 살 만치 주가 잘 살더랍니다.

[동선동 설화 5]

자기가 소가 되어 죽은 여자

구 술 자: 조정원(여, 65)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한 사람은 등짐을 지고 장사하로 간다고 떡 갔거든. 점두록 길로 길로 가인께 해가 지고 어두울라 하는데 한 주막집이 있어 들어간께, 그 집 주인 여자가 말이지 바느질을 하면서 저녁도 안 먹고 두루마기를 송당송당 해쌓거든. 하더만,

"아저씨, 이걸 한 분 입어 보이소 맞는가."

이라거든. 두루마기를 한 분 입어보이 고만 소가 돼뿌리는 기라. 소가 돼뿌인께 그만에 이 여자가 소를 갖다가 마굿간에 매뿌거든. 속은 그대로인데 껍디기는 소로 변해놓이 기가 찰 판이라 말은 몬 하고. 그래 조금 있으인께 주인 영감이 오인께,

"소 한 마리 있다."

이라거든. 그런께 장에 갔다 온 모양이지.

"소를 한 마리 맹글어가주고 놓았으이 마구에 한 분 가보라."

가보인께, 번들번들한 소가 한 마리가 매여 있거든.

그 안날 장에 팔로 간다. 이 여자가 머로(뭣이라) 카는 기 아이라,

"소를 팔로 가거들랑 무시(무)를 절대 믹이지 마소."

이라거든. '옳지, 들어놨다' 싶어서 따라가네. 끈을 따라가인께, 저 소 사로 온 사람하고 주인이 소를 매놓고 술 한 잔 묵으러 주막집에 들어가거든. 그래 줄을 펄떡 띠(떼어)가주고 무시전에 가서 무시를 발로 툭 차가주고 깨 묵은께로 그만 사람이 되는 기라. 두루마기는 벗어지고.

소가 되었던 이 사람이 또 간다. 그 집에 간께 또 반갑게 맞아들이거든. 거기서 들어가서 지녁밥을 묵고 앉아 있으인께네 또 두루마기를 송당송당 짓거든. 그만 여자를 두루마기로 딱 덮어 씌아가 입힌께 번들번들한 암소가 되거든.

다른 길로 저그 집에 가는 판이라, 몰고. 가서 저그 집에 매놓고 시장에 팔로 안 가는 기라. 이 소로 새끼를 서너 배 빼는 기라. 빼나 놓고 이 놈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모아가주고 국을 깧이가 잔치를 하고, 그래 그 여자를 원수를 갚더란다.

[동선동 설화 6]

시묘사는 과부의 가르침으로 과거 급제한 사람

구 술 자: 조정원(여, 65)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한 사람은 글로 배와가주고 과게 급제해 보겠다고 가거든, 도중에 간께 묘를 떡 쓰나 놓고 거게 집을 지어놓고 젊은 여자가 시묘를 사는 기라. 시묘를 사는데, 가다가 저물어서 할 수

없어서 그래 주인집에 ‘자고 가자’ 한께네, ‘자라’ 하거든. 그래 자다가 이 여자를 보고 남자가 탐을 냈는 기라. 탐을 낸께, 여자가 남자를 보고,

“내가 당신하고 말이지 관계를 맺으면 이 묘 안에 들은 영혼이 운다.”

카거든. 그걸 글로 하던데 잊아뿠다.[8] 그래서 참말로 하나 배운 기 있는 기라. 그래 올라갔다. 올라가주고 참 주막을 하나 정해가주고 과게 시험볼 장소 졑에 숙소를 정해가주고 떡 있으인께, 글로 주룩주룩 밤에 읽은께, 참으로 얼마나 얼마나 좋은 여자가 방에 들오거든. 들어와가주고 그만 이 남자를 보고 장난을 하고 거머쥐고 딜이져거든. 거기서 남자가 가마이 생각한께, 지가 도중에 오면서 그 여자한테 배운 기가 있는 기라. 그래 여자를 보고 인자 타일렀는 기라.

“내가 만일 당신을 범하게 되면 당신의 죽은 그 남자의 영혼이 울고 간다고 그래 몬 하겠다.”

고, 그런께, 여자가 울고 나가거든.

나가고 난 뒤에 ‘어흠’ 이라디마는 문을 척 열고 들어오는데, 그 안날 과거 시험을 보는데 심판할 그 사람이라. 심판할 그 사람이 탁 들오거든. 들어오더니, ‘하면 그렇지’ 이라거든. 그기 누구냐 한께로 저그 아들이 죽었는데 저그 며느리거든. 저그 며느리가 밤에 몬 견디가주고 나가는데, 뒤를 밟았는 기라, 시아바이가. 뒤를 밟아 가인께네 그 방으로 들어가거든. 그 들어가서 있으인께로 가마이 들어보인께, 남자가 여자를 타일러가주고 ‘본 남자가 울고 간다’ 카고 그라인께, 여자가 마음을 접고 나오는데, 그래 대감이 감탄을 했는 기라. 감탄을 해가주고,

“오늘 지녁에 만약에 그 여자를 갖다가 다쳤으믄 너는 내 손에 소리도 없이 죽는데, 네가 그 며느리를 달개서(달래서) 보냈으인께 참 고맙다.”

카면서러 가거든. 가면서,

“내일에는 과게를 볼 때 딱 그 글을 써옇어라.”

카더란다. 그래 하믄 틀림없이 그것 할건대, 그래 인자 문제를 내는데 그래 그 글을 써 옇었는 기라. 그래 써 옇은께로 걸맀더란다. 그래 걸리가주고 대감이 저그 며느리를 주더란다, 그 남자한테. 주는데, 그 글로 중간에 오면서 그 여자한테 들어 배완 글로 그 여자한테 써묵었는 기라. 써묵은께로, 그 여자를 안 다치고 그 글로 가주고 포(표시)로써 ‘죽은 남자가 영혼이 울고 간다’ 카고 포를 주인까, 가마이 들어본께 옳거든. 그래놓인께, 여자가 나가고 난께, 저그 시아바이가 들와가주고 그래 ‘내일에는 요 글씨를 딱 써 옇어라 그러믄 틀림없다’ 이래 갖고 문제를 내는데 답을 딱 그래 써 옇은께, 걸릴 것은 사실 아이요. 중간에서 배왔거든. 그래갖고 이 남자가 뭐라고 생각했노 카믄, 이 여자를 뎃고 가는데, 이 여자는 뒤에 만났으니까 암만 대감 며느리라도 그기고(작은 마누라), 지가 올 때 그 여자한테 배완 그 사람을 큰사람으로 삼고, 이 사람은 작은사람으로 삼고 그래 잘 살더란다.

8) 兩人今夜有情 黃泉歸夫何哭也. 또는 新人迎於今夜 舊郎哭於黃泉.

[동선동 설화 7]

외손자의 방앗공이(1)

구 술 자: 조정원(여, 65)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부터서 '외손지는 방앗고'다 이르거든. 그래 옛날에 한 사람이가 딸하고 사우하고 외손지를 낳아놓고 죽었던 모양이지. 그래 외손지가 커서 중국을 갔거든. 그래서 구차해서 몬 살아서 돈이라 좀 보내라고 편지를 써서 중국에 외손지한테 보냈는 기라. 외손지가 방앗고를 하나 요만한 방앗고 다듬어가지고 그래 옻칠을 딱 해가지고 보냈거든. 아이구 이거 돈일랑 좀 보낼란가 싶어서 그래 방앗고를 보이 돈도 없고 쓸 데가 없거든. 이거 몬 씨는 방앗고를 보냈노? 이래 됐는 기라. 또 하인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야야, 돈이나 좀 보내줄가 싶어서 그래 보냈더니, 돈은 한 닢 안 보내고, 몬 씨는 방앗고는 뭐 할라고 보냈노?"

이랬는 기라, 할아부지가. 그란께 또 인자 편지를 써가 보내기로,

"할아부지, 방앗고를 몬 씨는 방앗고가 아이고 그 안에 따개(쪼개) 보이소."

이랬는 기라. 그러인까 와서로, 저그 편지를 가져와서 전해 주거든. 따개 보인께, 그 안에 금이 소복하게 해가 있더라고. 그래 금을 팔아 잘 묵고 살았는데, 그래서 방앗고 몬 씨는 방앗고 잘 찧으면 금방앗고 외손지가. 외손지가 잘못 되면 몬 씨는 방앗고 잘 되면 금방앗고라는 말이 났어.

[동선동 설화 8]

외손자의 방앗공이(2)

구 술 자: 김정순(여, 75)
구술 날짜: 1990년 8월 1일
구술 장소: 동선동

한 가난한 집에 처이가 시집을 간 기라. 시가는 밥이라도 묵던 기라. 그래 시집을 가가주고 아들을 낳아가 아가 열 살을 묵도록꺼정 통 친정이라고는 안 갔거든. 안 가이, 아가 어마이한테 하는 말이,

"엄마, 엄마, 우리는 외가집이 없소?"

아이들 저그끼리 우리는 외가집에 가고 뭣을 우짜고 카이 듣고는,

“우리는 외가집이 없소, 외할배 외할매가 없소, 와 어메는 한 분 외가집 구경간다고 날로 덧고 안 갑니까?”

이라이, 아들의 말을 듣고,

“애야, 외가집이 왜 없어, 외가가 없는데 너가 낳겠나? 외가는 있건마는 몹시 몬 살아서 내가 가믄 대접을 몬 해 보내서러 그래 내가 안 간다.”

이라이,

“그렇기 몬 삽니까?”

이라거든.

“그래 몬 산다.”

그라이,

“할매 할배에게 오라고 연락을 하믄 안 됩니까?”

“하믄 되기를.”

“그라믄 할매 할배를 한분 댕기로 오라.”

카거든. 그래 그 소리를 들은 아가 저그 뒷동산에 밤나무가 많은 것을 알았던 기라. 그 중 큰 밤나무를 잘라가주고, 복판에 톱으로 써가 짜구(자귀)로 복판에 호박(확)을 뚫버가주고 방앗고를 맹글라 엽전을 한 방앗고 옇어놓고 솔가지로 덮어놓고, 그래 기별을 한께, 며칠 있으인께 당도를 하거든. 당도해서 보인께, 외손주가 그만큼 커서 놀래겠거든.

딸이라고 시집을 가놓이 친정도 안 가고, 딸이 시집간 지 십 년이 넘었는데. 그래 사돈 왔다고 모두 배껕사돈을 접대하고 한 사나흘 쉬어가 올라 카인께, 그래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그래 아는 저거매에게,

“나는 할부지 어데꺼정 가는데, 접대를 하고 올 낀께 다 들어가라.”

고, 그래 할배를 보내놓고, 돈 방앗고를 산에 묻어놨다가 딱 가주고, 저그 할배 가는 질(길)을 질러가가주고, 저 가가주고,

“할배, 이 방앗고를 가 가서러 아무도 보는데 하지 말고 할배하고 할매하고 끌어가 보고 그래 칼로 뚫어 이용을 하라.”

고 카거든.

“야야, 이 안에 뭣고?”

“아무 말할 것도 없고, 내 시긴(시킨)대로 하라.”

그래 가주고 가서, 자슥들 모두 자고, 할범 할멈 둘이서 외손자 시긴대로 단속을 해가 띠(떼어) 보이 엽전이 수두룩 해가 있거든. 이 돈을 내어가, 참 옛날에 땅 한 평이 몇 냥 하나?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짓고, 아들 장개도, 보내고 부자가 됐어. 그래가 ‘외손자 방앗고’라 카는 그런 역사가 내려온답니다. 외손자 방앗고도 쓸 데가 있다 카는가.

[동선동 설화 9]

박복한 사람 복 타러간 이야기

구 술 자: 김찬이(여, 80)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하도 하도 몬 살아서 어데를 가믄 복을 탄다라 카더라 싶어서, 그래서 인자 복을 타러 간다고 질(길) 없이 걷네. 어데로 어데로 가다가 한 노인한테 묻네. 가인께 한 노인이 나무를 툭툭 패샇거든. 그래 그 노인한테 묻는다.

"할버이, 할버이, 하도 하도 복이 없어서 내가 복 타러 간다고 이래 갑니다. 어데로 가믄 복을 탑니까?"

이래 묻는다. 물은께,

"그래?, 그러믄 저 건네 저 질로 가다가 왼길로 가지 말고 오른쪽 편으로 빠져서 그래 가거라. 가믄 거기 있다."

이라거든. 그래 인자 그리로 간다. 가이 질이 있어. 그래 오른쪽 편을 뻐져서 간다. 쉬음없이 가인까네, 한 집이 턱 나섰다. 그래 대문을 열고 척 들어갔다. 드간께, 허연 할배가 앉았거든. 그래,

"할버이, 할버이."

이러 칸께 대답을 안 해.

"아! 내가 니 올 줄 알았다."

이라거든.

"할버이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복 타러 온다고 이래서 내가 왔습니다."

이러 카이,

"그래, 내가 니 올 줄 알았다. 니 복은 니 평상에 니 복은 없다."

복은 없는데, 그래 복 주머이가 천장에 쳐다보인께로 조롱조롱 약국에 약 봉지 달리 듯이 천장에 달려 있거든.

"니가 요 봉지를 가 가거라. 가 가서러 이 아(兒) 복으로 니가 묵어라. 묵으믄 이 아 날 동안에는 니가 묵고 살 끼다. 그래 이 아가 낳으믄 가(그 아이)를 니가 복을 줘야 된다."

"예."

카고, 복 주마이를 하나 줘서 들고 왔다. 온께, 해그름(해거름)한께 그래 복주머이를 달아놓다. 달아놓고 그래저래 사인께네 제법 뭣을 해묵어도 살겠고 뭣이 묵을끼 생기고 그래저래 살았다. 살림을 제법 이라놓고 산다. 사이꺼네, 한날은 배 부른 사람이 하나 비가 철철 오는데 들어오더니,

"비를 좀 피해 갑시다."

카고 들어오거든. 그래 이 사람은 참 온갖이로 방을 하나 치아가주고, 거기에 턱 앉히놓고 있으인께 지녁을 해서 잘 믹이놓이 그날 밤에 아를 낳아. 그날 밤에 순산을 저그 집에서 했다. 해놓이 아들을 낳아. 낳아논께네 그래 그 집에서 하리 가고 이틀 가고 그래저래 일 주일, 이 주일, 삼 주일 있다가 모자가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고 나이 이 사람이 가마이 생각해보이, 이 집에 복 주머니가 새거든. 이래서 이 사람이 이랄 기 아이라 담 안에다가 집을 지어가주고, 저 사람 둘이로 모자간에 살릴 수밖에 없다 싶어서, 따리(따로) 울 안에다가 집을 한 채 지어가주고, 거게서 모자를 방을 주고, 집을 징키라고 이 집에 당신네가 사라고 이래 카고 그래 묵을 것을 당해주고 그래저래 사인께네 그만 그 살림이 부자가 돼.

부자가 된 것은 그 아 때민이라. 그 아 복으로 그 아를 낳을 적에 그 집에 와서 낳아. 그래 그 집에 주인이 그래 생각을 해가주고, 한 울 안에다가 집을 지어가주고 모자간에 살기로 해주고, 그 농사 지어가주고, 그 사람들 묵고 사는 걸 도와주고, 그래저래 잘 살더란다.[9)]

[동선동 설화 10]

동구시 복 이야기

구 술 자: 조정원(여, 65)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한 사람이가 복이 얼마나 없었던지 나무로 두 짐만 포개 놓으면 하늘에서 달랑 달아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래는데, 그래서 하룻밤에는 따악 나무둥치에 들앉아 있으이끼네, 호두루바람(회오리바람)이 히딱 불더니만 하늘에 달랑 달아 올리가거든.

그래 올라가이끼네 오만 사람 복을 천장에 다 달아놨는데, 지(제) 복은 통 없는 기라. 없어서러 참 애원을 애원을 해쌓이께,

"그러믄 너는 복이 지독하게 없는데, 저 땅에 새로 날(태어날) 아(아이) 복을 좀 가져 가라."

카거든. 가가(그 아이가) 복이 천 석이라, 이름이 동구시인데.

"동구시 복이나 줄까, 줄 끼(게) 없다."

카는 기라. 그래서 좀 얻어가지고 인자 내려와가지고 그럭저럭 우째 살다 보니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이래갖고 한 천 석 살아지는 기라. 살아짔는데, 그래 하루는 들에 간다고 낮에 실실 나가이끼네 웬 여자가 동구나무 밑에서 순산을 해. 낳으이께는 아들이거든. 그래,

9) 『搜神記』 권 10의 '張車子'에 나오는 주인공 주람책(周攬幘)이 남의 복을 빌려서 사는 설화와 비슷하나 다른 유형의 借福談이다.

"이 아는 이름을 동구나무 밑에서 낳았으이께 동구시라고 지야 되겠다."
이라거든.
그래 저그 집에 델고(데리고) 가가지고 참 그기(그것이) 생각키서 구완을 잘했다 말이다. 구완을 잘했거든. 해주고, 이 사람이 생각해 보이 '야(이 아이) 복을 먹고 이렇게 살았으이끼네 내가 이것을 야로 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참 그 이야기를 하면서러 그 살림을 다 주었는 기라. 주이끼네 하느님이 그 사람의 충심을 보고 지심(至心)을 묵으이끼네 그 사람한테 천 석을 더 주고, 그 아(아이)는 그 살림을 가지고 그래 잘 살더라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0~211쪽.

[동선동 설화 11]

범과 수숫대

구 술 자: 김정순(여, 75)
구술 날짜: 1990년 8월 1일
구술 장소: 동선동

한 할매가 묵을 해가 딸네집을 가거든. 가이께네, 한 고개를 턱 넘어가인께네 범이 앉았다가,
"할마이, 할마이, 묵 한 덩어리 돌라."
카이 한 덩어리 띠(떼어) 줬다. 또 한 고개를 넘어가니 범이 또,
"할마이, 할마이, 묵 한 덩어리 주믄 니 안 자(잡아) 묵지."
이라거든. 또 줬다' 또 한 고개를 넘어간께, 또 앉아가 또 그라거든. 줬다. 또 넘어가이 또 그란다. 줬다. 또 범이 앉아가 그라이, 또 줬다. 이제 줄 대로 다 줬다. 묵은 다섯 덩어리거든. 그놈의 한 마리 범이 그래. 끝에는 할마이를 직일라고. 그래,
"범아, 범아, 너그들에게 다 갈라 주고 아무 것도 없고 빈 양재기다."
이라거든.
"그러믄 할마이 니 머리에 이 잡아 줄거마 내졑에 눕거라."
이라거든. 할 수 없어 누었다.
"돈이 있거든 날 도고."
이라거든. 그라고,
"할마이 니 거랑에 가서 등물 처줄거마."
그래 따라갔다.
거랑에 가서 목(목욕)을 감는데, 옷을 잔뜩 벗는다. 벗으이, 등물 친다 카더만 홀랑 마시뿌

거든, 범이.

범이 할마이를 옷을 할딱 빗기가주고 묵고, 인제 할마이 옷을 입고 묵 다섯 덩어리 받아놨다가 양재기에 담아 이고 딸네집으로 가네. 딸네 방에,

"야야, 있나?"

이라인께, 딸이 첫 아를 놓고 며칠쯤 되고 잤던갑대. 자다가 일나며,

"오매 오요?."

"온다. 니 줄라고 묵 해가주고 온다."

이라거든. 아무리 봐도 저거매 모습이 아이고 말도 잘 하거든. 이상하다 싶어서러,

"오매, 울 어매도 아가 있는데 졑에 있어도 내 물 이고 와서러 점심 한 분 해 드릴게."

"오냐."

캄서러, 물을 이고 집에 들오이 비린내가 확확 나거든. 범이 아를 작살했는 기라. 그래서 나도 죽겠다 싶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집 뒤에 커다란 회나무가 하나 있던 기라. 그래 올라갔네. 올라가가 있으인께, 이놈이 '물 이고 왔는데 어디 가고 없다'고 그때는 둔갑이 돼가주고 옷이나 뭐나 다 치아뿌고 범이 돼가주고 그 사람 자아물라고(잡아묵을라고) 사방으로 돌아 댕기는데, 회나무에 올라 앉아 본께 우습거든. 그 밑에 웅덩이를 들다보이 웅덩이에 앉아 있거든. 이놈의 범이 그걸 자아묵겠다고 그 물을 다 쪼랐(줄였)는 기라. 자아물라고, 다 쪼라도 없거든. 나무 위에서 돌을 던지이, 휘뜩(후딱) 위로 보이 그 우에 앉아 있거든. 범이가,

"아이구, 니는 우째 올라갔노?"

이라인께,

"앞집에다가 짜구(자귀) 얻고, 뒷집에다가 참지름 얻고 해가주고 짜구로 찍고 참지름 볼라 올라왔다."

그래 범이 진짜 짜구를 얻고 참지름을 볼라 올라갈라 하이 미끄럽어 올라갈 수가 있나. 그래도 어띻기 올라오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이,

"하늘님네, 하늘님네, 나를 살리라 카거든 줄로 내라 주소. 죽일라 카거든 헌 줄을, 살리라 카거든 새 줄을 내라 주소."

새줄이 시르르 내리오거든. 그래 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삤다. 이놈의 범도 우째 올라가가,

"하늘님네, 하늘님네, 내가 죄가 있거들랑 헌 줄을 주고 죄가 없거든 새 줄을 주소."

그래 하늘에서 줄이 내리오이 까불까불 올라가다가 썩은 줄에 퉁 널찌서 수싯(수숫)대에 밑구영이 쿡 찔려가 죽어뿠다. 죽어뿌서 수싯대에 거게 피가 안 있던교. 수싯대에 벌거이 있지요, 그기 옛날에 범피요.

[동선동 설화 12]

제 복으로 돈을 모은 셋째 딸

구 술 자: 김찬이(여, 80)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 한 사람이 딸이 세이라 아들은 없고, 그래 살림은 좀 잘 살던 모양이라. 그래 딸로 큰 딸로 척 부른다.

"야야, 니는 누 복으로 먹노?"

"아부지 복으로 먹습니다."

그래 인자 또 둘째 딸로 부른다.

"니는 누 복으로 먹노?"

"아부지 복으로 먹습니다."

또 셋째 딸로 부른다.

"니는 누 복으로 먹노?"

"너는 내 복으로 먹습니다."

이러거든. 이놈 기집아를 직인다고, 그 마을에 관사가, 시방 같으믄 회관이 있던 모양이라. 거게는 그 고을에, 사또만 들어가도 그 관사에 들어가믄 사또가 죽어. 죽고 죽고 이라는 그 집이라. 이놈의 애비가 직인다고 그 집에다가 옇어뿠다. 옇어뿌고 문을 잠가놨다. 그래놓이 가만이 혼차 있다. 커다란 집에 혼차 있으이, 천장에서 뭣이 줄줄줄줄 쏟아지는 그걸 보고 말캉(모두) 놀래서 다 자빠져 죽어. 놀래서 잡아가는 것이 아이라, 놀래가 다 죽고 죽고 아직도 영장 치고 영장 치고 이렇거든. 가(그 아이)는 그날 밤에 가마이 있은께 줄줄줄 천장에서 쏟아지거든. 가 눈으로 가마이 보이 말캉 돈이거든. 그 돈이가 사(邪)가 일어가주고 줄줄 쏟아지는 걸 보고 말캉 감사가 다 죽어. 사또만 그 집에 드가믄 다 죽어. 그래 가는 쏟아지는 그 걸 치매에 받으이 말캉 돈이거든. 아직에 송장을 치룰라고 그 마을 사람이 들어가인께 아가 덜렁 살아 있거든. 그래 쏟아지는 것이 말캉 돈이란다. 그 돈을 지가 챙기기를 다 했어, 가가. 챙기가 있어. 챙기는 만큼 부자 아이가? 그래 지 복을 묵고 산다 말이다.

[동선동 설화 13]

소금의 쓰임을 안 막내딸

구 술 자 : 김정순(여, 75)
구술일자 : 1990년 8월 3일
구술장소 : 동선동

옛날에 한 집에는 아를이 없고 딸로 샘 형제를 덧고 사는데, 딸 세이는 아부지 좋다고 이르는데, 딸 서이를 덧고 앉아 과일을 묵으며 물은 기라. 큰 딸을 보며,

"니가 너그 아부지를 이만저만 좋다 카이 나를 얼마만치 좋아 여기노?"

"아부지 등잔같이 좋습니다."

그래 둘째 딸을 불러가주고,

"니가 아부지를 얼마만치 좋노?"

"나락꽃만치 좋습니다."

나락꽃이라 카는 것은 쌀을 나락꽃이라 카거든. 막내딸을 불러,

"니는 나를 얼매만치 좋노?"

카이,

"아부지, 소금같이 좋습니다."

막내딸이 이렇게 말하이, 아바이가 생각하기를 '아비를 제일 나쁜 소금같이 좋다' 카이, 막내딸을 직이니 살리니 난리를 직이니까(치니까), 그 안날 아직에는 막내이가 저그 새이를(형을, 언니를) 보고,

"오늘 이직에는 아부지 밥을 내가 전부 할낀께 아무도 손 몬 대라."

카는 기라. 그래 참 나물에 반찬을 쭉 담는데 장을 안 옇는 기라. 장을 안 옇이끼네 이것도 머봐도(먹어보아도) 싱거부리하고(싱겁고) 저것도 머봐도 싱거부리하고 아주 맛이 없거든. 그제야 '소금같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없구나' 생각하고,

"막내딸이 제일 낫구나!" 카더란다.

[동선동 설화 14]

형제와 도깨비 구둘방망이

구 술 자: 최복련(여, 77)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형제간이 요래 사는데, 형님은 잘 살고 동생은 참말로 몬 살아가주고, 형님 집에서 구박을 주고 구박을 주고 해쌓인께, 하로는 밥도 굶고 자슥들 하고 살라고 산에 가가주고 깨묵(개암)이나 좀 따가주고 와서 뽀사 묵두록 주믄 되겠다 싶어가 해가 질 녘에 산 넘어가이 깨묵이 많이 있거든. 깨묵이 많이 있으인께, 깨묵을 한 개 따가주고 이거는 우리 아부지 주고, 또 이거는 우리 어무이 주고, 또 한 개를 따다가 이거는 형님을 주고, 차차로 이거는 우리 형수 주고, 이거는 우리 조캐 주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깨묵을 따다가 이거는 우리 각시 주고,

이거는 우리 아들 주고 이거는 내가 묵고, 다 챙기고 나서 딸끼(딸 것이) 안중 많거든. 따다 본께네 해가 다 졌거든. '어디로 가겠노?' 카고 이래저래 보이 불이 쪼마나이 빤하게 있거든. 그래 올라갔다. 살살 올라가서 자고 나믄 가야 되겠다 싶어가주고 그래 간께네 아무도 사람이 없어. 없는데, 본께네 우에 들것 같이 해놨어. 그 우에 올라 앉아서 깨묵을 가주고 가마이 내리다 보고 앉아 있으이, 그만 우두두둑 하더마는 오는 것이 도깨비들이라. 도깨비가 들오더마는 구둘방망이로 '밥 내놔라. 옷 내놔라. 돈 나오라' 이래 뚜드리대거든. 뚜드리댄께네,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이래쌓는데, 이 사람이 들것에서 깨묵을 입에 옇어놓은 것을 왁싹 뽀수인께, 와짝짝 하거든. '와 집이 다 무너진다' 이라면서 도깨비들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을 가뿠어. 그래 됐다 싶어 가마이 좀 앉아 있다가 내려왔다. 내리오이 구둘방망이를 내삐리고 가뿠거든. 그래 구둘방망이를 주워가주고 딱 보관을 해가주고 왔다. 와가주고 저그 집에 와가주고 양식이 없어가주고 배가 고파서 구둘방망이를 뚜드리며 '밥 나오라' 카이 밥이 나오거든. '옷 나오라' 카이 옷이 나오거든. 각중에 부자가 돼뿠거든. 구둘방망이를 뚜드리면 뭣이 다 나와. 부자가 돼가주고 있으이, 부자인 형이 샘(새암)이 나가주고,

"동생, 너는 우째가주고 부자가 됐노? 도둑질 했지? 아이믄 째빘지?"

"형님 그런 기 아이라 내가 사실을 이야기 할께, 어느 산골에 가가주고 형님한테 구박을 받고 가가주고 깨묵을 따가주고 고래 와서러 어데 가인께 집이 있어서 들것에 앉아가주고 깨묵을 왁싹 뿌수인께 도깨비가 다 달아나서 그래 구둘방망이를 가왔다."

이라거든.

"됐다. 나도 가야 된다."

욕심이 많아가 그래 가가주고 깨묵을 따면서러 한 개를 따가주고 이거는 우리 각시 주고, 이거는 자슥 주고, 쭈욱 들믹이가주고 깨묵을 따서 보이 불이 있거든. 올라갔다. 올라가가주고 들것에 앉아 있으이, 우두두둑 해쌓더니 도깨비가 오거든. 지도 깨묵을 왁싹 뿌수인께,

"아레 왔던 그놈인갑다."

카면서러 도깨비들이 와가주고 그놈을 꺼내(끄어내)가주고 얼매나 구둘방망이로 뚜들겨 팼던가 꼬치가 만발이나 빠졌는데, 그걸 질질 끌고 간께네, 저그 각시가,

"아이구 우짤고? 꼬치가 저래 빠지믄 안 되는데, 서방님 쪼깨 들어가라 카이소."

이라인께, 시동생이 구둘방망이를 가주고 와서, 뚜들기며,

"형 꼬치 들어가라."

카이 들어가는데, 형수가 시동생한테,

"많이 드가지 말고 쪼깨 남구고 드가라."

고 카더란다.

[동선동 설화 15]

처녀를 겁탈하려다 범한테 죽은 중

구 술 자: 조정원(여, 65)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한 과부가 딸 하나 보고 늙었거든. 늙으면서 뒷동산에 절로 가서 공을 드리는 기라. 공을 드린께 생전에 안 그라더마는 하루는 중이,

"너그 딸을 뒷동산 절에 중에게 치우라."

이라거든. 참 이상하다 싶어서러 이적디(이때까지) 댕기도 그런 소리가 없었는데, 우짠 일인고 싶어서,

"정말입니까?"

이랬는 기라.

"정말이다."

카거든. 또,

"정말입니까?" 또,

"정말이다."

카거든. 그래 할 수 없다고,

"그라면, 어느날 어느시에 그래 지고 갈 낀께로, 궤를 짜가주고 처이를 그 안에 담아 옇어가주고 마당에 내놓아라."

카거든. 그래 와가주고 참 궤를 짜가주고 딱 처이를 옇어가주고 내놓으인께로 그 시간이 되인께로 그래 중이 가지러 내리왔거든. 이놈이 그래 궤를 지고 가다가 내라놓고 소변을 하러 갔던 모양이지. 그래 하는 역에 산신령이 처이를 딱 들어내고 호랑이 새끼를 한 마리 옇어놨어, 궤짝 안에다가. 그래 지는 모르고 짊어지고 간께네, 안에서 파닥 파닥거리며 오줌을 찍찍 싸거든. 이놈이 좋아싸서 어루믄서(어르면서),

"똥을 싸도 내 사랑, 오줌을 싸도 내 사랑."

이라인께, 이 범새끼가 틈으로 발로 내가주고 등드리를 싹 까래비거든. 까래빈께네,

"좋다고 핥는다. 오줌을 싸도 내 사랑, 좋다고 핥는다."

이래쌓거든. 그래 참 가가주고 궤를 내라놓고 상좌들한테,

"오늘 지녁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방에는 절대로 몬 들다보라."

이래나 놓고, 떡 음식을 한 상 채리놓는 기라.

그래 궤문을 열어놓은께 호랭이 새끼가 팔딱 뛰어 나와 그만 이 중을 잡아 묵을라 하믄 얼마나 방에서 작단(斫斷)을 하겠노. 법술을 해가주고 중의 혼을 다 빼가주고 작살을 낼 끼거

든. 방에서 아무리 작살을 나도 아무도 몬 딜다보라 캤으니까 몬 딜다본다 아이가.

아침에 밥을 해놔도 기척이 없고 안 나오고 한나절 돼갖고 할 수 없어서러 밥 무라고(먹어라고) 문을 열고 들어갈라 카이 호랭이 새끼가 한 바리 쪼글씨(쪼그려) 앉았다가 팔딱 뛰어나가뿌고 방에는 비린내가 나고 피가 한방이거든. 그래 이 중이 호랭이한테 찢겨 죽었는 기라.

그래 중은 죽고 그 처이는 저그 엄마 말마따나 아무것이는 전라감사나 암행어사나 그래 사우를 해 달라고 절로 해쌓더마는 그 처이는 저거매 말대로 그래 암행어사 출두를 해가주고 저그 집에 가는 도중에 좋은 처이를 만냈어. 그래 실고 가서 마느래 삼고, 그래 범한테 그 중은 홀키먹고 처이는 잘 사더라요.

[동선동 설화 16]

구렁이가 용이 된 이야기

구 술 자: 신필애(여, 82)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한 고개가 있거든. 학생이 공부를 하고 가이꺼네 불이 산에 붙는데, 구리(구렁이)가 커다란 기 한 마리가 그 안에서 두글두글 구불라쌓거든. 구불라싸이께네 그 학생이 옹당샘에 가서 책보를 당장 적싸다가 불로 꺼준께네 구리는 안 죽고 살았는데, 그 안날 학생이 학교 갔다가 그 자리에 간께네, 구리가 옛날에는 말로 했던가,

"나는 득천을 해가 용이 돼서 갈낀데, 니가 불로 꺼주서러 내가 용이 몬 돼서, 너는 내 밥이 돼서 내가 자아무야(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래 캐서, 학생이,

"내는 장개를 갈라고 날로 받아서 아뭇날 잔치날인데 그 날만 지내고 내가 오꾸마."

일로(이렇게) 말을 하인께, 구리가 '그래 하라'고 고개를 꺼뜩꺼뜩하거든. 이래서 참 정성을 들여 핵교를 댕기다가 고날 잔치날이 돼서 장개를 갔는데, 처이거 그걸 머이(먼저) 알았든가 남자 장개를 오인께네 첫날 밤에 평풍을 치놨는데, 평풍 뒤에다가 남자를 앉차놓고 여자는 글을 줄줄 이르인께(읽으니까) 주야 밤중쯤 되이 짐승이 어데서 질끗하고 질끗하디 마리(마루)에 탁 오르는 소리가 나도 처이는 겁을 안 내고 글만 줄줄 이르인께,

"애기씨 내 밥 내놓으소."

이래 카거든, 처이를 보고. 그라인께 처이가 책만 들고 글만 이르인께, 그래 구리가 하는 말이가,

"내 용의 아감지(아가미)를 줄 꺼인께 평상 묵고 살 끼인께 내 밥만 줄라."

카거든. 그러이 처이가 말을 하네.

"용의 아감지를 내놓거든 니가 제일 안에 있는 아감지를 내 놓아라."
그라이, 모간지에서 탁 튀어나오는 아감지를 주거든.
"내가 이거를 받고, 내가 부군을 줄 수가 있나?"
말을 하이께네, 또 좋다고,
"평상 묵고 살 구실을 한 개 줄 끼인꺼네, 받아라."
그래 '하라' 카인께네, 또 목에서러 쪼개난 구실로 하나 뱉아 주는데, 처이는 그 구실로 가주고,
"이 구실은 어찌 어찌하노? 하는 방식을 내가 알아야 이 구실로 안 써 묵겠나?"
카이, 그래,
"밉운 사람이 있으믄 구실로 조롯이 궁굴리면서 그 사람 앞에 가믄 주문 외듯이 니 밉다. 니 죽거라 카믄 죽고, 또 뭣이든지 도와 달라믄 이것이 도와주고 그렇다."
이래 카거든. 그래 처이가 듣고 있다가,
"니겉이 밉운 기 어데 있노? 내 백년 해로할 사람을 뎃고 갈라 하이 니겉이 밉운 기 어데 있노? 니 죽거라."
카면서 구실을 구불라진께, 저기 죽지는 안 해도 툭 꾸불라져가 마리층에서 꾸불라져가주고 축담에 턱 꾸불라져가 있으인께, 옛날에는 첫날밤에 들어가면 새북이 되믄, 어마씨들이 떡국을 낋이가주고 새북에 믹일라고 떡국을 가주고 오는데, 그 어마씨가 다른 사람 같으믄 깜작 놀랠낀데, 아이구 그 큰 짐승이가 꾸불라져가 있으인께, 어마씨가 참 말로 잘 했어.
"아이구, 이런 용님네가 와 하늘에 득천을 안 해가고 여기에 와 누웄느냐?"
그 어마씨 말 한 모디에 그 짐승이 꼬리를 치고 하늘에 득천을 해 용이 돼서 갔는데, 가고 나서 총각을 평풍을 걷어치고 내보이 총각이 새파랗게 자물씼어. 그래 약을 믹이가 깨가주고 그래 나와서러 장개가가주고 와가주고 부모 모시고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래 잘 사더라요.

[동선동 설화 17]

호식 당할 도령과 정승 딸의 결연(1)

구 술 자: 신필애(여, 82)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김정승이라 카는 정승이가 자슥을 몬 낳다가 늙바닥에 아들을 하나 낳아놓인께 그 아들이 또닥또닥 밎(몇)살을 묵고 커가주고 있었는데, 중이 동냥을 왔는데, 그 아들이 곡식을 자리에다가 주룩 부어주니 '수자는 보인까 좋다마는 수명이 짧다' 이러카이, 그 아가 저그 아

부지를 보고,

"아부지, 아부지, '수자는 보인 좋건마는 수명이 짜르다'고 합니다."

그 아바이가 겁을 내서 머슴을 시기서(시켜서) '어데 가서 중을 뎃고 오라' 카이, 그래 중이 와서,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날로 오라 캅니까?"

"내가 말 한 모디 물어볼라꼬 오라 캤다."

카이, 그래 말로 하인께네,

"수자는 좋은데 수명이 짜르다고 아무 날 아무 시에 호슥(虎食)을 잡히가겠다."

고 카거든.

"그라믄 우째믄 좋겠노?"

카인께네,

"이 아로 나를 따라 보내시오."

칸께, 그래 인자 상재(上佐)를 맨들믄 바람도 쐬고 전신에 중놈의 옷을 따로 지어가주고 입히서러 중을 따라 보내인께, 저 높은 산에 저 고개에 가서러 두 가랑 샛길이 있는데,

"너는 요 길로 가거라. 가믄 큰 절이 있을 거인께네 그 절에서 공부를 실컨 해가주고 니가 몰래 동네로 내려온나. 동네를 딱 내려올 때 제일 어수룩하는 오두막집 하나에 할매가 한 분 있을낀께, '할매 내가 자고 가겠습니더.'이래 카믄 '집이 누추한데 선배(선비)가 이런 선배가 내 집에 우째 자겠느냐'고 이런 말로 해도, '진중(진정) 자고 가겠다'고 해가주고 그 집에서 고날 밤 자고 안날 밤을 자면서 '할무니, 할무니, 내가 에럽은 애로가 있어서 할무이 졑에 왔으인꺼네 할무이가 나를 지슥을 시키주이소.' 카라."

그래 총각이 그러카인께,

"와 그렇노?"

카인께네,

"내가 아무 날 지녁에 호슥(호식)해 갈 팔자라 카는데, 호슥은 옛날에 범이요. 호슥해 갈 팔자라 카는데, 내는 김 정승의 아들인데 이 정승의 딸 방에 내가 고날 밤에 들어가야 내 목숨이 살겠다 카니, 내가 이 정승의 딸 방에 내가 우째 들어가야 되겠느냐?"

카인꺼네, 그래 할매가,

"에렵지 않다. 우리 딸이가 이 정승의 딸 몸종이 됐다. 몸종이 됐는데 빨리 오라. 캐가주고, 우리가 그걸 하자."

그래 딸한테 집으로 빨리 오라 캐서,

"야야, 이런 선배가 와서 이만 저만 한 말을 하이 니가 살려주라."

카이,

"엄마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 오고 베를 떠가와서 날로 큰 치매를 한 개 해 줄라."

카거든, 너울 치매를.

"너울치매를 한 개 해가 나를 입히고, 그래 장을 봐가주고 음슥을 마이 장만해 내가 올 때,

우리 아부지 입장일(入祭日)이라서 내가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카믄. 갔다 오라 카믄, 내가 수단껏 할낀께 그래 하소."

그러카이, 그래 저거매(자기 어머니)는 장을 봐다 음식을 장만코 치매를 뭉텅하이 맨들고 이래가주고 지녁에 딸이 오도록 기다리이, 딸이 왔거든. 그래 딸이 치매를 입고, 총각을 처이 한복을 한 벌 해 입히서, 옛날 총각은 머리가 있거든. 뒷머리를 땋아서 여자겉이 뀌미(꾸며) 가주고 그래 뒤에 시우고(세우고), 그집 할마이 딸은 상을 들고 앞에 서 가면서러 대문에 가 인꺼네 하인들이 서가주고,

"어데서 오느냐?"

카인께,

"김 정승 딸이가 이 정승 딸한테 놀로 온다."

카이,

"드가라."

카거든. 몸종도, 그 밑에 있는 몸종이고 해놓인께, '들어가라' 캐서 드가이께네, 아바이 방으로 드가야 그 처이의 연당으로 드갈낀데, 아바이 방에는 막 그 큰 너울 치매로 몸종이 입고 촛불을 켜놨는데 급하기 방문을 열고 흔드인께, 촛불이 탁 꺼진께 그 여게(틈에) 총각은 뒷문으로 옇어놓고,

"요망시럽구로 야밤에 너는 어데를 댕기느냐?"

고, 이 정승이 그러카이,

"아부지 입장일이라서 내가 오늘 지녁에 밥 한 그륵을 오는데, 에렵은 마음으로 무섭아서 내가 급하게 방문을 열었으인께 한 분만 용서해 주이소."

카이, 대감님이,

"너는 방에 가서 자거라."

이카거든. 그래 뒷문을 열고 가서 그 연당 앞에 강이 있는데, 줄배를 타고 그래 총각하고 둘이 가가주고, 그래 주인한테 욀(아뢸) 겸,

"왔습니다."

카고 상을 드리놓고 총각은 배껕(바깥)에 시아놓고, 지는 지 방에 가서 누가 있으인께, 처이는 배껕에서 뽀싹뽀싹 하인까네, 처이가 문을 열고 한다는 말이,

"야밤에 뭣이 이래 뽀싹거리노? 사람이거든 내 방에 들오고 짐승이거든 멀리 가거라."

카인꺼네, 여게 온 '사람인지 무슨 짐승인지' 이런 말을 한께, 들오라 캐서 드간께, 처이는 딱 알고 평풍 뒤에다 처마(사실은 총각)를 딱 앉차놓고 글만 줄줄 자꾸 이르(읽어)이까네 뭣이가 휘뜩(후딱)하디 마릿청에 걸치는데 범이가 큰 기 와서,

"애씨, 내 밥 내놓으라."

외치거든. 뭐라 캐도 고개도 안 돌려보고 꼭 구신(귀신) 후차내듯이 주문만 글만 읽어싸이꺼네, 그 시기가 딱 넘어가인께, 범이가 지(자기)가 그것해서 죽더라요. 지가 사람을 호식할 시가가 넘군께 죽는데, 그것은 머슴을 시아서(시켜서) 치아뿌고, 그래 날이 다 새가는데, 총각

을 내보내야 될껀데, 처이가 꾀를 내기로 지 밑에 있는 몸종으로,

"저 나무 뺏까리가 있는데, 저 나무 뺏까리에 가서 불로 질러뿌믄 말캉(모두) 불 끄로 대문 밖에 하인들이 다 갈낀께 고때 총각을 딱 내나라."

이래 캤거든. 그래 몸종은 나무 뺏까리에 불을 질러놓이 훨훨 타니,

"불이야!"

캐놓이 말캉 불 끄러 그 다 가지, 고때 총각을 그 문 앞에 내놨는데, 처이가 내놓을 때 가믄서러 총각을 가르치기로,

"서울 과개로 내일 갈낀데 가거든, 어느 주막에 가서 누어자거든, 남자가 하나 와서로 몽침(木枕)으로 눕거든 고 사람이 잠이 소롯이 들걸랑, 고 사람 누운 자리는 사르시 지가 눕고, 총각 누웠던 자리에 그 사람을 눕히라."

고 고래 시기고(시키고),

"우리 아부지가 가서 내일 과개는 됐는데 우리 아부지가 가서 글씨를 맨들낀데, 당신은 무슨 글씨를 지어라."

처이가 말캉 다 가르쳐 주었거든. 그래 주막에 가서러 보이 한 놈이 머이(먼저) 와서 누우자거든. 주막에서 누우자는데, 잠이 든 고 사람의 자리에 지가 눕고, 지 누울 자리는 고 사람을 눕히고 있으이 잠이 안 오고 이란데, 뭣이 여자가 다리폭을 느린 폭으로 들오디 그 남자를 징치하고 가디 직있는지 우짠는지 '원수 갚았다' 카고 우뚝하이 나가는데 남자는 그럭저럭 날이 새서러 서울로 가서 과개를 보는데, 이 사람이 장인(장원)이 됐어. 야(이 아이)가 장인이 되인까네, 그래 인자 이 정승은 딸로 키아가주고 홍 정승의 아들한테 서리 내우간이 될라고 마음을 무(먹)었다가 홍 정승의 아들이 과개를 보러왔다가 그 주막에서 죽은 기 그기지. 죽어뿌리놓이까 할 수 없어서 요 사람이 장인을 하이까네, 이 정승이가 '조(저) 사람을 내가 사우를 삼을란다.'고, 고 자리에서 마음 묵고 있다가 벼실을 딱 하고 나이께네 총각을 자기 집으로 뎃고 간다 말이야. 뎃고 가서러 날로 받고 온 것을 다 이해하고 사우로 삼았다. 사우도 벼실이 높으고 과개로 장인을 해놓인께, 이래 있는데, 저검마(자기 어머니) 부모를 진심으로 찾으라고, 아무리 있어도 부모를 찾으라고 부모가 에릴(어릴) 적에 나와는데, 부모를 찾어라 카고, 인자 몸종은 몸종 때민에 지 목숨이 살았다고 작은 여자를 삼고 정승 딸은 큰 여자로 삼고 말을 타고 자기 고향으로 닐리리 쿵쿵하고 내려가인께네, 저 들에서러 여자가 한 분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울더라고. 말 우에 있는 그 선뵈가 하인을 불러가주고,

"저 가서 므슨 인연으로 울음을 우는고 소세끼(상세하게) 적어 올리라."

이래 카인께네, 그래 하인이 가서,

"와 이리 웁니까?"

카인께네, 그래 그 사람이가,

"시(세) 살 묵어서 중이 와서러 수명이 짜르다 캐서 딸려보낸거 서른 살 묵도록 자슥이 흔적이 없으인께, 저런 사람 저래 벼실을 해가주고 닐리리쿵쿵하고 오는 걸 보이 얼매나 보기 좋아 눈물이 나서 운다."

카이, 앞에 있는 대로 말하이, 말캉 저거매거든. 말 우에서 뛰내려 엄마를 손목을 잡고,
"엄마, 내가 인제 옵니다. 엄마 인제 장개가서 처를 뎃고 오인께네 어무이 집으로 갑시다."
캐가주고 집에 가가주고 참 자슥이 벼실 잘 했지, 좋은 며느리 얻어 왔지, 한 포지기 해가 주고 왔지, 그래 닐리리쿵쿵하고 잘 사더라요.[10]

[동선동 설화 18]

호식당할 도령과 세 정승 딸의 결연(2)

구 술 자: 김정순(여, 75)
구술 날짜: 1990년 8월 1일
구술 장소: 동선동

한 사람이가 참 아들을 몬 낳아서러 삼대 외동인데, 아들 하나 낳아 키우는데 이 귀한 외동 아들을 비미(여북이나) 사랑해 키우겠오?. 그런데 여나무 살 묵은께, 산꼴에 중이 내려왔가주고,
동냥 좀 주이소."
이라거든. 저거매 저가배가 기특히 아들이 좋아싸서러,
"아무것이야, 저 대사 동냥 좀 주어라."
카이, 그래 아들이 청 안에 들어가서 쌀독에서 쌀을 한 바가치 바랑에다 부 주었더니, 받아 돌아나가면서 쎄(혀)를 껄걸 차면서 하는 말이,
"참 그 수자 아깝다."
그래 방에 들어와서,
"어무이, 아부지. 그 사람 대사가 날로 보고 쎄를 껄걸 차며 아깝다 카네요."
옛날에는 '중을 산돼지라' 카고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
"데려 온나."
아부지 앞에 뎃고 오니,
"샌님, 살려 주이소."
카이,
"바린 말 바리 하라고, 왜 남의 귀한 자슥을 보고 아깝다 카고 쎄를 껄걸 차고 가노?"
이라인께,
"다름이 아이라 샌님, 저 총각이가 열 다섯 살 묵어믄 범에 호식끼 갈낍니다."

10) 『호식당할 총각과 세 정승 딸과의 결혼』 유형의 변이형.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펴낸 『한국민속문학사전』(2012)에는 「삼정승딸 얻은 단명소년」으로 제목이 붙어 있음.

이라거든. 그러이 삼대째 외동 아들 집에서는 깜짝 놀랠거 아이요. 어째끼나 중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네. 그래,

"다른 방도가 없고 이 아로 바랑을 짐가서러 정처없이 보내믄 어디 어디로 댕기다가 홍정승, 김정승, 이 정승 세 딸 춤(침)을 묵어야 이 사람이 살지, 그래 안 하믄 열 다섯 살 묵는 해 섣달 그믐 날 밤에 범에 호식끼 간다. 지 운명이 딱 그러이 이 아를 살릴라 카거든 바랑을 짐가서 일찍 보내라."

카거든. 열 살 묵는 아로 열 다섯 살 묵도록 돌아댕길끼 아이오?, 생명 얻을라고.

그래 어마이 아바이 눈물을 흘리고 참 아를 바랑을 짐가서러(짊어지어) 내보냈다 말이지.

참 야가 댕기면서 고생 고생을 하고 어데 방방곳곳이 얼거미(어레미) 틈틈이 생명을 얻을라고 고깔을 씌고 스스로 동냥을 하고 얻어묵고, 그래 참 열 다섯 살 되는 그 해가 주루루 다가오고 섣달 그믐이 주루루 다가오네. 에린(어린) 마음이라도 '내가 섣달 그믐날 죽나 사나 그날로 지내야 내가 생명을 건지는데' 에린 마음에라도 아부지 엄마가 열 다섯 살 묵는 섣달 그믐날 밤을 살아야 니 생명을 건진다 이르고, 아부지 어무이도 열 다섯 살 섣달 그믐날을 지내야 잊어뿠가 그 안에 죽나 사나 그 아들을 보내놓고 영감 할마이는 곧 드러누가(드러누워서) 있지.

그래 섣달 보름께 어데로 갔던지 하늘님이 살릴라 카인께네, 어데로 한 군데를 턱 가이, 커다란 부잣집 얖에 조그만 오두막이 있거든.

"주인 뵙시다."

이라인께,

"아이구, 이 누추한 데 이런 도령님이 우리 집에 기거해가주고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데가 좋습니다."

이라인께, 그래 들오라 카거든.

그래 인자 늙은이가 '어데서 왔노? 우째 았노?' 자면서 살살 묻는단 말이다. 그래,

"할무이는 우째 사십니까?"

"나는 자슥도 엄꼬(없고) 우리 딸 하나는 있는데, 내가 부잣집에, '옛날에는 종으로 살면서 자슥을 놓으믄 옛날에는 대한민국 한국 법이 더럽었다 말이요' 자슥을 놓으믄 그 밑에 키아가 종을 보냈다 말이요. 나는 늙어서 나오고, 내 딸을 종으로 옇어놓고, 그래 내가 묵고 산다."

고 이라거든. 그래 아가,

"이 얖에 부잣집이가 어떤 집입니까?"

요래, 아가 묻는다 말이다.

"이게 김 정승 집이다. 김 정승 집인데, 여게는 김 정승은 부자라서 별당을 지어가주고 김 정승 홍 정승 이정승 세 딸이 한 방에서 공부를 안 하나!"

그제야 살 길이 터졌다 싶어, '어무이'라 카고 달라드네. 아가 영리한 기라. 그래서러,

"안 갈라나."

이라인께,

"나는 여기에 며칠 지체하고 갈랍니다."

이라며, 들어 붙으이, '가라'는 말을 몬 한다 말이다. 그래 인제 밥을 해 믹이고 한 며칠 지낸께, 한 보름 남았는데, 하릿 지녁에 딸이 오거든. 오인까네, 처이가 보인께 총각이 앉아 있으이 딱 돌아서거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란께 어마이가,

"야야, 돌아서는 기 아이다. 너그 아부지가 옛날에 외부에 출입을 해가주고 어데 가서 동생을 하나 뒀던가 지가 날로 찾아 왔다. 너그 동생이다."

그래 둘러대거든. 살 기회가 나타난다 말이야 야(이 아이)는.

"그래 내우하지 마라. 니 동생이다."

지(자기)도 외롭고 저그 아부지가 어데 가서 낳아 열 다섯 살 묵은 총각이 찾아와서 얼매나 기뿔 것고.

"엄마, 그렇습니까?"

카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동생이, 진질한 동생이라 칸께, 우리 아부지가 어데 가서 우리 핏줄을 잇아놨다."

카고, 동생이라고 정승집에서 맛난 음슥을 하믄 갖다 주고, 그래 섣달 그믐이 댓새 남아서 딸이 나오거든. 나온께,

"야야, 참 에럽은 일이 있다."

딸로 보고 어마이가 애원을 하는 기라.

"와 이래요?."

"지금 야가 오다가 돌아 댕기면서 찾아오다가 어데 점을 한께, 열 다섯 살 묵는 해인 올개(올해) 섣달 그믐날 범에게 호식끼 당할낀데, 올개를 지내야 홍 정승 김 정승 이 정승 세 딸의 춤을 묵어야 생명을 건지고 살겠다 하는데, 참 그 일이 에럽은데 니가 할 수 있겠나?"

어마이가 이래 카거든. 그라이 눈에 눈물을 주루루 흘리며 동생의 생명을 살리야 되는데 그것도 에럽다 말이다.

"내 심(힘)대로 해 보겠습니다. 걱정해쌓지 마이소."

총각이 들으이 마음이 조금 놓인다.

"그러믄 어매 그래 하이소. 열두 폭 치매를 하라."

카는 기라. 정승의 딸 별당을 찾아가믄 정승 방문 앞을 지내야 건네갖고 겨울이라도 줄배를 타고 별당에 도달하는데, 겨울이라도 단속을 해야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래 인자,

"엄마 콩을 한 웅쿰 볶아 준비하이소."

그래 섣달 그믐날 다 제우(제사)를 모시고 다 잠 재아놓고 나서, 여러 문을 열어놓고 나왔거든. 그래 열 두 폭 치매 밑에다가 야가 콩 한 웅쿰 쥐고 줄배를 타가주고 건네가가주고 그 처이 문 앞에 앉차 놓고,

"동생, 내가 이만치 해주으인께 오늘밤 니 수단에 달맀은께 니 재주대로 해라."

카고 돌아서 나온께네, 그래 서가 있다가 문을 스르르 연께, 처이가 공부를 해쌓거든. 그래서 문을 열고 드간께, 처이는 제비도 몬 날아 들어오는데 총각이 하나 나타난께, 구신이라고

옛날 주역(周易)을 외아대는데, 아무리 와아도 꼼짝 안 하고 서가 있거든. 외우다 책을 탁 덮어놓고,

"구신이냐? 사람이냐?"

이래 물었거든. 물으인께네,

"구신이 이런 데 들오겠습니까? 내가 사람입니다. 내가 생명 하나 살라고 왔습니다. 나를 생명 하나 살려주이소. 내가 삼대째 외동 아들인데, 올 섣달 그믐날 밤을 지내야 내가 살겠다 카는데, 그래 내가 생명 하나 살라고 김 정승 이 정승 홍 정승 딸의 춤을 묵어야 살겠다 카는데 내가 생명 하나 살라고 열 살 묵어 집을 나와 열 다섯 살이 오늘 마지막인데 살찌 안 살찌는 처자 손에 달렸다."

고 카이, 가마이 생각해보이 삼대째 외동 아들이라 카지, 그래 애원을 하이 동정이 간다 말이지. 벽장문을 드르륵 열고 저 안에 잡아 옇놨다 말이다. 그래 홍 정승 딸이가 지사(제사) 밥을 이고 "세이 있소?" 이라며 들오거든. "오나." 카며 "들오라." 카고, 또 이 정승 딸이 지사밥을 이고 "세이 있소."카면서 들어오는데 "오나. 칩다." 카며, "우리 배 고픈데 밥 묵읍시다." 그라인께, 김 정승 딸이가,

"오늘 섣달 그믐날 밤에, 이해 마지막 밤인께 우리 토론을 한 분 하자."

이 정승 딸이가,

"토론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소? 그만 묵고 잡시다."

"그런 게 아이라, 오늘 지녁에 꼭 한 분 너희 의사를 들어보고 내 할 말이 있다."

그란께네, 처이 둘이가 하는 말이가,

"세이부터 머이 하이소."

이라거든. 열 한 시가 되이, 시간이 다 돼간다 말이다.

"야야, 내 이바구 들어 봐라. 옛날에 한 수자가 한 집에 삼대째 외동으로 내려오는데, 그 아들이가 열 다섯 살 묵으믄 범에게 호식끼 가겠다고 오늘 밤을 지내가야 산다 카는데, 김 정승 홍 정승 이 정승의 세 딸 춤을 묵어야 생명을 건져겠다 카는데, 너그 그 사람 생명을 건져겠나?"

이래 이바구를 하이,

"그걸 몬 건져, 우리는 임자 없는데, 남자 하나를 몬 살리!"

저그 둘이가 그라거든. 김 정승 딸이,

"나는 몬 그라겠다. 나는 희생 몬 하겠다. 너그는 제법 뱃장 세네."

이래 나갔거든.

"그러믄 살리겠다면 내 앞에 글을 써라."

"너그가 쓰믄 나도 책임자이니 쓰지."

그래 서이가 쓰고 벽장 문을 스르르 열고 총각을 들어냈다.

"너그들 내 말 들어라. 이랄 끼 아이라 이 사람 생명이 오늘 지녁에 살지 안 살지 우리 마음에 매였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주고 삼대째 내려오는 자슥인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

더라. 그래 내한테 애원을 하는데 동정이 가서 내가 의사를 내어가 너그한테 그랬는데, 우리 셋이 한 마음이 돼가주고 이 사람을 살리자. 우리는 여자 몸인데 그래 하자."

그래 뜻을 모우고 도로 총각을 벽장 문을 열어옇고 딱 닫고 있으이, 조금 있으이 열 두시가 돼가이 뭐가 산에 바람 오듯이 '우우'하고 오는 기라. 집채겉은 범이가 별당 문 앞에 딱 앉는 기라. 딱 앉아가주고 '내 밥 내나라' 이래 형용을 내거든. 딱 서이서 눈도 안 뜨고 주역을 외우고 범을 설치지 몬 하도록 데기(몹시) 주역을 외우니 밤 열 두 시가 딱 넘어가고 새로 한 시가 되인께네, 범이,

"내가 이 밥을 떨라서(떨어뜨려) 또 어떻게 늘울고(늘릴고)?"

카믄서 가거든. 보내놓고 벽장 문을 열고 보이, 총각은 죽었어. 김 정승 홍 정승 이 정승 세 딸이 춤을 목에서 내가 총각 입에다가 옇고 경기(驚氣)를 주물리고 이래가 살렸어. 살려가주고 아직에 저거매하고 저그 누부(누이)는 살았나 죽었나 걱정이지. 처이가 아직에 몸종을 부르더이,

"야야, 오늘 아직에는 특별히 국하고 밥 두 그릇 담고 음슥을 따뜻하게 해가 들온나. 손님 한 분 와가 있다."

손님은 지가 보낸 손님인데, 어떻기 좋아서러 맛난 음슥을 해가 주고 옷도 해 입히가 총각을 서이가 살렸는데, 처이 서이가 공부를 시기는 기라. 수무 살 묵도록 공부를 시기가주고 서울 과개를 뵌다 카거든. 처이 서이 지짐이(제각기) 글을 딱딱 지어가주고 총각을 주면서러,

"요거를 가가서러(가지고 가서) 서울 장안 안에 막 벼실한 사람이 많이 있을걸랑, 김 정승 딸은 요거를 우리 아부지한테 던지고, 홍 정승 딸은 내가 주는 요거를 우리 아부지한테 던지고, 이 정승 딸은 요거를 우리 아부지한테 던지고, 그라면 좋은 일이 있을거인께네 요거를 가가서 주라."

고 이라거든. 총각을 공부를 시기가 과개에 보낸다 말이다. 방에만 들앉아 있던 총각이 가이께네 서울 과개를 가이께네 촌 사람을 억지로 잡아놨는 거와 같지 뭐. 몇 년 공부한다고 들앉았다가 가서러 그래 시긴 대로 김 정승 딸이 준 피봉을 김 정승한테 던지고, 홍 정승 딸이 준 피봉을 홍 정승한테 던지고, 이 정승 딸이 준 피봉을 이 정승한테 던지고 난중에 과개에 보는데 다 펴내가 보인까 마 합격이 다 됐다 말이다.

"팔도어사 내 사우야."

정승 서이가 서로 사우라 떠드네. 그래 팔도어사를 내가주고 들온데 김 정승 저그 집에 들어가거든. 팔도어사 이 사람이가. 팔도어사가 과개를 해가주고 그래 인자 팔도어사를 해가주고 들온께, 딸이 나타나서러 아부지한테 이야기를 다 사실대로 하더란다. 그러이 서이한테 장개를 갔다 말이다. 그래 한 날 날로 받아가주고 서이서 한 날 한 시에 한 분에 예를 했는 기라. 그래 팔도 어사를 해가주고 닐리리 쿵작하고 저그 집에 고향에 돌아온다 말이야. 돌아오는데, 저그 아부지 엄마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골탕(고민)하고 있는데, 나가서 보인께네 일산(日傘)을 띠우고 가매가 서이가 딸코 억만군사를 거느리고 뚜디리고 내려오는데, 여간하지 아이하거든.

"어떤 사람은 자슥이 저래 벼실하고."

한탄하는데, 저그 집으로 닥친다. 닥친께네 저그 아부지는 놀래가 자물시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 그 자리에서 죽어뿌고 저거매(자기 어머니)는 살고, 그래가주고 서이 몸에서 아들을 서이썩 놓이 아홉 아이가. 그래 집안 흥성하고 잘 살더란다.[11]

[동선동 설화 19]

죽은 부친 혼례 시킨 이야기

구 술 자: 신필애(여, 82)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이전에 남자가 몬 살아서 참 넘우집에 고공(雇工)살이 머심이라. 넘으집 머심으로 사는데, 이웃집 과부가 한 분 있거든. 젊은 여자가 혼차 돼가주고 남편이 일찍 죽고 없는데, 그 남자는 총객이지마는 그 여자를 보고 그만 같이 산다. 사인께네 처음 아를 배서 놓인께네 아들이라. 그런데 살림을 채리가 사는데 뭣으로 해도 살림이 돼. 어줍잖은 거로 해도 살림이 돼. 그래 '내 노라'하고 잘 살고 아들로 서이 낳았어. 서이 나가주고 인자 살림이 넉넉하이 서이를 공부를 많이 시기서러 높은 자리에 다 앉힜어. 높은 자리에 앉히가주고 장개를 들이고 살림을 사는데, 그만 아부지가 시상을 떠나뿠어. 아부지가 시상을 떠나 죽어놓이께네, 하리 아칙(아침)에는 아직을 묵으믄서 큰 아들이,

"아부지가 내가 사모(紗帽)를 안 썼다. 야야 내가 사모를 씨고 장개를 한 분 가믄 좋겠다."

이래 카거든. 둘째 아들이가,

"오늘 밤에 내 꿈에도 그렇더라."

카거든. 막내이 아들도,

"오늘 밤에 내 꿈에도 그렇더라."

카거든. 그래도 며늘네들이 있으인께,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며느리들이 다 나가고 나이께네,

"야야, 옛날에 내가 청춘 과부로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믄 너그 아부지와 맞닥거려 그래서로 만나 너희들 서이를 낳아서 공부를 시기서러 앉힐 자리 다 앉힜는데, 이렇는데 너그 아부지 구신(귀신)이가 장개 안 간 것이 여한이 되던갑다."

어마이가 이래 말을 한께, 아들이 그 이바구를 듣고 두말없이 지 직장에 막 가서러 지 일

11) '호식당할 총각과 세 정승 딸과의 결혼' 유형의 설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펴낸『한국민속문학사전』(2012)에는 '삼정승딸 얻은 단명소년'으로 제목이 붙어 있음.

딱 보고 지녁때 와서 나(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어르신, 어르신, 아무데 김생원 집에 딸이 한 분 안 있습니까?"

"있지."

"죽은 우리 아부지한테 시집을 오라고 중신을 해 주이소. 논 및 마지기, 돈 얼매를 딱 손에 쥐아 줄낀께, 우리 아부지한테 시집을 오라고 해 주이소."

"야이 이 사람아! 그기 무슨 소리고, 넘우 처이를 갖다가 죽은 구신한테 시집을 오라 카노?"

카이,

"에렵는 일이지만, 가서 참 한 분 해봐 주이소."

카인께, 그 사람이 가서 어마이 아바이 있는 방에 가서 이바구를 하인께,

"아이구, 이 사람들이 이기(이것이) 무슨 소리고. 아무리 에렵지마는 내가 몬 살지마는 내 딸을 죽은 구신한테 시집을 보내."

카고 있으인께, 정지서 밥 짓다가 처이가 들오디,

"아부지, 내 거게 시집가겠습니다. 엄마, 내 거게 시집갈랍니다. 내가 거게 시집갈랍니다."

처이가 거게 시집을 갈라 카이 할수없이 거기에 치우기가 됐어. 날로 받았어. 날로 받았는데, 날짜를 받아놓고 봉채 날은 며칠인데, 봉채를 떠다놓고 잔채날은 닥쳐오고 아바씨 사진을 찍어놨는 걸 커구럼하이(커다랗게) 사진을 찍어서러, 사진을 앉치가주고 장개가고 상객가고 귀객 가고 다 가는데, 대례상에 떡 들어설 때는 사진을 딱 붙잡고 절로 시기고 처이도 나와서 절로 하고 첫날밤 자고 사흘만에 시집으로 남자집에 구신 따라 시집을 왔는데, 아들 서이, 며느리 서이가 지녁을 딱 먹고 나믄, 잘 때가 되믄,

"어무이 편히 주무시라."

카고 인사하고, 새북에 허분하믄 낳은 어마이는 뒷전이 되고, 그만,

"어무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카고 인사를 하고 가고, 주말만 되믄 토요일만 되믄 차를 타고 오만데 오만데 댕기며 구경 다 시키주고, 만고 없어 시집 와 서방만 없고 구신한테 시집왔다 카는 그긴데, 구신을 접촉해가 댕긴께네, 여자가 홀리(홀로) 몰랐다(말랐다) 카대.

폴폴이 몰라져가주고 그래 사는 걸, 한창 몰라가주고(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고 병을 고치가주고, 그 부모를 뎃고 화목하게 잘 사더라요.

아바이 원을 안 풀어줐나. 그 자슥이가 죽은 아바이를 장개 들이가주고, 그 아들이가 자기들을 낳은 어마이는 뒷전이 되고, 그 엄마는 엄청나게 모셔 그래가주고 아바이 한을 풀어주었더라요.

[동선동 설화 20]

개복(狗福) 이야기

구 술 자: 신필애(여, 82)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친구가 보인께 저그 친구 개한테 복이 들었어. 그래,
"친구, 친구, 개를 잡아 묵자."
카이, 그래,
"잡아 묵자."
머슴을 시기서 잡으인께, 머슴들 자는 부뜩(부엌)에 솥이 있는데 삶는데, 며느리가 앉아서 바늘질을 요래 하는데, 개 삶는 냄새가 구신 내(냄새)가 나고 좋은 내가 나서러, 할 수 없어 며느리가 나가서 소두방(소댕)을 떡 열고 본께, 개 복이 동동 동동 뜨거든. 그것을 며느리가 건져와 방에 와서 묵어삤지.
그 친구가 '인자 개가 다 삶기겠구나' 하고, 지가 아직에 와서 개 복을 퍼로(푸려) 왔는데, 소두방을 떡 열어보인께 개 복이 없거든. '할 수 없다' 복이 이 집 복이가 지가 개 복 징겼다고 친구가 개 복을 가주 갈라 캔 기가 며느리가 묵었으이 '할 수 없다' 카고 말았다요.

[동선동 설화 21]

산신령이 도운 효자

구 술 자: 김찬이(여, 80)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한 사람이가 저게 산골에 살았던 모양이지. 산골에 사는데, 그래 호불어마씨(홀어미)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생활을 해. 생활을 하는데, 어마이가 문둥병 그게 들었어. 들어가 인자 앉차놓고 아들이 똑 나무를 해다가 장마장(장이 설 때마다) 팔아가지고 쌀 사고 고기 사고 이래가지고 어마이를 봉양하는데, 그래 한날은 나무를 짊어지고 장에 팔로 갔는데, 다시는(도무지) 나무가 안 팔리. 안 팔리서러 그래 해가 지니까네, 나무 살 사람이 왔거든. 그래서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래 고기 장시(장수)도 없지. 이래놓이 쌀 한 되만 사가지고 짊어지고 왔다.

오이까네 밤은 짚어(깊어)지이까네 저녁이 되이까네 안 어듭나? 어듭은데, 산골로 올라가는데, 질가(길가에) 뭣이 벌건기 가로질러 있거든. 무십아서(무서워서) 못 건너서 야사쌓다가(머뭇거리다가) 펄떡 뛰 건니가지고, 다부(도로) 돌아서서 이놈의 끼(것이) 뭣인고 싶어 낫을 가지고 써억 한판 갈라뿠다. 갈라뿌이 두 동가리가 나거든. 이놈이 무신지(무엇인지) 가지고 내가 집에 가볼 밖에 없다고. 그래 한 동가리 짊어지고 갔다. 가이, 어마이는 참 컴컴 어듭은데 기다리고 있거든.

"어머이."

카면서 드가이께,

"아이구! 인제 오나? 어째 오늘 이리 늦노?"

그래,

"어머이, 나무가 안 팔리서러 저무도록 있다가 해 다 지기 팔아가지고옵니더."

"아이구 내 자슥아! 그래 니가 저문데 오이 욕봤다."

이래 카고.

"어머이 가만 있으시소. 내가 밥하고 국 낋이고 해가 드리겠습니더."

이래 카고, 그래 쌀로 씻거(씻어) 밥을 하고, 그놈이 므슨 괴긴지(고기인지)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와서 보이 말키(말끔) 고기라. 그놈을 한 동가리 무질러서(끊어서) 옇고, 국을 낋이가지고 밥을 해가 어마이 드린다고 그 고기국은 지(제)가 안 먹고 어마이만 드리고, 그래 인자 지는 밥만 먹고, 이래가 인자,

"잘 먹었다. 야야, 오늘 저녁 대처 고기국이 맛있다. 내가 잘 먹었다."

카고, 그래 아들도 자고 어마이도 자고. 그래 잤는데, 아직(아침)에 자고나이까네, 어마이 누운 데 빼액 돌아서 구더리(구더기)가 버글버글 했거든. 그래서 그 구더리를 씰어서(쓸어서) 치우고 물로 대가 목욕을 갬기(감겨) 놓으이, 이전 본얼굴이 싹 나오거든. 그래 문둥병이, 구더리가 다 나가삐고나이 낫아삤어.

그래 그 산신령이가 하도하도 효자질로 하이, 그 산 밑에 사이, 그 산신령이 찌리이(지렁이)를 내놨어. 찌리이라 그기(그것이). 그래 찌리이를 한 동가리를 가 가가(가지고 가서) 그래 가(그렇게 해서) 어마이가 병이 낫았다.

낫아가지고 그래저래 사이까네, 그 고을 정승의 집 아들이가 그 병이 들맀어. 들리가지고 그래 인자 정승이가 왔어. 병을 곤칬다 카이 소문이 안 나나? 나이까네 그래 정승이 와서,

"이 사람아, 자네가 자네 어마이 병을 뭣을가지고 낫았노?"

카이께, 그래,

"아무때 연분에 내가 장에 가서 저물기 오다가 질(길)가 있는 것을가지고 와서러 그래 삶아 먹이놓이까네 자고나이 우리 어마이가 병이 낫았습니다."

카이, 그래,

"그 고기가 안 남았나?"

"예, 남았습니다. 남아 저 춘시(처마) 밑에 찡가(끼워)놨습니다."

춘시(처마) 밑에 가디마는 그거로 빼가 주거든. 그래 그놈을 가져 와서 삶아가지고 믹이이(먹이니) 그 사람도 낫아뿠다. 정승의 집 아들이. 낫아놓이까네 그 정승의 살림을 반분배해서 주더란다. 주이까네 그래 마을에 내려와 좋은 집 사고 논밭을 주서 그래놓이까네 그만 그 사람이 잘 살더란다. 그 모친 병 고치가지고 거느리고 잘 살더란다. 그래 참 장개도 가고 아(아이)도 놓고 그래 안 살겠나? 그래 잘 살더란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8~210쪽.

[동선동 설화 22]

여자가 범 잡아 부자 된 이야기

구 술 자: 조정원(여, 65)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한 사람이가 산골에 살았거든, 두 내우간에. 그래 하로는 밥을 하인께 정지(부엌)에 범이 한 마리 들어오거든. 그래 그 여자가 부지깨이로 범을 딱 때리줐는 기라. 때리주이 범이 죽거든. 그래 남자가 나무를 해가주고 먹고 사는데, 나무를 해가 온께 범을 한 마리 잡아놨거든.

"우짼 범고?"

이라인께,

"부지깨이로 잡으인께 잡히더라."

그 범을 벳기가 시장에 가서 파인께네, 나무 열 짐 했는 것보다 비싸거든. 그래서 부지깨이로 잡는데, 칼로 잡거나 방앗고로 잡으믄 얼마나 마이 잡을가 싶어서 산 만데이로 올라가는 기라. 여자가 방앗고를 하나 이고, 칼로 하나 들고 그래 올라가인께 그날 해필 범이 회의를 하는 판이라. 한참 범이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가마이 내려다보이, 오야지범(두목범)이 내려다본께 여자가 방앗고를 이고 칼로 들고 살래살래 올라오거든.

"저 밑에 올라오는 여자는 아무도 손 몬 댄다."

그래 어떤 영(令)이라고 그할거고. 가마이 모두 있거든. 있는데, 오야지 범이 이 여자를 홀랑 들어 마셨는 기라. 방앗고 연 채로 칼 든 채로 그냥 들어가뿠어. 범이 얼매나 컸던지, 그래갖고 여자가 배 안에서 앉아가 있으인께 캄캄하거든. 에라이 빌어묵을거 안 되겠다 싶어서 칼로 쑤싰는 기라. 쑤신께 범은 아파 몬 살 거 아이가? 이래가주고 죽는다고 곤두박을 치다 그래 내리구불다가 졑에 둘러가 있는 범을 막 씹어 직이는 판이라 말이다. 이녀러 여자는 가마이 생각하이 이 범들이 와봤자 한목에 씹히 죽는 판이라. 그래가주고 전부다 죽었거든. 그

여자가 쑤신께 구녕이 환했는 기라. 그래 뚫고 나와본께 모조리 죽어 있는 기라. 그래 차례 차례로 가죽을 벳기가주고 시장에 파인께로, 그래 팔아가주고 부자로 참 잘 살고, 나무는 안 해서 팔아 묵더래요.

[동선동 설화 23]

소금장사와 인어

구 술 자: 김찬이(여, 80)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한 사람이 소금 장시를 하는데, 소금을 한 짝 짊어지고 한 갯가 고을로 갔던 모양이지. 이래 가이까 영판 사람같은 고기를 한 마리 어장에서 잡았다 카면서러 잡아다 놓고, 칼로 썩썩 갈아쌓거든. 그래,

"뭐 할라 칼 가느냐?

고 이래 카이까네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가,

"오늘 어장에 가이까네 이런 고기가 한 마리 있어서러 내가 이걸 쪼개

가지고 해복(解腹)을 해서 팔라고 그래 칼로 간다."

고 이라거든. 가만히 생각하이 사람이거든, 소금 장시는 보인께. 그래서러 인자,

"이 고기를 얼매 받고 팔려냐?"

고 카이까네,

"소금 한 짝만 주고 사라."

고 이라거든. 에라 이놈 소금 한 짝 주고 샀다. 사가지고 그날 밤에 자기가 거기서 잤어. 그 여자(인어)를 덧고(데리고) 자니까 사람맬로(사람처럼) 말을 이래 들어 줘.

그날 밤 자고 아직(아침)을 또 사 먹이서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고 이래 카고 나오인까네, 그 여자는 물로 수르룩 드가삐거든. 고만 보내삐고 지(자기)는 집으로 온다.

소금 팔아가지고 오면 식구간에 묵고 살기라고 집안 사람은 잔뜩 기다리고 있으이, 빈 몸을 끄덕끄덕 온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 밑천이 없으이 장시도 못하고, 그래 넘우 집 끄렁지밥(제삿밥) 싸 내삐린 짚을 주워다가 신을 삼아다가 장에 팔아가지고 그럭저럭 인명 보존하고 산다. 사는데, 한날에는 저그 그 사람 아부지 뫼로(묘를) 파내고 어떤 정승의 집 사람이가 그 산소다가 저그 아비 뫼를 짓는다 이래 소문이 나거든. 소문이 나도 인부족 세부족해서러 그 말기로(말리러) 갈 수 없어. 없어서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있다.

있으이까네, 한나잘 되인까네 초립뒹이가(草笠童이) 하나 오거든. 오디(오더니),

"아부지."

카며 인사를 너푼 하거든. 그래,

"나는 모르겠다."

고 카이,

"예, 내가 뒤에 이바구 하오리다. 할부지 산소로 어느집 정승으가 파내고 저그 아부지 뫼로 할부지 산소다가 짓는다 카이, 아부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라거든.

"그래 안 되겠는 줄은 알지마는, 내가 인부족 세부족해서러 나가 보도 못하고 그래 있다."

고 이러 카이,

"예, 걱정하지 말고 계시이소."

카고 고만 가거든.

그래 인자 그 초립뒹이가 갔다.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빙빙 돌면서러 고만 이 정승의 집 저가배(자기 아버지) 생여(상여) 갖다 놓은 거로 생여를 하늘로 올리삐렸다. 고만 이놈의 상여가 하늘로 따람따람 올라간다. 올라가이까네 이놈의 정승으는 저가비(자기 아버지) 뼈당귀(뼈다귀)를 잃을 챔이라. 이러이 자 모두 토론이 난다. '저 초립뒹이가 오고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 초립뒹이를 붙들고 달래라.' 모두 이런 의견이 나이, 그러이 상주가 와서 그 참 초립뒹이 앞에 인사를 하면서

"우짜든지 아부지 생여만 내려주면 내가 가겠다."

고 사정을 한다. 사정을 하이,

"참말로 그래 하겠느냐?"

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 그래 생여가 차차로 차차로 내려온다. 내려와서 생여로 메고 갈 판인데,

"그러면, 요 뫼로 본살(본색, 本型)같이 해놓아라."

이래 카이, 본살같이 해놓고 짊어지고 가삐맀다. 가삐고 나이, 그래 이 아가 와서러 간다고 카고 가삐리거든. 가삐고 난 뒤에는 그래저래 산다. 사이까네, 한날은 참 이쁜 여자가 하나 옷도 잘 입고. 이런 여자가 하나 들어오거든. 그래 인사를 하거든.

"나는 잘 모르겠다."

고 카이까네, 그래,

"아무때 연분에 아무데서러 소금 한 짝 주고 날 사가지고 그날 밤 자고 보낸 일 안 있느냐?"

고, 그래,

"있다."

고 카이까,

"내라."

카거든. 그래 그날 밤에 자고 간 뒤로 초립뒹이가 생겼어. 생겨가지고 그래, 그 여자가 와서,

"그러믄 이 동네 좋은 집 있거든 사고, 논 있거든 사고, 밭 있거든 사고, 전신에 이 동네서러 이 부락에서러 참 일등 부자 되거로 살림을 장만해라."

카거든. 이게 웬 떡인고 싶어서러 이 남자는 그래 인자 그 마을에 내려가서 물어보이 좋은 지애집(기와집)이 났거든. 그래 집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마 참 부자가 됐다. 부자가 돼가지고 사는 걸로 보고, 그래 여자가 가면서러

"이만하면 자기 평상에 자식 평상 먹고 살끼인께 인자는 걱정하지 말고 사라."

고 이래 카면서, 그래 인사를 하고 가더란다. 가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살림을 징기고 잘 살더란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1~214쪽.

[동선동 설화 24]

계모에 학대받던 딸

구 술 자: 김정순(여, 75)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한 사람이가 부인과 살다가 본처가 돌아갔는 기라. 세상을 뜨고 딸이 하나 있던 기라. 딸이 있는데, 혼차 못 살아서러 새로 사람을 디리 시았는 기라(들이 세웠는 것이라). 새로 사람을 디리 시았는데, 그 사람도 딸이 또 하나 있어 같이 덧고(데리고) 왔던 기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지섣달이라도 부리똥나물(채집자 보충: 사전에는 '부리똥'을 '아그배'라 하였는데 구술자는 '불상추'(상추)라 함)이 많이 있지마는 옛날에는 부리똥나물이 에럽단(겨울에 구하기 어렵단) 말이다. 계모가 알라(아기) 선다고,

"아이구, 아무개야 가서러 부리똥나물 캐가 온나. 내가 묵고 짚어서(싶어서) 못 살겠다."

그래 본처 몸의 딸로 엄동설한에 내보낸다 말이다. 부리똥나물 캐오라고 후찼다. 동지섣달 설한풍에 어데로 참 갈 데가 있나, 칩아서(추워서). 어데서 부리똥나물을 캘것고? 동지섣달 설한풍에. 그래서러 어마이 뫼에 가서러 우는 기라, 한없이. 그래 우다가 잠이 들었단 말이다. 어마씨가 꿈에 선몽(現夢)을 대는 기라.

"아무개야, 아무데 거게(거기에) 가믄 돌방석 문이 있으이께네 가가지고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 드간다'이라믄, 총각이 문을 열어 줄 끼다. 그래 들어가면 부리똥나물을 캐가 올 끼다."

이라거든.

그래서 어마이 선몽대로 말로 듣고 그리로 찾아가이, 돌문이 커다란 기 하나 있거든. 그래,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 드간다."

카이, 참 총각이 나와서 문을 드르륵 열어 주거든. 그래 드가이,

"올 줄 알았다."

카면서러,

"무슨 이유로 왔는가?"

묻거든.

"우리 계모가 동지섣달 부리똥나물이 묵고 짚어서, 원을 해서 날로 캐가 오라 캐서, 그래 갈데올데가 없어 우리 엄마 뫼에 가서 울고 잠이 들었는데, 우리 어마이가 선몽을 대기로 이리 가서러 총각 이름을 대주면서 부르면 캐가 줄끼다 캐서 왔다."

캐놓이,

"알겠다."

카고, 총각이 쌀을 조깨(조금) 내가 오디마는 썩득썩득 씻디마는 쌀뜨물로 온 마당에 곤지랑곤지랑 씨부리면서 흩거든. 흩이이끼네 어느녘에 부리똥 불상추가 쫑굿쫑굿 올라오거든.

그래 참 총각이 밥을 해가지고 어그러진 판에 찌그러지게 차려 새바람에 부는 듯이 뒷바람에 씻은 듯이, 짤짤 채리가 처이(처녀) 총각 맛내기(맛나게) 잘 앉아 묵거든. 묵고 인자 부리똥나물 한 바가지 해가 이고 총각을 하직하고 저그 집에 가이, 못 캐고 올 줄 알았는데 캐가 오거든. 그래 계모가 좋아서러,

"아이구, 아무개야 니가 어디서 캤노? 재주도 좋다."

그걸 묵고 나디마는 또 한 며칠 되이,

"아이구, 죽신(竹筍)나물 묵고 짚다."

고 지랄병을 하고, 또 가라 카거든. 그래 할 수 없어 또 그리 갔다. 가서,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가 드간다."

이라이 총각이 문을 열면서,

"올 줄 알았다."

고 이라거든. 그래,

"우리 계모가 그걸 묵고 나디마는 또 죽신나물이 묵고 짚어 원이 된다고 가서 구해 오라 캐서 갈 데는 없고 천상(천생) 내가 한번 신세를 끼친 데가 돼서 또 왔다."

고 이라이끼네,

"잘 왔다."

카믄서러, 또 쌀을 가와서러 쌀뜨물을 받아가 온 마당에 흩치면서 뭐라 뭐라고 씨부리끼네 그래 죽신이 빼쭉빼쭉 올라오고 어는듯이(어느듯) 죽신이 커거든. 하늘사람이거든, 총각이.

그래 밥을 참 또 채리가 샛바람 부는 듯이 뒷바람에 씻은 듯이 잘 채리가 처이 총각이 앉아가 묵고, 그래 총각이 처이로 덧고 뒤로 가디마는,

"이 흰 꽃은 사람이 죽으면 살이 생기는기고, 붉은 꽃은 피가 생기는 기고, 푸른 꽃은 힘줄이 생기는 기고, 고 얖(옆)에 옹달샘의 물은 입에 옇으면 숨이 트지고 사람이 사는 약물이다."

카고 처이를 개르쳐 주거든. 그래 알고 서로 하직하고, [이야기를 돌려] 그때 죽신나물 캐러 보낼 적에 이 계모년이가 지(자기) 딸로 뒤따라 보냈는 기라. 어데로 가는고 발로 밟아 보냈는 기라. 그래 그때 계모 딸이가 발로 밟아가 돌문 열고 가는 거 보고, 총각 앉아 이야기하고 묵고 해가 오는 것을 몰래 봤던 기라. 그래가지고 저검마(자기 어머니)한테 와가 말키(모두) 일러삤는 기라. [다시 말머리를 돌려] 처이가 집에 오이 죽신나물 캐가 왔다고 좋다고 카고, 저그 딸로 보고,

"니가 죽신나물 캐가 온나."

또 요라거든. 봐놘 기라(보아 둔 것이라) 간다 말이다. 이 계모 딸이 가서,

"층층버들 밑에 전복새야 문 열어라. 이복새야 내 드간다."

카이, 총각이 안에서 답변하기를,

"듣던 소리 애일레라(아닐러라), 보던 얼굴 애일레라."

답변을 요래 하거든. 그러이 이 처이가 돌문을 어째 기어들어가 칼로 총각 목을 찔러 직이 놓고 지(자기)는 돌아왔다 말이지. 나물도 못 캐고.

그래 본처 몸의 딸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얼른 뛰가서러 부른께네 흔적이 없거든. 그래 어째 돌문을 뛰어 넘어가 총각 목에 칼로 쓱 빼놓고 가서러 흰 꽃을 갖다 비비고, 붉은 꽃을 비비고, 푸른 꽃을 비비고, 옹달물로 떠다가 입에다 믹인끼네,

"허허, 잠 한잠 고이 잤다."

카면서러 깨가지고, 그래 그 자리서 백년 부부로 정해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안 나오고 잘 살더란다.[12)]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4~217쪽.

[동선동 설화 25]

소라고동 색시

구 술 자: 김정순(여, 75)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살림이 없어서러 몬 살아서 묵밭(묵정밭)을 쫏았거든. 몬 살아서 묵밭을 쫏다가 하리는 총각이가 한탄을 하는 기라. 이 밭을 쫏아가,

"누랑(누구랑) 누랑 묵고 살꼬?"

12) '콩쥐 팥쥐' 유형의 광포설화.

이란께, 어데서러 난데없이,

“누랑 누랑 묵고 사나, 내캉 내캉 묵고 살지.”

아거든. 아상하다. 또,

“이 논배미 쫏아가 누랑 누랑 묵고 살꼬?”

“누랑 누랑 묵고 살아, 내캉 내캉 묵고 살지.”

그래 살살 소리나는 데로 가이 커다란 방구(바위)가 있는 기라. 그래 그 밑에 가이, 소래고동이 있는 기라. 이 소래고동의 입에서 말하는가 싶어서 잡아다가 정지에 물동우에 딱 옇어 놓았다. 저거매한테 그 고동 소리가 문제라고 이르고.

그 고동이 오고부터는 자고 나믄 밥 한 상썩, 어렵은 판에 밥 한 상썩 채리 묵거든. 그래 총각이 좋아서러 한 며칠 있다가 저거매한테 총각이 소래고동을 잘 살펴보라 캤다가 마음이 초조해서 들에 가도 안 하고 산에 가도 안 하고 밖에 숨어서 보이 소래고동 안에서 처이가 나오디마는 고시랑고시랑 씨부리더니 밥이 한 상 잘 채리놓고 처이가 동우 안에 들어가인께 총각이 바빠서 치매를 꼭 잡았다 말이다. 그러이 소래고동의 색시가,

“안중까지 내 나올 시간이 안 됐으인께네,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나올 끼라.”

그래 약속을 하고, 그래 그 시간을 기다렸더이, 그래 그 시간이 되어서 소래고동 안에서 처이가 나왔다 말이다. 나와가주고 부자같이 산다 말이다. 사이께네, 일하는데 아들이 ‘밥을 저그 마누래는 몬 이고 가라 카고, 어마이를 이고 댕기라 카고’ 이라인께, 도둑 맞겠다고 각시를 밖에도 몬 나가게 하고. 몇 분 할마이가 댕기보이, 며느리는 집에 있고 자기가 밥을 이고 댕기인까네 오달가지가(시샘이) 시어마이가 나거든. 다리 밑의 도랑을 지나 농지가 제법 먼 기라 그래서러 며느리를 가라 칸다.

“니가 오늘은 가거라. 오늘은 내사 몬 가겠다.”

시어마이 영(令)대로 밥을 이고 간께네, 어디서 철거덩 철거덩 우하이(무리지어) 내려오거든. 그때 임금이 출도를 해가주고 내려오는 판이라. 그래 내려오는 걸 보고 숨었다 말이다. 돌타리 밑에 숨으이, 저 사람이 숨어 있는데도 빛이 나서 환하다 말이다. 그래 신하를 시겨 찾으이, 여자가 신을 하나 벗어줌서러,

“이것밖에 없더라고 가라.”

카는 기라. 신은 벗어 주었어도 사람이 있으이 빛이 날 거 아이가? 신하를 보고,

“아이다, 또 가라.”

카이, 신을 마자 벗어줬다. 그래도 사람의 서기(瑞氣)가 있거든. 그래 나중에는 임금이 바빠가주고 말로 내라놓고 와보이 처이가 있어 잡아 가뿠어.

남편은 밥해 오도록 기다리다 오이, 밥도 없다 카고 마누래도 없고 그래서 가마이 있으이, 그래 가가주고 임금이가 저그 마누래 삼을라고 카는데, 처이가 의견을 내가주고,

“우리가 부부를 삼아도 석달 열흘을 지내고 새 날로 받아가주고 잔치를 크기 벌이가주고 그래 보통하는 잔치가 아이다.”

고, 그래서 처이가 머리를 써가주고 그 사람한테 시집을 안 갈라고 이야기한 거라.

"그래 하자."

고, 석달 열흘을 잔치를 하는데, 이쭉 사람은 처이를 잃우고, 환장이 돼서 있는데, 그래 석달 열흘을 잔치를 벌이는데, 남조선 이쭉에는 사람을 다 모은 기라.

다 모아가 돼가 있는데, 그래 그때 새털로 빼기가주고 위장을 짓고 한 사람이 나타나믄 그 사람이 좋은 배필이 될끼이, 이 처이가 어떻게 하늘 사람이 되이 요술을 했던지, 총각한테 미리 기회를 주었어. 어떻게 하든지 새털을 모아가주고 위장을 시기(시켜)가주고, 막 사람을 모아가주고 사람들을 씨름을 시기는 기라. 씨름을 시기는데, 다 하고 끈티이(끝에) 보인까네 새털 입은 사람이 왔거든. 세털 입은 사람이 와갖고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요술을 했던 간에 씨름에 전부 제치뿌맀다 말이다. 임금도 그 사람한테 졌다 말이다.

새털 입은 사람이 이 씨름에 임금을 보고,

"니가 지믄 니 마누래 내가 한다."

임금도,

"그래 하자."

이 사람이 그 씨름에 다 이기고 나서, 마누래 찾고, 임금 되고, 꽁(꿩) 묵고 알 묵고, 꼬랑치고 끼(게) 잡고 그래 잘 살더라요.

[동선동 설화 26]

잔수 한 이삭

구 술 자: 김정순(여, 75)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 한 산골에서러, 참 옛날엔 다 없이 살았거든. [청중: 아이고 맞소.] 아바시도 없고 어마이캉 둘이서러 삼서러(살면서) 저 산에 팔밭을 쫏아가지고 묵고 살라고 팔밭을 쫏아가지고 잔수(조) 씨앗을 구해가지고 갈았네. 갈았는데 다 죽고 딱 잔수 한 이삭이 살았네. 이놈을 키웠는데 얼매나 잔수를 잘 키워났던지 잣질이(자 길이) 같다 말이다. 그놈을 끊어갖고,

"어무이 어무이, 내가 이걸 끊어가지고 지고 가서러 내가 잘되면 출세해가지고 돌아올 기다. 그러이 어무이 내 오도록 기라리고 있으라."

카고, 하직을 하고 그놈을 둥치 싸 짊어지고 한 고을을 갔네. 가가지고 한 집에 주인을 정해가지고 그 주인을 보고,

"내가 오늘밤 자면 떠날낀데, 이 잔수 이삭 이걸 단디(단단히) 간수해 놓으라. 쥐 있는 데 놓지 말고 단디 놓으라. 이걸 잃으면 큰일이다. 나는 이걸가지고 앞으로 큰 성공을 할라고 마

음을 먹는다."

카면서 주인을 맽기놨네. 옛날 집에 쥐 없는 집이 어데 있노? 놔두었디마는 쥐가 낱낱이 잔수를 까묵어삤다. 아직(아침)에 밥을 묵고 갈라고 잔수 이삭을 내라 카인께네, 쥐가 다 묵었다고,

"아이구 손님, 쥐가 다 까묵고 잔수 없다."

고 그라이, 쥐를 또 잡아내라 카네. 잔수 이삭을 물어내라 카는데, 어데서 각중에(갑자기) 잔수 이삭을 구해 낼것고? 그래 잔수 묵은 쥐라도 날로(나에게) 잡아내라고 억보(억지) 소리를 하네. 옛날 사람은 다 어리석지. 그래 참 쥐를 한 마리 잡아 줬어. 잡아 주이 그놈을 짊어지고 또 한군데를 가네. 또 한 고을로 가갖고, 해가 컴컴하이 한 집을 당도를 해가지고 저녁을 또 묵고 주인을 보고,

"이 쥐를 단디 간수를 해 놓으라."

이라거든.

"간수를 해 놓으면 날 새면 내가 덧고(데리고) 떠날 기다."

카거든. 그래,

"쥐를 어디 놔두면 좋겠느냐?"

고 그라이께,

"단디 주인이 간수를 해 놓으라."

그라거든. 그래가 쥐를 헌 통에 옇어 간수해놨는데, 괭이(고양이)가 날람 주어 묵어삤다. 자고나서 보이까네 괭이가 묵고 쥐가 없다. 그래 주인이,

"아이구 우짜꼬, 손님 내가 아무데 통에 옇어놨더니 괭이가 잡아묵었는가 쥐가 없다."

이라이, 괭이라도 잡아내라고 또 억(억지)을 내네. 그래 억을 내이까네 기가 차서 말도 못하고, 그래 우째갖고(어찌하여) 또 괭이를 잡아 주었네. 주이, 그래 괭이를 잡아가지고 짊어지고, 또 점도록(저물도록) 길을 걸었네. 옛날에 차가 있나? 육로로 걸어가지고 또 어느 한 고을을 당도해가 한 집에 또 주인을 해가 들어가네. 저녁을 묵고 괭이를 턱 내놓으면서,

"주인 양반요. 이 괭이를 쪼개 요구(療飢)시키가지고 어데 간수해 달 라. 내가 날 새면 덧고(데리고) 떠날 기다."

카거든. 그래,

"괭이를 어데 놔 두꼬?"

카이,

"아무데나 놔 두라."

캤거든. 그래 주인이 밤에 자라 카면서 소마구 얖(옆)에다 놔둔 기라. [청중: 매달아 둤지.] 그래 소가 자면서 괭이를 봂아(밟아) 직이삤다(죽여 버렸다). 날이 새인께 주인한테,

"내 길 떠날란다. 맽기(맡겨)놓은 괭이를 달라."

카거든.

"괭이 없다."

카이,

“괭이를 볿아 직인 소 내라.”

카이, 주인의 소가 괭이를 볿아 직있으이 할 수 없어서 소를 내줬다. 이전 사람 참 어리석지. 내주이, 이놈의 소로 몰고 점도록 육로로 걸어 또 한 고을로 당도했네. 당도해가 한 집에 주인을 정해 그 집에 밥을 묵고 나서,

“이 소를 소죽으로 단디 낋이 주면 소죽 해 주는 값은 내가 드리겠다.”

고 이라거든. 해필이면 그 집에 처이가 바느질하다가 바늘을 앞섶에 꽂고 나가, 소죽을 낋이다가 바늘이 소죽에 빠졌는가 이 소죽을 묵고 소가 바늘에 걸리서러 죽었다 말이다. 아직에 자고나서러,

“내가 떠날 긴데 소를 달라.”

고 캐서, 주인이 소마굿간에 가보이 소가 죽어 뻐드러져가 있거든. 억석(臆塞)할 판이거든.

“아이구 소가 죽었다. 우짜노?”

카이, 처음엔 소를 내 놓으라고 하다가,

“그라면 소죽 낋인 처이를 내놓으라.”

고 억지를 낸다 말이다. 들고 조운다(조른다) 말이다. 할 수 없어서 처이를 뺏깄다. 뺏고, 그래 인자 집안에 있는 묵은 궤를 보고, 궤에다 처이를 넣어 갈 끼라고 궤를 줄라 카거든. 할 수 없어서 궤를 줬다. 골동품 궤를 주이, 처이를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저그 집으로 온다고, [제보자 보충: 며칠 걸어서 갔으이, 멀기도 안 멀겠나 저그 집이.] 짊어지고 오이, 참 봄쯤 됐던 기라. 척 산을 건니다 보인께네 사람들이 막 놀음을 하고 회치(會宴)를 하고 [제보자 보충: 지금은 관광을 댕기지마는, 옛날에는 모이가지고 술 먹고 놀음하고 춤 추고 장구 치고 그랬거든.] 짊어지고 오는데, 해는 질고, 목도 컬컬하고, 또 처이 하나 따가지고 간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탁 지게를 길가에다 받쳐 놓음서러,

“너는 여기에 있거라. 내가 저게(저기에) 가서러 니 말하고 니 모가치(몫) 얻고, 내 말하고 내 모가치 얻고 그래가 오꾸마.”

그래 가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퍼지가지고 해가 지도록 퍼짔다. 그때 처이 집 아들이가 조포(두부) 장사를 하던 기라. 그 처이 오래비가 조포 짐을 지고 오다가 가만이 보인께, 궤가 하나 있는데, 궤가 눈에 익었거든. ‘이상하다 우리 궤가 이게(여기에) 올 리가 없는데.’ 카고 지게에 받쳐 논(놓은) 궤 있는 데 가서러 둘러보고,

“이상하다. 그 참 우리 궤인데.”

카인께, 궤 안에 동생이 오래비 음성을 듣고,

“아이구 오빠! 날 살려 주소.”

이래 됐거든.

“야, 니(네) 우째 이리 됐노?”

카이, 사실이 이리이리 돼서 그리 됐다 카인께네, 그만 궤 문을 열고 동생을 끄집어 내고 조포 짐을 갖다가 그 안에 옇어놓고, 자기 동생을 덧고(데리고) 저그 집으로 갔다 말이다.

이 사람은 술이 한잔 건드리 돼가지고 처이 궤 안에 있다고. 니 모가치 내 모가치고 간 데도 없고, 지(자기)만 잔뜩 묵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처이를 메고 간다고 그놈을 지고 가네. 지고 가이, 조포 짐이 돼놓으이 물이 철철 흐른다 말이다. 물이 철철 흐르이 [노래조로] '오줌을 싸도 좋고, 똥을 싸도 좋고' 이래쌓아면서 기분이 좋아서러 [노래조로] '잘금잘금 싸라.' 이래쌓아면서 가가, 저그 집이 빠이 뵈는데 가가 저거매(자기 어머니)를 부르네. 신부 모시고 간다고.

"어매 어매, 앞집에 가서 병풍 얻고 뒷집에 가서 초석 얻고, 해놓이소."

신부 모시고 간다고 그라거든. 그래 저거매는 아들이 성공해가 온다고 좋아서 그래 병풍을 얻고 초석을 얻고 펴놓고 이래쌓이, 집에 와서 지게를 축담에 턱 내라놓고 궤를 열어보이 말캉(말끔) 조포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도 그놈이 꾀가 있던 기라. 뭐라 카는고 하이,

"어매는 내나 조포 한 짐 지고 간다고 앞집에 가서 도매 얻고, 뒷집에 가서 칼 얻으라 캤더니 웬 병풍하고 초석하고 뭘 할라꼬 얻었습니까?"

카더란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17~221쪽.

[동선동 설화 27]

묘터 잘 써 흥한 이야기

구 술 자: 이영순(여, 66)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김해에 사는 한 사람이가 나이가 많아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 밀양 처이한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 밀양서러 처이가 김해로 시집으로 오고 사이꺼네, 참 이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남의 셋방살이 사는데, 너무나 때조석도 못 얻어 참 끓이고 못 끓이고 이래 살 정도인데, 한 탯줄에서 아들로 샘(삼)형제를 낳았는 기라. 샘 형제 낳아놓고 아부지가 고마(그만) 세상을 뜨고, 그래 그 엄마가 그 아들 한 탯줄에 아들 서이로 키우면서, 참 넘의 집에 방애(방아) 품을 들어가지고, 또 양식을 구해가지고 그 아들 샘 형제를 또 믹이고 또 무슨 바느질로 해가지고 요래(요렇게) 믹이고 이러구로 키워가지고 그 아들 서이가 총각이 돼가지고 크는데, 엄마가 우연히 병이 나가지고 죽을 병을 실었는 기라. 그래서러 그 아들 샘 형제를 앉차놓고 유언을 하기로,

"야들아, 내가 너그 아부지한테 밀양서 김해로 시집을 올 때, 너그 아부지가 얼매나 가난하게 못 살았던지 간에 친정을 한번 못 갔는데, 그래인까네 내가 이 세상을 떠서 죽거들랑 밀양 산에다가 갖다가 고향 산에다가 갖다가 날로 묻어 도고(달라)."

이러카고 숨이 떨꺽 가뿌맀네. 그러면 지금겉으면 차가 있어서 시체로 싣고 가겠지마는 옛날이라 차로 갈 수도 없고 그래 참 여름인데, 삼베 옷을 입고 한 벌 싸고 짚신 한 커리 신고 한 커리 허리에 차고, 밀양을 걸어서러 그래 엄마 시체로 지게에다 지고 번갈아가면서 지고 밀양을 떡 가는데, 덥기는 덥고 발은 부리키고 죽을 지경인 기라. 밀양이 저만치 있는 것 같으면, 저래 높은 산에 앉아가지고,

"형님."

"와."

"엄마가 말이지 시집오자 결혼하자 고향을 한번 못 왔다가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은자는(이제는) 우리도 못 가겠으이, 여기서러 보면 밀양이 보인꺼네 이 산을 파고 묻읍시더."

이라이, 동생 말로 들으이 맞거든.

"그럼 그래 하자."

"고마 편편한 데 여기 엄마로 파고 묻읍시더."

떡 뫼 구더기로(묘 구덩이를) 파 놔 놓고 막내이가 딱 눕어보더마는,

"형님, 여기 눕으이까네 고향 밀양 동네가 안 보이는데 어무이로갖다가 딱 시아(세워) 놔놓고 뫼를 씹시더."

참 형님이 가서 눕어보인께 고향이 안 보인다 말이다. 엄마가 고향을 한번 보기를 원을 했는데, 시아가지고 뫼를 써야 되겠다고 시체로 시았는 기라. 딱 밀양 동네로 내려다보고로 시체로 시아 놔 놓고 흙을 끌어듬어 놔 놓고 묻어 놨는데, 그래 어찌 덥는지 정자나무 밑에 앉아서러 가마이 쉬고 있으인꺼네 어디 사람 소리가 나더마는, 그래 가마이 내리다 보인꺼네 상주 둘이가 풍수 뫼터 잡는 풍수로 하나 덧고(데리고) 사람 서이가 올라오는데, 막 덜덜 떨리는 기라. 옛날에는 인부족 세부족하믄 그 있는 사람이가 '파내라. 내가 쓸기다.' 카믄 천상 파 낼 판이거든. 이래서러 가마이 죽은 것 겉이 있으인꺼네, 그래 풍수가 그 밀양고개 거게 딱 올라서더마는 하는 말이가,

"참 알기는 아는 풍수가 있던갑다(있던가 보다). 여기다가 뫼를 쓴 거 보인꺼네. 그래 여게다가 뫼를 쓸 것 같으면, 그것까지는 저가(저희들이) 모르겠지. 뫼를 시아 써야 된다."

이기라.

"이 설(穴)이가 장승설인데, 여기다가 시체로 시아가(세워서) 쓸 거(것) 같으면 그 아들네들이 높은 사람이 날끼다."

이라는 기라. 이래가 참 좋기는 좋으나마 만일 여기 있는 줄 알고, 뫼 쓴 줄 알면 맞아 죽겠거든. 가마이(가만) 있다가 상주캉 풍수캉 내려가고 난 뒤 내려와갖고 냇가에 가 목욕을 하고 한 벌 싸간 옷을 갈아입고 김해에 와가 사인꺼네, 참 집안이 될라 카믄 남산 꺼부쟁이 북산 꺼부쟁이가 와가지고 날라들면 복이 된다 카는데, 이거 엎어져도 복이 오고 꺼부러져도

복이 오고, 쪼깨 손만 놀맀다 카믄 잘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참 우째 하다 보인꺼네, 옛날에 뭐 참 없게 살아도 서당 댕기면서 쪼끔 공부를 했던가 어쨌던가 간에 서울 과게를 떡 보인꺼네 잘 돼가 삼 판서가 나는 기라. 그래 아들 서이가 엄마 뫼를 장승설에 써가 잘 돼가 살았답니다. 그러이 우리들이가 항상 부모 말로 효도하고 나 많은 사람 말로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떡 아이라 돈도 생기고 은도 생긴답니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1~223쪽.

[동선동 설화 28]

도둑에 빼앗긴 아내 찾기

구 술 자: 신필애(여, 82)
구술 날짜: 1990년 8월 3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한 총각이가, [제보자 보충: 저 옛날에는 만날 한 사람뿐이던가?] 아들로 낳았는데, 총각이 뽀득뽀득 크인 웬간한(웬만한) 처이는 눈에 안 차서 장개로 안 갈라 캐. 부모는 장개를 디리고 싶어서 아무리 해도 장개로 안 가.

지(자기)가 또닥또닥 커서 총각이 되이꺼네, 어마이 아바이한테 돈을 좀 줄라꼬 해서 포목[제보자 보충: 포목이 옷이요.]을 한 짐 짊어지고 어느 동네로 가서 쩍 펴놓으이꺼네, 조그마한 서당에 댕기는 아이가 하나 오디(오더니),

"핫따 요것은 우리 누나 옷을 해주면 좋갰다."

카거든.

"니그(너의) 누나가 있나?"

카이,

"있다."

캐.

"우리 누나가 인물이 만고절색이요. 참 좋소."

카거든. 그래,

"우찌 한 번 보겠노?"

이러카이,

"뵈줄 수가 있다."

카거든. 그래,

"우리 마리(마루)가 대청마리가 되기(매우) 높으이꺼네 마리 밑에 가서 총각은 딱 앉았어라(앉아 있거라)."

카거든. 그라고 지가 신을 벗어가지고 그 마리 밑에다 던져삐거든. 던지삐고,

"엄마 엄마. 우짜다가 내 신이 마리 밑에 드갔다. 엄마 와서 신 내 주이소."

카이, 저그(자기) 엄마가 나올라 카이,

"함부로 마소."

카거든.

"그라믄 와?"

이러 카이,

"누나가 와서 내 신을 마리 밑에서 내 줘야 됩니더."

이러 카이까네, 저그 누나가 안 나오이끼네, 단지 딸 아들 하나씩 돼놓으이 어마이가 그거 해서러 자기 딸로,

"야야, 와서러 저 신 마리 밑에서 좀 내주라. 내주라."

카이, 딸이 못 이긴 치(체)하고 마리 밑에 드가이 참 좋은 총객이 앉아 있거든. 총각도 처이를 보고, 처이도 총각을 보이 서리(서로) 미인이거든. 미인인데, 그래 그 이듬해 가가지고 부모한테 말로 해가지고 중매로 옇어서러 장개로 갔거든. 장개로 갔는데, 옛날에는 일년을 묵쿠고(묵히고) 시집을 갔는데, 친정에 있는데, 좀 친정이 못 사던 기라. 못사는데, 도둑늠이가 [제보자 보충: 인자 납치해가고 뭐 한다 카는 그 도둑놈이가 이바구에 나오요.] 도둑늠이가 도둑질하로 댕기면서러,

"저 인물 좋은 처이 저 담부랑(담벼락)에 잠시 넘어가 보면 돈 얼매 주요."

이리 외(외쳐) 놓으이꺼네, 어마이가 돈 얼매 준다 카이,

"야야, 잠시 니 요 담부랑에 한번 와서 서 봐라."

이러 카이꺼네, 참 딸이 부모 말 때문에 못 이긴 치하고 나오이꺼네 마 호드락바람(회오리바람)이 휘뜩허더이 고만 딸로 덧고 가삤다. 갔는데, 그래 사우가 와서,

"어디 갔느냐?"

카이까네, 그래 돈 말은 안 하고,

"어떤 사램이가 잠시 담부랑에 서라 외쌓이꺼네 딸이 잠시 나오이꺼네 호드락바람이 채이(차고) 갔다."

카이꺼네, 사우가 두말없이 가거든. 가서,

"아부지 내가 우떤 사정이라도 내 사정이 있어서러 아부지가 돈을 날로 좀 내끼(낫게) 주소. 주믄 큰 배로 하나 사고 실한 동무도 싣고, 함죽대로(合竹대를) 좋은 거 많이 딱 배에 다 얹어 주이소. 얹어 주고 석달 열흘 묵을 양식을 이 배에다 실리 주고, 그래 물도 많이 실리 주고. 내는 석달 열흘 되도록 어디로 어디로댕기다 올끼이까네 석달 열흘이 넘어가거든 내 죽은 줄 아부지 알고 그 안에 내가 오며는 아부지 만나겠습니더."

카고, 그래 인자 이별로 하고 큰 배로 한 채 사고 함죽대도 많이 사서 얹고 배꾼도 실한 사람만 딱 얹고 이래가지고 아들은 갔는데, 어마씨 아바이는 아들 잘 댕기오라고 물가에다 채려놓고 굿을 하네. 용왕을 묵이고(먹이고) 아들 잘 댕기오라고 굿을 하이까네, 그래 인자 이 사람 어데 한군데 가서 떡 배를 대놓고 남자가 배꾼들로,

"우뚠지(어찌하던지) 너그 배 곯지 말고 묵고, 딱 정신을 채리고 있으믄 내가 갔다 오꺼마."

카고,

"석달 열흘이 가도 내가 안 오거든, 그지는(그때는) 이 배로 희생을 하고 가라."

카거든. 그래 놓고 지는 가는데, 한 군데로 가서러 샘이 우물가에 수영뻐들(수양버들)이 있는데, 뻐들 위에 앉아 있으이꺼네, 자기 마느래 종이가 물로 이러 나오거든.

그래 수영뻐들로 주룩시 훑어가지고 내루이꺼네 쳐다보더이,

"아이고 서방님. 서방님이 우째서 이기(여기) 왔습니꺼?"

이래 카거든, 종이가. 그래서러,

"니그(너의) 애기씨 어디 있노?"

카이,

"내 따라 가입시더. 우리 애기씨 집에 있소."

이러 카이꺼네, 그래 가이꺼네 참 저그 마느래가 얼매나 남편된 사람을 반갑기 맞이하면서러 멕이면서러(먹이면서), 도둑늠은 도둑질하러 갔는데, 머슴을 씨이서(시켜서) 개로 두 바리(마리)나 잡아서러 막 피로 벌건 그거로 단지 안에 두 단지로 모으고, 개 괴기도 뜯어가지고 그 단지 안에다 잡아다가 막 떡국 쑤듯이 그래해가 딱 맨들어 놓고, 나무로 사다가 대목(목수)을 들이대가지고 곽을 한 개 맨드러, 곽을 한 개 맨들어가지고 그 곽 안에다가 소캐(솜)로 사가지고 쭉 요쭉(이쪽) 저쭉 딱 붙이서 놓고, 여자는 그 곽 안에 딱 드러눕고 단지는 요(여기) 앞에 하나 놓고 조(저기) 앞에 하나 놓고, 남자는 상옷을 한 벌 해가지고 입히고 작대기로 해가지고 손에 들어갖고 '아무라도 묻거든, 서슴치 말고 수백리 밖에 부모로 뎃고(데리고) 나갔더니 부모가 세상 베리기 전에 유언을 하기로 내가 죽거든 고향갖다가 묻어 도고(달라) 유언을 해쌓아서 고향을 갑니더. 신치(시체)를 뎃고 고향을 갑니더. 이 말만 하지 딴 말은 하지 말고 가자.' 여자가 그리 남편을 씨기는데(시키는데), 그래 참 말에다가 곽을 얹어가지고 남편은 '아이고 아이고'하고 곡을 하고 따라 오이꺼네, 한 늠(놈)이 지풍가풍 지풍가풍 오디,

"이 뭣고?"

이래 카거든.

"예. 수천리 밖에 나와가지고 부모가 시상(세상)을 베리면서 고향을 갈라꼬 원을 해서 고향 갑니더."

카이 창을 가지고 곽을 한 번 푹 쑤시뿌이꺼네, 여자가 곽 안에서러 썩은 개 피로 소캐로(솜을) 띠가(떼어) 딱 준비해가 있다가 창에 묻히 놓으이 맡아보고 냄이(냄새)가 쿰쿰하이 나거든.

"아이고 추져라(추접어라)."

카고 가삐거든.

그 뒤로 말로 몰아 '우리 살리라.'카고 '어서 가자.'카고 가는데, 도둑늠이 도둑질로 하러 댕기다가 마음이 수상해서 어데 가서 점을 한 군데 했거든. 점을 치이꺼네,

"집에 화가 났다."

카인꺼네, 저놈이 지 집에 더펑더펑더펑 가이꺼네, 아무도 없고 집이 비있거든. '앗다 요기 수단을 지기서 요기 그거구나!' 카고 뛰오이꺼네, 곽이 뱃머리에 다가(거의 다 가까이) 가는데, 도둑늠은 거푼거푼 오이꺼네, 어마이 아바이가 거게서 굿을 해서러 용왕도 멕이고 굿을 해놓으이꺼네 그 덕으로 어데서 수리(독수리)가 두 바리가 오디(오더니) 물에 풍 빠지디, 모래밭에 가서 뚜굴뚜굴 구불디이, 도둑늠 머리 우에 가서 털털 털거든. 터이꺼네, 눈 비비고 닦고 이라는데, 두 바리가 한 바리가 물에 풍 빠지가지고 모래밭에 가 뚜굴뚜굴 구불라가지고 도둑늠 머리 우에 털고 또 한 바리가 이라는 바람에 배에 가이 배꾼들이가 곽 딱 얹이고 사람 얹이고 배가 뜨이꺼네. 그래 저늠이가 큰 잡살(삽살)개로 한 바리 덧고 댕기다가 하는 말이가,

"니가 내 밥을 묵음써(먹으면서) 저 헤어나가서러 배에 있는 저늠들로 간 창시(창자)로 물고 뜯어 다 직이삐고(죽여버리고) 와야 니가 내 손에 사지 그라이믄(그렇지 않으면) 니 직인다."

고 도둑늠이 영을 내리놓으이, 개가 거푼거푼 물에 헤어오이, 배꾼들이가 함죽대를 갖고 개가 와가지고 배로 보고 뛰어 오를라 칼 적에 개 간을 쑤셔서러 물에 떠라(떨어뜨리어) 직이삤거든.

배꾼들이가 함죽대로 갖고 직있는데 여럿이 푹푹 쑤시서 개를 직있는데, 그지네(그때사) 마음을 놓고 여자를 곽 안에서 끄집어 내이(내니) 여자도 자물씨서(까무러쳐) 죽었더라요. 그래 우째우째 구완해가지고 여자도 살리고, 곽이든지 피 단지든지 물에다 다 띄아삐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이꺼네, 세상에 어마이 아바씨가 오도록, 저그 나갈 적에 굿을 시작한 거로 그때까지 하더라요. 그래 와서 마느래 찾아가지고 부귀영화하고 자슥 놓고 잘 살더라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3~227쪽.

[동선동 설화 29]

꿩과 쥐

구 술 자: 김정순(여, 75)
구술 날짜: 1990년 8월 2일
구술 장소: 동선동

옛날에 꽁(꿩)이가 산중에 사는데, 쥐는 부지런해서 계울(겨울)에 묵을 양석(먹을 양식)을 준비한다 말이요.

그렇고, 꽁은 게을밧아(게을러) 댕기면서 묵고 삼동이 되이, 눈이 와 묵을 기 없단 말이요, 엄동설한에 가이. 아무리 찾아도 묵을 것이 없고 눈 속에, 배가 고파 죽을 판이돼서러, 메추리를 부하로 하나 거느렸던 기라, 꽁이. 메추리를 보고,

"니 가서 이 밑에 쥐 집에 가서러 장리를 좀 내가 온나."

이리 시기(시키)거든. 그래,

"장리를 내 와서러 삼동에 묵고 내년 봄에 우리가 해가 갚아 주구로(주게) 그렇게 해라."

카고,

"가거들랑, 늬(너가) 내 시긴 대로 해라. 쥐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오르시고 내리시고 홀로남상 계시오.' 이라거든, 그 쪽에서 '게 누구시요.' 이라거들랑 '내가 뒷골 장새앙 부합니다.' 이래라."

캤다. 이랬는데, 처억 갔네. 쥐 삽짝에 가가(가서),

"오르씨고 내리씨고 홀로남상 계시오."

부르네. 인제 쥐 집에 가서 부르이,

"게 누구시요."

이라이,

"쥐새앙 계십니까?"

'뒷골 장새앙 부합니다.' 그 소리를 잊이뿌고, '쥐새앙'을 불렀단 말이다. [청중 웃음]

쥐 어른 애명 부른다고 막 쥐가 메물관을 씨고 나와가주고 옥중에다가 비들기(조사자 설명: 제보자가 꿩의 부하를 처음에는 '메추리'라 하였다가 뒤에는 '비둘기'라 하였음.)를 가다삤다(가두어 버렸다). 직이라(죽여라) 살리라 카고.

그래가지고 꽁이 아무리 장리 내가 오도록 배가 고파 기다리고 있으이, 빈청에 앉아 기다리이, 오늘 가도 안 오고 내일 가도 안 오고 한 사나흘 되거든. 이거(이것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찌 된 사건인가 한 번 내려가 본다고 터억 간다. 쥐 삽짝에 가서,

"오르시고 내리씨고 홀로남상 계시오." [청중 웃음]

이라이,

"게 누구시요?"

이라이,

"내가 뒷골 장새앙입니다."

이라이,

"아, 그렇습니꺼? 들오시오(들어오시오)."

이라이, 그래,

"앞전에 내 부하를 하나 보냈디마는 다시(도무지) 소식도 없고 흔적이 없어 내가 찾아왔다."

카이,

"예, 한 분이 와가지고 어른 애명을 불러서러 옥중에 가다놨습니다."

이라거든. [청중 웃음] 꽁이 호랭이를 잡네(호통을 치네).

"이놈들 넘우(남의) 부하를 보냈으면, 잘못 한 일이 있으면, 내한테 통지를 해 질을 잡으라 카든지 곤장을 치라 카든지 매로 치라 하지 너그가 임의대로 내 부하로 옥중에 가두다가 사흘이나 배를 골라서러 고상(고생)을 시기고 있노?"

카이,

"아이구 걱정 마소."

그래,

"내 놓어라."

카이, 옥중에 비들기는 배지(배)가 고파 죽었다. 큰일났단 말이요, 꽁한테, 그만 쥐가 꽁한테 사정을 하네. 장리를 몇 섬을 주는지, 저그 있는 기고 없는 기고. 저그 생명 살라고, 몇 섬을 주네. 그라이 꽁이 쥐한테 비들기를 줄라 카네.

"뼈땅구라도 부하 초상을 내가 치지, 다 내놔라."

이라이,

"성(형)님, 우리가 치지, 가(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어허,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내 밑에 씨던 부하로 너그한테 맡겨가 초상을 쳐가 되나!"

카면서 내놓어라 카거든. 그래 쥐가 종우다(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주거든. 그리고 쥐는 꽁이 장리낸 거로 바리바리 실어가 꽁 집에 실어가고, 꽁은 비들기를 싸가 가서러 뼈땅구를 싸가 가서러, 저 높은 빈청에 앉아서 비들기 뼈땅구를 오독오독 뽀사(부수어) 묵어삐고. 장리내가 꽁은 잘 먹고.

그래 꽁이 머리가 영리해 잘 살더라요. [구술자 웃음]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3~235쪽.

5) 미음동 설화

[미음동 설화 1]

풍수와 묘터 이야기

구 술 자: 한자복(여, 61)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미음동 본동마을

옛날에 풍수를 지사라 카거든. 그 지사가 한 고을에 산만데이 떡 오르더니,
"아, 자리 좋다."
카고, 내리오다가 나무꾼이 있는데, 그 나무꾼이 나무를 허러 갈 때는 그릇에 밥을 담아 뚜껑을 덮어 싸가 나무 하는 곳의 나무에 밥을 달아 놓는다네, 점심 때 먹을라고.
그런데 지사가 내려오면서,
"아, 배 고파라."
캐서, 나무꾼이,
"이 밥을 자시이소."
카네. 그래 지사가,
"당신의 밥을 먹으면 당신은 점심 때 안 굶나."
"나는 괜찮으이, 이 밥을 자시이소."
그래 지사가 그 밥을 먹고 은혜할기 없어. 그래 나무꾼에게,
"집에 초상난 일 없는가?"
카이,
"있다, 아부지 채봉한 것이 있다."
카거든, 옛날에 사램이 죽으면 뫼를 쓰기 전에 채봉을 하거든. 시체에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뼈를 거두어 뫼를 쓰거든.
그래 지사가 묏자리를 정해주면서,
"여기에 묘를 쓰면 나무도 하지 않고 살고, 다음에 부자가 될 것이다."
라 카거든. 그래 채봉한 것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묘를 썼다 커데. 풍수가 삼 년이 돼서 그 뫼를 가보니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서 내가 묘터를 잘못 본 것이 아니가 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
"거기에 산소를 쓴 사람이 우째 되었는가?"
물으이,
"그 사람이 뫼를 쓰고 문디이가 됐다."

이라거든.

풍수가 생각하기를 묘 자리가 참 좋은데, 우째 돼가 문디이가 됐는고. 그래 풍수가 보는 쇠(패철)가 있어요. 그 쇠를 탁 던지뿔라 카이, 허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더니,

"지사, 니가 뫼터를 잘 봤는데, 그 사람의 애비가 평생에 세 사람을 죽여서 그 벌로 뫼를 잘 쓰도 소용이 없다. 쇠를 던지지 말라."

카고는 온 데 간 데가 없어. 산신령이라. 그래 산신령의 말을 듣고 다부 쇠를 버리지 않고 가더래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미음동 설화 2]

각시귀신과 포수

구 술 자: 한자복(여, 61)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미음동 본동마을

옛날에는 저 서울로 과거를 볼라 카면 보행으로 걸어갔다데. 차가 없었고 말 안 타고 가면 보행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아! 포수지. 그 사람 양포순데 강포수라는 이바구도 있더라고. [우리 제사들면 모여가지고 이야기 잘해.] 그래 그 사람이 떠억 가는데, 그래 가며는 저 주막에 요새 같으면 여인숙같이 자고 가면서 가는 데가 있는갑지. 떡억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단이 밤에 소변이 보고 싶어 나가이끼네, 저 산에서 불이 하나 도골도골 구불어 내려오면서,

"아야! 아야! 내 갤차주꾸마. 아야! 아야! 갤차주꾸마"

이러 카더마는 그래 마 그 사람이 내처 지 자리에서 가마이 누워 있으끼네, 아주 예쁜 새댁[13]이가 하나 오더니만 여기 자는 포수로 딱 표로 해주고 나가더라 카네.

나가는 거로 그래 그 사람이 표를 심카(숨겨)뿠는 기라. 표로 심카뿌고 모른 체하고 눕어 있으이끼네, 호랭이가 입을 딱 벌리고 들어오더니마는 두리두리 살피더마는 그만 나가더래. 표가 없어서 나가더래. 표가 없어서 몬 자아(잡아) 묵고 나가뿌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구석에 가이,

"또 아야! 아야! 갤차주꾸마, 갤차주꾸마"

그렇게 하더래. 그라더마는 또 그 사람한테 표로 딱 해놓고 가더라 카네.

그래서 그 사람 표를 심카 놓고, 그 때 실탄은 딱 옇었어. 포수가 과거에 가도, 이전에는 포수가 총을 가지고 가는지 어쨌는지는 몰라. 그래가지고 딱 실탄을 옇어가지고 있으이, 호랭이가 입을 떡 벌기고 오는데, 입을 보고 총을 쏘아뿌노이 툭 자빠지인께, 포수 총소리에 바치

13) 朴趾源의 『호질(虎叱)』에 나오는 '창귀(倀鬼)'와 같은 존재.

가지고 전부 다 일라거든. 일라가지고 '내가 죽였네' 그런 소리 안 하고 가마이 모른 척하고 있으니께로 또 자더라 카네.

다 자니께네, 그 새파란 각시가 손을 까딱까딱 치더래. 그래 나오라 카더라네. 그래 나가이까네, 그래

"아저씨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인자 환생을 해간다고, 내가 시집가다가 저 호랭이한테 자아 멕히가지고 호랭이 발새에 찡기가지고 자아 물(먹을) 사람을 갤르쳐 조야 자 묵는다."

카네. 안 그라면 돌에 가서 이래 언뗀데(부빈데) 혼(魂)을. 언떼면 '아야! 아야!' 이래 되는 갑데. 그래가지고 '내가 저그 사촌 언니를 잡아먹을라 해서 잡아 묵게 갤르차 줬고 사촌오빠도 갤차 줬더란다' 그래, 호식한 집안은 자꾸 호식해간다 안 하던교? 그래 사촌오빠고 사촌언니도 시집가다가 지가 갤차조서 저 호랭이한테 한 번 줘멕히었는데, 그래 인자는 호랭이가 죽었으니,

"내 원을 풀어줘서 나는 내 갈 데로 가겠다 카면서 그래 아저씨가 요번에 과거로 가는데, 어떤 과거라도 큰 과거를 하지 말라, 큰 과거를 하면 그 언자 어느 산에 그 짐승을 잡으면 과거를 해준다. 이렇게 해가 가거던. 그러니 각처 포수들은 잡지. 그래 큰 과거를 하지 말고 아무데 산에 그 올라가면 저 - 고 혼자 딱 들어앉으면 그 표적이 있을 끼다고. 그 표적이 있을 낀데, 고 들어가면 큰 고목 나무 하나 있는데 고목에 아저씨가 딱 들어앉으면, 딱 들어앉아가 있고. 총알 하나, 나가는 총구 하나가 있으끼니 고 딱 들어앉아가지고 있으면 동작이 다르거들랑 그래 쏴서 직이나 놓고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 나오지. 작게 모일 때 나오면 아저씨 목숨이 우투럽다(위태롭다)."

고 이라거든. 그래 카면서,

"그래 하이튼 절대로 벼슬로 큰 벼슬로 주도 다음에 가서 하더래도 조그마한 벼슬로, 예전에는 탕건도 요래 갓 밑에 탕건도 벼슬 안 하면 못 쓰더랍니더. 그래 벼슬, 탕건 하나 씰 벼실 하나 해가 내려오라."

카더랍니다.

그래서 인자 그 소리로, 그래 하겠다 카고 고 소리를 탁 하고 나더이만, 그래 그 각시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더라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갔다. 그래가 그 산에 턱 가가지고 있으이까네 온 산에 포수가 그 짐승을,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이고 카면 나라 임금을 해치려는 짐승이라.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오면 벼슬을 준다 이래 됐거든. 그래가지고 인자 그 말대로 산허리로 올라서이꺼네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귀신 말대로 딱 들어앉으이까네, 사람이 하나 딱 들어앉아가지고 총알 하나 나갈 구멍이 역시 있더라네. 가서 딱 가마이 들어앉아 있으이꺼네 온 산에 포수들이 그 짐승 잡을라꼬 나갔는데, 앞에 반석이 하나 딱 있다 카디마는. 그 반석에 딱 앉아 있으이까는 허연 백수노인이 하나 딱 앉으면서 하는 말이,

"하 이놈들아, 너그가 시골서 날 잡으러 올라와도 너그가 날로 잡을것가?"

이렇게 말로 하더라 카네. 그 소릴 딱 듣자 고목나무 속에서 총을 쏘끼네 자빠지면서 큰

백야시, 큰 백야시가 자빠져 있는 기라. 백야시를 잡았거든. 그게 둔갑을 해가지고 그라더라네.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안 나오고 있는데, 여덟 형제가 포순데, 짐승을 잡아놨는데 사람은 없거든. 그래 놔놓이꺼네 저그가 인자 잡았다 캐야 벼슬로 할거 아이가. 이래놓이끼네 벼슬할라고, 그래 사람들이 저게서 총소리 듣고 하나 오고 둘이 오고 하이끼네, 짐승 잡은 사람은 없으이,

"거 우리 행님이 잡았다."

캤다가,

"내 동생이 잡았다."

캤다가, 그 말이 안 맞을거는 사실 아이가? 여덟 형제가 함께 딱 모여가지고 이래쌓이끼네, 그래가지고 인자 하나 오고 둘이 오고 각처에 포수가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떡 가가 있으니까네 다 나오더라고. 그 때에 지가 그 나무 속에서,

"이 짐승은 내가 잡았다."

이래 돼놓이끼네 그 여덟이가 다 미안할 건 사실이거든. 지가 잡았다 저그가 잡았다 캐쌓다가 뜻밖의 사람이 나오니까네 그래 미안해가지고 말이지,

"하이고 저놈우 손, 저기 벼슬만 해가 내려오며는, 어느 강을 건니오는데 그 강가에다 딱 벼슬 빼뜰어뿌고 강에 처옇뿌자."

이래 생각을 했는갑지. 여덟 형제가.

그래. 참 그 사람 말대로, 귀신 말대로 탕건만 하나 쓰고 왔는 기라. 탕건만 하나 쓰고, 그 때 조랑말로 하나 주더라 카네. 그 서울서 임금이 조랑말로 하나 줘서 타고 까딱까딱 넘어오이까네,

"하이고 저 새끼 온다. 저그 태수 직이자."

이카이끼네, 세이가(형이) 하는 말이,

"탕건 하나 쓰고 오는데 뭣이 탐이 나서 직이겠노? 놔두라."

이래 돼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로 벼슬로 해가지고 잘 살았더라 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47~550쪽.

[미음동 설화 3]

세산 전설(1)

구 술 자: 한자복(여, 61)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미음동 본동마을

아주 옛날에 큰물이 졌었는데, 그 물에 저 산이 떠 들어오더라 카데. 그 떠 들오는데 가마이 가구로 놔뒀으면 이에가(이곳이) 서울이 되었겠는데, 하필 저 어떤 여자가 나와서,

"저 산이 떠들어오네."

카니까, 고 자리서 딱 서뿌더라 카데. 근데 저게가 세산 저기이 없었으면 여기가 서울이 됐더라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47쪽.

[미음동 설화 4]

망산도(용원 돌산) 유래

구 술 자: 김도익(남, 70)
구술 날짜: 1992년 1월 18일
구술 장소: 미음동 와룡마을

웅동면 용원 앞 바다에 이전에 돌산이 떠돌아 와가주고, 거게 나이 많은 사람이 봤으면 될 긴데, 젊은 아주머이가 나와 봐가, 봔 때문에 그 자리에 들앉았다. 앉아가주고 가도 오도 안 하고 있는데, 안주꺼정(아직까지도) 전설로 봐서는 거기 돌산이라고 안죽도(아직도) 있다.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3쪽.

[미음동 설화 5]

분절리 정효자 이야기

구 술 자: 김우철(남, 74)
구술 날짜: 1992년 1월 18일
구술 장소: 미음동 와룡마을

분절리에 정효자가 있었는데, 이 어른이 자기 어른도 효자고, 그 효자가 죽어가주고 그 아들이 정석로라 카는 분인데, 그 어른이 초상을 딱 치고나서 산에서 안 내려오고 거기서 밤을 새우니, 그 아들이 할 수 없이 자기 어른이 안 내려갈라 하이, 밤에 요 이부자리를 가주와서 부모를 모셨는데, 그 뒤에다 띳막(떼幕)을 지어가지고 막을 지어가주고 자기 어른이 거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옛날에는 삼년상을 했거든.

부모 시묘살이를 삼년상을 했는데, 거기서 안 내려오는데, 그때는 밤에 호래이(虎)를 만나고 이랬다 하더만. 우리는 보지 못했고, 삼년을 집에라고는 안 내려오고 산에 거서 삼년상, 이전에는 인자 삼년상을 내고 나면 빈소를 철거하거든. 삼년상을 낼 때까지 산에서 안 내려오고 머리도 안 깎고, 그래 오래 되면 상투를 짓고 이라는데, 자기 어른은, 효자가 무슨 일로 관할 경찰서에 갇히게 되었는데, 간수한테 우째 애원을 했던지 해가주고 밤으로는 아부지 졑에 와서 자고 새북에는 가가주고 간수하고 약속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날을 채우고 밤낮으로 그래 몇 달로 감옥생활로 했는데, 자기 어른이 모르죠. 낮으로 거 가는 것은 속이고, 밤으로 어른 졑에 자고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것만 들었지 그 외 것은 모르건마는.

[미음동 설화 6]

충청도 연안 안씨 과부집안의 아들 과거 급제한 이야기

구 술 자: 김우철(남, 74)
구술 날짜: 1992년 1월 18일
구술 장소: 미음동 와룡마을

충청도 연안 안씨 집안에서 과부가 살고 있는데, 어느날 후원에서 목욕을 하다가 도둑놈한테 홀키 가뿐 기라. 가뿐 긴데 아주 이놈 거친 놈한테 저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갔는데, 곳도 모르겠고 가서 내려가 보이, 이놈이 장사라 힘이 장사라.

팔도에 이쁜 여자들을 모아다가 그 안에 동네를 만들어 섬을 차지해가지고 지 동네라. 남자들도 많이 훌치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 섬을 지 독점이 돼가 있는데, 이 과부가 참 인물이 잘 났던 모양이지. 이놈이 과부를 욕심을 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이 그냥 저놈한테 당하겠다 말이지, 그래 몸에 상처를 내가주고 저놈한테 그 핑계를 하고 몸을 안 뺏기고 장 이래 사는데, 이놈이 한 달만에 한 분썩 나가는 기라 외출로, 도둑질하러 나가는 기라. 가면 오만 것 귀신맨치로 해와서 배에서 실고 와서 뿌리뿌고 쉬고 이란데, 이 여자가 몸을 안 빼앗기는 대신에 저놈한테 굉장하게 아양을 바치기주고 홈박 지 사람되는 것같이 이래 맨들어 놓았다 말이지, 저몸이 이 여자한테 쇳대를 주고 간 기라. 그래 쇳대를 가주고 끼라주이 창고같은 데 열고 들어가 보인께, 채 매는 사람은 채 매우고 무슨 얄가구진 영업하는 사람은 통 매우는 사람은 영업도 하고 이래 있거든.

"이 중에 육지에 나갈 사람 없느냐?"

물으이, 아무도 육지에 나갈 사람이 없어. 주인이 대접 잘하고 먹을거 많고 이라이 육지에 나갈 사람이 없는데, 한 군데 가이 한 사람이 아들이 보고 싶어 육지에 나갈라 카는 기라.

그래 그 사람하고 의논해가주고, 강가에 배도 여러 척이 있는 기라. 그래 아무 배나 타고 몰리 타고 나왔는데, 지금 같으면 나온 데가 충청도 바닷가 하발치에 내렸는데, 어느 김씨 집에 갔는데, 주인 집에 과부가 혼차 있는데, 그래 김씨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자기가 또 이적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순산을 해서, 그래 김씨 집 아들은 느긋하고 자기 아들은 불운한 기라. 그래 그 집에서 돈이 있어가주고 독선생을 앉차가주고 글을 개르치는데, 그래 그 집에서 형아. 동생이라 카고 형제간같이, 김씨 부인도 안씨 부인의 사정을 들어보이 참 갈 때 올 때 없이 기가 차 있게 돼 있고, 이 사람이 보이, 지도 외로운 처지에 살림은 있는 살림이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이 아도 보이 착실하고 그래 같이 공부를 시키고, 그래 성인이 돼가주고 과거를 보내는데, 그래 과장에 과거를 보냈는데, 한강 나루를 건니면 서울이고 한강 나루 이쪽에서 과거를 보는데, 그래 이 집에 팔대 외동이라. 충청도 연안 안씨가 팔대 외동인데, 우째 되었든지, 그 집에서는 과거를 보내면 한강 나루를 건너면 죽고 죽고 이래가주고 지도 모르고 그래가주고 자꾸 과부가 되는 기라. 유복자를 낳아서 그 아를 낳아서 공부를 해가 한강 나루에 가면 또 죽고 또 죽고 장(늘) 그라는데, 야가 그 어머니로부터 전설을 들은 기라.

"우짜든지 니가 한강 나루를 무사히 건너야 된다. 그기 제일 걱정이니 조심해라."

카고 그래 보냈다 말이지.

그래 저 어무이가 그래 카니까 한강 나룻가에 가이께 걱정이 생기는 기라. 물이 줄어지면 백사장으로 가가주고 건네가는 배를 타고 이라는데, 그 밑에 백사장에 포장을 쳐놓고 있는데, 거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저기 뭣하는 데고?"

물으이,

"그 용한 할미가 한 분 앉아 점을 하는데, 참 점을 떨어지게 잘 맞힌다."

고 이래쌓거든.

그래 팔대로 이 한강 나룻가에서 우리 할배들이 다 죽었다는데, 이놈우 점을 한 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래 김씨 아들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인데,

"형님, 나캉 같이 갈라나? 아니면 여기 있을나나?"

"니가 가면 나도 같이 가야지."

그래 같이 가가주고 점패(占貝)를 얼마를 주는가 물으이, 그때 돈으로 한 냥을 주고 점을 하는데, 그래 전패를 한 냥 놔놓고,

"나 좀 봐 달라."

그라이, 할마이가 점 볼 차례가 되었는데, 할마이가 그 사람을 딱 보더마는 고개를 짤짤 흔들면서,

"내가 그 점을 못하겠다."

그라거든.

"여보시오, 우째 다른 사람은 다 점을 해주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하느냐.?"

"당신은 어렵은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과거를 가는데, 이 한강 나루를 못건너겠다."

이거라, 저그 어머니한테 들은 그 말이라. 간이 뜨끔한 기라. 그래 이 사람이 성을 딱 내면서,

"아이 여보시오, 당신이 그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째 죽을 점은 치면서 살 점은 못 치느냐? 내가 돈을 삼 배로 줄 터이니, 살 점을 쳐달라."

늙은이가 기가 찬다 말이다. 그래 이 늙은이가 저 강에 가가주고 머리를 새로 감고 북쪽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빌고 나더니 점을 치는데, 점을 떡 치고 나더니만,

"당신이 정승의 집에 가서 자야, 정승의 딸 방에 가서 자야 당신이 한강 나루를 무사히 건널 수 있으이, 정승의 딸 방에 가서 잘 수 있느냐?"

"해나 그렇지, 그라면 내가 한강 나루를 무사히 건넌다 말이죠?"

"정승의 딸 방에 가서 자면 한강 나루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고, 정승의 딸 방에 자기는 내 사정이고, 그래가주고 자고 나면 한강 나루를 무사히 건넌다 카이, '됐다' 카고, 형에게 '가자' 하고, 형은 따라가네.

그래가주고 한강 나루를 건네가주고 서울 장안에 들어 서서 정승의 집을 물은 기라. 정승의 집은 대강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충 표가 나는데, 그래 한군데 가이 큰 담장을 해놓고 큰 대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집이 정승의 집인 기라. 정승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국량(局量)이 있어. 정승의 집 주위에 돌아 댕기면서 문소문(聞所聞)하기로 정승의 딸 몸종이 이 근방 어디에 있나 이것을 찾는 기라.

그래 찾으이,

"정승의 딸 몸종집이 산 밑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정승 딸의 몸종 집이다."

라고 이라거든.

그래 그 집을 찾아간 기라. 찾아가이 복판에 정지가 있고 방이 양쪽에 갈라져 있는데, 큰 방에는 정승 딸의 몸종 어무이가 거 있는데, 무조건하고 들어가 '어무이'하고 인사를 드리는 기라. 저 늙은이가 간이 벙벙하이, 아주 잘난 남자가 와가주고 총각이 와가주고 '어무이' 카고 인사를 하이 꿈인지 생시인지 요량을 못하는 기라.

"우엔 사람이냐?"

고 물으이,

"어무이, 나가 어무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내가 어무이를 찾았는데,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들오라."

"천상 내가 자고 가야 되겠다."

"그래 하라."

그래,

"우리 딸이 안중 안 왔는데, 저물어야 올긴데, 안중 안 왔다."

이라면서 장이 거북한 입장을 말하면서,

"지녁도 인제 어찌했는가 모르겠지만 집에 밥이 없으니 우짜겠노?"

이래 쌓이게,

"우리는 지녁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은께, 어무이 딸 오거들랑 나를 오빠라 하고 인사를 시키주이소. 그리하면 어무이 은혜로 내가 장차 갚아 줄 기인께 꼭 그래 주이소."

그래 늙은이가 가만히 생각해보인께, 사람의 형상도 둘이서 보이 아주 전망이 있는 사람이고 번듯하다 말이여. 그래 자기 딸이 그 집(정승집)에서 음식을 장만했다고 떡을 가지고 와 저그무이를 줄라고 가져왔는데, 그래 저그무이가 처음에는 말을 놓았는데 그래,

"이거 자시라."

고 떡을 주고, 그래 지녁 겸해 떡을 먹고, 그래 저그무이가 인사를 시키는 기라.

"딸아, 니 볼라고 니 오빠가 왔는데 니가 인사를 해라."

그래 서로 인사를 하고,

"동생, 내가 동생한테 할 말이 있는데, 동생이 내 말로 좀 들어주면, 내가 죽어도 이 은혜를 갚을 챔인께, 내 말을 들어주겠나?"

"무슨 말이냐고 말을 하라고."

그래 치마바람 치마바람, 인물 잘난 여자들이 관공서에 가서 일을 하면 엄청 잘 봐 주거든. 처이가 그 아(兒)들을 보이께 탐이 나서. 총각들이 참 인물도 좋고 총각들이 좋은 기라. 그래서 인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그래.

"정승 딸 자는 방 문 앞까지만 저를 인도를 좀 해주면, 대책은 전부 자기가 지겠고 어쨌든 나는 정승의 딸 자는 문 앞까지만 나를 데불어 달라. 그리 해줄 수 없느냐?"

물으이, 참 에렵다는 거라. 우째서 에렵는가 물으이,

"정승이 자는 대청을 밟아 지내가가주고 고(거기)서 내려가주고 별당이 있는데, 줄배를 댕기가 타고 그래 들어가는데, 대청을 디디며 가면 정승이 누고 카고 물으이, 그때 잘못하면 당신 죽고 내 죽는다 이기라. 그래 그 일을 우째 해내겠노?"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맨발로 소리끼 없이 어째든 소리를 안 내고 따라 들어가면서 누구라고 묻거덜랑 임자만 '냅니다' 하고 대답하고 들어가면 나는 소리없이 들어가이께네, 그래 좀 해도고, 내가 이 정승의 딸 방에 가서 자야 내 명을 보존한다 카이, 나는 죽을 결심하고 온 사람이니, 내가 살면 그 은혜를 다 갚을기네께, 날 좀 봐도고."

그 정승 딸의 몸종이 들어보이, 참 에렵은 일은 에렵은 일인데, 이 총각이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니 거절도 하지 못하고 기가 찰 판이라. 지 마음에도 내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대답을 했는 기라.

"그러면 내 따라 가자."

고, 그래 지녁을 먹고 한 삼경이나 돼서 그래 총각을 뎃고 그 대청을 해서 간 기라. 저그

머이 옷을 대략 변경을 시켜가주고, 그래 처이가 앞장을 서서 그래 정승의 대청을 밟아서 들어가이 '누구냐?'카이, '예, 소녀입니다.'카이 '오, 인제 오나'카고 암말도 안 하거든. 그래 이 사람이 맨발 벗고 걸음을 살살 걸어서 문 앞에 데부다 주고, 그래 처이는 돌아왔다.

정승의 딸이 글 읽는다고 촛불을 환히 켜놓고 글을 읽는데, 그때 총각이 문을 열고 썩 들어간 기라. 썩 들어가이,

"어떤 사람이냐?"

고 이라거든.

"아가씨요, 날 좀 살려 주이소. 내가 오늘 지녁은 이 방에 와서 밤을 새워야 내 명을 산다고 하이 나는 명을 내놓고 온 사람이니 내가 살면 뭔가 보답을 내 힘대로 해 줄 터인께 나를 살려주이소."

그래 카고 앉았으니, 큰 사람의 딸은 사람이 좀 기백이 있고 다른 기라. 보인께, 총각이 참 분명하고 좋은 총각이 들어와서 생명을 요청하는데 기가 찰 판이라 말이라. 그래 처이가 글 읽은 것을 옆에서 기경(구경)을 하고 있으인께 책을 한 권 내주거든. 자기네들의 책을. 내주는데 그 책을 지도 보고 있으이, 밤중 넘어가이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짜박짜박 나는 기라. 그 아가씨가 그날 지녁 주역을 내놔놓고 읽는데, 주역은 구신도 범접 못한다는 거거든. 그래 이상스리 주역을 읽어도 무슨 소리가 나는 기라. 그래,

"누고?"

카이,

"내가 한강 나룻터에 이전에 뱃사공질을 했는데, 뱃사공으로 죽은 구신인데, 그 사람을 내가 잡아가야 되는데, 아씨방에 있어서 못 잡아가는데, 그래 사람을 내놓아라 이기라. (그전에 총각이 처지를 얘기하기를 내가 팔대 외동이라 이거라. 우리 아부지, 할부지, 몇 대조꺼정 한강 나루 거서 죽고 한강 나루를 못 건넌다는데, 그래 내가 여기 들어와서 목숨 살려주소 카는 이바구를 했는데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 말이다.) 그래 한강 나루 뱃사공이라 한께, 처이가 힘이 생기는 기라. 사람을 그리 직이지 말고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풀어 줄라 카지. 사람을 그리 직이서 되느냐? 인간이 팔대나 망했으니 인간에 보(報) 갚은 일을 했는데, 나머지 여기에 보갚음이 더 있으면, 그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을 풀어줄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 우째 사람을 자꾸 대대로 그래 직이면 되느냐고. 원한이 물론 있을 테니 그 원한을 좀 얘기해 달라."

고 이라거든.

"지금도 내 원한이 저놈의 사람을 이때까지 직이왔고 지금도 안중 복수가 여전이 남아서 그래 내가 왔는데, 내 원한을 내 원하는 대로 풀어줄 수 있으면 내가 살려 주겠다."

고 이라거든.

"그렇지, 원한을 한분 얘기해 보라."

"원망은 다른 원망이 아니고, 옛날 8대 조고(祖考) 이 어른이 과거 갔다 오다가, 한강 나룻배에 내가 사공질을 하고 있으인께, 나룻배를 건니면서, 담뱃대를 물에다가 떨아뿌리었는데,

나를 그 단뱃대 안 주어 준다고, 나를 자기 말꼬리에다가 내 상투를 틀어매서, 말꼬랑에다가 달아가주고 천리를 끌고 가다 내가 죽었는데, 내 죽은 시체를 산에 갖다 묻었으면 내가 원한이 풀릴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가면 말 자판 밑에 내 시체가 안중 들어가주고 있다. 지금 내 시체 그걸 파다가 소원은 잘못했다는 사과문을 써가지고 사라주고 내 시체를 파서 좋은 양지에 터를 잡아서 묻어주면 내가 그 원한이 풀릴 것이라고, 안중도 내 시체가 말 자판 밑에 있으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 소원이 있으면 풀어달라 해야지 사람을 직이면 되나. 내가 그 소원을 풀어줄 챔인께 살리줄라."

고 그래. 이 사람은 평풍 뒤에다 숨키놨어. 평풍 뒤에다 숨켜놨는데,

"아씨가 그렇게 소원을 풀어준다면 내가 돌아 가겠다."

"다 푼 원한을 남구지 말고 그렇게 해 주거들랑 그만 복수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복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줄 겁니다."

그라이 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래 평풍 뒤에 가보이 그 사람이 자물시 죽었는 기라. 그래 구신이 되니까 약이 청심환이라는 약을 물에다가 타가주고 그래 그 사람에게 믹여 살렸는데, 그러구로 밤중이 넘었는데, 자기 어른이 말이지 자다가 소변하러 나간께, 자기 딸 방에 불이 환하이 있다 말이야, 그래서 줄배를 타고 건네간 기라.

"야야, 안중 안 자나?"

"예, 안 잡니다."

"왜 뭣 때문에 날이 다 새가도록 이 때까지 안 자고 그래 공부를 하고 있노?"

"아부지, 온 저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고?"

그래 실재 이야기를 했어.

"아부지, 여기 들와보이소."

딸이 들오라 카이 방에 드갔어. 그래 이야기를 하고 평풍을 걷어재치고, 그 사람을 나오라 해서 대면을 시킨 기라.

정승이 보이 사람이 아주 분명한 기라. 얼굴이 잘 생기고 그래.

"그래 이 사람아. 니가 그런 일이 있으면, 먼첨 에렵은 걸음을 했는데, 자네가 과거에 소원이 있으면, 내가 내일 과거장에 나가는데, 내가 문제를 하나 내줄터이니, 자네 그 의형을 보이, 자네가 무슨 관직이나 관직을 살아먹겠는데, 내가 글귀를 하나 내줄 기니께 자네가 간직을 하게."

그래 저그 딸을 시키가주고 글귀를 준께,

"어르신, 저그 형제간인데, 내 형이가 지금 몸종의 딸 집에 투숙을 하고 있는데, 내만 이 글을 얻어갈 수 없으이, 이왕이면 글을 하나 더 주이소. 사정이 내가 못 했으면 못 했지 내

형의 과거를 해주야 됩니다.”

“어 자네가 그러카면 체면이 있는 말이네.”

그래 한 개 더 써가주고, 그래 저그 딸을 시키가주고 주었다. 두 글을 거머쥐고 그래 정승 딸하고 같이 나오면서, 이 은혜를 후일에 갚겠다 하고 그래가 나왔다.

그래 안씨 부인의 부탁이 충청도 연안에 들어서걸랑 요새 말로 팔 과부 집인데, 이전에 이십여년 전이라 말이야. 집을 비아놨으이, 집이 홀랑 비어 있고, 그 시어머이가 있었다 말이야. 청춘에 과부되고 과부되고 과부들만 둘이 있는 기라. ‘그날 그 동네 오거들랑 아무댁을 물어가주고 그 집에 가가주고 가급적이면 전(奠)을 그 해가주고 자고 오너라’ 이래 됐거든. 그래 이 사람이 저거매 말을 명심해가 듣고, 그래 그 정승 집을 벗어나가 몸종 어무이 집에 갈 때는 다리가 저럽어서 팔팔 뛰고 싶지.

그래 성사를 했으이, 몸종 어무이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살았는데’ 어무이한테 백배 인사를 하고 호의를 받게 되었다 하고, 그래 가서 과거를 보이 상시관이 그 정승이 상시관하시고 상시관이 써준 글귀고 하인께, 그 두 사람은 다 급제를 한 기라.

이전에는 급제라 카는 것을 하면 내가 나무를 하다가 손이 터서 형편 없어도 사람이 허물을 준다 카데. 손발이 보해지고 장안 안에는 3일로 잔치를 하는 기라. 어느 대가집 없이 급제한 사람을 집에 와서 둘러가라 카고 사대문 열어놓고 어데든지 서울을 기경 다 하고 이라는데, 그래 인자 이 사람 둘이가 급제를 해가주고 그래 정승의 집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정승한테 인사를 하고, 그래 그 정승이 그 사람을 사우 삼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이 사람아, 너거가 천상 배필이 될라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딸하고 결혼하도록 해라.”

“어무이가 있으인께, 집에 가서 어무한테 이야기하고 뒤에 연락을 주면 그래 하겠다.”

그래 내려오면서, 연안 저거무이가 카는 그 집을 택호를 불러 찾아 갔다. 그 늙은이들이, 옛날에는 급제를 하면 갖은 풍악을 울리고 나졸이 딸코 이랬던갑데. 그래 오이, 동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면서 며느리 하나 있는 것도 밤에 지향 없이 가뿌맀지, 손(孫)이 다 끊기뿌고, 이전에 웃대 어른들이 모아놓은 살림은 있어 부자인데, 누가 돈 씰 사람이 있나 글을 갤칠 아(兒)들이 있나 날만 새면 먼 산 쳐다보고 한숨만 남아 있는데, 그때 누가 급제를 해가주고 풍악을 잽히고 내려오는데 부러워 죽겠거든. 그래 그 동네를 들더마는 자기 집을 물어 찾아 들오거든. 미쳐 반가워싸서 남자 손(손님)이 오기는 처음이라.

반가워서 사랑에 청소를 하고, 불을 때고 그래가주고 손님을 맞아 재우는데, 그날 지녁에 이 사람의 저그 할배 제사라. 할배제사인데 이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사랑방에 자는데, 부녀가 보햔 소복을 입고 내려와서,

“도령님들, 참 내려오시가주고 오래만에 내 집에 들렀는데, 내가 청할 기 하나 있는데 내 청을 들어 달라.”

“그래 뭣인데, 말씀하라.”

“오늘 지녁에 우리 시어른이 제사가 드는데, 우리 집에는 몇해로 수 십년을 축도 한분 못

해봤고 지방도 옳기 못 써보고 있으이, 오늘 지녁에 제사같이 한분 지낼라는데 축 하나 쓰고 지방 써 달라."

고 하고, 벼루하고 종이하고를 가져왔거든.

"아 염려 마이소."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시어르신 된다 카이, 지한테는 징조(曾祖)할배 택이거든. 참 축을 쓰는데 눈물이 나는 기라. 윤기(倫氣)라 카는기 흉악한 기라. 눈물이 나는데도 근근이 축문을 써가지고 드리고,

"오늘 지녁에, 평생 우리 제사에는 남자 두루막자락이라고는 없었는데, 도령님들 이냥 고생스럽지만 나중에 제사 지내거들랑 독축 좀 해달라."

고 이라거든.

"예, 그래하겠습니다."

온 집안에 불을 환하게 해놓고 음석 장만한다고 해쌓고, 그래,

"준비 다 해놨으이 올라 오라."

고 해서 그래 올라가서 고축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눈물이 나서 이상스러이 통곡이 나오는 기라. 그래 통곡을 하고 고축을 마치고 그래 제사 음석을 갈라먹고 하룻밤을 자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우짜든지 거기에 한분 더 오라'고 신신부탁을 하는 걸 '기회가 있으면 오겠다' 하고 내려와서 저거무이한테 그 이야기를 한께, 저거무이가 반가워서 자물씨(까무러쳐), 얼마나 원한이 맺히었던지 자물씨서 그래 약을 사다 믹이서 깨나서, 그래 내려오면서 제사 지낸 얘기, 정승 딸 방에 잔 얘기들을 낱낱이 하이,

"니가 살라고 그런 일이 생겼다."

카고, 그래가주고 집에 와가주고 정승의 집에 편지를 해서, 그래 서울 올라가서 정승 딸한테 장개가고 그래 잘 살더란다.

[미음동 설화 7]

배 접장의 꾀

구 술 자: 김우철(남, 74)
구술 날짜: 1992년 1월 18일
구술 장소: 미음동 와룡마을

서댕, 서댕이 있는데, 이제 과거를 보는데, 글을 많이 배워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는데, 이전에는 관자(冠者)라 카면 장개간 사람이 상투를 쫐는 것을 관자라 부르는데, 관자들도 있고, 학생들이 이전에는 생도들이 많이 과거를 가는데, 이 배 접쟁이라는 접쟁이 글 갈치가지고

한대몫 보는 것이 과거보러 가는데 따라가는 것이 한대몫 보는 것인데, 자기 보호도 받고 호강도 하고 이라는 건데, 부잣집 자식들이 과거보러 가는데, 돈 많이 가져 가는데, 잠자리도 좋은 데 재우고 맛인 것도 사주고 좋은 기경도 하고 그걸 기대했는데, 한 놈도 '선생님 같이 가자'고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기라.

그래서 마음이 딱 변질하는 중인데, 저그는 모두 뭐 말 타고 가는 놈은 말 타고 이래 가는데, 배 접장 이 어른은 걸어서 말 타고 가는 놈을 뒤쫓아가 잘 때는 한 동네 가서 한 사람이 이 집에 자면 다른 놈은 딴 집에 가서 자고, 요새는 사랑이 없지만 옛날에는 사랑이 있어 자기 생도들이 자는 방은 다 알거든.

그래 어느 대갓집에 들어가 자는데, 여러 날을 가가주고 그날 지녁에 달이 환하이 밝은데, 그 집에 살살 가보이 사랑 앞에 앵도나무가 있는데, 앵도가 조롱조롱 열어가 발간이 이래 익어가 있거든, 이 배 접장이라는 영감이 변통 잘 지우고 변동 잘 지우고 아주 계교가 능란한 사람인데, 헌 깡통을 하나 주가주고 앵도를 졸졸 훑어가 많이 따가주고 아(兒)들 자는 그 방에 가면서 쫄쫄 흘리놔놓고 저놈들 한창 자는데, 앵도 저놈을 갖다가 문 앞에 훌훌 던져서 온 방에 던져놨다. 앵두가 익으면 잘 터지지. 이놈 아들이 잠결에 앵돈지 뭔지 흩어놓은 것을 모르고 저꺼정 몸부림치고 자고 이랬다 말이야. 그라고 배 접장 영감이 회차리를 가지고 앵도나무를 톡톡 뚜디리서 말칸 조지놓고 자기 처소에 와서 누워자뿠다. 아직에 주인이 자고 나와 보인께, 애도나무를 말칸 다 조지뿌고 못 쓰게 해놨다 말이여. 앵도를 본께, 과거 보러 간다는 그 아들 방에 그리로 앵도를 쫄쫄 흘리놓고 문을 열어보인께 온방에 앵도를 터자놓고 이놈들이 먹고 온 방에다가 흩쳐놔놓고 저그 옷에도 앵도물이 묻어서 벌건이 이래가 있다 말이지. 아직에 밥도 안 주고 밖으로 내쫓아냈다. '이놈들을 사람이라고 나는 방에 자도록 했지 마는 사랑 앞에 앵도나무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고 밥도 없다 다 나가거라.' 그래 하인을 시켜 후차냈다 말이다. 저놈들은 후치켜나갔다. 배 접장은 저걸 봤지. '저놈들 내 때문에 욕 좀 봤다' 카고, 그래 서울로 떠억 가가주고 어느 대가집에 자는데, 배 접장은 그 이우지(이웃) 방을 빌어 자는 중이라. 장난 궂은 짓을 하는 것이 우째 하는기 아이라 서재꾼들이 자는 방이 사랑이 이래 있으면 우에 정침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불이 빤하이 있거든. 손가락 가주고 종이문에 춤(침)칠을 해가주고 조그마한 구멍을 뚤버서 들여다본께 처녀하고 젊은 아씨하고 그 방에서 침선(하느질)을 하고 있고, 책을 보고 저꺼정(저희끼리) 또 서로 얘기하고 이래 밤을 새우고 있는데, 밑에다가 손가락을 가주고 춤을 묻히가주고 구멍을 뚤버가지고 거기다가 꼬치(남근)를 옇어가주고,

"우리 사랑방에 자는 서재꾼인데, 이것이 탐나거든 내려오라."

카고, 그래놓고 가뿌맀다 말이다. 그 집 처이하고 며느리하고 밤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난께 밤에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기라. 그 집이 누구 집이냐 하면 병조판서 집이라. 가장되는 사람이 병조판서라. 그래 가장한테 그걸 일렀네. 사랑에 과거꾼이 한 십여명이 와서 누워 자는데, 밤에 이런 못된 짓을 하고 간데, 저놈들 질 좀 디리라고 그라네. 그만 이 사람이 분해 죽겠거든. 집안에 여동생이 와서 있는데, 그 짓을 하고 갔으이, 이놈 빌어먹을 자식들이 있나

그래 새북에 날이 덜 새서 창고에다 말칸 하인을 시켜서 가두어놔놓고 전부 몽디이 가주고 죽도록 패라 카네. 배 접장이 들은께 '아야' 하는 소리가 동네 골목 길마중 나고 '아야'하고 고함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고 무슨 영문인지 이것도 모르고 뚜들겨 맞는 기라. 그래 배 접장이 비딱하이 갓을 씨고 허름한 바지 저고리에 흰 두루막을 입고 그 집에 절뚝절뚝 들어가가 주고 주인을 찾는 기라. 찾으이 병조판서 이 어른이 분이 나가주고 팔팔거리고 있는데, 누가 찾거든.

"누구냐?"

고 물으이,

"하도 소란스럽어서 한번 와봤다고, 뭣 때문에 이러느냐?"

고 묻거든. 그래 그 얘기를 한께,

"그러느냐고, 내가 참 미안하다고, 내 제자들인데, 내한테 글로 배워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좀 야단을 치겠다."

고, 그러카이 병조판서가 분풀 데가 여기 있거든. 접장 이거를 조지야 된다 말이라. 그래 따라와 한분 보라고. 따라가 본께 이놈들 얻어 터져가지고 피나는 놈 피나고 눈티이는 붓고,

"아이고 선생님."

카고, 저꺼정(저희끼리) 반가워가지고, 죽을 지경이거든.

"이놈들, 와 이라노?"

카이,

"간밤에 이런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랬다 하고 우리를 잡아다 패는데, 낭패났습니다. 선생님 우째 쫌 하이소."

"그래?"

접장이 주인 보고,

"대단히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주인장 우리 상의 좀 합시다. 다른 상의가 아니고 요새 대면 기술이 있다 캤조?"

"그래 있지요."

"그래 무조건하고 아무나 패가 되느냐고, 본 사람이 있으인께 이놈들 전부 중우를 벳기가 주고 시아(세워)놔 놓고, 엊지녁 본 사람을 데불다가 어느 것이라 하면, 내가 당장 칼로 며가지를 쳐뿐께, 한 놈만 직이지 다 직일 수가 있습니까? 법이 그런데, 양반이 그래 안 합니다. 내가 전부다 중우를 벳기 드리인께 엊저녁에 본 아가씨하고 처녀하고 봤다 한께 와서 어느 것이란 것만 갤차 달라."

병조판서가 가마이 들어본께 기가 찰 판이라 말이여. 저놈들을 뺄가빗기(뻘거벗기)가지고 거기 세워놓은 데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동생하고 와서 그것을 보라 칼 수도 없고, 이 영감 말을 들어본께 사실 옳다 말이여, 당연하거든. 내가 법관이 돼가주고 그 영감한테 얘기를 들어본께, 그 영감이 '아주 법을 아는 사람이 무조건하고 아무나 패서 되겠나?' 카고 딱 대드는데, 이 영감 말이 안 그런 기라. 그래 가마이 생각하이 저놈 욕만치 됐고, 이러이 이왕 사정

하는 그랄 것 없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들어가서 전부 못된 짓 한 놈 직인다 하고, 전부 중우 벗어라 하고, 중우를 벗어가주고 빽 돌려 세아놓고,

"내려와서 보라 카이소. 어느 놈이라고 갤쳐만 주면 그놈을 내가 직이겠다."

카고 영감이 설치는데, 소매를 딱 걷어붙이고 설치는데 기도 차도 안 한다 말이여. 그러이 병조판서가 가마이 생각해보이 기가 찬 기라. 거기에 자기 부인하고 딸하고 처이하고 뎃고 올 수도 없고, 그래 영감을 불러내가주고 모티이 가가주고,

"내가 욕도 될 만큼 보였으이께 그만 다 덮고 가라."

고 이라인께,

"천만에 말씀, 안 된다. 죄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되고, 놈을 어디로 뎃고 간단 말이요. 안 된다."

고 기여히 대든단 말이여. 할 수 없어서 돈을 50냥을 준 기라.

"이걸 가지고 일이 없은 양 치고 뎃고 가라."

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는 돈도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내가 글 갤친 제자가 이런 짓을 했다 하는데,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

카면서 덮어 씌우네, 할 수 없이 50냥을 더 보태가주고 100냥을 가주고 사정 사정을 하니, 그제야 못 이기는 듯 싶어가주고,

"이놈들, 중우 입어라."

그래가주고, 제자들을 중우를 입히가주고,

"가자."

그래 뎃고 나오이, 이놈들이 나오이, 홀박 죽었다고 싶어다가 접쟁이 와서 저거들을 델고 가이, 접장이 하늘만치 뵈이네. 이놈들 부잣집 자식들이라 해놨두고 없는 집 접장을 괄시하다가 어찌 고생을 했던지, 그 접장 아이었으면 죽을 번했는데, 접장이 와서 살려놓으니 얼매나 좋노?. 그래가주고 '선생님'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고, 어딜 가나 선생님을 칙사 대접을 하고 이라는데, 이놈들 서울 가면서 돈을 말캉 닦아 무(먹어)뿌고, 저거 딴에는 누구라도 과거만 하면, 하나 하면, 그 덕에 내려올량 하고 과거를 본데 한 놈도 합격을 못했어. 말칸 다 떨어져뿠어.

저것들을 뎃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이 어른이 벌인 돈 이걸 가주고 밥을 사 믹이고, 문경 사십고개를 떡 넘어 섰는데, 고개 밑을 내려오이, 이놈아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선생님, 우리 배 고파 못 가겠습니다."

이카거든. 그래 보이, 그 밑에 길가에 소가 한 마리 매여가 있는 기라, 큰 황소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배 접장이 가만이 보인까. 소 한 마리 매여 있고, 저 건니서 누가 시리(시루)를 이고 올라오는데, 보이까 문경 새재골 너머 그날 장날인데, 장에 떡 팔로 가는 사람인 것 싶어거든.

"너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아이구, 선생님 시킨 대로 하지요."

"저 가서 내가 저 소를 몰고 서가 있거들랑, '선생님'이라 하지 말고 '동지어른'이라 캐라. 동지어른이라 이카고 '동지어른 나왔습니까, 동지어른 나왔습니까' 저 떡 장사 이고 오거 들랑 그것과 마주쳐서 날 보고 인사를 쭉 해라. 하면 너그 요기시킬 수 있는 요량이 있다."

"아이구 선생님 그래 주이소."

그래 내려가가주고 영감은 소를 나무 밑에 매어놓고, 늙은이 저그는 죽을판 살판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오더마는,

"아이구, 동지어른 나왔습니까?"

"과거보러 갔다가 욕 봤지?"

"아이구, 동지어른 나왔습니까?"

"응"

카고, 쭈욱 인사를 하이, 떡 장사가 방금 그 자리를 지내갈 판인데,

"이고 가는 것이 뭣이요?"

"예, 떡입니다."

"마침 되었구나, 너그 배 안 고프나? 여기 와서 떡 요기해라."

그래 떡 장사가 떡을 내라나 놓고, 먹으라 카이, 이놈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장에 팔로 갈라고 찰떡을 모랑 모랑하게 익하놓이 얼매나 맛이 있노? 이놈들이 들고 가더이 막 먹어 떡 한 시리를 잠시에 다 비아뿠어.

그래 영감이,

"저 건너 큰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지금 소 믹인다고 돈을 갖고 있지 않는데, 저 가서 돈이 필요하거든 돈 줄라 하고 받아 가고, 곡식이 필요하거들랑 쌀로 줄라 해 받아 가고, 당신 요구대로 받아 가소. 내가 나중에 소 매놓고 드갈 참인께, 가서 받아 가라."

카고,

"아이구 그라겠습니다."

카면서 그 집만 보고 빈 시리를 이고 그 집으로 건네가뿌고, 이 영감이 소를 매놓고 학생 아들하고 '다리야 나 살리라' 하고 가뿠네.

이 늙은이는 떡 다 팔았다고 도랑에 가서 떡 시리 씻고 낯 씻고 이래가주고, 돈 받으러 간다고 좀 곱게 한다고 머리를 씨담고 이래 해서 천천히 건너에 찾아가이, 떡값 대신 소를 미러(먹이러) 간 일도 없고 그 집에는 소도 없고 그만 거짓말이다. 이런 일이 있나, 그만 사기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 학생들하고 배 접장은 그럭저럭 떡 동네에 당도해 왔는데, 이놈아들은 저그 집에 다 가뿌고, 배 접장이 저그 집에 떡 들어가이, 이전에는 접장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무 집도 없었다. 집도 한두 채고 이런데, 불이 빤한데,

"할마이, 할마이."

부르이 기척이 없거든. 살살 가서 문구영으로 살 들다보인께, 저그 이웃이 험상궂은 놈이

한 놈 있는데, 이놈이, 배 접장이 서당에 가면 자고 장 오도 안 하고 우째 아쉬운 기 있으면 집에 한 분썩 와서 들고 가고 이라는데, 이 배 접장이 그놈을 장 수상하게, 그 전부터 과거보러 가기 전부터 수상하게 생각한 놈인데, 이놈이 거기 와서 누우자거든. 누우가 잔다 말이야. 그래 인자 살짹이 문을 열고 들어가이 저꺼정(저희들끼리) 상을 채리가 술 먹고 저꺼정 놀고 만창이 어질러놓고 술이 취해서 누어자고, 이전에는 화로에 불을 담아놓고 이런데, 벽에 참기름병을 달아 놓았는데, 술잔에 참기름을 부어 화롯불에 딱 얹어가주고 담배를 한 대 푸고 있으이 팔팔 끓는 소리가 나거든. 저놈의 귀에다가 소롯이 분께, 귀에다가 참기름을 낄이가 부우면 바로 직살(卽殺)을 해뿐 기라. 그만 저놈이 죽어뿐네. 저그딴에는 밤에 지랄을 하고 묵고 놀고 하다가 잠이 폭 들어가 주는지 사는지 여자도 모리고, 이놈 자식 이거는 참기름을 낄이가 귀에 부우놓이 '아얏'카면서 죽어뿠다.

그 전에 배껕에 나가 천연시리,

"할마이, 할마이."

하고 부른다. 부르이, 이 늙은이가 자다 들으이 저그 영감이 왔거든. 큰일 났다 말이여. 이 웃에 낙농이 저그 아부지가 와 있는데, 낭패 났다 말이여. 그래가주고 일어나라고 일나서 뒷문으로 후쳐 보낼라고 막 흔드이 죽은 사람이 일나나 어데, 불어다 불어다 들으이 영감이 청에 오르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는 할 수 없이 이불을 덮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이,

"아이구, 인제 오는교? 잠이 들어서."

캐싸면서, 미처 어질러놓은 것을 치우고 이래거든.

"뭣을 이리 어질러놓았노?"

아무 말도 않고 치우는데, 그래 담배를 한 대 떡 피워 물고,

"구들묵에 이불 덮어논 저거는 뭣고?"

이 늙은이가 할 말이 있나. 현장은 방금 보는기고, 바른 소리를 안 할 수 없어,

"아무개 저아부지가 오늘 지녁에 놀로 와가주고, 술을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술로 묵도 못하는 나를 권하고 자기도 묵고 해쌓더니 술이 취해 가지도 못하고 누워가 잠이 들었는가 뵈요."

"그 사람을 깨배(깨워) 보내라, 젊은 사람을 한테다가 재우면 남들이 보면 뭐라 카겠노? 깨배 보내라."

이 영감이 천연스럽게 그러 카이, 이제 합법적으로 깨운다고,

"여보, 여보, 보소, 보소."

카며 흔드이 일어나야지. 영감 보는 데는 손을 흔들고 밑에로는 꼬잡네. 꼬잡아봐야 '아야' 소리를 하나, 암만 흔들어도 흔적이 있어야지.

"사람 그것 죽은 사람 아이가? 와 그렇노? 그렇게 깨빼는데 안 일나노?"

한분 보자 카면서 이불을 훌쩍 걷어보이, 이마에 손을 대보이, 사람이 죽었네, 벌써 죽어가 있네.

"우째건데, 이랬노?"

"그만 이 일을 어째노?"

카며, 그만 여자가 발발 떤다 말이야. 그래 인자,

"다른 도리가 없고 니하고 나하고는 내우간인데, 천상 이것을 처치해야 되는데, 니가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이, 니가 이놈을 이고 못에다가 갖다 옇어뿌라. 그리고 건너와야 되니, 이 일로 알면 큰일 난다."

그래 영감이 시키는 대로 막 하거든. 그래 사람을 꺼내가주고 인다. 이니 안 무겁나 말이야, 그 영감이 들어주고 그래가주고 이고 못에 갖다 옇어뿌라고.

못에 가는 좋은 길은 둘러가고 논두렁으로 가는 길은 질러 가는데, 요놈의 영감이 질러가는 길로 가가주고 담배를 딱 푸아 물고 저 여자 오는 못둑에 딱 앉아 담배를 푸면서 인적기를 내는 기라. 다와가는데 인적기를 내이 이 여자가 아무도 없어야 이 사람을 옇을 긴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 말이여. 기가 찰 노릇이라 아무리 이고 기다리도 있어, 다부 이고 오네. 영감이 질러와가주고 먼저 방에 와가주고 있네. 여자가 이고 간 시체를 청에 탁 놓이,

"누구요?"

"아아구 내요."

"우쨌노?"

"거 가이 사람이 있습디다."

"사람이 있어?. 밤새도록 이렇게 있을기 아이고 또 이고 가라."

"아이구 무겁어서 우짤기요?"

"내가 이아 줄거마."

여자가 이고 가는데, 또 질러가가주고 또 담배를 푸고 앉아 있네. 여자는 사람이 갔는가 보이 또 담배를 푸고 하얀히 앉아 있거든. 아까 그 사람이 안중 안 갔거든. 기가 찰 판이라 다부 또 온다. 또 집에 와가주고 방에 떡 와가주고 있는데, 시체를 내루는 소리가 '쿵' 하거든,

"누고?"

"아이구 내요."

"우쨌나? 옇었나?"

"우째 그 사람이 안중 안 가고 있습니다."

"그놈 미친 놈인가배, 그 놈 갈 놈이 아인가배. 들오나."

그래 떡 들어왔네. 늙은이를 좀 쉬라 카고,

"니가 한 분 걸음을 더 해야 된다. 인제는 그리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자. 내 시킨 대로 해라."

그래 못둑에서 담배를 푸고 보이, 참말로 김 동지 집에 그날 지녁에 제사라고 불을 환하이 켜두었는데, 그 동네 제사는 대충 외우고 있는데, 그래 시체를 이아가주고 뎃고 가는 기라.

그래 그 집에 가이 제사 지낸다고 문을 열어놓거든. 대문을 열어놓은 거로 살째기 소리기 없이 닫아놓고 문에 딱 붙어 세워놓고.

"너는 그만 가거라."

그래 보내뿌고, 모티이 나와가주고,

"김 동지, 김 동지 제사 대강 지내고 나 술 한 잔다고, 내가 술이 먹구 집어 왔다."

제사 지내다 보이 누가 술 달라고 고함을 질거든. 어찌 보굴(성)이 나는지, 부잣집에는 사랑에 머슴들이 초지녁에 술을 갖다 먹고는 이놈아들이 술에 취해가주고 저꺼정 오만 장난 다 하고 자도 안 하고 있거든.

"아무것이야, 아무것이야."

부른께,

"예."

"이리 나와 봐라."

그 집에 중간 머슴이 부랑한 놈이 있는데, 그놈이 힘도 세데, 그놈을 불렀다 말이야.

"삽짝에 나가 봐라. 누가가 안중 제사도 다 안 지냈는데, 자꾸 술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한 분 나가 봐라."

"예."

카면서 이놈이 꺼떡 꺼떡 나가더니 우에 문을 닫아놨거든.

"뭣이 지랄하노?"

카면서 발로 문을 탁 차뿌리이니 뭣이 탁 꾸부러진다 말이지. 거기 가서 보이 사람이라. 사람이 턱 꾸부러지거든. 그래 보인께 이놈자식이 발로 차지도 안 했는데,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뽀동뽀동 그대로 있네. 어처구니가 없는 기라.

그래 하는 것을 보고, 접장은 자기 집으로 대번에 와서 할미 누워자는데 한테 와서 누워가 있다.

이 사람이 탁 대문을 열고 나가이 사람이 벋어 죽어 있으이, 주인한테 보고를 안 할 수 없고, 그래 주인한테,

"동지어른 낭패났습니다."

"와?"

이카이,

"우리 머슴아들이 나가서 문을 확 밀어 열여보이, 그만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이놈 자석 이기 무슨소리고? 큰일 났다. 이놈아! 참말이가?"

불을 들고 나와보이 사람이 죽어 있다. 귀에서는 찐득찐득한 참지름이 있고 다른 것은 없거든. 사람이 죽었거든, 아무리 해봐도 죽었거든, 할 수 없이 꺼들라가주고 거적을 덮어놔놓고 김 동지가 가마이 생각해보이 배 접장 아이면 저것을 수습할 사람이 없는 기라. 평생 공부를 한 배 접장이 와야 이것을 수습하는데, 과거 보러 아들 뎃고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왔는가 안 왔는가 이거를 모르겠다 말이야.

"니가 요 밑에 닐어가봐라. 배 접장 그 어른이 왔는가, 왔거든 소리끼 없이 그 어른을 모시고 온나. 그 어른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카면서 힘껏 뛰서 갔다. 그때 자기(접장)는 가가주고 불끄고 인적끼 없이 있는데,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이, 자꾸 불러싸이께,

"누고?"

카거든.

"아이구 선생님, 저가 김 동지 머슴 아무것입니다."

"저문데, 밤에 우째 왔노?"

"급한 일이 있어서 선생님 모시러 온데, 선생님 좀 나오이소."

"야야 오늘 아들 뎃고 서울 갔다 와서 데서 꼼짝도 못하겠다."

"선생님 꼭 좀 모시고 오라는데 선생님 가입시다."

"아이구 내가 못 간다 캐도 그러네."

"아이구 선생님 나오시면 업고 가겠습니다. 청에만 나오이소"

"내가 못 간다 캐도."

"아이구야 오늘 지녁에 꼭 가야 됩니다."

기연이 이놈이 나오라고 문을 열고 이란다 말이다.

"허허 그놈이요."

카고, 나가이, 이놈이 업고 뛰어 김 동지 집에 가이, 안방에 모시는 기라. 그래 배 접장한테 술을 한 잔 대접하고.

"선생님을 오시도록 한 것은 우리집에 가화(家禍)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사고를 면할 재주가 없습니다. 우째든지 선생님 잘 봐주이소."

"우째 봐주면 되노?"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내게 일건을 한 건 봐주면, 살림을 한 4-5백석 하는 놈인데, 백석꺼정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평생 백 석으로 묵고 안 살겠습니까? 백 석을 줄 터이니 이 일을 해결해 주이소."

"아이 이 사람아, 사람을 직이놓고 내가 처리하라니, 나는 변통도 없고 안 된다."

기가 차거든. 이전에는 살인이 있으면 첫째 지가 죽고, 살림 그건 날라가는 기라. 더구나 상놈 살림 그것은 망가지는 판이라.

"선생님 이백 석을 줄 터이니 좀 봐주이소 선생님이 아이면 수습을 할 수 없는데 좀 봐주이소."

"이 사람 딱하네?"

딱하다 하는 것을 보면 반쯤 들어줄 터이거든. 논 문서를 꺼내가주고 이백 석 논 문서를 주거든.

"그러싸이 기가 차는데 일이 될란가 모르겠다."

그래 논문서를 개와채(호주머니)에 옇고,

"내가 온 지녁에 너그 머슴을 쫌 써야 되겠다."

"예,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 머슴들이 결정이 나도록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라.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예, 염려 마이소.”

“저기 가서 야문 새끼 서 발을 가져온나.”

이전에는 새끼를 많이 꼬아놓고 쓰는데,

“새끼 서너 발을 물에 추가가주고 호두가지(홀깽이=올가미)를 딱 해서 저 사람 모간지에 호두가지를 해가주고 매가주고, 너 내 따라 가자.”

모간지에 호두가지를 맨 놈을 앞에 세우고 배 접장은 따라가는데, 저 집에 가서 본인 집 삽짝 대문 위에 새끼를 잡아 매서 홀치가 딱 달아서 자매놓고 저놈들을 보내뿠다.

“니는 가라. 니 할 일은 다 했으니 가라.”

카는 기라. 그래 보내뿌리고, 보내뿌고 나서 저놈이 코빵배이 소리를 좀 해. 한쭉 코는 매쿠고,

“할마이, 할마이.”

부른다. 부르이, 저 여자가 배 영감 집에 가가 수작하는 것을 알고, 보골로 탄탄이 묵고 있는 기라. 오면 때불 기라고, 아 이기 새북에 와서 부르네.

“미쳤나 걸쳤나 밤중에 뭐하러 다니노?”

‘쎄빠질놈 눈빠질놈’ 신랑을 보고 욕을 낄이붓고 ‘자빠지지도 안 하고 사람를 애 먹인다.’ 이놈이 평소에 술을 많이 묵고 지랄을 하는 기라. 그래서 할마이가,

“디져지도 안 하고 저 지랄을 하는가 모르겠다.”

욕을 마 해쌓거든,

“그러면 내가 죽어도 좋나?”

“좋기만 좋아, 열두번 죽어도 하나도 안 아깝다.”

그래 놓고 이 영감은 욕해쌓는 것을 듣고 집에 와서 잔다. 그 다음에 기척이 없거든. 이 여자가 아직에 자고 나서 문을 연께, 문에 덜렁덜렁 목을 매가 죽어 있다 말이다. 손바닥을 치면서,

“아이구 그래 죽을 중 몰랐다.”

카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 그런데 급한데, 부고 쓰고 기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누가 있노? ‘배 접장 이 어른 왔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그래 부고 쓸라고 집이 가이, 배 접장은 안 잤는데도 일라지 안 했거든.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부른다 말이야,

“누고, 우짠 일이고?”

“아이고 아무것이 저 아부지가 죽었습니다.”

“멍정한 사람이 왜 죽었노?”

"엊지녁에 술을 먹고 왔는 걸, 와 죽도 안 하고 돌아 댕기면서 사람을 애를 믹이노 이러카면서 말을 몇 마디 했더마는 그리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문간에 목을 매가 죽어뿐네요."

"아 그 사람 애석하다. 왜 이렇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아무 데도 기별하고 아무 데도 기별해야 되니, 부고를 좀 써주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써주지."

그래 가서 부고를 써주고, 자기는 집에 왔뿌리고, 백 마지기 이백 석 살림을 타가주고. 이 집에는 초상 쳤고, 그래 저 멀리 이사 가서 잘 살더란다.

[미음동 설화 8]

경주 최씨 개 무덤

구 술 자: 김우철(남, 74)
구술 날짜: 1992년 1월 18일
구술 장소: 미음동 와룡마을

대구 등지에서 전해 오는 이야긴데, 어느 사람이 과거 공부를 해가주고, 과거를 가는데, 말을 타고 이래 가는데, 각중에 가다가 비를 만났다 말이야, 비를 만나 어느 산 돌무지 돌아가니 그 안에 큰 동네가 있는데, 들 복판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소낙비가 따루거든. 말이 급해가주고 그 오두막 집을 찾아가주고 정지에 퍼떡 뛰들어갔다 말이야, 정지에 퍼떡 뛰들어가이, 이전에는 방에 빈대 벼룩이 많아가주고, 그래 이 집 아가 어린기 빈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정지 나무 밑에 들어가 낮에 잤던 모양이지.

말이 그 안에 나무 안에 사람 있는 줄을 모르고, 말이 훌쩍 뛰들어가 아를 밟아 직살을 시키뿐네. 아이구 이 사람이 가만이 생각해보이 '깩' 카는데, 아이들은 '아야' 카는데, 저기 뭐고 싶어가 가보이 아가 창시가 터져가 죽어뿐 기라. 말이 들어가면서 콱 뛰어 들어가면서 콱 밟아뿌놓이, 넘우 빈 집에 사람도 비어가 있는 기라. 빈 집에 사람을 직이놓았으니 가도오도 못하네, 그러구로 비는 그치고 마당에는 물이 채이고 이런데, 그래 축담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이 내우간에 방아를 찧어가 들어오는 기라. 보리 디딜방아를 찧어가주고 체이캉 가지고 들어오는데, 남자가 들어오며 보이 선비 사람이 하나 있거든. 말은 가만이 있고,

"우엔 사람이냐?"

고 그라이,

"주인장 되십니까?"

카면서 지은 죄가 있으이 코가 땅에 닿이도록 인사를 드린다. 보이까 머리가 노랗는 기 아주 불량꾼이라. 무식한 사람이고 이런데 그래 인사를 하이,

"우엔 사람이 넘우 집에 들어왔느냐?"

고 이라이'

"지금 내가 죄를 지어가주고, 주인 오면 이야기할라고 이래가 있는데 이 일을 우째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말이 비 때문에 정지 퍼떡 뛰들어 와가주고 아를 밟아 죽였습니다."

주인놈이 가라늦까 딸 하나 그걸 나가주고,

"남은 보리밥 같지만 나는 쌀밥보다 더 귀한 것인데, 넘우 자식을 직이다니, 너도 죽어야 된다."

카면서 마당에서 멱살을 거머쥐고 뒷마당에 때기를 치고 선비 차림으로 가다 정신이 얼떨떨한데, 그 사람한테 채이고 볿히고 이 지경이 나는데, 그 부녀가 오디마는 미처 저그 소지품을 내뻐리고 자기 가장을 딱 틀어안고,

"이기 무슨 짓이요, 이런 수가 있소?"

"이놈우 새끼가 우리 아무것이를 직이뿠다. 말로 밟아 직이뿠다, 이놈새끼 오늘 직이야 된다."

그렇산께, 그만 남자를 기여히 붙들고,

"지 운명이 돼서 죽었지, 그 짐승이 모르고 그랜 것을 갖다가 이라면 우째겠느냐고 참아라."

고 저그 가장을 딱 붙잡고 동그라져가지고 사정을 하이, 저놈 없는 놈이, 이전에는 늦가사 장개를 가가주고 마느래를 만난 것을 금지옥엽같이 여기는데, 금지옥엽같은 자기 부인이 끌어안고 그래 사정을 하이, 저놈이 한풀 죽어가 숙지막한데, 그래 저 사람이 힘을 내가주고.

"내 은혜를 뭐로 갚아도 갚아야 되겠는데, 내가 사람 직인 죄로 갚아야 되는데, 요 앞에 산인데 산박때기가 있어, 삼(麻)이 우둑하이 커가 있는데,

"저 밭이 누 밭이냐?"

그기 총재산이라.

"거기 내 밭이라."

"그럼 됐다."

"내가 이때꺼정 글을 배우기를 산서(山書)를 배워 산서가 통달이 돼가 있는데, 저 밭이 아주 대명지인데, 내 따라오면, 저기다가 집터를 잡아 줄 터인께, 지금 하루 이틀에 되는기 아이고, 날 걷어붙이고 당장에 가서 삼을 비내고, 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면 자기 은혜가 될난지 모르인께 내 따라 오라."

고 하면서, 꼬쟁이를 들고 삼밭에 들어가서 삼길을 트고 들어가서 그따가 딱 지정을 해서,

"요게다가 무슨 낙을 짓고 흙글자를 딱 작대기가주고 도루배이(동그라미)를 쳐서 요게다가 솥을 걸어라. 집은 어떻게 짓든지 요게다가 솥을 걸고 밥을 해묵고 요 막에서, 저 집은 내뿌리고 요 막에서 살면 당신이 십년 안에 큰 부자가 될 자리이니 내 말을 명심하고 그래 해 달라고, 그라면 자기 딸 죽은 은혜를 그때는 대가(代價)가 올긴께 그래 좀 해 달라."

고 이라이, 그때는 유심하고 들어. 듣고 당장 그날 지녁때부터 삼을 비내고 거기다가 막을 지어가주고 표시해준 데다가 솥단지 걸고 북더기 깔고 거기에서 자고 생활을 하는데, 그리(그곳)로 이사한 뒤는 일물 천재라, 건들이면 돈이고 만지면 돈이라. 그래가주고 살림이 불티같이 일어나는데, 그래 그 사람이 그래놔놓고 한 오륙 년이 지나면 이것을 다 뜯어뿌리고 자기네들이 집을 크게 지을 재산이 생긴 뒤 정침(正寢)은 요래 짓고 아랫채는 우째 짓고 서회낭은 우째 짓고 동회낭은 우째 짓고 다 지도로 책을 내가주고 형상을 기리가주고 지도를 맹글라 가지고 딱 주고 가며, 또 그 사람의 부인에게 봉서(封書)를 하나 주고 가면서,

"이거는 절대로 뜯어보지 말고, 당신을 보인께 이거를 가져갈 만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이 집에 새집을 지어가 살면 십년 안에 큰 화근이 하나 생길거이께, 아주 에럽은 화근이 생기거들랑 이것을 띠보면 그 이상한 화근이 평정될거이니 이 화근만 면해뿌고 나면, 여기에 천년이나 만년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이니 그렇게 하라."

고 지도하고 가고난 뒤, 거기에 막을 짓어 사는데, 그 참 돈이 일물 천재로 벌어져가 그 뒤에 땅을 파가 단지를 묻어가주고 자꾸 돈을 거기다가 재는데, 지 마음에도 한 오년 지낸께 천지 들(野)로 하나 사지 싶은 재산을 모았는가 싶어거든. 독을 여러 개를 사다가 엽전을 채와놨는데, 그래서 인자 돈을 가주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거기다가 집을 약도대로 뜯어뿌고 말칸 큰 못으로 집을 거대하게 지어가지고, 십 년 지나서는 자기 가장(家長)이 일 안 할 일이 생기게 똑 그대로 된 기라. 그래 가장 일 안 시키고 사랑에 앉아서 손님이나 받고 과객이 오면 밥도 주고 재아도 주고 이래하는데, 여름인데 어느날 가장이 청에 턱 눕어가 있으이 아주 선녀같은 예쁜 여자가 하나 가슴을 풀어 헤치고 유통을 터덜거리고 안을 착착 기어 들어가는 기라. 자기는 가만히 눕어가 봤는데, 여자가 들어가는데 우에서는 '왠 사람'이라 카고 무슨 사람의 흔적이 있을 건데, 기척이 없는 기라. 그 이상시럽다 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우에 올라가가주고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우리 집에 손님 안 왔더냐?"

고 물으이,

"손님은 무슨 손님, 아무도 온 사람이 없다."

"분명히 사람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쁜 부인이 하나 들어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느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영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모두 이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기라. 문에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상하다'하고 자기가 내려와서 담배를 한 대 푸어 물고 있으이, 이전에 바디재이 솔개이(바디에 솔을 둘러메고 팔러 다니는 사람)가 바디를 끌러내고 들와서,

"여기 아주머이 들오는 거 못 봤느냐?"

묻는 기라. 이 사람이 얼른 답을 못한 기라.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우에 가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사람의 흔적이 없으이 '못 봤다' 칼 수밖에 없는 기라. 한참 있다가 우물거리다가 '온 일이 없다'고 카이,

"이놈의 새끼, 분명히 이리 들어갔는데 온 일이 없어?"

이 사람들이 바디 그걸 사랑 앞에 훌쩍 던지고 안에 들어가는 기라. 들어가 온 집안을 뒤지는데, 정지에 들어가더니 쌀독 안에서 그 부인을 끌고 나오는데 죽은 기라. 죽은 부인을 끌고 나와 사랑 앞에 눕히놓고 있으이, 바디쟁이가 하나씩 둘씩 냉기는(나중에는) 사람이 수백 명이 모인다 말이다. 오디마는 이놈들이 고함을 지르고 부랑을 지기는데,

"이놈의 새끼, 너는 부자로 살면서 사람을 직이가 독 안에 숨키놔놓고 이놈의 새끼!"

캐쌓으면서 직일라고 설치는데, 할 수 없어 도주를 해서 내빼뿐 기라. 그 우에 가서도 난동을 지기니 우에 사람들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웃에 다 피해뿌고 집은 비아뿌고 저놈 아들의 세상이 된 기라. 이놈 자슥들이 닭도 뚜디리 잡아먹고, 저그 집에 밥도 해먹는 줄 몰라도 연기가 나고, 마당에다 장작을 모다 불을 지르고, 막 깨주거리고 이래쌓는데 기가 차서, 그래 봉서를 내가주고 보이, '황해 청노인을 찾아가라' 딱 이기라. 황해 청노인을 찾아가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황해를 갈라 하면 한 천리되는 기라. 천리 갈라 카면 천리마를 구해야 되는데, 저그 집에 있는 말이 천리마인 기라. 저거를 몰고 나와야 되는데 저놈들 때문에 몰고 나올 수 있나.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어가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 매수해가주고 그래 말을 몰고 나와서,

"니가 황해 청노인을 찾아가면 무슨 일이 생길긴데 빨리 청노인을 찾아가 봐라."

그래가주고 이 사람이 밤이 돼서 저놈들 몰래 살살 가가주고 말로 소리끼 없이 몰고 나와가주고 그 이튿날 행장을 채리가주고 황해 청노인을 찾아가는데, 말로 천리마 저놈이 소리만치 빨라가주고 베로 전부 감아서 사람캉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주고 그래 보내, 노자를 많이 주어서 말에다 실고 그래 보냈어. 그 황해한테 찾아가서 청노인을 물으이 어느 동네가 하나 있는데 정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정자나무에 사람이 많이 놀고 있는데,

"여게 청노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산 밑에 봉창이 빤하이 있느데. 그 봉창 요리 보이는 집이 황해 청노인 집이라."

카거든, 그래 그 집을 찾아갔다. 찾아가이, 문을 탁 여니, 노인이 맞이하며,

"내가 올 줄 알았는데, 내가 개를 팔아뿌고 없는데, 내가 판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의논 한분 해보자."

카면서 그래 그 집의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이, 아무것이."

카고 부르이 주인이 나오거든.

"이 사람아, 그 개를 팔아야 되겠다. 개를 꼭 쓸 일이 있어서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개를 팔아라."

그래 그 사람이,

"우짤 도리가 없지."

개를 줄라 하면 그저는 안 될 기고 값을 의논해서 줄 긴데, 이 개는 다른 개와 달라서 백냥을 주어야 해. 그때 돈 백냥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 그래 줄라 카는 대로 소리 없이 돈 백

냥을 주었다 말이야.

그래 주인이 돈을 받고 안에 들어가이 개를 딱 매놨는데, 개를 끌러가주고,

"니를 값을 받고 팔았으니 이 사람을 따라 가라."

카면서 개로 이 사람을 주이 개가 꼬리를 설렁설렁 치고 따라 나오는 기라.

그래 개로 말에다 싣고 집에 왔는데, 그래 집에 당도해가주고 문깐에 들어서이 그만 찌주거리던 놈들이 풀이 죽어서 아무 소리도 못해, 납작해.

그래 개를 끌러가주고 대문간에 딱 들어서이 개가 이놈아들을 딱 꼴시보고 '앙~' 하면서 독을 품은데, 개털이 모두 바늘처럼 바짝 서가지고 빨빨 떨어. 그래가주고 첫째는 미친 여자 그걸갖다가 멕아지를 팍 물고 짤짤 흔들어가주고 던지니 툭 널찌니 야시라. 그 위가 야시셜(狐穴)이라 모여 있는 것이 모두 야시라, 이놈 물어 직이고 저놈 물어 직이고 개가 한참 설치니 개에게 한번 물린 놈은 전부 자빠지면 야시고 자빠지면 야시라. 그래가지고 야시를 말캉 다 잡고나이 그만 평정이 됐어.

그래 이 집에서는 부자 살림을 징키고 잘 살면서, 그 개를갖다가 같이 똑 자기가 밥을 먹으면 겸상은 안 채리고 자기가 밥 먹는 앞에다가 개를 밥을 갖다주고, 그 개가 죽어가주고 고 자기 선산(先山) 밑에다가 갖다 묻었어, 묻어주고, 경주 최씨가 선산에 가면 자기 웃대 조부를 제사를 지내고 나면 개 무덤에 꼭 가서 참배를 하고 잔(盞)갈이를 넣어놓고 고려(顧慮)를 하고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어.

[미음동 설화 9]

팔자 사나운 사내가 잘 살게 된 이야기

구 술 자: 김우철(남, 74)
구술 날짜: 1992년 1월 18일
구술 장소: 미음동 와룡마을

예전에 어느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주고 돈에 포원이 딱 지가지고 이 사람이 목표를 시아(세워)가주고 '내가 십년을 넘우 집에 살면 넘우 집에 세공 받고, 그때는 곱닦는데 지우고 지우고 하면, 십년만 우짜든지 안 쓰고 넘우 집에 살아 저축을 하면, 지 평생을 살 수 있는 재산이 나실상(생길 상) 싶어가주고', 그래서 십년을 넘우 집에 살기로 계획을 딱 하고 어느 부잣집에 찾아가가주고 넘우 집에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 한 해 살고나이 무단히 몸에 종기가 나가주고 한 해 번 것을 다 까먹었는 기라. 또 그 이듬해 살았다.

그 이듬해 또 살아도 또 몸을 쪼깨 다친 기 한 해 번 것을 다 까먹으이 낫는 기라. 십년을 넘우 집을 사는데 돈은 한 푼 안 모이고 빈 털터리라. 한 푼도 없고 똑 지가 한 해 번 것을

까먹고 나면 또 낫고 낫고 똑 요지경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듯이, 그 사람도 마(魔)가 생기는데, 십년 넘어 딱 살고는 막살하고 넘우 살림 파(罷)이하고 내가 이렇기 운(運)이 없는 놈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착실히 해가주고 내가 부유하게 살라고 했더만 계획대로 안 되이 인자는 일이 글렀다 하고, 인제는 방랑객매이로 나서가주고 어디든지 그침없이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래 댕길 요량하고, 그래 하리 점두록 산을 넘어서 외지로, 다른 데로 달아난다고 가는데, 요새매이로 좀 살랑하이 칩은(추운) 때가 돼서 어덕(언덕) 밑에 바람마지(막이)에 앉아가지고 이래 있으이, 그 우 어데서 소 부리는 소리가 나사, 나 많은 노인이 소 부리는 소리가 나사서, 그래 해는 한 나절이 다 됐는데, 배도 후출하고 그래 일하는 신명이 있어, 소 부리는 저 한분 가보자고 가이, 밭이 큰 밭이 하나 있는데, 나 많은 노인이 좋은 소로 밭을 가는데, 힘이 부디끼가주고 소 따라 못 가서 갈팡질팡하고 땀을 찰찰 흘리고 애를 먹는데 보이 기가 차거든. 그래 이 사람이 십년을 일한 사람이니, 일에 환했고 힘 좋고 일 참 잘하는 사람이라.

"어르신네, 나오이소. 내가 좀 갈아(耕) 드리겠습니다."

"아이 이 사람아, 자네가 갈 수 있으면 갈아 주게. 아이구 소가 어찌 땡기는지 애를 먹겠다."

캄서러, 그래 영감은 나와서 쉬고, 이 사람이 받아 가는데, 좋은 힘에 좋은 소가 앵기(안겨) 나놓이, 영감이 앉아서 보이 지는 비틀비틀 갈아서 형편 없는데 딱 보인까 소에다 힘을 주어가 딱 바로 해서 착착 가는데 보이 참 부러워 죽겠다 말이야. 그 사람의 힘이 부러워 죽겠는데, 그래가주고 정심 때가 되어서 늙은이가 영감 밭 가는데 정심을 이고 영감이 술을 좋아하니 술하고 이래 가주고 이래 오는데,

"아이고 나는 집에 가서 묵을란다. 저 사람이 우째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저 사람 나오라 캐라."

"이 사람 여기 와 점심 묵어라."

그래 정심 묵으러 나와 보이, 노인 일한다고 밥을 잘 해가주고 청주 술로 주전자에 반 주전자나 옇어가주고 왔는데, 그래 술로 따라가 묵고 밥을 묵어보이 정말 꿀맛이라 말이야.

그래 잘 묵고,

"어르신네 나중에 오이소. 내가 밭은 오늘 다 갈아 드리겠습니다."

"아이 이 사람아 그래하면 참 좋겠네. 나중에 올게."

그래 집에 가서 점심을 묵고 싶건 쉬가주고 오이, 해가 검울한데 밭을 다 갈았거든.

"가자, 내한테 가자. 내가 소 몰고 후칭이 메고 이래 갈라 카이 거북하이 자네가 메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지녁도 묵고 자고 쉬가주고 가거로."

"예, 그래 합시다."

아무 일 없는 사람이 돼놓이, 어느 집 누가 오라 하면 갈 사람인데 그래 떡 갔다. 소를 몰고 그 집에 가이 처녀가 하나, 이전에는 처녀가 머리를 능청능청거리게 땋고 다녔어. 정지 앞에서 얼렁거리는데 보이 참 처녀가 인물이 잘 났어. '아따 그 처녀 참 좋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얼른 씻고 사랑에 들가자."

그래 씻고 사랑에 들어가가주고 앉아 있으이 저녁을 가져왔거든. 그래 저녁을 맛 있게 머고. 그래 영감이 우에 올라가서 자기 늙은이하고 이야기 하기로,

"저 사람을 사정을 알아보이 아무 정한 곳이 없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데릴사우를 삼아가주고 저 사람한테 살림을 맽기가주고 있으면, 우리 여생에 걱정은 잊어뿌고 잘 살겠는데 부인 생각은 어떻노?"

"아이구, 그 사람이 그리해 줄라 카면 당신이 일을 못해 그래싸이께 그래 했으면 좋지요."

"그라면 내가 가서 이얘기를 해보꾸마."

그래 저녁을 묵고 내려와가주고 이 사람한테, 근거를 쭉 묻는다. 물어보이 아무것도 없는 기라, 뒤가. 없고, 십년 넘우 집 살았는 계획과 십년 넘게 넘우 집에 살아가주고 한 푼도 안 남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기 재수가 없어가주고 인제는 넘우 집 살기는 파(罷)이하고 친인척 없이 이리 댕기기로 결정했다."

고 말하이,

"하이 그러면 참 좋네, 자네 젊은 사람이 그래가 되나?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사우를 못 봐서 이래 일하는데, 자네가 우리 집에 장개들어가주고 이 살림 맡아가주고 살면, 내가 오늘 간 밭도 내 밭이고 논도 내가 여남은 마지기 있고 소도 우리 소고 내가 아들도 없고 딸 저그 하나뿐이다. 저그 치아뿌면(시집보내면) 우리 내우간에 적막강산인데, 자네가 내 집에 장개와가주고 내 집 살림 맡아가주고 살고 우리 내우간에 죽고나면 자네 차지가 아인가? 그러이 그래하면 어떻겠노?"

이 사람이 각중에 홍재(橫財)가 생긴 기라. 듣고보이 아래웃집 삼 칸 집이고 온난한데 따시고 처이 좋제 소 좋고 농사거리 좋고 영 팔자 곤칬거든.

"예, 어르신네 그래만 줄라하면 내한테는 그런 횡득(橫得)이 없습니다."

"에 이 사람아, 우리 늙은이한테도 얘기를 했다. 그래 하기로 하게."

그만 이 사람이 괜히 넘우 집 산다고 백지 욕만 봤다 말이야. 진작 이리 됐으면 욕을 안 봤을 긴데.

그래가주고 그 영감은 올라가고 이 사람은 혼차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기라. 우째우째 해서 잠이 사르르 드니 허헌 노인이 꿈에 나타나는 기라. 나타나더니만,

"아무것이야, 아무것이야."

불러 대답하이,

"너 이놈 이 집에 장개갈라고 약속을 했지."

"예"

"함부래 생각내지 마라. 장개갈라 카면 니놈을 당장 잡아갈 것이다."

그 우에는 또 지만(자기만) 그러카고 마는 것이 아이고, 꿈에 또 영감 이름을 부르는 기라. 그래 영감이 대답을 하이,

"이 영감이 사랑의 총각한테 너그 사우 삼을라고 너그 내우간에 결정했지."

"그렇다."

고 대답을 하이,

"만약에 총각을 사우를 삼는다 카면, 너그 딸도 잡아갈기고 너그 내우간도 다 잡아갈기고 표도 없이 집을 망할 것인데 함부로 그 사람은 임자가 있는 사람인데 못 건딘다(건드린다) 건딜지 말라."

그라고 나서 잠이 깨가주고 당최 잠도 안 오고, 어찌 분한지 이눔의 팔자가 세상에 이를 수가 있나? 내가 그래 했으믄 홀가분하게 내한테 딱 맞고 적성에 맞고 처이도 좋고 한데 이런 수가 있나 싶어서 부애가 나서 죽을뿐 했네. 그리고 날이 샜네. 날이 새서 시꾸러만히 해가주고,

"내가 이 사람아 그리할라 했더니 간 밤에 꿈자리가 하잔해서 천상 안 되는데 자네 가고 싶은 데로 가게."

그래 노자를 서너냥 준다 말이여. 노자를 받아가주고 일라선 기라. 당최 제죽은 어데 매인지 간밤에 그런 꼴을 당하고 나이 허둥지둥하이 가면서 생각해보이 '이눔의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노' 싶어가 그래가 하리 점두록 갔는데, 그 어느 동네로 큰 동네로 다달았는데 점심도 굶고 지녁답에는 부잣집에 가서 지녁을 얻어야 되겠어 그래 어느 큰 집을 대갓집을 찾아 떡 들어간데, 그래 이기 인자 봄철이던가 못자리 오줌 줄기라고 일꾼을 못 얻어서 작은 머슴을 시켜서 누 집에 가봐라 누 집에 가봐라 이래쌓거든. 그래 이 사람이 지녁을 얻어먹었고,

"내가 오줌을 좀 주면 안 되겠냐?"

"오줌 줄 줄 아느냐?"

"오줌 줄 줄 아지요."

"그러면 우리 오줌 좀 주 주라."

그래, 이 눔이 오줌장군을 가주고 못자리에 오줌을 주는데, 이 눔이 힘 좋고 해나놓이 오줌장군 하나 짊어지고 팔랑팔랑 하이 쫓아 댕기면서 오줌을 퍼 나른다.

그 주인이 다른 집이 아이고 과부집이라. 한 삼백석 하는 부잔데, 남자가 죽고 과부라. 살림을 통솔하는데 이 여자가 맡아가주고 농사를 짓고 머슴을 서이 데리고 농사를 짓고 그래 하는데, 아직에 총각이, 웬 낯선 총각이 와서 오줌 주는데 보이 총각이 눈에 확 드는 기라. 저 한 삼십 된 숫된 총각이 장개도 못 간 총각이 참 일 잘한다 싶어가 한분 물어볼라고 자꾸 총각이 생각이 나서 죽겠는 기라. 그래 아직을 먹고 작은 머슴을 시켜서 그 총각을 좀 보자캔 기라. 그래 그 총각을 보자고 만내가주고 그 총각한테 '어째 돼서 이래 댕기는 총각이며 뭣하는 총각인가'를 첫째로 물어보이, 지가 지내온 내력을, 이바구를 지는 아무 겁나는 기 없는 기라. 부끄럽은기 없고 죽을라고 나선 사람이 겁날 것도 없고 지 내력을 말하는데, 돈에 포원을 지고 없는 시달려서 십년을 계획해가주고 넘우 집에 살아가주고 내가 돈 없는 것을 면하고 살라고 계획을 세웠디마는 그래 약(대략)하고 약하고 다리캉 손에캉 험티(흉터)를 뵈면서 이기 넘우 집 산 거 까묵은 험터라 카면서, 그래 내 신세가 이래서 정처없이 댕깁니다.

그라이 과부가 청춘과부가 되어 있고 총각은 나(나이)도 지긋하고 저그 둘이 짝을 맺어가주고 총각한테 살림을 맽기가주고 남은 여생을 살면 희한하겠거든. 그래서 실토를 했어.

"내가 혼자 있는 과분데, 수년을 과부생활을 혼자 있어도 절대 남자 생각이 없고 이러는데 오늘 아적 총각을 보이 내가 우연히 참 마음이 변하는데 내캉 인연을 맺아가주고 한평생 살면 어떻겠냐?"

"그라면 좋지요. 나도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이고 좋다."

고 그라이,

"그렇게 하자."

고, 그래 가지 마라 카고, 나중에 목간통에 물을 뎁히가주고 목욕하라 카고 옷 한 벌 주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참고 지닌 사람이 동네 소문을 내가주고 음식도 장만코 이래가주고 어느날 날로 받아가주고 결혼하기로 그래 약속을 다하고 그래나놓이 어제 그것보다 이기 더 좋다 말이여, 그래서 밤에 그걸 생각하이 좋아서 잠이 안 와서 다부랑다부랑 하다가 우째우째 잠이 드이 엊저닉에 나타난 영감이 또 나타나는 기라. 나타나가주고,

"니 과부집 아무 댁하고 너꺼정 살라고 약속했지, 함부로 그런 생각 내지 마라 그런 생각 내면 당장 잡아갈기다."

지만 글카고 마는기 아이라 우에 과부한테도,

"부산댁이, 부산댁이"

부르디마는 또 지한테 이바구하는 맨쿠로 그래 하는 기라.

"이 총각은 임자 있는 총각인데, 니가 욕심을 내가 건디리면 만약 너그 내우간을 맺다 카면 절대 안 된께 내가 당장 잡아갈 터인께 함부로 총각을 건디리지 마라."

아! 이른 수가 어데 있노? 과부는 총각 앞도 뒤도 없는 총각, 인물도 잘났고 그래가 살면 희한하겠다 싶어가주고, 과부도 마음이 들떠가 있는데, 밤에 그 지경이 난다 말이야. 그래 아직을 먹고 나디마는, 작은 머슴을 시켜서 '볼 일 보러 가라' 카네. 일은 파이고 '허허 이눔의 자슥 좋은 거 다 떨가뿌고, 나는 마 죽는기 최고 상팔자다. 어데 어찌 죽어도 죽어야지 날 겉은 놈이 살아가주고 되는기 아이지' 이제 죽을라고 딱 계획을 하고 어느 고개길을 넘어서 가는데, 고되서 쉬니, 나무꾼 여나믄이 남글 해가주고 지게에 죽 받치고, 그래 웃통을 벗어 재치고 땀을 거두고 이래 있는데, 어디 하얀 창백한 노인이 하나 있어서 '그래 죽는 방법이 저 노인한테 대기(되게) 버릿장 없는 소리를 하고 못된 행세를 하면 초군(樵軍)들이 날 때리 직일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주고, 그래 노인한테 가가주고,

"영감, 그 담배 한 대 도고."

말로 탕탕 놔하고 이라이, 영감이 힛뜩 체다보더니마는 담배를 한 대 떡 주이, 이전에는 사십이 돼도 장개를 머리를 따아가지고 돌려가지고 수건 가주고 딱 매가 있거든. 그래 총각은 머리에 상투를 못 올리고 총각이 되면 언제나 총각 표를 내거든. 거서 담뱃대를 꼬바 있는데 쑥 빼가주고 영감이 담배 주는 걸 해가지고,

"여기 불 하나 붙이라."

그래 영감이 부싯돌에 부싯깃을 얹여 불을 붙여 주거든. 초군들이 가마이 보이 저놈의 호로새끼가 저 나 많은 어른한테, 그 영감이 신체에 행동이 불편하서 그렇지 처신하는 것은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저놈우손(저놈)은 저를 수가 있나 생각하며 딱 꼬나(겨누어)보고 있는데, 그래 영감 앞에서 담배를 빡빡 피운다 말이야,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가가주고 손을 잡아 꺼댕기며,

"이놈우새끼 이리 좀 나오라, 호로놈의 자슥 너는 니 애비도 니 어미도 없나? 이놈우새끼 오늘 맛 좀 봐라."

카면서 그만 볼태기를 탁 쌔려서 거기다가 쳐박아뿠다. 쳐박아뿌이 저 앉아 있던 사람들이 와 와가주고,

"그놈우새끼 직이뿌라."

카고, 이 사람이 차고, 저 사람이 차고 해쌓는데, 영감이 가마이 본께 자기 때문에 사람 하나 직이겠거든. 쉬러 나왔다 말이야, 그래 영감이 보이 죽을란지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람을 딱 끌어안고 붙들고,

"에라, 너 이라지 마라, 이라지 마라. 이 사람이 무슨 곡절이, 곡절이 있는 사람인데, 너 이라면 안 된다."

카면서, 영감이 못 때리구로 하이, 저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기라. 죽기조차 파이네. 그래 기가 차서 앉아서 엉엉 운다. '이놈우 팔자가 죽을라 카이 되나 살라 카이 되나, 시상(세상)에 이런 수가 어딨노? 죽는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그래 엉엉 우니, 그래 영갬이,

"이 사람 우지 마라. 니가 맞아서 아파서 우는지 모르지만 우지 마라."

하고 달랜께,

"내가 맞아 아파 우는게 아입니다. 내 전정(前程)이 하도 억울하고 가소로바서 웁니다."

"전정이 어떤데?"

그래, 지 역사를 쭉 이얘기를 하는 기라.

"내 이래가주고 아무리 해도 내가 죽어야 되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라고 계획한 기 이것마저 또 어르신이 말리가주고 죽도 못하이 이 팔자 사나운 놈이 남은 고생을 얼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웁니다."

"자네 이얘기를 들어보이 자네도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자네가 꼭 죽기가 원인가?"

"꼭 죽기가 원입니다."

"그럼 좋은 수가 있다. 힘 안 들이고 죽는 데가 한군데 있으이 내 따라가자."

"아,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있지."

그래 이 영감 나뭇짐을 지가 받아 지고, 그 영감을 따라갔다. 그래 가다 동네 뒤에서 쉬는데, 동네가 큰데 차알(遮日)을 치고 포장을 쳐나놓고 사람이 왁신왁신 표가 나는데, 그 집을 갤차주면서,

"저 집은 만석 하는 살림 부잣집이다. 김동지라 카는 부잣집인데, 저 집 딸로 오늘 치우는데, 저기 가면 걸인이거나 소인이거나 가면 칙사 대접을 하고 좋은 술에다 잘 대접을 하이 싫건 묵고, 또 그 우로 갤치면서 저 큰 담장해놓고 있는 저 집은 이전 만석 살림집이망한 집인데, 저 집에는 문 앞에만 딱 드가면 사람이 죽어뿐다. 재산을 탐내 그 집에 드가다가 죽은 사람이 마당에 흥성하게 누가(누워가) 있다. 누가 있는데 잔치집에 가서 싫건 묵고 자네가 술짐에 거 문만 열고 드가면 죽으이, 죽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어인께, 그래 하라."

"어르신 참 고맙습니다. 내가 그리해서 그 영광이 없습니다."

"아픈 데도 없이 가면 죽어뿐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인자 나뭇짐은 영감에게 주고, 동네에 다 왔다 말이야, 그래 갤쳐주는 그 집엘 가이 부잣집 잔치를 하는데,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라는데, 그래 거기 가이 술 한 잔 하라 카면서 상을 채리가 주는데 무하고 콩나물하고 술하고 주는 것을 잘 묵었다. 잘 묵고 그러구로 해가 어득하이 졌는데, 그래 영감이 갤차주는 그 집으로 그리 살살 올라가 대문간에 문을 빼뚜름이 열어 들다보이 사람 썩는 내음이가 나고 허옇이 자빠져 있는기 저기 영감 말마따나 죽은 사람인가 이래 싶은데, 사람이 죽는다 한께 심란 가짐이 못하게 되는가 재죽을 근근히 들라가 살모시(살며시) 들어가이 들어가도 안 죽는 기라. 쪼작쪼작 걸어서 마당에 서가 있어도 암만 서가 있어도 기척없이 누가 왔노? 왜 왔노? 묻도 안 하는 기라. '이상하다 죽는다 카던데 왜 안 죽노' 싶어가 그래 청까지 가서 청에 들앉아 있어봐도 아무 기척이 없어. 그래 캄캄 어둡어 저물어 지는데, 이래도 안 죽는데 청에 올라가도 안 죽어. 그래 방문을 한분 열고 들어갈 밖에 없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보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도 안 죽는 기라. 사람 죽은 냄새는 천지로 나고, 보이 질껑질껑 영쟁이 썩어서 이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서 있어 봐야 '누가 와 저렇노' 카고 아무도 우째 온 사람이고 묻지 않고 이란다 말이야. 그래 그 새(사이) 밀어재치뿌고 영쟁인지 뭣인지 어둡어노이 모르겠고 밀어재치뿌고 앉았다. 앉아가주고 있으이 암만 앉아 있어도 '누가 와 왔노' 소리를 안 하는 기라. 아이구 괴롭아서 여 영장이나 뭣이나 밀쳐내고 누웠어. 누워가 있어도 당최 잠이 안 와. 그래 인자 다부랑 다부랑 하고 있으이, 뭣이 문을 빼금히 열고 들어오는 기라. 들어오디마는 한숨을 수루시 쉬는 기라. '저기 날 직이려 오는가' 싶어가주고 가마이 기대를 걸고 있어보이, 떡 들어가 서디마는 한참 서가 있으면서 한숨을 수루시 쉬디마는 거기 살모시 앉는 기라. 그런데 그것이 이상스럽아서 '지(자기) 직이러 온 줄 알지' 지 옆에 오도 안 하고, '지도 왜 왔는고' 건더리지 아니 하이, 그래 지 직이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직이주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부르는 기라. '예' 하고 대답하는데 여자 음성이라. 그래,

"당신이 우째 여기 왔소?"

그래 훌쩍 훌쩍 울면서,

"내가 여기 죽을라고 왔디마는 이 집에만 들어오면 죽는데, 아무래도 안 죽어서 방에까지

들어와도 안 죽는데, 당신이 날로 직이주소."

"아! 그래서 그랬소. 우째서 죽을라 카는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 밑에 오늘 김동지 딸을, 우리 아부지가 살림을 만석 살림을 하는 큰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내가 김동지 딸인데, 우리 아부지가 무식해가 벼슬을 못해가 상놈입니다. 상놈인데, 어느 진사댁에서 청혼을 해가주고 내가 그 집을 우리 아부지가 시집보내기로 약속을 해서 오늘 혼사를 치루는데, 신랑되는 사람이가 갖은 병신이라. 곰배팔이고 쌍개살이고 앞 뒤 내우 곰배고 눈배치고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사대육신이 성한 몸이 그런 병신을 덧고 평생을 살 수 없어서, 그래 벼슬 압력에 상놈이 양반이 청하는 것을 못 듣기 없어가주고 강제 혼인을 당해가주고 그 지경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럴밲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래 이 집은 소문 난 집인데, 이 집은 들오면 죽는데 암만 들어와 있어도 안 죽어서 그래 방문을 열고 여꺼정 들어왔는 이런 형편인데."

"아! 당신 그래서 죽을라 카는교? 나도 역시 당신하고 비슷한 기라고."

그래 지 토론을 내놓은 기라.

"십년 넘우 집 살안 거, 쳐녀한테 장개가게 된 거 못 간 거, 과부한테 장개가게 된 거 못 가게 된 거, 오늘 맞아 죽을라 하다 못 죽은거, 결국 자기 집에 가서 술꺼정 묵고 죽는다 캐서 여 들어와 있어도 아무리 해도 안 죽어서, 지금 여 누워가주 있는 중이라."

고, 이런 이바구를 하고 있는 찰라에 그 영감이 나타난 기라.

"아무것이야, 아무것이야."

불러 '예' 대답을 하이,

"다른 기 아무것도 아이고 너그 둘이가 내우간이다. 내우간인데, 이 집에는 영쟁이 많다. 많은데 내가 오늘 밤에 말칸 다 치워줄기다. 치워주고 그 우에 큰 궤가 있는데 거기에 만 석 살림 논문서가 전부다 들어 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궤를 깨루는 쇳대는 아무데 들어가 있으인께, 내가주고 궤문 깨루고 만석 살림 문서가 다 들어가 있으인께, 그것 챙기가주고 너그 이 집에 살면 아무도 침해(侵害)할 사람 없다. 없는데, 단 부탁은 이 집 뒤에 가면 못(淵)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을 물로 퍼내면 그 못에 돈을 많이 옇어놓았는데, 돈에 사기(邪氣)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돈을 꺼내 말라가주고 너그가 씨다가 남으면 없는 사람들로 모도 기부로 주고 이래 하면, 아무도 너그 뒤에는 걸리는 사람이 없고 이 살림이 너그 살림이 누군가 배후가 있어서 그래 되었는건대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그리 해라."

그래 그날 그 소리를 듣고 나이 처이도 마음에 활기가 나고, 이 사람까지도 새 정신이 나고 용기가 났다 말이야. 그 아직에 자고 난께, 방에도 그 영장이 하낱도 없고 부엌에도 영장이 하낱도 없고 그래 쇳대를 찾아가주고 궤를 끼루이 그게 논문서 밭문서가 말칸 다 있다 말이여. 그래 인자 선비한테 가서 그걸 뵈아가주고 말칸 찾아가주고 만석 살림 그냥 징키고 잘 살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미음동 설화 10]

보쌈 당한 사내의 팔자

구 술 자: 김우철(남, 74)
구술 날짜: 1992년 1월 18일
구술 장소: 미음동 와룡마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도 활량인데, 돈을 잘 씌고 지 재산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댕기면서 술받이하고 기생질하고 댕기면서 노름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지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고 아무라도 돈을 채라면 얼른 채주고 이랬는데, 지가 돈 떨어지고 나이 친구도 인제 없어지고 돈을 채줄라 하도 채주지 안 하고 이래 떡 돼가주고 '내가 살만치 살았고 나이 사십쯤 되었으이, 살만큼 살았으이 내가 넘한테 설음받고 사느이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주고 그래가주고 저 참 절벽에 찾아가서 떨어져서 벼랑에 떨어져서 죽을라고 쉰질 되는 절벽을 찾아가 펄떡 뛰어내리면 죽을 요량하고어느 달밤에 산 절벽을 찾아가가주고 거기에서 눈을 감고 훌쩍 뛰어내렸다.

한참 내려가는데 그 밑에는 나무가 나가주고 칡넝쿨캉 덩굴넝쿨이 꽉 찼는데, 덩굴넝쿨에 걸려가주고 땅에 못 떨어지고 덩굴에 얹히놓이 마 못 죽은 기라. 그래 하늘에는 달이 환하이 밝은데 가마이 누워 생각해보이 '내가 죽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뭣 때문에 자살꺼정 할 것고, 에라이 빌어묵을거 죽지 말고 살 궁리를 채려보자'

그래 인자 오대감(吳大監)의 첩사이(첩산이)가 하나 있는데, 저 집을 찾아가가주고, 이 집도 고자대감이라. 고자대감인데, 저 집을 찾아가가주고 저 집에 가서 '내하고 밤에 어데로 도주하자'고 의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죽을라고 마음 먹었으이 겁날 것 없고, 거기 찾아가서.

"부산댁이! 부산댁이!"

하고 부른다. 그 집에서 오랜만에 남자 목소리가 나이께 반갑아서,

"누고?"

카고 문을 여니, 웬 남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인물도 참 좋고 남자가 식견이 있어 보인다 말이야.

"그래 어짠 일로 왔냐?"

물으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왔다."

"무슨 일인고는 드가서 이야기 좀 하구로로 해달라."

그래, 문을 열어주어 드갔다.

첩사이가 이야기를 들오보이, 지 역사를 내놓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 천석을 하는 살림을 탕진해 말칸 없애버리고, 이제 내가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살

라고 하이, 친구도 딱 떨어져뿌고 세상에 미움을 받아서 여기서는 못 살겠고 틀림없이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당신이 말이지 그 아릿다운 청춘을 고자대감 밑에다 바치가주고 평생에 이럴 것이 뭐가 있노? 그러마 당신하고 내하고 연분을 맺아 어디를 정처없이 가가살 의론을 한분 할라고 왔다."

이라이, 그래 이 여자가 가만이 생각을 해보디마는, 죄없이 꽃다운 청춘을 고자대감 밑에 바치고 있을 텍이 없는 기라.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나도 그런 뜻이 조금 있는데, 오늘 우리 큰집 제사인데, 큰집 제사에 가가주고 내가 아이들을 모두 불러 앉차가주고 그 영감도 앉추고 해가주고 작별인사를 하고 청을 마침 들어주면 내가 그래 하겠다고, 내가 올 동안에 여기 쉬고 있어라."

카면서 좋은 이부자리로 깔아주고 이란다 말이여. 그래,

"갔다 오라."

카고, 거게 누운께 몸이 푹 파묻고 비단 요 이부자리 좋은데, 그 누우가주고 갔다 올 동안에 한숨 잘라고 누우가 있으이, 바껕에 뭐 사람소리가 두런두런 나쌓디마는 그래 저것이 무엇이 와서 저래쌓는고 싶어가 가만이 누우가 있으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하면, 이전에는 과부통틀이라는 것이 있어. 과부 업고 가면 대를 가주고 테를 맨들어가주고 우에서 꽉 씌아뿌리면 다시 요동도 못하고 힘센 장정이 업고 달아나는 그런 수법이 있는데,

"무조건 끄어내가주고 테를 꽉 씌아뿌라."

이래쌓거든. 이기 뭣이 와서 이라는고 싶어서 가만이 있으이, 그만 문을 열더만 이불 딱 덮고 누우가 있은께, 과분 줄 알고 끄어내가주고 장정이 업으이께 머리에 테를 꽉 씌아가주고 마 업고 달아나는 기라. 업고 달아나는데 어데로 달아나는지 총알 같이 달아난다 말이지.

'야! 오늘 지녁에 우서운 꼴 당한다' 카고, 지는 이냥 죽을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갑날 것도 없고 우째하는고 가만이 보고 있으인께, 그래 어데 수 없이 가디마는 그래 다 왔다고,

"내라 나라. 내라 나라."

그래 내라 난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호부래비인데, 과년한 딸이 하나 있고 자기가 혼자 돼가주고 재혼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혼이 여러 해를 기다리도 재혼이 안 돼서 공론을 내기로 저그 친구들을 몇을 사가주고 고자대감 과부 그것을 통틀에 메어와서 살림을 살면 될 것 아이가 이래 싶어가 통테를 메어가 왔는데, 자기 딸 과년한 쳐녀한테,

"새 엄마가 온 지녁에 오거들랑, 어짠지 니가 아양을 짓고 어무이 내캉 살자 하고, 울아부지 혼찬데 불쌍한데, 어무이가 없어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이래가 있으이 내캉 살자고 이래 달개고 이래 해라."

이래 저그 아부지가 부탁을 해놔놓고 있고, 저그 할매가 있어서 딴 방에 자고 이런데, 통틀을 메가 처이방에다 싹 들루커든. 들루는데 그 이불도 덮어 씌어놓이 처녀가 땡기가주고 그만 '엄마' 카고 땡기 들라가주고

"엄마 내캉 사자 카고 우리 아부지가 혼차 돼가주고 여러 해를 고생을 했는데 엄마 내캉 사자."

카고 자꾸 끼안고 자꾸 파고 들온다 말이여. 그래 이 사람은 고자대감 첩사이를 생각해 갔다가 처이는 더 좋다 말이여. 그래 그만 틀어안고 잤으이 첫날 거기서 장개를 간 텍이지.

저그 아부지가 아직에 큰방 통테로 놔둔 과부가 인물이 어떠며, 밤에 딸이 우째 달래가주고 살림을 채릴 수 있는가 싶어서 가만이 아랫방에 문구녕을 뚫버가 놓고 웃방을 쳐다보고 있으이, 저그무이 돼는 사람이 처녀한테는 할매이거든.

"아무것이야, 아무것이야, 일나라, 해가 돋는다 일나라. 일나라."

캐도 저그 손녀는 밤에 그런 일을 당해놓이 부끄럽어 나올 수가 있나 말이여. 여자가 아이고 남자라 말이여, 남자를 그리해가 왔단 말이여. 하하 이런 꼴이 있나! 그래 부끄러워 못 나오지, 저그 아부지는 아랫방에서 우로 쳐다보고 누가 나와서 얼른거리고 등대하는가 싶어가주고 아무리 쳐다봐야 기척이 없지, 저그 할무이가 기가 차서 문을 열어본께 시염이 시커먼 남자라. 각씨 뎃고 온다고 뎃고 온 것이 저그 처이는 이불을 덮어쓰고 일나도 안 하고 아이구 낭패났다 말이야, 그래 사랑에 내려가가주고,

"야야, 야야, 올라와 봐라."

"어무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허허, 일이 있어도 그만저만한 일이 아이고 이거 낭패났다."

그래 좇아 올라가보이,

"니가 문을 열고 방에 한 분 드가 봐라."

방에 들어가 보이 지캉같은 남자가 떡 시염이 시커먼 남자가 일어나 앉아 있고, 저그 딸은 이불을 덮어쓰고 일나도 안 하고, 어디 이런 수가 세상에 어디 있노 말이다. 그러나 저러나 동네사람이 알면 이 일로 어떻게 하노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 이 사람한테,

"저물거든 밤에 살짝 가 달라."

고 이런 얘기를 하니 이거 얼름없네(어림없네).

"내가 오랜만에 당신 집에 장개와가주고, 내가 오고싶어 온 것도 아이고 당신네들이 이런 긴데, 내가 갈 텍이 뭐 있느냐고 내가 이 처이하고 살끼니까 그만 안 간다."

카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이 생각해보이 이거 큰 낭패가 났다 말이야. 그래 돈을 백냥 주면서 사정을 핸 기라.

"내 처지가 이래가주고 내가 저지른 실수인데, 도리가 없으이 이걸 해가주고 가라."

고 사정을 하이, 그래 가만이 생각해보이, 이 사람이,

"내 혼차 갈 수 없다고 내우간에 먹고 살 수 있게 뭐를 주면 어디로 갈가, 돈 백냥 이것 가주고는 우리 둘이 못 사이 안 된다."

하네. 그래 저그 딸도 뎃고 갈라 하는 기라, 이 사람이.

"뎃고 가서 살 수 있도록꺼정 해 줄라."

카는 기라. 하! 기가 찰 판이라. 이렇거나 저렇거나 수습은 해야 되는데, 동네사람 안 알아

서, 그래서 돈 이백냥을, 그때 돈 이백냥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백냥을 내놓고,

"딸 뎃고 가라. 딸 뎃고 낮에는 가지 말고 밤에 해 지거들랑 뎃고 가라."

그래 이 사람이 앉아서, 여기 지명을 물은 기라.

"여기가 어데고? 그리고 고자대감 첩이 사는 곳이 어데며 여기서 거리는 얼매 되는가?"

물으이, 거리가 크게 멀지는 안 해. 지는 밤에 어둡은데 온다고 몰랐고. 그래 돈 이백냥을 벌고, 그 처이 머리를 얹어가주고 처이를 뎃고 밤에 나선 기라. 처이도 저그 아부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어찌할 도리도 없고, 그래가주고 처이를 뎃고 갈 데가 있나. 어제 대감 첩사이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아는 집이야 그 집뿐인데 그리로 뎃고 간 기라.

고자대감의 첩사이는 자기집에 남자를 눕히놔놓고 대감 집에 가가주고 전부 지가 십년 동안 어데 가면 모시고 살은 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만치 해주었으이 이제는 말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대감의 사랑의 손길은 끊고 내가 남자를 얻어가 살아야 될긴께, 그 합의로 의론을 하이, 오대감도 나이도 늙어졌고, 가족들이 전부다 아이고 그래주서 제약을 해서 되나? 당신이 맥지 맡아가 주고 남의 청춘을 늙쿠고 그래서는 안 되이께 그래 하라."

고 양사방에서 권유를 해가주고, 그래 승인이 난 기라. 승인이 났는데, 마음에 좋아서 이 여자가 집에 뛰어오이, 이 망할 놈의 상이 가삐고 없는 기라. 깔아준 이불을 뭉치가 가뿐 기라. 이 미친 놈이 이불이 뭣이 탐이 나서 이걸 뚱치가 가뿠노 말이다. 다른 것은 보이 하나도 가져간 기 없고, 단지 이부자리 깔아논 거를 뚱치가뿐 기라. 그러나 내가 참 남자가 보기는 안 그렇더만 참 비겁한 남자다. 요이부자리를 탐을 내서 뚱치가 달아나는 수가 어딨노 싶어가 이를 갈고 분해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어떤 남자 소리가 또 나는 기라.

"부산댁이, 부산댁이."

카면서 들오는 기라.

"예."

하고 반가와서 문을 열고 내다보이, 우짼 아주매를 뎃고 신부를 하나 뎃고 들어오는 기라.

"들어가도 되겠느냐?"

"들오라."

그래 들어가이, 신부도 뒤에 서가 있어 '들오라 캐라' 그라이 따라 들어와가주고, 그래 어째 된 경로를 얘기한 기라.

"어제 지녁 당신이 여기 있어서면 당신이 내 당한 것을 당신이 당할 것인데, 당신의 집 봐준 대가(代價)로 내가 이런 경로를 당했는데, 우리가 우째면 좋겠노?"

그래 첩사이가 가만이 들어보이, 엊 지녁에 지가 있으면 당할 일로 이 사람이 당했고, 그기 하늘이 시킨 것도 아이고 이상스러이 일이 된 기라. 그래서 나는 넘우 첩사이가 될 팔자가 아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딨노? 그거는 딱 정해 놓은 일인데, 난데없이 그런 일이 생기가주고 엄뚠 데 장개를 가가주고 뎃고 들왔다 말이여. 그래서 인자 곰곰이 생각해가주고,

"도리가 없다. 내가 팔자가 이런 걸 갖다가 팔자 한탄을 일이지 자기를 원망할 수도 없고

하이 천상 저 댁은 큰 언니가 되고 내가 소실이 돼가 사는 수밲이 없다."

고, 그래가주고, 집이 저 집이고 하이, 그래 동네사람한테 알리기 위해 술을 해옇고 음식을 장만해가주고 잔치를 해가주고 그 집에서 잘 살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미음동 설화 11]

김한량과 오대감 첩 이야기

구 술 자: 김우철(남, 74)
구술 날짜: 1992년 1월 18일
구술 장소: 미음동 와룡마을

옛날에 김한량이라는 한량이 있었는데, 살림이 한 삼백 석, 이전에는 백 석을 해도 군(君) 자를 나주었거든. 백 석군이라 캤는데, 삼백 석이 카면 큰 부자라 말이야. 그래 한량 벼슬을 하고 이래나놓이, 아주 이 사람이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기생들도 잘 다루고 참 이런 한량인데, 이 사람이 풀리기를 우째 풀리었나 하면 술 먹고 기생 다루고 봄철이 되면 돈 따 먹기하는 도박을 하고 돌아 다니는데, 살림은 좀 있다 카더라 캐도 날로 돈을 쓰고, 자기가 돈을 벌이가 쓰는거 하고는 틀리거든.

그러이 뭐 지 아부지 시상(世上) 베리고, 저 아부지 밑에서 호강으로 커가주고 일하는 것은 못 배았고 댕기면서 돈 쓰는 그것만 배와가주고 날수(날마다)로 술 먹고 기생질하고 도박을 하고 댕기고 이런 짓을 하니 친구들은 이 사람만 얼른거리면 놈팽이 친구들이 꽉 따라다니는 기라.

그래 한 십년 세월을 지내다가 살림 말캉 털어버리고, 지는 큰 돈 잃고 이 사람한테서 채 씨고 저 사람한테서 채씨고 양 사방에 채씨고 우째던가 국채꺼정 천냥을 써서 감옥에 갇쳐 있는데, 감옥에 갇쳐가 있으이, 이전 감옥카는기가 나무를 가주고 드문드문 대서 못질을 해서 이래 놨는데, 달이 뜨면 달이 나무 틈새로 보이는 기라. 바깥에는 달이 밝아 능청하는데, 지는 감옥소 생활을 하고 있고, 지 신세를 생각하이 기가 차가지고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 말이야. 불렀는데, 그 감옥 너메 고자대감의 첩사이라 카는 여자가 아주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고자대감의 화첩으로 그래 마 그 첩의 집에 오면 희희낙락하게 농담하고 놀고 마음 맞추기 위에 첩에다가 기리븐 거 다 사다가 마음껏 다해주고 이래 있는 첩사이가 있는데, 이 첩사이가 밤에 달은 밝아서 휘영청 한데, 사람이 인물이 잘날수록 영감이 기립어 못 사는 긴데 어디서 청천에 기러기 뜬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아주 명창같이 노래를 잘 부른다 말이야 그래 마음이 심란해가주고 담을 뛰어 넘어간 기라. 넘어간께 감옥 속에서 부른다 말이여 그래 감옥을 배껕에서 뚜드리면서,

"당신이 누구냐?"

고 이라이,

"당신은 누구냐?"

고, 그래 인자 거기서 실토를 했어.

"내가 고자대감의 첩사이 되는 사람인데, 담 너머 여 있는데, 당신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인께, 내 마음이 어띠키 심란한지 그래 내가 온 사람인데, 우째서 이래 감옥에 갇쳐 있나?"

이래 물으이,

"내가 국채를 천냥을 지고 감옥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고.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탈출해가주고 먼데 도망을 가면 안 되느냐?"

고 이라거든.

"탈출하자면 탈출할 재주가 있느냐?"

"내한테 좋은 칼이 있으인께 내가 칼을 가와서 이 문을,

이전에 감옥은 판자로 오래 오래 돼나놓이 나무가 비에 들치고 삭아가주고 서걱 서걱 한다 말이야, 오대감 첩사이가 담을 넘어가가주고 비수를 가져 와가주고 바깥에서 비니 썩은 나무고 하니 판자를 뚫고 나오라."

캐서, 나와 자기 집에 떡 들어갔다 말이야. 들어가가주고

"당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온 지녁에 큰집에 제사가 있는데, 큰집 제사에 가가주고 오대감도 이제 나이도 많이 됐고, 내 청춘을 그냥 망칠 수 없으이,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내가 몰래 빠져나올 참인께, 빠져나오거들랑 내가 지금 빠져나가기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으이, 우리 둘이 밤에 도망을 가자. 가서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내자."

고 그래 야기를 하이,

"좋다"

고 그래 하자고 약속을 했다 말이야. 그래 첩사이가 큰집 제사에 가가주고, 그러나 저러나 분위기가 보이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라. 자기가 오대감하고 첩질하고 만나는 얘기를 할 수 없어가주고 그래 제사 마치는 질로 먼저 손을 모셔놨으인께 쫓아왔다 말이여. 와가지고,

"내가 큰집에 가가주고 도저히 그 얘기를 꺼어 낼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가 내빼는 날 평생 먹고 살 뒷재산이 내한테 있다."

카고, 농을 끼루더마는 금을 시(세) 쪼가리를 내.

"이것만 징기고 나가면 어데 가도 우리 평생 여생을 잘 살 수 있다."

고, 그만 저것을 보따리에 싸가주고,

"그만 나가자."

고, 그래 인자 오대감이 오면, 고자대감이 오면 한번씩 타보는 말이 좋은 말이 있는데, 말 그놈을 몰고 나와가주고 자기 둘이서 타고 갈라고 동구 밖에 나왔다 말이야. 나와서 고자대감 첩사이가

"아차! 내가 무엇을 잊어뿌고 왔는데, 당신 여기에서 기다리면 내가 집에 가서 가오겠다."

고. 그래,

"그것이 뭐냐?"

고 물으이,

"큰머리를 잊어뿌고 왔다."

이거라. 이전에는 큰머리 그것이 여자에게는 근본이라. 그것이 없으면 여자는 근본이 없는 기라.

"그것을 잊어뿌고 왔으이 여기서 좀 기다리라."

고.

"그러면 그라라."

고. 그래 여자를 보내놔놓고, 그만 이 사람이 마음이 배끼뿌네. 돈 보따리를 다 맽기놓고 갔단 말이야. '저기 가가주고 만약에 대행이 무사히 그걸 잘 가져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헌발이 나면 지도 죽는 기라 말이여, 대감의 손에 안 죽고 백에낼 수가 있나. 이러이 내가 기다릴 수도 없고 내 혼차 달아날 수백에 없다'고 지 혼차 달아나뿐 기라. 그기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기라.

그래 가가주고 정처없이 먼데를 가가주고, 거기서 금쪼가리를 팔아가주고 좋은 집 사고 살림꺼리를 장만해가주고 그래 고향에다 연락해서 저그 본처하고 아(아이)들하고 올라오라 캐가주고 거기서 잘 사는데, 본처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저그 집보다 낫도록 날아가듯이 터를 잡아가지고 새로 집을 잘 지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람이 공을 드리면 공을 받는 기라. 그 여자 자는 형적을 딱 내고 자기 남자 옷을 절대로 지 방에 갖다 못 걸게 하고 그 빈 집에 거기에 세속 말로 하면 빈 여자 사당이라. 거기에 갖다 걸고 언제든지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나서 놀 때는 거기 가서 장 놀고 여자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여자를 사모하고 이라고, 그래 장 신령에게 부탁을 하고, 이 여자는 항상 본댁은 이전 살림을 다 찾아가주고 그 좋은 가장하고 딱히 살게 되었으니 얼매나 좋노 말이다. 그래서 항상 저 여자를 기도를 하고 빌고 언제든지 찾아오면 잘 받아 줄 터이니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만날 하느님한테 빌고 이랬다 말이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큰머리를 가지고 오이, 그 사람이 없다 말이다. 주위를 살펴도 가뿌고 없단 말이다. 그래서 그 길로 거기서 머리를 삭발하고 중이 되어 치마를 벗어 바랑을 지어가주고 짊어지고 중이 되어 방방곡곡이 찾아 댕기면서 찾으면 직인다고 비수칼을 몸에다 징기고 방방곡곡이 동냥하러 댕기는 기 아이라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시주하러 왔다 카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사람 찾으러 댕기는데 십년만에 그 집을 찾아간 기라. 그래 인자 그 집을 찾아가이 이 여자가 본댁에 시주를 청해 왔는데, 집안에 들어오디마는 얼굴이 새파라이 정색을 해가 집을 살피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인가 싶은 영감이 딱 가는 기라. 그래서 여자가 나와가주고,

"당신이 어데 중인지 모르지마는, 내한테 왔으이 오늘 지녁에 곁에 같이 자고 가라고. 내가 지녁을 챙길 터인께, 우리집에 어디 가지 말고 여 있어라."

고. 이 여자도 그 집에 가이 이상하게도 자기 예감이 그 집이 그놈이 살고 있는 집이 아인가 생각도 들고 여자가 그러쌓이 그래 그 집에 거해서, 그날 지녁에 밥을 해서 새 집에 빈 집 지어가 있는 거기에 자기 영감도 거게서 지녁을 먹고 있는 거고, 이 여자도 자기 밥도 그리 가져와 그 집에 가서 한 식구로 해가주고 먹고 이라는데, 그래 본댁 여자가 얘기를 했어.

"우리 가장이 이런 과오를 범해 큰 죄를 지었는데, 딱 여기 오고 난 뒤로는 이 집을 새로 지어가주고 항상 그 분이 오도록 내가 기도를 드리고 이때꺼정 빌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행여나 당신이 그런 사람겉으면, 오늘 지녁에 나는 가장하고 이때 살았으이 아무 여한이 없는데, 행여나 당신이 그런 사람이거들랑 여게 자고 가라."

고 이래 카거든.

"아이 천만에 그런 일이 없다."

고 딱 잡아띠고, 그래 그 집에서 지녁을 먹고 거기서 자게 되는데, 그날 지녁에 그 방에도 불을 때고 그 집에서 자는데, 그래,

"그 여자를 떼어놓고 올라 카이 절대로 안 된다 카는 기라. 같이 안 자면 나도 나가겠다."

고 이라이, 그 여자를 재우기 위해서 서이가 한테 자는데, 그 본댁 되는 사람이가 예감이 이상스럽어 잠이 올 리가 있어야지. 그래 잠 오는 체하고 손을 들얹고 가만이 도둑놈 살피는 듯이, 그래 남자는 술도 한 잔 묵었고 태평매이로 본대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돼이 코를 긿이고 자거든. 그런데 코 긿이는 소리가 나이 여자가 살짝 일어나디 가방을 사부작사부작 하더만 칼을 딱 내가주고 가장의 배 우에 걸터앉아 칼로 딱 찔러러 할 때 여자가 일어나서 꽉 잡은 기라.

"참으소, 내 말 한번 더 들어라고." 칼을 잡았으이 찔러지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본댁이 백배 비는 기라.

"우리 가장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나만 없으면 지금이라도 즐겁게 살면 안 되겠냐고, 나는 그래 산다면 이 집에 발자취도 안 할 끼다."

고 그래 사정을 하이, 여자가 가마이 생각해보이 십년을 그 집에다가 이직 지녁으로 밥을 갖다 놓고 언제든지 자기가 식사한 양하고 밥을 물리치고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이 그 공로도 여간 큰 원이 아이거든. 그래서 그 여자가 회심을 해서 본댁의 손을 잡고

"당신이 그런 공로를 드맀는데 아무리 죽을 죄로 가장이 지었다 해도 내가 참지, 그르치겠느냐고 안심하라."

고 카고 칼을 웃묵에 던지뿌리고 그래서 인자 일라서서 그 여자한테 손목을 잡고,

"내가 마음이 변하기로, 자기가 가가주고 무사히 돌아오면 다행인데, 만약 무사히 못 돌아오고 발각이 나는 날이면 자기도 죽을 끼고 나도 죽을 끼고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의심을, 자기가 무슨 변명을 둘러대가 자기 목숨이나 살가 싶어가 그래가 마음이 들어가 내 혼차 이래 온기가 지금도 후회가 막급이고, 나도 역시 자기가 돌아오도록 공을 드리고 있으이, 한 분만 용서해 달라."

고 그래가주고 화동을 해가주고 그래 잘 살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6) 범방동 설화

[범방동 설화 1]

골벵이 각시 이야기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옛날에 노총각이 호매이를 들고 가 밭을 매는데, 쪼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일을 해가 누구하고 먹고 사노?"
이란께,
"내하고 먹고 살지, 누구하고 먹고 살아."
이라거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번 쪼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가 누구하고 먹고 사노?"
"내하고 먹고 살지."
자꾸 이래거든. 그래 소리나는 데를 따라가면서 호매이를 쪼으면서 점점 가까이 가니 물고에 구멍에서 소리가 나서 파제끼니 큰 골베이가 있더래. 골베이가 있어가주고 그래 요놈이 물에 있던긴께네 가져 와서 물더벙(물두멍)에 옇어놨거든. 물더벙에 옇어놓골랑 또 일하러 갔다 온께네 밥을 해서 만반지수(滿盤珍羞)로 해가 채려놨거든. 누가 이래 갖다놨노 싶어가 또 먹고 자고, 아직에 일하러 갈라 하니 또 그래 놓고 해 놓고 사흘을 그래 해 놓거든. 대체 누가 해가 놓는고 싶어가주고 하루는 때가 일찍이 드갈 수밖에 없다고, 딱 들어간께 참 예쁜 처녀가 오디마는 밥을 채려가주고 갖다놓고 돌아서 나오는데, 물더벙에 드갈라 카는데, 붙들었어. 치매꼬리를 붙들면서,
"왜 드갈라 카노?"
"나는 명국(溟國)에서 나왔는데, 당신하고 살 기회(機會)가 안 돼서 그래가주고 이래 있으인께 나를 놓으라."
고 이래인께, 기여히 붙들고 안 놓을라 카거든. 그러면 자기하고 구체없이 살게 되는데, 처녀가 하도 인물이 좋아가주고 총각이 일을 못해. 반해서 일하로 안 가. 그래인께로 처녀가 하는 말이, 골베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기 나를 못 잊어 일을 안 하면 안 될 문제이니, 나를 그렇기 못 잊겠거들랑 화상을 기리가주고 갖다가 고 옆에다가 걸어놓고 그래 일을 하라."
이라거든. 그래 화상을 기리가주고설랑 남게(나무에)다가 떡 달아놓고 한번 밭을 매고 또

한번 보고 그래 일을 못해. 일을 못한께 웬 돌개바람이 휙 불디마는 화상이 날아가뿠거든. 날아가뿌리가주고 고만 찾아서 집에 온께, 마느래는 있거든.

서울 남대문에 가서 걸렸어, 그 화상이. 보이 천하미인이거든. 그렇게 잘 났은께, 임금이,

"저 화상을 들고랑 저 사람을 찾아 온나. 여자를 찾아오라."

이라인께, 나졸들이 쭉 나서서 사방 찾아온다. 찾아서 찾아서 오다 보인께네, 참 여겔 들어왔어. 그래 그 화상을 보고 처녀를 본께, 틀림없거든. 그래가주고 나라에서 붙들어 갔자네, 둘을. 두 내외를 붙들어서 가인께네,

"니 부인은 어찌 해서 얻었노?"

그래,

"여차 여차해서 그리했다."

그라인께, [청중: (옆에 와서) 무엇하노?] 나 이얘기 중이다. 이얘기를 하면 빌어먹는다 뭐 카든가 그런데 나는 빌어먹을라 칸다. [웃음] 그래 참말로 그제는 임금한테 가인께,

"니 마느래를 놓골랑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를 하노?"

칸께, 임금이 말하기를,

"니도 집을 짓고, 난도 집을 짓고, 고 시간에 같이 짓되, 머이(먼저) 짓는 사람이 이기기다."

이라거든. 그래가주고 이 사람은 집에 와서 기력이 없어 꿍꿍 앓아. 앓으인께,

"왜 앓느냐?"

"이만 저만 해서 그렇다 하는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집을 지어가주고 하겠노?"

그래 앓는다. 그래인께 그 사람이,

"걱정 말고 있어라."

고, 좀 있다가 가인께네, 여자가 뭣을 써가주고 확 던져인께 일꾼들이 그렇기 많이 나와가주고설랑 집을 짓는데, 임금하고 내기를 하는데 당해 내나. 그렇게 막 짓는데 나라에서 짓는데는 사람을 그렇기 들이대가주고 하매(벌써) 집을 다 지어 가거든. 다 지어 가는데, 이 사람은 안중(아직) 집이 그래가 앉아 있거든. 그래가 있으인께, 그만 이 여자가 나와가주고 가왜(가위)를 가지고 요래 조래 돌리고 이리 저리 놓고 하디마는 임금보다 먼저 집을 지었거든. 임금이 졌뿌리네. '아이구 우에노' 싶어가 있는데, 임금이,

"그렇거들랑 내가 첫 미디에 그렇게 질 수 가 있나? 또 한번 내기를 더하자."

이래거든. 하자걸랑, 또 와서 꿍꿍 앓는다. 남자가 앓으인께,

"걱정 말라."

여자가 뭣이기를 써서 주면서 '들어가라' 카이 들어가인께네, 여자가,

"가거들랑 다른 큰 말을 주거들랑 그거는 싫다 하고, 제일 작은 노새를 그걸 달라."

그라거든. 그래 노새라는 거는 제일 작은기 쪼만해. 그걸 달라 해가주고 나온께, 이번에는 말을 타고 한강을 건너기를 내기를 했거든. 임금은 아주 좋은 치장을 다한 말을 타고 나오는데, 하인들이고 나졸들이 둘러 서 있는데, 이 놈은 쪼만한 노새를 가주고 가노이 다리는(다른

사람은) 보도 안 하지. 이런데, 그래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나라 임금으로서 내가 너보다 머이(먼저) 건네야 되지 않나?"

이래거든. 그래,

"그래라."

고 그랬거든. 말을 타고 껑충 뛰어가 복판에 뚝 떨어져뿌거든. 임금조차 빠져뿌리었어. 빠졌는데, 그래 이 사람은 말을 타고 건너는데, 노새 그걸 타고 건너는데, 노새를 보고 '한 발짝에 건너지 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땡이요' 소리를 지르니, 이놈이 대번에 건넜거든. 그래 못 당하지. 그래 할 수 없이 이 마느래하고 살기가 됐어. 나라에서 빼술라(빼앗을라) 해도 안 되거든. 그래가주고 잘 살더래.

[범방동 설화 2]

지극정성으로 아들 목숨을 연장한 어미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마이가 혼자 되었거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골랑 친정살이를 갔어. 친정에 가서 사인께네, 오라바이가 생질을 한번 이름을 부르는 일도 없고 말도 한 마디 하는 일도 없고 남 보듯 하거든.

매일 남 보듯 하인께네, 한날 야가 열댓살 되었는데, 생전에 외삼촌이 생질을 남우 아 보듯 하거든. 그래 동상이 가마이 생각하인께 오라바이한테 '내가 이래가 사인께 뜯어 먹고 와 있으인께 오라바이가 날 이렇기 괄세를 하는가' 싶어가주고,

"오라바이, 내가 아 이걸 하나 데리고 와 있으인께, 나를 미워서 그러나? 우에서(어찌해서) 그렇기 생질에 말도 한 마디 없고 뭐 물어보는 일도 없고 우째 그럴 수가 있느냐?"

이라인께,

"니가 그래 말하면 내가 말을 하마. 가가(그 아이가) 열다섯 살만 먹으면 죽어. 죽기 때문에 내가 정(情)을 안 들일라고 생전에 말을 안 한다."

이래거든. 외삼촌이 그때 알았던 모양이라.

"오라바이, 그렇기 알며는 내가 저거 하나만 믿고 사는데, 그렇기 할 수가 있나? 죽는 날을 알면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나?"

물으인께,

"있기는 있지마는 니가 그렇게 하겠나?"

이래거든.

“왜 못 하겠나, 나는 일평생 그것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 못할기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해라.”

카거든.

“가을에 되면 나락이 누렇게 펴가 있거든. 한 배미에 가서 한 이삭썩 천 배미를 훑어가주고, 그걸 새도 한 알 믹이지 말고 말야가주고 키이를 열 분을 씪고 그렇기 공을 드리라. 찧기도 그래 찧고, 그 쌀 가주고 밥 짓고 백설기 찌고 과일하고 삼 실과 사고 이래가주고 신 시(세) 커리(켤레)하고 옛날 감발했거든. 그 감발 시 커리하고, 그걸 해가주고 니가 목욕을 니가 하고 싶은 대로 공을 드리가주고 하고, 니 아무 산에 그 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봉리산인가 그 산에 올라갈 직에 깜깜한 그믐밤에 하나 붙들지도 말고 올라가라 하가든. 그래 그 봉(峰)에 올라가면 니가 실컨(실컷) 올라가면 반석이 좋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니라(내려)놓고 니가 숨어서 봐라.”

이러거든. 그래 가서 숨었다. 그래 해가 졀라 하인께네, 정성을 그렇기 디리 가인께네, 그 험한 바위라도 안 붙들고 올라 가겠거든, 다라이(일어; 자배기) 이고. 그래가주골랑 가다 가다 보이, 방구가 넙적한게 있어가주고 거게다가 갖다 니라놓고 한짝(한쪽)에 숨어가 본께, 저짝에 환하이 들오더래, 환하이 비치거든. 보인께네 구실(구슬)같은 호박(琥珀) 풍장(風簪) 붙이고 이런 노인들이 지팽이를 걸쳐잡고 얘기를 해가면서 오는데 그짝이 환하거든, 그믐밤에. 그래 올라오디마는 그 음석 니라놓은 데, 거기 와서 턱 앉디, 서이(셋이) 다 앉디마는 그래 음석을 해놨는 걸 자기들이 보골랑,

“아이구 시장해서.”

이래거든. ‘시장하다’ 이라인께, 또 하나가 있다가,

“시장한데 우리가 먹을래.”

“먹을라면 공(功)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먹고 보자.”

이라거든. 그래 서이가 앉아서 쭈욱 먹디마는, 우선 배 고픈데 먹고, 감발도 하나씩, 신도 다 떨어졌으이 신 하나씩 신고, 감발을 떡 해가주고설랑 그래 문서 책을 딱 내놓골랑 치보디마는 ‘아무 날 아무 집에 아무 것이하고 가(그 아이)하고 한 이름이고 한 나이인데, 가(그 아이)를 대신 잡어러 가자, 얄란(이 아이는) 빼놓고’ 이래거든. 그래 적어 놓고, 야 이름은 파뿌리고 그 이름을 올리가주고설랑 그만 가거든. 가는 걸 보골랑 이 어마씨가 얼마나 좋노, 그걸 봤으이, 그래 해가주고 주서먹고 남은 걸랑 그릇을 가지고 좇아 니러오인께네, 하매 고 시간에 이름을 파고 하는 시간에 야(이 아이)가 까무러져 죽었더래. 그래 죽었으인께 외삼촌이 주물리고 만지고 따고 이랬더란다. 그래 여 와서 살리고 난께, 가(그 아이)하고 한 학당에 글 배우던 아가 어제 저녁에 밥 잘 먹고 자다가 죽었다 카더란다. 야 이름을 파뿌리고 그 사람을 올리가 가뿠지, 저승에. 그렇기 공을 디리면, 공을 그렇기 드린께 살려냈잖아, 지가 맞추었던 모양이지, 오라바이한테 물어볼 적에, 그래가주고 그 사람들(저승사자)이가 ‘아무 것이

집에 음석이 아인가' 카더란다. 그래 이 사람은 괜찮고 그 사람은 지 이름 때문에 죽어뿌릿더란다.

[범방동 설화 3]

친구 아버지 제사지내 주고 복 받은 이야기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한 다정한 친구가 친구한테 오더마는,

"왜 자네가 저녁을 안 먹는고?"

이라인께,

"내가 남사스러운 말일세마는 온 저녁 우리 선친 기고(忌故)가 드는데, 내가 집이 이 꼴이 돼서 제사를 몬 모시니, 내가 우째 저녁을 먹겠는가?"

그라인께,

"친구의 부모도 내 부모고, 내 부모가 자네 부모고 이렇잖는가? 그러인께 친구의 부모인데 내가 모시지, 오늘 저녁 제사를 내가 떠놓을 터인께, 자네는 그래 마음을 먹고 저녁을 먹게"

이래거든. 그래 인자 있다가, 시아바씨가 며느리한테 갔다. 큰 며느리한테 떡 가인께네,

"야야, 사랑에 오신 손님이 이만저만해서 그러인께네, 오늘 저녁에 미(메)를 좀 짓고 될 수 있는 대로 잘 해놓을 수가 있나? 밥이나 한 그릇 떠놓을 수 있도록 해라."

이라인께,

"아이고, 아범님요, 제사를 모실라면 머리도 감아 빗어야 되고 방도 좀 쓸어내고 걸레도 좀 빨아야 되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고 이러거든. 그라인께 시아바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작은 며느리한테 떡 갔다. 가서, 예전에는 시아바이가 며느리 방엘 드가자면 시아바이가 옷갓을 하고 드갔지. 그냥 옷을 입고 안 들어갔다고. 두루매기를 입고 갓을 쓰고 드가인께네,

"아이구, 아버님 무슨 일이냐고 들오시라고 어쩐 일이냐고."

"야야, 사랑에 오신 손님이 이만저만해서 그러이, 한 것은 없더래도 밥이나 한 그릇 떠놓도록 물이나 한 그릇 정(淨)하도록 해서 떠놓도록 해라."

"그래지 뭐요."

이라거든, 며느리가. '그래지 뭐요' 작은 며느리는 그래거든. 큰 며느리는 떠놓기 싫어가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아범님 가세요. 나가시면 저가 해놓고 오시라 할께요."

그래 둘이 돌아갔다. 친구하고 둘이 논께네, 제 지낼걸 다 채리놓고 며느리가 '제 지내도록 오라' 캐서 들어가서 제를 지내골랑, 제를 지내면 사랑으로 나와야 되지, 음석을 바로 거서 (거기에서) 안 먹거든. 나온께네 음복을 채리왔더란다. 그래가주골랑 모두 음복을 하고 가고 난 뒤에 자고, 이 집에 작은 아들은 놀로 가서 오지도 안 했는데, 그날 밤에 새댁에 꿈에 나이 많은 노인이 봉학을 두 마리를 끌어안고 오디, 새댁에게 '공은 할거 없고 내가 이걸 주고 가이 잘 키우라'고 주고 가거든. 꿈을 깨인께네, 그래설랑 시아바씨도 꿈을 꾸고 이얘기가 똑 같거든. 며느리하고 똑 같이 꿈을 꾸었어. 그 집에 안중(아직) 초산도 못하고 아들도 못 낳고 이런 집인데, 그 제사 모시골랑 아들 형제를 낳고, 시방(지금)도 잘 살아, 내가 가 봤다고.

[범방동 설화 4]

도효자 전설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이전에 한 효자가 도효자가 있었는데, 그렇기 참 부모한테 잘 했는지, 오월 유월에 무슨 홍씨가 있겠노? 아파 누웠는데 자꾸,

"홍씨를 달라"

그러거든. 그러인께네 아들이 효자라서 어른한테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 우째 구하나 하고 섰으인께, 호래이가 오디마는 넓적 엎드리더래, 지한테 업히라고. 그래 업히인께 호래이가 널름 업어다갈랑 한 동네 가디마는 그 앞에 딱 니라놓거든. 니라놓는데 들다보인께, 제사를 지낸다 말이다.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들어가라는 뜻이지. 제사 지내는 집에 드가라는 뜻에서 드가인께, 그래 참 들어가본께 제사를 채리는데, 홍씨 접시가 놓여 있거든. 그래 '이 댁에 우에 왔노?' 인사를 치루고 드간께,

"우짼 일로 왔노?"

카기에,

"우리 부친이 어쩐 일로 홍씨를 잡숩고 싶어 하는데 홍씨를 구할라고 온 사람이라"

고 이란께,

"아 그렇느냐? 홍씨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도 세 개 남았다고, 평생에 우리 집에서도 유월에 씨는데 만날 시 개씩만 사는데 올해는 우에가주고 세 개가 더 살았다."

고 그래더란다. 그래가주고설랑 그걸 받아가주고 나서인께, 또 호래이가 왔어. 업어다가 집

에다가 갖다 주더란다. 그래 먹고는 이 노인이 살았어. 살아가주고 그래 이 효자가 지금꺼정도 그 '도효자, 도효자'라 소문이 났는데, 시방꺼정도 잘 산다. 내가 어제 아레 갔다 왔다.

[범방동 설화 5]

해인사의 이시미 퇴치와 사(邪)된 돈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그 전에 합천 해인사, 그 이름이 뭐라. 그 사람이 클 적에 큰 절에 공부를 하러 갔거든. 아바이는 있고 어마이는 없고 하인께, 어마이는 계모로 있으인께, 그래 이 아들을 아바이가 절에다가 공부하러 보냈거든. 예전에는 공부시길라면 절에 주장(주로) 시킸지. 절에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 절에는 일 년에 한번씩 사람이 하나씩 죽거든. 죽는데, 섣달 그믐날에 죽는다 말이야, 죽어도. 그러인께네 섣달 그믐날을 지낼라고 마카(모두) 절에 사람들이 피난을 다 가. 다 가는데, 야 이름이 뭔도 모르겠다. 입에서 뱅뱅 돌아도 잊어뿌린다. 그런데 가(그 아이)가 커면서 그 있는데, 모두 피난을 가는데, 가는 안 갈라 카거든. 안맘(아무리) 가자고 중이 정신을 들이고 다 갈라고 붙들고, 가를 남가(남겨) 두고 갈 수가 없으이, '가자'고 그러는데 겨이(결코) 안 간다고 하고 있으인께, 그래 있으인께 뭐로 하는기 아이라 다 가뿌고 나이 고요해노이, 지 방에 가마이 있더란께 합천 해인사에 드가며는 고 앞에 시방에는 못이 없더라. 그 전에는 못이 좀 있었는데, 그 못에서 이시미 나온다고, 그래 참 가마이 있은께'쐬~' 하는 소리가 나거든. 야가 이름이 뭔고 이 사람도 큰 사람인데 잊어버렸다. 나오는데, 문틈으로 보인께, 큰 이시미가 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거든. 그래 야(이 아이)가 열댓 살 되니 담배를 피았던 모양이지, 예전에는 담배를 피울 때 대꼬바리(담뱃대)에 피웠지 다른데는 못 피우거든. 그런데 대꼬바리에 담배를 담아 항그(가득) 물리가주고는 문궁기(문구멍)에 내밀어놓고 방 안에 앉아서 담배를 뻐꿈뻐꿈 피운께, 연기가 그리 다 나가잖애, 그만 이시미가 턱 자빠지더란다. 담배 연기를 맡고. 턱 자빠진께, 그렇기 많은 사람을 잡아 먹는데, 야가 살았거든. 살아가주고 가마이 앉아 있는데, 그날 지녁에 큰 절인께 얼마나 크노? '확' 남기 터지는 소리가 나디마는 문을 확 열었다 닫았다 이래더래. 문을 확 열었다 닫았다 이래싸서, 그래 내다보이 팔척 같은 놈이 이래거든. 그래,

"너는 뭔데?"

이래인께,

"나는 아무데 용마름에 있는 무슨 장군이다."

이래거든. 또 한 놈이 문을 열고 들다 보이,
"너는 뭔데?"
이런께,
"나는 아무데 지둥 지키는 장군이다."
이래거든. 전부 다 갈치주거든.
"빨리 나가라, 나는 니같은 놈을 안 본다."
소리를 치고 경(經)을 읽은께 가뿌리거든. 간 뒤에는 야가 이시미도 잡았지, 그것도 다 들었지 이래놓인께, 그래 인제, 자는 척하고 누웠은께 날이 새거든.
오는 사람들이 '죽었지' 싶어노이 하나도 그 방에 문을 안 열라고 서로 뒤비적거리더란다, 가마이 보이. 그 아(아이)는 자는 척하고 누웠은께, 뒤에 오는 사람이 문 안 연다고 내리 외인께 할 수 없이 문을 열거든. 열어본께 살았거든. '살았다고 좋다' 그러더란다. 그래가주고 그 뒤에는 '우에가주고 그랬노?' 그래 나와본께 큰 이시미가 자빠져 누웠지. 인제는 살았다 싶어. 그래 야가무슨 용마름에, 무슨 지둥에 엽전이 들었다는 것을 다 들었으인께 그걸 파보라 카더란다. 파보이 엽전이 수두룩 나오더란다. 그 엽전에 사(邪)가 붙어가 사람을 해롭게 했다는구먼. 기절해서도 죽고, 이시미 때문에 죽고, 그래 재물을 파내가주고 합천 해인사를 그렇기 잘해 놨다 그래. 그래가주고 대대로 니러오면서 그렇게 잘 살더래.

[범방동 설화 6]

율곡 선생 이야기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율곡 선생이 참말로 그렇기 대인인데도 사랑 앞에 과일나무가 있었다, 감남기(감나무가) 있었는데, 달이 환한께 아이들이 감을 따러 왔거든.
율곡 선생은 나이 많아 사랑에 있으이, 아이들이 선생이 자는 줄 알았지. 기침소리가 나고 사람소리가 나이, 율곡 선생이 기침을 해뿠어. 기침을 '탁' 하이, 남게 있는 아이들이 기절해서 니져뿠어(떨어져버렸어). 니져가 죽어뿌리었네. 죽었는데 그래 율곡 선생이 가마이 생각하여 이 죄(罪)가 삼대를 니러갈 챔인께 손자 대(代) 가서 이 죄를 받게 되거든. 그래 율곡 선생이 나이 많아서 죽기 되었는데, 아들을 불러가 유서를 하나 써서 주면서,
"니가 이거를 가주고 있다가, 시방 띠보지 말고 가주고 있다가 정 급할 때가 있거들랑 띠봐라."

이카거든. 그래 율곡 선생은 세상을 떴버리고, 아들하고 이래 사는데, 율곡 선생의 손자가 살인을 저질러기 됐어. 살인을 저질러기 되었는데, 여러 각 골 원들이 사람을 하나 주초(치죄)를 할라면 전부 좌정하고 있거든. 그래 아들이 가마이 생각하이 아부지가 주던 유서가 있는데, 이 보다 더 급한 일이 없거든. 띠뵈야 된다고 띠본께네, 그 골 원한테 가는 편지를 썼거든. 이 편지를 받을 적에 '앉아서 받지 말고 서서 받아라' 이랬거든. 그래 편지를 보는데, '서서 받아라' 하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말이야. 그래 각 골 원들이, 좌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곡 선생 편지 들온다 카이 마카(전부) 나가거든. 싹 다 나가고 난께네 대들보가 내려앉아 버리더래. 대들보가 내려앉은께, 그래 율곡 선생 편지 아이였더라면 이 많은 사람이 다 죽을 챔인데, '우리가 율곡 선생의 손자를 안 살릴 수가 있나' 이라면서 그래 살려내더래.

[범방동 설화 7]

자손 이은 복숭아 열매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옛날에 한 영감이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을 적에, 복숭아 남글 하나 심가놓고 죽었는데, 복숭이 자꾸 열거던. 그래 영감이 만날 그 아들 본 것같이 고걸 지키고 있거던. 복숭아 시(세) 개가 열었는데, 참 잘 굵어, 인물도 있고 좋은데, 만날 지키고 있는데 누가 따 갈까봐.

그래가 한날은 큰 댁에 제사가 드인께네 가야 되는데, 이걸 뭐석할 수 없어, 며느리한테다 시키기를,

"니, 이걸 꼭 지키래이. 내가 오늘 빨리 제사 모시고 오마."

이래 시키놓고는 그래 영감이 간 뒤에, 이 여자가 암만 복숭이 먹고 싶어 못 사네. 하도 먹고 싶은데 '아이고 참 어른이 지키라고 하던데 내가 이걸 먹어서 되겠나' 싶어서 안 먹고 자꾸 지키고 있으이 환장이 돼. 할 수 없어 하나를 먹어뿌맀다. 먹고 또 지키다, 또 그거 먹고 싶아 못 사네, '이거 큰일났다. 어른 오시면 어이 될꼬' 싶어가 그래나마나 꾸중을 듣기나 마나 또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 또 하나 먹어뿌맀거던. 아이고, 하나이 남아 있는데 인제는 꼭 어른을 드리야 될 참인데, 또 이놈이 먹고 싶어 환장이 되는 기라. 그래서 요놈 한 개를 따가지고 반을 갈라가지고 먹고 반개를 내삐뎠다(내버려두었다). 반 개를 내삐두인께, 고게 또 먹고 싶어 못살아 다 먹어뿌맀어. 그래 시아버님이 오더라네. 와서,

"야야, 복숭아 지키라 그랬더이 우예 그렇노?"

그래 바른 말을 했지 뭐.

"지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먹었십니더."

"야야 한 쪼가리따나 남가놓지."

그래더니마는 그기가 얼라가 됐어. 신랑이 없어도 배가 불러오인께네, 동네에서 그만 전부 애모한 시아바이를 덮어 씌기게 돼. '혼자 있는 며느리가 저 집에 영감 얼라 뱄다'고 동네가 들썩거리고 쑤근거리고 이랬는데, 그래 참 이 시아바님이 할 수 없이 덮어씌고 있지. 안 그래 했다 허이 되나. '모다가 그렇다' 하고 있는데, 아들 삼 형제를 낳았어. 삼 형제를 딱 낳았는데, '도(桃)'자라고 써 있더란다. 등으리(등)에다가 전부 써 있더라 이거라. 그래 복숭아 먹고 낳았다 이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시아바님 누명을 벗고, 죽은 사람에 소원을 잇아가지고 그래 잘 살더란다.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9~560쪽.

[범방동 설화 8]

충청도의 명당 전설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영덕서 없어가주골랑 얻어먹어 얻어먹어 충청도를 갔거든. 충청도를 가가주고 둘이 부자(父子)가 갔는데, 남우 집을 살았어. 부자가 남우 집을 살았는데, 그래 참 살다본께 아바이 나이 많아노인께 남우 집에 살다 그 집에서 죽어뿌리었거든. 죽으이 남우 집 사는 아들이 그 마을 구장한테다가 미(뫼)터를 하나 좀 얻어 달라고 빌었거든. '달라'고 얘기를 한께네, 구장이 풍수더러 하인께, 풍수가 하는 말이,

"너 주인네, 그 아 머슴 사는 주인네 돌담 울게 밭둑에 담 울게 못 쓰는 땅이 있으인께 그 담 울게를 니가 달라."

이래거든. 그래,

"그래지요."

그래, '달라' 카인께로 미터를 주는데, 그 미를 파재낀께, 그 돌 많은 것을 파재낀께, 매화낙지(梅花落地?)가 나오더란다. 매화낙지는 없는 기거든. 그래 영덕에 아무것이 묻힐 처(處)라고 그것까지 써가주고 딱 있거든. 그래 그 미를 쓰고난께네, 구장이 매화낙지가 나오인께 터가 좋거든. 크게 될 줄 알아노이 '내가 자(저 아이)를 사위를 봐야 되겠다' 구장이 그카고 있는데, 주인네는 '구장이 하는 말이 급하인께 삼일은 지내야 되지 않나, 혼인날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거든. 아바이 죽은 집에서는 '또 다믄 이틀을 지내야 이얘기를 하지 않나'

서로 사우 볼라고. 야 머슴 사는 주인네는 당일에 해뿠어. 그래 뺏겨뿠어. 그래 미터를 씨는데 그 미를 세워놓고 썼거든. 그건 왜 그래 세워놓고 썼느냐 하면 '자기가 영덕을 살았은께 영덕을 넘어다 볼라고 나를 세워 묻어 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세워 묻었어. 시방도 잘 살더라는 말을 아레도 이얘기 들어봤어.

[범방동 설화 9]

열다섯 살에 호식당할 아들을 구해 낸 이야기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한 집안에 자슥이 없어 애태우다가 늦게사 아들을 낳아 키우는데, 어디 가 물으면 호식한다 하거든. 십오세만 되면 호식한다 이러거든. 나이는 열댓 살 되었고 묻는 데마다 호식한다 하이, 이거는 죽고마는가 싶어가주고 아바이가 앉아서 그 꼴 안 볼라고 도망을 갔어. 하루 종일 시방매이로 차가 있나 걸어서 자꾸 가기 싫은 데로 갔다. 가다가 해는 실풋하고 배는 고프고 여름쯤 됐던 모양이지. 느티나무 밑에 쭉 앉았는데, 한 상주가, 옷이 다 삭아 떨어진 두루마기를 입은 상주가 하나 떡 오디 졑에 딱 앉거든. 그래 이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어데꺼정 가느냐'고 앉았으면 물을 거 아이래.

"어데꺼정 가는냐?"

"나는 아무데꺼정 간다."

또 하나는,

"나는 아무데꺼정 간다."

고, 묻는데, 그 상주가 말하는 데는 '자기 마실을 간다' 그러거든.

"그 마실을 가며는 누 집을 찾아가느냐?"

고 물으인께,

"자기 이름을 대면서 아무것이 집으로 간다."

"그 집을 왜 가느냐?"

고 물으인께네, 그제는 상주가,

"내가 산신령의 영을 받고 시방 가는데, 그 집 아들이 운(運)이 다해가주고 그 아들 데릴러 가는 길이라."

고 이래거든. 자기 아이라 소리를 안 하고 하는 말이

"그렇거들랑 그 집에 아주 어려운 독자인데 살릴 수가 없느냐?"

"방도가 없다."

이러거든. 그래 큰 마실에 들어가서 개를 한 서너 마리 사가줄랑, 기진해가주고 있거든. 사가주고 갖다 놓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엎들여 불공을 한다.

"그 애가 내 자슥인께네 우에든동 방도로 살려 달라."

고,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이 얼매나 빌었노? 그 개를 다 먹고 앉았더니만,

"당신이 내가 시킨 대로 하겠나?"

이랜께, 하루 종일 왔으이 거리가 멀잖아.

"한다."

고, 열두시 전으로만 가서 하라고,

"가거들랑 가(그 아이) 속적삼을 벗어가주고 쌔기[14](구술자가 옛날에 명 놨는 것)에 입히서 문 밖에 내 놓고, 소 한 바리 사가주고 몰아가주고 삽작걸에 내놓고, 그래놓고 가(그 아이)를 찾을 때는 물이고 밥이고 아무 거라도, 가가 찾을 때는 싹 들라놓고 문을 닫아 걸고, 가를 붙들고 앉아 있어라."

카더란다. 그래 참말로 그제는 그 소리를 듣고 '걸음아 날 살리라'고 막 달음박질쳤지 뭐. 집에 와서 비 오는날 설겆이 하듯이 다 해놓고, 쌔기에 옷을 입혀 놓고 문을 닫아놓고 모든 걸 밥이며 물이며 싹 방에 다 해놓고 나이, 곧 들오는데, 한밤중 되이 '우르르'카디마는 큰소리를 지르디마는 집등마루를 휘떡 타 넘디 '어흥'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뒤지더마는, 그래디마는, 아를 영감 할마이가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나올라고 몸부림을 치거든. 그렇기나 말기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그러디 쌔기를 물고 막 흔들어재끼디 땅에 때기를 치디마는 '어흥' 카며 가디마는 소를 죽이고는 내빼더란다, 소 한 바리 매 놓은 거를. 그래 간 뒤에는 아가 까무러진 거를 살리가주고 내다보인께, 불한당처럼 해놨더란다. 그래가주고 그 아들을 살리가주고 잘 살더래.

[범방동 설화 10]

효자 이야기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아들을 절에 공부를 하러 보냈는데, 아바씨가 많이 편찮했어. 편찮해가주고 온갖 약을 다 해

14) 구술자가 말한 '명 놨는 것'이란 아마 짚으로 만든 큰 제웅을 말함인 듯.

도 안 나. 안 나, 아들이 아무리 좋다 하는 약을 해도 안 나인께로 누가 말하기를 '인(人)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러거든. 인고기를 먹어야 된다 하이 인고기가 귀하거든. 그러인께 새댁이가,

"아범님 몸에 약을 어데 구했나?"

카인께,

"참 어려운 약인데 이걸 하겠나?"

"무슨 약이냐?"

"인고기를 먹어야 된다는데 인고기 약이 어데 있나?"

이러인께네, 새댁이 말이,

"여보소, 그기 뭐 어렵소. 우리는 낳으면 자식인데, 우리 아들 그걸 불러다가 해주면 안 되나."

이래거든. 그러인께, 양반이,

"참 그 말이 옳다. 그러면 되겠다."

이래면서, 그 놈이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 절에 스님한테 편지를 했지. 아무것이 아무날 좀 보내 달라고 이랜께, 그래 야(이 아이)가 오는데, 와가주고 들어서인께 물을 낋이놨다가 아가 책을 옆에 끼고 나풀나풀 들오인께 오는 걸 끓는 물에다가 주어 옇어뿌리거든. 그래해가주고 약을 시아바이를 해준께 먹고 참 나았어. 나았는데 손자를 찾은께 있나. 그래 아바이가 가마이 생각하이 가(그 아이)가 씨던 책이며 씨던 옷이며 내가 찾아다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 거겔 갔다 말이다. 절에 드간께네 아들이 좇아나와 '아버지 오십니까?' 하거든. 이 사람이 놀래가주고, 자기가 분명히 그랬는데, 왜 있는고 싶어가주고 대답도 못하고 먹먹하고 있더란께,

"아부지 우에 오시었냐?"

"니 보고 싶어서 왔다."

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 아들 살리고 아부지 살리고, 하도 지극하니 부처님이 동삼을 보냈어. 동삼을 먹으면 낫잖해. 산에 동삼을 그래 효자가 그렇더라네.

[범방동 설화 11]

원수를 갚겠다는 구렁이를 퇴치한 신부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옛날에 아들이 독자인데, 야를 절에 갖다 놓어라 하거든. 그래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도 이 집이 재상가 집이 크기 사는 집이 돼노이, 어째든 야를 열댓살만 먹으면 집에 혼인 말 안 나도록 할라고 멀리 보냈는데, 없는 데도 그렇게 혼인 말이 나. 그래 자꾸 졸리다 못해 총각을 날을 정해놓아거든. 정해놓은께, 그래 스님한테도 편지를 하고 아들한테도 편지를 하고 아무 날 장개가는 날인께, 스님도 오라 이랬는데, 그래 스님은,

"나는 못 간께 니 혼자 가거라. 가다가 어데를 가든 다리 있는데 가서 제일 급하거들랑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바로 가라."

카거든. 스님이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시켜 보냈는데, 그래 앞으로 다리 있는데 온께로 천둥이 디리 하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하는 소리에 안만해도 뒤를 돌아봐야 되겠거든.

휘떡(후딱) 돌아본께, 다리 밑에서 빨래를 하고 들어가던 처녀가 오라고 손짓을 하거든. 손을 까닥까닥거리거든. 야 열댓살 먹은기 '오라' 한께 들어가 봤다 말이다. 드간께네 삼을 삼고 있더란다. 삼을 삼는데 총각이 가마이 누워서 이래 보인께, 혓바닥이 나오는데 두 가닥이거든. 야 생각에 '혀가 둘이면 뱀이 혀가 둘이지 사람이 혀가 둘이고' 싶어 그 중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주고 나온다. 나올라 칸께 못나가게 하거든.

"나는 소변이 보고 싶어서 나가야 된다."

한께,

"소변을 여기서 보라."

그래 총각이 하는 말이,

"남녀가 유별한데, 여기서 우에 오줌을 누노? 그래 나가야 된다."

카인께,

"못 나간다."

하더란다. 야를 붙들고 못나가게 한께,

"왜 그렇노?"

카인께,

"당신 부모가 당신이 속에 생길 적에, 우리 부모가 꿩이 돼가주고 세상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당신 부모가 우리 부모를 잡아먹었어. 그래 나도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러인께 당신을 잡아먹어야 된다."

그러거든. 이 사람이 말도 잘 했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데는 내가 못하라 할 수는 없고, 내일 초일(결혼)날인데 집에 가서 초일이나 치루고 첫날밤을 안 자고 오마."

이래거든.

"꼭 그랠나나?"

"꼭 그래마."

"약속을 금석같이 지켜야 된다. 안 오면 내가 갈 테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 집에 와가주고는 어른들한테도 이얘기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장개를 갔어. 초행을 이루고 신방을 채리는데, 드가디마는 신부를 옷도 입히고 가리는 일

도 없고 가만이 앉았더니만 한숨을 쉬디, 담배 한 대 피우디마는 달은 휘영청한데 그만 문 닫고 나가거든.

이 신부가 가마이 생각해보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주고설랑 머리를 니리 닿고 남자 줄라고 해놓은 옷을 대충 입고 남복을 해가주고 달이 훤한께, 여는 천천히 가고 그는 빨리 뛰어간께네 가겠거든.

"여보, 여보, 저기 가는 양반 누군고 나하고 같이 갑시다."

신부가 그카인께, 그래 설설 가인께 따라오거든.

"어데꺼정 가시냐?"

"나는 다리 있는 데꺼정 간다."

이래거든. 그래 신랑은,

"어데꺼정 가느냐?"

"나는 아무데꺼정 간다."

그래 다리 있는데 딱 가인께, 갈라 서거든.

"나는 여게 드가야 된다."

고. 신부도,

"나도 따라 드간다."

못 오도록 한께,

"안 된다고. 거게는 잘 데도 없고, 내 혼자 가야 된다."

"나는 이 밤중에 어데 갈 데도 없고 하이 죽어도 따라가야 된다."

못 오도록 해도 기여히 따라온다. 둘이 드간께, 처자가 그래 앉았거든. 둘이 왔다고 뭐라 커거든(꾸중을 하거든).

"못 오도록 해도 따라온다."

고 그 카고 드가인께, 같이 가서 앉았으이, 자꾸 처녀가 신부를 나가라고 날뛰거든.

"나 안 나간다."

고, 기여히 나가라고 그라인께, 신부가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저 사람하고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죽으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으인께 나를 먹을 거를 대 주고 잡아먹어라."

처녀가 '날 잡아 먹어라' 해도 안 되거든.

"그러면 저 사람이 벌어 먹일거를, 나를 먹일 거를 주고 잡아먹어야 될 거 아인가?"

자꾸 달라들며 그라인께, 이것도 못 당하겠어, 그 구리도. 날 잡아 먹어라 들이된께, 기여히 안 되거든. 그제는 '내가 먹을 거를 주마' 카더란다. 입으로 '확' 카디마는 요만한 연적이 땅에 닐쪄는데(떨어지는데), 궁기 빠꼼 빠꼼한 기 있거든.

"그러면 벌어먹는 법을 갈치달라."

카거든.

"한 구영을 눌리며 밥 나오라 하면 밥 나오고, 한 구영을 눌리며 옷 나오라 하면 옷 나오

고, 한 구영을 눌리면 온갖 것이 다 나온다."
다 갈치주는데, 한 구영은 안 갈치주거든. 그래,
"왜 이거는 안 갈치노? 이것도 써 먹어야 되잖나?"
이러인께,
"그거는 안 배워도 된다."
카더란다.
"우에든지 날 갈쳐달라고, 내가 그걸 써 먹어야 되지, 써 먹지 못하는 물건 뭐 하느냐?"
고. 바짝바짝 달겨든께,
"그거는 제일 미운 사람 죽어라 하면 죽는다."
이러인께,
"아이구, 나는 니가 제일 밉다."
카고, 톡 때린께, 고만 죽어뿌리더란다. 그래가주고 잘 살더래.

[범방동 설화 12]

구경 못하고 죽은 어미가 구렁이로 환생한 이야기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옛날에 놀로 안 나가고 만날 집에만 있으인께, 죽으인께네,
"니는 평생 구경도 못했으니 구경을 잘 해야 좋은 데 간단다. 평생에 집에만 있어놓이 니는 구렁이가 되어라."
카더란다. 저승에 가서 구리가 돼가주고 어데 갈 데가 있나. 바로 집에 있어노이 갈 데도 올 데도 없고, 며느리 쌀 내는 쌀 단지 안에 엎드리가 있으인께, 구리가. 며느리가 쌀을 뜬께 비늘이 하나 뚝 떨어진께, 그래 아들 꿈에,
"야야, 야야, 나는 살아 생전에 구경도 한번 못하고 만날 집에 있어놓인께 죽어 저승에서 나를 구리로 만들어 갈 데가 없어가주고 며느리 쌀 내는 쌀단지 안에 엎드리가 있으이 며느리가 쌀을 내면서 내 등드리를 건드리니 아프다."
라 했다. 깜작 깨어가 아침에 보이 엎드리었는데 등이 터졌거든. 꼭 초롱같이 맨들어가주고
"우리 어무이면 여 들어가고, 우리 어무이가 아이면 어디로 가라."
고. 그래 구리가 들어가자, 온데로 구경을 시켰단다. 어느 곳을 오다 한께, 공동묘지가 있는데,

"야야, 날 놔 달라."
카더란다. 그래 수울 드가더란다. 구경 못하면 구리가 된답니다.[15]

[범방동 설화 13]

매구 잡은 이야기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한 사람이 노름을 잘 해. 지집 자슥은 믹이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돈만 보면 노름을 하거든. 섣달 그믐날 설 실라고(쇨라고) 예전에 길쌈을 해가주고 베를 서너필 팔아가주고 설 장 보게 해가주고 보냈거든. 이놈이 돈을 징기고 도망을 갔어, 노름하로. 노름하고 설 시지 않고 어디로 가뿠어. 가가줄랑 가느라고 가느라고 가다보이 산골에 가인께 푸른 기와집이 있더라네. 불이 환하게 켜있는데 그 딱 드갔다. 드가인께 아무도 없는 빈 집인데 불은 켜놓고 있더래. 거게 들앉았다. 그래 심심해놓이 불은 환한께 자꾸 투전을 한다, 혼자. 날 닮은 사람이 있던 모양이지, 내가 노름을 잘 하거든. [웃음] 투전을 자꾸 하다보이, 어데 신 달달 끄는 소리가 나디마는 발을 털털 터는 소리가 나디마는 문 딱 열디마는,
"아이고, 오빠 오신네요"
이래거든. 오빠라 카인께네,
"오냐, 니가 어디 갔더노?"
"언제 왔어요. 오빠 배 고프지요?"
"그래 배 가프다."
그래 밥을 해주는 것을 먹고 나이,
"오빠, 씻고 자요."
"나는 안중 안 잘란다. 니 자거라. 자거라"
"오빠 무릅팍을 비고 자야 된다."
카며 무릅팍을 비고 자는데 가마이 보인께, 그 밑에 노란 털이 송송 하이 이렇거든. 그만 여우겠다 싶어가주고, 그래 쿨쿨 자더라네. 쳐다본께 거기 절인데, 중은 다 잡아먹고 몽침(木枕)만 망태에 담아 천장에 달아놓았더래. 옛날에 중들은 몽침을 빚잖아. 그래 가마이 본께, 야가 정신없이 자더라네, 가마이 머리를 무릅팍에서 니라놓고는 망태다가 주옇어뿠어. 주 옇

15) 살아 생전 구경을 하지 못하면 죽어 구렁이 또는 개(강아지)로 환생한다는 설화와 돈을 많이 가지고도 인색한 생활을 하면 죽어 구렁이로 환생하는 설화는 많다.

어 달아놓골랑 혼자, 거짓말을 해도 나만치 못하면서 그래. [웃음] 투전을 하다본께 날이 새인께네 막 꼬불랑 꼬불랑거리면서 '오빠야'고 나부대거든. 나부댄께, '오냐'카더만 망태를 니라가주고 자꾸 때맀어. 자꾸 때린께 죽어버리더래. 그래 망태에서 끄집어 낸께 꽁지가 열다섯 발이나 되는 여우더란다. 잡아가주구설랑 아직에 그놈을 둘러메고 니러온다. 그 밑에 동네 사람들이 여우 잡았다고 고마워가지고 돈을 많이 주더라네, 고맙다고 그러면서. 사례하면서 돈을 주어 돈을 벌어가주고 지고, 여우 베끼가주고 집으로 온께 마누래가 아들하고 설도 못 시고 그래 있더라 그래.

"우에 염치없이 오노?"

이래더란다. 그래도 돈 벌어가주고 온께로 이마음저마음 없이 잘 살더란다.

[범방동 설화 14]

세 풍수가 복 받으라고 써준 묘터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풍수가 서이서 길을 가는데, 저물어가주고 원두막에 가서 자는데, 원두막에 가서 잘라고 거기 가인께, 주인 영감이 하나 있는데, 비가 그만 쭈루룩 들어붓네. 그래 할 수 없어 거기서 자는데, 원두막 주인의 할마이가 저녁을 해가주고 왔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나. 밀가루 수지비 그걸 낋이가주고 왔는데, 한 그릇 해가주고 오인께네, 그래 영감이 하는 말이,

"여보게, 손님이 시 분이나 되는데, 가서 좀 더 가주 오게."

"그래지요. 뭐."

그 비가 오는데, 군소리 없이 가거든. 가설랑 또 그걸 낋이가주고 왔어. 서너 그릇을 낋이가주고 왔어. 주인하고 서이가 먹지. 그래 가마이 생각한께, 군소리하지 않고 가서 해가주고 오는 것이 얼매나 고마운지 몰래, 비는 오는데. 상을 찡그리고 그럴 건대 그것 없이 그래인께 하도 고마우서 이얘기를 한께, 지녁에 자면서 이얘기를 한께, 자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영감할마이가 그렇더라 그래. 그래 풍수들이가 안중 아바이가 상(喪)을 당했는데, 장사를 못 지내더라 그래. 그래 풍수들 서이가,

"우리가 주인 마누래가 그렇기 착하게 하는데, 우리가 재물도 보고 자슥도 보고로 우리가 미터를 하나 잡아주자."

이랬거든. 그래 아직에 미터를 잡으인께, 그 앞에 미터가 있어. 잡아놓고는 풍수가 서이가 한께로 얼매나 잘 하겠노?

"어느 좌향은 어디로 놓고, 어느 좌향은 어디로 놓고 전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잡아 주었으나 돼도 않을께니 우리가 대강 해주고 가자."

이랬거든. 그래 주인하고 너이서 장(葬)을 지내주고 간다고 하고, 그래 일난께 날이 부움하게 새인께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그 미터를 잡아 써주고는 쉬도 않고 쭉 가붔지. 갔는 뒤에 호래이가 그 영감의 할마이를 업고 가뿌리었어. 일이 잘 될라고 그러는지 할마이조차 잃어뿌고 영감이 낭패거든. 그래 영감이 외딴 오두막집에 사는데, 할 수 없이 할마이도 잃어뿌리고 찾아볼 도리도 없고 호래이도 천리 만리 달아나뿌고, 그래 놓이께네, 영감이 낋이 먹고 있는데, 며칠 뒤에 웬 여자가 보따리를 이고 오거든. 그 날도 비가 그렇기 오니까 비 피할라고 집이 있은께, 비 피할라고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비가 자꾸 들이부인께 그 중에 비를 피해 정지에 들어갔다. 처마에 섰으이 비가 자꾸 들어오이 정지에 들어갔다. 그 전에는 내외를 얼매나 했노? 여자가 비를 피해 섰는데, 영감이,

"나는 저녁을 할 챔인데, 좀 비끼 주소."

이래거든.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오?"

"나는 내 혼자 있소."

"밥을 해야 되니까 비껴 주소."

"아이, 그렇거들랑 쌀을 내주시오. 내가 해 줄께요"

방에 들앉았은께, 그래 밥을 해주고설랑 자기도 얻어먹었지. 그래 있다 비가 정지꺼정 들어온다. 그래 여자가 할 수 없이 방에 들어갔다. 영감 자는데. 권해 주는데, 안 들어갈 수 있나, 색시가. 그래 영감 색시가 붙들여 살았어. 살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서울서 정승의 딸인데, 혼자 되인께네 거처없이 오느라고 왔어. 오면서 생금을 지니고 왔거든.

그래 이 여자가 생금을 팔아가주고 집도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도 사고 아들 낳고 이래 사인께, 알꾼을 데리고 사는데, 영감이 가마이 생각하이 전에 할마이 생각이 난다. 이 할마이가 내하고 살 때는 죽을 고생을 다하고 배도 곯고 이래다가 죽음조차 얻지 못하고 이래면서 눈물을 머금고 아를 보고 앉아 있으이,

"아이고, 영감 집에 있는교?"

하고 할마이가 집에 들어오거든. 호래이가 물고 갔는 할마이가 왔거든.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 할마이거든. 깜작 놀래 아를 놓고 나가면서

"어데 갔다 이래 왔노?"

이라인께,

"나를 호래이가 업어다가 강원도 금강산 대반석(大盤石)에 갖다놓은께 내가 살 수가 있는교? 그래 살살 내려오다보이 이래 몇 년이 되었다."

카더란다. 그래 오인께, 할마이가 들어와 아들도 잘 보고 집도 잘 보고, 그래 잘 살더란다.

그래 그기 호래이가 업고 가가주고 못 먹도록 미를 써놓았더란다. 할마이가 없어야 장개가기 쉽거든. 그래 미터를 잡아 주았더란다.

[범방동 설화 15]

대감의 은혜를 갚은 도둑

구 술 자: 권기영(여,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도둑질 이얘기를 해주마. 아들은 많고 믹이 살릴 수는 없고 본께 식구가 아홉 식구가 되는데, 믹이 살릴 수는 없고 해서 우엘 수가 없어 도둑질을 갔어. 소를 훔치러 갔는데 춥기는 하지 담을 뜯어야 드갈 챔인데, 소마구 담을 뜯어야 될 챔인데, 뜯으이 손이 시리고 뜯으이 손이 시리고 이런데, '호~호~' 부는 소리가 나거든, 손이 시리서.

안에서 대감이 가마이 잠을 들다 깨보인께, '호~호~' 부는 소리가 나거든. '이상하다' 싶어가주고 그래 내다보인께 소마구담을뜯거든. 뜯은께 예전에는 화리에 불 담은 초석이아는 것이 있었다. 초석을 솟군께 불이 벌겋게 살거든. 밀창을 가마이 밀골랑 내놨다. 좀 쬐라고. 쬐라고 내놓으이, 이놈이 손이 시리가주고 '호~호~' 불다가 살펴보인께, 불이 벌겋게 있으이 갖다 놓고 쬔다. 갖다놓고 쬐면서 뜯으인께 쉽게 뜯어. 뜯고 마구에 드갈 챔인데 그제는 대감이,

"그 누군고?"

이랬거든. 이놈이 놀래가주고 우엘 수가 없어. 그런데,

"추운데 이리 들오게."

그래 이미 알아설랑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드갔다. 드간께,

"추운데 손 시리지, 불을 쬐라."

이러는데, 예전에는 정승의 집에 앉아서 줄로 이래 하면, 기별이 들어간다 말이지. 그래 나오인께,

"밤에 손님이 오셨는데 춥다. 추우니까 뜨시도록 뭐 해가주고 오라."

이라거든. 그래 뜨시게 낋이가 준께 먹지 않으이,

"먹게, 먹게"

자꾸 이라거든. '먹어라'칸께, 이놈이 안 먹어도 죽을 터이고, 먹어도 죽을 터이고 하이, 먹고나 본다고 먹고나이께, 대감이 일나 서디마는 벽장을 열디마는 돈을 딱 내주거든.

"자네, 이거 가주가게, 가주가서 아들하고 먹고 살게."

이놈이 우짤 줄을 모르지. 그러인께네,

"자네는 이 소를 가져 가며는 파느라고 송구시럽고, 나는 마구가 무너졌으이 고친다고 품이 들어간께네, 서로 피해를 보세."

카면서 '가주가라'고, 그래 가줘 나오면서 이 도둑놈이 '평생에 내가 이 짓을 안 해야 되지'

하고 나왔다 말이지. 나와가주고 시방매이로 벌어 먹을 줄도 모르고 그놈 돈만 자꾸 먹고나이 식구는 많지. 그래 얼매 가나. 이제는 이 대감한테는 갈 수도 없고, 다른데를 가야 되겠다 하골랑 갔다. 한 대감 집엘 가가주고는 거기에는 대문 닫기 전에 머이 드갔어. 드가가주고 가마이 들어가서 마리 밑에 가마이 숨어 있다인께, 전부 문 닫고 들어가디 밤이 이슥하도록 여기저기 실컨 놀디 불을 끄고 자는데, 별당에는 전혀 불이 안 꺼진다 말이다. 불이 꺼져야 소를 몰고 나올 챔인데, 안만 바래도 별당에 불이 있거든. 저놈의 데 뭣하는고 싶어가주고 도둑놈이 거기 가서 마리 밑에서 가마이 앉아서 숨었다. 숨어서 보인께네, 처녀가 별당에서 나오디마는 베자치를 확 담 너머로 넘기더란다. 별당 너머로 넘기인께네 그 줄을 타고 넘어오거든. 넘어오는데 보이 중놈이더래. 그래 이기 가마이 앉았다가 중놈이 넘어오는 것을 보인께네 뭣을 하는지 보고 싶어가 들으인께,

"너는 아무날 혼인돼 시집간다지?"

"그래."

"어디로 가노?"

"아무 대감 손자란다."

"니는 좋을따. 그렇지만 나는 우에노?"

중놈이 이랜께,

"다른 수가 없다. 궤가 저 있는데 궤 안에 내가 머이 들어가, 내일 잔치에 오늘 지녁에 들어오거들랑 궤 안에다 나를 옇어놓으면, 그날 지녁에 신랑.신부 신방을 채리거던, 나를 문을 열어주며는 내가 나와서 신랑을 처리하고 너하고 내하고 도망을 가면 되잖나."

이카거든. 신부가 '그래라' 카거든. 그래 '아무 대감'이라 카는데 본께네, 소 훔치러 갔던 그쪽 대감의 손자라 말이래. 이기(이 도둑놈이) 가마이 생각하기를 이때가 아이면 공을 못 갚겠다 싶어가주고 고마워가주고 그 공한다고 그 집엘 갔어. 가인께네, '대감이 다 먹고 곤란커든 오라' 했거든, 돈을 줄 적에. 또 왔는 줄 알고 그래,

"하매 다 먹었지?"

이라거든.

"글쎄 그것도 아이고, 이만저만하고 아무데 아무 대감 집으로 장개를 보냈나?"

"그렇다."

"그래 이만저만한께 그리 보내지 말지요."

이러거든. 대감이 가마이 앉았다 생각을 하디, 손자를 부르거든. 그래,

"나오라."

하이 나온다 말이지.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며 장개를 못 가도록 한께,

"지는 그리 갈납니다."

이러거든.

"왜?"

그런께,

"나는 가서 죽어도 우에가주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지마는, 내 안 가면 딴 사람이 오며는 뭣도 모르고 죽지 않느냐? 그러인께 내가 간다."

이래거든. '신랑이 간다' 하이 대감도 내삐뒀지.

갈차주로 온 사람을 하인으로 세우고 가는데, 낮에 칼을 벼루고(벼리고) 또 벼루고 해서 비수(匕首)를 맨들어가주고, 예전에는 남녀간에 칼을 찼다고. 딱 차골랑 장개를 가는데, 그날 지녁에 예를 치루고 신부방인 별당에 들이거든. 별당에 떡 들어가 있으인께 '도령님이 자면 내가 한데에서 기침을 하고 도령님이 안 자면 내가 가마이 있고' 그래 약속을 해가주고 갔는데, 그래 가가줄랑 조금 있다가 신랑이 자는 척하고 있으인께, 신부가 뿌시시 일나더란다. 일나디 열쇠를 열라고 일어서거든. 신랑이 기지개를 쭉 펴면서,

"왜 안 자고 그러느냐?"

고 이래거든. 또 니러앉고 니러앉고 한 서너 번 그래고 난께 날이 새거든. 못 죽였어. 상객을 떠나보내고는 장난을 시작하는데 처남과 처남댁들을 불러가 노는데, 그래 신랑이,

"우리 칼장난 안 할란교?"

이란께,

"칼장난을 하자"

"누구 칼이 더 잘 드는고 하자."

"어느 걸로 칼질을 하느냐?"

"저 궤짝으로 하자."

신부가 기절하거든.

"그건 그래만 안 된다."

고. 그걸 철라 하이 기가 막히거든.

"우리 집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기 쌨은께 걱정없다고 버리도 괜찮다."

고, 모두 와서 칼로 찔러인께 예전에 궤짝은 얼매나 두껍노? 칼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고 뚝 뿌러지는 것도 있고, 휘청 굽는 것도 있고 안 되거든. 안 되디마는 그래 이 신랑이 제일 내중에 들어갔지.

"아이구, 그런 칼을 가주고 그러이, 내 칼 한번 구경해 보라."

고 카면서 꾹 찌르거든. 찌르이 들어가거든. 빼내보이 피가 묻어 나오거든. 나온께네 여기에 뭐가 들었는가 하는 소리도 없고, 그만 '마상을 들이대라' 하고 말을 타고 와버맀다. 그 집에는 신랑 잃어뿌리고, 중도 죽어뿌고, 그랬지, 그래가 사더란다.

[범방동 설화 16]

분절리의 찰방묘 전설

구 술 자: 안갑선(여, 69)
구술 날짜: 1992년 1월 19일
구술 장소: 범방동 탑동마을

근데, 저 요새를 지금 말이여. 저 군수라 이카지요. 과거에는 저 과거를 보이거든. 과거를 보이가지고 과거에 등과가 되면 내직 외직이 있었거든. 내직은 보면 인자 궁중에서 요새 저 장관 모양으로 정치를 하고, 외직이 되면 뭐냐 카면 참 요시 인자 저 군수로 나오고. 나오는데, 그 분이 성은 누구냐 카면 저 서씨라 서씨. 서씬데 이름은 내가 모르겠고.

그런데 여 미음동 분절리라 카는데, 저 분절리라 카는 동네가 있어요. 그 한복판에 가면 큰 묏뒹이 지금 있어요. 지금도 보면 묏뒹이 있는데, 그게다가 자기 집을 두고, 창원군 장유라는 동네, 장유에 찰방, 찰방의 벼슬로 지냈어. 찰방의 벼슬이 지금 어데 속하는 줄 모르겠어요. 벼슬이 찰방인데, 그러면 창원에서 이 분절리까지 내왕을 했어. 그러이 순전히 육로로 걸어가거든. 걸어가는데 고개를 넘기로 뭐냐 카면 여 분절리 뒤에 무검티고개라는 고개가 있고 장유 가면 재침고개라는 고개가 있어. 그러면 가는 질이 거리가 얼마냐 카면 한 백 리 되어, 그럼 오가고 이백 리를갖다가 출퇴근했는 기라. 직장이 거 있는데. 마부가 말로 몰고 말로 타고 가는 기라. 가는데 아침에 여게 나갈 때, 새벽에 어둡기 횃불을 잡고 있는 기라. 요시는 전기도 있고 전등도 있지마는 그때는 말이지, 순전히 저 지름불로 맨들어가 말이지 들고 아침에 일직이 출근을 하이끼니 산고갤로 어두울 때 그래 출근해 가지고 저게서 자기 직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또 어둡는 기라. 그러이 밤에 역시 오면 이쪽에서 인자 오기 되면 또 인자 그 집에 마부들이 또 저 고개까지 말이지 불로 들고 마짐이로 나가는 기라. 나가는데, 그러구로 저러구로 한 2, 3년간 자기가 그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했어요.

그분이 찰방직을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한날은 왜냐 카면 저 출근을 할라 카이 비가 와. 비가 오는데, 그날은 마부를 많이 몬 데리고 갔어. 몬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마부를 많이 몬 데리고 간다. 한 사람만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찰방되는 이가 마부를 한 사람 데리고 갔어. 가는데 마부가 여럿이 있는 중에 그 상관의 말을 듣긴 들어도 좀 어데고 말로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 한데 자기는 하이튼 오늘 저 사람이 힘도 좋고 말도 잘 몰기에 데리고 가면 말이지. 오늘 내가 좀 편리하것다 싶어 데리고 갔는데, 그러나 그 안에 그 찰방의 부인은 마부를 데리고 매일 출퇴근하는데, 어느 마부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하고 어느 마부는 말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해필 그날 찰방 어른이 말 잘 안 듣고 억센 그 마부를 데리고 갔어. 이래서 언제라도 갔다가 오기 전에는, 집에 오기 전에는 이 부인은 안심을 안 하고, 잠을 몬 자고 있는 기라. 행여나 사고

나 날까 싶어서.

이러던 차에 그날 역시 자기가 의심나는 그 마부를 데리고 출근을 했다 말이지. 했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온다 말이야. 안 와서 가마이 그 부인이 생각을 해본께 틀림없이 뭔 사고가 났는지 싶으다 말이지. 싶으서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와서 있으인께, 그러니께 고 날싸 말고 그 마부가 말이지. 억센 마부가 여하튼 내가 언제라도 너를 희생을 한번 시킨다. 그 상관을 말이지. 희생을 한번 시킨다. 요런 계획적 딱 마음을 품고 있어. 있는 그 찰라에 그날 비가 오는데 지 혼자만 데리고 갔으인께 말이지. 이 기회가 좋았다 말이지. 그런께 저 창원서 인자 자기 직무를 마치고 고개를 싹 넘어가지고 장유라 카는 데서 이 고개를 넘는데, 오는 그 찰라에 딱 말로 몰고 나오다, 딱 '찰방을 내리라' 참말로 내리라 카는 기라. 그러니께 그 뭐 종한테 힘은 모지래고 할 수 없이 내리야지. 그래가지고 그 상전 상관을 끌고가서 그 건너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그 개고랑가 가서 마 희생을 시키뿠어. 살해를 시키뿠어. 살해를 시키뿌니께, 그러이 말이지 옛날에 말을 타고 가다가 종이 상전을 죽이뿌고 나면 말이지. 그럼 말은 못 붙든다 말이지. 말은 지대로 가거든. 말이 상전의 소식을 전하기로. 말이 전한다 하거든. 근대 그 종은 말이지. 저 상전, 저거 상전 말이지. 직인다고 말이지. 뭐하는 순간에 말이 뛰오거든. 뛰오니까 자기 부인이 알았다 말이지. 어, 옳지! 오늘 어느 종놈이 우리 상전을 싣고 모시고 가가지고 또 어데 희생을 시킨 순간에 말이 소식을 전하는구나 싶어서. 그러인께 그 찰방 어른 오기 전에는 전부 불로 캐놓고 말이지, 전부 대기로 하고 있는 기라. 그래인자 그 종을 그 말 마부를 불러가지고 저 말을 저 몰아다가 마구에 매라 카이 말이 말이지, 말이 사람을 말로 못해도 사람의 생각과 한가지라 카거든. 그러인께 나가인께 말이지. 이 상전 부인이 나간께 상전 부인을 보고 꼬리를 치고 눈물을 흘리는 기라. 그러이 상전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그래 말로 딱 붙들어 매놓고 반다시 이전에 종이 상전을 해치고 나면 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 부인을 해치거든. 그래서 이놈이 틀림없이 날로 해치로 올리라 싶어서. 딱 종들로 말이지 전부 너그는 지금 방에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 누우자라 그래. 그라이끼네 상전의 명령이 되이끼네 안 드가 잘 수 없거든. 그런데 그 종들도 드가긴 드가도 뭔가 의심스런게 생기났다 말이지. 났는데, 그래놓고 인자 자기가 옛날에 다듬이하는 홍두깨 저거를 딱 들고 말이지, 자기 방안에 말이지. 문앞에 딱 서가 있거든. 오면 인자 딱 틀림없이 그 상전에 부인을 해칠라고 말이지. 문을 열고 들어올거는 틀림없거든. 딱 대기로 하고 있으이, 저녁 한참 있으인께 오거든. 와서 그때는 뭐냐 카면 뭐 상전이고 뭣이고 이것저것도 없이,

"문열어라 이년아!"

대번에 그래. 아무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있으인께, 문을 착 차고 들어오거든. 딱 들어오는 것을 딱 여자가 부인이라도 간도 대담하고 말이지. 이래서 니가 상전을 쥑이놓고 나를 죽인다고 오는데, 내가 니한테 죽겠나 이기라. 그래서 딱 대가리 들어오는 걸 갖다가 말이지. 그러인께 대가리 머리부터 머이(먼저) 들어오거든. 들어오는 걸 갖다가 홍두깨로 대가리를 딱 쌔리줬어. 악이 올라 쌔리인끼네 말이지, 그 여자가 어디 있노 말이지. 마 타박상이 돼 딱 죽어뿌는 기라. 그래 인자 죽고 나서, 말하기로 '그 자기 영감을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본래 내

가 위태롭다고 위험하니까 그게다 소첩을 하나 정해놓고 날 저물거든 거어 자고 내왕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내가 그런 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고집을 씌아가지고 자기가 종의 손에 죽으니 원통타' 그래. 이래가지고 그래 그 안날(다음날) 그 죽은 시체를 찾아가지고 모시놓고 자기 정침에다 말이다. 정침 지은 그 자리에다가 싹 불로가 뜯어뿌고 고 자리다가 묘를 써놨는데 그가 인자 찰방 벼슬이 찰방인데. 찰방이 참 요시 인자 직에 비교하면 그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그거는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 근대 그 묘가 아직 있는데, 그 묘가 굉장히 봉분이 컸어요. 그런데 그 묘를 써놓고 자기네들은 다 떠나뿠어요. 대구로 과거에 오래됐거든. 대구로 갔다 카는데, 대구 있는지 서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묘에 봉분이 굉장히 컸다고. 컸는데 동네 복판이 돼놓이끼네, 묘에 아무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인께, 막 아들도 삐대고 어른도 삐대고 뭐 나무삐까리도 삐대고 하이끼네 지금은 뭐 봉분이 쑤욱 낮아지가 있어요.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43~547쪽.

[범방동 설화 17]

두꺼비의 보은

구 술 자: 홍성연(남, 68)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옛날에 한 집에 처녀가 이리 있었는데, 처녀가 밥할 때마다 뚜꺼비가 나타나서러 뚜꺼비를 밥을 주면 때때마다 와서 밥을 묵고 그러는디, 한번은 인자 처녀가 시집을 가게 돼가 있는디, 팔리서 가는 기라.

그리 그집 팔리간 집이 기왓집인데, 그 춘새틈에 지네가 있는 기라, 그 팔리간 집이. 지네가 나타나서러 집안 식구들을 잡아먹으이 께네, 그 지네를 잡아야 되는데, 처녀는 인자 동네가 그 하이께네, 망할 동네가 돼놓으이, 어짜지 못하는 기라.

그리가지고 처녀가 팔리가서 한날 밤이 됐는디, 밤 열두 시나 됐는데, 밤중 되면 뭣이 나타나는 기라. 옛날에는 호롱불이거덩. 켜놓고 앉아 있는디, 뭣이 막 노성벽락하는, 노성치는 만치 이리 하더니마는 지네가 나타나거덩. 그때 저 뚜꺼비가 나타나는 기라. 뚜꺼비가 나타나서 입으로 독을 품는 기라. 뚜꺼비하고 지네하고 싸우는 판이라. 상각(상극)이지. 뚜꺼비하고 지네하고 싸우는디, 그래서 뚜꺼비를 가만히 보이 뚜꺼비가 독을 품어놓이 지네가 동가리가 나는 기라. 그래가지고 지네를 인자 잡았다 이기라, 뚜꺼비가 이기고. 처녀가 뚜꺼비로 밥을

믹이가 키와놨인께 그 은혜로서 그기 안개로 피와가지고 지네로 동가리 내뿠는 택이지. 은혜 갚는 기라. 처녀는 그래 그 기왓집에서 살았지.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43쪽, '두꺼비와 지네'.

[범방동 설화 18]

여우 이야기

구 술 자: 홍성연(남, 68)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이거는 실화라. 우리 아부님 얘긴데, 저어 살기로 탑동에 살았는데, 아부님이 힘이 좀 좋은 편이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나무를 해가지고 밥을 해 묵고 사니까네, 이짝 산에는 나무가 없고, 저기 곡(谷)을 넘어가야 나무를 좀 하거덩. 그래가지고 만날 생나무로 해가 오다가 온(오늘)아적(아침)에는 갈비로 해가와서 밥을 해 묵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것도 혼차 나무를 댕기는 게 아니라 어불라서 같이 가는데, 온아적에는 저 나무하러 오기 전에 내가 앞에 가서러 저 사람들이 올 때 되면 내가 한 짐 안 허겄나 이리 생각 묵고 나무하러 넘어갔는 기라.

저 곡을 못 넘어가서 탕건봉으로 가는 길이 있거마는. 나(나이) 많은 사람 쓰는 탕건면치로 돌이 그리 생깄는 기라. 탕건봉이라 카는 방우가 있는데, 그 밑에 봇단이 쉬는 장소인 묏등이 있는디, 나무하러 올라가니까 아주 젊은 새파란 여자가, 젊은 여자가 묏등 앞에 것(거기)다가 경대(鏡臺)를 갖다놓고 머리를 빗거덩. 머리를 빗고 앉아 있었서러, 그래,

"요망시럽고로 야밤에 머리를 빗고 앉아 있냐?"

고 이러이까네,

"길가는 사람은 길이나 가지 간섭이 많애요."

그래가지고 올라 가뿠는 기라.

올라가서 저짝 건네 가가지고 거(거기) 층계돌이 있거마는, 층계돌에 올라가서 뒤를 돌아보인까네 온데간데 없드라네. 여우라 그기(그것이).여(여기) 옛날에는 여우가 있었다 카거덩.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43~144쪽.

[범방동 설화 19]

탕건바위

구 술 자: 주옥도(남, 66)
구술 날짜: 2000. 10. 3.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우리 동네에 탕건바위라 카는 바위가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인자 갈비(마른 솔잎) 긁으러 가거덩. 지게를 지고 갈비를 긁으러 짚은 산을 넘어가몬 저 우리 이짝 산에는 갈비가 없고 그 곡(谷) 넘어가며는 솔 지슨데(짙은데) 가서 갈비를 긁어 온단 말이지. 한 짐씩 해가지고 온단 말이지. 여나뭇이씩 인자 오모는 거기서 장개갈 분이 있어요. 나도 장개가기 돼가 있고, 저도 장개가기 돼가 있고 선생도 장개가기 돼가 있는 그 차판에, 그 쉼포터(쉼터)가 있어 가지고 쭉 나무를 받쳐놓고 논단 말이지. 놈서러(놀면서) 뭐라 캤나 카모는 돌맹이를 조와 가지고 저 바위(탕건바위)를 한번 딱 때리며는 처음 한번 딱 던져가지고 맞추며는 일년만에 장개 가지고(가게 되고), 두 번째 맞으몬 이년만에 장개간다 카는 이리(이렇게) 전설이 있거덩요. 고기 한번도 안 맞으면 장가 못 가네요. 열 번이라도 안 맞추면 장개를 못 가는 기라. 그 예전 그 바위로 보고 해설이 나왔는데. 그래 마침 이 마을에서 던진다고 던진께, 여러이 시합을 해가이 던지인께, 한 사람이 딱 던지이 그 바위 탕건바위에 탁 맞아뿐 기라. 탁 맞으이 그 사람이 장개 가더라 캐, 그해에. 그해 장개 가가지고 참 아들 딸 낳고 잘살다가 늙어서 죽었거마는.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44~145쪽.

[범방동 설화 20]

도깨비 이야기

구 술 자: 장필련(여, 76)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옛날에 노인이 한 분 밤길로 오인께, 회칭이(도깨비)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어르신, 어데 갔다 오십니꺼?"
이러 카더라 카데. 그래 그 노인이 참 담이 크고 정기탔던(겁이 없던) 모냥(모양)이재.

"음~ 너거 내 불 밝히라."

카이, 불을 밝히고 그래 앞에 가는데,

"어르신, 고기 이거 지지(지져) 자시이소."

캄서러 고기를 한 젓거랭이(꾸러미) 주더라네. 그래 회칭이는 노인을 동네까지 모셔다 주고 인자 사라져뿌고. 그래 노인이 고기 그거로갖다가 대문 옆에 달아놓고 아측(아침)에 가보니 메신짹(짚신짝)이로 달아놨더라네, 고기는 아니고.

그래, 또 한 사람은 물로 펐다 카데. 지금은 수리구역이지마는 옛날에 물이 없을 적에는 웅딩이(웅덩이)를 파갖고 물이 나오는데, 논에 물 댈라고 퍼거든. 퍼인께 뭣이 키가 팔대장 겉은기 와서 인자, 물 퍼는 사람들이 콩을 볶아다 놓고 집어먹는데,

"콩 좀 도고(달라)."

이래 카더란다, 키가 팔대장 겉은기. 그래가지고 콩을 줬단다. 줬더니 널름 묵어뿌고, 또 돌라(달라) 카더라네. 또 돌라 캐서 또 주고, 또 돌라 캐서 또 주고, 인자 콩도 없고 저 놈아 한테 당하겠다 싶어서러 다깨칼(주머니칼)이 있었단다. 고거로 빼가지고 그 놈을 칵 꼽아놨더라 카네. 꼽아놓고 집에 죽어라꼬 바뿌기(바쁘게) 달려 왔거든.

그라고 다음날 아측(아침)에 가 보이까네, 옛날에 타작하는 도루깨(도리깨) 것다가(거기다가) 다깨칼을 딱 꼽아놨더란다.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66쪽.

[범방동 설화 21]

장전동 우물 이야기

구 술 자: 장필련(여, 76)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우리 동네 여거(여기) 우물이 있거든. 우물이 있는데, 동네 사람이 밤에 어두운데 논에 갔다가 돌아오며 보이까네 우물에 물로 퍼는 소리가 나쌌더란다. 밤중이 넘었는디. 이상하다 싶어서 보이, 각시가 새파란 각시가 물로 퍼놓고 머리를 감더라 카네. 지침(기침)을 하이까네, 그만 사라졌뿌더라 카네.

고(거기) 새미(샘)가 어떻노 하몬, 새미(샘)를 고칠라 하든지 우째 하몬 손바닥만한 메그지(메기)가 있거든. 메그지(메기)가 있는데, 메그지(메기) 그기(그것이) 막 뿔뚝물(구정물)을 이루던지 하몬 없어져.

그 우물이 예전에는 지하수도 안 파고, 그 우물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리 했는데, 우물

에 가몬 메그지(메기) 요게 내다보거든. 내다보면 빌거든.

"우째든간 미륵한(미련한) 중생을 갊지(상대하지) 말고 어디 좌중하라꼬"

이리 빌어놓으면, 그 메그지가 온데간데 없거든. 고런 일이 있었어.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67쪽.

[범방동 설화 22]

거적 밑에 죽을 정승 아들의 팔자

구 술 자: 장필련(여, 76)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옛날에 정승이 아들로 장개(장가)를 보낼라 카는데, 이놈의 자슥이 어찌 허랑코 술로 묵고 지랄하는지 개구신맨치로(개귀신처럼) 그라는지, 장개 디릴 데가 없고, 정승이 자슥 사주를 보인께네 저놈은 어쩌든강(어떻게든)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꺼지기(거적) 밑에 죽을 그럴 팔자더란다. 복이라고는 없고. 그래서러, '복 있는 처이(처녀)를 하나 구해가지고 주면 밥이나 묵고 살겠지' 싶어서러, 그래 개나리 봇짐을 짊어지고, 어디 처이가 있는가 싶어 온 고을로 떠다인께, 한 처이(처녀)가 물로 이고 들어가는디, 참 머리를 쟁반겉이 땋고 그리 좋더란다. 그래서러 인자 그 처이를 따라 집에 들어가보인께 백정 딸이라. 그래 백정이,

"아이구, 우째 이리 왔습니꺼?"

라고 이리 인사를 하고, 앉으라 카고 이래쌌거든. 그래 인자 저녁상을 받고,

"다른게 아니고 내가 너그 딸로 내가 아들로 장개를 디릴라꼬 그런다."

"아이구, 당치 않는 말입니더. 우째 나으리캉 그런 혼인을 할낍니꺼 함부래(함부로) 안 됩니다."

고 그런다. 그래도 그냥 돌라(달라)카인께, 그래가지고, 인제 처이를 뎃고(데리고) 갔어.

저그 집에 뎃고 와가지고 그 자슥캉, 아들캉 살리는데, 그냥 뎃고 와가지고 살리는데, 이기 술로 묵고 온 천지로 돌아댕기고, 그러굴로(이럭저럭) 머시마(아들)를 하나 낳았더라 카네.

온 천지 돌아댕기더마는 죽을 때는 어디서 죽노 하니께네, 저기 죽을 때는 들에 나가서러 꺼지기 밑에서 그리(그렇게) 죽더라네. 술로 묵고, 딱 저그 아부지 말대로 딱 맞았어.

그래 복이 있는 백정 딸은 그 아들캉 잘 살았지. 그 살림을 안 놓치고. 남자는 팔자 사주에 날 때 꺼지기 밑에 죽으라는 팔자더란다. 어떻게든 고칠라 캐도 안 된다는 기라.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67~168쪽.

[범방동 설화 23]

시주단지 깨고 아들 낳은 사람

구 술 자: 장필련(여, 76)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자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밤에 밤길로 걸으니께, 두루마기로 하얗이 입은 사람이 뒤에 자꾸 따라 오더란다. 따라오는디, 그래,

"어데 가는 사람이요?"

이러카인께, 그래 저

"아무것이 집에 찾아간다."

이러카더란다. 그래 아무것이 집이 딱 그 노인 집이거든. 그 사람이 오는 집이거든.

"그래 우째 그 집에 가능교?"

물으니께,

"우리 아들이 그 집에 넘(남)의 집을 사는데, 온(오늘) 저녁이 내 갓날(제삿날)이 돼서러 물 얻어 묵으러 간다."

이카더라네.

그래서러 인자 저그 아릿방(아랫방)에 쪼깬(조그마한) 꼴머심(꼴머슴)이 있는데, 문을 열어 줌성(열어주면서) 이 방이라꼬,

"들어가라."

카이 솔~ 들어가뿌거든. 솔~ 들어가는디,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웃방에 올라와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저그 마느래를 보고,

"니 아무 군담(잔소리)하지 말고 아릿(아래) 솥에 소죽 낋이는(끓이는) 솥에 머릿물 데피(데워)가지고 머리감고 밥 한 상 지어가지고 자반 한 마리 굽고 아릿방에 딜라(들여) 주라."

그리캤더이마는, 그래 마느래가 그래 주는 걸로 영감쟁이가 아릿방에 딜라줬다. 딜라주이, 그리 그 구신(귀신)이 안 묵겠나?

그래, 인자 영감쟁이가 가만히 방에 누워가지고 생각하기를 '세상에 넘(남)의 집에 살고 아무 것도 없어도 자식이 있으인께 물 얻어 묵으러 오는데, 와(왜) 나는 이리 자슥이 아무 것도 없고, 돈만 있으면 뭣 할것꼬?' 싶어서 저그 집에 모시고 있는 시주단지를 꺼내가지고 마당에 집어 던짐성,

"자슥도 하나 점지 안 해주고 날로 못 살게 하는데 시주단지 이거는 뭐 할 것고?"

하고, 시주단지를 마당에 던져뿠는데, 그러구로 있인께 그 태기를 받아가지고, 아들로 놓고(낳고) 늙어서 끝을 보고 살더란다.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68~169쪽, '시주단지 깨고 아들 준 사람'

[범방동 설화 24]

양자 둔 사람의 제삿날

구 술 자: 장필련(여, 76)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옛날에 한 사람이 자슥을 못 놔서 양자로 딜이놨거든. 양자로 딜이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을로 지내다가 보인께, 저그 친구집이 있거든. 친구 사는 동네가 있어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어. 찾아들어 갔더니마는 저그 친구는 벌써 세상을 떠뿌고 없고, 그렇는데 참 고날(그날) 저녁에 저그 아부지 제사라 쿠더란다.

저 양자가 들어와 가지고 사는데, 저그 아부지 제사라 캐서러 그래 제사고 하인께, 그래 제사를 지내는데, 가만히 보인께. 말로 타고 그래 둘이가 오더란다. 오더이마는 그래,

"형님 올라 가이소."

동생이 이러카이,

"그래 니도 들어가자."

"그만 형님 가이소. 나는 오다가 요구(요기)로 좀 했십니더."

에나(그러나) 그 집에 아즉(아직) 할멈은 살아있고, 그 집에 양자 아들의 친 아부지가 저그 자슥이라꼬 와서 제삿밥을 묵는 기라. 그래 양자 아부지 그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만 형님만 가이소. 나는 오다가 요구로 했십니더."

카고, 안 더가고(들어가고) 있는 기 친구 눈에 그리 보이더란다.

그래 나중에 한참 있더이마는 음복상을 채려가지고 왔더란다. 음복상을 양자 아들이 채리가지고 왔건대, 그래 친구가 묵고, 그래 사실은 여하고 여하고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이, 그 양자 아들이 우(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해놓으이 집이 발칵 뒤집히지더란다. 그러니까네 그 할마이가 인자 살아 있거든. 살아나 놓으이, 얼매나 인자 분이 나는지. 저그 영감이 못 묵고, 양자 아들 저그 아배(아버지)가 와서 먹으이까네.

그래 부애(부화)가 나서러 할마이가 담배로 한 대 푸어(피워) 물고는, '오다가 요구(요기)를 해? 오다가 요구를 해? 어데서 요구를 했는지 내가 불 빤한 데만 가볼 빽기(밖에) 없다' 싶어 그래가지고 불 빤한 데만 찾아갔거든. 찾아가인께, 한 주막에 쪼깨는(조그마한) 오두막살이에 가인께, 여자가 머심아(아들)로 인자 쪼깬헌(조그만한) 걸 너덧댓살 먹는 거로 안고 누웠더라네. 그래 짚을 웃목에다 쪼깨이(조금) 펴놓고 죽을 한 그릇 낋이(끓여)가지고 놓고 있더라네.

"아이구, 아무것이님, 우째 여게 마느래가 왔습니꺼?"

"그만 내가 이리 와 봤네."

캄서러 여자가 우째 왔는고 물어쌌더라네. 물어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웃목에 죽 저거는 뭣고? 짚을 펴고 저래 놨노?"

카이,

"엇(어제) 저녁에 저 야(아이) 아바이(아버지) 갓날(제삿날)이 됐서러 그냥 넘굴라(넘기려고) 카이 섭섭해서 그래 죽을 한 그릇 낋이놨다."

고 카더래.

"그래, 야 아바이가 누고?"

카인께 그렇고 그렇고, 저그 영감이거든. 그 질(길)로 인자 집에 왔다. 집에 와가지고 그래 사실 이약(이야기)을 했어. 이약을 하고 그리 양재(양자)는 한 살림 주가지고 내놓고, 그 아들캉 여자캉 뎃고(데리고) 들어 왔어. 들와가지고 그 아들 키와서 그 할마이가 며느리를 보고 죽더라네. 자식은 지가 낳아가지고 키와야 된다 그 뜻이라. 양자 해놓인께 그렇더라 인자 거기라.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69~171쪽.

[범방동 설화 25]

탑동마을의 금부처 이야기

구 술 자: 홍성연(남, 68)
구술 일자 :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 범방동 장전마을

내가 이전에 탑동에 살았거든. 전에 왜정 때 비가 와닥비(쏟아지는 비)가 와가지고 탑이 무너졌는 기라. 무너졌는데, 그 탑을 갖다 인자 보수를 했는 기라.

동네 사람들이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한다고 그 터를 디비인께네(뒤집으니까) 금부처가 나왔거든. 그걸로 저 탑동 동네 구장이 그 인자 왜정 때 배××씨라고 카는 사람이 구장질을 했는데, 난데없는 것이 나타나니께 자기 집에 갖다 모셔 놨는 기라. 모셔다 놓고 나니, 그래 그 사람이 딸은 몇나(몇낱)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는 기라. 아들을 못 두었어.

그 부처를 모셔 놓고 나니 밤마다 그 사람 꿈에 아들이 나타나는 기라. 복실복실한 아들이, 어린애가 참 좋거든.

그것도 인자 한해 가고 두해 가고 소문이 났는 기라. 소문이 나놓으이 왜놈들이 어찌 알고 압수를 해가 갔어. 그 뒤로는 꿈에 아들도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은 아들도 못 낳고 그랬지 뭐. 탑은 인자 도 문화재가 됐어.

그런데, 그 금부처 부분을 좀 깎아서 팔아 씨고(쓰고)나면 또 원래대로 딱 질어나고(길어나고), 또 깎아서 씨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돌아오고 했다 카데.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71쪽, '탑동마을의 탑 이야기'

[범방동 설화 26]

남의 자식을 효자로 둔 사람

구 술 자: 조일선(여, 76)
구술 날짜: 2000년 10월 1일
구술 장소: 범방동 가리새마을

옛날에 딸 서이(셋)가 아바씨(아버지)로 모실라꼬 서로 시사(시샘)를 해가지고, 그래싸서 인자 아바씨가 딸 서이한테,

"잘하는 딸한테 내가 재산을 많이 주꾸마."

그리캤어(그렇게 말했어).

그리캐놓고 인자 한 며칠 있으이 딸 서이가 가만히 비밀 보러 오거던. 저그 아부지한테 잘하나 못하나 아부지 있는 그 집에 와가지고. 그래 저그 아부지가 속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네, 딸이 보더마는,

"아부지요, 우리 집에 가입시다. 우리 집에 가면 뭣도 해주고 뭣도해 주께요. 우리 집에 가입시다."

그러고 어띠기(어떻게나) 가자고 그라는지.

그래 인자 저그 언니가 들어오면 저그 아부지를 안 찍접거리고(집적거리고) 저그 언니가 없으면,

"아부지 우리 집에 가입시다. 우리 집에 가면 잘해 주끼요. 뭣도 아부지 줄라꼬 잘해놨고, 뭣도 그래 해놨다."

캄시로, 어띠기 아바시 보고 꼬오는지(꾀는지).

"음. 갈꺼마, 난중에 갈꺼마."

카이,

"인지(지금) 갑시다"

캐서, 그래 인자 못 이기서 딸한테 갔다. 가가 있으인께네, 첨먼지(처음) 가니, 딸이 잘 하더라 카네.

"아부지요, 내가 이리 하는데, 울밑 논 아까 내 서 마지기 줄라 카는 거 닷 마지기 주이소."

"닷 마지가 아니라 열 마지기 주꼬마."

이리 캐가지고 그래 놨고. 인자 또 있으니까네, 막냉이딸이 더불러(데리러) 왔거던. 막냉이 딸이 변(눈치) 볼라꼬 와가지고,

"아부지요, 우리 집에 갑시다."

이라이,

"야야, 너그 세이(언니) 듣는디는 아무 소리로 하지 마라. 니가 잘하면 내 논 엿 마지기 주

꼬마."

이래 카더라꼬. 그래 딸 서이가 서로 아부지한테 잘 했는데, 난중에 끝단을 딱 맞차(맞추어)가지고 젹어(겪어)보이까네, 딸 서이가 똑 한 나무 짐이라. 똑 같더라 카네. '아! 요년들 너그 믿어가지고는 안 되것다. 내가 팔방을 댕김서(다니면서) 유람삼아 내 구경이나 댕기야 되것다' 싶어서 그래 짝지를 짚고, 이관관망을 해가지고 그래 저게(저기) 동네 마을에 가서, 장승 앞에 앉아 담배로 한 대 푸인께네, '내가 늙어가지고 와 이래 됐노?' 싶어서 한탄을 하고 앉았으니까네, 어떤 젊은 사람이 지게로 지고 오다 지게를갖다 버덕터림서로(내려놓으면서),

"아부지요, 내 따라 가입시더."

"생전 보도(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부지가 어딨소?"

이카니께네,

"오늘부터 울 아부지가 생겼는데, 와 울 아부지가 아입니까?"

하면서, 그 지게를 벗어 내삐리고 아바시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더라 카네. 자기 집으로 가인께네, 저그 마누래가 하는 말이,

"나무하러 간다 카던 사람이 와 손님을 데리고 오요?"

카인께, 마누래를 덧고(데리고) 정지로 들어가더라 카네.

"아무데 거기 일하로 가인께네, 저 장승 밑에서러 노인이 앉아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길래, 내가 각중에(갑자기) 우리 아부지가 생기서 그래 내가 아부지라 카고 덧고 왔다."

카이께네, 그 미느리(며느리)가 전신에 마주쳐서 그렇지.

"아이구 아부님 오셨습니꺼?"

캄성 막 인사로 하고 지극 정성을 하거든. 가만 생각하이 넘(남)의 아들하고 미느리가 너무 자기한테 잘하이, 어엽아서러(기가 막혀서) 아무 정신이 없더라네. 그래 '이걸 우째야 되겠노' 싶어서러 그래 인자 있으이께네, 그 옷을 말끔 벳기가지고 남편 입던 옷을 그 노인을 전부 갈아 입히고 이래. 좋은 임석(음식)에다가 술에다가 이리 디리인께(드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카데. '내 우째야 이 은혜로 하겠노?' 싶어서러. 그러고로(이럭저럭) 하리(하루) 가고 이틀이 갔지. 가인께로 저그 마누래 보고 하는 말이,

"보소, 우리가 이래 할게 아니라, 우리 아부지가 있으니까네 동네에서도 알아야 안 되겠나? 나발로 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우리 집에 다 모이도록 합시더."

이러인까네,

"음, 그것도 좋은 말이다."

카임서러 그래 한번 연구로 해가지고 저그 아들이 나발로 가지고 불더라 카네, 동네 복판에서러.

"오늘 우리 집에 다 오실 손님 오시라꼬, 우리 아부지가 어데 가싰다가 왔이인께네 오시라꼬."

이래 캄성. 그래 동네 사람들이 우짜든지 묵을 끼(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러 사람들이 넘(남)의 집에 모인께, 돼지도 잡고 사람이 욱실욱실 하이 임석을 걸칙하이 하거던. '아! 저 집

이 참 이상하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이까네, 덕석(멍석)을 너른(넓은) 마당에 쭉 펴놓고,

"거기 앉으라."

라 카거던. 집에 온 손님들로 전부 앉히고, 덧고(데리고) 간 노인은 옷을 잘 입고서 자부동(방석)을 펴놓고 점잖게 혼차 앉아 있으이까네, 손님들이 전부 동네 사람들이 모이(모여)까네,

"오늘 우리 아부지가 어데 계시다가 왔이니까네 우리 아부지 서로 알고 인사나 서로 하이소."

캄성 그래노이(그렇게 말해놓으니),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그 노인하고 인사를 하더라 카네. 반갑기,

"어데 계시다 인자 왔느냐?"

고 캄성. 그래 술밥간에 동네 사람들이 잘 묵고 잘 놀고 갔는데, 그래 가고 나서러 또 하릿밤 지내고 나더이마는,

"아(아기) 이거로 아부지한테 맽기가(맡겨서) 되겠나? 울어싸면 아부지가 귀찮시럽을낀데."

이래 캄서러. 그래 젖을 되기(많이) 먹이놨고, 아침 뭄서러(먹으면서) 자기 아바씨를 보고,

"아부지예, 오늘 우리 아무 데 일로 둘이 갈끼이께네, 목 마리거던 술 받아 놓은 거 잡숫고 계시이소."

이리칸께, 말도 안 나오고 미안시럽아싸서러(미안스러워서), 고개만 끄떡 끄떡 하고 앉았다. 그래 인자 이카고 나서,

"아부지 우리 일하로 갑니더."

이카이께, 그래 가라꼬 고개만 끄떡거리고, 그래 가고 나서러 이 노인이 술로 참 좋아했던 모양이지. 그 술 한 주전자로 다 자시고 나니, 마 목이 말라서러 그래 휘민데(후미진 데)에 살살 돌아보인께네, 단지에 술을 해놨는디, 노란 청주를 해놨는디, 이 술이 얼마나 맛 있겠노 싶어서러, 커다란 대집(대접)을 가져와서러 한 대집이 떠가지고 자시고, 또 묵고집아싸서러 또 앉았다가 또 술 떠 묵고, 그러고로 그만 술이 취했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 인자 삐석삐석 함서러 방에 들어가서 눌라꼬(누우려고) 이라이께네, 아(아기)한테 그만 척 걸치고 눕어놔 나이(누워놓으니) 아(아기)가 그만 납닥해져서 죽어뿌고. 그래 저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와가지고,

"아이구, 아버님 얼라(어린아기) 본다꼬 큰 욕 보셨지요?"

캄서러, 그래,

"아무거시야! 자나?"

캄서러 이불을 들시니까네(들어보니) 아(아기)가 납닥해가지고 죽었거든. 그래노이 이 노인은 구석에 앉아가지고 우짤 줄을 몰라가지고 있으이께네,

"아버님요, 까딱 없십니더. 우리는 낳으면 자식 아입니꺼, 그거 하나 사념(생각)하지 마이소."

캄서러, 어띠기 이 노인이 그 아들이랑 미느리가 너무 치사됨이 더 많은 기라. 그래 있을라 캐도 안 되것고, 갈라 캐도 안 되것고,

"내 딸 세 년한테 가서 전부 문서로 다 받아가지고 이 아들로 전신에 다 맽기야 되겠다."

이래 카고, 그래,
"내 아무데 저게 갔다 오꾸마."
"참말로 오셔야 됩니더. 오셔야 됩니더. 어데 짬(쯤)입니꺼?"
카면서 따라 올라 카는 걸,
"내 갔다 올거이께네 염려하지 말고 있어라. 내한테 이렇기 잘하는데 안 올 리가 있나."
카임서러,
"내가 왔다가 뒤에 갔으면 갔지, 오꾸마."
카고, 그래 가가지고 딸한테,
"아무데 논 좋은거 니 주꾸마. 니 문서 그거 날 도고(달라)."
그래 문서를 받아 홀치(뭉쳐) 검어쥐고, 또 아무데 딸한테 가서러,
"그건 일등호답인데 니 주꾸마. 그래 니 그 문서 그거 날 도고. 니 논이 적다."
이래 카고 문서를 받아 딱 홀치 검어쥐고, 막내이딸한테 가서러,
"야야, 너거가 가르면 재산을 똑 같이 갈라야 되재. 누(누구)는 많고 누는 적으면 안 된다. 그거 날 도고. 주머는 내가 그(그렇게) 해가지고 똑 같이 나눠 주꾸마."
그 문서 석 장을 딱 거머쥐고 돌아나옴성,
"얘이! 요년들, 너그는 내 속으로 낳거마는, 생전 보도(보지도) 안한 아들카마도 너그는 못하다."
캄서러, 그래 욕을 하고 나오더란다. 나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문서를 전부 다 주었다.
그래 딸네들이 어띠기 아부지가 그러느냐 하고 울며불며 따라온다. 따라와서러 보이께네 그 집에서 그리 잘하거든. 잘하인께네, 이 딸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 돌아서더라요. 그래 이 재산하고 노인 재산하고 합해가지고 잘 살고, 난중에는 결국에는 그 딸 서이도 그 집을 댕기고 그 사람이 재산을 쪼끔 줏답니다. 주고 이랬는데, 사람이라 카는 거는 마음을 잘 쓰면 복이 온다 카는 그걸 두고 한 말이요.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47~152쪽.

[범방동 설화 27]

고려장 이야기

구 술 자: 조일선(여, 76)
구술 날짜: 2000년 10월 1일
구술 장소: 범방동 가리새마을

옛날에 저(제) 부모한테 어띠키(어떻게나) 불칙(불측)하기 이래 하는지 그래 아바씨 어마씨

가 기가 차가지고 지내는데, 나이 칠십이 됐다. 나이 칠십이 돼가지고, 그래 인자 부모 져다 내삐린다 카는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던 모양이지. 어마씨가 '내가 칠십이 됐는디' 이래 걱정을 하고 있으이까네 아들이 지게를 지고 청(마루)에 턱 올라섬시로(올라서면서),

"엄마! 여(여기) 올라 앉으소!"

"그래, 와?"

이카이께네,

"엄마 말 안 들었소? 칠십에 고래장한다는데, 엄마! 요 앉으소!"

그래 어마씨가 울면시로 지게에 올라 앉거던. 그래 아들이 어데로 지고 올라갔나 쿠먼, 산으로 올라갔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수검포(삽)로 땅을 푹푹 파인까네, 이 할마씨가 어찌나 우는지.

그래 인자 다는 안 묻고 목을 내놓고 몸둥치만 묻었어. 묻어놓고, 그래 내려오인께로 그 아들이 따라가서 쪼맨헌기(조그만한게) 거(거기) 따라 가가지고 저그 할매로 보고 오더마는, 아바씨가 지게로 소 마굿간에 한쪽 얖(옆)에 갖다 붙인께네, 쪼깬헌(조그마한) 그기(그것이), 지게를 이기지도 못하는기, 지게를 끄숫고(끌고) 가서 어디다 갖다 놓느냐 하먼 소 궁딩이다가 갖다 놓는 기라, 그 비잡은디(비좁은 데)다가. 그래 아바씨가 그 아들을 보고,

"저 놈의 자슥이 와(왜) 비잡은 데 뭔다꼬(무엇한다고) 갖다놓노? 이리 안 가져오나!"

카이,

"허! 나도 지게 가만히 놔뒀다가 후제(뒷날) 아부지 칠십되먼 아부지 갖다 묻어야지요"

그래 아바씨가 그걸 가만 듣고 생각하니, '아하! 나도 이거 머지 않았는디,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어.

그래 인자 수검포하고 지게하고 가지고 가서 어마씨를 다부(도로) 파가지고 덧고(데리고)와서 잘 모시더라요. 그라인께네, 쪼깬헌 아들이 그걸 보고,

"아부지, 니도 그리 안 할라꼬 그라제?"

카더란다.

그래 쪼깬헌 아들이 저그 아바씨를 소자(효자)로 맨들더라요.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71~172쪽.

[범방동 설화 28]

시부 당상에 곡하는 며느리들

구 술 자: 김금덕(여, 60)
구술 날짜: 2000년 10월 1일
구술 장소: 범방동 가리새마을

옛날에 씨아바시(시아버지)가 돌아가싰거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이, 뭣이 '뺑~' 하거든. 그라인께네,
"누가 낐노? 누가 낐노?"
큰 동시(동서)가 인자 울라 카이 싱겁아(싱거워)가지고 그라인께네, 동시 하나가
"형님요 내가 낐소. 내가 낐소."
카이,
"니는 난중에 보자. 난중에 보자."
카는 기라. 그래 또 인자,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인께네, 또 누가 '뽕~'하면서 방구로 뀌거든.
"이제는 누가 낐노? 누가 낐노?"
카인께,
"형님요 막내이가 낐소. 막내이가 낐소."
카더라네.
눈물이 안 나는 기라. 씨아바시(시아버지) 죽었는디 무슨 눈물이 나겄노? (웃음) 아무리 뭐라 카도 울 그것도 없고 하이까네, 무슨 눈물이 날 것고? 그라이까네, 그라고 운다 안 카나.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74쪽.

[범방동 설화 29]

삼대 정승 셋 딸과 결혼한 유복자

구 술 자: 김금덕(여, 60)
구술 날짜: 2000년 10월 1일
구술 장소: 범방동 가리새마을

옛날에 어느 정승 집인데, 정승 집이 삼대 정승 집인데, 그 집에는 전신이(모두) 과부만 사는 기라. 줄줄이 와(왜) 과부만 사노 카몬 남자들이 과거보러 가면 죽어뿌고 과거보러 가면 죽어뿌는 기라. 그래 근근이 유복자로 놓는 기라(낳는 거라). 유복자 하나 낳아가지고 인자 대로 잇아(이어) 놓으면 과거보러 가면 죽어뿌고.
그래 한번은 과거보러 갈라 카이께네, 그렁께네(그러니까) 할매 우(위)에 할매까지 과부가 서(셋)이라. 저그 어매까지 서인디. 삼대가 과분디, 저그 어매가 하는 말이 요번(이번)에는 과

거보러 가거들랑 삼대 정승 집으로 들어가라 캤는 기라.

"삼대 정승 집에 가서 니가 자고 가거라."

그라고는 저그 어매가 울어쌓거든. 과거보러 가면 죽으인깨네(죽으니까). 이거는 이유도 모르는 기라. 그래, 장개(장가)로 안 가고 총각인께. 그때는 유복자 밴 것도 없고, 그라고 장개로 가서 언제든지 아 밴 걸 놓으며는 머심아고 머심아고 이래 과거 보러 갔었는데.

그래, 이게 과거보러 가다가 자고 갈라고 어느 정승집을 들어가인께네, 그 정승 집에서러 아무데 정승 집 삼대 정승 집에서 왔다고 카인께네 사랑방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기가 턱 되었는디, 저그 어매가 하는 말이 삼대 정승 딸 서이(셋)를 만나야 안 죽는다 안 카나. 어데 가서 물어봤는지는 모리겄는디.

"삼대 정승 딸 서이로 하루 저녁에 만나야 니가 안 죽지, 그렇지 않으면 니가 못 돌아오인께네, 우쨌든간에 니가 정승 집에 가서 자거라."

캤는디, 그날 밤에, 내일이 날이 새면 과거를 보는데, 아무데 정승이라고 써가지고 오이까네, 한 정승 집에서 받아 줬겠지, 삼대 정승 집의 총각이니까네.

그래 인자 그 집에 탁 들어가서 별당을 보니까네, 아가씨 일하는데 물로 떠가고 이라는 처녀종을 잡아갖고 아가씨 있는 데로 알아낸께 별당 안에 있다 안 카나. 그래 별당 안에 인자 지(제)가 줄을 타고 몰리(몰래) 들어가가지고 무르팍(무릎)을 꾸리고(꿇고) 사정을 안 하나.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삼대 정승을 만내야(만나야) 날로(내가) 산다 쿠는데, 그래 우리 집에는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렇는디 그래서니까네 온(오늘) 저녁에 날로 살리(살려)돌라."

고, 이 총각이 그 아가씨한테 그란다 아이가(아니가). 그라인까네, 그래 이 아가씨가 가만히 생각더마는 지가 거기서 행랑 그거로 인자 보내가지고 정승 집 딸을 둘이로 안 불러 딜이나(들이나). 둘이로 불러디리(불려들여)가지고 그 방에서, 총각을 방에다 딱 놔놓고 있는디, 밤중에 한심 넘으이 휘파람소리가 나면서 문이 확~ 열리더마는 뭣이 날라와가지고, 귀신 같은 기 날라와가지고 앉는디, 그라이까 그 정승 딸 하나는 거기서 팔완경(팔양경)을 읽는 기라, 천지팔완경을 일으고(읽고), 또 하내이(하나)는 문앞에 서가지고 진원(진언)을 치고, 하내이(하나)는 그 총각을 잡고 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밤중이 돼서, 더 시다기(야단법석)을 치는디. 그래,

"니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이거든 들어오고 귀신이거든 나가라."

이라이께네, 그래 날이 다 새가이께네, 들어온 귀신이 통곡을 하고 안 우나.

"아가씨 이 사람을 낼로(나에게) 주먼 그 집이 대로 망허니까네, 내가 소원이 풀리서 갈꺼이께네, 그 사람만 잡아가먼 그 집이 대로 망허인께네, 소원이 풀리서 내가 갈꺼이께네 내도라(내달라)."

안 카나.

"그래 니는 무슨 소원고?, 내가 들어주꾸마, 들어줄기니께 온(오늘) 저녁에 소원을 말해라."

카인께네, 날이 다 새가먼 귀신은 떠나는 갑대.

그라이까네, 하는 말이 내가 저그 아주 웃대(윗대) 종이라 안 카나. 종인데, 옛날에 말로 잡

고 어디 행차갔다 오는디, 잘못한다고 말 꼬랑댕이다가 상토로 달았는 기라. 상토를 달아가지고 끗고(끌고) 왔는데, 그래 죽었는데, 죽었이먼 날로갖다가 그냥 묻어 주먼 되는데, 저그 집에 말 맨 구덕이 오줌 푸는 데 안 있나? 그 밑에다 묻어놨어. 내 시체가 둥둥 떠가 있인께 내가 그리 원수로 갚는디, 요번(이번)이 마지막이라 카는 기라.

"그라먼 우째야 되겠노?, 내가 시체로 들어내가지고 뫼를 쓰고 다 해줄끼니께네 이 사람을 살리 줄 수 없나?"

그라인까네,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은 줄 수가 없다. 보내 줄 수가 없으이까네 그래라."

이래 싱갱이(실랑이)하는 중에 닭이 울라 안 카나. 그라인께네,

"그라먼 니 말대로 해주먼 내 떠나겠다."

캄시로(하면서) 그래 인자 울고 떠났거든.

그래 인자 이 총각이 가가지고 과거를 봐가지고 걸렸는데, 어사가 돼가지고 저그 집에 왔는 기라. 저그 집에 와가지고, 저그 일꾼들캉 말 맨 구덕이 오줌 푸는 데를 파보인까네, 그 밑에 시체가 둥둥 떠가지고 하나도 안 썩고 있더라네. 그래 파가지고 정승 딸 말대로 산에다 갖다 묻어주고, 그 셋 정승 딸이 인자 그 사람의 마느래(마누라)가 됐는 기라. 그날 저녁에 넘(남)의 남자로 안고 그리했으니. 하나는 남자가 물을 돌라(달라) 카이 물 떠난기 없고 급하인께 오줌을 누가지고 믹이고 이랬기 때민에 인자 세 정승 딸이 그 남자 어사 마느래가 됐는 기라.[16]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45~147쪽, '삼정승 딸과 결혼한 유복자'.

[범방동 설화 30]

아기장수 전설

구 술 자: 김윤근(남, 72)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이전에 한 집에 자슥(자식)을 늦게 뒀던 모양이라. 그래 저그 아부지하고 엄마하고 늘 아들을 하나 낳을라고 애를 쓰는데, 이러다 보니 꿈에 현몽해지기를,

"앞으로 자슥을 놓으면 큰 장수가 된다."

이기라. 장수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용을 타고 날아댕기고 이러한 자슥인데, 절대적

16) 「호식 당할 총각과 세 정승 처녀의 결연」의 변이 유형임.

으로,

"이 자슥을 놓거들랑 아무 사람한테도 얘기도 하지 마라. 어떻다 얘기도 하지 말고 키워라."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어머이가 어린애를 놓으이까네, 애가 뱃속에서 떨어져가지고 떡 나오더니마는 서답돌(빨랫돌)을 덜렁덜렁 덤서러(들면서) 저쪽에 들어다 놓고 깔고 앉는 기라.

"아이구, 참말로 맞다! 이게 참 장수가 났구나."

카는데, 삼일만에 애가 그러거든,

"어무이 내가 내일 모레면 나는 저 멀리 간다. 가는데, 우예든지 어무이 내 발자취만 딱 따라 오면서 옆으로는 일절 보지 마라. 옆에는 보지 말고 내 발자취만 따라서 오라."

이러거든. 그런데, 가기 전에 뭐라 하느냐 하면,

"콩 한 되, 팥 한 되, 서숙 한 되, 그래 서 되만 가지고 갈끼니까 준비해 돌라. 그라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될 판인께, 메(밥)를 깨끗하게 지어 돌라."

해서 그래 가는 날 메를 잘 지어가지고 어무이는 아들을 따라서간다. 옷도 해 입힐 것도 없고 발가벗은 게 가니, 그래 따라서 갔다.

얼마나 따라 가인께네, 첩첩 산중에 들어가는데, '어무이는 절대 옆을 돌아보지 마라' 캐서 옆도 안 보고 따라갔거든. 가이 큰 방우(바위)가 있는데, 그 방우 졑에 가가지고,

"어무이 여기서러 놔두고 어무이는 가라."

이러거든.

"니(너) 오디로(어디로) 가는 데를 내가 보고 가야지, 내가 안 보고 갈 수 있나?"

"그러몬 어무이 꼭 내 하는 그것만 보고 가가지고 일절 뭐든지 동네 사람이고 우리 친척 사람이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오야, 내 그럴꾸마."

그러고 거서(거기서) 앉아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딱 하고 나더니마는 돌을 '딱! 딱! 딱!' 세 번을 때리이까네 돌 안에 문이 째보시 열리는 기라. 그래 돌문을 열고 떡 드가이까네, 돌문이 저절로 탁 닫기거든. 그래 어무이는 그대로 나오고, 그래 이 아이는 어무이를 보내고 난 후에 되나와가지고 그 봉(봉우리)을 파가지고 콩을 묻으이 콩이 낱낱이가 전부 군사가 되는 기라. 군사가 되고, 그래 팥도 그 봉우리에 묻으이 팥이 군사가 되고, 서숙 그 알맹이도 묻으이 전부 다 군사가 됐는데, 그래 나중에 지 군사가 되는 기라.

어무이가 애를 그래 놓고는 집에 와가지고 그 애 낳은 빨래하러 냇가에 나와가지고 빨래를 하다 보이까네, 그때는 겨울인데 얼음이 탁 얼어 있는데, 그 얼음 상간에 아(아이)가 하나이 발가벗은 놈이 나오는데, '아이구, 춥어라' 쿰성, 고기를 몇 마리를 해들고 나옴서러,

"아이구! 엄마, 엄마 집에 가면 고기도 꾸(구워) 묵고……."

"아이구, 나는 니 겉은 아들 없다."

"아이구, 왜 그럽니껴? 엄마."

그럼서러 마구 이러거든.

“아이구, 나는 너 같은 아들도 없고, 나는 생전에 자슥도 한번 낳아 본 일도 없고…….”

이렇다 카이,

“아이구, 엄마. 왜 이러십니까?”

그러더래. 옛날에는 빨래를 하는데 뭘 썼나 하먼 서숙 짚을 태워 재물을 내가지고 쓰는데, 그 불이 쪼매(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불에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러는 기라. 그래 우예든지 아들이가 절대적으로 누구든 뭐가 와서 우예거든 가르쳐 주지 마라 이랬거든. 그래 참말로 이 놈아가 그만 집에 와가지고 ‘어무이요’ 쿠고 ‘아부지요’ 쿠고 자슥 노릇같이 다 하는 기라. 뭐든지. 일하라 카몬 일하고 뭐든지 이러더만. 그래 한 석 달이 딱 됐어. 백일이 다 되었는데, 이놈아가 하는 말이,

“어무이요, 아들을 하나 낳았지 싶은데요?”

카거든.

“아이구, 내가 아들은, 뭔 아들을 낳았어, 안 낳았다.”

“아들 낳았다는 것만 가르쳐 주기만 주면, 평생 먹고 살 걸 줄 테이까네, 내가 금싸래기를 줄 테이까네, 이걸 팔아가지고 농사도 짓고 얼마든지 부자로 해서 잘 살거이까네 그리 하소.”

카이까네, 그래도,

“어데 없다!”

이랬거든. 그래 나중에 이놈아가 어데 갔다 오더니마는 금싸래기를 갖다가 어무이 앞에 갖다 놓고,

“어무이, 이래도 아들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어무이 아들질하면 되잖아요? 뭐 하러 자꾸 숨기는가요? 내가 훤하게 아는데.”

캐도 부인하고 했는데, 이놈아가 기어시(기어코) 물어싸서,

“그러먼 내가 한 마디 하먼 니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재?”

“아이구, 어무이 무슨 짓을 하겠소?”

하이까네, 그래 어무이가 하는 말이,

“내가 몇살 때 아(아이)를 낳고, 그래 아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런 얘기를 다 하니께,

“그러면 그렇지! 그래 아들을 하나 안 놓을 택이 없는데 장수로 하나 낳아놨는데, 왜 없다 카노? 다 아는데.”

그래 놓고는 몇 날 몇 달 지내다 보니,

“어무이요, 아들이 그 산에 가가지고 어데 가 있는 거를 다 아지요?”

“알아서 니가 뭐 할 참이고?”

이라이까네,

“내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 화합하게 잘 살낀데, 왜 어무이는 자꾸 숨깁니까?”

그러거든. 그래 이눔아가 하도 조르고 효도질하고 하이까네, 금싸래기를 갖다주어 땅도 사고 집도 잘 짓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이까네, 그래 그만 이 어무이가 얘기하기를,

"그러먼 우리 아들 간 데로 그리 가자."

그래 따라갔거든. 따라 가가지고 그 아들이가 돌옆에 가가지고,

"뭐 어떠컴 하더냐?"

하니께, 그래 하는 말이,

"여(여기) 와가지고 돌을 때리는데, 손바닥을 가지고 막 세 번이나 탁탁 때리니까 돌문이 열리더라."

이러거든.

"그러면 그렇지!"

그래 이놈도 거 와가지고 손바닥을 가지고 돌문을 탁탁 세 번을 두드리니 문이 철커덕 열리는데, 그래 어무이도 가서 거기를 들여다보니 아들이 용을 그 안에서 타고 있는데, 몸에 비늘이 돋고 이래 있거든. 그럼성,

"어무이 우찌 그렇게 합니까? 내가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옳게 장수가 돼가지고 나갈 판인데, 저놈이 내가 장수가 덜 돼서 나를 잡아야 지가 장수가 될 판인까네 이렇다."

고 그래. 그 사람이에 자슥이 나와가지고 어무이한테 한탄을 하고 자슥을 그렇게 못 믿고 그거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 이놈이 나와서 그놈아하고 얘기하는 말이,

"자! 내하고 니하고 전투를 벌여서 싸움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돌 안에서 용을 타고 나와서 노랑머리 그 젊은 놈하고 장수 아(아이)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하는데, 하늘 까맣게 올라가서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는데 보니, 지(제) 아들의 날개쭉지, 팔이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기라. 그래 나중에는 싸움을 하다가 힘이 모자라가지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어무이한테 와가지고,

"어무이, 내가 한 달만 더 있어도 내가 저놈을 이길건대, 내가 저놈한테 도저히 날짜를 못 채워서 이렇게 죽어지니까네, 어무이 절대로 내려가시더라도 우리 아부지한테 자슥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아부지도 이 얘기를 들으며는 자결하겠고 하이 그렇다."

그래 인자 이 애미가 다 보고 집에 가니,

"어데 갔더노?"

그래. 그래 거기 갔다 왔다고 그러까네,

"아들은 어떻더노?"

카이,

"그래 자슥이 장수가 돼가지고 이리 하는걸, 그때 집에 여기 있던 놈이 자슥하고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래 우리 자슥은 거기서 죽고 말았다."

고 그라이, 그래 영감님이 하는 말이,

"이 더런년아! 니 낳은 자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면 그거를 입을 닫아야 되지. 여자라 카는 거는 할 수 없다."

그래 부부간에 그만 싸움이 나가지고, 그 자슥 바람에 자살하고, 그래 둘이 다 죽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58~162쪽, '애기장수 이야기'.

[범방동 설화 31]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열녀

구 술 자: 장필련(여, 76)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장전마을

옛날에 부잣집에서 아들 장개(장가)를 들일라 카인께, 아들이 풍병이 들어 못 사는 집에 처이(처녀)로 그 집에서러 며누리로 봤단다. 신랑도 오지도 안 하고, 그래 처이가 바로 시접을 갔어.

옛날에는 그리 어렵고 못 살고 하인께, 정승이라든가 대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권력있는 이가 혼인하자 카면 어쩔 도리가 없어서러 혼인도 하는 수가 있어.

그래 혼인을 했더마는, 각시가 몇 달로 살아도 남편이라고는 없고 그냥 사는 기라. 그냥 사는데, 한번은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집안 잔치한다꼬 모두 가고 나서러, 그래 이 각시가 온집을 둘러봤어. 그런데, 사람이라고는 없는디, 한 대밭 속에 질(길)이 빤해이 있거든. 대밭 속에 질이 빤해이 있어서 그리 가보이께, 오두막이 있는데 문을 열어보인께, 짚문딩이가 한차(혼자) 그리 있더란다. 방을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러 이 각시가 문을 닫아놓고 나와가지고 지(제) 허벅다리로 끄내끼(줄)로 뭉치(묶어) 놓고, 시퍼런 칼로가지고 삐짔어. 삐지가지고 인자 초집을 해가지고 갖다 줬거든. 한 사발 갖다 줬는데, 그래 집문딩이가 묵고 취해서러 막 눕어자는 기라. 이 각시는 다리가 아파서러 꿍꿍 앓고 눕어 있고.

그래가지고 수십 분(한참 동안) 있다가, 거기 집문딩이한테 밥 갖다 주는 종이 오두막에 갔다가 와서,

"아이구! 샌님이 누워 자고 있습니더. 안죽(아직) 자고 있고 안 일어납니더."

이리 카더란다. 그래서 와(왜) 자는고 싶어서러 저그 부모들이 좀 있다가 문을 열고 딜이다(들여다) 보인께 온방에 구덜이(구더기)가 나와가지고 온방에 벌레더란다. 그런데, 이 아들은 허물로 벗고 병이 났았는 기라.

"어째 돼서 이렇노?"

카인께,

"어떤 젊은 아낙네가, 여자가 하나 날로 생괴기(날고기)로 해 주는데 그걸로 먹고 내가 자고나니 이렇다."

카더란다. 그래 저그 며누리가 아프다 카고 못 나오는디 보이까네, 꿍꿍 앓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보이 다리를 그래가지고 있더란다. 그래가지고 아들 병을 곤쳐주었다 해서 열녀비로 세워줬다 카대.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72~173쪽.

[범방동 설화 32]

여색을 경계하라는 부모의 유언

구 술 자: 김윤근(남, 72)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옛날에 한 동네에 한 내외가 자슥이 없어가지고 그래 참 공을 디리고 하다 보니, 근 십년 동안이나 자슥 하나 점지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만날 그렇게 했더니 한분은 꿈에 선몽(현몽)을 하시기를,

"니가 정성이 지극하므로 하늘에서 자식을 태아 주리라. 그런데 이 자식은 앞으로 태어나면 큰 놈이 된다. 되는데, 첫째는 여자를 주의해야 된다, 여자한테 주의를 안 하면 그 했던 일들이 다 수포가 되고 만다."

그래 내외간의 꿈에 선몽을 하기를 그렇게 하거든. 그래가주고 아들이 태아났는데 이 아들이 열 두 살이 돼가주고, 그래 살다 보니까 한번에는 자기 부친이 병이 들어가주고 돌아가시게 돼뿠어요, 그래 그 아들한테 유언으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기 아이라, 열두 살 묵은 애를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된다. 그러하인께 하늘에서 너를 태어나게 한 자슥이기 때문에 니가 만일에 여자한테 주의를 안 하면 앞으로 일이 다 수포로 되고 만다."

그래가주고 이 사람이가 우리 아부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는 꼭 명심하고 있어야지.'

그래 참 아부지는 돌아가셨지마는, 그래 어미가 이 아이 하나 있는걸 가주고 '공부는 옳게 시키야 되겠다' 싶어서 서당에 댕기며 공부를 시키고, 품팔이를 해가면서 이렇기 시켰는데, 그래 한 번 그 동네에 어떤 집에 처녀가 지내가면서 그 총각을 보이 하 탐(貪)이 나는 기라. '내거 저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면 얼매나 좋을꼬' 이런 마음을 참 먹었는데, 그 처녀가 한 번

은 그 총각이 지내가는데 뒤에 따라가며 말이라도 한 번 건넬라고 이래 해도, 총각이가 들어주지를 안 하는 기라. 그래 비가 와가주고 물이 길에 고여 있는 거를 발로 탁 차가주고 그 물이 틔어가주고 그 총각이 말을 할가 싶어가주고 그래 해봐도 건네다 보도 안 하는 기라. 총각은 가면서도 '우리 아부지가 돌아가시며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여자한테 마음을 써서 되겠나.' 그래 참 세월이 흘러서 어무이도 돌아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언제든지 큰 놈이 된다. 큰 놈이 될라 하면 여자한테 주의해라. 여자한테만 주의하면 된다."

아부지 시키는 말씀대로 또 하시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것을 다 모아가주고 팔아 선생 집에다가 돈을 갖다주고,

"선생님 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이 돈 가주고 나를 공부를 잘 시켜 달라."

카고, 그러다보니 참 나이 거진 시물 살 가까이 돼가주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니는 공부도 이만만 하면 일단 서울에 과게를 한번 가봐라."

그래 인제 과게보러 올라가는 길인데, 한번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자면 근 한 삼개월이나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구만. 그래가주고 삼개월 동안이나 걸어 올라가다 보이, 참 어떤 때는 한 오십 리도 가다 자고, 어떤 때는 참 많이 가면 백 리 정도도 걸어가고 이래서 우얘(어찌해) 한번 동네를 지내지고 가다가 질을 잃어뿌리고 질을 헤매고 방황다보이 산중으로 기들어가주고 인적이 적적하고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런 기라. '참 큰 일 났다, 나는 인제는 죽는구나' 싶어가주고 산으로 향해 올라가서는 널바다(내려다)보이 저쪽한 골짜기에 불이 빤한 기라. 저기는 사람이 사는구나, 그래 그 불로 찾아서 가인께네 어떤 우무닥(오막살이) 집이 하나 딱 있는데 그집에 불이 하나 켜여 있는 기라. 그래,

"주인 계십니까?"

카인께, 거서러,

"누구십니까?"

그래 나오는데 보이, 처녀가 나오는데 보니 '내가 나이 시물 살이 묵도록 저렇게 잘난 처녀는 첨(처음) 봤다' 싶어. 그래 이 사람이가 사실을 이얘기를 했거든.

"나는 가개(과거)보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잃어뿌고 내가 불을 보고 찾아왔는데, 하로 지녁 내가 자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처녀가 하는 말이,

"봐하니, 사람 사는 동네를 찾다보니 저녁도 못 자시고 많이 시장하시는 모양인데 저녁이나 해 드릴 터인께 잡숫고, 잘라 카면 여기서 근 십 리를 나가야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녁이나 자시고, 여기서러 자더라도 내하고는 이 방에서 못 잡니다. 방이 단칸 방인데 잘 수 없다."

그래, 밥을 해주는 걸 그 밥을 참 고맙게 참 잘 먹고 있다보니 밤은 한 열두 시나 거진 됐지. 갈 수는 없지. 길도 모리고 이래가주고 거기서 자기 됐어요. 자기 됐는데, 그 처녀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오늘 내하고 같이 이 방에서 자는데, 만일에 내 몸에 손이 한 번 온다면 당신이 친히 벌을 받는다."

"예, 그리 하지요."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양 부모들이 죽을 때 유언을 그렇기 했는데, 내가 어찌 여자 몸에 손을 닿겠습니까?"

그래 참 불을 끄고 자는데, 처녀는 저짝 편에 눕고, 총각은 이짝 편에서 눕어 자는데 보이, 딱 둘이가 눕으이 몸띠이가 댛일 듯 말 듯 하는 기라. 우째든지 자꾸 자기 몸을 꺼안고 살이 그 처녀 몸에 댛일까 싶어서 이렇게 해서 눕어 자다보이, 언젠가 서너 시 가까이 됐는데 잠이 까북 들어뿠어. 그런데 탁 친 기라.

"일어나시오. 어데 함부로 여자 몸에 손을 대. 그렇게 이얘기를 했는데도 이따우 짓을 하느냐 말이지."

"한 번도 손 닿은 적이 없는데요."

"왜 없어. 일어나라."

카더니, 딱 일어나디마는 그만 처녀가 밖에 좇아나가디마는, 뽕나무를 밭에다 쭉 심아놨는데, 뽕나무 회초리를 꺾어가주고 오는데 보이, 회초리가 얼추 반 아름이나 꺾어 안고 와서

"종아리를 걷어라."

"아이구! 내가 그런 짓 한 것 아인데."

칸께, 밖에 나가디마는 사발에다가 물을 두 사발을 떠와서,

"이것 딱 들고 여기 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훨씬 내한테 혼이 날 테이니 말이지 그리 알라."

카고, 종아리 걷어놓고 그만 회초리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이, 회초리가 뿌러지면 또 바꾸어 쳐서 그 가져온 회초리가 없어지이 그만 두는데, 종아리에서 피가 출출 흐르는 기라. '내가 우째가주고 이런 봉변을 당하는가' 싶으고, 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더 이상 맞는다 카이 눈에 눈물이 철철 흘리면서 억지로 그 매를 다 맞았어. 그래 처녀가 사발에 물을 받으면서,

"당신도 어찌 보이 독한 사람이다. 과게 보러 가면 이렇기 독해야 된다."

카면서 사발을 내려 물을 '당신 한 모금 마시고 내 한 모금 마시고' 그래 서로가 마시고, 그래 이 처녀가,

"이제는 가는데 만약에 오늘 밤처럼 또 한 번 이런 경우가 난다면 또 나한테 더 맞으리라."

이렇게 혼이 났어. 그래 총각이 곰곰히 생각하면 '이 여자한테 이렇게 뚜드리어 맞았으니, 내가 언제든지 복수를 한 번 하고 만다. 내가 과게를 보고 내려오다가 내가 이년을 처리해가주고 죽이고 만다' 하고 이를 빡빡 갈고 눕어 있었거든. 눕어 있다가 그러다 보니 날이 휘부연이 새거든. 그래 쳐녀가 밥을 해주면서,

"이리 해서 저리 해서 나가면 큰 마실이 있는데, 건너해서 또 가며는 서울로 가는 길이 나

타난다.”

그래거든. 거기에서 그렇기 매를 맞아 놔서 이가 빡빡 갈리는 기라.

“이래 가더라도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카거든. 그래,

“예, 안 돌아보지요.”

가다가 한번 산천이 어찌 생긴 것인가 본다고 뒤를 휘떡 돌아보이, 그만 솔(소나무)만 가뜩 들어차 있지 집이라고 간 곳 없거든. ‘아아! 정말 내가 앞으로 여자한테 조심하라 하더니 이것이 우리 어무이가 신이 돼서 이렇게 했는가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러 가면서 ‘우리 어무이가 나를 이렇게 참으면서 한이 맺혀서 이리 했는가’ 싶어서러 그래 참 그래 갔는데, 걸어걸어 가서 이제 서울을 몇 십리를 앞에 놔두고, 그래 이 사람이 어떤 동네에, 이제는 내가 어두워서 집을 얻을라고 이래다 보면, 내가 도저히 큰 곤경에 처할까 싶어가주고, 그만 내가 이 동네 와가주고는 해가 한 발쯤 있는데, 내가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가(人家)에 와가주고,

“여보시오, 오늘 하루 저녁에 자고 갑시다.”

카이,

“어디 가는 손님인데?”

그래,

“나는 서울에 과게보로 가는 길입니다.”

“예 그래요, 과게보로 가는 길인데, 아하, 여기서 자고 가면 내일 시험에 시간이 안 맞는데, 여게서 자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고개를 넘어 가면, 한 오리나 요래 남가놓고 거기서 자고 가면 시간이 딱 맞을깁니다.”

“그래요, 나는 해 지기 전에 여기에서 자고 갈라고 했더마는.”

그래 이 사람이가 거기에서 나서서 일찍이 간다고 말이지, 해는 다 져가지, 가다가 보이 길을 잘못 들어뿠어. 잘못 들어가주고 또 한 곳을 가서 내리다 보이 저쪽 한 곳 구석에 불이 환한 기라. 그때는 불이 빤하던데, 이것은 환한 기라. ‘야, 저거는 큰 집인 모양인데 저게는 가면 여러 사람이 살겠지’ 싶어 그 곳으로 내려갔다 말이지. 내려가이 집이 말이지 큰 기와집이 두렷하게 서 있는데 보이, 이쪽 구석에도 불이 환하고 저쪽 구석에도 불이 환하고 이렇게 집 큰데 내 하나 자고 갈 수 있지 싶어가주고 저쪽 한쪽 머리에 가서,

“주인 계시오.”

부르이, ‘예’ 하면서 나오는데 보이 한 여자가, 그때는 처녀가 나오던데, 저거는 그 유도 아이라. 저거는 눈을 살풋이 뜨고 생끗 생끗 웃어가면서,

“서방님 오십니까?”

카면서 달려들거든.

“여보시오, 내 몸에는 손을 대지 마시오. 손을 대면 나는 몸이 근지럽어가주고 못 배깁니다. 잠을 못 잡니다.”

"하, 그래요. 그러면 저 방에 계시오."

카면서, 그래 그쪽으로 안내하고, 여자가 몸띠이가 비치는 옷을 입고 궁둥이를 야그장거리며 하는데 보이, '저그는 잡아먹어도 참말로 구린내도 안 날 듯 해. 야 조렇게 잘 생긴노?' 싶은데, 그러다보이 저녁을 채려왔는데 보이, 큰 밥상을 갖다 내놓고 앉아서 무릅팍을 고아 앉아가주고 젓가치에 반찬 하나를 집어 주면서,

"요거는 닭고기입니다."

카면서 한 젓가치로 입에 옇어주고, 또,

"요거는 돼지고기입니다."

이렇게 먹으니 밥 한 그릇 다 먹고, 또 밥 한 그릇 가져와서 그렇게 하니 다 먹어뿠네. 그래 다 먹고 나니,

"서방님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더라네.

"아이구, 내 목욕을 안 하도 됩니다."

"아이구, 내일 시험을 보러 간다며는 이 양반아, 목욕을 해야 됩니다."

카더만 목욕탕에 갖다가 목욕을 잘 씻기고 잠옷을 한 벌 딱 내주면서,

"불 끄고 주무시라."

그래 그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너른 방에, 그저께는 단칸 방에 둘이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는데, 이제는 이런 너른 방에 자면 괜찮지 싶어가주고 그래 자더란께 웬걸 가슴빼기가 무쭐하가든. 눈을 시일 떠 보인께네, 여자가 잠옷을 살이 빌똥말똥 하는 요런 걸 입고 와서 잠이 잠깐 든 새 이래. 그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러,

"아이구, 몸이 근지럽어 나 죽겠네. 이놈우 여자가 남의 살에 손을 대가주고 근지럽어 내일 과게도 못 보러 간다."

카면서 펄펄 뛰고 이랬거든.

"아이구, 여보시오. 내가 그렇기 인물이 못 났냐고, 우예 이렇게 놨두고 이렇게 괄시를 하는냐?"

고, 눈물을 흘리고 찡찡 울고 이래.

"아이구, 눈물을 한없이 흘리도 나는 몸이 근지럽어서 나는 죽습니다. 이 다음에 손이 이리 오면~"

남자가 하도 부채고(보채고) 하이, 그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기라. 이제 이만치 됐으면 싶어가주고 인제는 안심을 하고서 이제 옷을 벗고서 눕고 자면 되는가 싶다 하고 있는데, 눈을 가마이 떠보니께, 여자가 홀딱 벗고 와가주고 자기의 배 위에 타고 그 보드러움을 가주고 디리 대고 문때는(문지르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노? 남자의 몸에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됐지. 왜 이러십니까? 누구를 죽일라 이러십니까? 내일 과게도 못 보고 죽일라 그라면."

카면서 부딪치고 그만 쫓아나오면서,

"나는 딴 데 한 데 가서 자로 나가겠다."

한께네,

"아이고 여보."

카면서 따라나온께, 어디서 '더덜컥' 것디마는 '악' 소리가 나는 기라. 휘뜩 뒤돌아 보인께네 어떤 사내가 키가 장대 같은 것이 칼을 들고 그만 여자의 목을 탁 치뿌리는 기라. 한 번에 쳐뿌린께, 이 사람이 씨겁을 하고 탁 엎어졌거든. 쫓아오디마는,

"니가 누구냐?"

"예예, 지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됐어, 니가 아까 눕었던 방에 들어가라."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기다가 쳐다보이 키가 장대같고 이런 기 칼을 갖다가 벽장에 딱 걸어놓고,

"내가 오늘 봐하니, 내가 임금에 하도 힘이 좋고 장사고 이래가주고 내가 무적장군이라는 명의를 얻어가주고 임금을 보호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 내가 시내 안에 살다보이 하도 좋은 부인을 얻어가주고 사니, 그 신하들이가 그 여자들하고 이런 탈을 내고 이래가주고 여자들이 내한테 싫어져서, 그래서 이런 골짜기에 와서 집을 지아가주고 내가 이래 사는데, 하마 몇 차례 골병이 나가주고 남자들이 찾아와가주고 이런데, 내 손에 하마 여러 명이 내한테 칼에 죽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어느 놈이 또 와서 이런 짓이 있다면 내가 두 년놈을 한 칼로 쳐죽일라고 했더니, 문 앞에 와서 떡 들어보이 지독한 놈이야. 그 세상에 젊은 한창에 그 보드러운 여자가 와서 그래 껴안고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사람이 거기에 안 넘어갈 리가 없다. 그런데 니가 절개를 지키고 하는 걸 보이, 니가 여간한 독한 놈이 아이다. 그러니 내일 날이 새면 내가 너를 좋은 자리에다가 취직을 시켜준다."

그래 인자 새벽에 배깥에 나가디마는 술을 가져오는데 보이, 큰 버지기에다가 가져나오는데 보이 누른 청주를 가져오는 기라. 그래가주고 큰 그릇에다가 가득 따루어,

"아나, 동생, 니 한 잔 먹어라."

"어찌 장군 앞에서 먹겠습니까?"

"내가 가져왔으니 이것도 먹어라."

그래 술을 한잔 먹었거든. 먹고나이 큰 양푼에다가 부어가주고 쭉 들이마시고, 안주를 가주오는데 보이, 소다리 같은걸 칼로 삐져가주고,

"아나, 먹어라."

카며 주거든. 이런데 안 받아 먹을 수가 있나 겁이 나서 말이지.

"오늘은 이렇게 됐으니, 나는 바로 시내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일 날이 새면 너를 모시러 올 사람이 있을 터인께, 이제부터 마음 푹 놓고 잠을 자거라."

"예."

카고 있으이 잠이 오나! '내가 참 우리 어무이 아부지가 큰 놈이 되자 하면 여자한테 주의하라고 그렇게 유언까지 할 때 바로 이 여자에 말이었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으이, 어느덧 날

이 새가주고 눕었다 보이 바깥이 훤하고 어디서인지 골짜기에서 꼬부랑 나팔 부는 소리가 '삐~빼, 삐~빼'카고 '쿵작 작작'카고 들어오는 기라. 들어오디마는 지(자기) 방에 한 사람이 떡 들어오는데 보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 높은 사람이 들오디마는,

"어제 저녁에 무적장군님하고 결의 형제를 맺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카거든. 대답을 안 했거든, 겁이 나서. 이래가주고 있으이 또 부르고 세 번을 부를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카이,

"아이 그렇습니까?"

카며 문을 열어재치니 누른 금빛짜리라.

"선생님, 보교(步轎)에 타십시오."

그래 보교를 탔거든. 타고 가는데 '쿵작작'하고 뒤에서는 나팔을 불고 춤을 치면서 왕실에 떡 갖다 놔놓고는,

"여봐라, 무적장군님의 동생이 출두하신다."

카이, 저쪽에서 키가 크고 무겁은께 '쿵작 절삭'하면서 오더니,

"동생, 니 왔느냐?"

"예."

"그래, 임금님한테 내가 말큼 세세한 얘기를 다 했노라."

그래다 보이, 임금님이 부르거든. 부른데 보이, 하마 관복을 짝 해 입고 그래 임금 졑에 가서 임금님한테 인사를 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무적장군님한테 상세히 얘기를 들었노라. 니가 그렇기 절개가 굳고 그런 사람이면 우리나라에 금전 처리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정해 주겠노라. 니가 이렇게 독한 놈이면 뭐든 세밀히 하고 잘 지킬 사람이니까 계급도 높은 자리에 주겠노라."

그래가주고 이 사람이가 벼슬이 돼가주고, 인제 고향산천을 돌아오는데, 그래 말 타고 집에 오이, 어무이 아부지 다 죽고 없고 하이, 그 어무이 아부지 산소에 와서 재배하고,

"어무이 아부지 유언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이 나라에 높은 사람이 되게 했으니 우리 아부지 참 고맙습니다."

카고, 인사를 하고, 거기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좋은 여자 만내가주고 그래 잘 살았답니다.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52~158쪽.

[범방동 설화 33]

청상과부와 숯장이 총각의 인연

구 술 자: 김윤근(남, 72)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옛날 밀양 박씨하고 손씨들하고 있는데, 손가 집에는 딸이 있고 박씨 집에는 아들이 있는 기라. 아들이 있는 집에서 며느리를 볼 판인데, 옛날에는 박씨들이 양반이라 카데. 손가들도 양반이고. 박씨들이 양반이기 때문에 손가들도 전에는 양반이라 캤어. 그래 양반 집에서 양반 집에 결혼을 떡 하게 되었는데, 그래 인제 며느리를 볼라고 날을 떡 받아 놔놓은께 손가 집에서 뭐라고 하는 기 아이라,

"딸로 너그 집에 주되 사람을 잘 챙기라."

이카거든. 준 이상에는 잘 믹이든 못 믹이든 이쪽 책임이 아이가? 그래서 참 신랑 측에서 장개를 갔는데, 장개를 가가주고 며느리를 봐논께 며느리가 그리 좋은 기라. 시아바씨가 며느리가 좋아가주고 몬 견디는 기라. 시아바씨는 좋다 카는데 시어마씨 이거는 못되가주고 며느리를 안 좋다 카는 기라. 그러나 저러나 시아바씨 명에 받쳐가주고 며느리를 봤는데 아들이 4년 있다가 죽어뿌린 기라. 그마 여자가 청춘과부가 돼뿐 기라. 가마이 생각해보이 기도 차도 안 하는 기라. 이거로 어디로 양반의 집 구석으로 살로 보낼라 해도 좀 우사될 기고 그래가주고 딜고(데리고) 있다. 딜고 있으인께 며느리가 시어머이한테 가서 하는 말이,

"어무이, 어무이."

"왜?"

"내가 천상 친정에를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보내주이소."

이라거든.

"내가 허락해서 되는기 아이고 너그 시아바씨한테 물어봐라."

그래 인제 저그 시아바씨한테 가서,

"아부님, 아부님요."

"왜냐?"

"아부님, 내가 천상 친정을 한분 갔다 와야 되겠는데 이거 우째야 되겠습니까?"

이라인께,

"야야! 신랑도 없는데 친정을 한분 갔다 와야 되지 어째겠노? 그래 가거라. 시어마이 뭐라 카더냐?"

"시어마씨가 아부님한테 물어보라 카대요."

그래 시아바씨한테 허락을 받았다. 받아가주고 시어마씨한테 허락을 받으이 안 갈 수 있나.

그래 떡 간다. 그런데 시어마이는 저그 영감한테 미느리를 보낼라 칸께 기양 보낼 수는 없고 첫걸음인데 다문(다만) 장이라도 봐가주고, 옛날에는 싸가 보냈다 카데. 싸가 보내야 되는데, 양반이 돼놓인께 장을 봐가주고 적(炙)도 굽고 떡도 많이 해가주고 놔두었는데, 그래 신랑집에 넘우 집에 사는 일꾼이 둘이 있는 기라. 큰머슴과 적은 머슴이 있는데, 큰 머슴은 나이가 많고 적은 머슴은 나이가 에리고 이런데, 그래가주고 저그 며느리 친정가는데 떡짐을 짊어지고 갈라고 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기라, 큰머슴이. 그래 그 이튿날 친정에 갈 일인데, 그래 뭐라 하는 기 아이라 며느리를 부르거든.

"며느라, 며느라. 떡을 짊어지고 가려면 누를 따라가면 되노? 누를 덧고 가면 되노?"

이래 카인께,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보이소, 큰 머슴은 집에 있으면 논도 갈고 밭도 갈 수 있고, 적은 것은 그런 것을 못하인께 점머슴을 징가주이소. 같이 갔다 댕기오구로"

이래거든. 그것도 가마이 생각해보인께, 점머슴도 못 지고 가는 것도 아이고 짊어지고 갈 만한께, '점머슴을 짊어지고 가라' 카거든. 점머슴은 좋다고 지가 짊어지고설랑 꺼득꺼득 나간다. 그래 며느리가 사아바씨 시어마씨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점머슴이 떡짐을 짊어지고 삽짝 밖에 떡 나가 서 있은께, 오거든. 곱게 단장을 하고 입고 나간께 점머슴이 하는 말이 뭐라 카는 기 아이라,

"주인요, 주인요."

"왜?"

"오늘 질(길)이 얼매나 가면 됩니까?"

"어떻기나 햇동안에는 가자."

이라거든.

"햇동안만 가면 된다."

이라거든. 떡짐을 짊어지고 둘이서 가는데, 주인이라는 여자는 앞에 서서 가고, 떡짐을 지고 뒤에 따라간다. 가인께, 쉬어가자는 말도 안 하거든. 떡짐을 지고 가는데 배는 고픈데, 그래 일꾼이 그래,

"주인요, 주인요, 배도 고픈데 점심을 싸가 온 것도 없고 떡이나 한 가락 먹고 갑시다."

이란께, 주인 아줌마가 뭐라 카는 기 아이라,

"야야 총각아, 점심 때가 좀 늦어신께 물 좋고 정자 좋고 거기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좋겠나?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를 찾아가자. 가면 어데라도 가면 그런 정자가 나오겠지."

가다 보이, 방구(바위)가 넙덕한 방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 아줌마가 턱 앉거든.

"그래 물 좋고 정자 좋은데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자."

떡 보따리를 풀어 재키놓고,

"니 배대로 먹어라. 우리는 못 가주가도 괜찮은께 배대로 먹어라."

이놈이 얼매나 배가 고픈지 떡을 서너 가래 주워 먹었어. 주워 먹은께, 주인 아줌마는 떡을 한 가래 띠가주고서는 반 가래를 먹고 나서, 그때가 여름이지, 가마이 생각해보인께 아무

래도 안 되겠더라네. 그래 그 아줌마가 뭐라고 카는 기 아이라,

"총각, 총각, 내 말 좀 들을래."

"예, 주인 말 듣지요."

"내가 여 물이 좋은께 말이야 내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할건대, 니가 등물 좀 쳐주겠나?"

이카거든. 아 이놈의 자식이 겁을 내가주고 등물을 안 쳐줄라 하는 기라, 점머슴이라 카는 기. 그래 가마이 생각해보인께 이를 줄 알았으면 큰 머슴을 뎃고 올걸,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주고 마침 옷을 벗고설랑 도랑을 가거든. 도랑에 간께 옷을 떡 벗어놓고 등물을 쳐달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기라. 이기 겁을 내가주고. 그런이 축구(바보)지. 그래가주고 갔다. 하도 불러싸이 못 이기서 갔는 기라. 간께,

"손으로 물을 떠가주고 내 등드리 문때(문질러) 달라."

하거든. 그래 물을 떠가주고 등드리 씻는데, 이 여자는 총각의 코를 땡기가주고 '지 유방을 만지라' 하거든. 그래 유방을 만지라 하는데 이놈아는 겁을 내가 유방을 못 만지는 기라.

"이란다면 나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께 절대로 이라지 마라."

카거든. 그거 축구 아이가.

"그러면 여기 조금 서가 있거라. 내가 목욕할 동안 서가 있어라."

카거든. 그래 이 여자가 옷을 홀딱 다 벗고 물에 목욕하러 들어가거든. 그러이 축구인께 그렇지, 그 질로 그걸 안 볼라고 나와버린 기라, 그 여자를 안 볼라고. 그래 나와버리고 난께, 이놈의 여자는 암만(아무리) 부르이, 졑에 오라고 부르이 안 오는 기라, 인제. 그래 인자 자기 손수로 씻고서 옷을 주워 입고, 그래가주고 떡짐을 징가가주고,

"인제 가자."

이라거든. 그래 가는데 암만 봐도 어디로 가는지 질로 모르고 따라가는 기라, 이거는. 지는 모르고 가는데, 가다 가다 생각해보인께 해가 거룸한데,

"주인 아줌마, 주인 아줌마, 해가 거룸한데 우째 나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자꾸 멀었십니까?"

카인께,

"아직 멀었다."

이카거든.

"아직 어둡도록 가야 된다."

그래 이놈이 자꾸 따라가다 보인께, 그럭저럭 가다 보이 해가 져서 저물어져가 선선해지는데, 집도 절도 안 뵈인데 가는 기라. 가는데, 머슴이 카는 말이,

"날도 저물고 한데, 어데 마실에 가서 자고 가야 안 되겠는교?"

이란께,

"우리 잘 데가 안중 멀었다. 우에든지 내 따라오면 된다."

그래 가다 본께, 똑 헛간 정낭처럼 수수깨기(수수깡) 그걸 가주고 울로 해가 두루 싸놔났더란다. 주인 아줌마가 그 헛간에다 들어가거든. 떡 들어가본께 그기 바로 집이래. 방으로는 수

수깨끼로 엮어가주고 해놨는데, 문을 열어보인께 수수깨끼를 엮어 종이를 발라 문을 달아 놓았는데, 문을 열어 보인께 옛날 덕석을 방에 하나 펴놓고 솥은 옛날 냄비 같은 조그만한 걸 걸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기라. 그래 일꾼을 불러가주고,

"야야, 떡짐은 여기 니라(내려)놔라. 니라놓고 우리가 가다가 길이 저문께, 온 저녁 여기서 자고 가자."

이라거든.

"방도 없고 한데서 어째 날을 새울깁니까?"

"이 방에서 자면 된다."

카면서,

"이 방에 우리가 같이 자고 가자."

이라거든. 하루만 가면 된다 하던 것이 하루 점두록 가도 못 간께, 그래 할 수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떡짐을 니라놓고 떡보따리캉 방에다 들라놓고 있은께. 주인 아줌마가 방에 들어가서 떡보따리를 풀어놓고설랑 '저녁 먹어라' 부르거든. 이 자식이 겁을 내가 못 가는 기라. 안 가고 배껕에서 실실 돈다. 그래 돌다보인께, 그럭저럭 많이 어둡어졌지. 어둡어졌는데, 아줌마는 자꾸 들오라 카는데, 지는 겁을 내가 못 들어가고 있으인께, 어떤 시커먼 놈이 숯을 굽어 짊어지고 한 놈이 오더란다. 오는데 보인께 지 있는 데로 니리오거든. 가마이 본께 그 집 주인이라. 그 집 주인인데, 숯을 밖에 놔놓고설랑 자기 집으로 떡 들어가거든. 그래 이놈아는 배껕에 서가 있고, 그래,

"여보, 여보, 당신은 어데서 왔소?"

이렇게 물으인께,

"아무데서 왔다."

이라거든. 떡보따리 짊어지고 온 머슴아 그기,

"왜 여기 있느냐고, 가든지 하지? 이기 우리 집이다."

카거든. 그래 방에 떡 가보인께, 새댁의 신발이 하나 있거든. 그래 뭐라 말도 못 하겠고, 이래가 가마이 들다보고 있으인께 기가 차도 안 하더라네. 자기는 자야 되겠고. 그래가주고설랑 어쨀 수 없어가주고 문을 살 열어본께, 그래 곱은 새댁이가 앉아 있거든. 그 험한 데 앉아 있는데 그래,

"여보, 여보, 이 험한 집에 우째 해가 들어왔습니까?"

이라인께,

"질로 질로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천상 여기서 하룻밤 유(留)하고 갈라고 우리가 들왔다."

이라거든. 숯 굽는 머슴아가,

"잘 형편이 못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여기는 묵을 것도 없고 지녁을 해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근근히 숯 한 짐 지고 가가주고 쪼매 팔아가주고 낄이 먹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해줄 기 없으인께, 저 밑에 큰 동네가 있으인께 거기 가서 주무시소."

이라인께, '이 여자가 기여히(기연히) 안 갈라' 카는 기라. 안 가고설랑 거기서 기여히 자고

간다는 기라. 그래 거기서 잘라 칸께, 숯 굽는 주인이라 카는 거는 방이 없어서 정지에 잘 판이라, 정지 거기에서. 이놈아 이거는 한데서 떨다 떨다 안 되인께로, 지 오던 길로 가뿐 기라. 그래 정지에서 잘 판인데, 안에서 각시가 자꾸 들오라 카거든. 사실 자기 몸도 험할 뿐아이라 옷도 험하지 그래 들어가지를 못한다 말이지. 그래 가마이 생각하인께 기가 차도 안 하거든. 저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는 요 밑에 큰 동네에 가서 일꾼들 자는 데 자고 오겠다."

고 이라거든.

"그러면 나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

이라거든.

"같이 따라가면 이 일을 어찌하면 되겠느냐?"

이라고, 가마이 생각해보인께, 그 곱은 새댁을 거기 뎃고 갈 형편도 안 되고 이러인께 천상 거기에서 잘 판이라. 둘이서 잘 판인데, 그래 새댁이는 방에 들어가고 주인이라는 사람도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서 가마이 본께, 떡을 한 보따리 싸다 놓고 풀어 재끼놓고 있는데 색시가 눈에 안 보이고 떡이 눈에 보이더란다, 배가 고파가주고.

그래, 새댁은 이것 저것 물어쌓지마는, 자기는 염치 불구하고 떡을 한참 먹고나이 배가 부르거든. 그래 거기에서 색시가 하는 말이,

"밤도 야심하고 한께 우리가 여기서 잡시다."

하거든. 잘라캐도 사실은 겁이 날뿐 아이라 요새 말로 안 똑똑한 편이지. 축구지. 옷에 숯검디이 묻어놓은께 벗을라 카도 벗지 못하고 저쪽으로 구불러 자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댁은 가마이 눕어자는데 본께 아무리 해도 총각을 안 건드리면 내한테 안 오지 싶어거든. 그래 살짹이 건드리본께 일나거든. 일난께, 색시가 뭐러 카는 기 아이라,

"아무리 그러하지마는 서로가 이 방에 아무도 없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둘이뿐인데, 우째 이랄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기 이래 있는데, 당신 옷만 벗으면 내캉 상대하면 안 되느냐?"

그래 카인께. 총각 이기 겁을 내가주고 말 대꾸를 안 하거든. 사실 겁이 안 나겠나? 되도 안한 이런 사람을 그러칸께,

"나는 이라지는 못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은 내 집에 천상 오기는 처음인데, 내가 우째 상대를 하겠느냐?"

"상관이 없다."

고, 이래 말하거든 여자가. 그래 여자가 옷통을 훌쩍 벗고설랑 앉아 있는데, 그만,

"상대를 하자."

이라거든.

총각이 뒤로 물러서는데, 이제 물러 설라 하니 갈 때도 없고, 여자는 옷을 벗어야 되겠고 우에 옷을 벗으니, 총각이 치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거든.

"여보소, 내가 옷을 벗는데 당신이 옷을 안 벗어서 되겠나? 자기의 험한 옷을 벗어라고,

벗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새 옷을 입힐 수 있으인께 그것을 벗어라."

이카거든. 그래 여자가 참 그 남자 옷을 빗겼어. 남자 옷을 빗기가주고 우에도 빗기고 아래도 빗기고 보인께, 옛날에는 사루마다(日語, 팬츠; 짧은 속옷)도 안 입고 옷만 이렇게 벗으면 좇 내놓는 기라. 그래 벗어놓인께 전신이 검디(검둥이)이라. 몸띠이도 전신이 검디인데, 검디이거나 말았거나 그기(그것이) 급한데, 자기도 아래 옷을 다 벗은 기라. 그래 처매를 벗고 난께 처매 저고리를 다 벗고 난께, 세상에 살기(살, 피부)가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기(이것이)라, 남자가 볼 때는.

그래서 남자가 살짝 살짝 같이 따라 들어간 기라. 같이 따라 들어간께, 여자가 탁 틀어앉아가주고서는,

"당신이나 내나 세상 사람 모리게 온 지녁 자자."

이카거든. 총각이 못 이겨서 인제 같이 사는 기라. 산께 누구 말마따나 그런 좋은 기 없더라 이거라. 그래 좋은기 없는데, 자고 나서 날이 휘부연 하게 새는데, 자기가 옷을 주워 입고 정지에 나가는 기라, 여자가. 정지에 나간께 이 총각은 못 나오도록 하거든. 그래 인제 정지에 나가본께 세상에 양식이 있어서 쌀로 퍼내가 밥을 앉히겠나 뭣이 있어야지 밥을 앉히지. 솥은 작은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인께. 그래 가마이 생각하니 기가 차도 안 하더라네.

그래 여자가 하는 말이,

"여보, 여보, 여기 장이 며칠 날 되느냐?"

옛날 장이 며칠 날이 되는고 하니, 총각이,

"오늘이 숯짐 지고 가는 장날이라."

이래거든.

"그러면 내가 하루는 굶어도 괜찮으인께, 장을 갔다 오라."

이카거든. 그래 숯짐을 지고 갈라 카는데, 헝겁(헝겊)에다가 뭣을 딱 싸가주고 자기 남편의 가슴에 옇어주거든. 옇어주면서,

"가면 숯짐은 팔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길가에 펴놓고, 임자가 있거들랑 자기가 금지 금대로 부른 대로 돌라 캐가주고 주면은 그 사람이 살거라."

고 이카거든. 그래 이놈 자슥이 시장에 숯짐을 져다 받쳐놓고 여자가 시키는 대로 헝겁에 싼 것을 풀어놔놓은께, 지 눈에는 아무것도 아인 기라. 아무것도 아인데 어떤 사람이 오디마는,

"여보, 여보, 이걸 얼매 받고 팔려나?"

이래 묻거든. 그래,

"금지 금대로 돌라."

고 이래거든.

"나는 금(값)을 모르인께 금지 금대도 돌라."

이칸께, 그래 사람이 있다가,

"내가 암만 주고 사갈 낀데 이래 주고 팔랴나?"

이래.

"금지 금대로 주이소."

그래 줄라 카는 대로 받아 오는 기라. 오는데, 가마이 생각해보인께 여자가 도저히 집에 있어가주고 안 되겠고, 마중을 나가는 기라. 마중을 나가설랑 떡 보인께 숯짐은 어데다 내버리었는 어째 되었는지 모리고 지게만 빈 지게만 짊어지고 꺼떡꺼떡 오거든. 우째기나 팔기는 팔았는갑다. 그래 마중을 나가서 만난께,

"여보, 그것을 팔았소."

그란께,

"팔았다."

이카거든.

"팔았으면 묵을 양식이라도 사가 오지 그냥 오요."

사가 오라 안 한께 그걸 아나. 그걸 모리거든. 그래 여자하고 둘이서 장에 되돌아서 갔는 기라. 가가주고 이것도 좀 사고 저것도 좀 사고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이래 숟가락하고 냄비하고 사가주고 바가치하고 사가주고설랑 그래 살림꺼리를 이루는데, 그래 살림꺼리를 이라가주고설랑 그날 지녁 밥을 해가주고 요새 말로 쌀밥을 해가주고 둘이 앉아 먹어보이 남자 이기 어짤 줄을 모리는 기라. 그래가주고 냄비 솥에다가 물을 덥하가주고 그날 지녁에 목욕을 하는 기라. 정지서 둘이서, 둘이서 할딱 다 벗고 목욕을 하는 기라. 그래 하는 짓을 가마이본께 사실 복판에 그것이 자꾸 일난다 말이지, 남자가. 일난께 여자가 그제서는 저기 내게 봉황이구나 싶어. 그래 그날 지녁에 목욕을 다 하고서 그날 지녁에 둘이 가서 잠을 탁 자고 나서, 아침에 부석에 나간께 참 밥을 할라고 가보이 나무가 한 쪼가리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자가 뒤에 가서 쪼가리 쪼가리 모다가주고 밥을 떡 하면서 부석깽이로 부석을 냄비 걸어놓은 데다가 푹푹 찌른께 부석 안에서 뭣이 자꾸 뚜굴뚜굴 맞치더라네. 맞친께 뭣인가 싶어서 부지깽이로 끄잡아 내봤어. 내보인께 순 박쪼가리가 들어 있더라네 아무것도 없고 박쪼가리가 떡 들어있는데, 이 여자가 박쪼가리를 주어다 던져 내뿌리뿠어. 그러구로 하다 보이 다 떨어 묵고 할 수 없어가주고설랑 여자가 바가치를 들고 밥을 얻어러 가는 기라. 아침마중 얻어러 가는 기라. 얻어가주고 그 남자를 믹이 살리는 기라. 남자는 숯 굽어러 가고 여자는 지녁에 내리오면 지녁을 믹이고. 아직에는 얻어 믹이가 올려보내고. 그래 여자가 가마이 생각해보인께 기도 차도 안 하는 기라. 기도 차도 안 해서 그래서 여자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옛 주인 집에서도 거기서도 일꾼이 갔으인께 이야기가 되고 싶어가주고 분명이 찾아올 기지 싶어가주고설랑 그래 여자가 하는 말이,

"여보, 여보, 오늘 우리가 이사를 좀 합시다."

이사를 할라 카이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는데.

"이사를 가면 어디로 갑니까?"

"여 밑에 큰 동네로 내려갑시다."

"동네로 내려가면 우리가 방도 없고 한데, 우째 거가 살깁니까?"

카이,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는 것이 낫소."

그래 이사를 가자 하니 총각이 겨이(결코) 안 갈라 카더라네. 그래 그날 지녁에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여자가 꼭 씨아서(고집을 부려) 델고 갈 참인데, 밤에 둘이서 잠을 자는데, 여자가 꿈을 꾼께 뭣이 정지 앞에 큰 금덩어리를 갖다 놨더라 이래 꿈이 꾸이더라네. 그래 퍼떡 일어나가주고 정지에 떡 나가보인께 아무것도 없더란 기라. 그래 새북에 떡 아침을 할라고 나가 본께 그래 참 해골 같은거 바가치 같은 것이 정지 문 앞에다가 딱 엎어놨더라네. 그래 엎어놨는데 신랑한테도 말도 안 하고 자기는 알고서러 이걸 주았는 기라. 주아보니께 요새 말로 하자면 금이라. 금을 바가치 속에다 덮어 놓았는 기라. 이놈을 가지고 품 안에 옇어가주고 있으니 꼭 아 뱄는거처럼 이렇거든. 그래 남자가 하는 말이,

"여보, 여보, 당신 눈이 많이 부어가 있어."

"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께 오늘은 숯 굽는 데 가지 말고 내캉 시내 나가가주고 양식도 좀 팔고 모든 걸 묵을 거를 해가 와야 살겠다."

그래 남자를 덧고설랑 시장을 가는 기라. 간께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기라. 모리고, 금을 길가다 피놔놓고 있은께 몇 사람이 만져보고 만져보거든.

"이기 뭐냐?"

물은께,

"우리도 모른다."

이라거든.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내가다가 끝에 사람이 있다가,

"이거 얼매 받고 팔라요?"

이래 묻거든. 그래,

"금지 금대로 돌라."

그래 돈을 받아가주고설랑 쌀도 받고 숟가락도 사고 뭐 장꺼리도 사고 전부 사가주고 총각한테 징가가주고 온께, 집에 떡 온께 정지 안에 냄비 솥을 연께 그 안에 돈이 소복하이 들어 있더란다. 그래가주설랑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인데 내가 속았는가 싶어서 생각을 했더마는 이제는 살 국량이 나온다. 이러 카면서 그래 총각을 부르거든.

"여보, 여보, 여기 와 보소. 이 돈이 냄비 솥에 소복히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총각이 겁을 내가 그 돈을 못 쥐는 기라. 그래서 여자가 소두벵이를 열어가주고 돈을 바가치에다 떡 부어놓으인께, 이놈 바가치 바람에 돈이 다 없어져뿌리네. 어데 갔는지 흔적이 없는 기라. 주인 여자가 가마이 생각해보이 기가 찬다 말이지. 그래 그날 지녁에 어떤 노인 한 분이 흰 옷을 보야히 입고 자기 앞에 와가 있더라네, 여자 앞에. 그래 퍼떡 깨보인께 꿈이라. 그래가주설랑,

"니가 무슨 잠이 그렇기 오노?"

이래 카더라네. 그래,

"나는 안중 젊은께 잠이 많이 옵니다."

고 대답했는 기라. 그래 아침에 나가보이 흰 옷을 씻거놓은 버지기 자죽이 나 있어 그걸 따라 딱 가보인께 큰 방구 밑에서러 큰 버지기만한 것을 덮어놓았더란다. 그래 그 버지기를 휘떡 들시보인께 순금이 들어가주구설랑 그 밑에 금이 쏙 들어있더라네. 그래 그 여자가 덜렁 껴안고설랑 오인께, 집에 오인께 그기 없는 기라. 없어져버리는 기라. 그래 아무리 해도 이상하다고 신랑한테 물었는 기라.

"너그 아부지가 있나?"

이칸께,

"우리 아부지가 어릴 때 세상을 버리고, 우리 어무이는 나를 일곱 살 묵이가 세상을 베맀다고. 세상 베리고 나는 내 혼차 숯 공장에 들어가가주고 묵고 사는 기 있다 이기라."

"그러면 니 엄마가 니 하나 밖에 안 낳았나?"

칸께,

"지 하나밖에 안 낳았다."

는 기라.

"그러면 너그 엄마 미(뫼)를 어데 갖다 쓴노?"

이칸께,

"아무 데 저가 썼다."

이라거든.

"그러면 너그 아부지 미는 어데 갖다 썼노?"

"그러면, 거기에 한 번 찾아 가보자."

그래 저그 아부지 미 쓴 데 가보이 저그 아부지 봉우는 가만 그냥 있고, 저그 엄마 미 썼는 데는 봉우가 조금 갈라져 있더라네. 그래 이 여자가 그때서는 알았다 이거라. 봉분이 벌어질 때는 돈이 나오고 오무러질 때는 걷아 들어가뿐 기라, 그 돈을. 그래 이 여자는 수단을 어떻게 해야 봉분을 벌어지도록 맨들어놔야 되는데, 안 벌어지도록 하면 또 나왔다 들어가뿐 기라. 그래 여자가 혼자 여산을 하고 있지.

"여보, 여보, 우리 오늘 지녁에 가가주고 우리 엄마한테 가가주고 상을 잘 봐가주설랑 우리 엄마 주검 앞에 가서 신문지 한 장을 펴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제사를 지내면 뫼가 안 벌어진 기 안 어불러질 기 아이가"

그래가주고 참 이놈아 델고가가주고 장을 떡 봐가주고 제사를 지낸께 미가 차차 차차 벌어지는데 돈은 안 나오더라 이기라. 그래 제사를 지내고 둘이 집에 들어와 본께 전신만신 방안에도 부섴에도 전신이 돈이더래. 그래가주고 이 여자가 그제서는 자기 엄마를 제사를 꼭꼭 지내고 자기 아버지 제사도 꼭꼭 지내고 이래 있는데, 그 험한 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래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는 기 아이라,

"내일에는 당신 마음에 드는 대로 여 밑에 큰 동네에 가서 큰 개아집(기와집)이든지 뭣이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사라. 돈은 이만 하면 될 수 있으인께."

그래 이놈아가 내려가본께 큰 개아집인데, 아래채도 개아집이고, 옛날에 양반놈 집구석인

데, 본께 그 집을 팔라고 써 붙이놨거든. 그래 인제 이놈아가 하는 말이,

"아무 데 아무 데 저게 큰 개아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이 걸음에 저걸 삽시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지요, 그것 살만한 돈도 된다."

그래 그 돈을 주고 개아집을 샀는 기라. 사고난께 그래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만하면 우리가 넘한테 잘 산다는 소리를 안 듣겠느냐? 우리가 아들 딸 놓고 여기 잘 삽시다."

그래 거기서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나오더랍니다.

[범방동 설화 34]

굼벵이 색시

구 술 자: 김윤근(남, 72)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옛날에 어무이(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부지하고 아들하고 둘이가 살아가는데, 아들이 나이 삼십이 돼도 장개(장가)를 못 가고 이런데, 아들하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거든. 깊은 산중에 들어 가가지고 낭글(나무를) 비고(베고) 거거다 불을 질러가지고 산전을 해가지고, 서숙(조)도 뿌려가지고 해서 살고 이랬는데, 아들이가 나이 삼십이 휘떡 넘어서 가지고, 장개도 못 가고 그만 홀로 있는 총각으로 지내고 이랬는데, 그래 만날(늘) 산에 올라가면,

"내 이 산전 지어가지고 누(누구)하고 먹고 살꼬?"

이라거든. 그러고 자꾸 신세타령을 하면서, 또,

"내가 이 밭 지어가지고 이 곡식 내가지고 누하고 묵고 살꼬?"

이라이까네, 난데없이 저 산에서러 하는 소리가,

"니캉 내캉 먹고 살지"

그러거든. '하! 이거 무신(무슨) 소린지' 싶어가지고, 그래 또,

"내 이 밭 산전 밭 지어가지고 곡식 내가지고 내가 누하고 먹고 살꼬?"

그라이까네, 또 저 산에서,

"니캉 내캉 먹고 살지"

그러이, 소리나는 데로 자꾸 가면서 말을 하이 자꾸 대답하는 데로가까이 갔거든. 가이까네 구멍이 난 큰 낭게(나무에), 수백년 묵었는 나무가 썩어 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기라. '야! 이거 이상하다. 이 안에서 내하고 니캉 먹고 살자 그라는데, 뭐가 있는고?' 싶어가지고

그래 올라가가지고 손을 가지고 허버(후벼)가지고 이래보이카네, 거서 뭐가 있나 할 것 같으면 굼벵이가, 한손 되는 굼벵이가 크다난게 허연게 있거든. 그래 그 놈을 꺼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옷자장(옷자락)에다가 싸가지고 집에 왔거든. 집에 와가지고 나무로 맨들었는 이농소박(장농)에다가 여(넣어) 놓고, 산전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오몬 밥을 희한하게 해 놨거든. 그냥 보도(보지도) 못한 밥을 해놓고, 밥상을 보자기로 덮어놓고 가고 없고 이라거든. 대체 누가 이리 밥을 해놓고 가는지 모르겠고. 그래 인자 그 굼벵이가 환생해가지고 이런 판인데, 지(자기)는 그것도 모리재(모르지).

"에라, 내가 뭐가 이래 하고 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번 수탐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 밖에서러 가마이 수탐한다고 숨어 앉아가지고 있으이, 갑작이 방이 훤하거든. 방안이 훤해지더니마는 뭐가 막 나오는데, 구부닥지(뒹굴기)를 몇 번 치더마는, 고만 처녀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처녀가 일등처녀라. 그래 대번에 쫓아가서 붙들고 싶으나, 우찌 하는둥 볼라고 이러는데, 부엌에 나가가지고 우떻고 우떻고 이러더이, 고만 쌀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딱 밥을 반상 위에다 채려놓고, 그만 구부닥지를 치더마는 흔적이 없는 기라.

"아~ 틀림없이 굼벵이가 환생을 해가지고 이리 되는 기다."

카고, 그래 나중에 며칠을 있다가, '내가 저 처녀하고 우예든지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데 가찹게(가깝게) 숨어 있다가 한참 환생을 해가지고 막 처니(처녀)가 돼서 나오는 거를 탁 껀안았뿠다.(끌어안아버렸다)

"아이고, 니하고 내하고 사자."

카면서 막 입을 맞추고 이래 사정을 허인까네,

"때가 일러 안 된다. 좀(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옳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낄데 왜 하마 급하게 이래노?"

이래거든. 그리고는 휘떡 가더니마는 며칠 밥이라고는 안 해놓고, 그만 이래,

"아이구, 이거 내가 시방(지금) 너무 잘못했다."

고 이라는데, 그만 한 달이 시리리 돼가지고, 그래 하루는 집에 오이까네, 또 그때처럼 밥을 해놨거든. 그래 한번 딱 그만 환생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는 나도 사람이 되었이니까네 그래 내 하고 살자."

그래는 기라. 그래 이 사람이 이 처녀하고 둘이가 사는데, 재미있게 희한하게 사는데,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고을 원(원님)이 그걸 알았어. 저 산에 산전해가지고 먹고 사는 놈이 여자를, 일등미인을 구해가지고 산다꼬 소문이 차차 나이까네, 한 번은 그만 이 남자를 올라오라고 호출이 와가지고, 그래 원한테 딱 올라갔더니,

"이놈 니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좋은 여자를 니가 오데서 훔쳐 와서 그리 데리고 사노?"

하이까네,

"아니올시다. 내가 그래 하도 그래가지고 …….."

사실대로 얘기를 다 했거든.

"그러면 여자를 한 번 불러 올려라."

그러거든. 그래 여자를 한 번 불러 올렸거든. 그 원도 보이 세상에 요렇기 잘난 여자가 없거든. 그래 여자가,

"나는 당신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당신은 하늘에서 태아(정해) 준 베필이가 아이니까네, 그래 내 하고는 암만 당신이 그래도 안 된다."

하거든. 그래가지고는,

"우리 남편하고 무신(무슨) 시합이를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당신 마느래가 되겠고, 지면 당신은 돈을 수억 원 줘야 된다."

이러거든.

"아이구, 그까짓거, 저 멍충이 같은 거 저런걸사(저런 것이야) 내가 못 이겨?"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뭐를 내기를 하냐 겉으몬, 저 건네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강을 건네갔다가 건네오길 시합을 하는 기라.

그래, 고을 원은 과거에 말을 타고 강을 뛰어갔다가 뛰어오고 했는 모양이대. 그랬는데, 이 사람은 우예(어떻게) 강을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하겠노? 이래가지고, 그래 집에 와서 걱정을 하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서방님 보소, 나중 그때 갈 때 내가 말을 한 필 구해 줄테이까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더."

"말을 구하러 가면 어데로 가노?"

그라이카네, 그래,

"아무데 가면 좋은 말이 그렇게 많이 있지마는, 눈에 눈꼽지도 나오고 삐삐 마르고 다 죽어가는 말을 달라 커소. 우리 아부님한테 달라 커소."

그래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

"오! 그래, 저 한쪽에 매여 있는거 저거 몰고 가라."

그러더라네. 그래 다 죽어가는 저거를 갖고 강을 건네서 넘어오나 싶으고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래 그날에 경기대회에 딱 갔는데 거서(거기에서) 이 사람이 우예(어찌) '쾅!' 한번 했는데, 이 말이 저 건네 탁 뛰어가지고 물도 한 방울도 묻지도 않고 갔다가 또 저짝(저쪽)에서 탁 왔는데, 고을 원에 말은 강 중간에 갔다가 '쿠덩덩!' 떨어졌다 말이지. 그래 원이 졌단 말이지. 원캉 이 사람이 내기를 할 때 원이 지몬 돈을 올매(얼마) 내겠다 해서, 그래 이 사람은 원한테 돈을 수백만원 타가지고 와서, 농사 지을 들로 사고 이랬지.

그라고, 고을 원은 '저 놈의 자식에 계집을 꼭 뺏어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뭐로 내기를 할꼬?' 싶어가지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고을 원이 하는 말이,

"내가 글을 하나 줄 테이, 글을 해석하기로 하자."

그래. 저 멍충이 같은 게 저기 뭔 글을 알겠노 싶어가지고, 그래 글을 하나 냈어. 그래 또 집에 와가지고 걱정을 하이, 여자가 친정에 가서 글을 가지고 와서 원한테 바치니, 원이,

"이 글을 누가 이렇게 해석을 잘 했느냐?"

물으니,

"우리 마느래가 이걸 해석했습니다."

부인이 해석했다 카거든. 그래 원이 '이 부인이 보통 부인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 부인은 하늘에서 내린 부인이라서 함부로 하겠다 생각하지 안 허고 많은 보상을 해 줘서, 그래 이 부부는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답니다.

※ 김승찬, 『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162~166쪽.

[범방동 설화 35]

호식당할 도령과 세 정승 딸의 결연

구 술 자: 김윤근(남, 72)
구술 날짜: 2000년 10월 3일
구술 장소: 범방동 본동마을

옛날에 어느 동네에 진사(進士)가 이었다. 돈도 많고 동네에 권력도 시(세)고 이래 사는데,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아도 자식이 없었으요. 자식이 없어가주고 고민, 고민을 하고 절에 가서 공도 디리고, 목욕 단장하고 뒤에 가서 탑을 모아놓고 자식 하나 태어달라고 그래 공을 하다보이 자식이 하나 생겼는데, 사십에 가가주고 늦게 아들 하나를 봤어요. 그 아들이가 참말로 병이 나면 인삼 녹용을 구해 달여 먹이고, 이래 키운 아들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가 우에든지 늦게 낳은 자식이라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기라. 그러다보이 서당에 공부도 가르치고, 이래 하고 있었는데, 열두 살 되어가주고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 있다보이 중이가 동냥하러 '관시음보살 나무아미타불'카고 회심곡을 해가며 뚜리거든. 아들이 무슨 소린가 싶어 나와 있거든. 떡 나오다가 중의 바랑에 동냥을 주고 난께, 보디마는 '아참, 아는 좋다마는~' 그래서 또 돌아가면서 '아는 좋다마는~' 그래카고 가는 기라. 그 얘가 집에 들어가주고 하는 말이,

"아부지요, 내가 쌀 시주를 주고 나인께네,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는 좋다마는~' 두 번 서 번 하고 갑디다."

"아이!, 그래."

"여봐라."

칸께, 머슴이 쫓아나와,

"왜 그러십니까?"

"니가 빨리 따라가서 대사를 불러 오니라."

그래, 머슴이 따라가면서,

"대사님, 대사님."

부른께,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 주인님이 오시라 캅니다.”

그래 아까 아를 보고 그랜건가 싶어가주고, 그래 참 따라갔어.

“대사님, 이리 들어오십시오.”

“정말로 말이지 대사님 밖에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 듣는데, ‘아는 좋다마는~’ 히셨는데, 그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압니까? 모릅니다.”

“내가 시주도 많이 할 터인께 가르쳐다고.”

그러하인께,

“그러면 제가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야가 열여덟 살만 먹으면 호식할 팔자입니다. 호식할 팔자인데, 열덟 살 먹으면 범한테 죽습니다.”

그만 그 얘기를 딱 들으이 간이 뚝 떨어지는 기라. 저거를 사십에 가서 아를 얻어 기루는데 그만 저거 하나 죽어뿌고 나면 그 집 손(孫)이 딱 끊어져뿌리는 기라.

‘아이구’ 이라더마는 대사님에게,

“이거를 살리자면 방도가 없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야를 살릴 방도는 삼 정승의 딸한테 장가를 들어야지 살릴 뿐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감님이 돈은 많이 있지마는, 그 정승의 딸에 가당이나 하나 말이지. 세상에 죽는 것이 좋지.

“대사님, 우째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 그 방법밖에 없다니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내한테 주시오. 내가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참 중이가 데리고 나가는데, 영감 내외는 아를 내보내놓고 눈에 눈물이 떨어지고 저거는 죽는다 하고 조그만한 보따리를 해가주고 그래 중 뒤에 따라가는데, 돈을 해가주고 보내는 기라. 우째든지 야를 살아오는 날까지 기도 드리고 치성을 드리면 하늘에서 알아주겠지 하고 매일 정성껏 기도를 드리는 기라.

그래 참 중이가 데리가가주고 절에서 잘 먹이고 공부를 시켰어. 이제는 기한이 다 차 가고 이라이, 야를 돈을 뭉치가주고 ‘서울로 올라가라. 니사 죽든지 사든지 올라가서 하라.’ 그래 대사가 그런 얘기를 다 했거든.

“너는 열여덟 살 먹으면 호식할 팔자라. 이래가주고 니는 삼 정승 딸한테 장개를 들어야 니가 살지, 그리하지 못하면 못 산다.”

“그래요. 내가 무슨 팔자를 이래 타고 났나.”

하고, 그 대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래 참말로 서울에 올라갔거든. 올라가가주고 어데 정승이 많이 사는 근방에 가가주고 팥죽 장사인가 무슨 장사인가 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하숙을 정해놓고, 그래 야가 심성도 좋고 이런데 고민이 있는 기라. 할무이가 하는 말이,

"아이 이 사람아, 자네는 무신 고민이 그리 많노?"

이래 물으이,

"그기 아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말로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고 이래다보이, 그래,

"나는 한도가 다 찼습니다. 호식갈 팔자가 되인께, 삼 정승의 딸에 장개를 가야 내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 할마이가 생각하더니만,

"우리 집에 딸이가, 그 정승의 집에 몸종으로 가 있는 우리 딸이가 하나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 줄는지 안 들어 줄는지 모르겠다. 열 엿샛 날이가 저그 아버지 제사인데, 그 때는 올기다. 오면 내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 보겠다."

그래,

"저녁에는 늘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나오기도 하고, 이러하인께네, 내가 상세히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러다본께네, 저녁에 보이,

"엄마"

쿠고설랑 딸이 들어오는데 보이 참 미녀라. 처녀가 딱 들어오더니,

"어무이 오늘 지녁에 아부지 제사인데 그래 제사 장 보고 다 했나?"

"그래 다 준비했다. 너도 정성이 지극하다. 아부지 제사에 이래 나오고 참 고맙다."

그래 밤중이 되도록 있다가 어무이가 하는 말이,

"야야, 저게 있는 총각이 삼 정승 집에 장가를 들어야 호식을 안 한다 하는데, 아이구 니가 살릴 도리가 없나? 여자 여럿이 뭉치도 사내 하나를 못 당한다는데, 저런 남자를 죽일 수 있겠나? 범의 밥이 되도록 할 수 있겠나?"

처녀가 고민을 하는 기라. '아이구 되겠나? 어렵다고' 그래 나중에 있다가,

"엄마, 내 목숨을 떨어지는 한이 있더래도 하는 대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그날 아침에 여복을 한불 입히가 이래가주고 여자로 해가주고 데리고 정승네 집으로 들어갔거든. 들어가가주고 정승 집에 가서,

"어제 우리 아부지 제사에 갔더니 우리 동생이 아부지 제사에 왔는데, 하도 내가 정승 집에 딸들이 참 인물도 좋고 글도 많이 배우고 그래 자랑을 했더이, 지도 그래 구경이나 한 분 해보고 가겠다고 해서 그래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아이구, 그러면 좋지. 남자 아닌 이상 오죽 좋아, 들어가 같이 놀아라."

고, 그래 참말로 이 아이를 데리고 정승의 딸 방에 별당에 들어갔거든. 들어갈 때 야를 이내(곧) 평풍 뒤에다가 숨가놓고, 그래 방에 들어가가주고 있는데, 김 정승 집에 갔는데, 이 정승의 딸, 박 정승의 딸들이 그 집에서 노는 날로 와가주고 재미있게 디리(들이) 놀고 하는데, 이놈은 어짤고 싶어가 거기서 간이 두근거리는 기라.

그러다보이, 이 집에 몸종으로 있던 처녀가 나와가주고,

"보래요, 여하튼 옛날 이야기 한 마디 할까요?"

"아이, 이야기 한 마디 해라 말이지. 시상에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하더이, 오늘은 어찌키 이야기를 할라 카노?"

"이얘기 한 마디 합시다."

그래 옛날 이얘기를 한 거가 야(이 아이) 이얘기를 하는데,

"사십의 나이에 자식을 하나 봤던 것이 호식할 팔자라 캐가주고, 그래 그 집에서 그를 내보내어 절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주고 우예우예하다 본께 그 정승의 집에 들어 왔는데 그 정승의 집에 딸들이가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나 없나 물으께네, 된다 카는 처자도 있고, 안 된다 카는 이얘기도 있고 이라는데, 그렇더라."

"아이구, 내사 말이지 살려 주겠네."

"니는 어떻노?"

"나도 살려 주겠다."

서이(셋이) 다 살려 주겠다 카네.

"우리들은 재상의 딸이니까 그렇기 해야지."

"참말입니까?"

"참말이지."

그래, 다짐을 딱 받고는, 평풍을 열어재끼니, 아주 미남이라. 이년들이 앉았던 기 그만 뒤로 돌아서 앉거든.

"아까는 그렇기 하겠다고 이얘기를 하던 사람들이가 인제는 데리다 놨으인께 당신들 알아서 해라. 아가씨들 알아서 해라."

그라고 뛰어나가뿐 기라.

그래, 나중에 밤중쯤 어데서 바람이 쉬이 불어재끼디마는 호래이가 문 앞에 와서 '으르렁' 하는 기라. 그러더마는 꼬랑데이로 문을 탁탁 치고 이라는데, 정승 딸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노. 귀신 나가는 경문(經文)을 외워대는 기라. 외워대이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라도 경문에 겁을 내고, 사람은 경문에 매였다고, 호래이가 들오지는 못하고 발로 문만 할키고(할퀴고) 그러다보이, 이놈이 까물어져(까무러쳐)뿠어. 까물어져가 나자뻐져(나가자빠져) 있고, 처녀들은 정신없이 경문을 외다보이, 그러다보이 열두 시를 지나 새로 한 시쯤 되인께네, 어데서 날개를 탁탁 치는 소리가 나디 닭이 우는 소리가 '꼬꼬' 하며 울어대거든. 그만 호래이가,

"으흥 내가 니놈을 잡아 먹을라 그리했더마는 그래지 못하고 간다."

카고 호래이가 그집 마당에서 벽락같이 소리로 울어대디마는 그만 사알 가뿌거든. 그래고 나서 보이, 총각 이놈의 자식은 휘뜩 나자빠져서 죽었어. 그래 처녀들이 서로 주물기고 코도 빨고 옷을 벗어가 자기 몸을 가주고 문때고 이래가주고 총각을 살려냈거든. 살려놓이 일등 미남이라. 이제는 날이 새면 남자하고 서이가 저렇게 되었으니 내일이면 절단이 나는 기라. 부모들이 정승의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카면 낭패거든. 절단 나는 기라. 그래 인제,

"오늘은 우리가 지녁에 우째 돼서 이래 이래 벽장에 옇어놓고 밥을 주고 할거이니까,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숨겨 가며 이래 있다, 나중에 이 양반이 과게 보도록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래 이 사람이 공부를 절에서도 많이 배웠지마는 저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이래 댕기면서 서이가 그라이 삼 정승 집에 장가를 들었지. 그래 이 사람이 있다 보이 세월이 흘러서 있다 보이 요번에 과게는 어사 도장원 나올 시험에 광고가 붙고 이렇다 카이, 그러이 정승들이 다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처녀들은 다 알기 된다꼬.

“아부지요, 요번에 시험 문제, 과개에 제목은 무슨 제목입니까?”

“너들이 알아서 뭘 할라고?”

“우리 딸자식도 알면 안 됩나까?”

“좀 가르쳐 주소.”

카인께, 그래 문제는 무엇이라 가르쳐주니, 딸들이 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아가주고 이 사람한테다,

“과개보러 가면, 이런 제목이 나올낀께 그래 그래 쓰라.”

그래가주고 과개보러 턱 나가가주고 시험에 나오는데 보이 틀림없는 기라. 눈을 지긋이 감고 앉아 ‘내가 우째해서 부모의 기도의 덕으로 살았는가’ 생각하고 붓으로 이리저리 써가주고 제일 먼저 김 정승 앞에 떡 갖다놓으이, 김 정승이가 훑어보디마는 실쩍(슬쩍) 다리 밑에 옇어뿐 기라. 그러다보이 옆에 이 정승이 있다가,

“김 정승은 무슨 시험지를 받아다가 다리 밑에 옇느냐?”

“아무 것도 아이다.”

이 정승이 기여히 봐야 된다 하이 내 뵌께네, 이 정승이 보인까네 글을 참 잘 썼거든. 이 놈을 사우로 봐야 되겠다 하고 집어 옇어뿌거든. 집어옇은께로 고 옆에 있던 박 정승이 있다가 시험지를 기어코 보자 캐서 보였더니 박 정승도 집어옇는 기라.

“안 된다. 다 되었다. 어떤 마음으로 시험지를 집어 넣느냐?”

“내 사우 볼라고 그랬다.”

그래서 서이가(셋이) 다 사우 보기로 결정을 했거든. 그래 놓고, 이튿날 시험장에 나와서 발표를 씨기거든. 아무것이가 요번 시험에 장원이 됐다. 거리마다 붙이대고, 그래 이 사람이가 관복을 해 입고 정승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래 댕기는데, 그래 ‘언제 사우를 보노?’ 이래다보이 날짜를 떡 잡아보게 되는데, 딸네들이가 이얘기를 하기를,

“아부지요, 그럴 것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말을 내다가 딱 세 필을 세워놓고 똑 같이 세워놓고 어느 말이라도 타는 사람이 거기에 시집가면 안 됩니까?”

정승이 가마이 들어보이,

“그것도 그렇다.”

“섞어놓으면 누구의 말, 누구의 말인지 압니까? 모르거든요 섞어가주고 배겉에 내놓으면 타는 말이 내 낭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 말을 떡 세워놨거든. 세워놨는데 가보이, 이놈이 가가주고 말을 말카(모두) 한 군데다

가 모다, 등드리가 붙도록 그래가주고 도틈도틈 타가주고 다리를 딱 벌리가주고 타가 옹그리가 있으이, 세 정승의 사우가 됐다. '이거 참말로 큰 놈이구나' 딸 때문에 시험에 된 줄 모르고, '이놈이 큰 놈이다. 한 놈이 여자 서이를 다 차지할라고 됐다.' 그래 이 사람이가 세 말을 다 타고 됐다. 이제는 사우 다 됐다.

그래 며칠날 받아가주고 고향을 내려오는 길이라. 그 앞에서는 말을 타고 끄떡 끄떡 뒤에 달고, 그 다음에 김 정승 딸, 이 정승 딸, 박 정승 딸이 따라오고 뒤에는 '쿵짝 절싹' 카고 고향 산천엘 내려오이, 그 부모는 자슥이 간 후로 하마 열다섯 살에 집을 나가 공부를 하고 이래다보이 수무 살 가까이 되었겠지, 수무 살 가까이 돼가주고 시험을 치고 이런데 '아이구 어떤 집에서는 자슥을 우에 낳아가주고 저렇게 골짝이 비잡도록 저렇게 오는고' 카면서러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도 무심하지' 카고 있는데, 차츰 차츰 저 집으로 '쿵짝 절싹' 하고 들어오는데, 집에 탁 들어와서 말에서 내려와서 부모님한테 무릎을 꿇고,

"아무것이 살아 왔습니다."

"이기 꿈이가? 니가 우째 살아 이래 왔노?"

그래 거기에서,

"옛날 대사님이 얘기하다 싶이 삼 정승 딸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참 내려와가주고 삼 정승 딸 밑에 아들을 말칸 낳아가주고, 정승인가 판서인가 나고 그래 잘 됐답니다.[17]

7) 생곡동 설화

[생곡동 설화 1]

단양의 아기장수 전설

구 술 자: 권경태(남,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27일
구술 장소: 생곡동 마음마을

충북 단양이라는 곳에 가가주고 3년간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들은 얘긴데, 그런데 가면 지방 토성(土姓)이 주로 벌족(閥族)을 하고 사는데가 장씨 집안인데 장씨에서 사람이 하나 낳던 모양이라.

사람이 조그만해서도 힘이 얼매나 세었든지 냇가에 물이 꽉 내려가는데, 그 내(川)에 들어

17) '호식당할 총각과 세 정승 딸과의 결혼' 유형의 광포설화.

서가주고 물로 거슬러서 올라오는데, 여울에 급수(急水)에 올라오는데, 역시 거기 들어가서 혼자 올라오는 것이 아이라 방구를 구불러 역수(逆水)해가 올라오더라 캐요. 그래 그걸 본 사람이 있어가주고 아무개가 그런 짓을 하더라. 장수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가족회의를 해가주고 '옛날에 유식한 사람이 나면 충신이 되고 무식한 사람이 나면 역적이 된다'고, 결국 저리 한자 글 배우지 않은 무식한 저놈이 힘이 세니 결국 법 테두리 밖에 일을 하게 되면 가족이 전체 죄를 보게 되니 저 사람을 직이야 된다. 그래 집안에서 가족회의를 해가주고 직있던가 봐요. 직이고 나서러 한 2.3일 되었던 모양인데, 그 산 이름을 내가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잊어뿠는데, 그 산에서 말이 한 마리 나왔다 카데.

사람들이 보인께네 말이 한 마리 들로 뛰어 댕기면서 가음(高喊)을 지르고 이래쌓는데, 그때사 그 지방 사람들이 알기로 '야 장군 나고 용마 난다' 하디마는 장씨 집안에 그런 사람이 나가주고 허무한 죽음을 했는데, 그 말 임자가 장씨인가 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생곡동 설화 2]

세산 전설(2)

구 술 자: 권경태(남,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27일
구술 장소: 생곡동 마음마을

옛날에 녹산동 세산(鼠山→細山)이라는데, 여기 세산이라는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동네 중심을 해가지고 산이 세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세산이 쥐대가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쥐대가리. 저 산이 저 그리 원 근원은 저 안에도 있다가 물이 꽉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는 배가 저 위에 저까지 올라 왔어요. 저 위에 진지봉이라는 저게 가면 대숲이 있고, 그런데 그까지 물이 조수를 해가 그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비가 많이와 홍수가 져가지고 온 천지 바다가 됐던 모양이지. 저 산이 둥둥 떠갔던 모양이지. 떠가는데, 어떤 여자가 보고,

"아이구 저 산이 떠나간다."

이카니까, 그 자리에 딱 서더란다. 그래서 멈추어가 있더란다. 저게가 그래서 산이름이 쥐대가리라고 이리 돼가 있지. 두(頭)가 알로 보고 있지 말고 위로 보고 있으면, 이 아래 여기가 풍부해졌을 텐데 두가 저래 나기 때문에 여기 모든게 저기 다 벗겨져 나간다고 모두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0~551쪽.

[생곡동 설화 3]

‘양반은 대추 한 개가 요기’라는 말의 유래

구 술 자: 권경태(남,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27일.
구술 장소: 생곡동 마음마을

옛날에 한 마실에 좀 미욱한 사람이 살았던 건데(것인데), 종을 데리고 말을 몰리고 하로 나들이로 나가는데, 나가면서 노인이 대추를 세 알을 호주머니에 딱 옇어서 그래 말을 타고 종을 말로 몰리고 이래 가며는 하루 종일 가가주고 눕어 자고 내일 와야 될 그런 거리라. 그래 아침을 먹고 가다가 저게 고개를 넘어서 가가주고 해가 석양이나 됐는데,

“야! 돌쇠야, 우리 힘드니 그늘에 쉬어가자.”

그래 말로 언덕 나무에 매놓고 영감이 호주머니에 든 대추를 세 낱을 내, 내가주고 말 몰던 마부 종을 대추를 한 개를 주고, 자기가 두 낱을 먹었다 말이야. 먹고 그래 담배를 한 대 피우고 하는 말이가,

“야! 너 저 대추 하나를 먹으이 요기가 되지.”

종이 있다가 가마이 생각해보이 부애가 바짝 나거든. ‘차라리 가오거든 네 낱을 가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두 낱을 가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는 두 낱 먹고 나는 한 개 주놓고 요기가 되지’ 카이 사람 차별을 이라면 안 되지 싶어서 부애가 바짝 났다 말이야. 마부가 하는 말이가,

“에이 씨팔꺼, 한 개 먹은 놈이 요기되면, 두 알 먹은 놈은 배지가 안 터지겠나.”

이래뿠다.

그래 영감이 있다가 가만이 혼자 생각해보이, 이놈한테 당치도 못하겠고, 힘이 있다 말이지. 그래서,

“야! 말 몰아라, 오늘 나들이는 이곳까지 오고 말자.”

그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생각하이, 속이 꾸리 꾸리 욕 들은거 생각하이, 도저히 분풀이할 뭣이 없어. 그래 말에서 내리가 ‘바깥에 매라’카고 그만 방에 들어가서 눕어가 꿍꿍 앓는다. 앓으이 저그 마누라가 ‘영감님 오늘 나들이 가서 자고 내일 온다고 카고 갔는데, 해가 질 무렵에 들아가지고 왜 앓고 들어눕은는고’ 싶어서,

“영감님, 어데 몸이 편찮는교? 왜 앓는교?”

“그저 니 알거 아이다.”

말로 거절을 해뿠다. 그래 그 말 몬 종한테 묻는다.

“니 오늘 저 샌님 데리고 나들이 가가주고 내일이야 온다 카든데, 어째 오늘 일찍 돌아왔는데, 샌님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오, 오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라거든.

"그러면 샌님이 와 저라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카이 곧이 들을 수밖에.

종이 가마이 생각해보인께, 어째 마음에 찔리는 판이라. 그래 집 뒤 후미진 곳에 들어가가주고 장작을 패가주고 차곡차곡 동개놨는데, 거기 가더니 요놈 쥐어보고 조놈 쥐어보고 지 눈에 드는 놈을 하나 딱 가져나와 가지고, 마판에 들어가가주고 말 이놈을 고삐를 거머쥐고 치켜들고 고만 닦아대네, 말 주둥이를.

"야 요놈의 새끼, 니 입이 싸서 몬 씨겠다. 오늘 거기에서 누가 봤노? 하늘이 보고 땅이 봤지마는 땅이 입이 있나?, 하늘이 입이 있나?, 내가 얘기를 안 했으인께네 그래 누가 알았겠노? 우째서 마님이 알고 이리할 줄을 묻노 말이야! 이놈의 새끼 때리 직인다."

카고 말 주둥이를 패대이, 그 집 마님이 본께 일이 심상치 않거든. 저래 놔두었다가는 말 직이겠다 싶어,

"야야 왜 이라노?"

말 주둥이 패는 것을 말린다.

"마님, 놓으소, 이거 직일랍니다. 이거 입이 싸서 아무짝에도 몬 씨겠다."

"무슨 일인데 그라노?"

"오늘 가다가 그 일이 있었는데, 지가 뭐 카든교? 하늘이 그 카든교? 땅이 그 카든교? 주인이 알지 누가 알기요? 이놈이 입이 싸서 몬 씬다."

카면서 말 주둥이를 패더라 캐. 그래서 '양반은 대추 한 개가 요기'라 하는 말이 거게서 나왔다는 것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생곡동 설화 4]

지혜로운 아들

구 술 자: 권경태(남,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27일
구술 장소: 생곡동 마음마을

저그 아부지가 관아에 일을 보면서 천냥을 써가 죽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관아의 돈 천냥을 지면 죽음으로 갚는다는데, 저그 아부지가 천냥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주고 꿍꿍 앓고 있는데, 일곱 살 먹는 아들이,

"아부지 와 그랍니까?"

"니 알거 아이다."

"나도 좀 알아야 안 됩니까? 아부지가 무슨 일로 만들어가 허탈하고 있는데, 아들인 저가 몰라 되겠습나까?"

물어쌓인께 이야기를 한다.

"니가 알다싶이 우리 가사가 기울어지는 형편에 할 수 없어 나랏돈을 천 냥을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거 내일까지 안 갚으면 천상 내가 교수대에 올라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저가 하겠습니다."

"니가 가서 뭐라 칼라노?"

"아부지 내가 알아서 갑니다."

그래 그 이튿날 자고, 아들이 치장을 채리가 관아에 갔다. 그래 이놈이 관아에 가니,

관원이,

"너 이놈아 너 뭣하러 왔노?"

카이,

"오늘 우리 아부지 재판하는 날 아입니까?"

"너 아부지 무슨 재판하노?"

"내가 아무개 아들입니다."

"그래, 니 돈 가져왔나?"

"돈을 가져왔으면 우리 아부지가 가져왔지, 내가 올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렵고 이러이 내가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그래, 니가 무슨 하소연할라노?"

"원님이 내 말을 곧지 들어 줄란지 안 들어 줄란지 모르지만, 내가 난(難)자로 칠언 구절을 지어서 말씀 올리도 되겠습니까?"

"한 번 해봐라."

"천 냥을 몬 갚으면 우리 아부지가 죽게 되니, '우리 어무이가 청춘에 과부되기도 어렵고'(吾母靑春寡婦難) '내가 일곱 살이가 묵었는데 아부지 잃기도 어렵다(稚子七歲喪父難) 말입니다."

아 요놈의 말을 들어 보이까네, 참 맹랑한 아이라, 그래서 천 냥을 사(赦)에 주더라 카데. 그런 것은 영남에 수재가 많으니까 그래 사해 주었다는 말이 있데.[18]

18)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에서 발간한 『야담과 설화』(2000)에 실린 "兒才救父"와 내용이 거의 같음.

[생곡동 설화 5]

노적봉 전설

구 술 자: 권경태(남,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27일
구술 장소: 생곡동 마음마을

녹산동 성산이라는 졑에 노적봉이라는 산이가 옛부터 유래되어 내려오는 전설로서의, 전설이 아이고 진짜 그렇게 있었다고 우리가 감지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임진왜란 때 왜적이 배를 타고 저 해상으로부터 쳐들어 올 때에 그 산을 갖다가 지금은 송림과 다른 나무들이 울창이 꽉 들어찼지만, 그 때는 맬간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그 산 전체를 갖다가 꺼덕이(거적)를 가지고 꽉 덮었던 모양이라. 그래 덮었는데, 왜놈들이 저 들어오다 보니까네 큰 빗까리(볏가리) 하나가 서 있어, 저게 틀림없이 양식 군량일 거다. 그래 여기에 병력이 많이 주둔해 있으니 우리가 들어가지고 절대 패한다. 이래서 저거 왜놈들이 그리로 안 들어오고 동래로 둘러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만요. 고게 노적봉이라는 유래의 전설이죠, 이름이 산 이름이 노적봉이요.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1쪽.

8) 성북동 설화

[성북동 설화 1]

처이바우 · 총각바우 전설

구 술 자: 정옥련(여, 72)
구술 날짜: 1992년 2월 26일
구술 장소: 성북동 장항마을

노리목(獐項) 동쪽 산 밑에 바우가 두 낱이 상그러미(나란히) 섰는 기라. 섰는데, 그 바우가 총각이 나와서 손을 치면, 저 거지도(巨濟島) 처이(처녀)들이 그 총각을 보고 밤으로 난질로 많이 가. 그래가지고 '가덕에서러 총각이 나와가지고 손을 치면 거지 처이가 나간다' 이래가지고, 거지 사람이 와서러 총각바우를 띠(떼)빚는 기라. 줄로 매가지고 배로 잡아땡기리서 총

각바우를 뿌라삤는 기라.

그래 이제 처이바우밲이 없어. 처이바우 하나만 있어. 우리가 에릴 때 듣기로 거지 처이가 노래를 부르기로, 「손을 치네. 손을 치네. 날 오라고 손을 치네. 가덕도 총각이 거지 처이 날 오라고 손을 치네.」라 카는 기 있어.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5쪽.

[성북동 설화 2]

상주 노릇

구 술 자: 정옥련(여, 72)
구술 날짜: 1992년 2월 26일
구술 장소: 성북동 장항마을

옛날에 한 처이가 [제보자 唱調로 노래하며: 삼월이라 삼짇날에 사월이라 초파일날, 놀자 하니 놀기 싫고 자자 하니 자기 싫고, 서울서 내리온 반 반태기 오리나무 한 반태기 담아 이고, 저 건너 산림 우에 빨래하로 내가 가니, 어연(어떤) 수자(秀子) 질팡갈팡 내리옴서, '물 떠 주오 물 떠 주오. 처이 손에 물 떠 주오.' '함박 없어 못 뜨겠네 쪽박 없어 못 뜨겠네.']

빨래를 하러 갔으이 그릇이 없어 못 떠 주겠다 캤네. 그래 아래우물 윗우물 삐치삐고 연수(軟手) 우에 물을 떠 어깨 너머로 넘가 주니, 어깨 너머로 받아 묵고,

[唱調로: '성명이나 알고 가자. 처이댁은 누 댁이요.' '김선달네 막난 딸이요. 총각댁은 누 댁이요.' '이선달네 막난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총각이 과게 보러 가던 길인갑데. 그 총각이 감서러(가면서) 고랑가 수영버들이 늘어져가 있으인께,

[唱調로: '저게 있는 저 버들이 휘영휘영 하거들랑 날 살안 줄 알으시고, 후영후영 하거들랑 날 죽은 줄 알아라.']

카더란다.

그라고 삼일만에,

[唱調로: '떠들오네 떠들오네 김선달네 대문밖에 상구 한 채 떠들오네.']

그래 아부지가 딸로 서인데, 불렀어. 불러가지고, 첫째 딸로 물으인께 변소질도 모르는데 빨래 씩거로 안 갔다 캐. 둘째 딸로 물으인께 빨래질로 안 갔다 카고, 쎄째 딸로 불러놔놓이 사실대로 말하거든. 말한께, 그래 머리를 푸라 카더란다. 머리 풀고 속적삼을 벗어서 상구(상여) 우에 걸치 주고 곡소리를 내라 카더란다. 물 떠 준 기 저그(자기들) 인연이던 모양이지.

그래가 상주노릇을 하더란다. 그런 전설의 노래가 있어.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63~264쪽.

9) 송정동 설화

[송정동 설화 1]

우민 선생의 사해용왕 퇴치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우민이라 하는 분이 영웅인데, 사회 중생들은 몰랐지. 그런데 그 분이 당(唐) 태종(太宗)하고 둘이서 말하자믄 항상 바둑을 띠고(두고) 놀더라요.

그래 노니까 사해용왱이 가마이 보이까네, 우민이가 눈을 감으면 천상에 상좌(上座)가 되고, 눈을 뜨면 당 태종의 신하가 된다 말이야. 이분한테 내가 가서 한 번 물어 보리라. 이래서 찾아 가는기지. 그래 사해용왱이 사람으로 변장해가지고, 그래 턱 와서 인사를 드린 연후에, 그 우민이한테 물었는 기라.

"비가 운제나(언제) 오겠습니까?"

그 바둑을 때민서(두면서) 답하는 말이,

"아무 날 아무 시에 틀림없이 비가 올기다."

"그때 안 오면 우짤깁니까?"

"안 오면 내가 만금을 벌금을 하지."

이러니까,

"만약 온다면 우짤끼고?"

이러이께, 용왱이 답은 몬(못)하고 가만이 있다가,

"그라믄 비가 온다믄 몇 재(자) 몇 치로 오겠십니까?"

이라이께,

"석 재 서 치로 온다."

그라이 석 재 오 치로 온다고 말로 했다 카더마는. 그라고서로(그리고서) 돌아 갔는데, 천상 옥황상제께서 언제든지 명령을 하기로 인간 세상에다가 비를 주는데 몇 자 몇 치로 조라

고(주어라) 하믄 사해용왱에다가 먼침 보내는 기라. 이래서 명을 내루면 사해용왱은 상제의 옥황상제의 좌우간 명을 받아가지고 그 기일과 그 시일에 그 척수(尺數)를 어금없이(어김없이) 준다는 것이지. 이랬는데, 아 그 날 그 시가 되이께 갑초리(갑자기) 명령을 내맀다 이거야. 그래 우민이하고 내기 한 말이 있으이까 이걸 내가 좀 심길(숨길) 빽이(밖에) 없다 이래서 석 재하고 다섯 치를 주라 커는 걸 갖다가 세 치로 빼 치우고 두 치만 주 놓고는 왔는 기라. 우민이를 찾아 와가지고,

"아이, 이번에 그 날 그 시에 비는 요행이 왔는데, 석 재 오 치를 온다고 했는데, 우에(어찌) 비가 석 재 두 치빽에 안 왔십니까?"

그 용왱이 와서 떡 질문한께 그 뭐 보통사람 같으믄 당장 거서 굴복을 할란지(할는지) 모르지만, 우민 선생은 알고 있는 기라.

"글세, 그게 곧 아마 내일 오시(午時)가 되면 사해용왱을 벌 주라 하는 그 명령이 내릴 기다. 천상의 상제께서는 반다시 석 자 오 치로 주라 했는데, 사해용왱이 서 치를 떼 없앴으니까이 벌이 내릴 기다."

그 말로 듣고 돌아서니까 당장 천상 상제께서러 그런 칙사가 내려왔다 이거지.

"사해용왱을 멸망해라."

그러이께니 용왱이 우민선생한테,

"상제께 가서 자기를 좀 구해 달라."

고 애걸히 말로 했지. 하니까 네 좌우간 기다리 봐라. 이래놓고는 바둑내기를 하다가 쉬는 기라. 그라는 시간에 누가 가서 사해용왱을 멸망하는가 하믄 우민 선생이 가서로 사해용왱을 멸망시킸다 이러지요.

이래서 그전에는 허다히 용을 사람들이 보기 되었었는데 그때에 사해용왱을 전체로 갖다가 멸망을 시킨 때문에 그 뒤 용왱을 못 보기 됐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온 바다 가에는 코도 못 들었다 카네. 삼 년 동안을 용 썩는 나염(냄새) 땜에. 이래서 그때 멸망을 당한 후로 지금 용왱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99~501쪽.

[송정동 설화 2]

남해 진사 범 전설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5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남해 전설은 다른 전설이 아이고, 이조 말엽에 효자 범이라는 범이 한 마리 났어요. 그 효자 범은 누구냐 이라믄 남해 창성(창선) 그 임진사라고 하는 분이 범이 됐더라 이기요. 그래 그 분이 효성이 출중했기 때문에 아바니가 병이 나가지고 무수한 약을 쓰도 불치라. 이라이까네 어디 문의한 결과, 어떤 분이 개 천 마리를 묵으면 그 병이 낫겠다 이러더래요. 이러고 보니까니 가난한 집안에서 개 천 마리로 먹을 재산이 없었더라 이기지요.

이래서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항상 내가 개 천마리로 우리 아버지로 몬해 드리가지고, 우리 아버지로 구해 낼 재주가 없구나 이래놓고, 고심으로서 항상 일구일심으로 그래 참 산신에다 빌고 이랬던 갑십디다.

하루는 산에 나무하러 가니까니, 우연히 작은 책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래 그 책을 떡 주어가 보인께, 아, 둔갑장신(遁甲藏身) 하는 이런 책이라. 아, 인자 좋은 뭣이가 있구나 해가지고 단지 본 것이 딴 거는(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고 사람이 범으로 변하는 이 글귀만 봤다 이거지요. 이것을 애와(외어) 가지고는 저녁 딱 묵고 나믄 살거시(살며시) 짚똥새에다가 그 책을 딱 숨키 놓고 가서, 몇 마디만 잘 읽으믄 그만 범이 되는 기라. 그래가 담을 훌터삐니(훌쩍 넘어) 가가지고서 개 한 마리 차고 오는 기지.

그럭저럭 해가지고 한 천 마리 중에 삼분지 이(3/2)나 떡 끄어다 믹이고 나이끼니, 원총(워낙) 그 마누래가 도저히 할 짓이 아인 기, 갔다오믄 그 진사 양반이 꼭 옷 한 벌로 바리는(버리는) 기라. 마안날(매일) 세탁을 해야 되는디, 아, 여자가 할 짓이 아이거든. 없는 집안에서 또 있더래도 뭣할낀데, 그 여자는 효성이 없었지예. 이러고 보이께 이 나자가 무슨 짓을 해서 개를 잡아 오는가 싶어서 살그이(살며시) 앝보이까(엿보니) 뒤 짚똥 속에서 손을 살 옇더니(넣더니) 뭐 쪼그만 책을 하나 내가지고 착착착착 넘기디, 머라(무엇이라) 머라 알시인께(외우니) 크나큰 범으로 돼. 그라더마는 책은 그 속에다 딱 여어 넣고서 그마 담을 힉뜩 넘어서 뛰 가삐리거든. 옳지 싶어서 가고 난 뒤 심키난(숨겨둔) 책을 덜렁 가지고 와가지고 그와 딱 사라(불에 태워) 삐맀어요. 살고(태우고) 떡 모른디키(모르는 듯이) 하고 있으이께, 남자는 개로 한 마리 차고 오는데 그때는 이 근방에서는 가까운데 얼쭈(거의) 다 주어다 디리 놓으니까니, 멀리 가든 모양이지. 그러인께 범은 하루에 가면 천 리를 가지요.

천리로 갔다 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멀리 가서 차가(채어) 오는 모양이지. 이래 오니까 갖다 떡 붙이놓고 가서 책을 찾으이께 책이 있어야지. 그 짚똥 다 내가지고 하나 하나 낸주에(나중에) 디빗다 아입니까? 그래 디비도(뒤적거려도) 책이 안 나오는 기라.

그러니까 방에 들어 가서로 그 아바니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을 갖다가 물어 내가지고 마당에다가 때기를 쳐 직이(죽여)삐리고, 들어가서 마누라 물어 내가지고 직어삐리고. 이래가지고 그 남해를 해치고 댕깄다 이 말이야. 이러고 보니까, 아이고 범이 와서 사람을 상온다(상한다), 사람을 상온다 이런데 하나도 묵지는 안 하고 전부 물어만 딱 직이거든. 물어서 때기를 쳐서 딱 직이만 놓고, 뭐 가고 이래.

그래서 사람을 직이기로 수 십 명도 직있다 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직인 사람을 먹지도 안 하다 보이께 며칠로 굶었으니 걸음도 옳게 못 걷고 허늘허

늘 하더라요. 그래 통영 통제사가 포수를 시켜 진사 범을 잡았다 쿠네. 잡아온께나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래 인자 속 내막은 범이 아니고 하니까 통영 통제사가 껍질만 베끼오고(벗겨오고) 그 안에 알테기는(알맹이는) 그 자식들 원하는 대로 주고 왔다 하지요.

그기 남해 진사 범이라 카지요.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12~516쪽.

[송정동 설화 3]

바지락을 못 먹는 마을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5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참 옛적인데 강진 지방에 며느리가 친정에 갔다가 오면서 시압씨(시아버지) 드릴 기다 이래 가지고 닭을 한 마리 잡아왔다 이거지. 잡아가와서 오던 질(길)로 삶아가지고 시압씨께 떡 올맀는데, 그 시압씨가 그 닭국을 첫숫갈 딱 떠 묵고, 그 질로 직사(즉사)를 했다 이거지.

그러이께 그 시가집에서 우째 되겠으요. 시아바이 직일라고 이거 뭐 독약을 옇었니(넣었니) 뭐 안 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난리가 났는데, 어떤 행각이 하나 지내다가 그것을 알고서 들어와가지고, 그 우찌된 연역(연유)이냐 내막을 물었어요. 그래 사실이 여차여차하다고 얘길 했지요. 들은 그 분이,

"그렇습니까?"

하더니 큰 가메(釜)로 하나 걸고 거게 참기름을 갖다가 옇어가지고서 불로 때라 쿠더랍니다. 그래 그 지름이 끓거들랑 장정을 몇 명을 동네에 불러가지고 이 집을 뜯어라 캐요. 지붕을 걷으라 카더랍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초상은 이미 나가지고 이리 울고불고 해쌓다가,

"그래 하라."

쿠는 대로 했지요. 그래 지붕을 뜯은께(뜯으니까) 큰 지네가 한 마리 나온다 이겁니다.

"저 잡아다가 그 옇어라."

이래 됐어. 그래, 그걸로 잡아다가 찝게(집게)로 가지고 찍어서 가메솥에 지름(기름) 끓는데다가 옇어가지고 덴뿌라를 만들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사람 발길 안 가는데 갖다가 버리라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을 갖다가 사람 발길 안 가는 데는 물밲(밖)에 없다 이래가, 그 갯벌에 갖다가 부우삐맀다 합니다.

그란 후로는 우째 된 판인지 그곳 바지락만 파서 묵으면 사람이 꼭꼭 죽는다 카는 기라. 그 지금까지도 그 영행(영향)이 미쳐서 못 묵는답니다.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01~503쪽.

[송정동 설화 4]

풍수 이 성지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이전에 이 성지라 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 밑에 석 자까지 알았다카는 어른인데, 산지리를 보려 댕기는데, 산의 지리를 봅아(밟아) 댕기다 보이, 자연히 묵을거 다 못 가 댕기고 허기를 만냈다 아입니까? 허기를 만내가지고 딱 죽을 지경이 됐는 기라. 그럴 때 산중에서 나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아 허기를 만냈는데 사람을 좀 구해다고."

그 사람이 나무하러 오면서 점심을 싸 왔던 모양이지.

"자시이소."

그 점심을 먹었어요. 먹고 나니 정신이 돌아온다 아입니까? 내가 이 사람 아이면 죽었는데, 이 사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지리를 이만치(이만큼) 보이 이 사람 부자를 만들어 주야 되겠다. 그러이 석 달 안에 만 석할 자리로 탁 잡아 준 기라. 그래 보이께 이 사람이 상제라. 상젠데, 아직 묘도 못 쓰고 있었던 모양이지.

"이 사람아, 자네를 보아 하니 상제 겉는데 그래 산소를 디맀는가?"

그런데, 이 노인이 산소를 딱 마침 천우신조해가 그러는가 모르지만 석 달 안에 만 석 살 장소가 나타난 기라, 그래가지고 두 분 시 분 돌아보고, 딱 묘터를 정해 그래 날짜를 딱 잡아 준 기라. 언제쯤 하관을 해가지고 함몰을 해라.

그리고 이 이성지 영감이 가삤다. 가삐고 났는데, 이 영감이 그러구로 삼 년이 됐어요. 삼 년이 됐는데 한 동네에 만 석꾼이 하나 났다 카면 동네가 달라질 건 사실 아입니까? 그래 이 영감이 묘 씬 그 사람 찾아볼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월 중순쯤 됐던 모양이지요. 썩 오이께 그 묘는 있어요. 묘는 있는데 동네가 캄캄한 기라. 그래서 논을 갈고 있는 초부한테 물었어요. 물으이께,

"여 아무데 여 뫼 자손이 어찌 돼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물으이께,

“그 사람이 뫼 씨기 전에는 그냥 저냥 밥을 묵고 지냈는데, 뫼를 씨고 나서 말이지 우에(어찌해) 나쁜 병이 들고 이래가지고 어데로 갔는지 흔적이 없다.”

“그래?”

이 어른이 또 그 묘에 간기라. 가가지고 묘를 돌아보이 아무래도 만 석 살 자리인데 이상한 기라. 아, 쇠를 놔 둤다가 내 신세만 조진(망친) 기 아이라 넘우(남의) 신세 조지겠구나 싶어서 패철로 방구다(바위에다가) 뿌사뿔라고(부수어버리려고) 떤진 기라. 떤진께, 난데없이 뒤서 뭣이 딱 잡는 기라. 돌아보이께,

“성지야. 니가 그걸 모른다. 자리는 만 석군 날 자리다. 자린데 눕은 영혼이 살인을 많이 핸 사람이다. 살인을 하이 역천을 해가지고 오히려 화를 받는다. 그걸 니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뒷날 동네 와서 알고 보이께, 그 사람이 이전에 새공(망나니)이라요. 새공인데, 법이 시키서 사람을 직있지(죽였지)마는 살인을 많이 핸 사람이라. 그러이 역천해가지고 그 자손이 해를 봤다 카는 기라.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70~472쪽.

[송정동 설화 5]

친구 아내와 살게 된 이야기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안동 지방에 버들 류자 류씨라 카는 사람이 살았는데, 집안은 양반인데, 가세가 너무 빈곤해. 이래가지고 묵고 살 길이 없고, 이래 있는데 아들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양반의 집이라서 공부를 시킬라 카이 자기 형편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서울 지방에 강판사라 카는 사람댁이 자기 이전에 과거질 댕기던 친구 집이라요.

거기로 아들로 성함을 강판사 주소를 적어서 그리 안 보냈십니까? 가이께 그 집에 역시 아들이 독자라요. 독자인데 연시(年時)가 이 사람하고 그 대(對)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집에서 이전에는 친구끼리 친구 자식도 공부를 시켜 줐는 갑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 공부를 수 십년 하고 있는 동안인데, 고때사 말고 그때 강판사 집에는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부자집이고 세도 있고 하이께 내우간이 살림을 살고 이래 있는데, 그러나 학우들이 되다 보이께네, 같이 장(늘) 한 방에서 구불고 공부하는 방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래 하고 있는데, 그때사 말고 고 이웃이 강원도서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이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과년한 처이가 같이 따라 온 모양이지요. 그 부모님 따라.

우연히 처녀가 장독간에 볼 일 보러 나온다고 나오이께, 강원도서 이사온 사람 집이 높우고, 이 사람들 집이 낮다 보이께 샘이서 말이지, 세수를 하러, 이전 같으면 도령님이 세수를 하다 보이 문득 처이(처녀가) 눈에 띄었던 모양이라.

그러이 처녀도 자기도 모르게 그 안날(다음날) 또 담구멍으로 나와가지고 하날에 초승이 나오듯이 그 총각 보러 나오는 기라요. 그 시일이 자꾸 지나가이께 이 처녀가 자연히 거기 병이 되었던 모양이지. 병이 돼 가 있으이, 자 살림이 제법 촌에서 벌어가지고 서울에 완(왔는) 사람이 살림은 요부하이 서울 온 것 아닙니꺼? 그러이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한다, 이사(의사)를 불러다 치료를 한다, 백약이 무효라. 이래가지고 이 처녀가 꼭 죽기가 되었는데,

"야야, 죽기가 되어 있는 니가 할 말로 해라.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병인지. 이바구(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께. 그 이야기를 한다. 뒷집에 그래 말이지 도련님이 세수 하러 나왔는데 보고 거기 한 번 보고 날수곰(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세수할 때 되면 나가진다 하는 기라. 나가가지고 그 총각을 보고 총각을 보고 이랜 기 거기 병이 됐다는 기라. 그래가지고 죽기가 딱 됐는데 자기 외삼촌 되는 사람이 요새 같으면 중신(중매)를 하는데, 그 선생이 판사댁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아, 보이소, 집에 공부하는 도령님이 어디서 온 사람입니꺼?"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사실 우리 생질 딸아가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병이 나 죽기가 되었는데, 어찌 한 번 허락을 해가지고 내우간이 되면 좋겠다."

카이,

"그 어렵지 않다고, 내가 그 사람 부러 의향을 물어 보겠다."

고 이라이. 그래 부르이 올 거는 사실 아이가. 그래 판사님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이께, 이 총각은 천부당 만부당.

"향차 남자가, 외간 나자가 넘우(남의) 구중처녀를 보고 마음이 달아도 별 문제인데, 구중처녀가 말이지 외간 남자를 보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어찌 남자가 입처(入妻)를 할 기냐? 안 됩니다."

그러이 마 거절을 안 당하나. 그래 있는데, 또 그래 가 나이 자꾸 가이께 병이 지대해가지고 죽기 딱 됐는 기라. 그래 또 외삼촌이 사람 살리기 위해가지고 또 간 기라. 그래도 거절하는 기라. 그래 강판사가 있다가 하는 말이,

"남자가 열 기집도 한다 하는데, 세상에 사람을 살리 놓고 보지. 사람을 직일 수가 있나. 니 같은 사람은 내 집에 내가 데리고 암만(아무리) 친구의 자슥이라고 공부를 못 시키겠다. 니는 니대로 나가거라."

"좋습니다. 나가겠십니다."

주인이 나가라 카이 할 수 있읍니꺼? 그 질로 나가뿌린 기라. 나가 갖고 그래 갈 때가 있십니꺼? 서울 질에 가객집에 가가지고 가객질을 하는 기라. 얻어 묵듯이 그래 되이, 이래 보이 무엇이 눈에 자꾸 얼렁거리사. 방에 누(누워)가 있으이 얄구진 무엇이 와가지고 눈에 얼렁거리사, 잠을 못 자겠는 기라. 이, 이놈의 혼이 와서 이라는구나.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 사람이 깊은 산중에 절로 들어갔던 모양이라. 절로 들어갔는데, 그 뒤 사람이 절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절에 들어가이께 그 잡신이 안 붙어요. 김진사라 카는 사람이 그 이웃 마을에 있는 사람인데, 며느리를 본 지가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마침 자기 큰 집에 제사가 들어가지고 식구들이 새로 본 며느리만 놔 두고 제사 모시러 다 갔다 말이지. 갔는데 말이지, 그때사 말로 마침 산에 중놈이 한 놈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갓 뜰에 와가지고,

"동냥 주시요."

카이, 사람은 있는 흔적이 있는데, 답이 없는 기라. 또 마당 복판에 들어섰다. 마당 복판에 들어서 가지고 또,

"동냥 주시요."

카이, 또 인적끼는 있는데 흔적이 없어, 그래 마루 앞에 딱 들어선 기라.

"동냥 주시요."

카이, 젊은 새댁이가 마지못해서 문을 열고 나온 기라. 나와가지고 그래 동냥을 갖다가 자기 손수대로 그때 있는 살림이라 쑥 떠서 주었다. 동냥을 받고 나오다 보이께, 이 중놈이 이놈이 마음이 동했던 모양이라. 색시를 보고 그래 불친듯(급하게) 봇짐을 놨두고 방에 들어갔어. 각시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말을 안 들어 준다 말이지. 이러이께 저 놈이 작정코 나와서, 아, 이라다(이렇게 하다가) 말 나면 자기 죽겠다 말이지. 이양(이왕) 죽을 거 안 되겠다 싶어, 이전에 채칼을 차고 안 다닜는교? 채칼을 가지고 신부 목을 찔러뿌고 나왔다 말이지, 나왔는데 그때사 말고 자기 시어른이 젊은 며느리만 하나 놔 두고 있으이께, 마음이 편하지 안 해가지고 우찌 되는고 싶어 집안을 한 번 돌아 보러 왔는 모양이라. 와가지고 지침(기침)을 하면, 응당 며느리가 나와 응접을 하고,

"아부님 오십니꺼?"

이라는데, 기척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며느리 방 문을 여이께 비린내가 왈칵 나는 기라. 보이께 방에 피가 흥근한 기라. 그러이 방에 들어갔다 막 나오는데, 이웃 사람이 딱 와서 보이께, 그 영갬이 며느리 방에 갔다 나온다 말이지. 그럴 때 며느리 죽었다 이래 노이 의해(의심)를 갔다가 시아바씨가 다 입은 기라. 시아바씨가, 이 요비린(변명)도 할 수 없고, 귀신도 모르게 의해를 딱 입었다. 이래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영갬이 위측한 원성을 받고 있는 모양이라.

그러구로 이 사람이 절에 가서 세월이 흘러 가지고 있는데, 한날은 그 사월 초파일이 된 모양이지. 돼가지고 이전에 그때 되면 산에 가서 놀이를 많이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안을

갖다 놓고, 이래 봄이 다가오고 이라이께, 그런데 그래 이 중도 있다 하는 말이, 같이 친구가 있은 모양이지, 중놈이,

"이 사람아, 우리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 다 민가(民家)서는 좋다고 산에 가서 기경하고 노는데 우리도 한 번 가자."

"하 그라자꼬."

이 사람이 자기카면(보다) 먼저 온 사람이 되다 보이 절에 익숙해 있고 그래 술을 해 여(넣어) 놨는 거로, 곡차 있거든. 곡차라 카거든. 곡차를 한 주전자 가지고 안주는 별시리 없지마는 채소 같은 걸 가지고, 떡 절 뒤에 반석이 아주 큰 타작도 할 만한 반석이 있는데, 그 밑에는 큰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는데 그 앉아 떡 내려다 보이께 경치도 좋지, 바위도 좋지, 이래노이 그래 주거니 받거니 술을 한 잔 얼근히 묵었는데, 이때사 중놈이 이야기를 하는 기라.

"이 사람아 우리가 산중에 묻혀 살아도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카는 기라.

"그 이야기를 하시요."

그래 김진사 집에 가서 간계한 그 이야기를 하는 기라.

"내가 이 사람 동냥을 하러 가서 그래 그 사람 죽였다."

이카는 기라.

"이 놈우 자슥."

대번에 발질로 차서 방구(바위) 밑에 떨아뿌맀다. 떨아뿌리이 공중에서 뭣이.

"하하."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서방님, 지금 앞으로 속히 서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관에 당합니다."

그 길로 보이께로 처녀 영혼이, 색시 영혼이 따라 댕기던 모양이라.

"당신의 마귀는 내가 처벌했으이께, 염려하시지 말고 서울로 내려 가시라."

카는 기라. 서울이 몇 발이 안 된다이니까. 그러구로 아뿔사 자기도 생각해 보이께 사람을 직이 놨으이 살인자 아입니까? 이전에 살인자는 사형이거든. 이래서 할 수 없어서 내려 안 옵니꺼?

내려 오이께 난데 없이 석양이 됐다 말입니다. 석양이 되어 어둡어 갈 수 없는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불이 빤해.

"지나가는 나그네가 가다가 시장해서 요기를 좀 해 갑시다."

들어가이 아무도 없고 아주 젊은 과부만 한 사람 있는 기라. 과부는 우째는가 하이께 소복 단장을 하고 있거든. 그런 때문에 과부가 어데 가도 표가 납니다. 소복 단장 입은 사람이 나오더니,

"예, 들오시요."

"내 시장하이 요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카면서 나가디마는, 밲에 나가디마는 묵을 거 가 들어온 기라. 그래 불을 켜 놨고, 이전에 지금 불인데, 지금 불 켜 놨고 부인은 침자질하고 있는 기라. 침자질 하고 있는데 자기는 밥을 묵는데, 밥도 몇 수까락 안 떠서 마음이 동해, 그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사정을 하는 기라.

"내가 각중에(갑자기) 마음이 들떠가지고 천상 미안하지마는 이 내 말 한 번 들어 주야 되겠다."

"하, 그렇습니꺼? 그 고마운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글귀를 한 귀 내놓을 모양이께 글귀 화답만 하면, 내가 자기 마음대로 허락을 하겠다."

이라이,

"예, 그렇습니까?"

그러이 부인이,

"양인 금야 유정결(兩人今夜有情結)이면, 오늘 우리 둘이가 정을 맺을 것 같으면."

아이 이 사람이 암만 글귀 대답을 할라 카이, 뭣이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는 기라. 그래가지고 저랬으이 각시한테 마음은 어디로 간지 흔적이 없고 부끄럽어서 각시를 못 들여다 보겠는 기라. 식사도 인자 전폐를 해뿌고, 그러구대서,

"그러면 됐습니다. 당신 그럼 이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양인 금야 유정결이면 황천 귀부가 하곡래(黃泉歸夫何哭래)요, 황천에 간 내 남편이 얼매나 통곡을 하겠읍니꺼?"

들어보이 글귀가 딱 맞았다 말이다. 그라이께 이 사람이 죄송스럽아서 뒤로 돌아보도 안 하고 내려오는데, 돌아오다 보이께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기라. 하, 그 이상한 일이다.

그래고는 서울로 안 들어 왔십니꺼? 들어와 가지고 밤중이 넘었는데 들이와 보이, 자기 이전에 공부하던 그 자기 아부지 친구집에 가이께, 담장이 다 무너져 있고 집이 형편이 없는 기라. 그러나 사람이 아중(아직) 산 흔적이 있는데, 안 들어다 볼 수도 없고, 또 자기도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 아버지 친구 그 어른이 안중 살아 있는 기라.

"어르신 아무개가 왔습니다."

카이,

"아, 자네가 어데 갔다 인제 오는고?"

"예, 저가 참 그 질로 나가가지고 돌아갈 길이 있읍니꺼? 절에 갔다가 갈 곳이 없어서 또 대감댁에 돌아 왔습니다."

"하, 그거 잘 왔다. 이리 들어 온나."

그래,

"아가-."

그카이, 자기 며느리가 대답한다 말이지.

"야들아 식사를 가져 온나."

식사를 채러 왔으니까 그 질로 밥을 묵고 나서,

“니가 어찌 됐노?”

카며 서로 이바구를 주고 받고 하다가 그래,

“니는 이전 책방에 가아라.”

자기 공부하는 방에 안 왔읍니꺼? 그러구로 시간이 한 열시쯤 됐던 모양이지, 요새 시간으로, 그래 자기가 와서 누우서 곰곰이 생각해 보이 자기 지낸 역사가 우습다 아입니꺼?

그래 생각하고 있으이, 가죽신 소리가 딸딸딸 나는 기라. 이상하지. 그거 이상하다 싶어 귀를 기울이고 있으이, 이전에 친구 마누래가 조그마한 소반상에다 술상을 채리가지고 오는 기라. 그래 문을 빼쭈루미 열고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란 말도 못하겠고, 그래 딱 들어와 앉디만 딱 꿇이 앉는다 말이다. 꿇이 앉아,

“서방님 죄송합니다. 내가 참 죽을 때가 돼서 그러는가 마음이 동해서 서방님한테 몸을 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이 대감도 그 대감 덕택에 자기가 공부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말이지 차마 그것은 못하겠는 기라.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래 문득 오다가 글귀 지은, 자기 당한 일이 생각키는 기라.

“그러면 자기 청을 들어 주겠는데, 내가 글로 한 귀 내 놓을 모양이께, 답변해 주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응해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답변을 못하는 데는 매를 다섯 대를 맞아야 된다. 뿌사지도록 맞아야 된다.”

그래 떡 이야기 하이,

“좋습니다.”

그래,

“양인 금야 유정결이면.”

딱 이래 말했다 말이지. 그라이 이 색시가 그건 다 이전에 사서삼경을 다 읽은 사람들인데, 판사 며느리고 하이께 다 읽었다 말이지, 이러는데 도시(도저히) 글귀가 아무리해도 안 맞는 기라. 이라노이 진땀만 찰찰 나고 서방님 얼굴도 못쳐다 보겠는 기라. 이래 있으이 시간이 지내갔다 말이다.

“매 해 오시오.”

카이, 이 색시가 두말도 안 하고 나갔다. 나가이 똑 복숭아 나무 회창회창 거로 다섯대 해 온 기라. 해 와가지고 그래,

“다리를 걷이시요.”

이라이 거참 안에 든 부인네들이 다리가 뽀한 다리를 걷이고 딱 돌아서는데 두말도 못하는 기라.

그럴 때 우짠게 이 대감은 강대감은 이 사람이 몇 해만에 왔다가 사랑방에 들어간 데 사람의 소리가 구시렁구시렁 나이께,

"아, 이 놈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넘우(남의) 며르리를 앗으라고 카는기구나."

이래서 찬장 문을 열고 장도를 내. 큰 칼로 내가지고 이 연놈을 직이야 되겠다.

그래 칼로 딱 품고 가만이 엿보고 있는 기라. 그래 하는데 며느리가 돌아 선다 말입니다. 자기 며느리를 그래 이 사람이 사정없이 매를 친다. 매가 덩덩 뿌사진다. 그러이 이 연약한 다리에 피가 나는 기라. 그래도 보고 있지.

두 차리(대) 치고 시 차리를 치이께,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기라요, 부모 되고. 마 문을 활칵 열고 칼을 놔 두고,

"도령! 이 사람, 매 좀 중지하게."

"두 대가 안중(아직) 안 남았읍니꺼?"

"내 말 좀 들어라. 며느라! 저 안에 가서 술상 채리 가 오너라."

술상을 새로 한 상 채리 가 왔어. 그래가지고 술상을 떡 채리 오이,

"이 사람아! 며느리 이 사람한테 술 한 잔 먼저 붓게."

그래 자기 친구 아들이지 숩게 말하자면. 한잔 떡 붓고 나이,

"날로 한 잔 부어 다고."

그래 며느리가 술 한 잔 붓고,

"니도 암만(아무리) 술을 묵을 줄 몰라도, 니도 한 잔 들어야 된다."

그래 한 잔 떡 묵고 나서,

"내 너그한테 할 얘기가 있다. 니는 내 며느리 아이가? 며느리의 신랭이 친 내 아들 아이가? 친구 아들이지마는 니가 내 아들이 돼야 된다. 내가 나이 칠십인데 내 후에 아무도 없는 거 아이가? 내 정을 잊어뿌지 말고 너그가 내우간이 돼가지고 유자 유손하고 살면서 나를 갖다가 너그 생전 잊어뿌리지 마라. 말고, 니가 남자 열 기집 안 데린다고 장개를 가고 지이면(싶으면) 언제든지 내 재산이 맣이 있이께, 갈 수도 있이께, 그래 니가 내 보는데, 여 오늘 지녁에 여 우리 아들 방 올라 가라. 올라 가가지고 그래 너그 내우간이 되거라."

그래 이 사람들이 참 내우간이 돼가지고 그 질로 한 탯줄에 아들로 삼형제를 낳았어. 삼형제를 낳아가지고 참말로 이 노인을 갖다가 친부모 같이 섬기고, 그 아들네들한테도 그거 참말로 친할배와 같이 섬기라고 부탁을 하고, 삼대나 사대라도 이 어른 잊어뿌면 안 된다. 이 어른 위에서(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으이 제사를 모시야 된다. 그래가지고 김진사도 영혼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원을 다 풀어주고 사실 이래 됐다 카는 것이 다 풀어져가지고, 그 사람도 백발로 풀리 나오고, 자기도 친구 마누라 덧고(데리고) 살아가지고 유자 유손하고 그래 백대 유전하고 잘 살더랍니다.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54~463쪽.

[송정동 설화 6]

빈대로 망한 절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이전에 보개산에 절이 한 채가 있었는데 말이지. 그것도 절로 지을라 카면 위치를 봐서 방우(方우)로 봐서 짓는데, 절로 웅장히 지었는데 절이 망할라 카이 그랬는지 우쨌는지 모르지마는 절에 손님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이래 있는데, 빈대가 어찌 쑤시는지 빈대가 손님들이 와가지고 하로 지닉(저녁)이라도 전디(견디어) 봐야 불경도 하고 공도 들일 긴데, 빈대가 쑤시 싸아서 중들도 못 전디(견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절이 망해뿐 기라. 망해뿠는데, 그래가지고 절이 폐지가 돼 뿠는데, 터만 남았는 기 지금도 거게가 돌멩이 들시면 하한(하얀) 빈대가 나와요. 그거 이상하지. 그거 희한한 일이지.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64쪽.

[송정동 설화 7]

국부가 망한 까닭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고 골짜기, 절해도 골짜기 카면 압니다. 바로 우리 도솔산 뒨데. 국보(國富)로 사다 보이 손님이 어찌 끓어싸아서 주부들이 못 전디내는 기라.

귀빈도 내빈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고(辛苦)를 치고 있는데, 한날은 도사가 찾아온 기라. 그래 부자가 되이께 동냥은 암만(아무리) 주도 안 아깝은 기라. 그래,

"도사님 손님 많이 좀 안 오도록 할 수가 없읍니꺼?"

카는 기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집 앞에 큰 눞(늪)이 있었던 모양이라.

"눞을 막고 집 뒤에다 골목을 내이소. 그라면 손님이 안 올 깁니다."

그래 이전에 국보가 되다 보이 거 문제가 있읍니꺼? 삼일 내로 퍼득(빨리) 해뿠다. 해뿠고 나이 사실이 아인 기 아이라 참말로 손님이 옳기 안 오는 기라. 이러는데 나기는 어떤 사람이 낳노 카이, 아가 묵구집이가 낳는 기라. 묵구집이가 나왔어. 나와지고 소로 믹이러 보내면 돼지 한 마리 다 잡아 묵고 오는 이러는 기라. 소를 믹이러 보내이께,

"야들아 돌멩이 들고 온나."

이라거든. 한 차리씩 때리라 카는 기라. 그래 나무 가아 온나. 나무를 떡 가아 오면 소를 잡아가지고 등더리를 벳기가지고 가죽을 폐는 기라. 이렇게 말띡이를 니(네) 군데 쳐나 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밑에 불로 놓고 꿉어제치는 기라. 꿉어 제치가지고 그 소귀기(쇠고기) 다 무어야 오는 기라. 그 히한한 일 아입니꺼?

그래가지고 못되서 그래 국보가 되다 보이 살림이 얼매나 맣습니꺼?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이전에 엽전 아입니꺼? 두배나 시배나 다섯배나 여섯배나마 실었어요. 남창남창 싣고 이전에 구포(龜蒲)를 갖다가 남창(南倉)이라 캤입니다. 남창에 갖다 댔다. 대가지고 조금 올라 가면 와석이란 데가 있입니다. 와석에다 가 자기 터를 잡은 기라. 잡아가지고 있으이께 그래 이전에 국보로 있으이께, 조그마한 벼슬을 했던 모양이라. 자기 할바시 되는 사람이, 그래 자기는 조정에 일 보러 갔는데,

"야야, 집을 짓되 너무 거부하게 짓지 말라."

이래 캤다 말이다. 그러이 안중까지(아직까지) 천지만지 있고 하이께 나무를 해서 대목을 수 십명을 데(데리어) 가지고 그 와석에다가 집을 짓기로 백 수십 간을 지었어. 그래 이 소문이 조정에까지 간 기라. 조정에 가나노이,

"아, 이 놈이 역적 할라고 계획한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국가서 탐정을 해라 해가지고 그 집을 망치라. 그래가지고 그 국가서 그 재산을 전부 빼앗아 가뿌릿어. 국가서 이래 놔 두서 안 되겠다고. 국가서 전부 앗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보가 남창에 남창남창 실고 가가지고 와석 가서 와싹 뿌사졌다고 그런 말이야.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64~466쪽.

[송정동 설화 8]

삼 정승 육 판서 난 묘터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한국 사람은 묘터를 보고 있는데, 이래 있는데 이래 있는데 어느 누구 때인지 그거는 나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야담이 돼다 보이. 영이정(領議政)이 되는 어른이, 영이정에 있다 카면 정승 중에도 제일 우에 가거든요. 우에 가는데, 상서니, 상학이니, 의학이니 이런 거 대략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민에 국가서도 그 어른을 존대해 주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묘 쓸 자리로 가만히 가만히 매일 답산을 하는 기라.

해가지고 댕긴께 삼정승 육판서가 남 자리를 딱 첫눈에 정한 기라요. 정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 있을 동안까지 매일 같이 가서 산세도 보고 또 연구해서 또 보고 해도 여축 없는 기라. 틀림없는 기라. 이래가지고, 자기 조부 산소를 안 디맀습니까? 디맀는데, 산소 딱 디리고 부터는 우째 되는 기라. 집안이 자꾸 망하는 기라. 자기가 영의정으로 있으이께 그 밑에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모두 처아들이고 시손들인데 하루 아직(아침)에 자꾸 나가는 기라. 말킴(모두) 다 죽어뿌리고.

나이 그러이 육십이 넘었다 말이다. 그러이끼네 이전에 잘 살던 세간이 있으이께 산소 앞에다 개막(여막)을 짓다 말이다. 지어가지고, 그런데 이전에 몸종들이 자기 젙(곁)에 있는데 몸종들이 벌어가지고 이 영감을 믹여 살리는 기라. 믹여 살리는데 그 이상한 묘등에 만날 누워가지고,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래 있는데, 하로는 웬 되사(도사)가 하나 딱 지내가면서,

"그 이상하다. 맞았는가?"

이래 카거든. 그래 영감이 귀가 번쩍 띠인 기라.

"저기 가는 도사님."

"예."

"금방 핸(하였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 사람을 좀 살리 줘야 되겠습니다."

이카거든.

"저는 아못 것도 모릅니다. 아무 핸 말도 없습니다."

이카거든.

"아니 옳시다. 이 사람을 살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카이,

"이 묘가 딱 바로 됐습니다. 다 됐는데 날로 정해야 됩니다. 날짜로 정해 아무 날 아무 시에는 이 묘를 개봉을 해야 됩니다. 개봉을 해가지고 시체를 들어 내놓고 해필 바로 딱 쫏아 나가면 복판에 돌소리가 납니다. 그 돌로 뿌수면 안 됩니다. 돌소리가 나거들랑 딱 꽂아 놓고 기다리이소. 기다리면 학이 시 바리 덕천을 보고 날라 갑니다. 조곰 있으면 비들기가 여섯 바리 날라 갑니다. 그럴 때 하관 시입니다. 하관을 하이소. 하고 봉분을 지이소."

카거든.

"예, 저 아무 도사님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로 안 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도사 날 받아 주는 대로 떡 받아 노이 힘이 자래 갑니까? 그래 밑에 이전에 종이라 카면 자기 몸을 바로 팔아 버린 기라. 머슴캉 또 다

릅니다. 이렀는데 머슴이 가서 자기 친구들을 뎃고 와가지고 탁주 말도 구하고 그 묘를 개봉을 핸 기라. 해가지고 그래 묘를 안 디맀습니까?

묘를 떡 디리 놓고 보이께 삼정승 육판서가 날 사람이 이 영감 아이면 안 되는데, 나이 육십이 넘은 사람이라 할 수 없어서 밑에 종된 이 사람들이 불쌍한 처이 하나를 구핸 기라. 구하이께 마침 양반은 양반인데 세가 없어가지고 처이를 못 치우고 처이가 그때 수물 니 살, 수물 다섯 살 카면 늦었다 아입니까?

이전에 수믈 살만 늙어도 환갑이 넘었다 카는데, 그래 수물 니 살 먹은 처이한테 장가를 안 갔습니까? 가가지고 처음에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그 다음에 쌍태가 아들 둘을 놓는데 그 다음에는 쌍태를, 쌍태를 하는 기라. 그래서 삼 정승 육 판서를 낳았다 캅디다. 자기 생전에 아들 네들 백살 넘기 살았거든. 그러이께 아들들 삼 정승 육 판서 보고 그 사람 죽었다 말이다.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66~468쪽.

[송정동 설화 9]

천자봉(天子峰) 어씨(魚氏) 묘터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압곡(鴨谷) 어씨네들이 것다(거기에다) 묘를 디맀다 아입니까? 디리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아주 기차게 살았어요. 기차게 살았는데 곽을 열 하나를 옇어라. 풍수가 [조사자와 제보자 간의 '곽 열 하나'에 대한 확인 대화가 있었음] 곽을, 곽을 열 하나를 옇어(넣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시체를 옇어가지고 그래야 발복을 한다 이라거든요.

이라는데, [조사자: 곽 밑에다가 사람을 놓고 그 위에 곽을 열 한 개 놓는다 말입니까?] 예. 그러이 짚이(깊이)가 말도 못 하지요. 시방도 곽 하나가 적어도 한 자 시치가 되이께네, 그래 해나 놓으면 짚이가 어찌 됩니까? 그러는데 풍수 그 양반이,

"당신 다 못하면 화를 당할끼다. 알아 해라."

이카거든. 이 사람들은 세는 없고, 그래 가산이 옳기 없고 하이께, 하다 하다 안 되이께, 곽을 열 개밲기 못했던 가베요. 열 개밲기 못했는데 그러이 발복을 해가지고 아들 팔 형제를 낳았던 모양이죠, 팔 형제나. 팔 형제를 놓고 딸로 하나 낳았던 모양이지. 딸로 하나 낳는데 아들 팔 형제가 다 과거를 했어요.

가는 사람마다 과거가 된 기라. 등선(급제)이 되는 기라. 이래가지고 국가서 가마이 보이께

한 자슥 밑에서 팔 형제가 과거를 해노이 이상스럽다는 기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전에 국가도 국풍(나라풍수)이 있었던 모양이라. 국가서 제일 잘 아는 풍수로 국가서 사용했던 모양이지. 지형을 한 번 봐라. 그러이 오만 조정에 고기가 많은 가운데는 기중 어룡이라. 고기가 많은 가운데는 용이라. 이러이 결국은 역천을 할 기다. 이러이 이대로 놔 둤다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났어. 그래서 국가서 요새 같으면 파견을 시켰어요. 파견을 시켜가지고 각 산맥을 쫓아서 내려 오다가 그래 여기 압곡(鴨谷)의 산, 그 뒤 어씨 산을 발견했는 모양이지. 곽을 하나 파 냈다. 파 내고 나와서 봐서, 또 이전에 동네 사람들이 보이 여기에 그 별이 비쳐가 있는 기라.

내려와서 또 팠다. 열 번째 다 팠어요. 열 번째 다 파고 나서 보이께 시체가 열 번째 딱 파는데 시체가 나오는데, 보이께 방금 인제 용마다가(용마에다가) 한 다리를 들어 얹다가 빛을 보이 사르르 사그러졌다. 그래가지고 어씨 네들 망했다 말이다.

그래가지고 국가서 그 자리다가 숲을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로 떠뿌고 그 정기를 없앴다 안 캅니까?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연구문화원, 1983, 469~470쪽.

[송정동 설화 10]

바둑 시합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문경산에 말입니다. 내우(內外)가 내려 와가지고, 이 사람도 살림이 좀 좋게 사는 사람인데, 만날 바둑을 두면, 중이 지는 기라. 지는데 한 분은 중이 떡 오디마는 이 살마 마누래가 대단히 좋던 모양이지요. 중이 내기를 하자 카는 기라. 이때 그런 말 할 수 없고 내기를 하는데, 요번에 내기 하는 데는, 내가 지면 돈을 천량을 내고 요새 돈 이백원이 이전 돈 천량인데 당신이 지는 데는 마누래를 날로 주야 된다.

이래 결정을 하는 기라. 내기를 바둑을 딱 두는데, 이 영감이 가마이 바둑을 두는데, 가마이 정나이 보이, 한 사십이 되이 바둑을 딱 두는데 보이 자기 말이 전신만신에 다 말리가지고 다 죽기 돼가 있는 기라. 이러이 기가 차는 기라. 이래가지고 그래 머리가 다 예민한 사람들이니 바둑도 이전에 그 사람도 고수 중인데 그만큼 두는 사람들이 잘 두는 것 아입니까? 바둑판 외우라 캐도 외우는 사람인데, 마누라 뺏기기 딱 돼 있어. 몇 점 아이면 큰일 났는 기라.

"이거는 쉈다가 내일 두자."

"예."

기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 영갬이 잠을 안 자고 있으이,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와 이리 잠도 안 자고 주무시지도 안 하고 와 이리 노심이 많십니까?"

이래 이야기하이, 기래 두 분, 시 분 그래도 말도 안 하디마는 그래 이야기를 하는 기라.

"이 사람아, 자네 아다시피 아무데 그 절에 그 중이 와가지고 매일 바둑을 두고 안 있나? 이래 있는데, 그 사람이 내기를 하자 캐가지고 내가지면 자네를 주기 했다 하고, 내가 이기면 돈을 천량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지기 돼가 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러면 바둑판 외울 수 있습니까?"

카는 기라. 부인이 자기 합부인 되는 사람이,

"외울 수 있다."

이래 카이, 그래 참말로 기림(그림)을 기리는 기라.

"요러면(이러하면) 바둑을 요 점을 요래 놓고 조 점을 조래 놓고 이라면 중놈이 항복할 깁니다. 딱 놓으소."

카는 기라. 그러이께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 아이라 됐다 싶으거든. 그래가지고 그 안날 아침에 날이 샜다 아입니까? 날이 새 가직 그래 바둑알 떡 피나 놓고 한 점 딱 놓이께 중놈이 마 발발 떠는 기라.

이상하이 샘(수염)이 발발 떠는 기라. 잘 두는 사람은 길에 한 점 딱 놓는 거 보면 미리 아는 모양이라. 저 사람은 하도(河圖) 바둑이고 이 처이는 낙수(洛水) 바둑을 같이 배왔던 모양이지요. 바둑을 배울 때, 그래나노이 이 영감의 부인은 낙수법을 배왔고, 저 사람은 하도법을 배완 때문에, 그래 낙수법한테 못 이깄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대감이 이기가지고 돈 찬량 그래 안 땄는교?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73~474쪽.

[송정동 설화 11]

시조단지와 득남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그런 이얘기가 있어요, 고담이라도.

한 사람이 사는데 이 양반이 양반의 집 안이니까, 그래 예전에 양반의 집안에는 조그마한

물건이 들어와도 시조 단지라 카는 단지가 딱 있어요. 사그릇 단지가 요래 얕은 단지를 떡 해 놔 놓고, 먼지(먼저) 새 곡식이 들어와도 것다(거기다가) 갖다 봉진(奉進)해야 하고, 또 다른 음식이 들어와도 그 먼지 갖다 놓고 자기들이 자시고. 이라는데,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나이 오십이 넘도록 자손이 없어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서 살림이 있고 한께, 이전에 요새 겉으면 김해읍에 출입을 갔다 말이다. 출입을 떡 가가지고 거서 늦게 마치고 장 마이(많이) 보고(물건을 사고) 이전에는 도선(渡船)이 있었읍니다. 도선을 건널라 카이 같이 손님이 하나 타는 기라. 그래,

"자네는 어데꺼정 가는고?"

이래 카이께,

"예, 아무데 아무 부락 아무 어른댁엘 갑니다."

카이, 그래 자기집이라.

"그래 무슨 이유로 가는고?"

"오늘 저의 입장(入祭)일 올시다. 입장일인데 우리 소생 제사를 모시고 있을 긴데, 제사를 모실라 카는데 입장일 때메(때문에) 갑니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아, 내 집이다. 같이 가자."

그래 같이 동행을 핸 기라요. 그래 떡 와서 삽짝에 들오면, 이런 점잖은 어른들이 한 번도 실언을 안 하거든요. 떡 들어오이께 집안에서 하인들도 나오지, 집안에서 부인들도 나오지, 아아들도 나온다. 다 나와 있는데, 그래 보이께 자기 머슴이 아랫방에 불로 캐나 놓고 새 옷을 입었다. 입고 갔다 왔다 캐싸거든. 그러이,

"니 아무거시야, 니 뭐 하노?"

이래 카이,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아부지 입장일이 돼서 천상 제사를 모십니다."

카는 기라,

"야야, 그래 그라믄 니가 그만 둬라. 그라믄 준비 우리가 할꺼마."

그래가지고 이 놈들 하고 시키서,

"마자 음식을 좋게 곱게 해가지고 제사를 모시도록 해라."

이래 하이께,

"예."

카면서 하인들 하고 살림은 부자고 하이께, 그래 제사 음식을 채리가지고 놓는다 아입니까? 놓는데 그래 아랫방에 떡 갖다 놓고,

"이 사람아 많이 자시게."

젙에 사람 아무도 안 뵈이지, 이 영감 눈에만 그 영감이 뵈인다 말이다. 그 아(兒) 아부지가 뵌다.

"많이 자시고 가게."

"예."

그러구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명시(鷄鳴時)가 되이께,

"아이고 예, 저는 시간이 돼 가겠십니더. 잘 먹고 갑니다."

카이,

"아, 그래 이 사람아, 고맙다. 잘 가게이. 명년에 또 오게이."

이래 카고 보냈다. 그래 이 영갬이 가마이 생각하이 '소위 말이지 너무집 고용살이 하는 저 사람도 자식이 있은께 선조를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데, 나는 죽고 나면 말이지 나는 시방 살아가지고 조상을 다 모시지마는, 내 뒤는 누가 내 제사 모실꼬.'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기라. 그 안날(다음날) 머슴을 시켰다.

"야들아, 덕석 펴라."

그만 제상 하나를 떡 갖다 놓고, 시주단지 전부를 갖다 내논 기라. 내 놓고,

"족속들 너그 들어 봐라."

그래 호령을 하는 기라.

"나는 소곰국만 와도 너그 앞에 먼저 놓고, 따신(따뜻한) 음식만 와도 먼저 놓고, 좋은 일만 먼저 해도 너그 앞에 놓는데, 내가 있어서는 하지마는 내 뒤는 아무도 없으이께 내 죽고 나면 누가 할거꼬? 너그 오늘부터 다 낙출해라."

카면서 던지뿠다. 던지뿌고 그라고 나서 천우신조해서 그런지, 어찌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태기가 있어가지고 아들로 났다 카는 기라. 아들로, 아들 낳아가지고 그래 손(孫)을 잇았다 카더라. 희안한 일이 다 안 있어. 고담이라 카는 기 지어 냈는가 우쨌는가 모르지만 그런 희한한 일이 있어요.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74~477쪽.

[송정동 설화 12]

쫓겨난 딸과 숯 굽는 총각(1)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한 사람이 잘 사는데 딸네들 불러가지고,

"니 누 덕에 묵고 사노?"

이라는 기라.

"아부지 덕에 묵고 안 삽니까?"
"그래."
고 다음 딸 또 불렀다. 불러가지고,
"니는 누 덕에 묵고 사노?"
"아부지 덕에 묵고 삽니다."
그래 일곱째인가 여덟째 딸을 불러가지고 이양(意向)을 물은께,
"내 복에 안 묵고 삽니까?"
카는 기라.
"네이 요년! 니 복에 묵고 사니 나가라."
그때 딸을 훗쫓았어요. 훗쫓았디마는 이 놈이 부자집이니 잘도 먹다가 혼자 곧장 가는 기라. 가다가 방금 가이께 길이 어둡다이. 가다가 숯 굽는 총각을 하나 만냈어. 숯 굽는 총각을 그래가지고 그 뒤 어짤 도리 없이 총각 따라가서 살게 숯 굽는 데로 갔다. 가이 그 밥 해 묵고 밤을 세우고 내우간이 됐네. 아침에 밥을 가(가지고) 떡 가이께 숯 굽는 그 불독 말입니다. 그기 전부 금덩거리라. 그래가지고 이 처이가 그마 하나썩 하나썩 영감재이다.
"숯 팔라 카지 말고 이것만 갖다 파소."
팔아가지고 돈사 가면 앞 뒤 좋은 논 사서 좋은 논 사서 부자가 된 기라.
그러나 이 부자집은 차차 차차 살림이 망하는 기라요. 그래가지고 이 처이가 친정집 논 다 사뿠는 기라. 다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래 나노이 이 친정집 부모도 이 처이가 믹이(먹여) 살리는 기라. 그래가지고,
"누 복에 묵고 사노?"
한 그 처이가,
"내 복에 묵고 산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 복이라 카는 것은 할 수 없는 기라요. 그 희안한 일이나, 그런 전설이 있대요.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77~478쪽.

[송정동 설화 13]

쫓겨난 딸과 숯 굽는 총각(2)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어째 됐노 카면, 어떤 분이 참 딸을 갖다가 삼 공주를 낳았는데, 각각 그 딸을 불러서, 그 뭐 가사가 요부하고 딸네들이 살살 커서로 뭐 과년이 차지고 이러니까, 그마 그냥 그대로 놔 두시면 이 일 저 일이 없어실는지도 알 수 없지. 그러나 그 영감이 오만간에(갑자기) 얄라구진 머시(무엇)가 생기가지고 우짠 일로 딸네들로 불러 놓고 그래 착착,

"누 덕을 묵고 사느냐?"

고 물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 두 딸애는,

"다 아부지 덕이지, 뭐 누 덕을 먹을 수가 있십니까?"

카는데, 그 막동이 딸이,

"와 아부지 덕이라, 내 덕을 묵고 살지."

하니까, 그년이 고약하다. 이래 후차냈더라 이기지. 그 딸 이름이 복남이라 이기지. 그래서 그 복남이라 카는 딸이 쫓아내니까 거지겉이 하고 걸어서 가다가 찾아간다고 간 것이 노상에서 만낸 것이 아니라, 산중을 들어갔더라 이기라.

그라이께 밤은 깊어졌는데, 불빛이 있으니까 불빛이 나는 곳을 찾아가니까 마침 말이지 조그마한 울막이 하나 있어 찾아 들어가니, 그기 숯 꾸 묵는 사람이라 이기지. 그런 곳에 생전 사람 안 오는데 그런 아주 꽃 같은 처녀가 찾아 들어가니 얼매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 숯 꾸 묵는 사람은 모자가 살고 있었더라 이기야.

아들은 숯을 굽고, 어마니는 참 그 뒷바라질 하고 이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뭐 난데없는 그런 말이지 아가씨가 찾아 와서로, 그 뭐 좀 자고 가자 카고 그래 잘 자고 가라고 했이몬 자고 났이몬 갈 것인데, 안 가고 말이지 있는 거로 그라이께 가라 쿨 수도 없는 기고 대접은 착실히 했겠지.

그래 하루 이틀 얻어 묵고 있이면서 살살 새귀고 보이까 그 집에서야 어띠케 아이가 예쁘고, 와서로 일로 거들아 주고, 나 만(나이 많은) 사람이 그란해도(그리 안 해도) 뭣이 하고 싶지도 않은 데다가 그런 분이 와서로 있으이께네, 그 뭐 일거리가 좀 많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와서 거들어 주이까네 수월해졌더라 이기지.

기러니까 그마 하루 더 있이라고 자꾸 붙잡는 판이지. 그러이께네, 또 자기도 욕심이 생겼겠지 어마니가. 그래서 자꾸 하루 하루 붙잡았는데, 그래 그 아이가 말하자면 가만히 있어보이, 우째서 이 좋은 세상에 이리키 산중에서 말이지 저 먹칠을 해가지고서 저 숯을 꾸 묵고 살아도 그 윤택하게 못 살고 이러는고 해서 그 숯굴로 한 번 가보자꼬. 그래서 그 구경이나 한 번 시켜 달라고 이랜 기지. 구경시키려 간다고 덛고(데리고) 간것겠지요.

그래 가 보니까니 숯 굽는 굴 우게 덮은 그 모두 구들쟁이가 말짱 생금댕이더라 이기지. 그래 그걸 보고 온 처녀가 내일부터서는 숯을 끗지 말고 이 숯굴 우게 덮어 놓은 이 말이지 구들장으로 한 짐씩 당신 힘대로 지고 가서 시장에 가 팔아가 오너라. 그러니까니 저 사람이 깜짝 놀랬지. 그 놈의 그 노모도 말이지 깜짝 놀랬지. 아이고 이 처이 말 듣다가 난중에(나중에) 우리가 말이지 숯도 못 끗고 이거 뭐 낭파 새겼다 이러키까지 소동이 났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이지 이 숯굴 이것 좌우간 다 뜯어서 내가 풀아 오도록까지 풀아 가 오

면 좌우간 말이지, 그 동안에 묵고 지내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던 간에 이런 밥 안 묵고도 이하리(좋은) 쌀밥에다가 잘 포식으로 지내도록 내가 모실 기니까니, 그래 오라는 기지.

그러니까 [청중: 값지 값대로 받으라 카고 그랬나.] 예. [청중: 값지 값대로 받으라고.] 그러이 그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지는 한 짐 짊어지고 지 힘대로 지고 바치는 기지. 그 모도 지내는 사람이 앗다 좋은 물건 왔다고 와서 뭐 얼마 받을 기냐고 하니 값을 알 수가 없는 기지. 그러니까 그 처녀가 일러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은가(原價)를 모르니까 얼매 달라고 못한께,

"마 금지 금대로 받십니다."

이래 되는 기라. 답이 내온(나온) 것이 [청중: 그렇지.] 금지 금대로라 카이께나 매도 맞을 놈이 말이지 올리 때리라 내리 때리라 할 수는 없는 기고, 이러고 보이께 자꾸 묻지요. 그래 물으니까 끝까지 이 사람은 답은 금지 금대로거든. 그러이께 남의 물건을 중한 물건을 갖다가 젝기도(적게도) 줄 수도 없는 기고, 고만 몇 천 냥을 줄거마 이러이께네, 이기 실무시(슬쩍) 못 이기는 득이(듯이) 주고 보이께, 한 짐을 폴고 보이께, 하 이기 돈이고나! 이것을 알아서 그때부터서는 자꾸 뜯어다 팔기를 시작했지. 이러고 보이까 그 굴 다 팔고 나 놓은께, 뭐 청지와집을 몇 채를 짓고서 배가 불러가지고 대문을 짜는데, 열 두 대문을 짜는데, 그 대문이 전부 소리로 하도록 짜라 이리 되는 기지. 이래노니 그 대문을 말이지 우떻기(어떻게) 하던 간에 옛날 우리 목공들이야 그 비상하게 다 그런 머시로 잘 한다 말이야. 이러고 보이 대문을 열어도 '복남아' 닫치도 '복남아' 이런 소리를 하도록 맹글았다 이기지.

이러자, 고만 그 딸 하나 쫓아낸 그 집안에는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쇠락해져가지고, 그만 난중에 망해가지고 결국 아바니도 처처로 방방곡곡으로 뭐 얻어 무로(먹으러) 나서고, 어마니도 얻어무로 나서고, 이래가지고 그날 아바니 어마니는 딸네들은 치았것고, 이러고 보이 둘이 떨어져 댕길 수는 없고 묵으나 굶으나 같이 댕긴다. [청중: 방방곡곡으로 댕긴다.] 간다고 간 것이 그 곳에 다달했는데, 한 곳에 가이 좋은 청기와집이 줄줄하이 수십 채가 들어 이래 있는데, 주인이 있는 제일 큰집이 있어, 그 집을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 술 얻어 묵을 기라고 대문을 떡 들어서이께, 대문을 떡 잡아 댕기이 우리딸 이름을 부른다는 기지.

"복남아."

이러이께, 금시 밥 얻어 무로 간 이 배 고픈 거는 잊어뻐리고, 또 한 번 열어 보면,

"복남아."

닫히 보면,

"복남아."

이라 칸께 자꾸 이놈을 열었다가 닫치다가 이랬던 모양이지.

이러고 보이께 잊어버린 딸이 말이지 그 감정이 소아쳐가지고서, 거서 통곡을 한 기지. 대문을 잡고 우리딸 복남이는 어데로 가고, 이 대문이 말이지 우리 복남이를 찾으이 말이지, 이 얼매나 이 말이지 절통하 일이냐고 하고서, 그 영감 할미는 그 대문을 아듬고(부둥켜 안고) 아첨내 통곡을 하고 열었다가 닫쳤다가 이랬던 모양이지. 그 열 두 대문에 그 짓을 하니, 그

안에서 알았다 이기지. 주인이 그 대문 밖에 누가 저 대문을 말이지 저리키 요란시럽기 하는가 하이께, 하인이 말이지,

"어떤 노파가 와가지고 대문을 검어쥐고 밥 줄라는 말도 안하고 말이지 [웃음] 아첨 내내 말이지 닫았다 열었다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 노파를 모셔 들이라 이래 됐는 기라. 그래 그 하인이 나가서,

"아이 여보시오! 왜 넘우 대문을 잡고 말이지 이렇게 통곡을 하오?"

하니까,

"아이구 그런 기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밥을 얻어 먹을라고 왔는데, 그 우리 막내이 딸이 말이지 이름이 복남인데 대문이 우리 막내 딸 이름을 자꾸 말이지 불러싸아서 그래 우리가 비감이 생겨서 그래 그렇십니다."

그러이께네, 주인한테다가 여내 그 사실을 갖다가 여쭌 기지. 그러고 보이께네 그 주인이 말이지 여내 그 보선발로 참 뛰어 나가가지고 자기의 부모를 모시 가가지고 그래 그 부녀상봉이 되고, 그 자리에서 그 날부터서 발복을 했다 하는 기 그기 전설이지요.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78~483쪽.

[송정동 설화 14]

경포대 전설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잇날에 강원도, 강원도라고 해도 거기가 경상북도 묵호에서 가면게 어디라 합니까? [청중: 묵호서 가모 강릉으로 가고.] 강릉 경포대가 나오지 [청중: 예, 강릉 경포대 그리 갑니다.] 경포대가 거울 강자 [청중: 예, 개포자.] 집 대자 아입니까?

그런데 본데 그 강포대가 지금 거게 못 아입니까? 못같이 돼가 있거든. 그런데 거게 거부가 살았다는 겝니다. 그 거부가 사는데, 그 거부가 굉장하게 그렇기 독하더랍니다. 너무너무 독하고 이러고 보니까, 그 어느 대사가 공양을 하러 갔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참 뭐 중놈들로 갖다가 쌀 한 되밖이 안 조도(주어도) 우리는 이 만큼 사는데, 그런 소리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뭐 중을 뒤 감남게(감나무)에 갖다가 달아매 놓고서 똥이나 한 바가지 믹이라 이래가지고 똥을 퍼다가 믹있다 이기라. 그러니까 그 대사는,

"예, 먹겠습니다."

하고 그 똥을 받아 마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키 고난을 겪은 대사로 갖다가 얼매 후에 끌러 놓으믄서 끌러 주라고 이렇게 되니까이 그래 그 대사가 돌아가는 길인데, 그 종이 하나 여종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너무너무 그기 불쌍코 말이지 참 머시 해가지고 동정심이 가서, 그래 거 그분이 그 스님 좌우간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쌀로 한 말 가 와서로 부우줏답니다.

부우주니까니 해필이도 그 받는 스님은 자리에 밑이 없는 자리로 갖다가 받았더라 이기지. [청중: 옳지.] 그래 받아가지고 보니까니 밑이 없으이께 쏟아질 거 아니요? 그래 딴 거로 줄라 카이께, 절대로 딴 거는 안 할라 카고 내가 이거 전다 주우 가겠십니다. 이리키 하는데 제(젓가락)로가지고 줏더라 이거지. 그것도 씰어 담으면 다행인데 [청중: 그렇지 제가 주우면 시간이 얼메 걸릴 것고.] 젓가락을 가지고, 저분(젓가락)을 가지고 그 쌀로 갖다가 [청중: 시간을 보내는 기지. 시(時)를 맞출라고 기다린다.] 그렇죠. 그래 주우 담으면 그러이까니 시간이 얼마나 흘러겠소. 그러나 그 어떤 술번인지 그 쌀로 다 주우 담아가지고 떡 둘레메고는 그 인자 그 분이 하도 신기로우이끼네 진키(지켜) 봤던 모양이지요. [청중: 옳지.] 그러이께 당신은 살라 하거들랑 낼로 따라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라고. [청중: 그 도사가?] 예. 그래 그 요 지치(지체)를 오래 하면 당신 죽으니까 당신이 생명이 말이지 아깝거들랑 내 뒤만 따라서 오는데,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카는 기지. 그래서 그 스님은 그걸 짊어지고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 카는 기지. 그래서 그 스님은 그걸 짊어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 저 여자가 가만히 세알려 보이께네 곧 죽는다 하이까네 무슨 변화가 있는고 저 대사를 따라가 볼 빽에 없다 싶어서 허둥지둥 자기도 아무 징긴(지닌) 거 없이 그마 그 말만 들은 부인이 따라 내뺐다는 거지.

그래서 허둥지둥 가는데 가만이 보이끼네, 산 중턱에 얼쭈 가니까이 청천백일이 우수수라. 금시 그만 그 뭐 우수수 카더니 말이지 물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 붇는데 뭐 사방에 물이 이래 꽉 차 들어오니까, [자기 허리께를 가리키면서] 아이구 내 있던 집이 우찌 됐는고 싶어서르 뒤를 돌아보이께니, 그 시님이 말이지 뒤돌아 보지 말고 오너라고 [청중: 옳지.] 했는데도 정말 자기도 모르게 [청중: 옳지.] 뒤를 돌아봤다 이기지.

그러고 보이께 그 분은 그만 그 자리에서 장석이 돼 버렸다 이거지. [청중: 하-.] 둘이 지금 거 우뚝 서가 있고, 그 스님은 간 곳이 없고, 그 부자의 집은 일시에 그 바로 소가 돼 버렸다 이기지. 그러이께. 아무리 머시가 되도 거기는 강포대라 카는 데는 꾸중물이 안 들고, 언제든지 물이 거울 빛 같이 맑다고 해서 그래 강포대라 안 캅니까?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83~485쪽.

[송정동 설화 15]

괴물을 퇴치한 처녀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얘길 들어니까 그렇더마는 중간(근래) 얘기다 이렇게는 우리도 보지요.

김해 어느 고시라 카는 그 곳도 확실히 모리고,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분이 좀 유식한 사람 같으믄 뭐 어느 지방에 어느 동네에 우찌 이렇기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덮어놓고 김해 어느 곳에 댕(堂)이 있었더라 이기지.

당집이 있었는데 그 당집에다가 사람을 처녀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 바치게 되면 야큰(여하튼) 그 부락에 그 연(年)이 풍년이 되고, 안 바치게 되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 놔도 하리 밤에 소지 없애버리는 기라. 이렇기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이께 그기 중간이라고 보지요. 그랬는데 마지막 어느 집 처녀가 그 머시를(무엇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가게 됐는데, 우째도 그 집에 가 있으면 그 안날(다음날) 아침에는 뭐 머시하고, 또 그날 저녁에 처녀를 어느 누구나 그 당집에다가 대신 사람 하나 보냈다 쿨 거(할 것) 같으믄 그 부락 사람들은 밤에 징키(지켜) 보고 있었답니다.

그 집에 가보는 기 아이라 그 근방에서, 부락에서 징키 보는 기라. 그 밤중이 넘어 되믄 그 담 말랑(담 꼭대기) 우이가 광선이 커다라이 이렇기 화영(火影)이 난다 이거지.

그라믄 그 집안에 오늘 지녁에 간 사람이 남자가 갔든지 처녀가 갔든지 누가 간 사람은 이름을 들믹이서(들먹여서) 상천한다고 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 상천이라 카믄 하늘로 오린다 말이겠지요. 이래서 그기 승천인데 상천이라 보통 하죠. 그래서 승천을 갖다가 상천이라 이렇기 해석할 때 상천한다고 이래서 모두 어떤 사람은 나무애미타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랬답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그 마을 처녀가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했다 카던 모양이라. 가면서 그 처녀가 지혜가 있었든지 말하자면 석우황(石우黃)으로 지니고 갔다라 이기지. [청중: 석우황?] 석우황카믄 그 비상을 가지고 제조한 액인데 독액입니다. 그기 한약방에 사용하는데, 매독 성분 같은 거 그런데다가 비상경분(비霜經粉)도 씨고 석우황 카는 거 씹니다. 매독성 그런 병에 씨는(쓰는) 액인데, 그래 그것을 종이에 싸 가지고 자기 품에다가 품어 갔는데, 가서 그 방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갈 때에는 목욕 정결히 하고 다 머리 감고, 이래가지고 [청중: 새 옷 갈아입고.] 예. 새 옷 갈아입고, 이래서로 가는데 가서 앉아시니까니 난데없이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당집 문이 말이지, 화영이 막 등천하니까 아! 오늘 아무 처녀 상천한다. 이래가지고 모두 막 예배를 드리고 이랬다카네.

이랬는데 반드시 내려오는 흔적은 있었는데, 올라가는 흔적이 없더라 이거지. 그날 저녁에는 그 참 신기한 일이라고, 처녀가 오늘 상천을 그 못 한 것 아이가. 이렇기 일반이 소곤거렸는데, 날이 밝아 가니깐 처녀는 살아있고 그거 괴물이는 죽었더라.

그래서 괴물 잡고 난 뒤에는 아무도 그것 갖다 안 바치도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길 합디다.

그래 그 처녀는 어째 모면을 했던가 이런께, 사정없이 큰 그런 괴물이가 입을 벌리고 처녀를 주우 무울(먹을) 듯이 하는데, 자기가 품에 품었던 석우황을 갖다가 입에다가 먼첨(먼저) 옇어삐맀어. 옇어삐리고 나이까네 처녀를 뭐 주어 묵을 여기 없이 그만 뒹굴뒹굴 구부더니 뻗어삤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녀는 어연히 살아났지.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까지도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기 얘기는 들었지요. 그런께 중간 얘기 들은 택이지.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85~487쪽.

[송정동 설화 16]

삼 정승 골목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지금도 저 서울 가믄 삼 정승 골목이라 카는 골목이 있답니다.

여기 성(姓)은 황씬데 이 양반이 에리서(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이자 에리서부터 넘우(남의) 집에 고용을 살았으요. 에리서부터 고용을 살았는데 그동안 살고 보믄 나이 삽심여 세 되도록 섯달 그믐날 딱 보믄 돈이 백냥밲에(밖에) 안 남는 기라. 십 년을 살아도 그택 이런 기라요. 이러이 이 사람이 다시 옷 한 벌 남은 거 하고 그 뿐이라.

이래서 그때 그 시에 서울에 용한 점바치가 있는데 점채가 백 냥이라요.

"에라이 이눔우 내가 나이 에리서부터 이래 고생을 해가지고 사는데 나이 삽십이 넘어가지고 여네 이럴 것 같으면 나 죽지 뭣 하겠노. 점이나 한 번 해보고 여네 이렇다 하면 내 죽을란다."

이래가지고 점을 하러 간 기라요. 점을 하러 떡 가이께 점쟁이 집에, 그 기화집에 일이 있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정이 없다 말이지. 이 사람들이 인사성도 없고 배운 데도 없고 이런 사람이지마는 그래 가이,

"들오시오."
"점을 하러 왔읍니다."
이라이,
"아, 앉으시요."
"그 돈 백냥을 가 왔읍니다."
카이,
"가 왔으면 내노라."
내놓으이 하인들 시켜서,
"고방에 갖다 재라."
이카거든. 재이까 주인장 하는 말이,
"그 너그 장골이 서이 하고 순마줄을 가오라."
이카거든. 순마줄로 그러이 [청중: 삼줄이다, 순마줄은.]
"이 사람을 배곁에(바깥에) 나무에다 거꾸로 달아매라."
카노이께. 무조건 그마 거꾸로 달아매라 카이께네, 이 양반은 영문도 모르고 점 하러 가가지고 돈 백냥 빼낐제, 거꾸로 달아매어 데롱데롱 해가 있으이, 나중에는 죽을 지경이라. 그때 비가 안 오면 하지마는 비가 또 오네. 비가 또 오인께 코구멍으로 입으로 물이 들어가이 죽을 지경이라.

달아 묶가 있으이 우째 해볼 도리가 없는 기라. 가면서부터 가부디이라. 이래가 욕을 보고 있으이 우째우째 버덩거리이께 퉁 널졌어(떨어졌어). 그 때가 우째되냐 하면 밤 열 한 시나 이래 됐다.

그래가지고 길은 좀 껌한데, 그래 얼추 그 집에 들갈라 카이 겝(겁)이 나서 몬 들어 가겠고, 이 어데 사알 의지할 때가 없는가 싶어서 사알사알 들어가이 이전에 채봉해 놨던 집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 무슨 집이 하나 있는데, 살살 드가서 보이 의지할 만하겠다 말이지. 사알 가가주 앉아서 있으이께, 어데서 사람 숨 쉬는 소리가 속속 나는 기라. 그 이상하다 싶어서 사르르 귀를 기울이고 보이께, 뭣이 시커믄, 이전에 옻 칠해논 그기 곽(廓)이라요. 곽이 이 사람은 곽인지 뭣인지 이것도 모르고, 숨소리 나는데, 거서(거기에서) 나는 기라. 사알 들다보이, 따까리(뚜껑)를 사알 열어 보이께 한 열 칠팔세 묵는(묵은) 처이가(처녀) 누워서 숨을 쉬고 있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보담아 냈어요. 보담아 내가지고 그 때 그러구로 핸 시간이 우째 된는고 하이, 요새 같으면 한 세시나 네시 가까이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 처이를 업었으요. 업고 그 가죽은(가까운) 주막집에 간 기라.

그러이께 보이께 이 사람 서른 살 묵고, 저 사람 열 칠팔 살 묵은께(먹으니까), 부자간 겉다(같다) 이렇다 말이지. 그러인께 그 큰 가게집에 장사를 하러 갈 장사꾼들이 거기 모이가 모두 아직에(아침에) 국을 끼리 주고 쌓는데 그 이 사람 되기 급하이께 정상으로 도와 줄라 이래 카이께, 그래 도와서 따신 방을 정해 주는 기라. 그래 살살 주물이께 깨나는 기라.

처이가 깨어 나가지고 그날 아직 순참 때가 되이 완인이 된는 기라. 처이가. 그래 처이가

깨서 가마이 정신 채리보이 처이가 생각이 나는 기라. 그래,

"당신이 어데 계십니까?"

이카이,

"나는 아무 데 있다."

하께,

"그래여. 당신이 날로 살려 줬는데, 내 심바람(심부름) 좀 해야 되겠십니더."

카는 기라.

"예, 그라겠십니더."

그래 여(여기) 싹싹 적어 주믄서 그래,

"장판서 댁에 가믄, 내가 살았다는 이야길 하믄 쫓아 올 깁니다. 가서 기별을 좀 해 주시요."

이카거든. 그래 이 댁이 고서(거기에서) 맺(몇) 발 안 돼요. 떡 가이 하인들이 갔다 왔다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장판서 만내러 왔다 이라인께, 하인들이 보인께, 장판서 만낼 사램(사람)이 아이라. 만나로 오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옷은 버젓이 입고 올 긴데, 장판서 만낼 사람이 몬 된다. 만낼 필요 없다. 안 딜라 줄라 칸다. 안 딜라(들여) 줄라 카이, 그래,

"딜라 도고."

"안 딜라 준다."

싱강(실랑이) 해 쌓는 참에 이 댁에 장판서 이 어른이 그 참말로 무남독녀 외동딸도 죽고, 직이고(죽이고) 그라이께 마음이 심난해. 그래가 드갔다 나갔다 하이, 그래 배곁에(바같에) 싸움 소리가 나는 기라. 그래 가서

"얘, 야들아 왜 그라느냐?"

"이 우엔(웬) 손님이 대감님 만날라 카는데 만낼 사람이 아입니더."

"아, 무조건 들라라."

그래 들어갔다. 들어가이 그래,

"자네가 어데서 우째 왔느냐?"

"예, 여기 배곁에 아무데 주막에 댁의 따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기별하로 왔십니더."

"아, 그래."

그라이께. 어데 나중에 가서 자기 할마이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이께, 인자 자기 아들 델다가,

"너거 오래비 오라 캐라. 너거 일가들 오라 캐라."

이래가지고. 사인교를 채리가지고 얼마나 반갑든지 그 주막집에 이 사람이 안 갔습니까? 가이께 참 자기 동생이 앉아 있는 기라.

"아이구 오빱니꺼?"

그래 둘이서 남매간에 앉아서 좌우간에 운다.

"오빠 그럴게 아입니더, 이 양반이 날로 살려 줬는데 인사를 해야 안 됩니꺼?"

"아, 그 참 맞다. 내가 인사 늦었다."

그래 이 사람이 인사를 하이께,

“예, 나는 황가라 캅니더.”

그래 주인한테서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후히 대접을 하고, 그래 이 황씨를 뎃고(데리고) 자기 집에 왔대요. 왔는데 그래 그 집에서 방을 따사라돼가 이 사람 황씨를 모시 놓고 있는데, 끼니에 밥 주믄 밥 묵고, 옷 주고 다하는 기라요.

그러구로 세월이 흘러가, 이 여자가 처이가 열 팔구 세 되는데 매파가 들오는 기라. 중신하로 들오는 기라.

“야야, 니가 나이 자꾸 차고 시집을 가야 안 되겠느냐?”

“예, 시집을 가야지요.”

“그 아무데 그 참 대감어(대감의) 댁에서 그 수재(秀才)가 재주도 좋고 이런데 그 혼처가 들옸는데 어찌케(어떻게) 하믄 좋겠노?”

“어머니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나는 뷔(벌써) 배필이 정해져가 안 있읍니꺼?”

카는기라.

“이 사람아, 니가 무은(무슨) 배필이 정해지가 있노?”

“그 황씨라 카는 사람이 구중처녀 몸을 내어 살릴 적에 온데어(전신에) 손 안 댄 데가 없었고 하는데, 내가 부모한테 받은 그 삼사계(三事戒)도 그만 고물 다 됐는데 그때 몸을 어데다 내 수청을 또 바칠 겁니꺼? 안 됩니다.”

그래. [청중: 수지부모(受之父母) 아이가?] 예.

“안 됩니더.”

그래,

“야야, 그렇지만 그 사람은 니를 살린 은인이고, 내우간은 아이다 아이가? 그 좋은 자리 니가 시집을 가는 기 안 좋나?”

“안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처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착착 눕었다. 설마더나 지가 안 묵겠나(먹겠나) 싶어서, 자, 하리 안 묵어, 이틀 안 묵어, 사흘 안 묵어. 이런 뭐 대충 살리논 딸로 직(죽) 이겠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아이구, 야야 니 황씨한테 시집보내 주마 일나라(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자기 영감 내우간이 이논(의논)을 했으요. 이논하이, 참 날로 떡 받아가지고 혼례식을 하는데, 그래 그 각(各) 대감어 집 총각들이 우리한테 시집을 보내라 캐도 시집을 않은 처이가 어떤 좋은 신랑을 만나노 싶아서, 요새 같으며 야꾸 줄라고 와 보는 기라. 와보이, 신랑이라 카는 기 인사를 할 줄 아나, 글로 한 줄 할 줄 아나, 이놈우 행실 볼 줄 아나. 이래가 대례청에서 행례를 마치고 난 뒤에 신랑을 놀리보이, 이거는 마 먹통이거든.

이래 놀리대나노이 처남되는 사람이 할짓이 아이라. 한 번 찾아오며 말긴데, 두 번 세 번 찾아오네. 이래노이 아 이라다(이리 하다가) 까딱하며 내꺼진 조지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라다 안 되겠다. 그래가 거기에 우째 됐노 하이, 아주 부자집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비아 난 집이

있어. 기와집, 사칸 집, 명랑한 집이 있는데, 여기 사람만 가믄 죽어. 그러이 이 집이 아주 헐값이라. 그래 그 헐은 집을 샀어. 그래가지고 아무따나 이리 저리 해가지고 지는 그날 저녁에 드가며 죽어뿌믄 이 꼬라지 안 보겠다 싶어서, 그만 직이뿔라고(죽여 버리려고) 그래 지 동생한테 안 보내고 직이뿔라고 이래 떡 해노이, 그래 그 집에 가,

"황서방!"

"예."

"니가 처가살이 맨날(늘) 할 수가 있나. 니 집을 별도로 사 놨으이께, 오늘 저녁에 이사를 가라."

"예, 형님 시키는 대로 안 하겠십니까?"

그래 하인들이 살림을 가지고 그 집에 엥기(옮겨) 안 놨습니까? 나놓고(놓아두고), 그래 사랑에다 등촉을 밝혀 놓고 있다. 하메나(언제쯤) 마누래가 올랑강. 그러구로 시간이 넘어 가기로 한 열한 시가 넘었던 모얭이지. 그 어데서 "광"카이, 뭣이(무엇이)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나거든. 하, 이기(이것이) 뭣이 이런가 싶어서 문을 살 열서 가서 보이, 청방 말이지 이전에 은전(銀錢) 말이지 금전(金錢)이 노다지 쏟아져 나오는 기라. 이눔이 무식해도 돈을 알거든요.

어찌 좋은지 이 돈을 갖다가 백원짜리는 백원짜리, 오십원짜리는 오십원짜리대로, 일원짜리는 일원짜리대로 돈을 자꾸 모우고 있다. 모우고 있는데 이 하인들은 영장치로 나오는데 겝이 나는 기라. 무조건 이제 목괭이캉 괭이캉 초상치로 온다고 온다. 오이께 서리(서로) 안 들어 갈라고 곽을 해 짊어지고 영장을 담아가 보낼라고 곽을 짊어지고, 그래,

"니 드가라 내 드가라."

이래서 이 사람이 지는 돈 시알린다고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 곽 진 님이(놈이) 각중에(갑자기) 밀리가지고 쑥 드가뿠다. 우짜다 보인께 뭐 번들번들한 괙이 하나 갑자기 들오이께,

"아이 이 괙이 마침 집지기 들어온다. 돈 열란다(넣을란다)."

그래 보이께 영판 돈 옇기가 좋아. 곽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여 와, 니 돈 좀 담아라."

그러구로 해가 돋았다 말이지. 그래 자기 처가집에 연락을 떡가이, 그래 밥을 가(가지고) 온다. 가오이, 보이께 그 돈만 해도 저거 내우간이 아이라 생전 묵고 살고도 남는 기라요. 그래서 내우간이 처남한테 괴름 안 끼치고도 살아 나가는데, 그러구로 애기를 하나 낳았어요. 애기를 낳았는데 그래 처이가 가마이,

"보시오. 우리가 사람이 돈만 있어 가도(가지고도) 안 됩니다. 사람이라 카는 기 글로 배와야 되는데, 글을 배알 수 있겠읍니까?"

이카이,

"이 사람아, 누가 가르칠 사람이 있는가?"

그래 나이 삽심이 넘었다 말이지.

"서방님 배울라 카믄 내가 가르키 드리겠읍니다."

이 사람들이 다 대감집 자녀고 하이께 사서 삼경을 다 읽은 사람이거든,

그래 글을 배와 주는 기라. 글을 배와 주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고, 글에만 딱 정신이 있으이께 일취월장(日就月將)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구로 달통을 해 가지고 행실 방법을 배운다. 인사하는 법을 배운다. 시조를 배운다. 그러구로 자기 처남들 친구들 떡 와서 대조를 해 보이께 훨씬 우에(위) 올라가 있어. 인제 그만하믄 됐다. 자기 처남도 인자는 말이지 황수병이라 카는 사람이 인자 인기가 높아졌다. 이래가 있는데 그러구로 과개(과거) 한다는 방이 붙었다. 그래 자기 마누라가 가가지고,

"보이소. 우리가 글로 알아도 안 되고, 우리가 조그만 벼슬을 해도 벼슬로 해야 자슥들을 써 묵습니다. 과개를 한 번 봐 보이소."

"오. 이 사람 한 번 가 보세."

그러구로 지필묵(紙筆墨)을 우째 우째 한다 한다는 거 양반 집안서 다 알거든. 그리 우찌한다 갈쳐줬다 아입니꺼. 갈쳐 주나노이 그래, 이 사람 과거를 떡 하러 갔다. 가가지고 우째 마 써 여나노이(넣어 놓으니). 운이 있어 그랬든가 초급에 떡 걸맀다 아입니까. 걸리가지고 그래 내리 벼슬로 처음 살았으요. 이 사람이 자기 돈 있제 정사를 하기로 똑 마음이 순진하고 해나노이 정사를 잘 다스렸던 모이지요. 그러구로 그러구로 올라 가가지고 난중에는 정승까지 해 묵었다 하는 기라. 삽심이 세 넘어서 글로 배왔지마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 삼남 삼녀 놓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정승이 안주 명망이 높아가지고 그 골목 이름이 황정승 골목이라 그래 있답니다.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87~495쪽.

[송정동 설화 17]

최고운 전설

구 술 자: 김종만(남, 70)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최고운이가 돼야지한테 낳다 하는 전설은 있는데, 그기 아무런 책이고 어디고 챙기 봐야 그런 거는 없는데, [청중: 이약(이야기)은 있어도.] 그러믄 그 도섬(猪島)은 어데 있는 도섬이냐 하믄 우리 나라에 지금 도섬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전라도 지방의 도섬은 잘 몰라도, 요 경상도 지방에 도섬은요 지금 부산서로(에서) 충무로 가는데 그게도 도섬, 또 [청중: 도섬이 많지요.] 그러이께 칠원(漆原) 고리도 앞에 기(거기) 가믄 그 섬 하나 있는 그것도 도섬이라 캅니다. 그기 고성(固城) 앞이 되고 진동(鎭東) 앞이 되고 그렇지요. 그라믄 또 마산강 들어가믄

마산 신마산 서러(서로) 고(거기) 마주치는 섬, 그기 도섬이라 합디다. 그 도섬에서로 최고운이 낳다 이런 이얘기가 있지요.

그것도 유실무실한 이얘긴데, 그래 그러믄 그분은 어째서러 그랬던가 이기지.

마산이 예짝에(옛적) 그 산세를 보믄, 똑 사램이 말로 타고 있는 것 같이 산이 돼 있더라. 이래가지고 그 마산이라고 지명이 됐는데, 그 마산 뒤산은 갖다가 그리하믄사(그리하면야) 하지만 그거로 갖다가 지금 공원 돼가 있는 기 용마산(龍馬山)이라 하고, 고게서러(거기에서) 서남쪽으로 빠지는 장군동(將軍洞)이라거든요. [청중: 장군동?] 예. 장군동. 거기가 장수 장(將)자입니다. [청중: 예, 맞습니다. 장군 장자입니다.] 군사 군(軍)자고. 이런데 고 뒷산 그거는 허하이(허옇게) 돌이 이래 이리 보이지. 그거는 무학(舞鶴)이라 이래.

학이 춤추는 형체다 이래가지고 그거로 무학산이라고 이라지요. [제보자: 그래, 소주도 무학소주가 마산서 제조하는 겁니더. 물 좋은 마산에 무학소주라고 이래쌓는데.] 거게가 옛날 마산이 창원군(昌原郡)이 되어 있었는데, 창원부사가 거게 도임만 하믄 삼일만에 반다시 아낙을 잊어버린다 이래 됐어. 그래 아낙이 누구냐 카믄 그 창원에 도임한 그 관장의 마누래가 되는 거지요. 그 존칭말이 아낵이라 이래키 하는 모양입니다. 예짝에 이른 말이 그래 자고나믄 뭐 자꾸 아낵이 없어지고, 아낵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마누라 잊어삐리고 누가 거게 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소.

그러이께 지원자를 뽑았겠지요. 그 창원 군수로 말이지, 지원하는 분으로 그 택지(擇指) 하겠다고 이래서 그 최고운 아바니가 창원군수로 말하자믄 오기로 지원을 해가지고 왔든지, 이래 왔던 모양인데, 그래 오니까, 아낵이 지혜가 높아가지고 명지(명주) 꾸리로 자기가 징기고(지니고) 약속을 했더라 이거지요.

반다시 이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지만, 죽으면 죽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체(死體)가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이께, 뭣이 유인을 해가는지 모른다. 그러이께 우리가 말이지 소위 죽건 살건 말이지 알아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둘이서 증표를 가졌더라 이거지. 그래가진 것이 뭐 무슨 행(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행을 피워서 행내가 만약 나거들랑 내가 찾아온 줄 알아라 카고 말이지. 서로 이렇기 아마 언약을 맺었던 모양이지요.

이랬는데 우째된 판인지 삼일 저녁을 떡 지내고 나이까, 그만 아낵이 없어졌다 이거지. 그래 없어지고 나서 아직(아침)에 날이 밝아 보이까네, 방에서 그 명지 실꾸리가 말하자믄 풀리가 하나 있더라 이거지 [청중: 옳지.] 그래 그 실 자체(자취)를 밟아서 가이께 섬을 건니 갔다. 물로 건너서로 섬을 들어갔더라 이거지.

그래 그걸 종적으로 알고 찾아 들어가이까, 이런 바우(바위) 틈을 들어 가뿌맀어요. 그러인께 밖에서 자기 약속한 그 행을 가져 가서러 피아니까 행내가 그 바우 새로 들어가니까, 아낙은 말이지 자기 남편이 찾아 왔다는 걸 그 속에서 알았는데, 큰 도야지가 말이지 업고 왔다 이거지요, 금돋치(金猪). 그래가 마누래를 떡 업어다가 놓고 항시 이 잡아 달라고 하고 물팍(무릎)을 비고 누워서 자고, 밤으로 뭐로 하러 가는지 나가고 이라인께 그 뭐 사램이 나올 수도 없는 기고. 그 뭐 잽히가지고 이래갖고 있었겠지요. 그라이 마누래가 물었지.

"그 당신은 말이지. 이렇기 밤으로 댕기고 이라하믄 무서운 기 없느냐?"
이라인께,
"내야 무서운 기 없다. 내 뭐 무서운 기 있을거고."
"그래도 우찌 무서운 기 없을까 부냐?"
고 간곡해서 물으니까,
"내가 가장 무서운 거는 녹피(鹿皮) 가죽이, 제일 녹피가 무섭다."
"그 녹피가 왜 무섭소?"
이라이,
"녹피를 갖다가 지 코 우에다가 딱 붙이노믄 지는 죽어 버린다."
고. 이래 캐,
"그러냐고. 인간은 아무 뭣이가 없다."
고 이래서요. 얘기로 마치고 나이까네 이 잡아 준다고 머리로 자꾸 직이고, 이 직이듯키(죽이듯이) 이래쌓고 이래가 이놈이 시원해서 그마 잼(잠)이 솔 들더래요. 그라믄 밖에는 주인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그러인께 자기가 가마이 세알리 본께 옛날 부인들이나 남자들이 대략 농쐣대 그게다가 끈으로 사심(사슴) 가죽을 많이 해요. 그게 보드랍고 얍삭하이 좋습니다. 녹피라 카는기. 지금 고양이 까직(가죽)이가 똑 옛날에 녹피가죽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녹피가죽을 자기가 그걸을 줌치(주머니)에 차고 있었다 이거지. 주무이 끈타리에. 그걸로 끌러 가지고 춤(침)을 문치서(묻히어서) 돼야지 코 우에다가 딱 붙이논께 그냥 든 잠에 솔 죽어뿌리더래요. [청중: 아하.] 그래 자기가 일어나서 그실로 가지고서 내가 요게(여기) 살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신호를 해서 그래 나와서 그 이후에는 최고운이 나가지고, 최고운 선생이 일곱 살에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국 사기(史記)에도 온양 오리고, 그래가지고 그 시물 여덟 살 때에 고국을 돌아 오며서 그 북두칠성을 보고서 그 각(角), 항(亢), 저(低), 방(房), 심(心), 미(尾), 기(箕), 두(斗), 여(女), 이(危), 실(室), 배(壁), 그거로 그 이십팔수라 이르지요. 자기 연연히(연령이) 시물 여덟이 되노이 그 이십팔수 법을 지(지어) 냈다 이렇기 돼가 있습니다.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95~499쪽.

[송정동 설화 18]

산세(山稅)를 받는 관장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수류산이라는 산이 있지 안해요? 수류산이 그게 내나 물 수(水)자 그거, 흐를 류(流)자 그 삼수 변에 말이지, 그 뫼 산인데 그게 그라인께 영조 땐가 그 가물어가지고 막 똑 금년같이 이런 한근(旱饉)에 말이지 그머 사병(사변)이 나고 이랬는데, 그때 그 어데 군수 그게 아마 야담에도 났을 기구만. 그 산이가 그러인께 충청도 본래 안 있었고, 그게 어느 강원도, 충청도 어데 있든 산이가.

강원도 지금 앉아 있던가. 수류산이 이랬는데, 그 모두 죽느니 사느니 영원히 죽는다꼬 모두 이래쌓는 차에 동쪽에서 구름이 듬벙듬벙하고 남북으로 구름이 연해지더니 악수로(억수로) 각중에(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오더마는 그마 산이 떡 떨어져 나가삤다 그래요.

떠러서(떨어져서) 그래 내려오다가 강원도 어데 가서러 앉았는데, 그 산을 그러인께 충청도 어데 관장이 산세 받어러 만날(매번) 내리 와가지고 역부로(일부로) 찾아 간도(가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러인께 이조 말엽 지대(시대)에 와가지고 서러 열 닷(열 다섯) 살인가 열 여섯 살인가 묵는 관장이 그곳을 내리 와가지고서 가만 보이까 산은 저거 군에 가 있는데, 우짠(어쩐) 일로 말이지 딴 군에 와서로 산세를 받아 가이께 우째 된 연유 인고 물으이께,

"산이 게서(거기서) 따(떠) 왔다."

이라인께, 에이 그거 금년부터는 산세 주지 말라고 말이야 억지로 섰는 기라. 그러이까 관장이 내려왔는 기라. 군수가 쪼매는(조그마한) 이기 말이지. 지가 군수라고 해가지고서 산세를 안 준다. 여태까지 유래적으로 받아 내려오는데 그런 도리가 있을까봐, 이 놈을 내가 갈 밲에 없다고 그래 직접 내려 왔는 기라.

"아, 영감님 말이지, 우째 산을 말이 말이지 산세로 영갬(영감)이 받아가요."

"아, 우리 산이이까 산세 받을 꺼는 물론 아이냐?"

"아, 이 양반 오늘부터, 금년부터는 산세 못 주이까 산 가 가시오. [청중: 산을 가 가믄 맞다(웃음).] 수류산 떠와서 농사도 못 짓고 그 산 때민에(때문에) 말이지 큰 패단이 많으이까 [청중: 맞다.] 산세로 줄 수가 없이께(없으이까) 여태까지 산세 준 거 다 우리에게 돌려주고 [청중: 옳지.] 산은 영감이 가 가소."

그라이까, [청중: 가 가소 하믄 맞다.] 산을 우째끼나 우짜겠노.

"그라면 혀빠(협상) 합시다."

그래서 그 산이 그때부터서 산세를 안 냈다 이카대요.

그래 그 산 이름을 수류산이라. [청중: 예, 참 재미있는 이얘깁니더.]

그 산이 떠온 산이다.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03~504쪽.

[송정동 설화 19]

해몽을 잘 해 과거를 합격한 이야기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방근마을

뭐 얘기도 아닌 얘기지마는, 옛날에 어느 참 날과같이 없는 할머니가 한 분 자식이라고 하나 두고 사는 것이가 그 재미로 사는데, 걔(그 아이) 이름이 뭐 길동인가 뭐 똥돌인가 마 이랬든 갑디요. 지금이나 예적이나 뭐 계급을 따주는(따지는) 시대는 아이지마는, 대략 아이들 이름 들어보믄 그 집안에 그 뭣이로 대략 짐작이 안 갑니까?

이런데 그래도 뭐 그 뭣이가 있는 집안에는 아무래도 자식들이고, 손자들이고 다 이름을 지도 뭔가 글자 한 자라도 뭣이가 없지마는 대략 뭐 니내 없이 집에 조상 때부터서 흙이나 파 묵고 이런 사람들 보믄 똥돌이도 있고, 딸쫄이도 있고, 문돌이도 있고 대략 이렇십니다. 그러이까 [청중: 중간 사람들 이름인 모양이라.] 여러 가지 이런 기 있는데에, 왜 그리 짓느냐 이렇게 물어 보믄 명 지라고(길라고) 그랬다. 어느 사람은 양반의 자식은 명이 짤라서(짧아서) 그런 이름을 [청중: 개똥이, 말똥이.] 안 붙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아마 넘우 집에 품팔이나 하고 어마니가 혼자서 자식 하나로 이래 기루고(키우고) 대인께 [청중: 저의 마을에는 그런 이름이 많읍니더.] 이름을 이럭저럭 그래서 주우서 그마 붙치났던 모양이지. 그러나 그 놈이 그 참 머리가 신기하게도 영리했든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어느 참 정승 집안에서러 그 머시라(머슴) 하고 있으면서 그랬든 갑데요. 그 머 넘(남) 글 읽는데 넘어다 보고 어깨 넘어서 글자나 배우고 이럭저럭 이란(이런) 것이 언캉(워낙) 영리하고 보이까, 말하자믄 글이 능숙해졌던 모양이지.

그러나 그 노모(*老母*)는 어떠냐 이럴 것 같으면 자기 친정은 아주 좋은 집안에 나가지고 참 행사 집안에서 커 났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자기들 오라버니가 뭐 다 벼슬께나 하고 글자나 읽으이까니 그 귀동냥도 해고(하고) 자기도 직접 일이고(읽고) 옛날 다 그런 대가 집안에서 딸들이 글로 가리키이까네 글로 많이 읽었던 갑십디다. [청중: 예.]

이럭저럭 이래서 그마 농부로 만내가지고 사자(살자) 하니까, 자기가 글에는 심(힘)을 쓰지 않고 글로 아이 이것만 보고 이래 살다가 일찍이 남편이 떠나고 그 혼부로 되가지고 세상을 보내면서, 이것을 낙을 삼아서 이래가 품팔이 품팔이로 그날 그날에 그 하루 생활을 해 나오는데, 아이,

"서울에서 만날 텐다?"

이러인께, 그 자식이,

"그 어머니 내도 과거 한 번 갈랍니더."

이랬든 모양이지.

“가봐라. 사내가 났다가 게 그런데도 한 번 가봐야 된다.”

그래 요새 겉으면(같으면) 대학실험(시험) 보러 가는 택이지. 그래 시험을 시험을 보러 가다가 어데 쯤 갔느냐 카믄 몇 날 며칠로 댕기서로 아무 날 시험을 보러 가다가 어데 쯤 갔느냐 카믄 몇 날 며칠로 댕기서로 아무 날 시험이다 이라믄 그날 죽자 사자 앞에 올라 가가지고, 그 여 대량(대강) 하동에서는 마 한달 전에 올라 가는갑데. [청중: 예, 맞습니다. 그래 안 하면 제 날에 못 올라 간다.]

이래서로 양자간 며칠로 말을 타고 갈 수가 없고, 걸어서 걸어서 이래 올라가다가 아마 서울 한강다리 건너기 전 그때엔 능파(무덤)가 많았더란 갔십디다.

지금 제가 국립묘지가 되가 있을텐가 아마 그럴끼구마는, 영등포에서 그 쪼깨 가믄 그 어데라쿠노 고만치 가가지고, 그 저녁에 해가 져서로 그머 어느 주막집 호젖(호젓한)한데도 못 들어가고 자야 되겠는데 돈도 없고 이란께, 조그만 어디 혼자 있는 늙은이 집이 하나 있는 기라. 오막살이가 그 집에 찾아 가서러,

“아, 할머니 오늘 저녁 말이지 좀 쉬 가자.”

고. 이러이까니, 그 본께 똑 촌에 사는 모양이고 아주 행색이 초췌하고 이래 노믄 그 얼굴이 좀 예쁘더라 이기지. 쟁(정)이 가더라 이거야. 이래서 좋다고 그러믄 오늘 저녁 그라믄 내하고 여어(여기) 쉬어 가라고.

“네가 과개(과거) 가나?”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쉬 가라.”

이래서 그 늙은이가 밥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밥을 얻어 묵고 그래가 있었든 가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니까 이상하게도 제가 꿈에 그 똑 그어겉은 데로 말이야. 그머 어데로 지내가께네 능파가 아주 올밀한데 하도 좋더라는 기지. 꿈에도 보인께 그 곳을 떡 가이께 이런 암석이 높아가 있어. 그래 그 암석을 하도 꿈에도 기쁘서로 말이지 떡 그 촉수 우로 올라가가지고 사방을 둘러 볼라고 부리(일부러) 이라인까이 그 밑에 이런 옹당새매(옹달샘)가 하나 있어. 새매를 말이지 내려다 보다 고마 풍덩 빠졌다. [청중: 웃음.] 샘에 청룡 황룡이 썩 나오더니, 제 몸을 칭칭 감아 올리는 기라.

“아이고 엄마 날 살려라.”고 고함을 [청중: 그래 참 좋은 꿈이다.] 지리고(지르고) 하다가 고만(그만) 눈을 번뜩 뜨이께 꿈이라.

참 꿈이 이상 시립다 하고, 그래 그때부터는 잠을 못 자고 공공 그리다가 날이 밝아서 서울로 또 다시 밥을 얻어 묵고(먹고) 올라 가는대, 가믄 한강을 건너기 전에 게가 그 법도 온천 있고 하는 그로 머시(무엇이라)라고 한다. 그기 이름도 잊어 뿌맀네. 고게 가이까네 과연 그 능파가 말이지, 꼭 꿈에 보던 능파 같고 말이지, 아 그 암석도 보이는데 끝이 보이는데 제가 올라 가던데 같거든. 그래서 꿈에 보던 저리 말이지, 좋은 아름단(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내가 그리해서 수이(쉽게)놔 두고 갈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가볼 밖에 없다고 올라갔는 기라. 올라 가 보이께 과연 그런 바우 같고 말이지 능파도 꼭 그와 같애. 그 그게 떡 올라가서 보이께 앉을 자리가 아주 잘 되가 있어.

그래 떡 앉아서 사방을 살펴 보이까네, 하천이 말이지 쭉 앞으로 쭉 흐리고(흐르고) 있는데, 그래 사방을 구경을 하고 있으이께, 또 풍월도 하나 나오겠지. [청중: 예.] 시(詩)도 한 마디 읊어보고 지꺼정 말이지. 이래가 올라고 떡 이라이꺼네 어떤 처녀가 그 능파 속에서러 노파 하나하고 말이지 둘이서로(둘이서) 떡 빨래통을 이고 나오거든. 아니 똑 사람도 말이지. 참 별루천지요 비인간이라고 별류천지는 있으나마 인간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데서 아름다운 처녀하고 말이지 그 노파가 빨래통을 가지고 오께, 아 여기도 사램(사람)이 사는 갑다 싶어서 않으겠으요. [청중: 옳지.] 아, 그래서러 가만히 다시 앉아서 바라본께, 아, 그 처녀가 말이지 얼른 빨래를 해가지고, 그 노파를 떡 이서(이고) 앞에 가라고 손질(손짓)로 해 놓고는, 아, 저어 있는 거 암석 밑으로 오더라 카는 기지. 오더마는, 아, 무슨 암호로 주는데 말이지 청을 영 알아 무울 수가 없는 기라. 허, 어찌 암호로 주나 이라하믄 제 품 안에서 거울로 하나 떡 내더니 빛으로 이리저리키 그 거울면으로 한 번 이리 비추고 다시는 뒤로 이리 제치 갖고 한 번 뵈 주더니 도로 주우 여어삐리고, 손을 떡 왼 손을 떡 내더니 세 개로 아리 착 꼽더니만 다시 패(펴) 버리고 그만 또 마더마는 돌아서 가는 기라. 저기 날로 만내자고 하는 긴가, 죽일라고 하는 긴가 말이지 [청중: 만나자는 기 사실인데.] 해석을 못하겠는 기라. 반다시 저게 무슨 암호는 틀림이 없는데 [청중: 옳지.] 이래서 세알리(생각하여) 보이께 알아낼 수가 있으야제. 아, 이런 내 저것도 모르니 말이야 가서 무슨 과개(과거) 하겠노 이라고 도로 내려 갈 밲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내려왔어요. [청중: 여, 가거라.] 허, 다 안 갔나.

게(거게) 갔으면 이런데 그 한강만 건너믄 용산이고, 용산 건니믄(건느면) 그 머 머시라 해서 [청중: 맞습니다.] 그기 남대문 통해서 들어 갈낀데, 그래가지고 그마 도루(다시) 돌아내리 온 기라. 저거 집에 와가지고는 똑 꼬라지가 말이지 이불 탁 덮어씨고 밥 안 묵고 들어 누었다.

어마니가 저 하나밲에 없는(밖에) 없는 무시마(머슴아) 저기 과개 간다고 가다가 되돌아 오더니, 과개에는 물론 할 끼라고 바라지 안 했지마는 오더니만 밥도 안 묵고 마 팍 들어 누우이께 저게 뭐 노덕이나 만내서 우째 될 것 아이가 싶어서 걱정이 대단해가지고 [청중: 옳지.] 크기(크게) 마, 걱정했든 가배. 그래 그랬든 가배요. 그래 어마니가 물었는 기라.

"내가 오늘날까지 말이지 청춘을 늙히고 있는 것이 니 하나보고 내가 사는데 네가 이라니 말이지 내가 누구를 앞에 믿고서 살겠느냐?"

그러이께,

"네 무슨 소원이 있는고 네 소원대로 얘길 해 봐라. 어데가 아프거든 아프다고 하고 얘길 해 봐라."

하니까,

"어무이 나 아무 다른 소원이 없는데, 이상한 말이지 그 머 머시라(무엇이라) 하나 보고나서 우짠지 그마 몸이 좋지 못하고 구미(口味)도 없다."

이러이께,

“그래 얘길 해 봐라.”

그래서 인자 자꾸 강요도 하고, 이 대답을 안 하는 기라.

“그래, 머 글로 봤느냐, 뭣을 했느냐?”

이래 물어쌓지, 어마니가,

“나도 그 마 젊어서 그래 참 보통 가문에서 글자나 읽었더마는 너거(네) 아부지로 농부로 만낸 때민에(때문에) 내 신세도 이렇고 내 신세도 이래 됐으니 그 안에 말이지 안타깝지 않느냐?”

그러이께,

“그래, 네 뭐 꿈을 꿨거든 꿈을 얘기로 하고. 그 나가(내가) 해석을 해주꾸마.”

그런께아, 저놈이 그때 그 얘기를 하던가배. 하니까 어머니가 해석을 했는데,

“해중출견 전후시.”

하이 그 해중은 말하자면 품을 해자 가운데 중(中)자 아니요? 그 품 속에 품었던 거울로 내(내어)가지고 출견 내서 보는데 전후시이라, [청중: 앞뒤로 볼 수 있다.] 아, 앞뒤를 살피니까 [청중: 살핀다.] 살필 시(視)자 아니요? 이자 전후시하니, 그 앞뒤로 살피니까니, 이게 말이지 말하자믄 앞으로 보는데는 보름이요, 십오요, 후에는 그뭄이라, 삼십이라. [청중: 옳지.] 그러이 그렇고 또 손가락을 내서 세 번은 이러키 세 개를 접힜대인께 삼지구신은 제상가라. 손가락 세 개가 꾸진 거는 그 세째 집이다 이 말이지. [청중: 옳지, 셋째집.] 그러이 그 오라 카는 뜻인께 그 틀림없이 말이지 내일 밥 묵고 다시 올라 가거라. 그 어마니가 시키서 그 말로 들어인께 그마 금시 구미가 돌아오고 기색이 나도라 이기지요.

그러키 어마니의 해독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 밥을 묵고, 그 질로 바리(바로) 올라 가가지고 떼죽떼죽 보이께, 과연 말이지 왼짝집 그 말이지 쪼그마한 그 큰 집이 하나 있고, 이런데 쪼그만한 그 옆에 말이지 오막살이집이 하나 있어. 그래 그 오막살이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마,

“할머니.”

카고 말이지 가서 언성을 지기고(낮추고) 그 인자 뭐,

“쉬 가자.”

고 말이지 했던가배. 그러이께 그 할머니가 몬 이깄는데 그 아이로 손자라고 이렇기 하고 참 밥을 해주고 이래가 있으이께, 아, 밥을 묵고 나더리 그 집을 차근차근 묻네. 아, 그래,

“그 집 서울에 그 아무 대감 그 살림집인데, 그 집에서 내일 아침 자고 나믄 시관(試官)이다. 시관인데 이번에 과거 뵈는(보는) 사람 전부 그 양반 손에 다 달맀다.”

커는 기라. [청중: 옳지, 상시관인가, 하시관인가 알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집에 그 이러한 딸이 있느냐?”

께(하니까) 있다 이거지. 그라믄서,

“내가 그 처녀 유모다.”

이기라.

“하이고 그러냐.”꼬.

“그래 그라믄 그 집 뭣이로 들어가는 문 좀 갤쳐(가르쳐) 줄라고.”

아, 이놈이 개는데(조르는데)

“그거는 뭐 도저히 몬 들어 간다. 문지기도 있을뿐더러 입초병이 있고, 말하저먼 말이지 그 후원에 가면 옥당을 지(지어) 놓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수샘이지 하는 그 구중 그 거긴데 니가 그 우찌 들어 갈께냐고, 들어가다 잡히면 니는 마 목숨이 없어진다.”

고. 이라이께,

“살든가 죽어도 좋으니까 개리쳐만 달라.”

꼬. [청중: 얼마나 불쌍한가.] 아, 저 늙은이가 가만 세알리(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이지 인정이 가는 기라. 저거로 우째 치매(치마) 밑이라도 여어가지고 가서 우찌 해 줄 수 없나 이랬는데 인정이 생기가지고 그마 몬(못) 이기서로,

“그라믄 뒤에 하는 일에 마 니 죽든지 살든지 나에게 원망하지 말고, 니 그집 문전까지는 내가 안내해 주꾸마.”

이래가지고는 자기 치매 밑에다가, 그래 그 늙은이가 우밤중에라도 들어가믄 문지기가 누구냐 카면 말이지 나다 카먼 [청중: 옳지.] 그지 그만인 기라. 그래 문에 들어가믄, 그 어데 어데 해서 들어가믄 살짝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늙은이밲에(밖에) 모르는 기라.

그래 그 질(길)로 갤쳐 줘(가리쳐 줘) 그래 들어 가가지고 그 처녀를 만내 서로 글귀를 얻어가지고 그래 그 벼슬로 했다는 기 있어요.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05~512쪽.

[송정동 설화 20]

백운 선생의 힘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저 충무에 지금 가믄, 도천리 게가 삼굽니다. 게가 백운암이라는 그저 서재에 옛날에 그게 백운암이라 이래도 그기 서잽니다, 절이 아니고. 그 지금도 사당이 돼 있지요. 이런데 대수풀이 꽉대가 둘러 짜가 있는데, 그 안에 가믄 물이 굉장히 찹습니다. 얼음은 저만치 가라 합니다. 어떠키 차운지.

이런덴데 거 백운 선생이라는 선생이 있었으요. 그때 게서(거기서) 머다 제자들이 마이(많이) 글로 배우고 이래 있었는데, 호랭이로 직접 그 선생이, 그 옛날 조선 나막신이라 카믄 굽이 두 개 있는데 높습니다. 코는 똑 머것고 이리 앵고부랑하이 요새 외국에 똑 용선같이 [청중: 나무를 파가지고 나막신이래.] 나막신 [청중: 통나무를 파가지고.] 그 나막신을 신고 그 범을 잡았어요. 하리 저녁 비가 오는데 말이지, 변소에 가 앉았이니께 범이 떡 내려오더마는 꼬래이, 범이 사람을 업으면 언제든지 말이지 꼬래이로(꼬리로) 사타리 먼첨(먼저) 여어가지고는, 사람을 업는다 카네, 딱 대비티리서. 그래 업고 이래 가는 판인데, 범이 오더마는 사타리에다가 꼬래이를 털컥 집어 옇더라 카데.

"애라이 요놈."

변소에서 딱 쪼그리고 앉아서 꼬래이를 딱 거머잡는 기라. 거머잡은께 저 놈이 앞을 내뛰 갈라 쿠지(하지). 요래(이렇게) 거머잡고 딱 뒤로(대변을) 보이다 보도록까지 이 놈이 힘을 써서 갈라고 이라믄, 나막신이 딛고 있는 이기가, 뒤가 달랑 들리는 기라. 이라믄 [청중: 나막신이 달랑달랑 한다.] 까딱, 이랬다가 다았다가, 또 들맀다가 다았다가, 그 뒤 다 보도록 나(나이) 맣은 영감이 뭐 심(힘)이 있나, 그라이께 [청중: 뒤로 다 보아야지 되지.] 뒤 다 보고는 한 손 딱 거머지고서, 때기를 쳐서 지깄는 기라(죽였는 것이라). 때길 치면 죽을 거 아이가 [청중: 그렇지.] 그래 딱 지깄다. [청중: 꼬래이 잡고.] 그래놓고 들어와서 아들로 자는 놈을 불러 가지고 글 읽어라 했다. 옛날에 머 요새 겉으믄 새로 두 시 이 정도 되믄 영감은 밤낮 주야로 선생이라 쿠는 양반은 잠을 잔께로 자고 짚은믄(싶으면) 자고 이라인께 잼(잡)이 있는지 없는지. 다 용하게도 늦두룩(늦도록) 글 읽으라 쿠고, 우리 그래 안 했십니까? 새북 되믄 말이지 일찍이 일어나서 글 읽으라 마큰, 말이지 글 소리가 말 소리가 안 나믄,

"야, 이놈들아, 안 일어나나."

카며, 제불하믄, 급히 일으나면서 어어어, 이라고 일어나거든요. 이라든 판인데 그 일나믄 잼이 얼마나 오요? [청중: 옳지.] 그란께 잼이 오면 모도(모두) 오줌 누러 간다고 자꾸 들랑날랑 들랑 날랑 이라는데, 그래 한 놈이 신들궂인(싱겁은) 넘이(놈이) 떡 가가지고 뒤로 보고 떡 보이께 범이 한 마리 누어 있거든. 가보이(가 보니) 죽었는 기라. 아따 이놈이, 내가 호랭이 한 마리 잡았다고 지꺼정 말이지 좋아서 둘러메고 나가서 마당에다가 툭 갖다 부둑 때리거든. 부둑 때린께 선생이 그때 말이지,

"니 이놈 게 가마(가만히) 나도라(나두어라)."

이랬는데, 아 아들이 깜짝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깜짝 놀래가 나와보이께, 범을 한 마리 턱 눕히놨는기라, 마당에다가. 그래 날이 밝아지이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장역(장년 청년) 한 십 여명 하고, 한 이십 명 덧고(데리고) 오너라."

이 십 명을 덧고 오래 캤다 카더마는. 카고 큰 줄로 구해 오너라. 그 때에 토영에는 무슨 배가 있었느냐 이라믄 이 군량미 싣고 가는 배가 많이 있어요. [청중: 군량미 싣고 올라가는.] 예, 토영. 그 지방에서러 전부 걷운 그 뭐시로 서울로 인천으로 해서 싣고 가는 그 배가 있기 때문에 [청중: 우리나라 서울 겉은데 그리 많이 싣고 가요.] 예, 짚줄이 보통 닻줄이라 카먼

이만큼 이랬십니더. [청중: 맞읍니다.] 그 새끼로 까(꼬아)가지고 이리 비벼서 줄로 삼갑(세겹)으로 입혀 놓으면 이만썩 해요. 그 줄로(줄을) 가져 왔는 기지. 장정 이십 명을 처음 불러 가지고서는 자기가 딱 끄트머리 이래 거머쥐고, 나막신 신고 딱 마당에 앉아서 그 줄로 땡기 보라(당겨보라) 캤는 기라.

"댕기보이께 끄덕도 안 하더라."

카는 기라. 그래서,

"하나 더 붙어 땡기 봐라. 하나 더 붙어 땡기 봐라."

시물(스물) 다섯이서 소리 조(주어)갖고,

"여기 여차."

카면서 잡아 땡기리면, 꼭 호랭이 한 마리 꼬래이 거머쥐고 있는데 잡아 땡기리듯키(듯이) 뒤 나막신이 달랑 이래 들킸다가(들리었다가)

"딸가닥."

카고, 그 심(힘)

"억."

카는 내는 그 심 바짝 들어 올 때에 뒤 나막신이 사뿐 들맀다가, 그 심가뿌리면 도리(도로) 주저앉고 이라더라 카는 기라. [청중: 스물 너이 심을 가지고.] 그 백운 선생은 수환(순전히) 그기 차력심(借力心)이다 이렇기 얘기하데요.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16~519쪽.

[송정동 설화 21]

도솔암 전설

구 술 자: 정준탁(남, 66)
구술 날짜: 1982년 7월 27일
구술 장소: 송정동 방근마을

도솔암이라 하는 절이 하나 조그마한 기 있으요. [청중: 도솔암.] 도소, 도소, 도소 [청중: 그 직영암이 도(道)는 어느 돈데요.] 충무시라 카던가 [청중: 충무시, 통영.] 예. 그런데 그 산 이름은 용화산이라고 이리 부리는 데 [청중: 용화산.] 그 지금 미륵산이라고 하지요. 그라고 그 절도 미륵사라 이라고 큰 절, 큰 절은 이라는데(이렇게 말하는데) 고 쪼그마한 그어는(그것은) 그 때 암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절로 늘카서러 큽니다. 쪼금 고 도솔암 올라가기 전에 관음사라 하는 절이 있고, 그 앞에는 가면 감나무가 쭉 서가 있는데, 감나무 큽지요(크

지요). 키가 어엽시 올라가가 그 있고 이렇십니더. 이렇는데 그 가장 역사가 제일 깊은 절이지요. [청중: 용화사라 하는 절이 제일 그 깊은 절이 아인긴교?] 아이지요. 그래 용화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계종들이 내려 와서러 빼앗아 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같이 절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지금 좀 퇴락합니다. 그래 부처님은 많이 모셔놓고 있지요.

[제보자와 청중 사이에 이 도솔암 전설과 관계 없는 얘기들이 오고감.]

[조사자: 도솔암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설은?]

지금 그 절으는 그 역사로 그 충무 시청에서러 가지고 있일 낍니더.

[조사자: 충무시에서요?] 예. 그래 그 절 역사가 어이 되느냐 이라믄,

"도소램(도솔암)."

이래고 하지만, '도소'라 하는 그 스님이 본대 그 서울 어느 대신의 자제 분인데 속(俗)에 뜻이 없고 입산을 수도를 많이 했던가배요. 이래가지고 그때 충무에 사람이 살기 전에 그 어른 들어왔을 때에 그 우에 올라가면 전통문이라 하는 천정이 굴이 되어 있읍니다. 옛날에 호랭이가 살고 있던 호랭이 굴인데 지금도 그 산이 짙어요. 그런데 그 거기 지부에 가면,

"너 전통문에 몇 번 가 봤느냐?"

고 묻는답니다. 시방께서 그런데 한 번 가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번 가면 세 번 본다 이렇게, 세 번 안 가면 한 번은 가본다. 두 번은 안 간다.

두 번 가면 그거는 세 번은 꼭 가야 되지 안 간다고 이라는데(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면 자기 나(나이)대로 나무아미타불하고 돌고 내려오믄 그 시방에 가가지고 그래 했다 하믄 자기의 말하자면 그 뭐 극락길로 갔다가 죄를 지도(지어도) 유죄로 무죄로 시켜준다 하는 그런 뜻이 전설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집도 없는 그 전통문이라는 그 굴에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로(하루) 말이지 범이 하나 들어 오더라 카는 기지. 그라이께네 범하고 친구가 돼 가지고 항상(恒常) 일상(日常)이라고. 그 분은 생식을 하고 이리 살았던 모양인데, 하로 어느 날 나가더니 하리(하루) 지녁(저녁) 안 들어오는 기라. 그래서 한 이틀 지내고나이께, 아, 어느 처녀를 하나 업고 왔으요. [청중: 호랭이가?] 예.

그래, 업어다가 딱 '도소'라 카는 그 스님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고만 나가버리는 기라. 이래보이께네 사람이 사람을 보고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보듬고 앉아서 사람을 주무리기도 하면서, 말하지면 자기 먹는 요식(要式)으로 생쌀로 입에다 여(넣어)가지고, 그래 주거를 물으니까 충청도 그 어느 대신의 집 딸인데 내일겉이(같이) 시집 갈 긴데, 오늘 저녁에 호지기 가삣는 기라. 거(거기에서) 그래 왔다. 이래니까네 그 도소라 카는 그 분이 도저히 이 여자한테는 뭐 생명만 구해 놓고는 참 손을 안 대고 이래가지고는 며칠로 안정을 시기 가지고, 그 거기 고향으로 뎃고(데리고) 갔어요. 충무에서 몇 날 며칠로 걸어서 이래 가면서 처녀로 [청중: 물어 보아가면서] 편지를 하나 씨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살아십니더."

카는 이런 편지를 썼것지. 그래가지고 가지고 그래가 도소라 카는 중이 집을 한 오리찜(쯤) 놔두고서 자기가 앞에 갔다는 기지요. 가 가지고 그래 얘기를 했는 기라.

"그 분의 딸님이 살아서 온다."

고. 이란께(이렇게 말하니)

"아이 저기 말이지, 요망스런 중 노미 저거(저것) 말이지, 아주 저 허망한 소리한다."

이래가지고 그 굉장하더래요. 지금도 그 뭐 그렇지마는 그 옛날 그 뭐 제일 양반 많은 데가 충청도라 하지 안 해요? [청중: 충청도가 제일 많지.]

그렇기 기절로 하던갑데요. 그런 인간이 그 편지를 내놓으인께 편지를 받아본 인간이 자기 딸님의 글씨는 확실한데 [청중: 그렇지.] 살아 온다는 것은, 이건 뭐 호지기(虎食) 간 거는 당연하이께, 그래서 믿어지지 안 한다 그리하자 그 처녀가 발길로 자주 띴던가(떼었던가) 사랑 앞에 쑥 드갔는 기라. 이러고 보이까네 그 곡성(哭聲)이 일희일비(一喜一悲)로써 막 낭자하고 이란(이렇게 한) 후 그 스님의 대우가 그때 참답게 적극적으로 나왔던갑데요. 그래 며칠로 거기서 대접을 받고 쉬가지고 올라 하이까니 그 그분이,

"니(네) 소원대로 말로 해라. 니 소원이?"

이라니,

"나는 베실(벼슬)도 일업고(쓸데없고) 가장 내 소원이 없읍니다."

"그래도 무슨 소원이 있지 않을까? 그 니가 말이지 내 사우(사위)가 되고 싶다면 그대로 맺어 줄 기고 할 기까니, 베실로 하고 짚다 카면 내 당장 베실로 해주꼬마."

하이까네,

"그런 물욕에는 아무런 나는 뜻이 없는 사람인께 그 토영이라고 그 때 지방군(地方郡)인데, 하는 그 곧에(곳에) 집이 한 채 필요합니다. 그기 소원입니다."

이래. 그 분이 재산을 내라서 그 도솔앰이라 하는 절로 짓어요. 그랬는데 거게 가보면 산이 이렇게 촉박한 데다가 요렇게 터를 딲아가지고 이리 쌓아 올렸는데 지축을 해 올렸는데, 석축을 해 올렸지요. 그 보면 이 중간에 이런 돌이 하나 쑥 나와 있어요. 지금 이끼가 돋아가지고 뭐인지 분간 잘 못하게 지금 있는 기 모리겠습니다. [청중: 그, 그 이쓴 데 이끼가 돋았어?] 그렇지요. 수 십 년 수 백 년이 얼추 가깝아지 않았읍니까?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자시자시 보면(자세히 보면) 돼야지(돼지) 대갈빼기(대가리) 나발대(주둥이)가 쭉 나와 있어요. 아주 마 산돼지야 마 나발대 모양으로 쭉 나와 있읍니다. 그럼 그기 어이 그러냐 이라믄, 그 큰절이라 카는 거는 산이 그 미륵산이라 카는 산이 촉박하게 돼 있는데, 요게(여기에) 저 수지가 있어요.

고 밑에, 요 산골 밑에 요게 용화사라 하는 그 지금 절이 있고, 도솔암이라 카는 거는 관음사는 요만치 있고, 도솔암은 요짝 편으로 올라 가서러 있어요. 그런데 게(그것이) 거(거기에) 있는데 고거는(그것은) 꽁(꿩)이 알을 품고 똑 앉았는 것 같고, 생긴 기 고 큰 절 미륵산이라고 거 뭐 봄 되면 모두 쌍안경 가지고 구경하러 올라가고 하는 고 산에는, 똑 진(辰) 님(놈)이 입을 벌리고 꽁알 주워 무로(먹으로) 오는 그 형국(形局)이랍니다.

그러이까니 그 뱀이를 막기 위한 거는 돼지밲이 없다 이기지. [청중: 아, 맞아.] 그러이께 돼지 머리를 딱 돌로 깎아서 그리 박아 놨어요. [청중: 맞아.] 그러이께네 그 모르는 분은 저

담 쌈서러(쌓으면서) 저 돌이 불거졌는가 이래 싶우고, 이렇지마는 알고 가 보면 그런 기 있어요.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519~523쪽.

[송정동 설화 22]

세 아들과 풍수

구 술 자: 황정성(남, 71)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옛날에 내 수무살 묵을 때 우리 할배한테 듣고 오늘날까지 기억하고 아이들한테 배와주고 있는 기라.

백제 때 일이라, 할배가 늙으서 내우간에 살림을 살다가 딸을 못 놓고 한 탯줄에 아들을 셋을 두었어.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셋을 놓았어. 그래 아들이 수무 살이 되면 그럭저럭 아들이 장개를 가면 할배는 나이가 칠십 살이 되거든. 옛날에는 칠십이 되면 고래장이고 다 죽는거지. 그래 죽기 전에 살림을 많이 벌어서 부유했던 모양이지. 그래 만일에 내가 죽고 나면 아들 서이서 싸우고 할긴데, 내가 죽기 전에 묘자리를 정해놓고 몸이 아파 누웠는데, 하루는 큰 아들을 불러서 카지.

"큰 아들 야야, 내가 오래 못 살겠는데, 내가 죽으면 산소를 어데 쓸 것인지 캘차 주꾸마. 여기서 한 십리 되는데, 내 친구가 풍수인데 내 말 잘 듣는다. 친구 집에 가가주고 내 명함을 말하고 아픈데 오라 카면 온다."

이래 카이, 큰 아들이 풍수 집에 갔다. 한 고개를 넘어가이 친구 집이 있어.

"어르신네, 우리 아부지 아파서 천상 미안하지만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 가자."

지녁도 안 묵고 친구가 따라온다 말이지. 그래 친구가 왔거든.

"친구야, 내가 죽고 나면 이 치부장부로 챙겼는데, 내가 죽고나거들랑 내 안사람 하나 잡아서 부탁을 해서, 내가 죽거들랑 돈은 내가 살림이 있는데, 내가 누울 안장을 하나 잡아 달라."

카고 나이, 친구가 가뿠다. 그래 한사날 있으이 죽어뿠다. 그래 저그 아들이 묘를 씰라고 풍수를 부르니 풍수가 왔다. 와서 아들 셋을 데리고 갔다. 옛날에는 연대봉(煙臺峰) 같은 높은 자리에 묘를 많이 쓰거든. 높은 자리에 가보이 참 높은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라. 그래 한

산 몬데이 가보니 부친을 안장시키면 참 좋은 자리라. 그래 여기에 묘를 쓰면 자손도 잘 되고 좋은 자리라. 풍수 말이,

"너그 부친의 묘를 여기 쓰라."

카이, 큰 아(兒)하고 작은 아하고 삼 형제가 따라갔는데, 보이께네, 높은 산에 다리를 지겠거든. 그리고 여름이고 그래서

"아이구 어르신, 자리가 말씀은 좋건만 우리 아부지가 하도 높우고 씨부리대어(씨부렁거리대어) 삼동(三冬)에 설한풍에 치운데 씰 모양이 없으이 가자."

카네, 그런데 막내이 아들은, 셋째 아들은,

"우리 아부지가 이만큼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쓰자."

카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안 된다 하이꺼네, 땅을 팔라고 괭이하고 삽하고 가져갔던 모양이지. 그 자리가 하도 좋아서 풍수가 곡괭이로 딱 쫏으이께네 큰 학이 푸르르 날아갔다.

그만 상주 둘이가 탄복을 하거든.

"아이고 어르신, 우리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더 봐달라."

고 비인께네, 두 놈이 괘씸하지마는 봐주겠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인제 한 군데는 잃어뿠다.

"좌우간 너그 아배는 나 아이믄 산소 들어갈 데가 없다. 없으이까네 내려가자."

그래 곡괭이를 내버리고 두 번째 자리를 찾아 내려오이께, 너덜겅 돌 사이에 물이 내려가거든.

"야들아, 저 너덜겅에 물이 퐁퐁 솟구치는 저게 묘를 쓰라."

우(위)보다 물이 내려오고, 너덜겅 그가 명당인데, 물이 물이 아이고 우보다 더 나뿌거든. 또 괄시를 한다. 막내 아들은 말이지,

"형님요, 이 어른이 우째던 우리 아부지 한 가진데, 우리가 볼 때는 아부지 유언하고 이랬으니 여기 씁시다."

"어이 안 된다."

그래 동생은 꼼짝 못하네, 큰 세이하고 작은 세이가 풍수 보고 나무라 대네. 풍수가 졌다. 하도 원통해서 물 건너가서 물 솟는 데를 곡괭이로 파니 고게는 금비들기가 푸르르 날아나가. 아들 서이가 봤는데, 막내이 아들이 가만이 보고 있다, 형이 그러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두 세이가 '됐다' 카며 고함을 치고 내려가네.

막내이 아들이 거기서 비네.

"어르신, 우리 아부지보담도 날로 봐서 내가 열 칠팔 살 먹는데, 우리 아부지가 우리를 이래 키아놓을 때는 얼매나 고생해것습니까? 날로 봐서 꼭 두 군데 쓸라 캤더마는 형님 그래서 말로 안 했는데, 날로 봐서 아까 명당이 세 군데 있다 카는데, 우리 아부지 안장(安葬)을 내가 우째 씨아도(말해도) 내가 우리 아부지 안장을 할 모양인께네 한 번 좀 잡아 주이소."

이라거든. 내라도 내가 풍수같으면 막내이 아들을 보니 오죽 하겠나. 그래 풍수 말이 저그 아부지 친구 말이,

"자네가 정 그렇나, 그러면 인제 산이 없다."

저그 세이들은 풍수 안 볼라고 내려가뿠다. 내려가뿌고 이 아가,

"그래 명당 한 곳이 어뎁니까?"

카이까네, 그래 풍수가 볼 때는 아가 앞으로 커가주고 발전성이 있고 저그 아배에 효자 노릇을 하겠거든. 그래 풍수가 볼 때는 큰놈, 작은놈 결국 저거는 사람이 아이다. 그래 풍수 말이,

"내가 말로 내가주고 그걸 못하면, 너그 아부지 묘를 아무 데나 써가 안 되고, 니가 삼형제 중에 부모한테 맺힌 소리를 해라."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풍수가 뭐라 카노 하면,

"인제 내려가라. 산도 없고, 그래 내려가서 너그 세이 앞에 가서 너그 어른 시신이 있거든 두(頭)를 베라. 그리고 부자 집이 돼놓이까네 단수(籠) 안에 명지를 떠난(떠 놓은) 것이 많이 있을 기다. 명지를 확 꺼내가주고 바람 들기 전에 싸가주고 왼쪽 어깨에 매고 나오면 두가 자꾸 어데로 간다. 가다가 큰 연못이 나타난다. 그래 연못이 있거든 연못 복판에, 너그 아부지를 거게 써야지 자리가 명당이고, 그 안 가면 갈 데가 없다. 아까 말대로 한 군데 두 군데, 저 우에를 씨면 하늘에 옥황상제가 될기고, 두 번째를 씨면 아주 큰 절에 부처가 될기고, 요게는 용왕님이 될 기다. 내가 산수에 풍수가 됐다가 너그 아배 친구가 되어 친구를 좋은 데 보낼라고 그렇게 한 것이니, 너그가 씰라거든 씨고 말라거든 말고 너그 마음대로 하라. 나는 인자 갈란다."

"예, 어르신 그래 쓸랍니다."

"그래 쓰고 니가 잘 되거든 찾아온나."

그래 저그 아부지 친구인 풍수가 가면서 말하고, 막내이 아들은 집으로 온께네 두 형이 방안에 앉아 있는 기라. 그래 오일장을 치르는데, 저도 걱정이라. 어째 가지고 저그 아부지 머리를 베노? 걱정을 하고 있는 오일장날 아침에 운상을 할 긴데 여름이라 모두 지쳐 나흗날 밤에 다들 자는 기라. 그래 막내이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 정지에 가서 칼을 가주고 와서 청(시신이 안치 된 방)에 자는 저그 세이를 뛰어 넘어가서 대번에 부친의 목을 끊었다. 끊어가주고 명지에 싸서 왼 어깨에 메고 뛰어 나왔다. 각중에 길이 환하게 비치니 수십리를 갔어. 그래 둘러 메고 가는데 앞에 무엇이 툭 걸려서 앞에 보이 굴이라. 갈 데가 없어. 그래 굴에 올라간께 밑에 큰 대못(大淵)이라. 대못에 비껴서가 안 있나. '아이고 여기구나! 여기구나' 카고 물가에 내려갔다. 내려간께 대번에 물이 딱 갈라져가 있어. 그 길로 따라 가이 복판에 물은 없고 하얀 모래가 있어 '옳지 여기구나'하고 오른 손으로 모래를 파고 아부지 머리를 왼쪽 어깨에서 내려 묻었다. 안 묻으면 용왕이 안 되거든. 그 풍수가 한 말이 맞다 말이지.그래 풍수가 말한 대로 나올 때 물이 딱 갈라져 나왔다. 그래 저그 집에 가면 형들에게 맞아 죽을기고 해서 정처없이 간다. 저그 세이는 날이 새서 일어나 곡(哭)을 하고 시체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가 흥건하게 있고, 동생도 없고 두(頭)도 없는 기라. 종적을 찾아보이 어데

있나. 동생은 피해버렸는데.

그래 동생은 저그 세이를 안 볼라고 이틀을 가니 배가 고파서 산에 풀 뿌리를 캐어 먹고 열매를 따 먹고 이레(이렛날)로 가니 다리가 아파서 더 갈 수가 없어 해는 저물었지, 그래 산속에서 누우(누워)자네. 잠을 한심 자고 나이까네 밤중쯤 됐더란다. 여름이라도 춥더란다. 그래 한 곳을 보니 불이 빤히 뵈거든, '옳다 저기에 인명이 사는구나' 촌사람들이 농사 지을라고 산골짝에 있거든. 천상 오늘 지녁에 저기 가서 밥 쫌 얻어 먹고 자고 내일은 또 날이 새면 가기로 하고 불로 찾아갔어. 찾아가이 큰 반석 우에다 등을 단 재실같은 집이 있다 말이지. 그래 주인을 찾는다.

"주인요, 주인요, 주인요."

세 번 불렀다. 세 번만에 그것도 구신(귀신)이라 아주 인물 좋은 십 팔구 세 되는 처이가,

"누구시오?"

"내가 아무데 있는데, 일주일로 산에 뭘 캐로 와가지고 댕기다가 하도 피로해서 잠이 들었더만 깨어보니, 불이 보이니, 사람 사는가 싶어서 주인을 불러보고 하룻밤 잘라고 왔는데, 내일 날이 새면 갈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룻밤을 잠깐 자게 해 주소."

첫말에 처이가 허락을 하고, 처이가 자는 방을 놨두고 바깥에 나가더만 밥을 잘 채려가주 왔더란다. 이놈이 굶었지, 산에서 열매를 따 먹었지만 얼매나 배가 고프겠노. 우째 되던 간에 밥을 주이 먹었다. 처이가 구신인데 이놈은 사람으로 알고 밥을 먹고 앉아 있다. 처이가 상을 딱 치아놓고 말로 하더란다.

"당신을 보아하니 나는 처녀이고 당신은 총각인데, 나는 모르지마는 구신인데, 나는 서울 정승의 외동딸인데, 내가 죽은 지 이렛째 나요. 지금은 사람인데, 닭이 울면 내가 혼(魂)인데, 여기가 내 초당이고, 오늘은 사람으로 화해가주고 이래 됐는데, 당신은 오늘 잘 찾아 왔습니다. 우연이 여기 와서 당신을 만날라고 나도 미혼(未婚) 전이고 당신도 보아하니 미혼 전인데, 내캉 백년해로한 셈 치고 누워자고 날이 새면 내가 없습니다. 날이 새면 이 금반지하고 내가 쓴 편지하고 방장에 넣어가지고 서울 삼대 외동딸이 있었던 정승 집을 찾아 가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매가 노심초사로 오늘의 나를 무남독녀로 삼대 외동딸을 직이고 얼매나 원통해 있을 건대 무조건하고 우리 모친 방에 가서 방장(房帳) 사라고 외라고 방장 사라고 외면 당장 우리 딸 내한테 팔았다 하고 옥에 옇을 끼요, 그리고 편지는 자기가 급할 때 내 보이면 우리 아부지가 당신을 안 직이고 내 편지의 사연을 보고 반지 보고 내 자는 별당 안에 모시 놓을 기요. 그래 하거들랑 또 부탁이 있소. 별당 안에 들어 갈 때는 식모한테는 남 모르게 밥 두 상을 해 들라라 하고 그래 있으면, 내가 구신이라도 오늘 지녁같이 해가주고 밤 열 두 시경에 사람이 돼가지고 별당에 들어갈 모양이니까 같이 누워 자고 한 달 동안 내가 댕기야만 그래 됩니다. 그래 못하겠으면 밥을 먹고 바깥을 나가시오."

그래 한 기라. 총각이 열 대여섯 살 묵어놓이 처이가 좋거든. 한 달이 아이라, 이것도 우리 아부지가 시켰구나 싶어 처이하고 딱 약속을 한 기라. 그래 금침을 펴주어 같이 눕어잤다.

새북에는 깼거든. 깨서 보이 처이는 없고 혼차 있거든. 옆에 보이 금반지하고 사연을 쓴

편지하고 주소하고 있거든. 우째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서울 정승 집에 가서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하러 서울로 올라갔다. 정승의 딸이 죽었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 정승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나. 편지를 거머쥐고 들어가인께네 정승 마누래가, 딸의 모친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온데 고함을 지르거든. 방장 사라고 외거든. 그러이 늙은이가 문을 열어보이께 우엔 수자가 와가지고 '금반지 사라' 카이 급해서,

"이리 가져 오너라."

보인께, 처이가 죽을 때 챙기놓은 금반지를 곽에 옇었는데, 그만 하인을 부르디마는 대번에 옥에 가두어 옇어놓고 있으이, 정승이 사무를 보고 집에 안 오나. 그래 이야기를 했어.

"보소, 보소, 젊은 내외간에 이만저만하고 오늘 수자가 와서 옥에 가두어놨습니다. 이놈 믿읍시다."

그래 나중에 정승이 젊은이를 잡아 물어보고, 하도 이상해 묘도 가보인께 묘도 그 있는 기라. 그래 반지만 빼갔다 말이다. 그래 젊은이를 불러내서, 정승이,

"얘 이놈, 반지는 니가 어디 있는 것을 가지고 이리 왔노?"

물으니까, 저놈이 하는 말이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고 지 얘기를 했어.) 내가 아무데 아무데 사는데 우리 형제 삼형제가 살다가 우리 아부지가 돌아가셔 풍수를 뎃고 와서 산에 가서 몬데이 안 쓰고, 너덜겅에도 아 쓰고 이래하다가 그래 우리 아부지는 산소는 풍수 어른 말을 따라 연못 복판에 쓰고 그 길로 산에 피하던 중에 하도 춥어 이틀만에 누워 자다가 날이 밝으면 강원도 나 이런데 갈라 하는 판에 불이 보이더라고, 그래 간께로 처이가 나를 밥을 해주고 안정을 해서 그래가 주고 누워자고 처이 말대로 해서 그래 자고나이 금반지를 줍디다. 그래 해주는데 편지를 떡 내놓거든. 편지를 떼보이 저그 딸 글씨라. 편지를 읽어보이께네 아부지 내 연분인데 이 수자를 직이지 말고 내 자는 별당 안에 부디 모시놓이소. 만일에 아부님이 이 사람을 직이면 그때 가서 아부지를 잡아간다 그때 가서, 편지를 봤지. 그래놓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양복을 사가온나 그래 옷을 입히고 해서 별당에 들어갔어, 그 부탁한 식모를 보고 밥 두 상을 해 줄라카고 들어가이, 별당에 들어가 앉아보이 평생에 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이 어떻겠노. 지 생각에 오늘 지녁에 약속대로 한 시에 오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 그 시간에 꼭 와 자고 세 시만 되면 가고, 그래 와가주고,

"부디 누가 알아도 우리 어무이 아부지한테 온다 카지 말고 내가 오는 줄 모를 터이까네 내가 한 달 되어야 내가 불교하고 관련돼가지고 인도환생할 것인데, 부디 엄마 아부지나 누가 와도 한 달이 된다 카도 식모 밥은 식모가 일러도 내가 배가 불러서 더 먹는다 카고 절대 나 온다 카지 말라."

카고 그래 누워자고 간다. 그런 처지인데 한 보름 되이, 밥해주는 식모가 밤에 집안에 도는데, 그래 별당 아래 근처에 도는데, 항상 가마이 생각했던가 무슨 보실랑 보실랑 소리가 듣기거든. 밥도 나눠 먹고 이래 하는데, 아무도 별당에 못 가는데, 총각이 들어가고부터는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 그래 식모가 살살 줄배를 타고 들어가이 문에 사람 그림자가 얼렁거리거

든. 그래 가마이 본께 그기 보름 전에 죽었던 아가씨가 와가지고 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 보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정승한테,

"대감님요, 따님이 와가주고, 소리가 들려서 하도 이상해서 가보이까네, 같이 갈라 먹고 거 있습디다."

이르네, 그러이 저그 어매는 얼마나 반갑겠노. 그래 처녀는 모르고 누우자고 새북에 가뿠다.

날이 새서 몸종의 말을 듣고 정승의 마느래가 줄배를 타가지고 왔는 기라. 와가주고,

"이 사람 보래, 이 사람 보래, 참말로 우리 딸이 오나?"

저놈이 처녀와 약속한 것을 효자가 돼놓이 부모가 묻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캐뿠네.

"어무이 참 내가 머이번에 들어와가주고 이래 있었지마는 밤 한 시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녁에 새벽 한 시나 되거든 딸님 볼라 카면 정신을 채리가주고 옷을 잘 입고 새벽 한 시에 오소. 새벽 한 시에 병풍 뒤에 숨어 있으면 꼭 새벽 한 시에 따님이 옵니다. 와서 밥 갈라먹고 누우자고 새벽에 닭이 울 때에 또 갑니다. 오늘 지녁에 한 시 안에 와가주고 병풍 뒤에 숨었다가 밥을 갈라먹고 나거들랑 이 처녀를 잡어라."

카거든. 처녀가 죽을 줄 모르고 함부로 갤차주면 안 되는데, 그래 다음날 지녁에 정승의 할마이가 와서 병풍 뒤에 숨어 있다. 처녀가 새벽 한 시에 오는데, 와서 문을 딱 열고 대번에 인내(사람 냄새)야 카거든. 그래 이놈이 내가 사람인데 인내가 나는 것이다 카고 이래는데 저그 어매가 딸이 말로 하이께 병풍 뒤에서 들었네. 딸이 틀림없거든. 그만 딸 얼굴 볼라고 병풍을 밀고 '우리 딸'이라 카고 나오이, 둘이 밥을 먹을라 카다가 그만 나가버리는 기라. 그 뒤로 처녀는 오지 않고 지 혼차서만 별당 안에서 밥을 먹고 그래 있는 기라. 열 하리가 된께네 처녀가 자기 곽을 들고 지붕을 뚫고 집어넣고 노려보면서,

"뭣 때문에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캤노? 내가 열 하릿만 되면 인도환생해가주고 당신하고 백년해로를 해가 살긴데, 왜 나는 아직 구신인데 그러 캤노? 그래 나가면서 날로 볼라 카거들랑 내가 지금 극락을 가는데 우리 집 앞에 큰 동구나무 앞에 가매를 타고 하인을 거느리고 극락을 가는데, 볼라거든 보고 안 볼라 카면 말아라."

그래 처녀가 자기 시체가 들어있는 곽을 파 와서 별당에 안에 던지뿌고 혼으로 화해 가뿠다. 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지도 죽어 별당에 눕어가 있다. 죽고 난 뒤에 꿈에 선몽을 하거든. 혼이 돼가 날라가는 기라, 저그 아부지한테로. 그래 별당 안에서 죽어 원통해서 꿈에 처녀가 가매를 타고 간다. 그래 총각이,

"나캉 살지요."

카이,

"당신은 죽은 혼인데, 나는 몬 사요."

거기서도 처녀가 제안하더라 카데,

"내가 또 편지를 써가지고 내 시킨 대로 갔다 오면, 선생한테 가서 배와가지고 그 편지를 봐야 참 당신하고 백년해로하고 살지 그라이면 몬 산다."

"가겠소."

그래. 처녀가 말로 하거든.

“그래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건대 갔다 돌아와야만 사는데, 가소. 가는데 세 굴이 있소. 오른쪽 굴, 가운데 굴로 가지 말고 왼쪽 굴로 가소. 그래 한참 가이 큰 오동나무가 있소. 그 오동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그곳이 극락이요. 내려올 때는 거꾸로 내려오면 그 밑에 우리 대왕이 있소. 거게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백년 살겠다 하는 인정을 하는 도장을 받아 와야 되지 그라이면 나하고 몬 사요.”

그래 젊은 사람이 갔다. 점두록 가이까네 큰 굴이 세 개가 있어. 그래 왼쪽 굴로 들어가가 주고 밑으로 떨어지면 죽을 기라. 우에서 돌다 그 바람에 죽었다 살아나가주고 뻘뻘 손을 치거든.

“야야, 이리 온나.”

보인께, 저그 아배라. 저그 아배가 부르는 기라. 저그 아부지가 백발이 돼가주고 용왕국에 왕이 돼가주고,

“야야 이리 오너라.”

“아부지 왔습니까? 지가 급해서, 아부지 어쩐 일입니까?”

“이놈 가자.”

아부지 따라 들어갈 때 삽짝 대문을 못 본 기라. 거게(그 곳에) 가니 저그매(자기 모친)도 앉아 있는 기라. 그러이 세월이 한 십년 됐던 모양이지.

“아이구 오매요”

카는데 저그 아배가 진짜 즐겁어 죽는 기라. 그래 도장을 팍 찍으면서,

“쌔기 밖에 나가라.”

다른 말은 안 하고,

“정승 처이하고 살고, 손도 띄우도록 그래 쌔기 나가라.”

삽짝에 문을 열고 나온다. 나온께 삽짝문에다가 오른짝은 저그 큰 세이고 왼짝에는 저그 작은 세이라. 오른짝에는 큰 세이를 소를 맨들어가주고 배꼽 우는 얼굴을 그대로 해놓고 대문지기로 놔놓고, 왼짝을 본께 저그 작은 세이라. 작은 세이도 큰 세이처럼 해놨어. 말도 안 하고 눈물만 뚜닥뚜닥 흘리는 것을 보고 하도 원통해서 다부 뛰어 들어가서,

“아부지요, 오매요, 와 세이를 데불다가 이래 해놨습니까?”

이라네, 그때사,

“얘 이놈 여기 앉거라. 내가 너그매와 만나서 젊어서 결혼해가주고 내가 부자가 돼가주고 딸 못 놓고 아들 서이를 안 두었나. 두었는데 내가 나이가 많으면 너희를 믿고 가는데 친구 그 어른을 뎃고 와서 묘터를 잡았는데 그 말대로 했으면 내가 옥황상제가 되어 더 좋을긴데 안 되고, 두 번째는 너덜겅에 썼으면 크게 왕이 될기고, 이놈아 너 아이면, 너가 눈물을 흘리가면서 내 두를 옇었어, 너 아이면 내가 용왕이 안 됐다. 그래서 너그 세이를 소를 만들었다.”

그래. 그라고 한 백강아지를 주면서,

"너그 세이를 보고 백강아지를 따라 안 가면, 너그 처이를 만나지 못한다. 백강아지를 따라 가면 동구나무 안에 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처이가 있디. 벌써 일년이 됐다. 쌔기 가거라."

그래 삽짝에 나오이, 저그 세이가 눈물을 빠주고,

"동생 왔나. 동생 그때에 그 아부지 친구 말대로 우리 서이서 의론했으면 될긴데,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아부지가 소로 맹글라 놨다. 다부 니가 가가주고 소를 맹글지 말고 아부지기 술로 다리를 넘가도고."

이래 카거든, 저그 세이 둘이가.

또 세 번째 들어가서,

"세이를 소를 맹글지 말고, 사람으로 맹글라 달라."

하고 강아지를 따라 낙동강을 건니거든. 거기에서 깨어놨뿐네. 그래 혼이 있거든. 굴은 없고 하리 점도록 오이께네 해가 지는데, 처이가 가매를 타고 있는 기라. 그 가매가 정승 그 집 안에 곽 그걸 빼다놨고, 지도 아까 자물신 거 깨나가주고 둘이 마주 보고 있는 판이라. 그래 그 안날(다음날)에 정승 내우분을 불러놓고, 온 천지 불러다 놔놓고 그래 잔치를 지내가주고 둘이 행복하게 아들 딸 놓고 살았다는 효자 이야기라.

[송정동 설화 23]

사암 전설

구 술 자: 황정성(남, 71)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여기 송정(松亭)에서 방근(芳根)을 지나 사암(四岩, 넷바위)마을까지 약 8리 가량 바닷가에 방우가 꽉 있었거든.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방우를 멀리서 본께 군인으로 보이거든. 그래 신호(新湖) 마을 쪽에서 총을 막 쏘아 맞추도 꺼떡 안 하거든. 그래쌓다가 사흘째 와서 보인께 방우거든. 왜놈들이 속아가주고 이 방우를 조선 군인이라 생각했다 말이지. 그 뒤 이 방우를 왜정시대 때 다 부산으로 실고 갔거든. 저그 집 지을 때 쓸라고, 참 신령스런 방운데 말이야.

[송정동 설화 24]

토끼를 집에서 기르게 된 동기

구 술 자: 황정성(남, 71)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옛날에 한 사람이 아무리 내외간에 벌어도 그때는 그 시절에는 닷새를 벌이어야 쌀 한 되를 팔(살) 수 없는 그 시절이라. 그 시절에 아무리 해봐도 반 선배라, 일도 반, 글도 반 그리 됐던 모양이지. 나이는 삼십이 다 돼가고 자슥은 나으면 그거 하제, 기가 차서 하릿 지녁에는 가만이 생각하이 하리 벌이면 하리도 못 먹고 닷새를 벌이어야 쌀 한 되를 사는 것이라 기가 차서, 지는 지가 벌어서 입 하나 덜라고 아내를 불렀어.

"내가 십년 작정하고 나가서 벌어오꾸마. 너도 벌이고 나도 벌이고 해서 아들도 믹이고 공부도 시키고 할테니, 십년 안에는 내가 벌이오꾸마."

카이, 아내 되는 사람이 '벌어오라' 카고 그날 지녁에 옷봇짐을 싸가지고 그 안날(다음날) 출발을 한다. 십년에 집에 오도록 하고, 그래 하리 가고 이틀 가고 사흘 떡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열시나 되었던 모양이지, 고개를 넘어가는데 뒤에서 무엇이 불러싸아,

"저 가는 아저씨요, 아저씨요"

그래 뒤를 돌아보이 큰 호랭이가 불러, 그때는 전부 다 호랭이도 말로 했는 기라. 그래 저는 사람인께네 말로 놓아(낮추어) 하는 기라.

"얘이 호랑아, 뭣 때문에 가는 사람을 부르노?"

저 호랭이가 아무것도 아이고 강원도 금강산 왕 호랭인데, 이것이 사람이 짐승을 잡기 위해 틀을 놓았는데 걸렸어. 그래 이 사람이 간께네,

"니 왜 나를 부르노?"

카인께네,

"어저씨요, 나를 틀만 끼라(끌러) 주면 내가 큰 금은보화를 주겠다."

고 이라거든. 그래 이 사람이 금은보화를 준다 카이 호랭이를 틀에서 끼라 줬네. 저놈의 호랭이가 털털 털고 나오디마는 금은보화는 안 주고 하는 말이가,

"내가 배가 고프이 천상 아제를 잡아 묵어야 되겠습니다."

이라네. 그러이 얼매나 안 돼겠노? 내가 몬 묵어쌓아서 십년까지 우리 마누라하고 벌어를 가는 도중에 호랭이가 불러서 틀을 끼라 주이 공도 모르고 날로 잡아 먹을라 캐.

"호랑, 호랑, 내가 못 살어서 십년을 기약하고 내가 벌이를 가고 지집(계집) 자슥을 우리 마누라에게 맽기고 가는 판인데, 내가 니를 끼라 준 것은 너는 돼지만, 나는 원통 안 하나. 너는 내 말 좀 들어라."

호랑이는 잡아 먹을라 카고.

그래 사람이 퍼떡 의견을 내가 호랭이한테 삼 세판 재판을 해 달라고 소원을 말한다.

"호랭이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자. 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소고 돼지고, 사람이고 간에 제일 처음 만나는 것한테 가자. 가서 재판을 하자. 재판은 세 번이니까 그래 하자. 니가 날 잡아 먹을라 칸께, 나는 니를 살렸는데, 금은보화는 못 줄망정 나를 잡아 먹을라 카이, 제일 첨머이 만나는 사람이나 동물한테 물어보고 내가 잡아 먹히도 좋다 하면 너한테 먹힐게. 그래 해보자."

그래 저놈이 지 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호랭가.

"그래 하자."

호랭이는 앞서 간다. 사람은 가다가 해나(혹시나) 사람이 이십 명이나 모여 있으면 호랭이를 패 직일라는 마음이 들고, 호랭이는 가면서 '이놈의 자슥 내가 호랭이다' 뭣이든지 다구치면 입을 벌리고 잡아 먹거나, 지가 어른이까네 그래 생각하고 간다. 둘이 간다. 해필 한 고개를 넘어간께네 소가 지나가기에 말로 했다.

"내가 못살아서 우리 아내하고 자슥하고 의논하고 십년을 제한하고 벌이를 가는 도중에 호랭이 이놈의 자슥이 고개에 넘어오이께네 틀에 갇쳐서 있는 거로 나에게 금은보화를 줄라 캐서 살려 주었디마는 금은보화는 안 주고 배지가 고파서 나를 잡아먹을라 카인께 내가 잡아먹히겠나."

소한테 이렇게 말하인께, 소가 말로 하기로,

"사람은 악물이라고 날로갖다가 나에게 멍에를 매가주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쟁기질도 못하는데 때려 부리먹고는 쌀도 안 주고 딩개(등겨) 생껍질만 주기 때문에 사람을 호랑이는 잡아먹어야 된다."

고 그러거든. 그 말이 옳다 말이다. 그래 소는 가뿠다. 그래 호랭이가 한 번 이겼다. 재판이니까 이제 두 번 남았다.

또 한 고개를 넘어간께네, 눈물을 속으로 흘리가면서 해나 짐승은 안 되는 기고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큰 용마가 한 마리 지나가거든. 그래 또 불렀어. 사람이,

"용마야, 그기 좀 서거라."

말이 서거든. 그래 사람이,

"내가 아무데 아무데 있는데 못살아서 십년 제안하고 아내하고 자슥하고 돈벌이를 해 믹이 살리라고 가는 도중에 호랭이 이놈의 자슥이 틀에 갇쳐서 있으면서 금은보화를 줄 터이니 틀에서 살려달라 캐서 살려 주었디마는 금은보화는 안 주고 배지가 고파서 나를 잡아 먹을라 카인께 내가 잡아먹히야 옳으냐?."

말 저놈이 또 호랭이 편을 들어. 뭐라 카노 하면,

"사람은 소맨처로 날로 점두록 타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매달아 놓이 내가 다리가 아파 누워 볼긴데 천장에 매놓고 이라이 잡아먹어도 좋다."

이라거든. 그 말도 옳다 말이다. 그래 두 번 안 졌나. 이제 죽었다 하고, 사람만 이삼십 명

만나면 호랑이는 잡기 문제가 아이거든. 또 한 고개를 넘어갔다. 기다리던 사람은 안 오고 산토끼가 있거든.

"토끼야!"

이래 부르거든. 그래 토끼가,

"뭣 때문에 나를 부르요?

"이만 저만하고 호랑이를 살려주었더니만 나를 잡아먹을라 칸다. 내가 소와 말을 만나 얘기했더니 잡아먹어라 카이 두 번 지고 이제 마지막 재판인데 내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야 되나?"

토끼가 꾀가 많아. 사람을 보이 불쌍해, 그래 토끼가 호랭이를 보고,

"호랑이 아제요, 보인께로 둘이가 내 입에 달렸는데, 금강산 호랭이가 배가 고파서 마실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째가주고 틀에 갇히게 되었는지 틀을 보고 판결을 하겠소."

이라거든.

"호랑이아제 등에 사람하고 나하고 실고 틀이 있는 데 갑시다."

그래 인자 호랑이가 사람하고 토끼하고 등에 태우고 뛰어가니 틀이 있어. 그래 토끼가 사람을 보고,

"사람 아제요, 틀을 전처럼 놔보소."

호랭이는 우째 되는 판인지 모르거든. 토끼가,

"호랑이 아제요, 당신이 마실에 짐승을 물어가면 틀에 우째 갇힜소."

호랭이가 지편을 드는가 싶어, 호랑이가 틀을 한 번 디디 봤다. 디디다가 틀에 갇혔어. 갇아 옇놓고 그래 토끼가 사람한테 쫓아와서 사람을 보고,

"처자를 집에 놨두고 십년 벌이를 할라 카는데, 당신이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데 가서 십년 벌이를 얻어올끼요. 호랑이 저놈이 아까 금은보화를 줄라 카지요. 호랭이 저놈이 금은보화요. 갈 것 없고 저놈을 직이야 되고, 쌔기 다부 집으로 가소. 집으로 가서 당신 친구들 한 삼십 명에게 몽둥이를 가져와 호랭이를 잡으소. 호랭이를 잡아놓으면 호랭이 껍질이 구신을 쫓고 잡귀잡신을 물리치니 얼매나 벌이가 되겠소. 당신이 집에 가서 사람들을 뎃고 올 때까지 호랭이를 지키고 내가 있겠소."

아내는 남편이 벌이가 잘 되도록 기원을 하고 일을 하는데, 집 나간 지 닷새만에 남편이 해준 보따리를 짊어지고 오거든. 그래 아내가 집으로 와서 남편을 보고,

"우째 오요, 벌이 안 하고 우째 오요."

칸께네, 말도 안 하고 아들을 시키가주고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아 따라 가자."

"우데(어디를)?"

"그만 따라온나."

따라가이, 한 고개, 두 고개를 넘어가인께로 토끼가 큰 호랭이를 잡아놓고 틀에 가두어 놓고 있다. 토끼가,

"이 사람들아, 이놈 호랭이를 잡아라."

그래 호랭이를 잡아가주고 껍질을 비껴(벗기어) 가주오고, 그 토끼는 뎃고 왔다. 사람에게 은공을 했기 때문에 안고 집으로 왔다. 그래 키운 것이 집 토끼가 되었는 것이라.

[송정동 설화 25]

소금장사와 장승

구 술 자: 김순희(여, 84)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남자가 소금 장시를 갔어. 한 가마이 짊어지고 소금 장시를 저 등 너매 재 너매에 넘어가 놓인께 해가 다 져뿠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가주고 뺑뺑 돌아보이 한 사람이 허옇이 서 있거든. 그것을 사람이라고 소금을 짊어지고 찾아갔어. 찾아가이 장승이라. 허연 장승이라. 올 데 갈 데가 없어이 그따가 소금 짐을 니라놓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가 있어이 밤중 된께네,

"우리 한 번 놀아보자."

카면서 팔도 장승이 다 모다 들어, 팔도 장승이 모다 들어 노는기 뭐라 카노 하인께 팔캉 다리캉 쑥쑥 내밀어 찧고 '해롱 대롱' 카면서 막 찧고 이라거든. 그래나놓인께 이 사람이 가마이 앉았다가 신이 나서 장승과 같이 띠었어. 지캉 같이 띠인까네, 그래 서더마는,

"지금 사람들이 참 시건(식견)이 짧아. 저 산밑에 저게 밭에 가면 저그 아배나 저그 어매나 죽으면 거기에 뫼를 씨면 사흘만에 삼천 석이 날긴데 그걸 모른다."

카거든.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장승들이 저꺼정 이바구를 하는 기라.이 사람은 장승이 아이라 논께네, 장승 이거는 구신(귀신)이거든. 따라 놀다가 가뿌고 이 판인데, '에이 이놈우 내일 아직에 날이 새면, 소금을 이대로 두고 밭을 가봐야 되겠다.' 싶어 날이 새자 산을 올라 가서 저 밭을 보이 한 서너 마지기 되는 밭이 산 밑에 있는데,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하나 터를 봤다고 표를 해두고 집으로 갔다. 간께 저그매가 병이 들어 죽을 판이라. 아들을 소금 장시로 보내고 기다리다가 병이 들어 그러구로 저그매가 사흘만에 죽어뿠어. 그 저그매를 죽은 것을 짊어지고 그 먼 데까지 왔어. 그 산에 그 와가주고 안장을 해놓고 갔는데, 우짜노 카면 그 동네 삼천 석 하는 과부가 하나 있어.

과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우째 봤던지 마 장개를 안 가고 불씬 거지같은 사람을 불러가주고 목간을 시기고 좋은 옷을 다 주고 전부 다 이래가주고 사흘 내우간에 삼천 석이 됐어. 그래가 부자가 되더란다.

[송정동 설화 26]

머슴이 부자 된 이야기

구 술 자: 김순희(여, 84)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옛날에 산 지래(地理) 보러 댕기는 풍수같은 사람이 서이를 데불고 홍두깨보따리를 짊어지고 산 지래를 보고 올라가는데, 해가 다 져가이 그 지래 보는 그 사람이 산줄기를 타고 올라간다. 여게 같으면 보개산(寶盖山) 쪽일 건데 산 지래를 볼고(밟고) 올라가인께네 홍두깨보따리 짊어진 서이가 올라가면서,

"참 요새 사람들이 시견이 없어, 우리가 배가 고프고 시장한데 우리를 요기를 시켜주면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긴데."

카면서 올라가거든.

한 사람이 남글(나무를) 하다가 가마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 듣고, 전해 들은 대로 신발하고 전부 상을 쭉 갖차가주고 놔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자시고 나를 뭐 은혜를 할란가 싶어서 지가 한해 농사 지은 것(삯)을 받았어. 받아가주고 전부 장 다 보고 신발 사고 시낱 기다란 담뱃대를 사고 이래가주고 '아무날 아무시에 우리가 이 고개를 넘어갈 긴데' 카는 그때 듣고, 그날 지녁에는 거기에 와서 상을 채리놓고 딱 그 사람이 한 옆에 가서 굴복을 하고 옷을 갈아 입고 업디리가 있으인께, 시(세) 사람이 휫바람을 불고 올라가더니,

"시장코 배고프디마는 요기 꺼리가 있다."

카고는 서이가 앉아서 먹고 가면서 그카더라 카데.

"아무데 부잣집에 청춘과부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갚기로 그 사람을 장개를 가도록 해주자."

이러쿤게, 한 사램이 담뱃대를 물고 일어나서 담배를 풋고 거따(거기에다) 놓고 가면서 카더라네.

"이 사람이 열흘 안에 장개를 가가주고 삼천 석 넘기할 운이 있으인께네 우리가 도와주고 가자."

그래 사람 서이가 그래 주고 간께네, 그 사람이가 그 집에서 넘우 집을 살았거든, 과부집에서러. 청춘과부가 머슴을 뎃고 사는데, 우연히 과부가 마음이 변해가주고 그 총각을 목간을 시기고 뭐 철철이 입는 이복(衣服)을 다 주고, 그래가 부부가 됐어. 그 청춘과부에 남편이 되이 삼천 석을 했어. 그 사람이 그래가 부자가 되더란다.

[송정동 설화 27]

아비 묘를 잘 써 정승 사위된 이야기

구 술 자: 박기훈(남, 65)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송전동 본동마을

아주 심심산골에서 장 내우간에 살다보인까네 아들 하나 놓고 그만 마느라가 죽었다 말이야. 그래 인자 부자간에 사는 판이라. 원래 사람이 귀하다 보인께 그 골짝을 떠나면, 그 고장을 떠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기라. 죽어도 그 고장에 사는 기라.

그러차 세월이 흘러서 저그 아부지가 병에 떡 들었다 말이야. 그래가주고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야야 니 마음대로 굴러도고."

"예."

이래가주고 한 며칠 지내자 그만 병이 짙어지고 그래, 저그 아부지가. 작고(作故)했다.

가마이 아들이 생각해보이 '자기 혼자서, 지 단신(單身)으로서 처리 방법이 그 생각나는 것뿐이라. 그 아부지를 덕석에 뚤뚤 말아가주고 그래가 새끼로 묶아가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어데로 가느냐 하면 저그 아부지 산소를 정할지 모르는데, 해필사 비가 장대로 와 도저히 그 이상 지고 못가 숨이 가빠서, 그래 지게를 내리놓고 받쳤다. 받치이까 지게를 똑바로 받쳐야 될 것인데, 한 다리를 기울게 받쳐놓이 송장이 지게에서 널쪄(떨어져)가주고 지 마음대로 두굴두굴 내려가. 비는 장대로 오는데, 저그 아부지 묻을라고 삽을 가져왔겠지. 그래 송장이 나무에 턱 걸려, 인제 저그 아부지 짊어지고 올라갈 힘도 없고 그래서,

"아부지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부지 안치(安置) 장소 같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땅을 파서 묻고, 자기 혼자 돌아와 산다 말이지. 사는데, 하루 지녁에 처이가 말이야 소복을 입고 보따리를 싸고 나타났다 말이야. 그래 남녀간에 같이 며칠간 지내이 자연히 서로 정이 들고 해 살기 됐다 말이야.

결국 알고 보이까 그 처이가 누구냐? 옛날에 아주 양반에 정승의 딸이라. 장승의 딸인데, 우째 소문이 잘못 나가주고 자기 아부지 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기라. 나쁜 짓을 하면 후디끼(쫓겨) 나간다 카데. 그래 정승이 딸을 쫓아내뿐 기라. 그래 쫓기나와가주고 산골에 와가주고 인간을 구하니까 총각 하나 사는데 만나게 됐다 말이야.

그래 둘이서 애기도 놓고 사는데, 한 십년간 지나인까네, 우째 찾았던지. 물론 딸을 잃어뿌고 쫓가내어서인께 정승되는 사람은 그 딸을 찾을라고 애 썼을거 아이가. 넘 부끄러운 것도 오래 시간이 지나이서까네 없어져뿌렸고 딸은 찾아야 되어 찾으니, 딸이 그 산골짝에 산다 말이야.

그래 사우하고 전부 데리다가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자리에 앉차놓인께 사

우감도 되고 딸도 다 찾았다 카는데, 저그 아부지 묻은 자리가 명당이라.

풍수가 산을 찾다 찾다 보이, 고게(그곳에) 쓰면 아주 명산인데, 요거로 지가 죽으면 저그 아들한테 유언을 할라고 표를 딱 해놨거든, 고게다가. 표를 해놨는데, 한 몇 년 있다가 가보이 뫼가 들어서 있다 말이다. 그러이께 결국은 또 한 몇 년을 지낸께 아무게 정승의 사우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명당에 묘를 쓰고 참 출세했지.

[송정동 설화 28]

지성 감천의 효성

구 술 자: 박기훈(남, 65)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옛날에 한 산골에 모자가 사는데, 저그 엄마가 병이들었어. 희한한 병인데, 지는 지대로 아무리 약을 구해도 자기 엄마 병 고칠 방도가 없거든 재주가 없다. 하루는 한 삼십 리 밖에 이원(의원)이 자기 아버지하고 친밀하고 가깝다 캐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어무이 병세가 이러다보이 인제 어르신한테 약을 지와가지고 믹이보이 묵을 때뿐이고 자꾸 이래 심해지인께 우째야 되겠습니까?"

물으이까네,

"글세, 딱 한가지 약이 있는데 이 사람아 자네 힘으로 할 수 없지."

"어르신 사실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으면 내 어무이를 살릴라고 애를 쓸 텍이 있겠습니까? 약을 갈차만 주이소."

"이 사람아 솔직히 바른 말인데, 니가 엄마를 살리라 카면 사람 간을 한 사람 간을 묵어야 되겠는데 그 간을 니가 우째 구하며 우째 믹이겠노? 그라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간을 구할라 카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째 그걸 이야기 하겠노? 안 되네."

이래 이야기를 한다. 그래 젊은 총각이 가마이 생각해보인께 저그매를 살리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찰 일이라. 그말 듣고 어째하던 사람을 죽이더라도 저그매를 살리야 되겠다 말이야.

총각이 사는 마을 뒤에 고개가 있는데, 사람이 드물게 댕기거든. 그 고개를 뛰어 넘어 오면 자기 집인데, 그래 칼로 갈아가주고 사람만 하나 넘어오면, 밤중이고 하이 조질라고 기다리고 있으이께네, 밤중쯤 되이까네 사람이 하나 지나오거든. 그때 기회다 싶어 그만 사람의 목을 칼로 쑤시었다. 그래 간을 꺼내고 시체를 갖다가 자기 엄마 때문에 남을 죽였으니 근처에 묻어놓고, 간을 가지고 와서 저그 엄마에게,

"이사가 소 간이 좋다 캐서 소 간을 가져왔으니 다 묵어야 된다 합디다."

카고, 간을 쌍글라 주이께네 자기도 살라고 자식이 성의껏 해주니까, 주는 대로 간을 얼추 다 묵어뿠다. 먹고나이 금방 거짓말처럼 병이 낫아뿌는 기라.

병이 낫고나이 이놈이 가마이 자식놈이 생각해보이 어무이 병은 낫았는데, 사람 하나 직인기 참 너무 원통하거든.

그래서 간 낸, 묻은 그 자리에 가서 평상 절이나 해주고 떼를 입히서 년년이 거 가서 절을 하는데, 삼년째 가이께 그 무덤 우에서 이상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거든. 그것 이상하다 싶어 그 이파리를 가져와 말리가주고 저거매한테 심심할 때 이상한 이파리라고 피우라 칸 것이 담배라.

그리고 결국 알고 보이, 산신령이 개를 보냈어. 사람 간하고 개 간하고 같거든. 의원이 사람 간을 믹이라 캤는데, 개로 사람을 만들어 보냈는 기라. 그 사람의 정성에 감동해가주고 그렇게 한 기라.

[송정동 설화 29]

어씨 전설

구 술 자: 최차선(남, 72)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송정동 본동마을

그게 그렇지. 용마 탄 사람은 고 밑에 자슥(魚敬德의 아들)이고, 고 우에 사람(어경덕의 부친)이 중국 대사로 갔을 적에 풍랑이 나가지고 거서 죽었어. 죽었는데, 아들이 해변가에서 3년을 지냈어. 그래서 3년만에 시체가 돌아와. 와가지고 묻은 장소가 지사리(智士里)라. 지사리인데, 그 아들(곧 어경덕의 아들)이 죽어서 묘를 쓴 데가 압곡(鴨谷)이라 하는 그 뒷산인데, 거 묻었는데, 묻을 때 곽을 열두 개를 묻으라 캤는데 열한 개밖에 안 묻었어. 묻는 사람이 잘못해서 열한 개 밖에는 안 묻었는데, 중국서 풍수가 조선에 와가 지세를 보니, 전부 어씨 판이라. 어씨가 팔도, 예전에는 팔도인데, 팔도에다 벼실을 전부 다하고 있어. 그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어씨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중국에서 지리에 밝은 풍수들을 조선에 내보냈어. 그래서 우에서 전부 인자 훑어 내리오니께, 여 경상도에 오니, 그 묘가 있어. 그래서 묘를 찾아가지고 판 기라. 처음엔 하나 둘 이래 파 내려 가는데, 열 개꺼정 파고 나머지기는 안 돼서, 그래 창을 가지고 찍어 보인께네 열한 개째에 드러나서 그래가지고 열한 개 딱 팠는데, 열한 개 묻은 시체에서 용마를 탈라꼬 인자 한쪽 다리를 올리는데, 딱 올렸으면 날라 나갔을낀데, 못 나가고 거기서 사그라져뿐 기라. 열 두낱 묻으라 캤을 찍에는 열 두 개 묻었

으면 열 한 개 파고 열 두 개 팔라 칼 때에 날라 나갔을 낀데, 열 한 개밖에 안 묻어서 거기서 사그라져뿐 기라. 그런데 장사할 때 열 두 개 묻으라꼬 했는데 열 한 개밖에 안 묻으니께네 그래 거서 사그라졌다 카는 기라.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52쪽.

10) 지사동 설화

[지사동 설화 1]

게혈(蟹穴) 명당 발복담

구 술 자: 김남선(여, 56)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도 자기 집이 못살고 이렇는데, 그래 아버지가 병이 났는 기라. 병이 나가지고 이래 나놓이끼네, 그래 동생을 시키가지고 형님이,

"저 약국에 가서러 약을 지어가 오라."

고 동생을 보냈는 기라. 그래 보냈는데, 동생이 약국에 떠억 찾아가니까 저으게 약국도 뭐 좀 사람이 형편없이 이렇거든. 몸이 좀 안좋고 이래서러 그래 도로 떠억 왔거든. 그래,

"왜 그냥 왔느냐?"

고 이라이끼네,

"약국도 건강 안 하더라."

카는 기라. 그래 나놓이끼네 그래 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싰다. 돌아가싰는데, 또 동생을 시키서 명당자리를 보기 위해서 풍수를 다리러 보냈더만, 동생이 갔다가 그냥 오거든.

"왜 그냥 왔느냐."

고 그라이끼네,

"풍수도 못 살대요."

이라거든. 풍수 자기가 저에게 묘자를 잘봐가 자기 부모 묘를 잘 썼으면 잘 살낀데 풍수도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못 산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이래노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싰거든. 참 돌아가싰는데 동생이 자기 아버지 시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복지복대로 누우라 카면서 아버지 시체를 굴러내라뿌리이

끼네, 뚜구루 굴러가다가 이래 바로 눕지를 안 하고 가로지기로 이래 턱 누워뿠는데, 그 자리를 파고 묻었더마는 그래 부자가 됐는데, 거기가 게설이라 카는 그 설이라 카네.

게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설이 돼서, 그래 부자로 잘 살더라 카는 그런 이야기도 있대.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8~539쪽.

[지사동 설화 2]

시부(媤父)의 유언을 지킨 백정 며느리

구 술 자: 박차순(여, 88)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옛날에 한 양반이 살림이 부자던갑더라. 사람은 양반이지 살림은 부잔데, 자슥은 하나뿐인기라. 자슥은 하나뿐인데, 아들이 하나뿐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이 보이끼네 상판이 거지상이라. 아들이 영감 생전에는 개안캤는데(괜찮겠는데) 그래 죽고나면 아무 캐도 거지상이거든. 이러이끼네, 그래,

"내가 에라 이게 아이다. 백정놈이거나 뭐시거나 복진 처이만 내 며느리 삼으면, 하나 삼으면 설마더라 살림을 지니고 안 살겠나?"

이래 싶어서, 그래 하루는 가마이 생각하이끼네, 그런 궁리가 나가지고, 생각하고 벼루다가 그래 어느 동문밖에 근처 어데 갔거든. 가이끼네 들복판에 샘이가 있는데, 해거름이 이래 되이꺼네. 전 신부네 짜리 처이가 모두 물로 이고 드가고 해쌓거든. 그래 나오는데 보이끼네, 처이가 나오는데 보이끼네, 참 복진 처이라. 그래서러 저놈의 처이가 물로 이고 어데로 가는고 보자 싶어서 둑위에 앉아서, 담배로 풋고 앉아서 가마 보이끼네, 백정놈의 집으로 드가는기라, 백정놈 집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백정놈이고 뭐시고 내가 찾아갈 밖에 없다고 그래캐가 낮에 갔다. 그래 가이끼네 이 백정놈이가,

"아이고 작은님 오십니까?"

캐쌓면서러 인사를 하고 이라거든. 그래 막 사랑에 들어가자 해쌓고 막 융 이래샀거든. 이래쌓이끼네,

"근데 자네가 그래 자네만 알고 내만 알고 그 우리가 서로 나도 그래 내가 보이끼네, 그 자네 집에 여슥아가 있는데 내캉 사돈하면 어떻켔노?"

카이,

"작은님 지를 쥑이주면 곱게 쥑이주지 그래 그런 말씀 해가 되겄습니까?"

그라카거든.

"이 사람아, 내 좋다면 좋지. 뭐 내 좋다 카면 좋은 거 아이가?"

속으로사 좋겠지. 그래가지고 며늘하자고, 우리 서로 의논하고 사돈하자 카고 며늘을 봤는기라. 그래 데리다 놨는데 이 자슥놈이가 도저히 안 볼라 카는 기라. 백정놈 가시나 데리다 놨다고 만날 욕을 하고, 가라 카고 싸우고 두드리 팰라 카고 이라거든. 그래쌓이끼네 도저히 못 살겠는 기라.

그런데 근근이 이래 사는데, 시아비가 하도 그래쌓서 사는데, 만날 자슥이 행사가 그라인끼네, 이 시아바시라 카는 사람이,

"며늘아이, 내 시주 너그 해라이. 우짜든지 내 시주 너그 해라이."

유언을 하고 죽었거든. 죽을 적에 우운거. 웬걸 죽고 나이끼네 칼로 가 찔러 죽일라 카고 백정놈의 가시나. 멍찔 가시나. 니가 내한테 당하나 카고 가라고 쫓을라꼬 쥑일라고 지랄을 해쌓서 할 수 없어서,

하루는 지 목숨 살라고 내빼뿠는 기라. 내빼가 저 어는 산중에 가이끼네 쪼깬한 집이 하나 있더라 카네. 그래 있는데 드가이끼네, 그래 할마이가, 나 많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

"하이고, 이 젊은 새댁이가, 이래 좋은 새댁이가 어데서 이래 왔는교?"

카이끼네, 나는 이리저리 그래 왔다고 이래 카는 기라. 그래 있는데, 그 젊은 사람도, 사람도 귀하다가 그 산중에서는 이 할마이가 좋다고 해쌓는 기라. 그래가지고 할마이 저녁을 묵는데, 그 해가지고 묵고 거 자게가 됐는 기라. 그래 자게 됐는데, 그래 어두컴컴 저녁을 묵고 방에 앉아 있으이끼네, 할마시하고 앉아있으이끼네,

그래 그라이끼네, 남자가 숯을 굽던 모양이지, 아들이. 그 숯쟁이가 시커머이 해가지고 숯을 한 짐 짊어지고 왔는 기라. 그래 짊어지고 왔는데, 그래,

"야야, 그 숯 내라놓고 그래 거서 씻고 정지에 앉아 저녁 무라이. 여기는 손님이 방에 왔다."

이라 카거든. 그 소리 들어서 미안는 기라. 또 이래서러 그래 저녁을 '예' 카면서 저녁을 부섴 앞에서 묵었어.

"그럼 니 거적이 펴고 하나 펴고 정지 거 자거라, 온 저녁에 니는."

이래 카이끼네, 손님이 들으라 카이끼네 각시가 들을라 카이끼네 자이(매우) 미안커든. 이래서러 그래,

"아이고 손님도 그럭저럭한 손님인데, 주인을 갖다가 우째 한 데다 재우고 방에 자가 되겠는교? 들어오소. 들어오소"

캐쌓거든. 그래 들어오라 카이끼네 괜찮다 사양하다가 드갔는 기라. 방에 드가이끼네 참 꽃같은 각시가 앉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변심이 돼뿠어. 그래가 그 담날(다음날) 아즉에 밥을 해가지고 돌라 카더라 카네. 밥을 해주이끼네 할마이가 가지 가는 기라. 가이끼네, 쳐다보이끼네 저 골짝 산골짝에서 연기가 나쌓커든. 그래 보고 그 뒷날 아즉에는 여자가 지가 가(갖

고) 가겠다 카는 기라. 지가 가 갈라 캐서 줬더마는 그래 밥을 가 가서 보이끼네, 숯을 굽어 다 내놓고 이라는데 그래, 그서,

"저녁에 올 때는 숯도 가지오지 말고 숯굽어 내놓은 돌 이거 지고 오소"

이라거든.

"숯을 가 가야 돈이 되지. 그 돌 그거 뭐 할라꼬?"

이러카이,

"마 가지 오보소. 장독돌로 해도"

이라카거든.

"그럼 가 가지."

카면서 지녁에 지고 왔는 기라.

저녁에 숯을 안 가져오고 그걸 지고 왔는데, 지고 오이끼네,

"그 숯돌 그거 내라놓지 말고 그냥 징가 놓소. 징가만 놓고 저녁을 자시소."

이카거든. 그래 저녁을 참 채리주거든. 받치 놓고 저녁을 묵고 물을 뎁히주는 기라, 목욕을 하라 카면서 뎁히주더마는. 그래,

"이거는 오늘장에는 시장에 가서 팔아가 오소. 값을 값대로만 받고 팔아가 오소."

이카거든.

"돌 그거 누가 사나?"

"가지가 보소."

점도록 해도 뉘가 말도 안 하더만, 그래 한 사람이 나오더이,

"오늘장에 좋은 물건이 났구나. 저거 얼매 돌라 카는고?"

값은 값대로 주라 카이끼네. 이전 돈으로 엽전을 한 짐 쥐아 주는 기라. 그래 가주왔어. 그래 양식을 팔고 이래가지고 살기가 살살 되는 기라. 그래 생금딩이라. 그기 지 눈에는 생금딩이라. 금덩거리라.

그리고 이쟈 장독돌도 지 눈에 생금딩이고 된장돌도 보이 그렇고, 그 놈을 갖다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는 기라. 인자 숯도 안 굽고, 그래가 산중에 사는데, 그 여자가 하루 아즉에는,

"우리가 이래 만내가지고 이만치 살림을 이루고 사는데, 우리가 마을에 사람 사는 동네에 가서 한 번 살아봅시다. 살아보구로 오늘 아즉에는 저 마을에 한 번 내려가보소. 가게가 나는가? 좋은 가게가 나는가?"

하니까,

"그라지."

카면서 남자가 내려가거든. 마을에 내려가이 박동지라 카는 사람이가 들에 나왔는 기라. 그래 인자 인사를 하인끼네,

"아이고, 어르신 나오십니꺼?"

인사를 하인끼네,

"응, 그래."

"저, 다른 게 아이고, 전답이 좀 나는가, 가게가 하나 나는가 그걸 알아보러 왔십니더."

이카이끼네,

"응, 그래. 그것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인데, 자네가 내가 알다싶이 숯을 굽어가 그 뭐 생활하고 하는데 우째 그 모아가 좋은 가게, 거대한 가게를 살라 카는고?"

카이,

"예, 마 그래, 살랍니더."

이래 카거든.

"그러믄 갈등없이 내 가게를 사가라."

이카거든.

"그래 인자 어르신 가게 사겠십니더. 얼매에 내놓았십니꺼?"

카이, 그래 얼매를 돌라 카거든. 그래 돈을 주고 부자 가게를 샀는 기라.

숯쟁이도 면하고 그걸 사가지고 그래가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이가 그 장(늘) 수색(愁色)이 있고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기라.

"자네가, 우리가 만내가지고 이래 아들 딸 낳고, 살림있고 이만치 살면 아무 원도 없을낀데 뭣땜에 그래 장 근심을 끼노?"

카이끼네, 그라이,

"잔치를 석달 열흘로 해 달라."

카는 기라, 걸인 잔치로. 그라이끼네

"걸인잔치를, 그기 어렵나."

카면서 해주는 기라. 그래 하는데 안 오는 기라. 틀림없이 거랭이는 됐는데, 그래 본 남편이 안 오디마는, 그 해거름이 다 돼가인끼네 왔는 기라. 오쟁이 짊어지고 얻어 무러 왔는 기라. 그래 얻어 무러 왔는데, 그래 그 여자가 나와서,

"삽작걸에 온 저 걸인, 저 사랑에 좀 드가라 카라."

고 이러 카거든. 그 사나가 안 드갈라 카는 기라. 지한테는 너무 흥감해가지고 안 드갈라 카거든. 그래가 좇아 나가가지고,

"당신 나를 모르겠느냐?"

그라이끼네,

"모르겠다."

카거든. 그래 드가라 이라인께네,

"아이구 마 지를 쥑이줄라거든 곱게 쥑이줄라."

이래 카거든. 안 드갈라고. 그래 참 방에다 갖다놓고 찬물로 뎁혀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입성을 해놨다 갖다 입히고, 이래가지고 그 이튿날에는 그래,

"내가 거랭이거나 뭣이거나 본 가장이 찾아 왔는데는 가야 되겠다."

카면서,

"가야 되겠고, 당신은 그래도 또 내가 가면 또 등넘이에도 등이 있으인끼네. 또 장가가면

되고. 그래 나는 천상 본 가장이 찾아 왔으인끼네 걸뱅이라도 가야 되겠다."

카면서 따라 가삤는 기라. 맨손으로 그냥 따라 갔는 기라. 그래 따라가인끼네, 참 가인끼네 수수깽이 울막집에 기어들고 기어나는데 가는 기라.

가는데 다 가가는데 돌로 또 생금딩이가 있는 기라. 한 딩이 이고 갔다. 지고 가듯 이고 갔는 기라. 수수깽이 울막집에 기어들고 기어나는데 거기 있더란다.

그래 그 이튿날에 그래,

"오늘은 아즉 자시고, 이 돌 가가서 팔아가지고, 이게 생금딩인데, 이것 갖다 팔아가지고 값을 값대로 돌라고 팔아가지고 오라."

이러카거든. 그래 남자가 그 놈 짊어지고 가인끼네, 그라이 인제 그 돌로 지고 가서 팔았다. 값은 값대로 돌라 카인끼네 돈을 갖다가 한 짐 징가주거든. 이전 엽전 백 냥만 지면 한 짐 된다 카데. 징가주는데 그래 그걸 가지 와가지고, 양식을 팔고. 뭐 그래 묵고 살고. 말간 단부랑 돌도 생금딩이라. 그래 여자가 가서 살림을 일아가 부자가 됐는 기라.

좋은 집을 짓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 한 탯줄에 아들 삼 형제를 낳아가지고 그래 그 시주를 잇아주더란다. 저 시아바지가 유언한 말로 명심하고 못 잊어가지고 거지가 좋아서 간 게 아이라. 그런 사람이 있겠나?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39~543쪽.

[지사동 설화 3]

꾀 많은 하인 이야기

구 술 자: 김남선(여, 56)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옛날에 과거를 보러가는데, 하인을 다리고 안 가는 가베. 그래, 하인을 다리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갔는데, 그래 가가주고 서울 장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기라.

"매사를 조심해라 카면서 서울 가면 코도 비(베)어 간다."

고 이런 말을 해놔논께, 그래 가가주고 자기 주인이 어데 볼 일 보러 잠깐 갔는데, 말로 팔아묵어뿐 기라. 팔아묵고 잎파리만 큰거 끊어 달라 해가주고 얼굴을 가리고 있거든. 그래,

"왜 그래가 있나?"

칸께네,

"서울 가면 코 비간다 캐서 무섭어가주고 얼굴을 개루고(가리고) 있었디마는 말은 도둑놈이

띠(떼어) 가뿠다, 가주 가뿠다."

카네. 기가 차가 이래 하는데, 또 어데 가서 묵을 거로 한 그륵 사가 오라."

캐나놓은께, 그래 사가 오면서 자꾸 손가주고 건지(건져)쌓거든. 그래,

"왜 그래노?"

카인께,

"내가 오다 코를 빠띠리가주고 코 건진다고 그란다."

카거든.

"그러면 니 묵어라."

카고, 줘뿌린 기라. 하는 짓마다 밉상만 지기고 자꾸 이래놓으께, 그래 가가주고 소치(화가나)가주고, 집에다 보내면서 등더리에다가 글로 써가주고 '이놈이 집에 돌아가거든 즉시 사형을 시기라' 카고 등에다 글로 써가주고 보냈는데, 그래 집에 보냈더마는, 그래 인자 길거리에 온께 선비가 있거든. 등에 뭐를 썼는고 물어본께, 그렇게 써놨다 카는 기라. 곤치가주고 '이 사람이 서울을 내 따라와서 참 모든 일로 심부름도 잘 했기 때문에 집에 가거들랑, 내가 오래 서울서 볼 일을 보고 갈 모양인께 우리 딸하고 결혼을 시키주라.' 이렇게 써 달라 캤는 기라. 그래 그 사람한테 무슨 좋은 일을 해줘겠지. 그래 써가 줘놓인께 집에 가서,

"마님, 내 등더리에 뭐를 써놓았는고 보라."

카면서 떡 보이주거든. 보이주인께 '딸캉 결혼시키라' 카면서 그래 써놨거든. 그래 딸캉 결혼을 시키준 기라.

그래 결혼을 시키가 사는데, 그 양반 주인이 왔거든. 왔는데, '장인어른' 카면서 인사를 하거든. 너무 어이가 없어가주고 이놈을 직이라고 그래 했는데, 왜 이래 했느냐고 야단이 났거든. 그래놓인께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됐더라고 카이. 할 수 없이 결혼은 시키놓았지. 딸은 베리놨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맽기놔 잘 살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지사동 설화 4]

방아품 파는 여인 이야기

구 술 자: 박차순(여, 88)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이전에 한 사람이가, 몬 살아서 할마이가 방아품을 들다가 싸래기 빈껍데기 나가는 거 까불라가 그래 묵고 사는 기라. 그래 묵고 사는데, 직심으로 살면 복이 오는 기라. 그래 사는데, 하리 지녁에 중이 왔더라 카는 기라. 중이,

"좀 자고 가자."

카더란다. 그래 안자,

"아이구, 대사가 이 누추한 데 자겠습니까?"

이러칸께,

"괜찮다고 자고 가겠습니다."

그래 싸래기 죽을 낋이가 놔두었거든. 그걸 주이, 묵고 자는 기라. 자는데, 누우 자는데, 자다가 기지개를 뿌듯이 치거든. 치더마는 할마씨 자는데, 다리를 턱 들어 얹더라 카데. 다리를 턱 들어 얹으인께, '아이구 점두록 다니다가 피곤하여 이런가 싶다'카면서 다리를 사알 내라 주고든. 할마이가 불심(佛心)이라 내라주고, 아직에 자고 간데 본께네 온 집안에 쌀이라.

방에도 구석구석 쌀이고, 솥에도 나가이 한 솥 담겼고 그릇마다 쌀이 담겨서 그래 방아품을 안 들로 가고, 그 할매가 낋이 묵고 사는 기라.

그래 산께, 이웃이 조금 젊은 이가 같이 댕깄던 모양이지.

"아이구 아무네는 방아품도 안 들고 요새 뭐 묵고 사는고? 요새 나오도 안 하제?"

이 할마씨가 말을 했어.

"중이 왔는데, 대사가 왔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마는, 자고 가더마는, 중을 갖다가 내가 죽을 먹다가 남은 것을 한 그릇 있는 걸 줬디마는 묵고 자고, 아직에 본께네 전부 쌀이더라."

이러카거든.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산다. 양식도 있다."

이러카인께,

"뒤에 오거든 우리 집에 보내주이소."

이러카거든. 그래,

"그카지(그렇게 말하지)."

그래 그 구해준 도사가 왔는 기라. 왔는데, 그래 이 집에서도 죽을 낋이가 묵고 한 그릇 놔두었어. 그래 그걸 묵고 자는데, 자다가 몸부림치고 쟡에 자니까 다리를 들어 얹거든. 그래 여자가 무작하지. 들어 얹으인께, '이거는 좇을 좋아라 하는구나' 카면서, 그 다리를 들어 얹었으면 다리를 들어 내리줘야 할낀데, 도로 들어 붙는 기라. 그래가주고 자고 갔는데, 구석구석이 좇이라. 천지로 좇이라, 씰어내삐리도 자꾸 있고, 솥에도 항거 댐기고 낯짝에도 이래 붙고. [웃음]

[지사동 설화 5]

명의 유이태 이야기

구 술 자: 박차순(여, 88)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그 사람이가, 그래 인자 유이태카는 사람이가 명의라고 이름이 났다고, 그래 어느 사람이가 암만 약을 써도 안 되고, 오만 약을 해도 안 되고, 아(兒)가 엉머구리 개구리만한 거로 품 안에서 내놓더란 기라. 유이태한테 내놓으면서,

"오만 약을 다 해도 그래 효과가 없고 그렇다."

이러칸께로, 그래 유이태라 카는 사람이가 장기 두는 그거, 장기판에 장기 그거 안 있나? 장기 그걸갖다가 여러 사람의 손 때 묻은 그걸 삶아 믹이면, 사람의 독이 거게 있는데, 그걸 믹이는 기 아인데, 그걸 믹이면 낫는다 카더란다. 그 장기를 삶아가주고 그 아를 믹이면 독이 다 풀리는 기라. 아(아이)한테. 그래 믹이가 낫았단다, 유이태한테.

[지사동 설화 6]

나병환자와 결혼한 여자 이야기

구 술 자: 박차순(여, 88)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이전에는 선을 안 보고 하는 때문에 장개를 가는데, 환자 친구를 갖다가 대신으로 장개를 가라 캤던 모양이지. 처이는 손을 안 대고 그래 오라 카더란다. 한 살림 태아줄라고 병신 집에서. 그래가주고 친구는 첫날 밤을 처이를 손을 안 대고 왔어.

그래 어리석은 처이가 돼놓인께, 일년이 되어서 넘의 권구(식구)라고 시집을 보냈어. 시집을 보내인께 신랑이 안 보이는 기라. 그래 가마이 있으인께 시어마씨가 이직 지녁에 밥을 싸 가지고 가는 기라. 죽림 속에다 막을 매놓고 그따다가 놓아뒀던 기지.

그래 하릿 지녁에는 시어마씨가 가는 길을 보고 살살 찾아갔는 기라. 찾아가보이 참 문디라 카데. 그래 그 여자가,

"이왕지사 우리가 결혼을 해가 산다고 맞찼지마는 자기도 병이 나아지는 것도 아이고 나도 팔자가 얼마나 나쁜지 이래 됐은께, 부모 욕 뵈지 말고 환자를 찾아와쌓인께, 그것도 할 짓

아이고, 우리가 얻어무로(얻어먹으러) 나가자."

카는 기라.

"그날 지녁부터 얻어무로 나가자."

캤어. 여자는 농 밑에 옷을 내 입고 바가치하고 등쌀(?)하고 들고 남자를 뎃고 나갔어. 그래 나가가주고 저 어느 등구나무 밑에 가서 사는데, 그래 인자 여자가 얻어다 믹이는 기라. 남자는 거기에 놓아 두고 나무 밑에 놓아 두고, 여름인께. 촌에 가면 호부래비 사는 데도 안 있나? 있으인께네, 저리 좋은 여자가 와(왜) 얻어무로 댕기쌓노? 사람도 좋고 이렇거든. 그래 거기 호부래비가 있는데 덮쳐뿠어. 졑에 여자가 지내온께네 아무 나무 밑에 병신이가 있고 밥을 얻어묵고 이라더라고, 그래 저 여자가 호부래비한테 붙잽힜어.

병신 이놈아는 여자가 안 온께로 자꾸 내다만 보고, 이튿날 사흘날 그림자도 안 뵈지. 또닥또닥 어디로 얻어무로 가뿐 기라. 그래 가뿐께, 이 여자는 그렇게 사는데도 병신 그거를 몬 잊어가주고 아를 낳아가주고, 산 속에 숨어서 낳아가주고 술을 해 땅에 묻어놓고, 그 아의 안태(安胎)까지 옇었던갑데. 그래 옇어가주고 술을 해놓고, 남자 오도록 기다린 기라. 병신 낫울라고, 남자 오도록 기다리는데, 그래 놓고 있으인까네, 이 여자도 병신이 찾아올 줄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했겠지. 그래가주고 걸인 잔치를 석달 열흘을 해달라는 기라, 이 여자가. 그래,

"그것을 해주기 어렵나?"

카이,

"해주겠다."

카는 기라. 그래 막 가는 날 문디가 왔어. 왔는 걸 갖다가 여자가 퍼떡 뛰어나와서,

"나 모르겠느냐?"

카인께네,

"모른다."

카더란다.

"마님이 나를 직이줄라면 곱기 직이돌라."

카더란다.

"사랑에 드가라."

칸께, 그런 걸 갖다가 사랑에 안 들어갈라 카는 걸로 옇고, 물을 뎁히가주고 목욕을 시켜서 옷을 한벌 주어놓고 술을 자꾸 퍼다 믹있어. 퍼다 믹이놓은께, 이기 어리가주고, 술 그걸 해가주고 자꾸 퍼다 믹이가주고 어리가주고 물이 씨이서 퉁퉁 불어가주고 있으이, 손톱 발톱 밑에서 구두리(구더기)가 나와서 버글버글하더라 카데. 그런걸 종이 쪼마이(주머니)를 해가주고 싸가주고 그래 내비리고 그래가주고 실쭉하이 물이 빠지고 그렇더란다. 그래 쪼개 치료를 시키가주고 그제서는,

"빙신이라도 내 가장이 찾아왔으이, 내가 간다."

고, 이 집에서 안 살고 나왔는 기라. 그래 나와가주고 아도 낳고 이래 했는데, 아 하나 낳아주고, 하나는 약해가주고 가장 빙고치고 이래가 오는데, 그래 내우간이 왔어. 저그 집을 찾

아 온께네, 빙을 고치고 왔으이 얼매나 좋다 하겠노. 자슥을 빙을 낫아 왔는데, 아무리 재가(再嫁)를 해서 갔지마는.

그럴 낀데 남자를 보고 '앞에 드가자' 카더라네. 대문간에 오다가, '앞에 드가자' 캐서 드간께, 오지도 안해, 내다본께 신을 벗어 둘러놓고 목 매 죽었더란다. 대문 밖에서. 여자가 신을 벗어 둘러놓은 것은 내가 죄인이 돼서 몬 들어간다는 말로, 그래 열녀비를 시았다 카데.

[지사동 설화 7]

말을 안 해 쫓겨난 며느리

구 술 자: 박차순(여, 88)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시집을 보내는데, 몽돌을 싸가주고 농 밑구영에 옇어주면서 어마씨가,

"이 돌이 말하거든 말하고 말하지 마라."

이카거든. 시집에서는 입이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이 놈의 돌을 들시보이, 또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이렇거든. 말 안 한다고 시아바씨가 데불다 주는 기라, 저그 친정으로. 말 못 한다고. 말을 할 줄 알았더니만 내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니 무슨 이유인고 그래 알라고 미느리를 데리고 가네. 간께네, 까마구가 날개를 치고 훨훨 날으거든. 이러인께네,

"검도 검은 까마구야, 툭툭 치는 저 날개는 우리 낭군 주고짚고, 톡톡 치는 저 부리는 시누이 주고 짚고……."

이라이,

"너는 와 그리 말을 안 했노?"

"시집갈 때 말을 하지 말라 캐서 말을 안 했다."

카더란다. 그래 다부 데리고 와서 아들캉 살게 했다는 말이 있지.

[지사동 설화 8]

거센 처녀가 시집가 산 이야기

구 술 자: 박차순(여, 88)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거센 처녀가 하나 있었어. 아무도 장개를 못 가는 기라. 성질이 너무 거시(거세)서. 장개를 못 간께, 이전에 넘우 집도 살고 이래 돌아댕기면서 장개도 못 간 숫총각이 하나 있었거든. 있었는데, 그 총각이,

"내가 장개가지."

이카거든.

"니가 정말 장개를 가겠나."

"내가 장개를 가겠다."

카거든. 그래서 인자 장개를 가는데, 저그 손에다가 지 똥을 누가지고 쪼깨(조금) 싸가주고 갔거든. [청자: 똥이 아이고 호박죽이라.] 그래 호박죽을 쪼깨 싸가주고 갔거든. 싸가 갔디마는, 그래 보인께 주물상을 채리서 먹는데 본께, 신랑 무울(먹을) 여가도 없고 '무라(먹어라)' 카지도 않고 지가 말카(모두)다 주어 무뿌고, '대나 한 대 묵고' 카면서 곰방대를 내디마는 담배를 푸어재치거든. 그래디마는 술이 취해가주고 훌떡 구불러 자는 기라. '이거 참 거시기는 거시구나' 싶우거든. 그래서 속곳가래이다가 잠이 들어 누우자는데, 그걸(호박죽) 사알 속곳가래이다가 옇었거든. 잠이 깨가 술이 깨가 보인께 찝찝하인까네, 진심으로 말하거든.

"오늘 지녁에 과하게 묵는다 싶우디마는 똥을 좀 쌌는갑소."

카이, 신랑이,

"오늘 지녁에는 개도 못 들룰끼고 천상 내가 치아야 되겠다. 니 똥을 내가 치아야 되겠다."

그래 참말로 호박죽을 찍어 무었는 기라.

그 이튿날 밤에는 신랑이 참말로 똥을 쌌어. 그래,

"엊지녁에는 내가 자기 똥을 무었지마는 오늘 지녁에는 내 똥을 천상 자기가 무어야 안 되겠나?"

고 이래캤거든. 그러칸께 할 수 없어서 참말로 똥을 무었어. 그래 똥을 믹이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 질로 디리가 평상을 잘 살았는 기라. 평상을 해로(偕老)해 사는데, 다 늙어가 어떨가 싶어가주고 영감이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데, 저꺼정 농담한다고 씨익 웃거든.

"와 웃소?"

이카이,

"어릴 때 우리가 한 일이 있어 웃는다"

그러칸께,

"무슨 일이고?"

이카인께, 그래 영감이 그러카거든. 그래 성이 나가 영감을 패가주고 떡이 됐는 기라. 그래 가주고 영감이 일나지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데, 이웃에 친구가 있던 모양이지. 거 와 본께네 죽기 됐거든.

"와 이렇노?"

카인께,

"그래 내가 어느 때 한 일을 얘기했더마는 할마이 저기 나를 때리서 이렇다."

카거든.

“맞아서 나는 죽겠다.”

이러카거든.

“그래! 말이라 카는 것은 삼가 해야 하는데, 그래 카는 게 아인데 그런 소리를 했노.”

할마이는 그기 흠이 잽히가주고 병이 돼가주고 큰 소리 못하고 살았는 기라.

그래, 친구가 인자 이웃에 머슴을갖다가 통해가주고 저그 집에다가 불로 때고 방을 따시게 해놓고 친구를 업어다 구완을 시기는데, 친구가 친구로 그래 시기고 있는데, 그 집 머슴을 불러가주고,

“너그 집에 서황구디[19]가 있나?”

“있다.”

카거든.

“그렇걸랑 그걸 맑히 오줌을 치고 물로 부어서 행가뿌리고, 물로 빼짝 말라놓고 거다가 삿갓을 하나 씨어 놔라.”

카거든. 그래 시긴대로 해놨거든. 시긴대로 해 놓인께,

“너그 할마이 밤으로 변소 가나?”

카인께,

“간다.”

카거든. 그래가주고 딱 그래놓고, 그 변기 안에 친구가 들앉았는 기라. 친구가 들앉아가주고 삿갓을 씨고 있으이 누가 아나.

그래 할마이가 기다란 담뱃대 물고 속곳가랭이 끄시고 오는 기라. 변소 오는 기라. 으흠으흠 카면서 변소에 앉으인께,

“얘 이년, 내가 다름이 아이라 변소 주당이다. 니 영감을 갖다가 그래 뚜드리 패서 떡을 맨들어 놓고, 늙은네가 니 영감을갖다가 데리다가 치료를 안 시기면 내가 오늘 지녁 너를 잡아가 눕힐란다. 책임지라. 니로.”

이카거든.

“아이구 주당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벌 떨고, 모리거든. 구디서 말이 울리 나오지, 그래놓인께, 영감을 업어다 놓고 불로 때고 치료를 시기는 기라. 그래 질로 디리가주고 살기는 살다가 죽었다 카더라.

19) 남자들이 쓰는 변소 옆의 시멘트 만든 오줌통 구덩이.

[지사동 설화 9]

봉사와 앉은뱅이 형제

구 술 자: 주말율(여, 80)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신명마을

옛날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 나이 사십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자식을 낳아 성장해 가지고 손자도 보고 하는데,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래 애를 터자 쌓타가, 그래 그 사람들은 보통 정승도 아닌 민간인이라. 그래 인자 내외간에 의논을 했는 기라. 우리가 나이 사십이 다 되도록 혈육이 없어가지고 이러이꺼네 우리가 어디가 산신불공을 해 갖고 자식을 낳아 달라고 우리가 불공을 하자고 할맘하고 의논을 했는 기라.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부인이 말로 했는 기라.

그래 갖고, 그날부터 목욕재계하고 깊은 산골에 드갔는 기라. 가 가가지고 석달열흘로 목욕재계하고 공을 드렸는 기라. 절도 가도 안하고 산에서 산신님한테 비는 기라. 우리가 나이 사십이 되도록까지 혈육이 없으니까 우짜든지 우리 혈육하나 태이도록 해도라꼬 빌고 자꾸 빌어싸도 효력이 없고 이란끼네, 끝에 가서는 남자가 한단 말이가 이카는 기라.

"병신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혈육 하나 태어나도록 해달라."

고 하는 기라. 그래가 공을 드리고 내려 왔는데, 아 그 날 오고나서부터는 그래 참 태산이 되는 기라. 돼가 놓으니까네 앉은뱅인 기라. 앉은뱅이 아들을 하나 낳은 기라. 아이구 이거 앉은뱅이 아들로 우리가 공을 디리가 낳는데, 앉은뱅이 아들로 하나 낳았는데 앉은뱅이 이거 하나로 갖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고 나면, 아기 우찌가 살겠노. 우리가 공을 한 번 더 드려보자 이캤는 기라. 그래 또 가서 인자 천상 그래 될라고 그랬는가 봉사라도 하나 내려 달라고 했는 기라. 봉사 아들이라도 좋으니까네 하낱이 저그 외롭고 혼자 저러이까네 그래가 참 놓으니까 하나 놓으니까 그게 봉사라. 그래 나이 많고 인자 부모님은 마 죽어 버렸다.

이것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기라. 그런데 작은 놈이 꾀가 많은 기라, 형이 우리 이래가 있다가 송두리째 우리가 죽을낀데 이 길로 나가서 마 구걸해서 먹든가 우짜든가 어디로 나가자고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전답마지기 있는 것은 말캉 친척들한테 갈라주어 버리고 봉사병신 앉은뱅이 병신이 둘이서 나섰는 기라. 형이,

"우째 갈 것고? 나는 다리가 없고, 니는 눈이 봉사고 우째 가겄노?"

하니, 그 동생이라는 봉사이게가,

"세이야 나는 다리가 있으니 세이 니를 업고, 성은 눈이 밝으니까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가 우리 나가서 방방곡곡 가서 얻어먹고 살자."

이카거든.

그래 갔다. 나가니 한 고개를 노래를 불러싸면서 두 형제간에 쪼만 것들이 인제 올라간다. 한비탈을 들어 가더니 올라 가더니 업힌 앉은뱅이 세이가,

"여기 좀 내리라. 물이 먹고 싶다."

이카니까 그래 동생이 내렸는 기라. 내라 놓고는

"물을 먹으면 산비탈에서 우리가 어째 물을 먹겠노?"

이카는 기라. 가만히 들으니까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쫄쫄 나쌓는데 그리가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래 봉사가 업고 앉은뱅이가 업히가 보고 물 쫄쫄 내려오는 데 갔는 기라. 샘이가 있는 기라. 물 묵으라고 내려놔서, 들여다 보니 생금딩이라고 보물이 샘이 위에 떡 이래 붙어 있거든. 이러꺼네,

"아이구 봐라 동생아. 여게 보물이 하나 있다. 아이구 보물이 우리를 살릴려고 있다."

하면서,

"아이구 동생 니가 이래 띠이라."

이카니까,

"세이 하소."

서로 미루는 기라. 형이 하라 하고 동생이 하라 하고 둘이 미루는 기라. 미루니까네

"아이구 그러면 내가 다리가 아무리 있지만 눈이 안 밝으면 보물이 있는지 어찌 알겠노 세이 니 목아치다."

이러카이꺼네 또 세이가,

"이거는 너 목아치다."

그래 미루다가 서로 하라쌓다가,

"세이 니도 안 하면 나도 안 할란다."

"동생 니도 안 하면 나도 안 할란다."

그마 가자. 마 보물 내버리고 물로 먹고 그래 나왔는 기라.

그래 산바틸을 두 형제간에 출레출레 올라오니까 산비탈에 업고 땀을 흘리고 어린 것들이 하나는 업히고 올라오니까, 한 군데 딱 산비탈에 오니까 막 노루 한 마리가 펄떡펄떡 뛰쳐 내려오는 기라. 내려오더니 도망을 저리 가버리거든. 그래 보고 그래 인자 올라오이, 마 총쟁이가 총을 매고 노루 잡을라고 따라 오더란다. 뛰어 따라와,

"에이 이노무 새끼들아! 이 봉사 앉은뱅이 이노무 새끼들아! 노루 한 마리 안 뛰어 가더냐?"

이카는 기라.

"아이구, 예. 아저씨. 노루는 가는 것 봤습니더. 봤는데 그 노루 가는 것 잡을라 하지 말고 보물이나 가져 가소"

이카는 기라. 이카는데,

"야, 이노무 새끼들아, 보물이 어디 있노? 이노무 새끼들아, 노루가 좌우간에 어디 갔노?"

"저리 뛰어 갔습니더."

"보물이 어디 있노?"

"저리 저 산 너머 저리 가면 그 골짜기에 들어가머 옹달샘이 물 콜콜 내려오는데 가면, 거가믄 보물이 있습니다. 마 그거나 가져가소"

이카는데,

"이노무 새끼들이 거짓말하면 내 총으로 가 쏴가 죽일끼다. 참말이가?"

카이꺼네.

"참말입니다. 우리가 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카거든.

그래 총재이가 막 펄떡펄떡해가 총을 메고 가니까 참 옹달샘이 있는 기라. 보니까 시커먼 구렁이가 앉아가지고 잡아 묵을라고 입을 딱 벌리고 달라들거든. 놀래서 총재이가 다부 뛰왔는 기라. 와가지고,

"이노무 새끼들, 마 총을 가 쏴 죽여버린다. 이노무 새끼들, 구렁이가 사람잡아 먹을라고 입을 벌리는데 너그가 보물이라 했나?"

이카며,

"이노무 자식들."

카며 막 우락부락하고,

"내가 노루를 잡을려고 했는데 노루만 놓쳤네."

캄시라 마 내빼거든. 그란꺼네 인자 동생이 이카는 기라.

"세이, 니가 잘못 봤다. 그 총쟁이가 구렁이라 하는 것을 우째 세이 니는 보물이라 했노?"

이카니까,

"아이구, 틀림없이 보니까 그기 보물이더라. 보물 덩어리더라. 그런데 내가 봤는데 내가 눈이 밝은데 비미 봤을까?"

"아이고 세이 니가 잘못 봤다."

서로 인자 이카는 기라. 그란꺼네 동생이라는 봉사가 있다가,

"그럼, 세이야. 내가 업고 가꾸마. 또 한 번 가보자."

이카는 기라.

아! 그래 인자 총쟁이가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잡아 먹을라고 하는 것을 총을 탁 쏘고 가 뿌렸는 기라. 갔는데 그래 인자,

"이노무 새끼들. 그 구렁이가 잡아먹을라고 하길래 내가 총을 쏴 버렸다."

이카고 내뺐는 기라.

"그래, 또 가보자. 세이 니가 잘못 봤다."

"내가 확실히 잘 봤다."

둘이 그러다가, 그러면 한 번 가보자 해 내려왔는 기라.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총을 탁 쏴 보물로 두나로 딱 만들어 놨는 기라. 그래 동생 하나 세이 하나 했는 기라. 동생 하나 세이 하나 해가지고 보이 보물이 둘이니까네,

"세이 니도 하나 따 옇어라, 나도 하나 따 넣을란다."

하나씩 지녔는 기라. 두나를 만들어 놨는 기라. 지 눈에 안 비나니까네 구렁이로 뵈있는 기라.

그래가 인자 보물을 턱 옇어가지고 올라온다. 둘이서 희 노래를 부르고 봉사하고 앉은뱅이가 올라오니까 산 중턱에 오니까, 스님이 바랑을 메고 가면서로,

"아이구, 상주님들! 대사님들! 시주하소. 시주하소."

이카거든.

"아이고, 이 봉사 앉은뱅이가 무슨 시주할 게 있습니까? 대사님."

그래도,

"공덕을 우리가 어디 절을 설립하여 짓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카는 기라.

"돈이 없어 못하니까 시주하이소"

이카거든. 그래 동생이라 카는 게 꾀가 많은 기라.

"세이야, 마 우리 보물 하나만 절에 주자. 절에 스님한테 불공하구로 절에 드리자."

이카거든. 그래 스님을 불러가지고,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스님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한군데 오니까 그래 이야기를 했는 기라. 그래서 포수가 노루를 잡을라고 캐서로,

"노루를 잡지 말고 보물 있으니 떼어가소."

카이, 가서 구렁이가 있어 가지고 총을 쐈다고.

"구렁이가 포수를 때려 죽일라 해쌓더니만 우리가 가니 보물이 딱 둘이 되가지고 있으니까 마 우리 하나, 스님 하나 가져가소. 절을 설립하소."

카고 내 주거든.

그래 스님이 앉은뱅이하고 봉사하고 이름 성명을 다 적었는 기라. 어디 사는 누구고 어느 고을 아들이고 손주고 마 그런 주소를 다 적고 이름 적고 해가지고 그대로 가 갔는 기라. 그 보물로 떼서 쪼께끔 팔아가지고 절을 금새 지었는 기라. 잘 지어가지고 골짝에 지어가 있는데, 인자 가만히 스님이 생각을 하니까네 그래 우리가 그 돈이 없었으면 이 새 절을 설립시키지 못했을낀데, 그 앉은뱅이 봉사가 말이지 아무게가 보물을 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불공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은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각처 다 공문을 붙였는 기라. 아무 때 아무 아무 봉사하고 앉은뱅이하고 어는 고을에 절로 설립했으니까 찾아오라고 했는 기라.

그러구로 세월이 가서 몇 년 됐지. 몇 년 됐는데 인자 이것들이 어디로 댕기면서로 구걸하듯 얻어 먹듯이 업히 댕기고, 하나는 업고 댕기고 그래 댕기는 기라. 늙으막에 세월이 가고 나 좀 들고 이랑깐에, 그래 한 고을 척 닿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옷을 차분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고을에 절로 잘 끼고 오늘 불공하고 크게 했는데 절에 간다고 짜다리 사람이 가샀커든. 봉사가 동생이,

"세이 우리도 절에 불공한다고 하니까 기원하러 가자."

이카거든. 불공 소리 듣고 기원하러 가자 이카거든. 우리 같은 걸렁뱅이가 그런데 가 봐야 더럽다고 할 끼고 안 갈라고 카니까 기어코 동생이 가자고 하는 기라.

그래 참 업히고 형이 길을 갤차고 둘이 갔는 기라. 정문 앞에 턱 닿으니까 막 상좌들이 나오더이만 봉사하고 거렁뱅이 이놈이가 앉은뱅이가 이런게 어디서 날아 왔노 하고 못 들어오라고 훗차내고 이래사. 스님이 가만히 불공을 드리니 왁짜하이 싸움을 하고 들어올라 카고 못 들어오라고 막고 이래 삿커든. 그래 가만히 불공을 하다 그치고그 스님이 내다 보고,

"너그 뭐를 그래 쌓노?"

상좌보고 이라니까,

"어떤 앉은뱅이하고 봉사하고 오가지고 여기 불공하는데 들어 올라고 해서 부정탈까 봐서 훗차냈습니다."

캐. 아 그래 언뜻 생각키는 기라.

"그런게 아니다. 봉사하고 앉은뱅이하고 모셔 들이라."

카면서로 이름 성명을 대 보니까 그 사람이라. 그 돈을 가 그 만큼 했으니까 그래 마 불공으로 짓더니 그어서 봉사가 눈이 띄이고 앉은뱅이가 다리가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잘 됐단다.[20]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62~566쪽.

[지사동 설화 10]

가난한 정승을 도와준 도둑 이야기

구 술 자: 주말율(여, 80)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신명마을

옛날에 서울에 장안 안에 어느 정승이, 정승이라고 세상에 소문은 났는데, 지금 사람은 나가서 노동 일을 해서 벌어 먹지만도, 옛날에 사람은 정승이지 계급이 높은 택이지. 그래서 부끄럽어가주고 굶어도 나가서 노동일을 못하는 기라.

그래 서울의 정승 집에 벼슬은 정승을 했으나마 묵을 기 없는 기라. 아들은 많이 낳아놓고, 그라인까네 정승의 아래 지금 같으면 사랑이지. 있다가 그래 있다가 우에 올라오본께 아들이 모두 꽉 눕어가 있는데 모두 배가 고파서 누어가 있는 것을 본께 참아 못 보겠는 기라. 그래서 인자 정승이 분을 내서 말하기로,

"우리가 이래 있다가는 자슥들 다 굶기 직일낀께 우리가 가실(가을)에 나락이 누렇는데, 그

20) '淑英郎鶯蓮娘神歌'유형의 변이담.

래 나가가주고 한 논배미 한 이삭씩 훑어가 와서 저 아들을 살리면 안 되겠나?"

이래 캤거든.

이래 카고 인자, 도독놈이 저 안에 도둑질할 참이라. 그라인께 담장이 높우고 아주 기와집이 좋거든, 그라인께네 이 집에 뭣이 있는갑다 싶으가 드간 기라. 드간께네 도둑질할라고 들다보이 집은 궁궐 같이 잘 지어가 있으나마, 탄로날가 싶어 마리 밑에 가마이 엎들이가 들으인께네, 그래 정승은 그래 이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씨러져가 있고 탄식을 하고 이논(議論)을 하는데, 달은 휘영청 밝은데 마리 밑에 가마이 있은께, 참 도둑놈 지도 도둑질 하로 왔지마는 너무 해가 있는 것이 불쌍하게 돼 있으인께, 담장을 뛰어 넘어갔는 기라. 가가주고 시장 장터 안에 드간께네, 떡장사가 떡을 팔라고 막 시리(시루)에다가 한 시리 찌나(쪄놔) 놓고 짐이 무럭무럭 나는데 방에 누우 자는 기라. '에이 빌어물거 저 불쌍한 정승집에 이걸 갖다 줄 수밖에 없다.'고 싶어서 그 시리떡을 시리채 들고 담장을 넘어왔어. 넘어와갖고 마리 끈티다(끝에다) 턱 놔두고 엎디리가 있으인께, 정승이 그 부인을 뎃고 들판을 나간 기라. 나가가주고 논마다 나락 한 이삭씩 훑어 행장에 옇어 행장을 끌러갖고 올라 카다가, 하늘을 쳐다보인께 별도 총총해가 있고 달도 휘영청 밝고 이란께 '하늘에 눈이 저만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가서 넘이 욕보고 피땀을 흘리 지아놓은 농사로 피눈물 나는 농사를 우리가 가가서 되나?' 하고 또 돌아서서 논배미마다 그 이삭을 뺀 데다가 널짜놓고 왔는 기라. 온께네 그때 우짠 시리가 하나 있는데 짐이 무럭무럭 나는 시리를 하나 갖다 놨어. 그래 정승이 말해기로,

"시상(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갖다 놓았는고? 우리 자슥들이 방에 집에 있는데, 이 사람들 정녕 이름은 눈고(누군고)? 알 수만 있으면 좋겠다."

카고, 그래 시리떡을 방에다가 갖다놔두고, 방에 드가서,

"시상(세상) 우리들은 아들들로 살릴라 카인께네, 어떠한 사람이 떡을 이래 갖다놨다."

카고, 그래 인자 도둑이 가마이 들으인께,

"그 사람 이름 성명이 뭣인고? 이것을 갖다놘 이름 성명을 알 것 같으면 뒤에 무슨 벼슬할 건(件)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알면 좋겠는데."

그래싸서, 도둑놈이 갖다놓고 이름 성명을 써 놓고 와뿠어. 왔뿐는데, 그 정승이 떡 갖다놘 거로 물을 떠가 와서 떡을 믹일라고 그 아들들을 일바싰는데(일어나게 하였는데), 그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나라에서 과게본다고 통문이 내려왔는 기라.

도둑이 도둑질을 천상 해묵어도 성실한 매음이 들어가, 그라다가 실실 밖에 도니,

"아무끼 아무 데 있는 몇 살 묵은 아무끼 있느냐?"

카면서 통문을 내리더란다. 내리서, 자기가 가마이 생각하이 찔리거든. 찔인께 그래 인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안 있나! 지가 찔리서, 그 관리한테,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뭣 때문에 그라는고 물어보라."

이카더란다. 그란께 통지를 한께,

"그 사람 뎃고 들어오라."

칸께, 이 놈이 잡아 직일까 싶어 도적질해 문께로 벌벌 떨고 이란께로 그래,

"그런 기 아이고,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우째우째해서 그런 일이 있으인께네, 내가 은혜를 갚을라고 내가 이란다."

고. 그래 그 사람을 벼실 한 자리 준께네, 그 사램이가 이 사람도 구하고 지도 반성해가주고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얘기를 들은 기라.

[지사동 설화 11]

칠석물 전설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칠성이라 카는 사람이 용왕국에 가 보고, 또 이율곡 선생님이 하늘에 올라가 봤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봤는지 모르거든. 모르는데 율곡 선생님이 하늘에 올라가 봤다 이카거든. 그카는데, 칠성이 우째 용왕국으로 갔느냐. 그 용왕국으로 갈 때 칠성이 소를 몰고 갔어. 칠성이 쪼만할 때 인제 소를 멕이러 저 강가에 가서 소를 멕이는데, 젊은 청년이 한 서넛이 이래 오디이마는,

"용왕님요. 용왕님요."

부르거든. 그래,

"와?"

"금년 칠성에는……."

칠성이 소를 멕인다 말이다, 거기에. 조그마한 칠성이 소를 멕이고 있는데,

"금년 칠석에는 얼매나 물로 줄까요?"

그라인께, 칠석물이니 백중물이니 카는 그거가 전부 용왕님이 주는 기라. 용왕님이 주는데 그래 인제,

"물로 금년 칠석에는 얼매나 줄까요?"

그러면,

"몇 천 몇 백자를 주라."

그라면 천지가 개벽이 올끼거든. 소 멕이다가 칠성이 가만이 들으인께, 조고 이름이 칠성이라. '아! 이래 되면 우리나라가 참 물구데이기 되고 못이 되뿌겠다. 그라면 다 죽겠다 말이지.' 그래서 칠성이 용왕국으로 갔어. 용왕국으로 가가지고 용왕님한테 그래 물로 그만치 줄라 카인께 경재가 모자랜다 말이지.

"그만큼 줄 양이 없습니다."

"없어도 주면 된다."
"그래 주지 마시고 마 열매쭘만 이래 줍시다."
"그러면 니 마음대로 해라."
캤어.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그라면 인자 용왕님은 앉아서 여어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몇몇 천자로 주라 카는 이 사람을 시샘인 줄 알았지,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사람 칠성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는 줄 몰랐다 말이지. 용왕님이 앉았는데, 저 어느 사람이 저러 카는지 말만 들었지 모르거든.
"마, 그럼 니 맘대로 해라."
그래 물로 쪼매만 줬어. 쪼매만 주거든. 그래,
"몇 자 몇 매만 주라."
그래 용왕님이 그래 몇 자 몇 매만 줬는데, 그래 용왕님이 가만이 본께, '이기 용왕국 사람이 아이고 우리나라 백성인데, 소 멕이는 이름이 칠성이라 말이지. 칠성이 저 놈이 그랬구나.' 그래 칠성이를 잡아갔어. 칠성이가 그 뒤로 죽어뿌거든. 죽어뿠는데 용왕국으로 가뿐 기라. 물에 빠져 죽어뿐 기라. 그래가지고 칠성이는 칠석물로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수를 안 당코(당하고) 잘 지낸 칠성이 들어서 그래 우리를 다 살렸다 카는 그걸 여서 칠월칠석날이라 카재. 칠월칠석날이 고날(그날)이 딱 칠석날이라. 그 이름이가 칠성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런 사정이 있고.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60~561쪽.

[지사동 설화 12]

매립고개 전설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그래 참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어데 출타를 했다가 저그 집으로 가는 길이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재(嶺)를 넘어 가야 되는 기라. 고개 만데이를 넘어 가야 되는 기라. 이전에 같으면 옷 입고 가면서 옷을 입기로 아주 명지옷 같은 이런 거로비가 맞으면 몸에 딱딱 붙는 이런 옷을 입었던 모양이지.
매립고개를 턱 넘었는데, 매립고개를 넘어 내려 가는데, 저그 오빠 앞에 서서 가는데, 비가 와가주고 그 명지옷이 전부 몸에 들어붙어가주고 알몸딩이나 한 가지라.

그래가주고 지 오래비가 마음이 동해가주고, 여동생이 저 아래 내려가는데, 저그는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을 보고 못된 생각을 해가 되겠나, 그래 동생이 저 아래 내려 가는데, 돌메이를 가주고 지 신(腎)을 때리 뿌싼게(부수니까) 지가 살 수 있나. 죽어뿠다 말이지.

동생이 보이 오래비가 안 따라오거든. 그래 아무리 봐도 안 내려오고 해서 살살 올라간께 지 신을 뿌싸가지고 죽어뿠단 말이다. 뿌쑨게 안 죽고 말건가. 그래서 거서 한탄을 했는 기라.

"매록한[21] 우리 오라바 말이나 해보지, 왜 매록한 짓을 해가 죽었노?"

카면서 한탄하며 울더란다.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이 지금까지도 매립고개라 카는 기 있어.[22]

[지사동 설화 13]

상사뱀 이야기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어떤 사람이가 아들을 낳아가주고 중을 주었다. 중을 주었는데, 그래 중 상좌가 됐다 말이지. 그래 탁발한 상좌를 뎃고 중이 동네를 댕기며 동냥을 하는데, 이눔아는 저그 집에 갔다 말이지, 저그 집에.

저그 집에 가인께, 중이 보인께, 처이가 하나 있는데 처이가 참 좋아. 중이 그 처이를 보고 마음이 상했던지 그래 지가 뎃고 있는 상좌 누분데(누이인데) 동냥을 해가주고 절로 올라가는 길이라. 올라가는 길인데, 길가에 잔디밭이 있는데, 그래,

"상좌야, 내가 눌란다(누울난다)."

그래 중이 누벘다. 젙에 앉아서 가마이 본께 중 코에서 뱀이 한 마리 나오는 기라. 쪼매난 실랭이같은 뱀이 나오는데, 이놈이 살살 기어가주고 가는 기라. 중은 뱀이 나와뿐께 죽은는지 살았는지 잠이 들었는지 눕어가 있고 뱀을 따라간 기라. 뱀이 살살 가는데 상대해 가인께, 저그 집에 누부 있는데 그리로 가는 기라. 가는데 상좌가 좇아 먼저 뱀에 앞서 가는데 뱀이 가면서 크지는 기라. 처음 코구영에서 나올 때는 실낱같은 기 나왔는데 한 자죽 뛰면 이마이 크고 한 자죽 뛰면 이마이 크고 저그 집에 들올 때는 이것만한 기라. 그래 이놈아가 저그 집에 뱀보다 먼저 좇아갔어. 가가주고 저그 누우(누이)로 이전에 부녀들이 경도를 하는 것이 있

21) 화자가 '매록한'은 '미혹(迷惑)한'이라 풀이함.
22) 『달래강』, 『달래고개』 유형의 광포설화.

어.

"누부야, 경수 묻은 그런 옷 없나?"

"있다."

"그걸 쓰라."

그 집에 들어가면 어디 있다는 걸 다 안다 말이지. 저기 상사(相思)인께, 그기 딱 붙으면 상사란다 그기. 상사라는 기 상사병이라. 그래 저그 누우로 월경 묻은 거, 그걸 저그 누부가 하나 구해가주고 쓰고 떡 앉았다. 앉아 있으인께, 저놈이 삽짝거리에 들오는데 뱀이가 커다라이 치독거리[23]같은 기라. 이놈이 떡 드가서 보디마는 다부 돌아서는 기라. 다부 돌아서가주고 중 있는 데 그리로 가거든. 살살 따라오이 오는데 이놈이 조금씩 작아지고 작아지고 본대 중 코에서 나간 것만치 작더란다. 그래 중 코 안으로 싹 드가고난께, 중이 기지개를 펴며 깨는 기라.

"참 한숨 잘 잤다."

이카거든. 그래서,

"상좌야!"

"예."

"낮에 너그 누부가 참 좋더라. 그래 꿈에 안 갔더나, 가본께 문디(문둥이)더라. 영 문디더라. 그래 꿈을 깼다."

그 뱀이 상사라는 뱀인 기라. 그것 들어붙으면 안 떨어지는 기라. 상사라는 거 겁나는 기라.

[지사동 설화 14]

무학대사의 궁궐 짓기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우리나라 경복궁을 앉출 적에 그 경복궁의 터를 잡기로 무학도사가 잡았는데, 무학도사가 우리나라 경복궁을 머이(먼저) 앉찼다, 머이 앉찼는데, 그 당시 대궐을 얼추 지으면 넘어지고 또 얼추 지으면 넘어지고, 여덟 분(번)이나 넘어갔는데, 여덟 분이나 넘어지고 나서 무학대사가 '내가 지리를 모르고 핸 것이다.' 그래가주고 자기가 내빼뿠어요, 부정지처 없이 거처 없이 내빼는데, 한 군데 오이가, 일하는 노인이 소를 부리고,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소를 몰고 이끌고 하는데, 소를 부리는 노인이 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을 보고,

23) 큰 김치독.

"소를 바로 가면 될건대 이쭉 갔다 저쭉 갔다 하는냐? 바로 가야 된다."

소를 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거든. 그래 도사가 오다가 보고 있다 말이지. 싸워싼께, 구경삼아 보고 있으인까 소를 부리다가 애를 먹고 소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해도 말을 안 듣고 하이, 노인이,

"저놈은 똑 무학이놈 같다. 그건 똑 무학이 대궐 짓는 것과 같다."

무학이 그걸 듣고 있다 말이지. 그래 무학이,

"저 노인 쉬어가지고 하이소"

그래 소를 부리던 노인이 쉰다. 쉬는데,

"조금 전 말씀이 소를 모는 놈이 무학이와 똑 같다 하니 그 말씀이 어떠하길래 무학도사와 머리 쓰기를 같다 하니 무학이가 그래 미련합니까?"

"미련하지요."

"그래 어째 그렇습니까."

"그 무학이란 놈이 우리나라 대궐을 앉추는데 대궐을 머이 앉추인께 그 안 넘어갈 수가 있소. 그 터가 그 자리가 학설(鶴穴)인데 학설에는 먼저 날개를 못 털고 일어나도록 누질러 놓고 그래 복판에다가 대궐을 세워야 될건대 복판에다가 대궐만 지어 놓은께 자빠지고 자빠지고 그렇다."

"그러면 네 군데다가 날개를 누질러야 됩니까?"

"그래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을 먼저 지어서 눌러 놓고 복판에다가 대궐을 앉추면 안 자빠진다. 그런데 먼저 머리가 되는 설(혈)에다가 복판에 지으면 날개만 털면 자빠지고 자빠지고 하는거 아이가? 날개를 먼저 누질러놓고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무학이 대궐을 앉추는 자리가 학설이라는 것을 알고 대궐부텀 먼저 지어 자빠지고를 거듭하다가 왕십리에서 노인을 만나 갤침을 받고, 한 몇 발짝 나가다 뒤돌아보이 소도 없고 영감도 없어, 지신이 감동을 해가주고 대궐 짓는 방도를 무학대사에게 갤차 준 기라.

[지사동 설화 15]

정도사 이야기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옛날에 정도사라 카는 사람이 있어. 정도사라는 사람이 계섰는데, 정도사 이 어른하고 자부

만 남고 아들이 죽어뿐 기라. 죽어뿠는데, 그러면 금방 시집온 며느리하고 정도사 시아범님하고 둘이 사는 기라. 사는데, 그래 인자 정도사님이 가마이 본께, 자부가 하로 이틀 지낸께 배가 또시락 또시락 부르는데 이상시럽거든. 가난한 집에 시집 와 가주고 가장을 잃어뿐 사람이 그래 몇 달 지낸께 완전이 임산된 거 표가 난다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도사님이 자부를 불러가 물었어.

"자부야, 니 배가 또시닥 또시닥 부른데, 니 그기 우엔 일이냐? 우짠 일로 배가 자꾸 부르느냐?"

"아부님,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빨래로 하러 가니까 물이 청청수 내려오는데 복숭이 하나 떠내려오더라. 복숭이, 그래 빨래 방망이로 땡긴께 자기 앞에 왔다 말이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시아범님 갖다 드릴라고 자기는 여기에 안 넣는 사람인데, 복숭을 건져놓고 보이 묵음직스럽어 시아범님 갖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묵으면 시아범님이 모를거 아이가? 그러이까 내가 여서 묵어뿌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묵어 싶은 거 안 물 수 없다 말이지, 그래 내가 봉숭을 건져가 묵었습니다. 묵고 난께 그래 배가 자꾸 부릅니다."

그래,

"아기를 놓오면 너캉 내캉 살 수 없다. 없으니까 너하고 내하고 가자. 부지정처 없이 가자."

그래 자부를 데리고 어데로 갔나 하면 충청도 묘향산에 드간 기라. 묘향산은 아주 태산공원으로 돌들이 층층이 엉성 엉성 하이 있는데, 거기 갔다 말이지. 가가주고 큰 방구새라. 그 방구새에 들어가가주고 시아부지는 저쪽에 자고 자부는 이쪽에 자고 그래 놓고, 양식이 있어 밥을 해 묵으면 되거든. 나무 오리를 준 기라.

"요거로 밥솥 걸어놓은 데 갖다놓고 이직에 나가가주고 오리 등대이를 뚜드리면서 '함때(한끼) 나오소'카며는 한 덩어리 밥이 나온다."

"예, 그렇습니까?"

"때마중 그래라. 두때거리 나오라 하면 안 된다. 두때거리 나오면 안 된다."

그래 놓고 아침마다 나가가주고 오리 등대이를 뚜드리며 '함때 나오소' 하면 쌀이 딱 며느리하고 시아부지가 해 먹을 만치 나오는 기라. 그러구로 밥을 해 묵고, 해 묵고 고부끼리 살고 있는데, 그러구로 순산을 핸 기라. 순산을 했는데, 금방 낳은 아가 돌 천장에 딱 붙었다가 땅에 내렸다가 이렇거든. 저그로 얼굴을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기라. 저그 할배 정도사가 이름을 짓기로 바다에서 복숭을 건져 먹고 생겼으니까 바다 해자, 복숭 도자, '海桃'라고 지었어. '해도'라고 지었는데, 에린기(어린 것이) 뭐 아나. 그러구로 아이가 없어뿌려. 지금까지 없다 카는 기라. 없는데, 지금 이 신세를 보면 정해도는 남조선에 가 살고 있다 카거든. 남조선이 어데냐? 태평양 바다 밑에 남조선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런 말이 있다 말이지. 그러는데, 한 사년 동안 한 분썩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해도가. 왔다 갔는데, 저그 할배는 해도가 태평양 바다 밑에 남조선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도사가 죽었는 데가 없어. 정도사 죽은 데가 없어.

그래 고부끼리 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태조대왕이 등극해가주고 숙종 때쯤 됐던가, 대국에서 사신이 온다는 기라. 사람이 얼매나 나오는지 모르겠는 기라. 백명이 올는지 이백명이 올는지 삼백 명이 올는지 모르겠다 말이다. 우리나라 대우로서 그 손님 대국서 중국서 사람이 몇 십 명이 올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접대를 할 그런 음식을 뭐 맨들어가주고 저 사람들을 접대를 해야 될건대, 한시에 갈는지 한달만에 갈는지 두달만에 갈는지 모르겠다 말이지. 이걸 단속할라 해도 단속할 도리가 없는 기라. 그라면 그 사람들이 잘 댕기든지 저 짐승들을 단속할라 칸께, 우리나라 정승 판서들만 들랐는데 저런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짓을 할는지 어떤 욕을 할는지 우리는 모른다 말이지. 그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임금이 각 도 제신들을 모아놓고 의론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 각도 제신들이 모았다 말이지. 아무도 우째 해야 된다는 사람이 없다 말이지. 없는데, 정용이라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충청남도 묘향산에 가가주고 정도사님을 찾아가주고 정도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이카거든. 그래,

"충청남도 묘향산에 가가주고 정도사를 찾아라."

그래 정승 판서 몇을 보냈는데, 그래 충청남도 묘향산에 들어갔다. 들어가가주고 묘향산 전체를 뺑 돌아가면서 청돌 새고 잔디밭이고 그 산 전체를 헤맸다 말이다. 없어. 사흘 동안을 헤맸는데 사흘 동안을 맴돌다 내려올 판인데, 내려오니까 지침소리가 있거든. 사흘 동안 제일 많이 간 데, 안 보이는데 지침소리가 나는데 거기를 보이까 노인이 앉아 있는 기라. 그래 그 노인 앞에 가가주고 대신들이 전부 다 국궁을 하고 엎드렸다 말이다.

"너희들 뭘 하러 왔느냐?"

"예, 다름이 아니옵고 충청도 묘향산에 정도사님을 만나서 사뢸 말씀이 있어 왔더니, 사흘 만인데 이제는 다 찾고 내려가는 길이 옳시다. 내려가는 길인데, 정도사님이 계시면 정도사님한테 우리나라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한 분 사뢰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 뭣인데 그러느냐?"

"중국에서 사신이 몇 수십명이, 몇 백명이 나올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접대할 때 우찌해야 되는고 정도사님한테 알려고 왔습니다."

"그래. 오거들랑 이리 뎃고 오너라. 단디 보고 오거들랑 그 사람들 이리로 다 뎃고 오너라."

그래 이곳을 자세히 보고 나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참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다. 사신이 한 백명 왔는 기라. 그래 대왕한테 사뢰놓은께,

"이 사람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그 바위로 가거라."

그래 그리로 모시고 온 기라. 온께 그 험악한 층층 바위가 있는 그 밑에서 정도사님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그 안내원들 정승 판서 정부 요원등 이런 사람들이 사신을 모시고 간께 요

새 큰 호텔 모양인 그런기 꽉 찼는 기라. 뽀얗게 꽉 찼거든. 그래 이리로도 들어오고 저리로도 들어오고, 그래 앉으이께 우짠지 선녀들이 전부 음식을 준비해가주고 온다 말이지. 험악한 산만데이 거기에 우째 그렇게 돼가 있노 말이다. 중국에서 사신 나온 사람들이 본께로 엄청나도 안 하거든, 그래 그놈들이 기분이 좋고 이라더니마는, 저기 인제 저그 마음에 맞고 충분한 이런 기 저 기분이 좋으면 숩기(쉽게) 가는 기라. 숩기 떠나고, 잘못했으면 낱낱이 적어가 가주고 중국 가가주고 저그 나라에 가가주고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 가면 다 직이뿐 기라. 그 때 시대는 그런 기라. 그래가주고 거게서 며칠 쉬더니만 '이제 가자' 그래 본께 심바람(심부름)하고 접대하는 이런 시녀들이 한껏 잘하니 그래 대접이 좋다 하고는 자그 마음에 흡족한께 '우리는 가자' 그래 중국으로 떠나는데, 그래 그들이 들어가고 나서 정용 그 어른이 정도사를 만나러 왔어. 만나러 와가지고,

"정도사님, 우째 바위도 흔하고 방구틈 여게도 그 사람들 대접한 것은 하나도 없는 기라, 그래 우째 그 손님들 대접을 잘해서 환대를 해서 보냈는데 그래 우째 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 손님들을 초대를 다 했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저그 나라 심바람하는 아들, 저그 나라 이다바를 다 뎃고 와가주고 저그 국가가 와가주고 저그가 맨들어가주고 저그가 먹고 갔는데, 나는 아무 한 것 없다."

그래 대국 사신이 왔는데, 정도사가 어떻게 했던지 중국에서 심바람하는 것들을 싹 모아다가 거기 갖다 놓고, 집도 그런 식으로 거기다 땡기다 놓고, 그래 그만치 대접을 해서 보냈다. 그 이후로 정도사가 죽은 데가 없고, 정도사 그 자부가 죽은 데도 없다 카거든. 죽었다는 말이 없다 카거든, 아무도. 해도(海桃)만, 복숭 건져 먹고 낳은 해도만 남조선에 살고 있다 카는 거, 그런 말이 전설이 있습니다.

[지사동 설화 16]

죽음을 모면한 이율곡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이율곡이라 카는 선생님은 하늘로 올라가 봤다 카는데, 하늘로 참말로 가봐는지 안 가봐는지는 모르겠다 말이지.

그렇는데, 율곡 선생님이야말로 어찌 됐노 하면, 율곡 선생님이 팔도 행낙을 다하고 유람도 댕기고 팔도 행정매이로 이래 댕기는데, 그래 한 분 가인께네 괴기를 잡는 어부가 하나 있어. 고기를 그물을 땡기가주고 잡고 이라거든. 잡아지면 그 지게다가 망태를 갖다놓고 모두는데,

고기를 망태에 옇고 또 잡으러 가거든. 또 잡으러 가는데, 율곡 선생이 그 두고 놨는 망태를 보고 지나가인께,

"율곡 선생님요, 날 좀 살려 주이소."

이카거든. 몇 번 그러카는데 보이, 바지기 그 고기 잡아다 옇는 그 망태 안에서 거서 그라거든. 그래 망태를 열고 보인께 거북인데, 거북이를 이만한(손바닥만한) 거 한 마리 잡아놓은 거북 그놈이 그칸데(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너는 어째 살려돌라 카노?"

그래,

"저는 용궁에 있는 거북입니다."

카거든. 그래 거기 서가 있으인께, 저놈이 또 잡아 오거든. 오는데,

"허허, 오늘 재수가 없으인께네 거북이 한 마리 잡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카거든.

"고기 잡는 사람아!"

"예."

"거북 그것 내한테 팔아라."

"그래 하이소."

"얼매 줄고?"

"얼매 받겠습니까? 되는 대로 주고 사이소."

그래 율곡 선생이 돈 한 냥을 주었어. 한 냥을 준께,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거북 한 마리 잡아가주고 되나?"

"오늘 재수가 없어서러……."

이러쌓거든. 그래 한냥을 주고 샀어. 바다에 나가 이래 내놓고 띠아논께 헤엄을 쳐서, 저 가다가 율곡 선생을 돌아보고 돌아보고 이카인께 그래 선생이 올라간다. 가는데, 얼매를 갔던지 강원도 금강산이라.

금강산 어구에 들어간께, 하도 나(나이)가 많은 백수 노인이 한 분이 오두막집을 지아가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기라. 그 간께,

"니 율곡이 아이가?"

이카면서,

"예, 율곡입니다."

"니 나 모르겠지."

"모르겠습니다."

"니 강원도 금강산 몬데이(산봉우리), 상상봉 몬데이 우째 생깄노 그거 기경하러 올라가지."

"예, 그래 갑니다."

"가지 마라. 니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와 그캅니까?"

"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면 상상봉 몬데이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래, 안 가면 된다."

정 가고 싶다 말이지. 저 어른 몬 올라간다 칸데, 몬 올라가라 칸께, 더 가고 싶네. 그래 올라갔다 말이지. 설설 올라서 가는데, 금강산 몬데이 몬 가라 칸데, 무엇이 어째 되는고 싶어 올라갈 빽이 없다 카고 몬데이 올라가 선께, 이짝은 이짝이고 저짝은 저 밑인데, 저 밑에서 한 참 예쁜 처녀가 앉아가주고 샘에서 무엇을 씻는다고 이래쌓다가 쳐다보고,

"하하, 율곡가? 율곡이 니 참 잘 만냈대이, 이리 온나."

그기 이상시럽거든. 그래 어떻겠노? 내려간께, 그래 집이 있나, 금강산채라. 거기다 가두어 놓고 죽는다 카거든. 이래 본께, 저기 율곡을 잡아 먹어야 득천하는 기라. 사람이 되는 기라. 천년 묵은 야시(여우)라.

"그래 오늘 내가 니를 잡아먹어야 된다. 오늘 니를 몬 잡아먹으면 득천을 못한 천년 묵은 야시다. 야신데 니를 천상 잡아먹어야 되겠다. 잡아먹을 도리밖에 없다."

"그러면 나를 잡아먹고 득천을 해라. 내가 하나 죽고 니가 야신데 사람이 되면 안 좋나, 그런데 나를 잡아먹어라."

"니를 봤은께, 인제 니가 어데 가도 잡아먹는다. 니가 모면할라 캐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모면 안 한다. 내가 니에게 잡아 먹일꾸마.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서 올 때,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동지들한테 내가 유람한다고 했지, 내가 니한테 잡아 먹인다고는 안 했다. 그러이까 가서 이분(이번)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마라 카고 부탁하고 그래 오꺼마. 그래야 우리 집에 안 기다리고 안 잊어뿌나. 그래 하자."

"그래 해라. 그카고 온나."

그래 내려왔다 말이지. 이 밑에 내려온께, 어구에 나 많은 노인이 나와,

"일부로 산 몬데이 몬 올라 가구로 했는데, 뭐 하러 올라 갔노? 와 올라갔노? 내가 몬 올라가구로 안 카더나."

"그라면 어찌 해야 좋습니까?"

"몰라. 니가 무슨 적선핸 일이 있으면 살까, 그라이면 몬 산다."

"적선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분 생각해 봐라. 적선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라."

"오다가 남생이 그거 한 냥 주고 사다가 물에 옇은 거 그것빽이 적선한 것이 없소. 이기 적선이 될난가 안 될난가 모르겠는데, 남생이를 사서 물에 옇었는데 그기 적선이 됩니까?"

"아, 그것 됐다고. 그기 된다. 남생이 옇은 데 한 분 가 봐라."

그래 남생이 띄운데 갔다 말이지. 가이께 아주 늠름한 청년이 서넛이 있다가 하는 말이,

"그래 그 산 몬데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산 몬데이 올라갔습니까? 그라며는 이

길로 가이소. 야시 만난 데 가라 카는 기라. 가이소. 가며는 그건 우리가 처치를 할끼니까 가이소.”

이기라. 그래 올라갔다 말이야. 올라간께, 노인이,

“뭐 카더노?”

“그리 가라 캅디다.”

“그래 만났더냐?”

“예, 만났는데, 노인네에게 가면 살아 올끼라고 가라 캅디다.”

“그러면 가라.”

그래 갔다. 가이,

“아이구, 영감 빨리 온다. 니 안 오면 안 된다. 온나, 또 술 먹자.”

그래 방에 들어갔더니, 술상을 내가 술을 먹는다. 술을 먹는데, 우째 됐던 뇌성벽락이 디리 때리치고, 번개를 치고 노성을 치고 이러는데, 그 주위에 앉은 바위가 불이 발갛게 된 거라. 저걸 딱 하늘에서 우레 번개를 칠라고 하는데, 이기 뭐를 얄궂은 것을 머리에 뒤비쓰고 솔 이파리로 시멘트로 벽을 칠하듯이 이리 이리하인께 뭐 훌떡 하늘에 구름이 벗기져뿌리는 기라.

“니가 재주가 어지간하다. 그렇지만 안 된다. 오늘은 우짤라노?”

“내가 가다가 이 양반 만나가주고 니로 처치해뿔라고 나를 가라 캐서 그래서 내가 왔는데, 니가 재주가 참 용하다. 용한데, 천상 우리 집에 그러 카고 오꾸마. 내가 가다 왔다. 우리 집에 몬 가고, 가다 온 때문에, 인제는 집에 가서, ‘니한테 잡아 믹힐 요량하고, 니가 잡아먹을라 칸께 잡아먹고’ 나를 몬 기다리게 하고 와야 안 되겠나. 부모들이 안 기다리고 있을거 아이가?

“갔다 온나. 그러면.”

그래 갔다. 가가주고 그 노인한테 간께,

“우째 했노? 뭐 이래이래 해쌓더만 없어집데다. 그래 그것 참 천년 묵은 야신데, 위험한 일인데 단디 해라. 아레 갔던 데 또 가봐라.”

그래 또 갔거든. 가인꺼네, 청년 서이가 있는데 가인꺼네,

“저놈이가 당신을 잡아먹고 환생해가지고 사람이 되면 하늘에 볘락장군의 마누래가 될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이 요분에는 가거들랑 탈바가지를 씨거들랑 탈바가지 그것만 띴뿌리라. 머이(먼저)번에는 탈바가지 그걸 씨고 물을 뿌리는 바람에 빗나갔다 말이지. 천둥 우레도 갔뿌고 훌떡 벗거든. 어떻게 하던지 머리에 씨는 탈바가지 그것만 벗기뿌라.”

“그러면 그래 하꾸마.”

또 갔다 말이지. 또 이래 떡 간께네,

“또 갔다 오나”

“또 온다.”

“너그 집에 갔더나?”

“안 갔다.”

"인 가고 또 우째 오노?"
"내가 가다가 술 한 잔 더 먹고 갈라고 왔다."
"잘 했다. 그래 술 먹자"
그런데, 머이매로(먼저처럼) 천둥 우레가 쌔리치고 이러는데, 저기 머이매로 바가지를 머리에 씨더마는 일나는데, 그래 율곡이 꼬쟁이로 탈바가지를 벳기뿠다 말이지. 그래 볘락을 쌔리 가주고 직이었는데, 전부 지네가 나오는 기라. 지네가 수없이 나오더란다. 그래 율곡이 직이고, 그래 인자 금강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노인한테 가이,
"인제는 괜찮다."
우리나라뿐만 아이라 율곡 선생님이 안 댕긴 데가 없어. 그런 대성공을 해가주고 하늘에 옥황상제님께 축배를 갔다 카든가, 율곡 선생님이 하늘에 가 본 일이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지사동 설화 17]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시키기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이전에 어떤 사람이가 아주 근엄한 양반집 사람이가 백만 장자집 며느리를 봤어요. 봤는데, 그라이면 이 마누라가 생각해보인께, 백만 장자집 딸냄이가 아무 것도 없는 우리 집에 와가 주고 저그 친정집에 버릇이 남아가주고 무슨 살림살이가 되겠노 말이지, 그래 오늘 시집을 왔다 말이지, 시집을 왔는데, 점심을 쭈욱 믹이고 나디마는,
"인제 시집온 우리 미느리 나오너라."
이기라. 미느리가 나왔다 말이다. 나간께, 통을 하나 주는데, 통 밑구영을 잡아 빼뿌고 바가치하고 그래 가가주고 아들하고 들고 저 샘이 가에 갖다 놓고,
"물로 한 통 퍼가지고 이고 오라."
카는 기라. 통 밑구영 없는데, 그다 물이 한 통 퍼지나? 이놈을 해가 다 지도록 어둡도록 저녁 때가 되도록 펐다 말이다. 퍼인께 빈 통뿐이라. 그래 저녁 묵을 때 되인께, 시어마씨가 왔거든.
"그래 물 한 통 폈느냐?"
"몬 폈습니다."
"가자."
그래 저녁을 묵고 자고, 자고나인께 아직 일찍이 '또 가서 퍼라'는 것이라. '퍼라' 카는데

우째는고 카인께, 통 밑 구영은 해나놓고, 통 밑구영은 물 안 새도록 해나놓고, 통 밑구영은 물 안 새도록 딱 맹글라가지고, 바가치 밑구영은 빼뿌리는 기라. 바가치 밑구영을 빼뿌는데, 바가치 저놈은 통 밑구영이 있으이까, 밑에 해나놨으인께, 바가치 저놈을 샘에다 얼른 옇어가 주고 퍼떡 들고 올라오면 물 묻은기 한두 방울씩 통에 떨어지거든. 통 저놈이 밑구영이 안 빼주고 그러면, 통 밑이 온전해논께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저기가 점심때쯤 돼가인께 얼추 한 통 돼가거든. 그래 점심 묵어라 데불어(데리러) 왔는 기라. 그래,

"점심 묵고 한 통 먼저 퍼라."

그래가주고 퍼인께, 오후 세시나 네시나 된께 한 통 찰찰 퍼지거든.

"바가치하고 통하고 그래 가주 가자."

물은 다 내뿌리놓고 빈 통하고 가주고 집으로 왔다 말이지. 갖다놔놓고 시어마씨가 며느리를 보고,

"수석 만석꾼 하는 집의 딸냄이가 우리 집에 개 죽 쑤어줄 것 없는 우리 집에 시집와가주고 친정집 살림 생각키쌓고 친정집에 사는 그것이 생각키서 우리 살림 안 된다 말이다. 안 되는데, 니 가장이 밑구영 없는 통만치 허랑하다 말이지. 아무리 니가 때리부도(따러부어도) 밑구영이 없는 통 거기에 물 한 통 안 된다. 안 되는데, 니가 아무리 여물게 해도 안 된다. 밑구영 해놓은 저놈은 밑구영 해놓은 때문에 물이 개피는데(괴이는데), 니가 밑구영 있는 통만치만 여물어가주고 쪼개만 갖다 주는 그것만 고이게끔 여물게 하면 니가 얼매 안 있으면 친정집 부럽지 않게 살 것인께, 너그 가장이 아무리 허랑해도 너만 알뜰이 하면 너그 친정집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시어마씨가 그만치 훈련을 시키더란다. 그래가주고 십오년만에 만석을 하더란다.

"니가 알뜰히 해가주고 니 살림 니가 모아가주고 니가 살아야지, 넘우 재산보고 탐내고 이라면 안 된다. 안 된께 여물게 해야 된다. 니 가장이 아무리 니가 알뜰히 해가주고 갖다주도 밑구영 없는 통매이로 그래하면 암만 많이 벌어주도 안 된다. 살림이 안 된께 니가 될 수 있으면 밑구영 있는 통 한 방울 갖다 주는 것도 고이도록 살면 된다."

그래가주고 그 사람들이 당대 만석을 하더란다. 그만치 그래 하는거 며느리로 그만치 부자 딸냄이를 뎃고 와가주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어마씨가 있더란다.

[지사동 설화 18]

숙종대왕의 암행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숙종대왕이 계셨는데, 그 때 우째 되었는가 하면 영남서 그 참 선부가 쪼맨한 수수저부막 기같은 데 막(幕)을 매고 그래 거서 신을 삼아 그걸 팔아 먹고 사는 기라. 사는데, 숙종대왕이 여행을 하룻밤에 삼천리 강산을 하는데, 그날 야행을 나왔다가 숙식도 안 되고 배도 고프고 시장했던 것이지만 그냥 그래 보행으로 걸어서 한 군데 오인까, 행상을 짊어메고 생여꾼들이 가래를 메고 산에 산 일을 하고 그 뒤 상주들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 지경인데, 숙종대왕이 가마이 쳐러보인께 쪼끔 밑에 한 중만 내라 쓰면 대번에 천석을 하겠는데, 대번에 천석꾼이 나겠는데, 딱 우에다 올리다가 하는 기라. 자기가 보기에는 참 애석하거든. 고 밑에 고만 하면, 딱 파가지고 하면 대번에 천석이 나겠는데, 왜 저렇게 하는고? 답답해서 안 되겠거든, 그래 올라갔다. 올라가가주고,

"당신들 보소, 요게다 하면 대번에 천석이 나는데 왜 요게다 하요?"

"지관 어른이 요 하지 말고 요 하라 합데다."

"아이오, 여기 해라."

"안 할라요, 지관 시키는 대로 하지, 그라면 안 됩니다."

"그만 여게 해라."

결코 안 하고 판 데 거다가 하는 기라.

"그러면 내가 천석을 주꾸마. 해라."

그래 천석의 녹지(祿紙)를 주었다 말이지. 그 씨라 캤다, 그래 파고 거 씨고 내려왔다 말이지. 내리와서 마실에 쭈욱 내려왔는데, 해가 거무스름하게 다 져가는데 상량제를 지내는데 집을 수태이 앉차가주고 나무로 가지고 이전에 목조집매이로 이래가주고 상량제를 지내는데, 딱 고 시에 상량제를 지내면 그 가주(家主)가 대번에 딱 절명되는 기라. 상량제 지내다가 죽는 기라. '참 이상시러운 일이다. 딱 요 시(時)에 상량제를 지내면 그 주인이 죽어뿌리는 긴데, 참 나도 모르나? 내가 언간이(어지간히) 아는데 참 그기 이상한 일이다 말이지.' 그러구로 살살 그걸 보고 온다 말이지. 오는데, 중간에 오인께 토굴 집에다가 얄궂은 담부락 새다가 봉창을 내놔놓고, 그 안을 본께 어둡은데 그 안에 짚을 가주고 새끼를 꼬는 소리가 나고 이래. 그래 가만이 본께 나 많은 노인이 하나 앉아가주고 새끼도 꼬고 신도 삼고 이런 모양이지. 그래 삽짝거리에서 주인을 찾았다. 해는 지서 어둡침침한데, 그래 신을 이리 삼다가 신총 이걸 끄르도 안 하고 바빠쌓서 좇아 나와서,

"예, 들어오이소."

그래놓고, 방에 들어가 신총 매어난 그걸 끌러가주고 방을 실실 씰고 그 앉어라 카거든. 앉어인께, 그 영감이 나가디마는 부싯담배 하동초 그걸 항거 빼다가,

"이래 다니시면 이런기 귀합니다. 그래 불라가지고 옇어가주고 행차하구로 옇이소."

그래 그것을 옇는데, 배는 고프네, 점두록 굶고, 되도 안하는 뫼터 잡아 주고, 상량제에 얻어 묵도 못하고 상량제 지내는 그것도 기경하고 그래 왔다 말이지, 그래 와가주고 담배만 주고 밥 줄라고 생각도 안하거든. 그래,

"주인요, 내가 장이 시장한데, 뭐 자시다 남은거 있으면, 조금만한 한 숟가락만 있으면 됩

니다.”

“예, 그렇습니까?”

며느리한테,

“며느라!”

“예.”

“니 지녁에 된죽 낋이 묵고 남은거 좀 없나?”

“아이고,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라며는 손님이 시장하다 하시는데, 저 건너 가서 쌀 한 되만 돌라고 밥 얼른 지어가주고 손님 시장탄다. 손님 그렇게 말했다.”

“예.”

카더만 조금 있으인께 오거든. 사아바씨가 나가거든.

“아이, 얼렴(어림)도 없습되다.”

“와 그카더노?”

“심통하면 쌀 꿔 달라 하고 돈 달라 하고 우째 우째 그카고 엄뚱소리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그놈 직일 놈 같이 해가주고 그놈이 말이지, 이런 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쌀덤이 달라고 너를 니라보냈는데, 그놈 직일 놈 같이, 목을 칠 놈 같이 해가주고.”

이카거든. 그래 그라더마는,

“그 농 우에 시준단지 안에 쌀 그기 있나?”

“예, 있습니다.”

“그거 매우 씻어뿌고 퍼떡 밥을 지어라.”

그래 사어머니가 모시는데, 며느리가 내가주고 밥을 짓는데, 영감쟁이가 그 신을 풀었다 말이지. 그래 숙종대왕이,

“보소, 주인요, 내가 미안한 말이지마는 지 것 가주고 지 안 줄라 카는 사람을 목을 칠 놈 같이 해가주고, 된다 안된다 카면 지 것을 지 안 줄라 카는 것을 욕을 해가 되겠소.”

“아이, 그것 아입니다. 내가 그놈한테 그러칼 수 있습니다. 저기 예전에 내가 잘 살 적에 우리 집에 종입니다. 종인데 저놈을 지 양태를 잘봐 주어가주고 저놈이 당대 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태를 잘 봐주가주고 천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상시러운 것을 시(세) 낱 봅니다.”

“그럼 뭐를 보요?”

“그래 아무데 오인까 산에다 묘를 쓰는데, 딱 한 중만 밑에 내라 쓰면 대번에 천석을 하겠는데, 천석을 못 할 우에다 씁디다.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 사람 천석을 했을 낍니다.”

“우째 그렇는교?”

“먼저에다 파고 씨면 그 천석을 해도 언제 천석을 할는지 모릅니다. 모른 때문에 엉뚱데

파가주고 하관을 해놓고 시작해야 천석이 두 사람이 옵니다. 오늘 그 사람 천석을 했을 겁니다."

주군(主君)이 천석을 주고 갔다 말이지. 들어보이 용하기는 용허거든.

"또 내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뭘 봤냐?"

"여짜 여 온께, 상량제를 지내는데, 상량제를 고(그) 시에 딱 지내면 집 짓는 그 가주(家主)가 택주(宅主)가 대번에 절명되는데, 끄떡없고 괜찮습디다."

"고 뫼터도 내가 봐주었고, 그 집터도 내가 봐주었습니다. 봐주었는데, 상량제 지내는 그 시간이 그 사람 절명 시간입니다. 손님도 잘 압니다. 절명 시간인데 그때 우리나라 금상(今上)님이 졑에 보면 부유할 때입니다. 그 사람 집터에 상량제 지낼 때, 고 때 우리나라 금상님이, 우리나라 임금님이 지내가다 졑에 보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요."

그라면 종놈 천석할 때 봐주가주고 천석했다. 그라면 천석하는데 뫼시가주고 천석꾼 대번에 됐다. 대왕님 그 터 보면 안 죽는다. 그러면 부요한다. 이기 다 해석되거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감님은 그렇기 잘 보는 영감님이 왜 이 초략(草略)한데, 이런 데 앉아 있습니까? 절대 이런 데 앉아 있을 사람이 아이야?"

"그래도 내가 토굴에 있어도 그 날 뫼터, 집터도 내집 처지만 못합니다."

"그 우째 그렇소?"

"내 집터 이거는 백의(白衣) 군왕이 좌정한 집안입니다."

백의 군왕이, 임금이 흰 옷을 입고 야밤에 와서 그 집에 들렀다 카는 기라.

"임금이 내 집에 와서 좌정했다 카는 이런 터가 어데 있습니까? 그래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우째 과게를 한분 안 보인께, 요새 말 들은께, 수시경 수시처에 시화연풍하고 국태가민안하고 숙종대왕이 별과를 자주 보인다 하는데, 영감님도 그 별과를 한 분 보면 안되겠습니까?"

카이,

"내가 그걸 보러 갈 수 있는교? 내가 헌 두디기 입고 노자 없지요 내가 걸어서 천리를 갔다 오는데, 언제 과게날 다 지내뿌고 별과로 나흘만에 한분 뵈이고 오늘 뵈이고 정 때도 뵈이고, 그런 과게 언제 가서 보고, 또 서울 가서 밥 사 묵을 돈이 있는교? 그래 내 안 갑니다."

"그라면 아뭇 날 몇 시경 되며는 별과를 보인답니다. 그래 오이소. 나도 그때 한 분 볼랍니다."

"내가 돈도 없고 갈 수 없습니다."

"돈 내가 드릴 것이요"

녹기(祿記?)를 하나 주는데,

"그 고을에 가면 돈 백냥 줄 끼라. 그걸 갖다 양식 팔아놓고, 말 사고. 말 몰고 갈 하인 사고. 옷 잘 해 입고 올라 오이소."

이기라. 녹기를 그 고을 원님한테 찾어라 하고 백냥 녹기를 주거든.

"그래 하이소 그래 올라오이소. 나도 그때 과게 볼낍니다."

이 어른이 숙종대왕이라 말이다. 그래 얻어묵고 영감한테 듣고 올라갔다 말이지. 올라갔는데, 그래 말 한 마리 사고 말 몰고 갈 사람 또 하나 사고 집에 양식 팔아묵을 거 좀 놔두고 노자 좀 보담아 옇고 그래가주고 서울에 떡 올라갔다 말이지. 가인께,

"우째 오느냐?"

그래 묻거든. 서울에 간께,

"내일 과게를 본다는데 과게 보러 왔다."

저거 미친 사람이다 저거. 아레(그저께) 보였는데, 또 내일 과게 본다는 말도 없는데, 과게를 보일라 하면 한 삼일 사일 전에 방을 붙이고 이렇게 한다 말이다. 방도 안 붙였는데 아레 지내뿠는데, 무슨 과게를 본다고 저거 미쳤다 저거. 그러나 서울 왔으인께 서울에서 잔다. 자는데 새북 되이께 인경을 내리치고 과게 본다고 서울 장안에 확 퍼지거든. 아레 과게 보러 온 사람이가 간 사람도 있고 거기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안에 선부가 막 쎄리 들어 미는데 한도 없는 기라. 그라면 숙종대왕이 이 영감을 갤차줄 때, 뭐라고 갤차준 기 아이라, 이분에는 글자가 나오는데, 국기를 높으게 달아 놓고 거기다가 아주 안 뵈고로 세서(細書)로 쓴 기라. 붓으로 그놈을 가주고 쪼그맨크로 쓴 글이라. 밑에서 보인께 안 뵈거든. 글자 그것이 뭐냐? 이름이. 글자 이름을 갈차주거든.

"그 글자가 안 뵙니다. 안 뵈는데, 그거는 소래기(소리개) 연(鳶)자입니다. 소리개 연자라 하면 대과합니다."

영감 요것만 하나 줄라고 갤차주고 간 기라, 숙종대왕이.

과게장에 서울 장안에 선부가 다 모이고 몬 가고 남은 선부들이 다 모여가 여러 수 만명이 꽉 차 모였는데, 들어간께 묻는데 깃발에 그 글자를 묻는다 말이지.

"삥삥이 연자입니다."

또 물은께 삥삥이 연자라 카고, 삥삥이 연자라 카고, 소리개 연자가 안 생각킸다 하네. 과게도 뭣도 보지 못하고 그냥 헷방하고 나왔지. 대왕이 머리에 번떡 생각하는 기 저 영감을 찾아 붙들어라.

"보소."

"와 이라요?"

"오늘 글자 하나는 뭣이냐 하면, 높은 깃발에다가 글로 세서로 썼는데, 그 글자 이름이 소리개 연자입니다."

"소리개 연자라 카는 걸로 내가 발음이 어렵어서 삥삥이 연자라 캤습니다. 나는 못했으이까네 당신이나 하소."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조금 있으이소. 빨리 가지 말고 요 좀 기다리고 있으소."

그래 들어가자 말자 박문수에게 묻거든. 그때 그 어른이 누구냐 하면 박문수라.

“예, 그 글자가 소리개 연자입니다.”

“무슨 자라.”

“소리개 연자입니다. 그런데 소리개 연자에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은 뭐냐?”

“영남 선부, 저 밑에 영남 선부는 소리개 연자를 삥삥이 연자라 캅니다. 영남 선부는 삥삥이 연자라 카고 서울 선부는 소리개 연자라 캅니다.”

그래가주고 저거는 소리개 연자라 카라 캤는 걸 갖다 삥삥이 연자라 캤으니까 짤린 거라. 그래가주고 그를 고을살이를 줬어. 영감이 사는 고을살이, 요새 말로 군수를 주고, 박문수는 에렵은 논란을 잘 해결하니 ‘너는 어사를 해라’. 그래 박문수가 여간 인물이 아이었던 모양이지, 그래 영감은 자기 고을에 고을살이를 하고 박문수는 어사를 했는 기라.

[지사동 설화 19]

대감을 살린 세 봉사

구 술 자: 박차순(여, 88)
구술 날짜: 1992년 1월 3일
구술 장소: 지사동 본동마을

봉사가 지자(제자)를 데리고 산보러 갔거든. 가서 놀다보인까네 눈이 어둡어노이 해가 졌는지 우짠지 그걸 모르고 찬바람이 사알 나인께,

“야들아 이제 집으로 가자.”

찬바람이 사알 나이,

“밤이라서 그런갑다. 찬바람이 난다.”

이러카거든.

“오늘 지녁에 우리가 욕을 보게 됐네. 너그가 더듬어 봐라. 뭣이가 첫 손에 집히는 기 뭣이가 한 분 봐라.”

그래 더듬은께, 지자(제자)들도 봉사 이이가, 이래 더듬은께,

“버들 잎사구입니다.”

이칸께, 그래 봉사가 괘를 뺀께,

“응, 버들 유자 유복씨를 찾아가야 온 지녁을 면하겠구나.”

그러카거든. 그래 우째 찾아갔던지 밤에 찾아갔는 기라. 찾아가 유복씨 천금씨를 찾아갔어. 찾아가서 산에서 몬 내려오고 봉사가 셋이서 울어재치는 기라. 울어쌓아서 대감이 가마이 들

으이, 우는 소리가 나쌓거든.

"야들아, 뒷산에 올라가 봐라. 청룡 뒤서 울음소리가 나쌓는다. 밤에 사람이 이라는가 짐승이 이라는가 한분 올라가 봐라. 괭이 하나씩 들고 가봐라."

"예."

카고서 올라가 보인께 봉사가 서이서(셋이서)러 집을 못 찾아가주고 그날 밤에 거기서 울었어. 봉사가 지자들을 시키가 울었어. 울면 다른 사람이 듣고 안 오겠나 안 나타나겠나 싶으서 운께 그래 머슴들이 올라가께네 봉사 서이서 그라거든. 그래 내려와가주고,

"야들아, 그래 뭣이더노?"

칸께,

"예, 봉사가 서이서 대감님 집을 못 찾아서 그래 그랍디다."

이카거든.

"그래. 그렇거들랑 데리고 온나. 밤에 못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나."

그래 보이 봉사가 서이거든. 그래 데리다 앉차놓고 식사를 시키는 기라. 그래 태사들의 식사를 시키는 기라.

"예, 하겠습니다."

지녁에 떡국을 낋이 묵고, 그따다가 물로 부아 놓았던 것갑데. 이래노인께 좀 앉았다가 봉사가 점대를 짤랑짤랑 흔들디마는,

"야들이 인제 가자."

이카거든.

"대감님이 식사를 시키놨는데 갈라 카느냐?"

고 이러카이,

"식사를 시키놨는데, 죽도 아이고 밥도 아입니더."

이카거든. 그래 대감이 나왔는 기라. 나와가주고,

"밥을 하나, 죽을 낋이나 뭣을 하나?"

카이,

"예, 바뿌기 할라 카이, 그 뭣이."

이래 카거든.

"그래? 그라면 그걸 퍼내라. 퍼내놓고 속히 밥을 해라."

그래 밥을 해서 먹게 해준 기라. 그래,

"잘 묵었다."

카면서 갈라 카는 기라. 묵고나서 갈라 카이,

"자고 가라."

카이,

"예, 가야 되겠습니더. 우리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욕을 당할낍니더. 가야 됩니더."

"그래? 갈라 카거든 날로 단수나 하나 빼주고 가라."

카거든.

“그러면 대감님 단수를 빼주겠습니더.”

카거든. 그래 점대를 짤랑짤랑 흔들디마는,

“오늘 지녁에 대감님이 별세하겠습니더.”

이카거든. 죽겠다 카는 기라, 대감으로 죽겠다 카는 기라.

“그런데는 무슨 방책이 없나?”

이카이,

“방책이 있기는 있는데, 무슨 물건이라도 천냥짜리 물건 하나 없애야 그래 면하겠습니더.”

이카거든.

“그래 자고 날이 새면 가지, 왜 갈라 카느냐?”

“우리가 여게 있으면 욕을 당하니 가야 됩니다.”

그래 봉사들은 가고, 가마이 생각하이 기가 차거든, 죽구싶은 사람이 있나. 이래가주고 가마이 생각하이 ‘아무것도 천냥짜리 물건이 없는데, 내가 오늘 지녁 저 말을 직이야 된다’ 하고 활로 갖고 드갔거든. 쏘아 직일라고. 활로 갖고 드가인께 마 이것도 지 타던 사람이라고 좋다고 날뛰거든. ‘이것도 내가 타고 다니던 짐승이라고 나를 이리 좋다고 하니 이것을 직일 수 있나?’ 그래서 직이지 않고, 그래 대감에게 첩이 있고 본댁이 있고 이랬던 모양이지. 그래 본댁이 저걸 직일라고 올라갔거든. 그래 올라가이 병이 들어 앓는 기라. 그래,

“와 이래 앓아쌓노?”

이라인께,

“아이고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했디마는 늙어 이래 아프다.”

카거든. 그것도 불쌍한 기라. 불쌍해서 못 직이고 나왔어. 나와가주고 그래 첩 있는 방에 갔거든. 그래 가인께네 반갑다 카고,

“요이부자리를 펴고 자라.”

카거든. 저는 바느질을 하고 앉아 있다가. 그래,

“나는 놀다 자지.”

카고 앉았거든. 가마이 앉았어. 앉았다가 바느질하는거 들다보는데 활로 쏘아뿠어 첩으로. 등드리에 활로 쏘아논께 폭 찔린께 뒤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기라. 첩년이 중서방을 얻었던 모양이지. 중이 그 안에 들앉았다가 저 대감만 직이뿌만 우리는 그 살림을 다 차지하고 안 살겠나? 자식이 없고 하인께네, 그래 서로 짜고 대감을 직일라 했다가 첩년을 직이뿌고, 그 안을 들다보이 중이 칼로 대감을 겨누고 있다가 활에 맞아 죽었더란다. 그런 일이 있더란다. 그래가주고 부자라서 봉사들로 보답하기로 말로 한 마리씩 태아서 옷을 한불씩 주어서 저그 가져갈 만치 돈을 주어서 보내뿌고, 그래 지 살고, 첩과 중은 덕석에다가 말아가주고 못에 갖다 옇어뿌고 그래 치아뿌리더란다.[24]

24) 앞의 ‘맹인 부자의 점괘’와 내용이 같음.

[지사동 설화 20]

베짱이의 요술 풀잎과 형제의 화복

구 술 자: 배권기(남, 83)
구술 날짜: 1992년 1월 4일
구술 장소: 지사동 명동마을

참, 이거는 이전에 한 사람이가 형제간에 둘이 살았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주도 안 하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기라. 그라이께네, 동생이 세이한테 얻어 먹고 있다가 뭐 아무 것도 주도 안 하고 그냥 훗차내는데, 천상 도리도 없고 그래 후디끼 나갔다 말이다. 나가 가지고 저 양지 쪽에다 새막매이로 울타리로 하나 매고 그래 내외간에 낄이(끓여) 먹고 둘이 사는데, 뭐로 벌어야 묵고 살제. 뭐 다문 쌀이라도 팔아 묵제. 이기 뭐로 했는고 하이, 쪽지게로 하나 맨들어 가지고 소금장사를 했는 기라. 소금을 받아 짊어지고 갈라 카면, 소금이 여러 질로 여러 수십 리로 들어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놈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래 저 우로 다니며 팔고 남으면 그걸 가지고 양식 쪼매 팔아다 먹고 살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한분은 남방 유월달인데 소금을 받아 짊어지고 오인께, 그 재가 이리 넘어가면 십리고 저짝에서 올라오면 십리고, 고개 만데이에 샘이가 하나이 있는데, 샘이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 큰 둥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 그 둥근 나무 밑에 물로 좀 마시고 둥근 나무 밑에 잔디밭에 어찌 덥운지 네 활개로 퍼뜨리고 누웠다. 누워가지고 그 둥근 나무 만데이를 체라보고 누웠은께, 매미란 놈이 큰 왕매미란 놈이 '왕~' 우는데. 매미 저놈 잡아 물라꼬 베짱이란 놈이 한 놈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는데, 머언(무슨) 잎파리 같은 이런 걸 하나 물었거든. 물고 가만가만 기어가디마는, 매미 우는데 가서 매미 저놈 딱 덮치는데 잎파리 뭐 얄궂는 거 하나 지가 가져가던 그거는 '뱅뱅' 돌디이마는 이 사람 누우가 있는 입에 여 와 탁 걸치는 기라. 걸치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거어 모도 앉아 여름에 덥고 하인께,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모두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이라는데, 도시 뭐 이래 보니께 금방 사람이 하나 있더니만 없거든.

"여어 금방 사람이 하나 누웠더니만 와 없노?"

"여어 글씨 안 있더나. 있디마는 와 없노?"

저그들끼리 이래쌓거든. 그래 이놈이 풀잎파리 이놈을 살모시 주워가지고 딱 거머쥐고 옆에다 사알 재치니,

"여어 있네. 여 있네. 니도 눈이 멀었다. 니도 눈이 멀었네."

이래쌓거든. 그래쌓는데 또 살모시 입에다 무인께,

"금방 있디만, 또 없네."

"니도 없제."

"그래 없다."

카거든. 야! 요놈이 뭐 물건인갑다. 애라! 이놈 부쌈지 안에다 똘똘 뭉쳐서 딱 풀잎파리를 싸가지고 집에 가면서 소금을 이래저래 팔고 좀 남은 거는 저그 집에다 갖다 놔놓고, 그래 가인께 얄궂은 뭐 소금장사 해가지고 팔아다 놓은 그걸 밥을 좀 해가 주거든. 그래 밥을 해가지고 밥을 좀 묵고,

"오늘 지녁에는 밥을 좀 많이 해라. 많이 해가지고 그 지녁에 내가 시험해 볼 일이 있다."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든지 밥을 해라."

밥을 해가지고 지녁을 묵고. 그래 인자 얼쭈 이슥했는데, 그래 내우간에 울막 매논 거서 둘이 앉았다. 앉아서 베짱이, 매미 잡아 묵은 베짱이 널짠 잎파리 그걸 부쌈지 안에서 사알 내가지고 그래 입에다 떡 물고 있으인께,

"아이구! 어데로 갔는교? 금방 있더니 어데 갔는교?"

저그 마누래가 찾는다고 울고 이라거든. 그래 살모시 내가지고 또 사알 옆에 놓으이,

"아이구. 내가 눈이 와 이렇는교?"

"와."

"당신 여기 있는데, 와 금방 안 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와 안 뵈노?"

그래쌓는데 또 먼눈 팔 동안에 또 입에 물고 있으인께네,

"아이구. 어데 갔는교? 아이구.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와 이렇는기요. 내가 눈이 이거 잘못됐는가? 와 이러는가. 내가 큰 병신이 된 것 아인교?"

이래쌓거든. 그래,

"그럴 수가 있다."

그래 이놈을 딱 부쌈지에다 싸서 주 넣어 딱 장치를 해가지고, 소금 지고 다니는 당새기를 내버리고, 그놈이 마 빈 지게를 짊어지는 기라. 짊어지고 요즘 저 국제시장 같은 저런데 갔단 말이다. 저 부산진시장 같은 그런데 간 모양이지. 이전에는 비단, 맹지, 공단, 양단, 저 노방주같은 거 그거 한 필이며는, 한 필만 있으며는 그게 돈이 여간도 아이지. 이놈을 마 지게에다 받쳐 놔 놓고 공단, 양단, 비단 이런 걸 마 빼서, 한 지게 징가 놓고, 천지 그거 자기 집에 팔아 먹고 남는 거, 이 집에 가서도 하나 빼고, 저 집에 가서도 하나 빼고 이 전방 하나 빼고 저 전방 하나 빼고 그래 쭉 빼가지고 한 지게 모다 짊어지고 저그 집에 왔어. 몇 건도 안 해서 만석거부라.

그래가지고 집을 이자 새로 짓고, 마 참 부요하다 말이지. 부자가 됐다 말이지. 됐는데, 이놈 세이란 놈이 가마이 생각해 보인께, 아무 것도 없이 동생 그놈 훗차 내놓고, 동생이 살만 하인께 저놈우 자식이 맨 몸뚱아리로 내보냈는데, 저놈이 어데 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저놈이 얼마만치 죽있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저 지경 되면 내꺼정 못 살도록 맨들끼니까. 애래 이놈우 자슥 칼로 찔러 죽일 밖에 없다고 저 세이가 칼로 떡 한 자리 해가주고

저그 동생에게 왔단 말이지.

"동생 있나?"

카이,

"성님입니까?"

부자가 됐다 말이다. 만석거부라.

"여 들어온나."

졑에 앉차 놓고,

"니 이놈 니가 말이지 맨몸띠이로 너그 내외간이 나왔는데, 니가 이놈 맺 해 동안에 말이지 누로 이놈 찔러 죽이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됐노? 바른 말 해라 이놈. 칼로 가아 찔러 죽인다 이놈."

"성님. 그런게 아입니더, 아이고. 성님이 날로 훗처 보내뿌서 내가 여 와가지고 여 움막집 안중 저 있습니더. 그 내 부자된 움막이라고 안 뜯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어 내가 살고 있으면서 소금 장사를 했습니더. 소금을 아무 데 가 받아서 팔았습니다."

그러이 저그 세이도 알거든.

"수십 리 가야 소금을 받아가지고 팔고 이랬는데, 그래 소금을 지고 오인께 아무데 고개만데이 거게 정자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디더. 있는데, 남방 유월달에 덥어서 내가 소금을 받쳐놓고 그래 물로 한분 묵고 나무 밑에 누워가 있은께, 그 나무 거게 매미란 놈 한 마리가 그 우에서 '왕~' 하이 왕매미가 우는데, 뒤에 보인께 베짱이란 놈이 한 놈 올라가는데, 그 우째 맨드는 건지 띠 같은 그런 거로 잎파리를 물었습디더. 물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이 매미 그놈이 안 뵈이는가 우짜는가 매미로 잡아 묵습디더. 잡아 먹는데, 그 풀잎파리 그기가 널쩌 가지고 오디마는 내 입에 널찌는데 '거기에 사람이 여럿인데 그 사람 거기 있디마는 금방 없노?' 이래쌓습디더. 그래서 내가 마 이거 무슨 물건인갑다 싶어서, 그래 내가 부자들 거 내가 없는 사람 거 안 그랬습니더. 그래 마 팔아가지고 묵고 살고 이런 거, 내 죄 많은 일이지마는 십시일반이라고 쪼매 내가 한 집에 하나씩 빼 가지고 그래 팔아가 지고 알뜰히 해가지고 그래 살고 있지. 그래 내가 남의 도둑질 해가지고 칼로 가지고 사람을 찔러 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더."

"그래!"

고마 저그 집에 갔다 말이지. 가가지고 이놈이 쪽지게를 하나 맞차가지고, 지는 묵고 살면서 더 될라꼬 쪽지게로 하나 맞차 가지고 소금 장사를 시작한 기라. 지 동생 가서 받아가지고 팔고 하는 거어 대이면서 소금을 받아서 팔로 댕기네. 그래 남방 유월달 쯤 되었는데, 지 동생 말과 같이 매미가 붙어 가지고 우는데, 뒤에 베짱이란 놈이 한 놈 물고 올라가거든. 올라가디마는 그래 매미 그놈을 딱 덮쳐 가지고 잡았는데, 띠 이거는 뱅뱅뱅 돌디마는 지한테 마 널찌는 기라. 널찌는데 입에 요 걸치는데, 이 사람은 걸치는데 지는 마 요 앞에 요래 땅에 널찌는 기라. 일어나 보인까 전신만신에 그런 띠 고런 기라. 어느것이 그긴고(그것인가) 알 수가 있나 말이지. 아! 이래면 안 되겠다 말이지. 에라 이놈의 거 그 근방을 짝대기 가지고

두리빙비이하이 기리 놔 놓고 소금을 이리저리 털어서 부어뿌고, 그 안에 뿍띠기라는 건 땅만 놔두고 다 끌어넣은 기라, 그 자리(자루)에다. 그래가지고 걸머지고 저그 집에 갔다 말이다. 가가지고 이놈이 우짜는가 하면, 지녁을 묵고 저그 마누라 앉혀다 놓고 자리 저놈을 척하니 놓고 한 웅큼 내거든. 한 웅큼 내갖다 놓고 하나 물고,

"내 뵈나?"

"뵈요."

또 옆에 내 놓고, 또 하나 물고

"뵈나?"

"뵈요."

또 하나 내 놓고, 한 자린데(자루인데) 그놈이 말이지 얼마나 뵌다 할꺼고. 그러구로 밤중이 넘게 되고 하이끼네 자부름(졸음)이 와 가주고,

"뵈나?"

"뵈요"

"뵈나?"

"뵈요"

"단디 봐라 말이다. 단디 좀 봐라. 정신 좀 차리고, 시수(세수)하고 온나. 단디 봐라."

시수하고 와 보인까 자리에 저놈을 아무래도 저놈을 점두룩 저놈을 저한테 물어야 될 끼인까, 우야든,

"안 뵈요."

"참으로 안 뵈나?"

"안 뵈요"

자리 그건 뭉쳐가지고 안 보인다는 그걸 떡 부쌈지에다 옇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부산진 시장통에 간 기라. 포목점에 떠억 갔단 말야. 가가지고 지게를 받쳐나 놓고, 하나 빼가지고 지게에 징가 놔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저 하나 빼가 지게에 징구고, 저 하나 빼가 징구고. 물건 파는 사람이 보인께, 설마따나 지가 빼가 징가 놓은 그거 돈 주고 가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 빼가 징구면 징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있으이 이놈이 턱 한 지게 징구더마는, 마 짊어질라 카거든.

"와? 물건 값도 안 주고 와 짊어지노?"

"내가 뵈요? 내 뵈는교?"

"뵈고 안 뵈고 이놈우 자슥. 되도 안 되는 이 따위 소리나 하고."

들고 쌔리는 사람도 있고, 쌔릴라 카는 사람도 있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래! 너그 물건 너그 물건 다 찾아가면 안 되나! 되는데, 그 사람, 그 사람이 지 마음이 아이다, 미친 사람인데. 지 마음이 아이고 미친 사람이 그라는 걸 갖다 갊아서 그라면 되나? 너그 물건만 가가고 보내주라. 그 미친 사람 갊지 말고."

그래 마 뚜드리 맞다가, 많이 때리면 많이 맞고 적게 때리면 적게 맞고, 그래가지고 봉변

당코 빈 지게로 짊어지고 떡 왔다 말이다. 오디마는 천질 만질 뛰거든.

"니 와 날 뵈는 걸 가지고 안 뵈인다 카고 와 그랬노?"

"자리에 그거로 다 할낀데 내가 잠이 와서 안 뵌다 캤소."

"오늘 저녁 단디 잠 자지 말고 오늘 저녁엔 단디 봐라."

그래 자리를 내놓고 또 그란다 말이다. 이눔우 걸 여나무 차례 그랬어. 그라인께 이놈의 그게 나와야 뭣이 안 뵈지. 그러구로 안 뵌다 캐가지고 저 놈이 가가지고 한 삼사 차례 그래 가지고 욕을 봤어. 봤는데, 많이 남아 있거든. 저 놈을 다 하고 하나도 없이 다 하고 낱낱이 한 개씩 한 개씩 주워 가지고, 그 뿍띠기 그거 한 자리 끌어넣은 걸 다 했단 말이다. 다 해도 뵌다 카다가, 안 뵌다 카다가, 그래가지고 당코 오고, 또 오고 이랬어. 그러구로 저 놈을 떠억 자리 저 놈을 전부 다 검사 다 하고 다 봤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인자 마지막 판에 안 뵌다 카는 거는 딱 신중히 말아가, 그래가지고 이놈이,

'거기 가인께 전부 날로 눈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 때문에 안 되겠단 말이지.' 그러인께 이전에 송도 사람 물건 많이 처가 가는 그런 시장이 있어. 그리 갔다 말이지. 떡 가이, 난장에 마 폐다 놓고 저 촌에서 짜가지고 온 거, 맹지 비단 같은 거, 공단 양단 같은 거, 이런 걸 파는데, 거다 대 놔놓고 그래 마 징군다 말이다. 하나씩 빼다 징구고, 징구고, 징구는데, 우얀 미친 놈이 하나 오디마는 지게를 갖다 놓더니 말캉(모두) 갖다 징가 쌓거든. 그래 설마! 나중에 징가 놓고 돈 줄랑가 싶어서 있으이, 짊어지거든. 이놈을 양 사방에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되인께, 그 점포를 채려 놓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시장통이 되인께 객지서 와가지고 팔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되인께,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달려들어 때려쌓인께 이거 뭐 견딜 수가 있나. 그러고도 얼쭈 다 죽어가도록 맞고 그래 근근이 인성만성 해가지고 저그 집에 왔어.

그래 와가지고 끙끙 앓고 퉁퉁 부어가지고 끙끙 앓고 누웠다. 누워가 있는데 그래 그 형수가 시동생한테 가가지고,

"우째건대, 거 한 번 작은 집에 내려 갔다 오디마는 웬 뿍띠기로 한 자리 갖다 놔놓고 그렇게 욕을 보고 이래가지고, 저 뭐 몇 차례 뚜들겨 맞고 왔는데 인자 죽겠소. 죽겠는데, 저거 우째야 되겠소?"

"아, 그거는 형님이 잘몬 했지. 내가 그래 하라고 씨기지도 안 했는데, 형님이 자기 자진해서 그랜기지요. 나는 그래 하라고 안 시켰습니더."

그래가지고 이놈우 형수가 와 그러카는데, 저그는 아파 다 죽어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인자 물건을 못 채렸던 말이다. 그거는 우째 됐던 저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그 동생, 지는 잘 사는데 와 그런 짓 했노 말이야. 그거는 천지신명이 저걸, '니는 욕을 좀 봐라.' 카고 고기(그것이) 지 입에 안 물리고 밑에 땅에 널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참 이놈이 망신을 떠억 했는데. 그래 이놈이 말이지 근근이 낫았단 말이지. 낫아가지고 그러니 뭐 뚜드리 맞고 이 지경이 돼나놓인꺼네 그러구로 뭐 병환에 돈도 써야 되지. 참 뭐 계획 없이 걸배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살고 있다 말이지. 그래 살고 있는데, 농사 마지기나 짓든가 그랬든가 아침에 새북에 일찍

이 개똥을 주로 가야 돼. 개똥을 주어가 논에 옇고 이라는데, 개똥을 주로 간께, 사람이 뵐똥 말똥 하는 새북에 그때 개똥을 줍는데 보따리를 하나 머리에 인 부녀가 걸음을 근근히 걸어서 쩔룩쩔룩거리며 오는 기라. 오디마는,

"보이소예, 여기 내가 발이 부르트고 이래가주고 걸음을 못 걷겠는데 여기서 발을 좀 낫아가주고 갈란데, 그런데 없는교?"

"그라면 우리 집에 갑시다."

저그 마누래 혼차 있고 한께,

"갑시다."

그래 저그 집에 뎃고 간 기라. 저그 마누래가 본께 말이지 새북에 개똥 주로 가디마는 좋은 각시를 뎃고 왔거든. 보따리에 뭣을 한 보따리 옇은 각시를 하나 뎃고 왔다 말이지. 이직을 해줐다, 아직을 먹고 발을 본께, 전신만신 부르키가주고 처신 못 하겠는 기라.

"그래 내가요 걸음을 어째 많이 해놨던지 발이 부르키가주고 어데 가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천상 발 좀 낫거든 갈랍니다. 내가 묵는 밥값은 양식값은 드릴 것이요. 그래 내 좀 있을랍니다."

그래 이 놈이 가마이 생각해본께, 저것(마누라)만 가마이만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묻고 있으면, 그 집에 같이 살고 그것만 하면 보따리 있는거 그것만 하면 수 만 석꾼으로 있으인께 전부 그것이 금뭉팅이라.

저 사람이 우째 된 사람인고 한께 옛날 서울 장안에 약혼식을 해가주고 그 자기 시집갈라카는 총각이 죽어뿌고, 죽어뿌리고 나면 못 치아묵는다 카데, 옛날에는. 그래가주고 보물로 한 보따리 지아가지고 누구한테 살든지 안 보는 데 가 살아라고 후차뿌리서 그래서 온 기라. 금은보화를 한 보따리 이고 온 기라. 그래 두었으면 매미 우는데 풀찌꺼기 널찌는 것보다 낫을낀데, 이건 저그 마누래가 쫓았다 말이다. 있도 못하구로 하고, 지캉 같이 살거 아인께, 어떻기 만날 지랄을 하는지, 엄청나도 안 한다 말이지. 그래서 본께 자기 가장도 비단을 지고 올라고 징구다가 뚜드리 맞아가주고 이래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이 생각해보이 저 사람이 올 데도 갈 데 없고, 나를 처음 만내가주고 저래 살았는데, 이고 온 보따리에는 금은보화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저기가 날로 저그캉 같이 뎃고 같이 살거 아인께, 날로 이처럼 쪼루는데 이것은 천상 도리가 없다. 없은께 저그 마누래한테,

"보래, 저저 가가주고, 저 우에 서재 저 가면 접쟁이 혼차 돼가 안 있나? 그 젊은 사램이 접쟁이 이전에 서재 방에 이래 놔놓고 글로 갈치는 선생이 하나 있는데, 그 선생이 할맘도 없이 상처를 하고 그래 있었던 모양이라. 거기에 가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라. 그런데 있으면 갈라요?"

카인께,

"갈라."

카는 기라. 그래 선생한테 가가주고,

"선생님요, 우리 집에 좋은 마님이 하나 와 있는데, 선생님 뎃고 사이소."

"그런 사람이 내한테 와 살라 카요?"

"삽니다. 살라 카면 삽니다."

"그러면 더부다 주소."

"우리 서재 선생님이 혼차 계시는데, 거기 가서 선생님하고 사소."

"그런 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갈랍니다."

그래 뎃고 갔다 말이다. 그래 선생님한테 갖다 주이, 학생들 뎃고 공부시기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본께 어질고 순직하고 좋은 사람이라.

"내가 선생님한테 그래 있을라요."

"그래요, 당신 어데 사요?"

"나는 어데 살던지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기라. 사는데, 퇴거생(退去生)이 한 사람이가 만석금의 집을 내놓이 어느 놈이 안 사는 기라. 돈이 거북해놓이 살 사람이 없는 기라. 서울에 내직(內職)에 드갈낀데 저 집을 팔아야 내직으로 드갈낀데, 몬 팔아서 못 가는 기라. 그런 집이 하나 있는데,그걸 살라 하면 돈이 이만저만도 아인데,

"만석 거부집인데 만석 거부집이라도 살 수 있으인께 거기 가서 한분 물어보소."

그래 그 사람한테 가인께.

"대분에 사라."

카거든. 종놈꺼정 말꺼정 논꺼정 집꺼정 홀빡(온전히) 사뿠어. 그래 사가주고 이 선생님하고 들어가 종꺼정 전부 다 그 안에 든 것은 다 샀은께, 그래가주고 이 사람들은 내직에 들어가고, 선생은 그걸 사가주고 사는데, 저 마누라는 서울 어데 진사 딸이라. 딸인데 약혼식을 해가주고 그때는 약혼식을 해나놓으면 시집갈 그 총각이 죽어뿌고 나면 몬 치아먹으이 갖다 내뿌리는 기라. 지 생전에 평생 묵을 만치 이아가주고 어데 가 사든지 말든지 그래 보내뿌리는 기라. 그러구로 수십년을 산께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이런데 아들을 공부를 시기가주고 우째 됐던고 과게를 보냈어. 과게를 하러 보낼 적에,

"서울을 가며는 아무 정승댁을 찾아가면 정승이 아직 있다, 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그집부터 먼저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그래 과게 시험에 들어가거라."

그래 저거매 편지 써준 것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 정승집에 드갔다 말이지. 드간께 정승이 편지를 본께 저그 딸 글씨고 저그 딸의 행적이라. 그 정승의 딸이가 그 약혼식을 해가주고 시집갈라 카는 그 총각은 죽어뿌고 난께 몬 치아묵고 그 보물을 옇어가주고 띠아가주고 그래 보내뿠어. 그래 여기 보이 아들을 낳아가주고 공부 시기가주고 그래 저그 아바이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 그래가주고 보이, 그기 외손자이거든. 이 외손자가 등과를 했어, 등과를 해가주고 그 참 잘 됐어. 그때 외조부가 상시관이라 등과를 죘어, 그래 좋은 과게를 시기고, 이 사람들은 잘 됐는데, 저기 본께, 개똥 주으러 간 사람 마느래가 보인께네 전부 은금보화를 들고 온 복을 선생님한테 주었다 말이지. 그러구로 형세가 나빠 비단 째비러 가서 뚜드리 맞고는 오래 살 수가 있나. 그래가주고 이쪽은 망하뿌고, 그 선생님은 때가 되인께 그래

잘 되더란다.

※ 김승찬, 『녹산문화유적학술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567~573쪽.

11) 천성동 설화

[천성동 설화 1]

함안읍내 문칠네 복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함안 읍내 문칠네 복 들어봤소? [청중:그런 얘기 우째 들을 끼고.] 어데 가 복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올기요, 함안 읍내 문칠네 복이라 안 카나? 들어봤을 낀데 문칠네 복.

함안 읍내 문칠네가 어떻게 살았나 하믄 문칠이 엄마가 애로 낳는데, 이름을 문칠이라고 짓는 기라. 문칠이라고 지(지어) 놨는데, 그 문칠이가 나무로 두 짐을 해다 놔도 그날 저녁 자고 나믄 한 짐빾이(밖에) 없어. 복이 그(그것)빾이 아이라. 문칠이가 나무로 두 짐을 해다 놓으믄 한 짐빾이 없고, 좁쌀로 두 개 포개어 놓으믄 아침에 자고 나믄 한 개빾이 없어. 복이 그빾이 아이라, 못 사는 복이라.

그래서 문칠이가 '이상하다. 내 복은 이것빾이 없는가.' 싶어서, 나무로 두 짐을 해다 놓고 나무짐 속에 들어가서 따악 누우(누워)가 있었는 기라. 누우가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나무짐이 어데로 가는지 떠가는 기라. 떠가서 어데로 갔나 하믄, 저 하늘에 날라서 옥황상제에 갔다 말이요. 그래 옥황상제가,

"니는(너는) 이놈아. 우째서 여게(여기에) 왔노?"

카인께,

"하도 내 복이 작길래 나무 두 짐 해 놓으믄 하루 저녁에 한 짐 없어 지고 해쌓아서, 내가 나무 짐 속에 숨어가 있으이 이래 왔십니다."

카거든. 그래 옥황상제가 하는 말이,

"니 복은 고빾이(그것밖에) 없다."

이기라.

"그라믄 우짜믄 큰 복이 있습니까?"

카인께, 옥황상제가,
"큰 복을 함(한 번) 볼래?"
이라거든. 그래,
"큰 복을 함 봐 주이소."
카인께, 옥황상제가 문칠이를 데리고 어데 가인께 지(자기) 복은 좁쌀만한 복인데, 어데로 가인께 큰 바우띠이(바위덩이)만한 복이 있는 기라. 그래서,
"이 복은 누구 복입니까?"
물어보인께,
"그 복은 석순장자가 타고날 복이다."
이거라. 그래,
"석순장자는 우째 복이 이렇기 큽니까?"
카고 물어 보인께,
"석순장자 복은 이렇게 생긴 기라."
혼차 사는 여자가 어데서 애기가 들었는지 몰라도 지나가다가 임신을 하게 됐는 기라. 순산을 할라 하이 할 데도 없고, 요새는 그런 기 없을끼야? 어데 가믄 막을 치 놓고 지나가는 손님들이 비가 오믄 그 비로 피해 가라고 막을 지어 놨는데 막에 가서 있다 보니까 애기가 순산이 되는 기라. 할 수 없어서 애기로 낳았어. 낳아놓고 나인께, 지내가는 손님들이 보인께, 요새 같으믄 미친 여자같이 갈붓없이 해가지고 애로 놓고 누우가 있는데, 그냥 지내갈 수가 없더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거게다 돈을 한 푼 던지 주고 두 푼을 던지 주고 해서 돈이 모있는 기라. 여자가 순산 뒤에 몸이 회복돼가 보인께 돈이 쌓이가 있는 기라. 그래 그 돈을 갖다가 넘(남)을 빌리 주니까, 그 돈을 빌리 간 사람마장 일이 잘 돼. 그라인까 천 원 빌리가 이천 원 주고, 만 원 빌리가 이만 원 주고, 저그 일이 잘 돼서 돈을 꼽으로 갚으이, 자꾸 돈이 불어나는 기라. 그래가지고 석순장자가 됐어.
석순장자는 큰 복을 타고 나가지고 잘 돼가 석순장자가 됐고, 함안 읍내 문칠네는 복이 고뻬이 없어. 문칠네 복이라 카는 기 있어. 좁쌀 두 개를 포개지 못하는 복이 있어.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64~266쪽.

[천성동 설화 2]

하늘에 복 타러 갔다 온 총각

구 술 자: 주복순(여, 62)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내우간이 살다가 아들을 하나 낳고 애비는 죽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지지금(제각기) 밥을 묵고 사는데, 이 집은 지극히 몬 살아. 몬 살아가주고 나무를 한 짐 해다 놔도 하늘에 날아뿔 정도로 복이 없이 사는데, 하리는 아들이가,

"엄마, 내 복 타러 갈라요."

"어째 니가 복을 타러 갈거고?"

카인께,

"우리 엄마 입은 두둑바지(두꺼운 바지) 깨끗이 씻어서 한 불을 나를 입히서러 쌀로 두되 어데 구해 담가가주고 꼬두밥을 쪄가 날로 지아 주소."

카더란다. 그래 지고 진 진[25] 산꼴로 지는 복 타러 간다고 가인께네, 한 집엘 가인께,

"니가 어데 간다고 가노?"

이라더라네. 그래,

"어찧기 몬 살아서 복을 타러 간다."

카인께, 그래,

"우리는 자슥만 놓으믄 죽고 놓으믄 죽고 하는가 한 분 물어보고 오라."

카거든. 그래 대답을 하고, 그 집에서 밥을 묵고, 또 갔다. 가인께네, 진 진 산골짝에 한참 걸어서 넘어 가인께 홀로 있는 과부집이 있는 기라. 과부집이 있어가주고 과부집에 드가인께 참 잘 해주거든, 너무 마 여물없이 반찬을 해서 밥을 잘 해주서 묵고, 그래 이쁜 색시[26]가 하는 말이,

"나는 신랑을 얻으믄 죽고, 얻으믄 죽고 하는데, 어째서 그래 얻으믄 죽는고 한 분 물어보고 오라."

카거든. 그래 끝도 없이 가인께, 길도 없고 시퍼런 바다라. 바닷가에서 응응 우인께네 용이 한 바리 턱 나타나가주고 그래,

"니 우째서 우노?"

이라거든.

"복 타러 온다고 오인께, 끝도 없고 질(길)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 운다."

카인께, 용이 하는 말이가,

"니가 복 타러 가믄 내가 우째서 득천을 몬 하는가 물어 보라."

카고는,

"내가 델다 줄낀께, 내 귀만 뿔끈 잡고 눈만 질끔(꼭) 감고 있으믄 하늘에 복 타러 올리줄낀께, 그래 눈만 질끔 감아라."

카거든. 그래 용의 귀를 잡고 있으이, 그래 어데쯤 갔다 내라주믄서, 참 가인께 어리어리해, 드갈라 캐도 너무 무섭거든. 집도 너무나 좋고, 그래 질로 걸어서 드가인께, 참말로 몬

25) 길고 긴.

26) 구술자는 '색시'라 말하는데 사실은 '각시'임.

본 별자리들이 등걸등걸 앉아서,

"니 어데라고 왔노?"

"할아부지요, 너무 몬 살아서 복 타러 왔다."

카인께로 책장을 디지더니만,

"너그는 아무 복도 없다. 나무 두 짐만 포개놓으믄 하늘이 휙 바람이 들어서 날라뿔 복이다. 그만 가거라."

카거든.

"그러믄 부탁이나 두어군데 받고 왔으인께 부탁이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카인께로,

"말해 봐라."

"한 집에는 살림은 요부한데, 자슥을 놓으믄 죽고 놓으믄 죽고 한데 우째서 그렇습니까?"

이란께,

"그 집에는 너무 돈이 많해서러 지 집 주치돌 밑에다가 돈을 꽉꽉 파묻어놓이 돈에 사(邪)가 있어서러 자슥을 놓으믄 죽고 놓으믄 죽고 한다."

이카거든.

"또 한 사람은 더 물어 보고 가겠습니다."

카인께,

"그래 해 보라."

"한 사람은 홀로 있는 과부가 신랑을 얻으믄 죽고 얻으믄 주고 하이 우째서 얻으믄 죽느냐?"

고 물어보이,

"그 사람은 세상에 없는 여의주를 징겨야 신랑이 안 죽는다."

카더란다. 그래 또 물었다.

"내가 여게 복 타러 몬 올낀데 용이 들어서 복 타러 왔는데, 용에 업혀서 복 타러 왔는데 용이가 우째서 하늘에 득천을 몬 하는가 물어 보고 오라."

카던데,

"그놈우 자슥은 욕심이 많아서 여의주를 두 개 징긴 때문에 하늘에 득천을 몬 한다."

그래 왔다. 오이 지 내라준 그대로 용이 둥둥 떠가 있거든.

"그래 좀 갤차 도고?"

"몬 갤차 주겠다. 내 있은 자리 고게만 갖다 풀어 주믄 니로 갤차 주꺼마."

카는 기라.

"그라믄 내 귀만 잡고 눈을 질끔 감아라."

카더란다. 그래 탈탈 털고 내려와서러,

"내리라."

카더란다. 내린께 참 지 실린 자리라.

"우째서 그래 하늘 득천을 몬 한다 카더노?"

이래 카인께로

"너는 용이 욕심이 많아 여의주를 두 낱 징긴 때문에 하늘에 득천을 몬 한다 카더라."

"그라믄 내가 여의주를 두 개 징깄으이 이걸 내삐릴까 우짤꼬?"

그래,

"날로 도오."

그래 용은 여의주를 딱 주자 하늘로 득천을 해가주고 탈탈 털고 하늘에 올라가삐리고, 지는 떡 왔다. 그래 과수집에 오인께네,

"총각이요, 나는 우째 해서 신랑이 죽는고?"

물으이,

"여의주를 징긴 사람을 얻어야 당신은 평생 부부로 돼가 평생을 살겠다 카더라."

"여의주가 세상에 어데 있느냐?"

고 이란께,

"내가 징깄다."

고 이러카인께,

"총각하고 내하고 살림을 살자."

그래 살자고 연락을 해 놓고, 또 인자 왔다. 오인께 저그 모친을 만나러 가야 될거 아이가? 그래 오인께네, 또 자슥 죽는 그 집에는 가인께네,

또 그런 말을 하인께,

"아이구 우째 그래 총각이 어데서 그래 점바치인가?"

묻더란다.

"내는 하늘에 가인께 그라더라."

고 이라인께,

"정 그라믄 총각 힘대로 파가라."

카거든. 힘대로 파서 뽀똣이 지고 저그 집에 오인께네, 저거매는 죽두록 기다맀어.

"어무이요, 내 복 타가 왔습니다."

그래 돈을 가주 가서는,

"어무이요, 이거 다 짊어지고 내 따라 갑시다."

그래 돈 한 짐 하고 과수집으로 가이 그 집도 부자라. 그래 그 과수하고 총각하고 알아가주고, 참 모자간에 이 세상을 험하게 살다가, 과수집에서 호의호식하고 부자가 돼가 한 세상을 잘 살더라요.[27]

27) 求福旅行譚.

[천성동 설화 3]

손병산[28] 꿈의 해몽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손병산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아주 몬 살았는 기라. 저그 홀로 된 엄마를 데리고 사는데, 손병산라는 사람이 꿈을 꾼 기라. 과게 갈라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과게 갈 그날 지녁에 꿈을 꾸니까, 술병을 들고 가는데, 그 술병 목안지가 떨어져뿠어. 술병 목안지가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과게 가도 낙방해. 합격을 몬 한다 말이요. 그래 이상한 꿈을 꾸었다 싶어가주고 가마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꿈 해몽하는 할미가 있었는 기라. 그래 할미 집에 꿈 해몽을 하러 갔는 기라. '내가 과게를 보러 갈라 카는데, 꿈에 술병을 들고 가는데, 술병 목안지가 떨어졌는데, 분명히 내가 과게에 낙방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게에 안 갈라 카고 해몽을 하러 가니까, 할무이는 어데 가고 없는데, 그 집에 딸이 있던 모양이라. 그래서 우째 그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어제 지녁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할무이 안 계시오?"

카이,

"내가 많이 배왔으이까, 우리 엄마 하는 대로 내가 해몽을 할 거이니까 이야기해 보소."

카는 기라. 그래,

"내가 오늘 지녁에 술병을 들고 가는데, 술병 목안지가 떨어졌으이까 낙방 안 하겠소?"

카인께, 딸이 하는 말이가,

"그건 맞습니다. 요분에는 과게 시험을 봐야 낙방합니다."

카거든. 그래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검마(자기 어머니)가 왔는 기라.

"뭐 하노?"

칸께,

"온 지녁에 이 선생님이 꿈을 꾸어서 이러이러한 꿈을 꾸어서 내가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한다는 말이가 저그 딸로갖다가,

"야 이년 뭐라 카노?"

크게 대기(몹시) 나무래는 기라. 이 선생은 분명히 과게에 합격된다. 왜 합격이 되나 할 것 같으믄 술병 목안지가 떨어졌으니까 한 손을 들고 가던 술병이 목안지가 없으인까 두 손으로

28)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 다원의 밀양 손씨 가문의 孫命大의 아들 兵使 鎭民의 이야기 같다(정상박, 『전설의 사화사』, 민속원, 2000).

불 거 아이가. 두 손으로 부어주면 넘들이 우대할 기 아이가? 그래서 합격이 된다 이거라.

그래서 꿈을 갖다가 좋게 해몽을 하믄 좋아지고 나쁘게 해몽하믄 나빠진다 이거라. 나쁜 꿈을 꾸었더라도 좋게 해몽만 하믄 좋아진다는 이거라.

[천성동 설화 4]

두 효자 이야기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어느 마을에 효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크게 잘하는 기라. 그래 잘해서 동네 사람들이 날로 효자라 카는 기라.

이웃 마을에 효자가 있다 카는 기라. 그 효자는 얼마나 잘 하건대 효자 말을 듣고 있는가 싶어서 효자가 효자 집에 견학을 갔는 기라. 가보니까,

"아무 마을 아무것이라 카는 효자입니다."

카인께로 자기 엄마가,

"그래요."

"이 집에 효자가 있다 캐서 효자한테 어떻게 효자말을 듣는고 싶어서 내가 보러 왔습니다."

"사랑에 좀 앉아 있소."

캐서, 사랑에 앉아 있으인까, 효자 아들이 논을 갈고 와. 온 몸에 흙칠을 하고 왔는데, 저그 엄마가 마루에다 앉추디마는 저그 아들로 발로 씻기고 낯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이래. 그래 가마이 보니, '저렇게 하는 것이 어째 효자라 말하는고 했다' 말이지. 그래 지녁을 묵고 이야기를 했는 기라.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한테 이렇기 이렇기 잘 해서 효자 말을 듣는다. 당신은 보아하니까 당신이 논을 갈고 왔는데 당신 엄마가 당신을 마루에 앉추놓고 발도 씻기고 손도 씻기고 낯도 씻기고 하는데 우째 효자 말을 듣소."

"나는 그기 아이다. 우리 엄마는 다른기 아무것도 없다 이기라. 우리 엄마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 엄마가 빨래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손을 씻기면 씻기는 대로 낯을 씻기면 씻기는 대로 그대로 놔둔다 이기라. 그래서 이 마을에서 효자라 카는 기라."

그 소리를 들은께, 그기 진짜 효자라. 우리 엄마가 일을 하면 엄마 일하지 마소 카고 내가 할끼요 카는 것이 엄마 마음에 거스른 것이 효자가 아이라. 우리 엄마가 하는 대로 놔두는

기 효자라. 그래서 그 효자가 진짜 효자라 싶어가주고, 그래 와가주고 저검마 마음대로 손을 씻기 주면 씻기 준 대로 밥을 주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저검마 하는 대로 놔둔다. 그래서 그 효자가 효자 말을 들었대요.

[천성동 설화 5]

맹인부자(盲人父子)의 점괘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아부지도 봉사요 아들도 봉사인데,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짓길래 아부지가 봉사면 아들까지 봉사가 되었을까 싶어, 아들까지 봉사가 돼가지고 두 봉사가 짝지를 잡고 터덕거리고 지나다닐 때, 아부지 생각에 '내가 아들이 봉사고 내가 눈을 떴으면 우리 아들 댕니는데 길거리에 돌이라도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들까지 봉사가 되고 보이 한탄을 하고' 어떤 고개를 넘던 모양이지.

넘는데 그만 아들이 고개를 넘다가 돌에 채여가주고 아들이 넘어졌다 말이지. 넘어지고 나이, 그 아픈 마음에 아부지는 그 아들 가는 길가에 돌에 채여 넘어지니까 그 돌이라도 주어 대책을 하기 위해서 돌을 찾았던 모양이지.

돌을 찾으이 전부 짠디 밭이요 돌이 안 보이는 기요. 그래서 우에 됐던 찾아보이까 큰 돌이 저만치 가서 있는 기라요. 그래 돌로 주아가주고 저가부지(자기아버지)가 가마이 점괘를 잘 뽑던 모양이지. 점괘를 흔들어 만들어 보인까 '야 이 돌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주는 돌이다.'

그래서 그래 저가부지가 어떻게 해석을 했노 할 것 같으면 그 숲 풀밭에서 돌을 차있다 해가주고 숲을 임(林)자를 점괘가 나오고, 거서 잔디 밭에서 그 돌이 있었다 해가주고 풀초(草)로 점괘를 뽑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을 찼으이 돌 석(石)을 뽑고 이래가주고 수풀 임자, 풀초자, 돌 석자를 모아놓고 보이까 '임초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 이거라.

그래서 이 동네를 내려가면서 '임초석'이라고 찾아서 '임초석 집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 앞길이 열릴끼 아인가? 열릴끼 생긴다' 이래가주고 내려가면서 봉사가 짝지를 짚고 임초석이라 부르고 내려갔던 모양이지.

가니까, 그 동네에 임초석이라는 제법 그 동네에서는 잘 살고 큰 유지(有志) 말을 듣고 요새 같으면 큰 소리를 하고 그 마을에서는 어른인데, 어른 이름을 함부로 봉사가 임초석이라고 부르고 지내가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지 잡아오너라."

했다 말이지. 그래 잡아놓고,

"니가 왜 지나가면서 어른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지나가느냐?"

카인께,

"그것이 아이고 임초석을 찾으면, 우리가 오다가 여차여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점괘를 빼 보인께 임초석을 찾으면 우리 앞길이 열릴까 싶으서 임초석을 찾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점괘를 잘 뽑나?"

카이,

"예, 점괘를 그대로 뽑습니다."

그라면, 임초석이 나가가주고 하인들을 씨기서(시켜서) 그날 지녁에 '밥을 하라' 캤어요. 밥을 하는데 밥을 하믄 쫌 잘 아는 기고, '국수로 하라' 그랬어요.

요새 겉으면 국시라 카나 우동이라 카나 그걸 하라 캤는데, 지금에는 우동을 사다 하고 만들아 놨는거를 사다 하고, 삶아놨는 것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국수를 할라 하면 밀가리를 버물러가주고 그놈을 곱게 버물라서 솥 우에 걸치놓고 나무를 밟아가주고 국수를 빠지도록 해 먹는 과정이 참 힘이 든다 말입니다. 그 힘든 과정에 국수를 뽑어라 캤다 말입니다. 그래 방에 와가주고 그래 두 봉사한테다가,

"오늘 지녁 밥이 뭐가 들어오겠는고 너가 점괘를 한분 뽑아 봐라."

칸께, 그래 두 봉사가 점대롱을 잡고 점괘를 뽑는데, 아들이 좀 젊은 놈이 돼가 점괘가 빨리 나오던 모양이지.

"오늘 지녁 밥은 국시가 오겠습니다."

카이, 임초석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이 용캐도 뽑아도 잘 뽑는다 말이지. 그때 저그 아부지는 늙어 나 많은 봉사 아부지는 늙어 즈그정즈그정 점대롱을 안 놓고 흔든다 이거라. 흔들고 있더마는'

"오늘 지녁 밥은 수지비가 들어오겠습니다."

수지비국을 사투리로 위장국이라 하지. '수지비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임초석이가 국시나 수지비나 다 같은 밀가리로 핸기니까 그래 맞는 기라. 그렇지만 아들이 더 잘 뽑는다. 점괘를 잘 뽑는다 생각을 했는데, 실은 밥이 들어왔는데 본께 수지비국이 들어왔더란 말입니다. 그래 임초석씨가 그 하인을 불러가주고,

"야, 이놈들아! 오늘 지녁에 국시를 하라 캤는데, 왜 수지비국을 낋있는가?"

카인께,

"영감님, 다름이 아니고 국수를 뽑을라고 반죽을 버물맀는데 한참 버물리다 보인께 너무 질어가주고 국수를 몬 뽑겠습디다. 그래서 국수를 뽑을라고 몇번 준비를 해서 나무를 놓고 눌리봤는데 너무 질어가주고 할수없이 수지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점괘를 놓을 때는 국시 뽑는다고 한참 준비과정이고 아부지는 반죽이 지니까 이거로 국시를 만들어 볼까 수지비를 만들어 볼까 그때까지 점대롱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 때

는 그 과정이라. 그래 임초석이가 들어보이까 너무나 참 점괘가 잘 듣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지녁에 지녁을 믹이가주고,

"자네들이 이렇게 점괘를 잘 썼는데, 내 신수를 한분 뽑아 도고."

"예, 우리들이 후하게 밥 대접도 받고, 참 잘 데 없는 데 잠도 재아 주는데 한분 뽑아 보겠습니다."

신수를 뽑아보이까, 저그 아들이 점괘가 머이(먼저) 났던지,

"아부지 큰일 났습니다. 이 집에 있다가는 우리가 살인죄로 관가에 가겠습니다. 우에야 되겠습니까?"

그때 저그 아부지가 점괘를 놓고.

"야야, 맞다. 가자."

이래, 그래 인제 임초석이가 각중에 갈라 칸께 뭐라 카겠어요.

"왜 갈라 카는지? 무슨 일이 있는데 갈라 카노?"

"오늘 지녁에 우리가 화를 입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래 점괘 나는 대로만 이얘기해 봐라."

이 사람이 영리하게 잘 뽑으인까, 너무나 틀림없이 뽑으인까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 점괘 나온 대로 이얘기하라 카이,

"오늘 지녁에 있으면 우리가 누명을 쓸끼인까 영감님 오는 지녁에 천상 단명하겠습니다."

이거라.

"영감님 명이 오늘 지녁밖에 없다."

이거라.

"없는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라면 살 길이 없나?"

물어보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살 길이 있는가 없는가"

"살 길이 없는가 그걸 한분 뽑아 도고."

"예."

그래 점대롱을 흔들더마는 아부지 점괘는 어떻게 났나 하면,

"영감님! 말하기는 죄송하지마는 좋아하는 작은 할마이가 있지요?"

칸께,

"있다."

"그라면 영감님 집에 좋아하는 말이 있지요?"

"좋아하는 말이 있다."

"집에 좋아하는 개가 있지요?"

"좋아하는 개가 있다."

"그라면 서이 중에 뭐든지 하나 직이면, 영감님 대신으로 간다."

그래 가마이 생각을 해보이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믿겠는데, 너무나 잘 점을 치는 사람이 돼서 살기 위해서는 셋 중에 하나를 직이야 되겠더라 말입니다. 그래 제일 수월하게 직일 수 있는 것이 개더라 말입니다. 개를 직일라고 활을 가주고 층 밑을 찾아가이까 자기 집에서 개를 삼대를 키와 왔는데 '개복에 산다' 이런 말을 들어봤다 말입니다. 들어봤는데, 개가 나와 가주고 꼬리를 치고 주인을 핥고 이렇게 한께 직일 수가 없어가주고 그래 개를 층 밑에 옇어 놓고, 말 마구로 갔다 말이지. 자기가 타고 댕기는 말이 돼놓으이 말 마구를 열어야 캄캄한데 보지, 말은 어데 타고 갈까 싶어 웅얼거리고 꼬리를 치는데 그것도 몬 쏘겠다 말이야. 그래 할 수 없이 사람을 직이겠다 이거라. 그래 작은 할멈의 방엘 갔는 기라. 가이까 작은 할멈이 침선질을 하고 있는데, 문 앞에 가믄 그림자가 문에 안 비친다고 그래 방에서는 사람이 온 줄 모르지. 불은 켜놨으이까 그림자는 비치지. 그래 방문 앞에 가서 그림자 머리를 노려보고 쏴뿐 기라. 그래 죽었을기라 말이지. 그래 가가주고 있으이, 봉사가,

"셋 중에 하나를 직있습니까?."

"직있다."

"그래 누구를 직있습니까?"

"사람을 직있다."

그래 점을 쳐보인까, 개도 몬 직이고 말도 몬 직인 기라. 사람을 직있다 하는데 차마 직일 수 없고,

"그랬으믄 그 활살이 어데 꽂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라. 그래 사람은 반드시 죽었는데,

"반드시 꽂피기는 정조준해서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쐈는데, 머리에 꽂혔으이, 가서 확인을 해보라."

카이, 그래 가인께, 작은 할멈이 눈이 둥그래가주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 말이지. 그래 활살을 본께 그 집에 큰 궤가 있었는데, 궤속에 꽉 꽂쳐 있는 기라. 그래 활살을 쭉 빼보이 피가 묻어 나오는 기라.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궤짝 문을 열어보이 궤 안에 간부 요새 겉으면 자기 애인이겠지. 간부가 들앉아가주고 임영감이 오늘 지녁에 오믄 임영감을 없애뿌리고 살림을 요새겉으면 전부 등기를 맨들아놨겠지, 그래가주고 둘이 도망치기로 약속이 돼가 있는 기라. 임영감이 그날 지녁에 잤으면 대문 끼라 주믄 완전이 살림을 자기 앞으로 맨들아놨으인까 도망가 살낀데, 그날 지녁에 해필 봉사 둘이 온 바람에 임영감이 살고 간부를 잡고 임영감이 생각해볼 때 '이 사람들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으인까 이 살림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을 주어야 싶어가 한 만 석 하던 살림을 한 오천 석 갈라서 너가 오천 석 가지 가고 내가 오천 석 한다' 이랬는데, 사람 복은 천 석을 하라면 천 석을 하는가 오천 석을 주뿌맀는데, 또 오천 석이 불어가 만 석을 그대로 하고 살았대요.

[천성동 설화 6]

염라대왕의 명판결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김영호라는 할아부지가 살았어요. 그 할아부지가 아주 활량(閑良)이요. 활량인데, 이 동네 안 살고 옛날 분절 사람인데 저승을 한분 갔다 왔어요. 저승을 갔다왔는데, 그래서 그 영호라는 할아부지가 저승을 갔는데 이 활량 할아부지가 여자 관계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래 죽어 저승을 가니까 염라대왕이 불러가주고,

"내가 듣자 하니까, 천하에 몹씰 야 이놈, 니가 김영호인가?"

물어보더래요.

"예, 그렇십니다."

하이,

"내가 듣자 하니, 니가 여자 관계가 그렇기 많다 카는데 몇 명이나 디노(되느냐)?"

물어보거든. 그래서 할아부지가,

"예, 천 명 딥니다."

이라이, 그래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니는 여자 관계가 천 명 디모 적신(積善) 많이 했다 이거라. 여자 한 사람한테 한 냥썩 치더라도 한 천 냥은 씼을 거 아이가? 돈을 많이 씨고 죽었을 거이까 니는 이승으로 가가주고 살다가 다음에 부르거든 저승으로 오너라."

보내줬어. 깨보이까 자다가 일났는 기라. 울어서 야단이라 죽었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울어서 야단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 카인께, 이웃이 할매들 여자들 남자들이 딜다보러 왔다 말이야.

"그래 우째 살아왔습니까?"

카인께,

"나는 저승 가이께 이런 이야기를 염라대왕한테 한께 보내주더라."

이라인께, 그 이웃집에 남자 관계가 많은 여자가 하나 있은 기라. '옳지, 나도 죽으믄 염라대왕한테 이라믄 안 디겠나' 싶었어. 그래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는 기라.

"야 이년, 듣자 하니 천하에 몹씰 아무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카인께네,

"니가 남자 관계가 그렇게 많다 카이 몇 명이나 디노?"

물어보이,

“예, 나도 천 명 딥니다.”

“저년을 지옥으로 잡아 옇어라.”

카거든. 왜 지옥으로 옇어라 하믄. 남자 한 사람한테 한 냥썩 빼뜰라(빼앗아) 무었다(먹었다) 하믄 천 냥을 빼뜰라 무었을 거 아이가? 너는 모진 죄를 지었으인까 지옥으로 가라.

그 길로 가서 곧 올 줄 알았더니, 안중(아직) 안 왔어요.

[천성동 설화 7]

지렁이로 눈 뜨게 한 효부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한 사램이 집이 가난해가주고 저그 아내로 저그 봉사 엄마를 맽기놓고 벌이로 나갔는 기라. 그러이 빼빼 콜콜히 몰란(마른) 봉사 씨어머이가 저그 메느리를 보고 만날 고기가 묵고 싶다 하는 기라. 그래 고기가 묵고 싶다 카니께 고기는 없고 할 수 없어가주고 메느리가 밭가에 가서 지렁이를 파가지고 만날 그 놈을 고아서 봉사 씨어머이로 주는 기라. 그 놈을 고아 주니께 맛이 있고 해서 자꾸 묵으니께네 마 붓듯이 살이 찌는 기라.

그래 봉사 씨어마이가 맛 있는 이 고기가 무순 고기인지 몰라가주고 자기 아들이 오믄 한 번 보이야지 싶어서 고기국을 묵을 때마다 고기 건데기를 하나썩 건져가지고 삿자리 밑에다 옇어(넣어)놓고 옇어놓고 핸 기라.

그래 저그 아들이 돈을 벌라고 돌아댕기도 벌 데가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오니께 저그 엄마가 딴 사램이 돼가 있거든. 살이 퉁퉁 붓듯이 찌가 있고 얼굴도 부해(훤히 해)가 있거든. 그래 저그 엄마를 보고,

“아이구 엄마요. 우짠 일로 이래 살이 쪄가 있습니꺼? 내가 돈 벌러 갔다가 돈도 못 벌고 왔습니더.”

카이께네, 봉사 어마이가,

“야야, 니(네) 나가고부터 자부가 얼매나 날로 고기로 때때로 줬길래(주었기에) 내가 이리 살이 쪘다.”

이러거든. 그래,

“어떤 고기를 줍디꺼?”

카니께네,

“야야 안 그래도 니 오믄 뵐라고 이 밑에다가 고기를 모아놨는데 한 번 봐라.”

그래 아들이 삿자리를 히떡 디비이께(뒤집으니까) 지렁이가 쑤북 했는 기라.

“아이구 엄마, 꺼시(지렁이)입니다.”

“어! 꺼시가?”

하문서 놀래가주고 눈을 퍼뜩 떠뿠어. 그래 인자 저그 엄마 눈 떴제, 또 잘 믹이가 살찠제. 그런 효부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42~243쪽.

[천성동 설화 8]

바보사위와 호박범벅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한 바보가 장가로 갔어요. 장가로 갔는데, 장가로 가서 저그 마누래가 얼마나 좋았던지 첫 걸음을 갔는 기라.

첫걸음을 가인께, 사우 첫걸음왔다고 호박범북을 쒔는 기라. 호박을 가지고 쌀하고 여가지고(넣어서) 죽을 낋이 놓으면 덜큰하이 맛이 있구마는. 호박범북을 낋있는데, 그날 저녁에 호박범북을 그륵(그릇)에다 떠주는 거로 체면한다고 마이(많이) 못 묵었어. 그래 바보가 묵고는 싶은데, 남가(남겨)놨다가 저녁에 저그 마누라한테 좀 줄라 카지 싶어서 못 묵고. 저녁에 잘 무렵에,

“저녁에 묵은 호박범북 그거 좀 없나?”

카인께,

“마이(많이) 있십니더. 갖다 드릴까요?”

카거든. 그래,

“놔 두라, 어데 있노?”

카이,

“부엌에 가면 있다.”

이거라. 그래 부엌에 갔어. 저그 마누라가 갖다 주면 작게 갖다 줄 기라고.

“부엌에 내가 가서 묵고 온다.”

카면서, 밤에 깜깜한데, 부엌에 가가지고 얼매나 묵었던지, 숟가락도 나쁘고 손을 가지고 한참 퍼묵다 보이까, 배가 불러. 그래 배가 차이까 저그 마누라 생각이 나거든. 옳지 마누라 좀 갖다 주야 되겄다 싶어서 손에다 한거(가득) 떠가지고 마누라 방이라고 문을 열고 드갔던(들어갔던) 모양이지. 드가인께(들어가니까), 해필(하필) 저그 마누라 방에 드갔으면 괘않을 낀

데(괜찮을 것인데) 저그 장모 자는 방에 드갔던 모양이라. 드가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저그 장모 꼬장주 밑을 그마 입인 줄 알고 밑구녕에 대고,

"아나 묵어라. 아나 묵어라."

이래,

"아나 묵어라. 아나 묵어라."

이래 캐쌓고 있을 그 때, 저그 장모가 자다가 고마 우째 돼가 방구를 푸욱푸욱 끼인께, 죽 이놈이 퍽 퍼진께,

"안 뜨겁다 불지 말고 무라(먹어라)."

카거든.

"안 뜨겁다 불지 말고 무라. 안 뜨겁다 불지 말고 무라."

그래 저그 장모가 자꾸 옆에서 축축한 게 있는데,

"안 뜨겁다. 불지 말고 무라."

해쌓이, 이상하다 싶아서 그래 일나(일어나) 보인께, 이 뭐 얄궂은게 와가지고 이 뭐 대놓고 야단을 지기쌓인께, 그래서 이상하다 싶아서 벌떡 일나서 장모가 잡는다는 게 저그 사우 귀를 잡았던 모양이라. 잡고, 딸 이름을 불렀던 모양이지.

"아무것이야!"

부르인께,

"예, 어무이 와 그라십니꺼?"

한께,

"여기 와 봐라. 이 뭣이 이상하다."

카거든.

그래 해필 저그 집에 개로 키왔던 모양이라.

그래서, 저그 마누라가 가마이 와서 퍼뜩 생각해보인께, 이상하다 싶아서 부엌에 가보이, 저그 남편이 없고 방에 드가인께 저그 남편이라. 그믐 밤에 봐도 제 낭군은 안다고.

그래서 저그 집에 개로 키왔는데, 개로 부르인께 쫓아오거든. 그래서 퍼뜩 와가지고 저그 남편 귀로 퍼뜩 빼고 개 귀로 잽히(잡혀) 놨는 기라(놓았는 것이라). 잽히 놓고 있으인께, 저그 남편은 갈 거 아이요(아닌가)? 겁이 나가 살짝 좇아 도망을 가뿠는데, 그래 저그 인자 딸이 와서 본께, 어무이가 개 귀로 잡고 있는 기라.

"아이구, 야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내가 설사를 했는갑다."

이기라. 이제 그걸 호박범북인 줄 모르고, 내가 설사를 해가지고 이랬는갑다 이라인께, 고마 개 귀를 놓으인께, 개가 쫄쫄 다 빨아 무뿠는 기라(먹어버렸는 것이라). 그걸 확인하기 전에, 개가 다 빨아 무뿠어. 그래 지금까지도 저그 어무이는 호박범북을 갖다가 설사핸 똥인 줄만 알고 있었지.

그래 저그 어무이는 죽고 나서 저승에 갔는데, 호박범북을 설사핸 줄만 알고 죽었는데, 저그 딸이 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알았지.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안중(아직)까지도 호박범

북을 설사한 똥인 줄로만 알낀데, 저그 딸이 그 이야기를 해가 알았다요.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43~245쪽.

[천성동 설화 9]

소를 바꿔 탄 사돈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사돈간에 소로 팔게 됐어. 딸네집 사돈도 팔 소를 몰고 소로 타고 시장에 나오고, 사우집 사돈도 팔 소를 몰고 소로 타고 시장에 나와서 소로 팔게 됐는데, 사돈끼리 오랫만에 시장에서 만내놓이끼네 얼매나 반갑소?

"아이구 사돈, 참 오랫만입니더. 우리 술 한 잔 합시더."

그리 됐다 말이지. 사돈끼리 모이가 소 팔 줄도 모르고, 해가 지도록 술만 마싰는 기라. 마시다 보이끼네, 술이 이 사돈도 한 잔 되고, 저 사돈도 한 잔 됐는데. 집에 갈 때는 지 집 소로 타고 가야 할 낀데, 소로 바까 탔던 모양이지.

해가 지고 어둡아짔는데, 딸네집 사돈은 사우집 사돈 소를 타고, 아들네집 사돈은 며느리집 소를 바까 탔는데, 소는 지 집을 갈 꺼 아이요? 지 집을 갔는데, 해가 어둡어지가지고 소는 마구에다 매놓고 방에 드가 잤는데, 자고 아침에 날이 새서 문을 열고 마당을 보이끼네, 이상하게도 시집간 딸이 마당을 쓸고 있는 기라. 아이 큰 일 났다 싶아서 그때사 정신을 차려보이께네, 딸네집 씨어마이 방에서 자고 있었는 기라.

그래 메누리가 보이께, 자기 씨어마씨는 옆에 안중(아직) 자고 있고. 그래 큰 일 났어. 그래 저그 딸이 하는 말이,

"아이구 아부지 우짠 일입니꺼?"

하이께네,

"야야, 이미 나는 이래 됐건마는 우리 집은 우째 됐는고 모르겠다."

이거라. 지는 술에 취해 그냥 잤는데, 우리 집에는 우째 됐는고 모르겠다 이거라.

그래 그런 이야기도 있다요.[29]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45~246쪽.

29)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에서 펴낸 『야담과 설화』(2002)에 나오는 '過飮之失'과 거의 같음.

[천성동 설화 10]

옳게 가르치기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한 외삼촌이 결혼을 했는데, 삼 년이 돼도 애기를 몬 낳았어요. 애기를 몬 낳았는데, 저그 외삼촌이라 카는 사람이가 장난끼가 있는 외삼촌이 있어.

그래 한 놈이 장개를 가는데, 외삼촌한테 결혼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충 물어보이, 외삼촌이 하는 말이 어떻기 하느냐 하면,

"니는 결혼을 해가주고 결혼 첫날 밤에 주는 대로 묵어야 되는다. 주거든 사양 없이 주는 대로 묵어야 되지, 사양하면 잘 몬 산단다. 주거든 주는 대로 받아 묵어라."

그래 결혼을 떡 하고 나이, 술을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낼거 아이요. 주는 대로 얼매나 받아 묵었던지 그 날 지녁에 아(신랑)가 한분에 똥을 싸고 잤는 기라. 잤는데, 가마이 생각해보이 저그 외삼촌이 저한테 속있다는 생각이 들던 모양이지. 그래서 저그 외삼촌 처가집도 한 동네라. 외삼촌도 한분 골릴(놀릴) 수밖에 없다 생각해가주고 외삼촌한테 갔는 기라.

"외삼촌요!"

"와"

"외삼촌은 우째는고 장개를 가가주고 아를 하나 몬 놓는다고 외삼촌 처가집에서 고자라고 야단이더라."

이거라. 그래 우째 고자라고? 생각해보인께 고자가 아인데.

쪼매 있으인까 신랑이 외삼촌 처가집에 와 가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했나 하면

"우리 외삼촌이 장개를 가가주고 처제들 처수들 온 처가집 식구를 모아놓고 자미있게 놀이도 안 시켜주고 있다고 크게 마음이 상해 있다고 외삼촌이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 오늘 점두록 잘 놀다 갔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외삼촌 처가집에서 술을 담가놓고 처제들 처수들을 전부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잘 노는데, 그래 그날 지녁에 노래를 씨기봐야(시켜보아야) 할 거 아이요?

"그래 이 사람아, 언간(어연간)하거든 한분 내봐라."

하거든. 저그 처제들도

"형부 한분 내나 보소."

저그 처수들도,

"아주버이, 한분 내나 보소."

뭐를 내나라 하는 줄을 모리고 고자라 카는 그거 내놓어라 카는 줄 알고 바짝 약이 오르는

기라. 술은 한 잔 묵었고. 그래 일어서디마는 옷을 착착 벗디마는,

"이래도 고자냐고."

카며 휘휘 내 두르거든.

그자를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 사람을 속일라 하면 지가 당하는 것이고 누굴 속일라고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큰 봉변을 당하는 법이요.

[천성동 설화 11]

술 못 먹는 사위 보기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사우를 볼라고, 제일 술 몬 묵는 사우를 볼라고 [구술자: 술을 보이 생각이 나요]술 몬 묵는 사우를 볼라고 술 안 묵는 사우를 챙기는 기라. 그래 술 안 묵는 대회에 열어가주고, 그래 얼매나 술을 안 묵어야 그집 사우가 되겠나. 그래서 사우될 사람이 서이가 선을 보러왔는데, 그래 장인 될 사람이 첫 사우감을 불러서,

"자네는 술을 얼매만치 한고?"

물어보이,

"예, 나는 술을 입에도 몬 댑니다."

입에도 몬 대, 술을 입에도 몬 대믄, 그 놈은 술을 많이 몬 묵거든. 조금 댄다 카믄 몰라도 입에도 몬 댄다 카믄 술을 몬 묵는다 카이 이놈 댔다(되었다) 싶은데, 그래 또

"당신은 얼매나 술로 묵노?"

물어보인께,

"나는 밀밭에도 몬 갔니다."

카거든. 술을 입에도 몬 댄다 카는 놈보다 밀밭에 몬 가겠다 카는 놈이 술을 더 몬 묵는 기라. 그래 그 놈을 사우로 삼아볼까 생각하는데,

"자네는 술을 얼매만치 묵노?"

카이, 그만 넘어지고 야단이라.

"자네는 와 그렇노?"

카인께,

"나는 술만 들으믄 취해서 캅니다."

그래 말로 들었지. 그래가주고 그 놈을 사우로 봐놓이까, 둘(장인과 사위)이서 술을 한 동이를 다 마시뿌리더라요.

[천성동 설화 12]

남자의 오기(傲氣)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저그 부자간에 밥을 묵는데, 저그 아부지 밥은 많이 담아주고, 쪼매난 애 밥은 작기(적게) 담아주고 이란 기라. 아부지 밥은 밥도 많이 쌀밥을 담고, 애 밥은 밥도 쌀밥도 아이고 밥도 작기 담는 기라.

그래 저그 아들이 있다 한다는 말이가,

"엄마, 와 내 밥은 작기 담고 아부지는 많이 담아주노?"

"너 아부지는 해 주거든."

카거든. '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믄, 일을 해 주고 이란께 밥도 많이 주고 많이 믹이야 우리를 믹이 살릴거 아이가 저그 엄마 말의 뜻은 그기지.

"너그 아부지가 해 주거든."

카거든.

저그 아들이 있다 하는 말이가,

"엄마, 나도 해 주꺼마. 밥 많이 담아 도고."

이라거든. 저그 아부지가 그 말 듣고 말거 아이가.

"이놈 뭐라 카노?"

카거든. 아들인께(에게) 그라인께, 저그 엄마가 한단 말이가,

"그만 시끄럽소. 아가 하믄 얼매나 할끼요?"

카이께,

"남자 오기(傲氣)가 안 그렇다."

이라거든. 그만 참으믄 될건대 서이가 똑 같을거 아이가? 서이가.

[천성동 설화 13]

옥녀봉(玉女峰) 전설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거제도에 옥녀봉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아부지가 딸로 하나 키우는데, 자기 엄마는 없고, 딸로 하나 키우는데, 딸의 인물이 너무 이뿐 기라. 딸을 키우면서 딸에 탐이 났어.

그래 하루 지녁에는 할 수 없어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지. 이야기를 한께, 저그 딸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부녀간에 있을 수 없는 기라. 짐승이 아인 이상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기라. 그래서 저그 아부지를 보고,

"아부지요, 아부지가 그런 마음이 있으믄 내가 옥녀봉 봉우리에 앉이 있을낀께 아부지가 걸어오지 말고 기어오라 이거라. 짐승이니까 '엄매 엄매' 소 울음을 울고 기어오믄 내가 아부지 요구를 들어 주겠습니다."

카는 기라.

아마 저그 딸은 아부지는 그러지 못하지 하고, 옥녀봉 우에 가서 탁 앉아 있으인까 그 안날 저그 아부지가 기어오면서 '엄매 엄매' 하고 딸을 쳐다보고 올라오는 기라. 저그 딸이 어떻겠어요. 거게서 치매를 둘러 씨고 옥녀봉 봉우리에서 떨어져 죽어뿠어.

그래서 그 봉우리가 옥녀봉이라고 지어놨다요.[30]

[천성동 설화 14]

까마귀와 홍합(紅蛤)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까마구라 카는 동물이 영리해요. 영리한데, 우리 동네 옥우네라는 사람이 있소. 아해 이름이 옥이면 보통,

"옥우네 옥우네"

이래 부르거든. 부르는데, 옥우네라 하는 처이가 밭을 매고 있으이께, 까마구가 거게 묵을게(먹을 것이) 있든가 옆에 와서,

"옥우네 옥우네 옥우네."

우는 기라.

까마구 소리는 요래 들으면 요렇고, 저래 들으면 저렇다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호미로 가아(가지고) 가서로(가서) 까마구를 후쳐 놓고 나이께, 또 옆에 와서,

30) 구술자는 거제도의 옥녀봉이라 하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蛇梁島의 옥녀봉 전설이 광포설화로 전승된 듯싶다. 1994년에 「사량도 기층문화」의 현지 조사 때 사량도에서는 혼례의식에서 교배례가 빠지는 이유는 옥녀봉 전설과 유관하기 때문이라고 현지인은 말하였다.(부산일보 1994.8.1. 참조)

"옥우네 옥우네."

우는 기라.

그런데, 그 까마구가, 영리한 까마구가, 봄철이 되면 묵을 기 마이(많이) 없어요. 봄철이 되면 바닷가를 훨훨 날라가이께, 바닷가에는 밀물과 쓸물(썰물)이 있어요. 쓸물 때 물이 쭉 빠지믄 홍합이라는 담치, 이놈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안에 보인께 바알가이(빨갛게) 해가 있어. 맛이 있어 보이. 그래서 부리를 가지고 꼭 쪼았어. 안에 알 그 발간 거를 묵을라고 꼭 쪼아 보인께, 담치가 건드리면 입을 딱 오무리뿐다 말이지. 입을 오무리뿌인께, 부리를 몬 빼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근근이(겨우) 부리를 빼가지고, 까마구가 생각하기를, 야. 까마구는 산중에 사는기지 바닷가에 와서는 안 되는 기다 싶어서 산중을 훨훨 날라가이까, 그때 참 과년한 처이(처녀)가 봄이 되고 하이께, 나물을 캐로 산에 와가지고 나물로 캐다 보이까, 산중에는 아지랭이가 끼고 마음은 뒤숭숭하고 해서 고마(그만) 드러누우가지고 하늘로 쳐다보고 있으인께, 그때는 치매가 올라 갔는지 꼬장주우가 벌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기라.

그래 까마구가 날라 가다 보인께 담치가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더마는 산에도 담치가 있어. 그 영리한 까마구가 착각을 했는 기라. 그걸 담친 줄 알고 그래 날라 가면서 우째 우나 하면,

"또 물래, 또 물래, 또 물래."

카고 울고 가는데, 그것이 무슨 소린고 했더마는 그 영리한 까마구가 담치하고 그거하고 착각을 하고,

"또 물래, 또 물래."

카는 걸 보인께, 담치하고 그거하고는 닮은 모양이라. 닮은 모양인데, 안중(아직)까지 닮았다는 말만 들었지, 내가 비교는 몬 해봤어요, 같이 놔 놓고.

그 영리한 까마구가 착각을 한 걸 보면, 담치하고 그거하고 얼마나 닮기에 그러하겠노?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46~247쪽, '까마귀의 울음'.

[천성동 설화 15]

형수와 누룽지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시동생하고 형수하고 저그 형님하고 세 식구가 사는데, 시동생을 만날 누룽지만 주어. 저그 형님은 좋은 쌀밥만 주고 저그 형수는 고 밑에 것을 묵고 지는 만날 누룽지만 주어. 요새도

그런 형제간이 있을 거야. 그래 저그 친구간에 모여가주고,

"우리 형수는 만날 누룽밥만 담아준께 누룽밥에 엉기가 나서 누룽밥을 몬 먹겠다."

이기라. 술도 많이 묵으믄 맛이 없거든. 아무리 좋은 음슥이라도 만날 그것만 먹으믄 맛이 없어.

"그래 너그 형수는 누룽지만 주나."

"만날 우리 형수는 누룽지만 담아 준다."

"그러믄, 누룽지를 먹기 싫으믄 내일 아침에 내가 가거든 변소 안에 앉아 있어라. 변소에 앉아 있으믄 내가 가서 '임마 좇 크네' 카거든 '와 좇 크네' '우리 형수가 누룽지를 먹이서 좇 크다' 캐라."

그래 다음날 친구가 가서,

"아무것이야!"

칸께,

"여 있다."

"야 이놈 좇 크네."

카거든.

"그래 좇 크다. 우리 형수가 만날 누룽밥만 줘서 내 좇이 안 크나."

그때 형수가 부석에 있었던 모양이라. 들어보인께 '우리 형수가 누룽지를 줘서 좇이 커, 옳지 좇을 키울라 카믄 누룽밥을 줘야 되는 갑다' 싶어, 그 안날부터 저그 시동생을 누룽밥을 안 담아 주고 '여자가 좇도 커야 복이 있는가' 만날 저그 형만 누룽밥을 주는 기라, 좇 크라고.

[천성동 설화 16]

성기 큰 남녀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자지가 얼마나 커가지고 장개를 못 가봐. 맞는 기 있어야 장개를 가지. 몬 가는데, 옛날 여자가 구영이 얼마나 넓었던지 맞는 데가 없어 시집을 몬 갔어.

그래 신문 광고를 돌리는데, 강원도 어데에 큰 여자가 하나 있은 기라. 경상도에 큰 남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강원도에서 큰 여자가 신문에 났는 기라. 둘이 딱 맞아.

그래서 경상도 남자는 강원도에 올라가고, 강원도 여자는 경상도로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저 태백산 산골짜기에서 만났던 모양이지. 산골에서 만나가주고,

"여보시오, 당신 어데 가요."
물어보이, 경상도 남자도 찾아간 기라.
"나도 강원도 어데 있는 여자를 찾아가요."
"그럼 내하고 같소."
그래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라믄 우리가 같이 만났는데 잔치를 해봐야 할거 아이요."
"잔치를 할라 카믄 돼지 잡고 날을 정해 잔치를 벌리야 되겠는데."
그래 둘이서 어떻게 의론을 했는가 카믄, 여자로 태백산 산골 구석에 가서 치매를 벌리고 앉아 있어라 이거라. 치매를 벌리고 앉아 있으인께 남자는 자지를 내가주고 꼭대기에서 휘두르는 기라 휘두른께 노루, 돼지, 사슴이 막 뛰어서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기라. 들어가다 본께 치마 아래 얼마나 뛰들어 갔던지 그걸(女根) 오마가(오므려가지고) 내려왔는데, 서른 세 마리가 들어가 있어. 얼매나 큰지 몰라. 그래 서른 세 마리를 잡아가주고 잔치를 벌리가주고 국을 낋이서 잔치를 했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서른 세 마리를 잡아놨으인께 손님이 얼마나 오겠소?. 그래 손님을 앉출 데가 없어. 앉출 데가 없어서 이놈(필자 주; 남자의 자지)이 커놓인께 들어내가주고 두리두리 펴서 앉찼어 먹고, 거기에다가 국을 낋이가 대접하는데. 해필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낋인 국을 쏟은 기라. 쏟아놓은께 그놈이 벌떡 서뿠어. 서고 나이까네 가운데 앉은 사람이 공중으로 튀어 석달 열흘만에 내려왔으이 끈티(끝)에 앉은 사람은 더 높이 튀어 올라갔으니 언제 내려올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도 공중에 있는지 모르지.

[천성동 설화 17]

가난한 사람과 천년 묵은 지네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한 집안이 얼매나 가난했던지 할 수 없어가 남자가 아내로 보고,
"내가 나가서 우리 묵고 살도록은 벌어가 올끼니까 너그꺼지(너희끼리) 살아라."
카고 집을 나갔어. 나가다보니까 비가 청대로 내리 쏟는데, 피할 데가 없어가 할 수 없어서 바우 틈에 가서 비로 피하고 있는데, 그때 웬 여자가 그 비로 쪼르르 맞고 바우 틈을 비피하러 들왔는 기라. 들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가 남잘 보고,
"당신은 우에서(어찌해서) 어디로 가는 손님이요?"
카고 묻는 기라. 그래 남자가,

"나는 묵고 살 길이 없어서 어디든지 가서 돈 벌어가 자슥 새끼들하고 묵고 살라고 이래 나왔십니더."

카이,

"그래요? 그라믄 내 따라 갑시다."

"그래, 따라가믄 우리 자슥이 묵고 살 길이 생깁니꺼?"

"내 따라가서 내 씨기는(시키는) 대로만 하믄 묵고 살 길이 생깁니더."

이러는 기라.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자 따라서 밤에 어데로 지위없이(지향없이) 아주 깊은 산 중으로 드간다 말이라. 드가니께 아주 큰 대궐이 있는 기라. 그래 문 앞에서 여자가,

"여봐라."

카니까 종들이 나와서,

"예."

카고는 문을 끼라 주거든. 드가니까 대궐 안이 참말로 좋는 거라. 그래 대궐 안에서 인자 가가주고 그 이쁜 여자하고 큰 대궐로 지니고 같이 살림을 사네.

그래 하루는 이 남자가 여자헌테,

"내가 집에 한 번 가봤다 와야 되겠는데?"

칸께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집안은 내가 다 살 조치하고 있으니까, 집안 걱정하지 말고 살아도 됩니다."

카는 기라. 그래도 이 남자는 그 말을 못 믿겠다 이기라.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는 기라. 여자가 보내믄서 부탁하는 말이,

"이 집에 돌아오거든 문 앞에 와가주고 '여봐라'카믄 종들이 나가서 문을 끼라 줄끼니까큰 소리하고 들어와야지 살짝 들오믄 안 됩니다."

카는 기라. 꼭 이 부탁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기라.

그래 남자가 인자 저그 집에 와서 보니까 큰 부자가 돼가 살고 있는 기라. 그러이 그마 그 여자헌테 가기 싫은 기라. 인제 잘 사니까 가기 싫은데 안 가믄 안 될끼다 싶으고, 또 우째컨대(어찌 하길래) 돈을 그래 마이 저그 집으로 보내주는고 싶어서 한 번 볼 밲이 없다 싶어서 그 집에 가가주고 고마 '여봐라' 안 카고 사알 드갔어. 드가가주고 문틈으로 드디(들여다)보니까 큰 지니(지네)가 배람박(벽)에 붙어가지고 눈물로 뚝뚝 빠주고 있는 기라. 그래서 도로 나가가주고,

"여봐라."

카니께 아무도 나오는 기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어가 혼자 드갔는 기라. 드가서 문을 척 여니께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믄서,

"왜 당신은 내 씨기는(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꺼? 내 씨기는 대로 했으믄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내 씨기는 대로 안 핸 때민에 우리는 끝장입니더."

카는 기라. 그기 천년 묵은 지넨데, 이 남자가 그래만 안 했으믄 그 큰 지네가 화해서 사램이 될 수 있는데, 이 남자가 얏봔(엿본) 때민에 다시 지네가 됐다 이기라. 이 남자가 여자

이야길 듣고 잠을 잤는 기라. 자고 아척(아침)에 일라 보인끼네 큰 바우 우에서 지(자기)가 잠을 잤거든. 그 큰 대궐도 간데 없고 바우 우에 잠을 잤더라 말이다.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그 옆에 가니까 작은 바우들이 마이(많이) 있는 기라. 작은 바우들을 디비(뒤집어)보이 지네 새끼들이 오글오글한 기라.

그래가주고 인자 여(여기) 안 살아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그 집에 와 보니까 저그 집은 쑥대밭이 돼가 있고, 아내캉 자슥도 없더란 기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47~249쪽.

[천성동 설화 18]

꿈으로 출세한 머슴

구 술 자: 김기일(남, 57)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어느 머슴이 살았는데, 그 머슴이 머슴들끼리 모이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한 개씩 하게 돼 있는데, 김 정승 집의 머슴은 이야기를 한 개 했는데, 박 정승 집의 머슴은 이야기를 안 해. 그래,

"네도 온(오늘) 저녁에 임마 이야기를 한 개 해 봐라."

카니까,

"나 언(어제) 저녁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 못 하겠다."

이거라.

"그래 무슨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못 하노?"

이래.

"그래 넘우(남의) 이야기만 따먹고 이야기 안 해 되겠나? 그래 이야기 하라."

카는 기라. 그래,

"언 저녁에 좋은 꿈을 꾸긴 꾸었는데, 이야기는 못 하겠다."

이거라.

"이 자슥아, 네는 넘의 이야기를 따먹고 이야기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거라.

"그래도 너거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다."

이거라.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전부 모이가지고 그놈을 나무하러 갈 것 같으면 지게를 뿌루고(부수고) 매로 매이(매우) 때렸는 기라. 때리노니까, 그 놈이 저그 집으로 갈 거 아이가? 가가지고, 박 정승의 집에 가니까,

"야 자슥아, 와 울고 오노? 나무도 안 하고."

하이께네,

"오늘 이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했더마는, 날로 이래 패서왔다. 지게도 뿌루고 매를 맞고 왔다."

이러거든. 그래 박 정승이 전부 불렀는 기라. 불러가지고,

"야 이놈들아, 그렇다 해서 내 집 머슴을 이리 때렸노?"

이라이,

"그래 언 저녁에 이놈이 좋은 꿈을 꾸었다 카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한개씩 하게 돼 있는데, 좋은 꿈을 꾸었다 카는데, 꿈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팼습니다."

카이께네,

"그래 네는 무슨 꿈을 꾸었길래 꿈 이야기를 안 했노?"

이라이께,

"내가 꿈을 꾸었지마는, 꿈 이야기를 못합니다."

카거든,

"임마 꿈 이야기 해 보라."

카는 기라.

저그 집 주인이, 정승이 꿈 이야기를 하라 카는데도 못 하겠다 카는 기라. 그래서 정승이 화가 나서 그놈을 옥에다가 구금을 시켜놨는 기라. 시켜놓고 있으이께, 그래서 가만이 생각해 보이께 너무 억울해.

내가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안 했다 캐서 날로(나를) 갖다가 옥에 넣어서 가두나 싶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이께, 밥을 주는데, 밥을 먹을라고 가만이 들고 생각하고 있으이께, 너무 억울해서 밥이 입에 안 넘어가. 눈물을 뚝 빠주고 있으이께, 그때 족제비란 놈이 배가 얼매나 고팠는지 지나가다가 밥을 탁 털쳐 가삤는 기라. 그래서 얼매나 화가 나가지고 다음에도 밥을 주면 이래겠다 싶어서, 다음에도 밥을 받아가지고 딱 손에 들고 있으이까, 또 족제비가 탁 털쳐 갈라 카는데, 족제비를 탁 때려 잡아뿌렸어. 그래 족제비가 죽어가 있을 거 아이요? 잡아서 옆에 놔놓고 복수했다 싶어서, 그 안날(다음날) 오면 밥을 먹지 싶어서, 가마이 누워가 있으이, 다른 족제비란 놈이 오디마는 무슨 풀잎을 가지고 와가지고 뱃구멍에 대고 슬슬 언때니(문지르니) 족제비가 살아가는 기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족제비가 가는데 풀잎을 뺏들은 기라(빼앗은 것이라). 그 풀잎을 뺏들어가 있는데, 그 때 인제 석방이 됐는 기라. 석방이 돼가지고 나와 있으이께, 그때 임금의 딸

이 해필 죽었어. 딸이 죽었는데, 딸로 살릴 사람이 있으면 내 사우로 정한다 카는 광고를 내놨는 기라. 내놨는데, 이놈이 가마이 생각해 보이께, 이 풀만 가지고 있으면 안 살리겠나 싶우는 기라. 그래서,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했다 말이야. 그래,

"네가 우째 살리노?"

카이께,

"내가 살릴 수 있으니께, 나를 딸 방에만 넣어 달라."

이기라. 그래서 죽은 딸 방에 들어가가지고 족제비와 같은 행사를 했는 기라. 뱃구멍에다 얹어다 놓고 풀잎을 비비니께 딸이 살아났어.

그래 딸이 떡 일어나본께, 자다가 일어났는 거 같은 기라. 꿈을 깨고 떡 일어나보이까 할씬(홀딱) 벗고 뱃구멍에다 무엇을 얹어놨는데, 지(제) 몸은 이미 허락했는 기라. 허락했으니까, 저그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고 하면,

"내 몸은 이미 저 사람에게 허락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결혼을 시켜주소."

캤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딸한테 결혼을 했어.

그래고 그때 또 대국에서 왕의 딸이 죽었는 기라. 그래 인제 광고를 내 놓으이까 조선국에서 임금 딸로 살렸다 카이께네, 그 사람을 불러 들이라 캤는 기라. 그래 그 사람이 풀잎을 가지고 대국에 가서, 대국의 왕의 딸을 그와같이 해가지고 살렸다 말이야. 살리고 나니까, 그 딸도 역시 살아나가지고,

"내 몸을 이미 허락했으인까, 그 사람을 내 낭군으로 삼아야 되겠다."

했다 말이야. 낭군을 삼고 나니까, 우리 조선에 있는 왕의 딸도 그 어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공을 갚을까 싶어가지고 큰 꽃밭을 맨들어가지고 화원에다 구경을 시키고, 대국에 있는 왕의 딸도 큰 꽃밭을 맨들어가지고 그 꽃밭을 구경 시키고, 세상에 없는 오만(온갖) 꽃을 심어 놨는 기라. 심어 놨는데, 그날 꽃밭에 서이서(셋이서) 같이 놀러를 갔어. 꽃밭 구경을 실컷 하다 꽃밭의 바우(바위)에서 놀게 됐는데, 바우에서 누워 있다 보인께 스을 낮잠이 들었던 모양이라. 잠을 자고 나더마는 무릎팎을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진짜로 좋은 꿈을 꾸었다."

이기라. 그래,

"꿈 이야기를 해 보라."

카이께,

"그 꿈 이야기는 못 하겠고 지금 꿈 이야기는 못 하겠고, 이미 지나간 꿈 이야기는 내가 하꾸마."

이기라. 그래,

"지나간 꿈 이야기는 어떤 꿈을 꾸었소?"

카이께,

"내가 잠을 자니까 한 다리는 달에다 걸치고, 한 다리는 해에다 걸치고 잠을 잤는데, 그 꿈 이야기를 안 했더마는 달에다 걸친 다리는 왕의 딸을 데리고 살고, 또 해에다 걸친 다리는 대국의 딸을 데리고 산다. 그런데 요번에 꿈꾼 이야기는 못 하겠다."

이기라.

그 꿈꾼 이야기를 못 하고 죽어뿠어. 그 꿈은 어떤 꿈을 꾼는지 몰라, 지금도.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50~253쪽.

[천성동 설화 19]

근친상간 이야기

구 술 자: 박상호(남, 41)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오래비도 되고, 그래가 한이 맺히가지고 고마 죽었다고 카는 얘기가 있어요.

요(여기) 뒤에 가믄 성(城)이 있어요. 성 밖에 과부 한 사람이 살았는데, 외동아들을 두고 살았어요. 이 과부 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 오다가 고개 너메 한 부잣집 딸을 보고 상사병이 걸맀는 기라. 혼자 된 홀어머니 거렁뱅이 자식이 부잣집 딸을 보고 상사병이 걸리가지고 집에 와 착 들어누웄는데, 그 어머니가 아무리 물어도 알키(아르켜) 주지도 않고, 하루 이틀 하다가 영 죽게 다 돼갔는 기라. 그때사,

"엄마! 사실 아무데 부잣집 딸을 봤는데, 내가 천상(천생) 장가 안 가고는 못 살겄소."

이리 됐는 기라. 그래 가만이 생각하니까 홀어머니 된 어미 입장에서는 참 걱정인 기라. 텍도 없는 저 부잣집에서 딸을 줄리도 만무하고. 그래가지고, 어미가 용단을 내가지고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기라.

"내가 그 집을 그 규수 집을 찾아가서 말하니까, 그 규수가 대뜸 당신 아들 원을 들어 줄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캐. 그라고 그 규수가 하는 말이 지금은 달이 밝으니까 안 되고, 보름만 있을거 같으면 캄캄한 그믐밤이 될 테니까 그때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믄 문만 열어줘, 그러구 내가 갈 직에는 옷을 보얀 소복을 하고 갈테니까 묻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남이 들을까 싶어 겁 나니까 문만 열어줄라 카더라. 그라고 니가 병만 낫우믄 니가 나무도 많이 해서 돈을 벌믄 둘이 도망을 가믄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어짜겠노? 카더라."

그래 보름이 지나 그믐날 밤이 된 기라. 과부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기라. 그래 문을 열어주고 들어왔는데, 뭐 말 한마디 없이 정사로 치뤘다고.

그러고 난 뒤 이 총각은 병이 낫아 열심히 나무를 하는 기라. 그래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데, 한 달 두 달 한 일곱 달쯤 돼서, 이제 제법 돈이 모였는데, 혼자된 자기 어머니의 배가 좀 불룩해지는 기라. 그래 이 총각이 걱정인 게, 내가 인자 얼마 안 있을 거 같으믄 부잣집 처녀를 데리고 돈 보따리를 가지고 도망을 가 잘 살텐데, 자기 어머니가 아를 뱄단 말이야. 이래 되다보니까 도저히 남의 처녀를 데리고 도망도 갈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총각이 고만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는 자기나름으로 도망을 가뿠는 기라. 아 밴 어머니를 한탄할 수도 없고, 자기 신세도 뭐 그리 한탄 못하고 해서, 일 년 이 년 그러다보니 십구 년이 지냈다 말이요. 그때사 총각 꿈이 깨지는 기라. 아하 그때 그 여자가 와서 나한테 몸을 준 기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내 병을 곤칠라고 그래 했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 후회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총각이 살던 곳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없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살던 집도 절도 없고, 옛날 부잣집 딸은 벌써 시집가서 아들 두서넛 놔 갖고 잘 살고 있고, 그래 고향마을 앞에 있는 다리목에 왔는데, 다리목 가에 그때 마침 주막집이 하나 있더라고. 에라 그 뭐 어머니도 못 보고 그라이 술이나 한 잔 할거라고, 그래 인자 주막집에 가서 술을 한 잔 할라고 하는데, 보이, 귀때기가 새파란 처녀가 술장사를 하고 있는 기라. 그래 니도 한 잔 내도 한 잔 해쌓다가 술이 좀 취하인께 그 뭐 거게서 또 뭐 그기 이루어지삐린거라. 하룻밤 자고 나인께 인자 처녀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소?"

카인께, 그래 인제 총각이 십구 년전 얘길 쭈욱 했는 기라. 그러인께 이 처녀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언젠가는 너의 오래비가 올텐께 이 다리 목을 건너갈 텐께 틀림없이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캐서 이렇게 됐다."

카더라. 그래 보인께 이건 뭐 남편도 되고, 자기가 자기 어머니하고 저질러가지고 놓은 딸도 되고, 또 아버지도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이가 다리 밑에 빠져 죽었다고.

빠져 죽은 걸 그 부잣집 양반이 자기 딸 때문에 신세가 그래 됐다 해가지고, 마을 뒤 고개 위에다가 묘를 써주었다 캐. [구연자 웃음]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66~268쪽.

[천성동 설화 20]

양자와 친자의 제사

구 술 자: 김중환(남, 64)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한 정승이 중국으로 사신을 가는데, 한 삼십 리 산골 길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길은 언청 멀고 그래 물어서 산길을 가니까 날이 어두웠어. 그래 한 산골에 들어가니까 불이 빤한 기라. 그래 그 집에 가서

"주인 계십니까?"

이라인께, 대답을 안 해. 또,

"주인 계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해,

"주인 계십니까?"

물으니까, 아주머이가 나오는 기라. 산골에 혼차 사는 기라. 그래 인자,

"십 리나 가믄 좋은 집도 있고 여관도 있는데, 여기에는 산중에 여자 혼차 사는 집이라서 안 된다."

"하여튼 하루 지녁, 내가 오늘 먼 길을 왔으인까 지금 더 갈 수도 없고 사람이 사는 인가(人家)에 왔으니까, 잠깐 처마 밑이라도 자고 갈 수 없느냐?"

사람 사는 집에 와가지고 말을 하이,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 없는기거든. 그래 단칸방인 자기 방에 모신 기라. 그래 한 방에 자는데, 그래 자면서 여자를 끌어 땡깄던 모양이라. 그래 자고 가는데, 여자가 관계를 했으니까 주소와 성명을 묻는 기라. 대답을 안 하고 가버린 기라. 그래 여자가 열 달 배설러 머슴아를 낳은 기라. 머슴아를 낳았는데, 아부지의 주소와 성명을 모르인까네 찾아 갈 수가 없는 기라. 그래 아는 커가주고 옛날 겉으믄 서재를 보내서 글로 배워 공부를 한께 아무리 해도 애비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 이 아는 글도 좀 배우고 천자문도 배우고 명심보감, 소학, 대학도 배우고 아인께네, 자꾸 저그 아부지를 묻는 기거든, 저그 엄마한테. 그래,

"아부지가 어디 계시냐?"

묻는 기라. 그래,

"너그 아부지는 없다."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

"옛날에 내가 혼차 있는데, 밤에 와서러 그런 사람을 대해 주었는데. 내가 주소를 물으인까 평다리를 해서 두 다리로 해가 갔다."

"그래요?"

그래 인자 자기 본마누라가 아무도 없어요. 없고, 영감하고 살다가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다가 와서 살다가 죽어빘어. 돌아갔는데, 제우(제사)를 모시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사신 가기 전에 형의 아들이 하나 있어서 양재(양자)를 들이놨는데, 그래 양자가 제우(제사)를 모시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우를 모시는데, 제우를 모실라 카믄 정신도 들이고 목욕도 하고 제물도 크게 장만하는데, 제우를 올릴 때, 할마이가 가마이 앉아 보믄 양자의 마누라는 옛날에 종부인 기라 옷을 척척 거지(걷어)가주고 와서 밥을 해주고 제우를 지내고는 밥을 담아 가거든.

저그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그 와가주고 저그 집 문턱에서 제우 모시는데 드갈까 말까 하이 할마이가 가마이 생각하이 이상하거든. 영감이 발을 문턱에다 올렸다 내렸다 그래 쌓다가 가삐리거든.

그러구로 몇 년 지냈어요. 몇 년 지내가주고 있는 차에 한 분은 산골에 혼차 있다가 영감이 사신으로 중국에 드갔다 나온 것을 아들이 공부도 잘 하지요 글도 많이 배우고 하이 식견이 나고 그래서 저그 아부지를 찾고, 저그 어무이도 사정을 알아보이 아무데 산다는 걸 알았어. 그래 죽은 영감(편자 주; 사신 갔다온 사람) 집 근처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어, 그래 살았어.

한편으로 그래 인자 그 모자가 우두막 집을 팔고 오기 전에, 할마이가 제우를 모시는데, 가만이 보이, 남편이 마리에 올라 방에 들올라 카다가 가삐거든. '옳지, 오늘은 내가 청상(꼭)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 죽은 남편 뒤를 밟아 가인께, 비단관복을 하고 산골로 가는데, 쭈욱 숲 속으로 가다보인께,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쏙 들어가거든. 그날, 해필 자기 제우 모시는 그날, 그 집에서도 제우를 모시는 기라. (필자 주: 산골의 여자와 그 아들이 수소문해서) 알아논께, 제우를 모시고, 영감이 드가서 딱 앉아서 제우를 받아가 먹고 가삐리거든.

그래서 이 할마이가 그 꼴을 보고 와가주고 이런 사정인데, 그 사람이 그래 그 집 밑에 집을 지아가 있는데, 그래 하루는 제우가 다가와서 모시는데 보인께, 죽은 남편이 양 집에서 제우를 모신께, 몬 먹고 가거든. 양집에 지내니까 그렇는 기라. 그래서 보인까, 처음에 음식을 양자의 아부지가 앉아서 제사를 받아 묵고 나가거든. 그래 본할미가 알았어. 알아가주고 그래 그 이유를 물은 거라.

"당신네들은 어떻게 어떤 일로 그래 되었느냐?"

이래 물으니까,

"나는 옛날에 영감이 죽고 살림을 사는데, 중국에 사신으로 가믄서러 밤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고 갈 때 주소와 성명을 물으니까 안 갈차주고 가더라. 그리고 열 달 있으이 머슴아가 낳았다 이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을 알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가 공부를 하고 그래 옛날 무슨 일이 어째 됐다는 것을 쭉 알아가주고 그래 이 집을 짓다 이거라."

그래, 자기의 조카인 형의 아들(양자)은 살림을 태아 내보내고, 그리고 죽은 남편의 아들은 데리다가 아들로 삼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성동 설화 21]

술 나오는 묵화(墨畵)

구 술 자: 김중환(남, 64)
구술 날짜: 1985년 8월 11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김씨하고 최씨하고 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도 같이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놀면서 이야기도 하고 바둑도 뚜고 장기도 뚜고 이래 하다가 헤어질 때는 김씨가 최씨에게 꼭 탁주 한 잔씩 대접하고 보내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 말이다. 그래 그러구로 저러구로 하루에 술값이 십 원이라도 한 달에 삼백 원이 아닙니까? 그래 자기 마누라나 부모 보기에는 미안하거든. 자꾸 돈을 주고 사가 오고 심부름 시키기에도 미안하고 살림이 축이 나니까.

그래서 김씨 친구가 정신을 집중해가주고 묵화라는 그림을 그렸어. 술잔 두 잔 놓고 술병 하나 놓고 저(箸)를 두 모 놓고 딱 기리서 자기 침실 우에 딱 옇어가주고, 그 날부터 묵화에서 술이 나오는 기라. 그래 친구를 보낼 때는 이 친구가 말만 하면 인물 좋은 처녀가 나와가주고 술을 접대하고 나갈 때는 빵끗 웃고 나가는 기라.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닫고 나가는 기라. 그래 나가는데, 이 최씨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묵화에서 나온 줄 몰랐거든. 또 묵화가 있은 줄도 몰랐고, 그 술이 최씨 입에는 짝짝 붙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에는 누이동생도 없고 처녀도 없고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고 술을 먹고 가서 한 숨 자면 좋거든. 그래 오기 싫어도 자꾸 오는 기라, 술 묵으로 인제.

그러구로 댕기는데 하루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친구야 자네한테 한 분 물어볼 말이 있다."

"뭣이냐?"

"전에는 친구한테 신세도 많이 끼치며 젊은 날을 보냈는데, 근래 와서 그 술을 묵으니까 입에 짝짝 붙고 여하튼 술이라 카면 그걸 묵고 나면, 이 세상이 요지경이다. 왜 그렇노?"

"말 필요가 없다. 주는 대로 묵고 마시고 가면 된다."

그러구로 몇 년 흘렀어요. 그래 나중에 간께,

"내 머리 우를 봐라."

머리 우를 보니까, 과연 요만한 네모판에다가 술잔 두 낱하고 술병 놓고 안주 놓고 저 두 모를 딱 놨거든.

"거게서 나온다."

이기라. 또 그러구로 둘이가 반년 지나갔다. 그래 최씨 친구가,

"저거 내 줄 수 없나?"

"안 된다."

이거라.

“내가 너그 집에 와서 맨날 니한테 폐를 끼치고 할라 칸께 미안코, 내가 술을 묵어보니까 입에 짝짝 붙고 나는 그것만 묵으면 세상이 좋고 돈도 필요 없다.”

이거라. 친구가 친하니까 주면서 말하되,

“내가 주기는 준다. 주는데, 니가 내 말을 허용 안 하고 내 말을 귀엽기 듣고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으면 절대 안 준다.”

카거든.

“그래 하겠다.”

“이 술은 태평주인데, 이 묵화에 나오는 처녀가 내 혼이다. 내가 정성을 들이가주고 너를 대접하기 위해서 기리가 놨는 긴데, 이 묵화 술을 오늘 묵고 또 두 번 다시 묵화에 청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이 나를 못 본다. 그런 뜻이니까 니를 못 주겠는데 내가 준다.”

“그것을 맹서한다.”

그래 주는 기라요. 그리 몇 년을 흘러갔는 기라. 그것만 오늘 아직에 묵었다 카면 내일 이 직에 깨는 기라. 세상이 더 좋을 수가 없는 기라. 돈도 필요 없고 마느라도 필요 없고 한 잔 묵었다 하면, 누우자면 그 시에 일어나거든. 이렇는데 하필 묵화 기린 김씨라는 사람이 운명이 고때뿐이라요.

그래 한 번 묵고 나이께네 아침에 묵었는데, 그 안날 깰낀데, 묵은 그날 지녁에 해 다 지기 전에 잠이 깨있다 말이다. 두 번 째 부르니까 전에는 오면 인사하던 그대로 쌩끗이 웃고 갖다놓고 나가는데, 그날 두 번 부를 때 사색(死色)이라. 죽었는 거 한 가지라. 그래 가고 난 뒤 김씨 친구가 죽어뿠어. 그래 ‘하! 친구가 그걸 기억했구나, 내가 두 번 묵어 사고가 났다.’ 그래 저그 친구네 집에 가이, 곡소리가 진동한단 말이다.

[천성동 설화 22]

코바위 전설

구 술 자: 박연이(여, 67)
구술 날짜: 1991년 10월 13일
구술 장소: 천성동

코바위가, 전부 그쭉(그쪽) 바위들은 다 코겉이 생겼거든. 그렇는데 그 복판에 거게 보면, 총각바위라고, 크게 이렇게 짝바리(똑바로) 이래 인물도 좋게 섰어. 총각바위가 두 낱이 따악 날라이(나란히) 거지(거제도)를 보고 섰지. 거지 이물섬을 보고 있는 거라. 거지 이물섬을 보고 있는데, 그 거지 이물섬에 또 처녀바위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쭉 총각바위를 보고 저쭉 처녀바위에서 병이 나는 거라. 사한병(상사병)이나. 그라면 그 마을 그쭉 처녀들이 사한병이 나는 거라. 사한병이 나가지고 미쳐가 죽고 죽고 해서, 그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쭉에 와가지고 코바위, 총각바위 한 개를 뿌싸뿠지(부수어 버렸지). 그래 지금 뿌싸뿌고 없어. 그기 전설이라. [채집자: 총각바위를 부수고 나니 어찌 되었습니까?] 뿌수고 나니까 그쭉 처녀들이 그렇게 심하게 사한병이 나지 안 해.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4~205쪽.

[천성동 설화 23]

성북동 부잣집이 망한 이야기

구 술 자: 박연희(여, 67)
구술 날짜: 1991년 10월 13일
구술 장소: 천성동

동두말, 거제(거기에) 등대가 있었거든. 해군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들어갈라 하이, 거게 너무너무 좋은 자리거든. 그래 옛날에는 가덕 성북동에서 아주 부자지. 아주 부자고 인물도 좋고 잘 사이께네 면장을 했어. 그 아들들꺼정 인물이 좋았는데, 그때 인제 일본놈이 싸움(제2차 대전)을 할 그때에 해군들이 거기에 들러가게 되니까 천상(어찌 할 수 없이) 그 끄티이(끝)에 모(묘)를 파내라 했는 기라. 그 면장의 아부지가 그 자리에 묻히었는데, 파내라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모를 파 내니까, 따까리(뚜껑)를 딱 띠이(떼니) 그렇더란다. 김이 동시리(옹달시루) 겉이 나더마는 먼데서 보니까 김이 동시리 겉이 나더니만 학이 두 마리 파악 날아가더라 안 합니꺼?

그래고 나서는 그 집안이 망해지는데, 어째 그래 많은 살림이 망해지뿌리는지 그 부잣집에 모 파고 나서, 저그 할배 모 파고 나서 집안이 망하질라 카니까, 집에 보릿대 그걸 쳐 안 잽니까(쌓습니까)? 한 비까리썩. 그래 재는데, 큰 업이 있더랍니다. [채집자: 그 업은 무슨 업이지요?] 배암, 구리인데, 귀가 달리고 엄청나게 크더랍니다. 암놈 숫놈 두 마리가 있는데, 그래 그 집 머슴들이 언제나 봄이 되면 보릿대를 소 밑에 옇고(넣고) 거름 와 안 합니까? 보릿대 두 단씩을 꼭 놓아 두더랍니다. 업이 딱 그 밑에 들앉아 있는거라. 그 짐승이 어디로 안 가고.

그런데 그 집안이 망할라 카인께네, 한해 봄에 머슴이 마키(모두) 두 단씩 놔 두고 보릿대를 낫으로 처윽처윽 쳐넘기다가 해필이사 배암을 차악 쳐 넘깄다고 안 합니까? 그때 엄청나게 커놔 놓으이, 어데다가 처리를 못해 가지고 웅덩이에다가 갖다 내버렸답니다. 그래고 나이

한 마리가 귀가 달린 기 뒤따라서 담을 타고 나가더랍니다.

그라고 나서 그 집안이 망하는데 몽땅 망하더랍니다. 그 집안이 망할라 카이 그래 되는 거라요. 가만이 놔뒀으면 (채집자 주: 업을 가만히 두었으면.) 뭣 때문에 그래 되겠습니까? [채집자: 묘 파고 그뒤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모 파고 그 뒤에 봄에 보릿대 그것을 파 널면서 머슴이 업을 직이뿌서(죽여 버려서) 그렇게 된 거지요. 집안이 안 될라 카이 그래 된 거지요.

그런데다가 뒤뿐에사(뒤에) 이야기를 들어본께네, 그 부자가 새바지(地名)로 고기 낚으러 가 아까네 곱상한 궤가 한 개 떠내려 오더랍니다. 아주 곱은 궤짝이, 바람에 떠내려 오는데, 영판(꼭) 돈궤짝 겉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고기를 낚다가 궤짝을 건졌답니다. 돈궨가 싶어서 건져가지고 바당(바다)에 놔놓고 저그(자기) 집에 와가지고 바지기(바지게)를 지고 가서 그걸 얹어 지고 저그 집에 와서 헤치니께 무당옷이 싸악 들어가 있더랍니다.

옛날 큰 무당들 큰머리 찌고 청용 황용 씌고 그렇게 부치(부채)들고 굿하던 거 안 있습니까? 그 물자가 몽땅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 질(길)로 일이 우측좌측 그렇게 망하뿌리는 거라. 그걸 다부(다시) 갖다 내삐리도(내버리도) 안 되는 거라. 그래가 집 뒤에다가 삿갓맨처로(삿갓처럼) 해서 모시 놔 놓고 쌀도 갈아 옇어(넣어) 놓고 그래쌓았데. [채집자: 그 집에서?] 예. 그기 무당 인자 귀신이라는. 귀신 모시놨는 기라. 그래 안 돼요? 거게 누가 들어가도 안 되는 거라요. [채집자: 그 부잣집이 주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놨네요?] 예. 결국 혼이 말키(모두) 따라왔으이 그걸 갖다 내삐리 봤자 안 되는 거 아입니까?

집안이 망하이꺼네 혼을 집 뒤다가 모셔놨데. 뱀 그래삣지. 그런 것도 들와서 그라지. 우째서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망할라 카인까네 자꾸 그런기 들이닿는 기라. 그래 살림만 가거든 아무 앙물(怏物)없이 가라 카는기 그것 아입니까? 그런기 모질시 눈에 띠고, 또 가(가지고) 오고 할 것이 뭣입니까? 고만 그런데서 깨뿌디리(깨어) 봤으면, 아이면(돈궤짝이 아니면) 내삐리빘으면 또 어떨란가 모르지만 그놈을 집에꺼정(집에까지) 지고 오고 그기 무슨 보물 덩거리라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라도 바당에 그런 궤짝 잘 안 줍거든.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5~207쪽.

[천성동 설화 24]

범여섬 전설

구 술 자: 박연희(여, 67)
구술 날짜: 1991년 10월 13일
구술 장소: 천성동

범여라 하는 섬은, 가덕섬에 범이 있는데. 가덕섬 산신령이 어떻기 세든지 밥을 안 줘. 밥

을 안 쥐서 헤여나가다가 엎어 죽어서 된 것이 범여랍니다. [채집자: 밥이라면 사람은 밥이 안 됩니까?] 예. 옛날에는 산신령이 사람을갖다가 범 밥으로 줬다 안 그랍니까? 범 밥이 되면 호지끼(虎食) 간다고 안 그래쌓습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산신령이 세가지고 범이 들오고 돼지가 들와도 묵을기 없어 떠나게 되는 기라. 그래산신령이 누(누구)를 묵어라, 이렇게 사람이라도 누를 잡아 묵어라 카는 명령이 있어야 범 밥이 될긴데, [채집자: 산신령이 범에게 누구를 잡아 먹어라 명령해야 범 밥이 비로소 생기는 모양이지요?] 그렇지. 사람이 호지끼 가는 것이 그렇다 아입니까? 산신령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범이 잡아먹지 범이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 먹습니까? 그래서 범이 밥이 없어 배도 고프고 해서 가덕섬을 떠나면서 거지(거제도)로 가다가 엎어져 죽어서 된 것이 범여섬입니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07~208쪽.

[천성동 설화 25]

좀시래기 이야기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5일
구술 장소: 천성동

좀시래기 이야기를 하겠는데, 옛날에 좀시래기, 요새 같으면 구두쇠라 칼까요. 이런 집안에 어느 여자가 시집을 갔던 모양이라. 가인께 자기 시아버지가 큰 며느리한테 타이르기를,

"손님이 오거든 안주로 내놓을 때, 만일 김치를 썰어서 내놓을 때는 아주 잘게 썰어서 내놓아라."

카는 기라요. 그래야 손님이 주아(주워) 먹다 주아 먹다 지지기(지침)가 나서 많이 못 먹고 가라고. 그래 잘게 썰어 내놔라(내어 놓아라) 카는 기라요. 그렇게 큰며느리한테 시키놨는데, 둘채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손님이 왔다고 그것을 교육을 못 시켰더마는 손님이 온께 김치를 온 포기를 갖다 놨는 기라요. 자기 시아버지 시엄마가 보니까 간이 뚝 떨어지는 기라요. 온 포기를 갖다 놔노이. 그래 손님이 와가지고 간 뒤에 작은 며느리를 불렀어.

"야야 이랴가지고 너가 살림을 우째 살 것고? 너그 형님하는 거 뽄도 안 봤나?"

카인께네,

"아부지, 형님 하는 기 잘 하는 깁니까? 내가 하는 기 잘 하는 긴지 내 얘기 한 번 들어보이소."

이거라.

“형님은 짠지(김치)를 쪼매끔 짱글어(잘라) 놓으면 손님이 먹고 가지마는, 온포기 갖다 놓은 거는 젓가치(젓가락)만 건딜라서 이리 뒤비다가(뒤집다가) 저리 뒤비다가 하나도 못 먹고 갔습니다.”

이거라.

“그래 맞다. 니가 살림을 여물게 산다. 니라야 살림이 되겠다.”

그래 살림을 작은며느리한테 맽겼다 말이지. 맽겨 놨는데, 하로는 작은며느리가 아침에 방에 누워 있으니까 새우젓 장사가,

“새우젓 사소. 새우젓 사소.”

외고 가는 기라요, 그래서 큰 그륵(그릇)을, 옛날 같으면 함배기(함지박), 큰 그륵을 가아(가지고) 나가서,

“한 그륵에 얼마요?”

물어보이, ‘얼마라.’ 카거든.

“여(여기) 몇 그륵 부어보소.”

카인께네, 몇 그륵 퍼부었는 기라요.

“이거 얼만데요?”

카인께네,

“그래 얼마요.”

카인께네,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라.

“이라면 못 사겠소.”

카고 그 젓을 다부(다시) 그륵에 부우(부어) 주고,

“돈도 없고 너무 비싸 못 사니 다음에 오소.”

카고, 보내고 그래 돌아와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국을 낋이면서 그 큰 그륵에 젓을 문쳐놨으니까 좀 묻은거 씻거 옇고(넣고) 국을 낋있다 말이지.

그날 아침에 시어마이가 국맛을 보인까 국맛이 좀 달라. 이거 간장만 옇고 낋있으면 안 그럴낀데 뭣이 비렁내(비린내)가 나고 조금 색다른 맛이 나더라 말이지. 그래서,

“야야, 오늘 아침에 국맛이 이상한데, 국을 우째서 이리 낋있나?”

카인께네, 그래,

“새우젓 장사가 지내가길래 내가 꾀로 내가지고, ‘몇 되 부우 봐라.’해가지고, 다부 부우주고 그걸 씻어 옇고 국을 낋있다.”

카인께네, 저년 저거 사람 안 되겠다 이거라.

“그걸 야야, 하로 아침에 우째 다 낋이노? 그 놈을 씻거가지고 장독에다가 부었으면 우리가 일년은 무울(먹을) 거 아이가? 그 아까운 걸 하로 아침에 다 묵나?”

그래 그 꾸중을 받고, 시아바이가 밖에 나갔는데, 시아바이가 오면 하소연을 하면, 시아바이는 그래도 '참 니가 꾀가 용하다. 잘했다.'칼거 아이가 싶어서 삽짝에 서가 있으인께, 시아바이가 삽짝에 들어오다가,

"야야 여기 뭐 하노?"

카인께,

"아부지 오늘 아침 국을 내가 이런 이런 꾀를 내가(내어서) 국을 낋있더마는 어무이가 날로 살림 잘못 산다고 쫓가냅니다."

카거든.

"쫓가내기만 쫓가내. 그놈을 씻거가 우물에다 부웄으면 몇 년을 무울낀데."

카더라요. 시아바이가 좀 더하던 모양이지.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27~230쪽.

[천성동 설화 26]

압록강 옹기장사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옹구장사가 옹구짐을 지고 옹구를 팔로 나섰는데, 압록강 근처를 갔던 모양이지. 압록강 근처에서 옹구를 짊어지고 가는데, 바람이 각중에 돌풍이 불어가주고 옹구짐에 옹구를 뿌사뿠어. 그 근처에 사또님이 하도 유명하다 캐서 사또님한테 옹구 값을 변상하러 갔디마는 그래 사또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그라믄 니가 하도 기특하기에 내가 변상을 해 주꾸마."

어떻게 변상을 하느냐 하믄, 돌풍은 동쭉 바람과 서쭉 바람이 마주쳐야 돌풍이 일어나는 기라. 그래서 압록강에 있는 뱃사공을 전부 다 불렀어요.

"너는 배를 타고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인까,

"나는 동쭉에서 배를 타고 서쭉으로 갑니다."

"니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서쭉에서 배를 타고 동쭉으로 갑니다."

"그라믄 니는 무슨 바람을 부라고 고사를 지냈노?"

카인께,

“예, 나는 동쭉으로 부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니는 무슨 바람이 부라고 고사를 지냈노?”

“예, 나는 서쭉으로 부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래 서풍이 불어 가기는 잘 갔고 동풍이 불어 가기는 잘 갔으나마, 너그들이 빌은 바람에 옹구장사가 가운데 돌풍을 만나가주고 옹구를 부수었으니 변상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사또님이 뱃사공 둘이한테다가, 서쭉 바람 불라 캔 동쭉 배하고 동쭉 바람 불라 캔 서쭉 배 사공한테 옹구 값을 변상해 주도록 했답니다.

[천성동 설화 27]

물맛보다 꼬리맛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저 갈미섬에 가믄 옹당샘이가 있는데, 거기에 물로 묵을라 카믄 뒤에서 사람이 안 잡아 주믄 물로 몬 묵어요. 엎드리가 물로 물라 카믄, 지금은 그륵이 많이 있어가주고 바가치나, 떠묵는 그륵이 많이 있어가주고 묵지마는, 옛날에는 지내가다가 물로 묵을라 카믄 우리도 에릴 때 그랬어요. 엎드리가 물로 무믄 양밥(禳法)이라 카는 말이 있어요. ‘질로 질로 가다가 소금장사 목이 말라 물 묵읍세’ 카며 묵으믄 좀 영감이 된답니다. 지금까지도 엎드리가 물 묵을 적에는 헷소리가 나와요. ‘질로 질로 가다가 소금장사 목이 말라 물 묵읍세’ 카고 물 묵거든.

우리가 클 때는 국민학교 댕길 때만 해도 조금 컸다고 머리가 발달돼가주고 망개 잎파리가 안 있어요? 여름 되믄. 망개 잎파리 그놈을 가주고 꼽치가주고 떠 묵고 이랬거든. 그때는 시건이 없어가 모르고 엎디리가 묵는데, 옛날에 옹달샘 옆을 총각 처이가 지내갔던 모양이지. 그래 둘이가 옹달샘 물을 묵어야 되는데, 총각이 물을 무믄 처이가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처이가 물을 무믄 총각이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는데, 총각이 묵고 나서 처이가 물을 묵는데, 그래 총각이 뒤에서 허리를 불끈 안고 물을 묵는데, 총각이 처이를 보고 묻거든.

“물맛 좋나?”

카이께,

“물맛보다 꼬리맛이 더 좋다.”

카거든. 물을 다 묵었으믄 일날건대, 꼬리맛이 더 좋아가주고 일나도(일어나도) 안 해요. 그래 물맛보다 꼬리맛이 더 좋다고 안 일나더라요.

[천성동 설화 28]

풍수 자기 집터 못 보는 이유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풍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풍수가 참 보기는 잘 보는데, 본래 '무당이 지(제) 굿 못 한다'고, 지 집터를 못봐여. 못보는데, 그래서 그 풍수가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누우가(누워서) 자기 마느래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참 좋은 집터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터에다가 집을 지었으면 잘 살겠는데, 그 터가 정씨가 집을 지으면 잘 살 터이지 우리 배씨가 집을 지으면 잘 살 터가 못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이 들었던 모양이지. 아들은 차츰차츰 커가지고, 대충 시건(所見,지혜)이 났던 모양이라. 그래서 요새 겉으면 미신 타파하는 식으로 '정씨라고 집을 지으면 잘 살고 배씨가 집을 지었다고 못 살 것 뭐가 있노?' 싶어가지고 그만 그 아들이 가서 그 터에다가 수수끼(수수깡) 움막집을 하나 지었어. 쪼매쿠로 막을 하나 매가지고, 거게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따독따독 잘 돼여. 잘 되는데, 그래 되다보니까 논도 사고 밭고 사고 그래 거게다가 새로 집을 짓기로 했다 말이지. 막을 뜯어내고 집을 짓고 사인께, 잘 살게 되었는데, 부자로 사는데, 아무리 저그 아부지가 띠(떼어) 놓고 봐도 그 터에는 정씨가 집을 지어야 부자로 살지, 배씨가 집을 지어서는 부자로 살 터가 못 돼. 그래서 좋은 개와(기와)집을 짓고 부자로 살기는 사는데, 매일같이 풍수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띠놓고 봐도 이기(이것이) 배씨 터가 아인데(아닌데) 아인데 항상 늙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구들막에 누우서도 그 생각이라.

그래 자기 안해가 듣다 듣다 보니까 하도 그것해서 그 때는 나이가 좀 많애져가지고, 그래 자기 마느래가 하는 말이,

영감, 인지사(이제사) 우리 아들 놓고 손지 보고 다 했으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이 원을 품은 걸 실토를 하겠소. 우리가 못살 때 그 앞 마을 정씨 부잣집에서 하리(하루) 놀로 갔더니만 내가 할 수 없어서 강간을 한 분(번) 당했더마는 그기 아들이 됐던갑소."

카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배씨가 살 터가 아인데."

카더랍니다. 그기(그것이) 인제 풍수가 보기는 잘 봤는데, 자기 집터를 못 본다 카는 기 옛날에 그래 두고 하는 말이 내려왔다 그래(그렇게) 보지.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0~231쪽.

[천성동 설화 29]

코에서 나온 쥐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나(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 코에서 쥐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

옛날 부부간에 참 가난하게 살림을 살고 있는데, 하로 저녁에는 밤 늦도록 안해가 바느질로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랫묵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가만이 보니까 남편 콧구멍에서 쥐가 한 마리 나와요. 쥐가 나오더마는 밖을 나갈라고 뚜리뚜리 살펴쌓는 것을 본께, 전부 문이 발라져 있고 못 나가니까, 그래 문을 사알 열어주인께 쥐가 소롯이 나가여. 나가는데, 쥐를 따라 가봤는 기라. 가면서, 각중에(갑자기) 들고 갈 것이 없어가 바느질에 쓰는 자(尺) 안 있어요? 자를 들고 사알 갔는 기라. 자를 들고 가니까, 쥐가 쪼매(조금) 가더마는 큰 내가 있으니까, 그 내에 물이 있으니까 못 건너서 이래 야단을 지기는데(치는데), 자로 살모시 옆에 놔놓으니까 자를 타고 쪼르르 건너가거든. 그래 쥐 따라서 갔던 모양이지. 한참 가더니, 어느 산중으로 드가더마는, 한 쥐구멍으로 드가더마는, 한참 있어도 안 나와요, 그래더니 나오더라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오더라꼬. 그래 거(거기) 오더만 또 내가 있으이 못 건너서 잣대로 놔주이까 와요. 그래 집에 들와가지고 콧구멍에 소롯이 들어가더마는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몸부림치고 일나더라 말입니다. 일나더만,

"야 꿈도 이상하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거라. 그래,

"무슨 꿈을 꾸었는데요?"

카인께,

"내가 꿈을 꾸었는데, 어데가 어덴지 모르겠는데, 그래 꿈을 꾸가지고 내가 어데를 가니까 꽉 벽이 막히가 있는데, 보니까 누가 벽문을 열어주더라 말이다. 그래 나갔는데, 가다가 보이 큰 강이 있는데, 강을 못 건너가서 이래쌓는데 누가 다리를 놔주는데, 다리를 건니서 갔는데, 거어 가니까 어느 굴 속에 들어가니까 큰 항아리에다가 보물이 꽉 들어가 있는데, 어데짬치(어디쯤)인고 그걸 모르겠다."

이거라.

"그래요? 확실해요?"

카이,

"확실하다."

이거라.

"그 항아리에다가 은금보화가 꽉 차가 있는데, 그걸 보고 왔는데, 거기가 어데짬친지 모르겠다."

이거라.

"그라면 그 자리에 확실히 은금보화가 들었습디까?"

카이,

"들었더라."

이거라. 그래가지고 그 안날(다음날) 여자가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새옷을 갈아 입고 그 자리로 가 봤던 모양이라. 가 보인께, 굴이 있는데, 쪼맨(조그마한) 구멍이 있기는 있는데, 그 구멍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안날에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서 캤던 모양이지. 캐 보니까 진짜 항아리가 있어. 큰 항아리가 있는데, 뚜껑을 사알 열어보니까 은금보화가 꽉 차가 있는 기라.

그래 새로 내리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부부가 함께 목욕을 하고 가서 제를 지내고, 그런 것은 제 안 지내면, 안 된다면서? 산삼도 제를 지내고 무슨 말을 하고 캔다 카데. 그래 제를 지내고 그걸 캐가지고 잘 살았다고 그랍디다.

잘 살았다는 그런 말이 들리오는데, 꿈 속에 핸 것을 자리만 확실히 알면, 그런기 맞는 수도 있답니다.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31~233쪽.

[천성동 설화 30]

'사돈 닭 잡아라'에 관한 이야기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한 사람이 사돈 집에 동지 섣달에 댕기로 갔던 모양이지. 댕기로 간께, 옛날에는 큰 대집(대접)하는기 뭔고 하믄 닭 잡아가주고 닭 삶아 주는기 큰 대집이라. 그래 사돈 왔다고 배껕 방에서 사돈끼리 이얘기한다고 방에 앉아 있고, 안 사돈이 나가서 닭을 잡아 직이가주고 물로 뎊히가주고 우물가에 앉아서 털로 뽑아서 장만해 올낀데, 아무리 있어도 닭을 삶아 올 때가 되었는데도 안 삶아 와요. 그래놓이까 문을 열고 나오인까, 손을 흔들며,

"이리 와 보소, 이리 와 보소."

카는 기라.

“와 그랍니까? 샘에 빠뜨린 것입니까?”

닭 잡는다고 우물가에서 물을 낋이가주고 한참 하다 보이까, 빤스나 입을 때 같으믄 괘안는데(괜찮은데) 꼬장중우를 입으인께 밑이 나와가주고 물이 흘러가고 하다 보이 털이 나와가주고 물을 붓고 붓고 하다보이 털하고 치매하고 얼음이 얼어가주고 붙었던 모양이라. 일날라 카이 따갑아서 몬 일나는 판이라. 그래 닭을 몬 삶아 오고, 오래 샘이 가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 가보인께 이미 일이 이렇게 되이,

“어떻게 하믄 되겠소?”

그 축구같은 인간들이, 옛날에 시건(識見)이 없어 이렇지. 그걸 띤(뗀)다고 녹훈다고 ‘호호’하고 녹후고 있으인께 처음에는 뜨신 기운이 나와 조금 녹다가 ‘호호’해싸인께 세염이 거게 얼어 붙어뿌네. 뒤를 ‘호호’하이 뜨신 기운이 나오요 찬 기운만 나오지.

사돈이 기다리다가 나와 보인까 배껕 사돈이 안 사돈 치매 밑을 딜다보고 ‘호호’해쌓거든. 저거 왜 그랜고 싶었어. 그래 ‘사돈 가요.’ 카고 왔는데, 오다가 생각해 보인께 그래서 그랜기 아인가 싶어가주고 지금 우리가 그 때민에 ‘사돈 닭 잡아라’카는 말이 그래 두고 하는 말이라요.

[천성동 설화 31]

글방 선생 장가보내기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글방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글방 선생이 늦두록 장개를 몬 가고 요새 같으믄 가정교사 같이 그래 선생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하릿 지녁에는 공부를 하다가 아이가,

“선생님 장개갈랍니까?”

카거든.

“그래 어떻게 장개를 가노?”

카이,

“우리 집 옆에 청상과부가 하나 있는데, 거게 장개만 갈라 카믄 선생님 장개를 디리겠습니다.”

카거든.

"이놈아야, 어떻게 디리노?"
"장개를 갈라 카믄 장개를 디리겠습니다."
그래, 선생도 우시개(우스개) 한다고,
"그래 장개를 한 분 디리봐라."
캤더마는,
"선생님, 그래 허락했습니다."
"그래 했다."
"그라믄 선생님 내 시키는 대로 하믄 됩니다."
이기라. 그래 놓고, 그 안날은 과부 삽짝걸에 가서 아침마장 새북에 날만 새믄 가서,
"선생님, 선생님."
부르는 기라. 그래 부르다 오고, 날만 새믄 고 시간에 가서,
"선생님, 선생님."
부르고 이란데, 그래 과부가 첫날 지녁에는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매일 아침마장 부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는 기라. 그래 하릿 아침에는 부르고 있는데, 과부가 나와가주고,
"니 이놈아, 아무리 그렇지마는 아침마장 새북마장 와가주고 선생을 부르이 뭣 때민에 그라노?"
"우리 선생님을 놨두고 숨기고 안 있나?"
이기라.
"그래 선생을 숨기고 안 내놓는기 어디 있노?"
그래 쫓겨왔다. 그 안날 가마이 동작만 보고 댕기는데, 해필 우물이 그 집에 없고 그 마을에 우물을 길어 묵는데, 새북 일찍 물 길어 가는 기라. 그래 저그 집에 가서 선생님을 깨배가주고,
"선생님 빨리 나오이소. 빨리 나오이소."
그래,
"선생님! 이 집에 큰방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라믄 오늘부터 장개를 간다."
이거라. 그런께 메칠을 외치놓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요새 새북에 교회에서 종치듯이 메칠 불러놨으이 온 동네 외놨고, 그래 그 안날 물 길러갔는데, 가고 난 뒤에 삽짝걸에서 물 길러 오도록까지 '선생님, 선생님.' 부르고 있으인께, 그래 물을 이고 와서,
"이놈아야, 아침마장 '선생님' 불러대는데, 우리 집에 너그 선생님이 뭐 하로 왔노?"
"선생님 놨두고 왜 안 내놓나?"
그래 이놈아가,
"확인해 볼까요?"
"그래 확인해 봐라."
그래 큰방에 가본께 선생이 누워 있거든.
"이래도 선생이 없어요."

그래 온 동네 쫓아 댕기며 외치니, 어떻게 해요, 소문은 나뿠고, 할 수 없어서 청상과부가 그 선생하고 살림을 하더라요.

[천성동 설화 32]

앉은뱅이병에 걸린 모친을 완치시킨 효자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저검마(자기 어머니)가 앉은뱅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의원에게 물어봐도 병을 고칠 길이 없어요. 그래 어데 어데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인께,

"너검마를 고칠라 카믄 천년두리 만년수에 봉황새가 약이라."

카는 기라. 천년두리 만년수라 칼 거 같으믄 없는 기라요. 천 년 된 사람 해골 바가치에 만 년을 고여 있었던 물을 천년두리 만년수라 카는데 그기 어데 있겠어요?. 또 봉황새를 믹이야 너검마가 산다는 기라. 그래서 저검마를 둥우리(둥주리)에 담아서 지게에 지고 고을 고을 댕기믄서 얻어 믹이다 보인까네, 어느 산골에 가다 보이 저검마가 물이 묵구집어 몬 견디겠다는 기라. 죽을 지경이라. 산골에 물이 있어야지. 그래 물 구하러 댕기다 보이까 어느 바가치에 물이 댐겼더라 이거라. 그래 그 물을 가지고 와가주고 저검마를 믹있던 모양이라.

"아이구! 야야 살겠다."

이거라. 그 물을 묵고 그래 저검마를 업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어느 집에 와서러 잘 데는 없고 그 집에 가서,

"하릿밤 자고 갑시다."

카고 애원하인께네, 사랑채 머슴 방에 자라 이거라. 그래 머슴 자는 방에 같이 찡기 자면서 저검매 둥기미 옆에다가 요새 같으믄 방석을 깔았든가 짚뿌지기 같은 걸 뜨뜻하게 깔아서 해가 그래 자고, 부잣집에 자면서 미안해가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주고 마당에 나와서 마당을 쓰는 기라, 자기가.

자기 엄마를 방에 모셔주었다고 마당을 쓸고 있으인까, 그 집에 닭을 키았는데, 옛날 말로 '닭 천 마리 속에 봉황이 한 마리 들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침에 마당을 쓸고 있으인께 머슴이 닭장을 치우다가 병아리가 한 마리 죽었다고 마당에 훌쩍 떤지뿌거든. 그래서 이놈아가 그걸 주아가주고 사랑채에 가서 소죽 솥 밑에서 숯불을 끄집어 내가주고 꾸우(구워)가주고 괴기(고기)라고는 처음이니까 저검마를 믹있던 모양이라. 그걸 먹고 나서 저거매가 허리를 펴고 병이 나았더랍니다. 그기 뭐냐 하믄 그만큼 정성을 쓰니까 병아리는 봉황새고, 아까 바가치에 고인 물이 천년두리(千年頭骨) 만년수(萬年水)라는 그런 말이 전해 내려온 것으로 정성을 쏟

으믄 하늘도 동감을 해가 그런 약을 내려준다고 이런 말이 있어.

[천성동 설화 33]

까마귀고기와 건망증(健忘症)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뭣을 잘 잊으믄 '까마구 괴기를 뭈나(먹었느냐)' 이카지요? 잘 잊아뿌사믄 어디서 까마구 괴기를 뭈나(먹었느냐) 이라요.

이라는데, 자기 집에 남편이 여자만 보믄 몬 견디요. 밥을 하믄 부섴에 와서 한분 대주고, 방에 있으믄 밥상을 채리가도 한분 대들고, 이거 여자가 할 짓이 몬 돼. 그래서 이웃간에 문질(問質)을 했던 모양이지.

"우리 집 양반이 이상한 병이 있다 말이야. 병이가 나를 이렇게 몬 살게 부섴 앞에서도 대들고 방에서도 밤낮 대드이, 이걸 어떻게 하믄 좋겠노?"

문질을 하이,

"그러믄 어데 까마구 괴기를 구해 믹이봐라. 그기 잊은병에 좋단다. 잊어서 안 하구로."

카이, 어데 우째다가 까마구 괴기를 구해 믹있던 모양이지. 믹이놓이 까마구 괴기가 호력(效力)이 있어요. 묵고 나믄 호력(效力)이 있답니다. 호력이 있는기 이 호력이 역효과를 가주와. 가오는데, 금새 했는걸 잊아뿌고 또 할라 카네, 묵고 나서.

잊아뿌고 몬 하구로 믹이놓인께 했는걸 잊아뿌고 또 할라 카이 그기 문제라.

[천성동 설화 34]

욕심 때문에 아들을 죽인 고부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도 직이고(죽이고) 남편도 직있다는 이야기 하나 하겠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

옛날에 하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아들이 돈벌이로 가면서 자기 안해와 어머니를 놔두고 돈벌이를 떠났어. 떠났는데, 몇년을 두고 뼈가 빠지게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벌어

가지고 가방에다가 돈을 가득 싸가지고 몇 년만에 집을 찾아 왔더라 말입니다. 집을 찾아오이까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전부 들에 가뿌고 없는데, 그 때 해필 여름이든가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서, 어데로 갔는가 찾을라 카이께네 힘이 들고 해서, 좀 있으면 안 오겠나 싶어서, 방에 있다 보이까 여름이고 방을 열어놓고 누우가 있으이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인께, 그만 잠이 사르르 들었던 모양이라. 잠이 들어 잤던 모양이지.

그래 자기 며느리하고 시어마이하고는 들에 가서 일로 하다가, 며느리가 밥할끼라고 집에 먼첨(먼저) 왔던 기라. 와 보이까, 어떤 남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보이 큰 가방이 있는 기라. 가방을 사알 보이까, 가방 안에 돈이 꽉 들어가 있어. 그래 그 길로 밭에 뛰어갔어. 밭에 가서,

"어무이, 딴 기(다른 것이) 아이고, 방에 가보이까 어떤 남자가 잠을 자는데, 옆에 보이 돈이 한 가방 들었십니다. 어무이 저거로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 없애뿌고 돈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 자기 시어마이하고 이논(의논)을 해가지고 내려와, 그 사람을 직인 기라, 돈을 가질라고.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직이가 부엌에 뎃고 가가 나무를 들고 나무 밑에 묻은 기라. 직이가 놓을 데가 없으이, 우선에 나무를 들고 나무 밑에 덮어 놓았는데, 해가 져서 저녁을 먹고 나이까 저그 아들 친구들이 찾아오는 기라.

"거 아무것이 안 왔습니까?"

카인께,

"돈 벌로 가 그 질로 소식도 없고, 몇 년을 소식도 없다."

카인께,

"아! 오늘 오던데요."

카거든.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안 왔다 캐 놓고, 그 친구들이 가고 난 뒤에 부엌에 가서 나무를 들어보이 저그 아들이라. 저그 남편을 직있는 기라.

그래 욕심이 많으면,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 지나친 욕심 지기지 마라. 분복(分福)대로 살아라 이기라.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53~254쪽, '욕심 많은 과부'.

[천성동 설화 35]

묘터와 발복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4일
구술 장소: 천성동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삼 형제를 놔놓고 자기 아부지가 세상을 떴는데, 하도 가난하게 사니까 초상 칠 꺼리가 없어. 그래 그때 어느 도사가 지내가는데, 옛날에 중을 갖다가 도사라 캤으이, 도복을 입고 어느 스님이 지내가는데, 곡(哭)을 하니 스님이 문상을 들왔던 모양이지. 그래 도사하고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우야다가(어찌하다가) 세상을 떴노?"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을 떴는데, 모(墓)로 씰라 카니까 모자리도 없고 우리가 씰 형편이 못 된께,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참 모를 써봤으면 좋겠다."

카는데, 그래 도사가 여기 오다가 보이 모자리가 하나 있기는 있어. 있는데, 이 애들이 그 자리에 모를 써가지고, 모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긴지 모르겠다 말이지. 좋은 모자리에 모를 씬다 해도 애들이 지혜로운 그 머리가 좋아야 출세할 수 있는거지, 무조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혜도 안 쓰고 자기 아부지 자기 할아부지 모만 잘 씬다고 방에 누우가 있으면 잘 되는기 아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도사가 그 사람들의 지혜를 볼라고,

"좋은 모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게다가 모를 씨면 너그가 진짜 잘 살 수 있는데, 삼 정승 육 판서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내 시킨 대로 모 씰 수 있느냐?"

카고 물어보니까,

"예. 씰 수 있읍니다. 아르켜 주이소."

카거든. 그래,

"아무데 어느 고을에 어느 봉오리 밑에 거 가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다 모를 씨되, 모 씨는 방법이 좀 에럽다(어렵다). 말로 천 마리를 매 놓고 굴리고 모를 써야 너그가 성공을 할 수 있지. 말 천 마리를 못 매고 거기다가 모를 씬다면 다부 역적이 난다. 말로 천 마리를 매 놓고 산을 울리고 그 지령(地靈)을 볿고 모를 씨야 너그가 삼 정승 육판서가 날 수 있는 기지, 그 자리에 말 천 마리로 못 매고 모 씼다 카믄 다부 역적이 생긴다. 후회를 한다."

캐. 그래 듣고 보니까 삼 형제의 큰 아들이 걱정을 하는 기라. 형님이 걱정을 하고,

"아무래도 우리 처지에 말 한 마리도 못 구하는데, 말 천 마리를 어데서 구하겠느냐?"

카는데, 거서 제일 막내아들이 머리가 좀 영리하던 모양이지.

"형님 말 천 마리를 걱정하지 말고, 모 씰(묘 쓸) 준비만 하이소. 말 천 마리는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니가 어떻게 구할기냐?"

"말 천 마리는 모 씨는 날 내가 턱 매 놓고 산을 굴리고 모로 씰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 자리에 모를 씨기로 했어. 해가지고 모 씨는 날 어떻게 말 천 마리를 매느냐 할 것 같으면, 그 막내 아들이 밤새도록 앉아서 백지를 놓고 말을 기맀어(그렸어). 말 천 마리를 맨들었어. 맨들어가 그 산에다가 전부 흩쳐 놔놓고 모를 씨는 기라.

그래서 도사가 어떻게 말 천 마리를 구해 놓고 모를 씨는가 싶어서 지나다가 들리봤어. 들

리보니까 온 산에 종이가 흩쳐 있어. 주어 보니까 말로 기리어 온 산에 흩쳐 놓고 모를 씨고 있더라 말이지. 그래 도사가,

"아하, 이 집안에 진짜 삼 정승 육 판서가 나겠다. 머리 좋은 놈이 있다."

카고 도사가 쎄(혀)로 껄껄 차고 가더랍니다. 그 뒤로 진짜 그 집안에서 삼 정승 육 판서가 났답니다. 말 천 마리를 사서 맨 기 아이고, 빌리 맨기 아이고, 기리(그려서) 매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

※ 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254~256쪽.

[천성동 설화 36]

처녀 뱃사공과 손님

구 술 자: 김기일(남, 62)
구술 날짜: 1991년 1월 5일
구술 장소: 천성동

압록강에 처이 뱃사공이 있었는데, 나겉이 얄궂은 사람이 배를 탔겠지. 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네가는데, 중간 쭘 가디마는 손님이 하는 말이,

"처이요, 처이요!"

부르더라 이기라. 그래,

"손님 와 그랍니까?"

카이

"내가 처이 배를 탔으이 뭣 되요?"

물어보거든. 처이 배를 탔으이 뭣 디겠소. 그래 처이가 따지지도 못하고 기가 차는 기라. 그래서 노를 젔고 건네간께 손님이 나갈 수 밖에 더 있소. 배 안에서 전부 나가는 기라. 나가이, 그래 처이가,

"손님요, 손님요!"

부르거든. 뱃삯을 분명히 주고 내맀는데, 그래 뱃삯을 주지 않고 내맀는가 싶어 돌아보고,

"와 그라요?"

칸께,

"손님이 내 배 안에서 나갔으이 뭣 되요?"

물어보거든. 그래 내겉은 기, 나이 많은 사람은 댕기다 보믄 그런 실수도 있기 마련이요.

2. 박경수 현장조사 설화[31)]

1) 설화

남의 탓하는 방귀장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KKA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3통(성북동 선창마을) 선창경로당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유원
제 보 자 : 강경애, 여, 7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좌중을 보고 우습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 해보라고 하자, 제보자가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체험적인 일상사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로서 흥미적 요소를 가지는 있다고 생각하여 채록했다. 제보자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야기 중간중간 웃었으며, 청중들도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줄 거 리 : 시아버지의 초상 날에 방귀장이 형님이 방귀를 끼었다. 방귀를 끼고는 무안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귀를 끼었다고 덮어 씌웠다. 그러자 자신이 방귀를 끼고 남에게 덮어씌운다고 대들었다. 이를 본 시아주버니가 방귀 낀 부인을 야단 쳤다. 하루는 친정이 있는 가덕도 논에 모를 심으러 갔다. 그곳에서 또 형님이 방귀를 끼었다. 또 자신에게 방귀를 끼었다고 덮어 씌웠다. 그러자 다시 사돈 남의 말 한다고 하며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화가 난 형님이 모를 심지 않고 가버렸다. 한 사람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모를 늦게까지 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이를 오해하여 친정에서 놀다가 늦게 왔다고 야단을 쳤다. 방귀 낀 형님 때문에 억울하게 자신만 오해를 받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갔거든예. 돌아가서 [웃음] 인자 초상을, 초상 치고 날인갑다, 날에 인자 그래 고기를 내오고 형님들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똥방구쟁이라요. [일동 웃음]

그래갖고 빵구를 한 차례 낐거든예. 끼놔논 고마 암말도(아무 말도) 안 하몬 될긴데,

“이 임편네 여 방구를 끼노.”

이랬거든. 그라이,

“아이구 참 에미 말라고 낐다 카노, 행님이 끼놓고 에미는 말라고 그라노.”

31) 이하 자료는 2010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의 현장조사사업단(국립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에서 추진된 제1차 2차년도 사업 중 부산광역시 구비문학 현장조사(조사책임자 박경수) 결과의 일부분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만 현장조사한 설화 자료임을 밝힘. 이들 자료는 박경수·정규식·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부산광역시② -서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12, 124~188쪽에 수록됨. 자료는 제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었으며, ‘설화’와 ‘현대 구전설화’로 나뉘어 수록됨.

이라거든예. 그래서 인자 아주부이보고 한다 말이 기가 차거든예. 아주부이도 부산 아주부이하고 짜다라 있는데 그래논, 홍두방망이로 들민서,

"와 니가 끼어놓고 와 똥줄을 들먹이노." [웃음]

그래갖고 인자 그라고 말았거든예. 말았는데, 또 인자 모로 숭구러 가갖고, 형님 방구를 한 차례 풍- 끼놔논 시누부보고,

"하이구 애씨 니는 방구로 끼노?"

이란께,

"와 내가 안 낀데, 와 내보고 그라노. 지가 끼놔놓고, 에민 사돈 넘말 한다. 와 낼로 낐다 카노."

마 모도 안 숭구고 척 나 앉아가 있는 기라. 마 그래갖고 하내이(한 명이) 나가고 나께 일이 저물다 아입니꺼.

그래 인자 어둡도록 컴커무리하도록 숭쿠고 오이께 우리 어무이한테 난리로 만났는 기라예.

"니는 친정 가서 놀다가 말이지, 이이 이래 늦가 컴커무리하도록 이래 모를 숭구고 오나?"

이라는 기라.

"그래 예, 모를 오늘 늦게 숭갔습니다."

이란께, 친정 가서 놀다고 온다고, 외삼촌도 와가 있는데, 마 난리가 났는 기라예. 그래서,

"하이고 어무이 아입니더. 난 그래 친정에 놀러간 기 아이고 그래 모를 숭구고 왔습니더."

이라이께, 그 인자 우리 어무이는 그기 아이라예. 그 인자 내가 친정이 가덕인께, 가덕에 논이 그짜(그쪽에) 있은께 친정 가서 인자 놀다고 왔다고 하는 기라예. 그래갖고 그래 난리로 만냈습니다.

벙어리와 봉사 부부의 대화법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KC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마을 녹산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권차순, 여, 79세
구연상황 : 구연 분위기가 무르익어 음담패설류의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권차순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주위의 청중들은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권차순 제보자는 적극적으로 구연해 주었다.
줄 거 리 : 벙어리 부인과 봉사 남편이 살았다. 동네에서 불이 나자 벙어리 부인이 불을 끄고 돌아왔다. 봉사 남편이 불이 어느 정도 심하게 났는지 아내에게 물었다. 그러자 봉사 남편의 성기를 만지자 기둥이 다 타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버불이하고 봉사하고 살았거던. 동네 불이 났는 기라. 가다가 저녁에. 가다가 불이 나가,
“아이고 불이야! 불이야!”
카이. 눈은 어두와도 길은 안 밝나. 그래가고,
“아이고 불이야! 불이야!”
“아이고 여보. 저.”
마누래는 버불인 기라. 그래가 인자,
“아이고 여보 니가 인자 가봐라. 가봐라. 누 집에 불이 났노?”
인자 불로 끄고 와가지고,
“그래 여보, 불이 그래 누 집에 불이 얼매나 껐더노?”
그래 그 할마이가 그리 시키는 기라.
“아이고 복판 지동이(기둥이) 다탔는가베. 복판 지동이 다탔는가베. 안 타고 남았드나?”
그래 아이고,
“다 탔나?”
그래 한 번 더,
“아이고 우짜고 남았더나?”
이라거든.

훈장 장가보낸 학동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가덕도의 민속과 구비문학을 조사한 책(김승찬, 『가덕도의 기층문화』)을 보면서 당시 제보자가 이야기한 <훈장을 장가보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공부방 훈장이 있었는데, 훈장은 총각이었다. 하루는 한 학동이 훈장에게 동네에 큰 부잣집 과부에게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훈장은 아이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 알아서 해 보라고 했다. 다음날부터 아이는 과부집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선생님을 찾았다. 어느 날 과부가 밖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이고 오는데, 아이가 집 앞에서 또 선생님을 부르고 있자 과부는 왜 여기서 선생님을 찾느냐며 아이를 혼냈다. 아이가 집 안에 선생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며 방문을 열어보았다. 방문을 여니 방 안에 훈장이 있었다. 과부가 나간 사이 학동이 훈장에게 몰래 들어가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나서 과부는 어쩔 수 없이 훈장과 결혼을 했다.

훈장 장개보낸 이야기는 그거 보인께, 옛날에 저거 공부방 훈장이 아로 그 공부를 시기고 있으니까 그 총각이었던 모양이라. 그래,

"선생님, 장개 갈랍니꺼?"

이러몬, 그 인자 아가 그러이 이상하이,

"이놈이 뭐라 카노, 이놈이."

이러 카이께네,

"그래 장개 갈래 카몬 이 동네에 큰 부잣집에 아짐매가 혼차 살고 있는데, 거 내 중신을 할 낀께 장가를 가이소."

이기라. 그래 인자 아가 우짜는고(어떻게 하는가) 볼라고,

"그럼 니가 중신을 해봐라."

이래이께, 가가 그 안날부텅은(다음날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넘 사람도 일나도 안해서 가서,

"선생님! 선생님!"

부르는 기라, 그 과부집 앞에 가서. 부르이께, 그래 부르다가 오고 또 날만 새면 그 집 앞에 가서 부르다가 오고 부르다가 오고 그란데.

하리(하루) 아침에 가서 보이께 그 호무차(혼자) 사는 과부가 물 이러, 지금은 다 집에서 물도가(물동이가) 있고 물로 수도 물바지, 옛날에는 우물이 밖에 있었거든예. 우물을 이러, 물도를 이고 물을 이러 간 뒤에 대문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으이께, 그 과부가 아침마장 부르는데 그날 해필 물 이고 오이께, 그라고 있으이까 얼마나 무안캤노 말이야.

그래 아를 불러가 되기(매우) 머라 카니까(나무라니까) 아가 한단 말이,

"왜 선생님 숨키 놓고 안 내 놓노?"

이기라.

"그래 어데 있노?"

"방에 있는 갑대."

그래가 인자 둘이가 방에, 진짜 방에 있는 기라. 그기 마 소문이 나뿠어 동네에.

[조사자: 아아, 그러이까 그 저거 선생님 몰래 들어가 있었네요.]

어어, 아로 인자 아가 선생님 내 시키는 대로만 하모 장개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인자 선생을 덥꼬(데리고) 그 방에다가, 물 이러 가고 난 뒤에 선생을 방에 여놔놓고(넣어 놓고) 나왔는 기라. 아 우째 하는, 선생은 우째 놨는, 아 지혜 볼라고 그럼 방에 가 있었는 기라.

그래가지고 인자 문을 열고 들오니까, 있으니까 그 아직 과부가 숨키놘 거빽에 더 되나. 그 동네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동네사람들은 '아 이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가 빼도 박도 못해가 갤혼을(결혼을), 저거꺼지 장개를 갔다 카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대.

우리 옛날에 학교 댕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대예.

천년 묵은 지네와 산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천년 묵은 지네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가난하게 살던 남자가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떠났다. 길을 가던 중에 비가 너무 많이 큰 바위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그 곳으로 어떤 여자가 들어와 같이 쉬었다.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남자가 돈 벌러 간다고 했다. 그럼 자기를 따라 가자고 하여 남자는 여자를 따라 갔다. 그곳에는 아주 큰 집과 근처에 작은 집들이 있었다. 큰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집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여자가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고향을 갔다. 여자는 가기 전에 남자에게 다시 집에 돌아올 땐 꼭 큰기침을 하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고향에 가서 가족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본 남자가 다시 여자와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자의 당부를 잊고 몰래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방 안에 지네들이 붙어 있었다. 다시 나와 기침을 하고 들어갔지만, 그 여자는 울면서 남자가 몰래 보는 바람에 다시 천년을 지내야 인간으로 환생이 된다고 하며 원망했다. 남자가 잠을 깨어보니 큰 바위 위에서 자고 있었고, 바위 밑에는 지네들이 바글거렸다.

그래 가난해가 너무 몬 살아서, 그래 남자가 아들 놔두고 저거 마누라하고,

"내가 돈 벌어가 오꾸마."

하고 나갔던 모양이라. 돈 벌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비가 많이 왔어. 그래 비 거시야 한다꼬(피한다고) 큰 바우 밑에 있으니까 어느 아짐매가(아주머니가) 장에 갔다 오다가 바우 밑에 비 거시하러 들왔는 기라.

그래가 남자가 머이(먼저) 안 묻고 여자가 머이 물었어.

"그래, 선부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이까네,

"내가 집이 가난해가 돈 벌로 간다고 나왔다."

"그라몬 내 따라 가입시다."

이래가 그 여자 따라 간다고 간 기가, 그 산골짝을 산을 막 데리고 가는데 그때 어두봐지가(어두워져서) 해가 지뿠는 기라.

그래 가보니까 온 데 요새 같으면 가로등 맨크로 불이 줄줄 달아 놓고 이랬거든.

그래 갔는데, 밤에 드가 보니까 큰 집이 많이 있고 집 안에 드가보니까 큰 집이 있어, 그

채 드가께네 그 큰 집에는 인자 자기가 사는 집이고, 작은 바우 밑에는, 아 작은집들은 쪼매 꾸만(작은), 작은집들은 저기 인자 요새 겉으몬 아까 했던 지네 새끼들이 사는 집이고.

이런데, 그리 살다보니까 인자 거서 너무 사는데 잘 사는 기라. 마 너무 걱정없이 잘 사는데, 그러이께 이제 저거 집 걱정이 생각이 나는 기라. 그래 수심이 차가 집안 걱정을 하고 있으이께, 그래 인자 자기 부인이, 부인되는 분이 인자 덕고 간(데리고 간) 그 여자가,

"그래 뭐 때문에 그라노?"

물어보이,

"그래, 집안 생각이 나서 그런다."

카이,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단도리 다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우쨌냐 하몬, 그 여자가 전부 집을 주소를 알아가 집에다가 돈을 보내줘가 잘 살도록, 크게 잘 살도록 만들어 놨는 기라. 만들어 놔도 자기 눈으로 안 보니까 나올 때 그래 고생하고만 사는 줄로 생각했는데, 하도 그래 싸니까 지 눈으로 한 번 봐야 되겄다 카니까, 자기 그 사는 여자가 가보고 오라고 보내줬는데,

"그래 갔다 올 적에는 분명히 들오다가 큰 지침을 하고, 그래 큰소리 하고 들오라고. 살짝 들오몬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 집을 보내줐는데, 그래 집에 온다고 오니까 큰- 고갯마루에서 보니까 저거 동네를 내려다보이 옛날에 없던 큰- 기와집이 있고 크-게 좋은 집이 있는 기라. 그래 지내가는 사람한테,

"저 집이 누구 집이오?"

물어보이, 옛날 지 이름을 들믹이면서(들먹이면서),

"아무거시가 살던 집이다."

이기라.

"그 분이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 보내줘가지고 저래 잘 산다."

이기라. 그기 참말인지 거짓말인가 모르고 내려가보이 확실히 저거 아들하고 잘 사는 집, 저거 집이라.

그래가 저거 집 구경을 하고, 인자 늘 가기 싫는, 싫으나마 그래 오라 캐서 그기를 인자 거게서 보내주는, 거게서같 돈이 지가 보내, 저거 집에서는 남자가 보낸 줄 알았지. 지는 보낸 일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집에 가보고 싶아서 오이께, 와가지고 여자가 시키는대로만 큰 지침을 하고 드갔으면 될긴데, 그래 가이 밤이 돼가지고 가보이 막 이래 큰 집에서 살그시(슬며시) 가가지고 불이 캐져가 있는 문구녕을 디다보니까(들여다 보니까) 큰- 지네가 막 이래 벽에 떡 붙어가 있는 기라.

큰 지네가 이래 붙어가 있어서 그래 그 길로 나와가지고 큰 지침을 하고 들어간께, 이제 저거 여자가 있는 기라. 저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래 못하라 했는데 와 이랬노?"

이기라.

“그래 내가 천년 묵은 지넨데, 천년을 무가(먹어서) 지네가 내가 사람이 됐는데, 환생을 했는데, 이런 바람에 또 천년을 더 무야 천년을 더 살아야 또 환생을 해가 사람이 된다.”

이기라. 그 말을 듣고 인자 그래 하다가 잤는데 자고 아침에 일나이께 자기가 바우 우에 자고 있는 기라. 그 바우 밑이 전부 지네들 사는 기고, 그 옆에는 작은 바우들은 새끼 지네들 사는 데고.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하대요.

지렁이국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며느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아는 효부 이야기가 있으면 해 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결혼한 아들이 봉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객지에 돈을 벌기 위해 나갔다.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국을 끓여 대접했다. 어머니는 무슨 국인지 아들이 오면 물어보기 위해 국건더기를 장판 밑에 숨겨놓았다. 몇 년 후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 어머니 얼굴에 살이 올라 보기 좋아져 있었다. 어머니에게 무엇을 드셔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물어보자 어머니가 장판 밑에 숨겨놓은 것을 꺼내며 끼니때마다 이것을 먹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그것을 보니 그것은 지렁이였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지렁이라고 말을 해주자 어머니가 놀래서 눈을 떴다.

지렁이를 갖다가 거싱이라 카거든, 여기서는거기. 거싱이 호자(효자) 이야기라고 이래가지고, 거싱이 효자 이래 이야기라고. 이래가지고 거 한 분 하대. 하는데, 아들이 저거 마누라하고 저검마하고(자기 엄마하고) 서이가 살았는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객지에 돈 벌러 가면서,

“그래 엄마하고 살아라.”

이라이, 저검매가 봉사라. 눈을 몬 보는 봉산데 저검마를 맽기놓고 돈 벌러 갔는데,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돈도 잘 안 벌리고, 돈 번다고 가서 몇 년만에 저거 집에 오니까, 저검매가 아들 떠나고나서부텅은 아침 밤에 뭐고, 날만 새몬 반찬을 주이, 국만 묵우몬(먹으면) 국이 그래 서운는(시원한) 기라. 맛이 있어.

그래서 무본께(먹어보니) 그것을 무슨 국인고 몰라가지고 인자, 아들 오면 보일라고, 궁굼면서(궁금해서) 건디기를 건져가지고, 요새 같으면 모르지만은 옛날 같으면 작살, 뭐고 그 장판이 뭔가 하모 싸리장판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당신네들 모를 기다. 가마이같은 거 이래 엮

어가, 그 밑에다 한 바리씩 여놓고 이랬는데. 그래가 인자 아들이 돈 벌어가 와서러, 오이께 저검매가 살이 찌가 부-연 해가지고 참 좋거든.

"그래 어무이 우째가 이리 살이 찌고, 내 있을 땐 못 자시고 이랬는대."

"그래 니 떠나고 나서 메느리가 그래 때마정 국을 낋이조, 육미국을 낋이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 살이 가더라."

그래서,

"무슨 국을 무웄습니까?"

그래 자리 밑에서 내는데, 꺼내는데 이런 기다 카매 내놓는데 보이 거싱이라. 그래서 어무이, 저검매가 내 놓은 데 보이,

"아이구 엄마 이거 거싱입니더."

카이께,

[놀라는 듯이] "어-엉?"

카민서 행기 그 길로 마 눈을 떴뿠어.

[조사자: 아- 아. 봉산데 놀래가.]

(놀래가지고, 놀래가 눈을 뜬 기가 그마 그 길로 눈을 떠가, 그래 봉사 호자(효자). 옛말에, 옛날에 그래 한다)

점을 잘 보아 대접을 받은 봉사 부자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에서 한 봉사 어머니 이야기에 이어서 다음 봉사 이야기를 생각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 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얼버무리고 이야기를 중단하고 말았다.

줄 거 리 : 옛날에 봉사 부자가 있었다. 당시 봉사들은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둘이서 작대기를 짚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들이 작은 돌에 걸려 넘어졌다. 아버지가 어느 놈이 아들을 넘어뜨렸나 싶어 찾아보니 작은 돌이었다. 그 돌로 점을 쳐 보니, 숲에서 나왔다고 해서 수풀 림, 풀 초, 돌 석으로 임초석이라고 해석을 했다. 마을로 내려가 '임초석네'라고 부르면서 갔다. 마을에는 임초석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 임초석이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니 기분이 나빠 잡아들이게 했다. 임초석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봉사 부자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다.

옛날에 아부이도 봉사고 아들도 봉사라. 아부이도 봉사고 아들도 봉산데, 그래 아부지가 지

만 봉사고 아들까지 봉사가 되니까 이기 너무 억울한 기라.

'봉사몬 내만 봉사면 될 긴데, 이거 아들까지 봉사가, 이기 뭐 큰 유전인가.' 싶어가지고 억울해죽겠는데, 둘이서 인자 요새는 다 무울(먹을) 기 많지마는 옛날에는 봉사들이 얻어 묵고 살아야 되는 기라.

그래가 고개 넘어 얻어무러 간다고 가이까, 아들하고 둘이서 짝대기를 짚고 넘어가는데, 아들이 돌에 채이가지고 넘어지뿠는 기라. 그래 억울해가 그 저가부지가(자기 아버지가), '우리 아들로 넘간(넘긴) 놈이 어느 놈인고.' 찾으이께 그 돌이라.

쪼맨 돌에 받히가(부딪쳐서) 넘어갔는데, 그래 돌로 빼가지고 가만이- 생각을 해보이, 점을 쳐보니까, 아까 병을네 조씨, 박씨 할무니맨키로(할머니처럼) 점을 치보니까, 그 돌이가 저거 앞날의 인도를 해주는 돌이라.

앞날을 생계를 유지하두록, 그래 인자 내리감서(내려가면서) 그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모, 거 고개 넘어가다가 돌로 발견해가지고 채여가 아들이 구불라졌으니, 그 돌을 보이까, 수풀 림(林)자, 숲속에서 돌이 나왔다 캐가지고 또 돌 석(石)자, 임초석(林草石)이라 하는 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 내리감사 임초석네라고 부르고 갔는 기라.

'임초석이 집을 찾아가모 우리가 앞으로 뭐가 앞날의 뭐 생계에 도움이 될 기다.' 싶어서 임초석이라고 부르고 가니까, 그 동네 임초석이라 카는 사램이 큰 부자라.

그런데 두 봉사가 내려오면서 임초석이라고 부르고 오이까 고마 화가 났던가,

"지나가면서 내 이름 부르고 가는 놈을 잡아디리라."

캐가 잡아딜이 놨는데,

"그래 인자 뭐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고 지내갔노?"

카이, 그래 사실대로 이야기로 하니까,

"그래 이리이리해서러 우리 아들이 구부라진데 내가 꾀로(괘를) 빼 보니까 임초석네 집을 찾아가모 우리 앞날이 인도될 기다 싶어서 찾아왔다."

그래서 인자 그 집을 찾아가니까, 확실히 그 사람이 인자 좀 뭐가 아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봉사로 저녁을 믹이서 재았어.

재았는데, 그래 임초석이가 그기 그 이야기일꺼구만은. 그래가지고 재왔는데, [천천히 생각하며] 재았는데, [조사자: 대접을 잘 받았는가 보지요.] 재았는데, 재았는데, 아들 저기 저녁을 전하더라? [이후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지] 아! 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들 …….

꿈을 잘 해몽한 할머니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앞에서 점을 잘 본 맹인 이야기를 끝내고, 그 이야기로부터 다음 꿈 해몽 이야기를 떠올렸다.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갈 사람이 과거를 보기 전에 꿈을 꾸었다. 술병을 드는데 술병의 목이 부러지는 꿈이었다. 꿈 해몽을 잘 하는 할머니를 찾아갔지만, 할머니는 없고 딸만 있었다. 딸이 자신도 해몽을 잘 한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 꿈 이야기를 듣고는 과거에 떨어질 꿈이니 이번에는 과거 보러 가지 말라고 했다. 해몽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에게 딸이 대신 꿈 해몽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딸에게 어떻게 꿈을 해몽했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딸을 야단치면서 그 꿈은 과거에 합격할 꿈이라고 했다. 술병의 목이 떨어졌으니 두 손을 모아서 술을 따라야 하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모아서 감싸는 일이 생기니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을 불러 과거를 보게 하니 해몽처럼 과거에 합격했다.

옛날에 송병신이라 카는 분이 과게를 보러 갈낀데, 꿈을 꾸니까 술뱅을(술병을) 드니까 술뱅 모간지가(모가지가) 떨어짔부는 기라.

옛날에 술뱅이 아이고 와 그거 한 대빼이, 그 와이 그 뭐꼬, 뭐라 카노, 그거 뭐 요새 겉으모 골, 뭐라 카노 그거? 청자 백자 나오듯이 그런 술뱅인데, 드이까(드니까) 술뱅 모가지가 뚝 떨어진께, 떨어져서 그래서 인자 그거로 가지고 그 옆에 오늘매꾸로(오늘처럼) 그 조씨, 박씨 할머니맨쿠로 잘 하는, 해석하는 해몽 잘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해몽하로(해몽하러) 갔는 기라. 해몽 하로 가니까 할무니는 없고, 해몽하는 할무니는 없고, 딸이 있는 기라. 그래 가이까,

"아이 임 선생님 우찌 왔십니까?"

하이케네,

"내가 이래 자가다 꿈을 꿌는데 꿈 해몽하러 왔다 카이. 엄마는 어데 갔나?"

물어본께,

"그 어떤 꿈을 꿌습니까? 내가 해몽을 잘 합니더. 어 말씀을 해보이소."

카이, 그래 함께 딸이고 한께 잘 아는가 싶어가 이야기를 해줐는 기라.

"그래 내가 과게 보러 갈긴데, 그래 꿈을 꾸인께, 술뱅을 드인께 술뱅 모간지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과게 보러 가몬 안 떨어지겠는가 될란가 싶어서 걱정스럽아서 왔다."

카이께,

"하 요번에는 가지 말고 다음에 가이소."

이라거든.

"과게 보러 가면 떨어집니다."

이기라. 그래 인자 갔다 나온께, 그래 저그 엄마가 오는 기라. 오는데 그래,

"아이고, 선생님 우찌 왔다 합니꺼?"

"내가 뭐 이리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러 왔다 간다."

"그래 해몽했십니꺼?"

"그래, 딸님인테 이야기 해가 해몽하고 갑니다."

그래 떡 저검매가(자기 엄마가) 드가가지고,

"그래 그 선생이 와서 어떤 꿈을 꾸고 해몽을 어떻게 했노?"

물어보이,

"그래 이리 해서 술병 모간지가 떨어진께, 물병 모가지가 떨어져서 요번에는 가지 말고 다음 기회에 가라 캤다. 술뱅 모간지가 떨어졌은께 요번에 과게 보러 가모 안 떨어지겠나."

그래 가서 대기(매우) 딸로 야단을 쳐노이까,

"입 씻고 온나 말이야. 그 어데 그런 나쁜 입을 가지고 말이야 넘 과게 보러 가는 거 해몽을 그렇게 나쁘게 해. 그 요번에 과게 볼러 가몬 되는 꿈을 꿨는데, 와 니가 나쁘게 했노 말이야."

그래 인자 입을 씻고 진짜 들우이께, 저거 엄마가 해몽 하기로 어떻게 하나 하모,

"술뱅이 떨어졌으까 요번에 과게 당선이 된다. 되는기가 왜 되냐 하모 술뱅을 부울라 카모 한 손으로 붓는데, 술뱅이 떨어졌으니까, 옛날에 이 밑에 거는 둥그래서 열 손을 가지고 모아야, 열 손가락 모아야 술로 붓는 기라. 그래 만 사람이 다 우두니까(모아서 감싸니까) 요번에는 과게 볼 운이다. 될 운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분을 불러가 새로 과게 보러 보내가지고 그래 과게로 뭐 급제를 하고 왔다 이런 말이 있대.

며느리보다 더한 구두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옛날에 제보자가 구두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들어보면 좋겠다고 하자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어느 집에서 손님이 오면 큰며느리는 김치를 잘게 썰어 내고, 작은며느리는 김치를 포기채로 내놓았다. 이를 본 시어머니가 김치를 헤프게 내놓았다고 작은며느리를 나무랐다. 작은며느리는 김치가 크면 손님들이 젓가락을 대기만 하고 먹지 못한다고 하며 더 아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큰며느리보다 작은며느리가 더 지혜롭게 아낀 것이다.

하루는 작은 며느리가 재첩국을 샀는데, 바가지에 재첩국을 부어보라고 했다가 비싸다고 하며 사지 않았다. 바가지에 묻어 있는 재첩국 물로 국을 끓여 시어머니에게 대접했다. 시어머니가 평

소와 다른 국맛을 보고 이유를 묻자 작은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걸 장독에 부었으면 일 년을 먹었을 거라며 오히려 구박을 했다. 작은 며느리가 서러운 마음에 시아버지에게 다시 자초지종을 이르자, 시아버지는 그것을 우물에 부었으면 몇 년을 먹었을 거라고 했다.

어는 집에서 메느리를 봤는데, 메느리가 손님이 오이께, 이래 짐치(김치), 짐치를 술상을 걸고 짐치를 짱글어(잘라) 놨는데, 이리 마 짠디로(조그맣게) 짱글어야 되는 기라.

막 톰배기 톰배기(토막 토막) 짠디로 장글어나야 찍어 묵어도 자꾸 남아야 되제. 짠디로 짱글어서 막 이래 짠디로 짱글어나야 되는데, 작은 메느리로 보고 오이까,

"그 술상 채리는, 야야, 술상 차리라."

캤더만은 짐치로 가 왔는데 본께, 듬북듬북 크게 짱글라 옴패기로(온 포기로, 뿌리채 낱개로) 이래 가왔는 기라. 그래가지고 '아하, 큰일 났다. 저거 덕고(데리고) 우째 살림을 살겠노.' 해가, 손님이 가고 나서 불러가 머라 캤어(나무랐어).

"그래 야야 이래가 우리가 살림 못 산다. 손님이 오몬 짐치도 잘게 짱글라가 찍어 묵다가 묵다가 남가놓고 가야 할낀데, 그러노모(그렇게 해놓으면) 한 개 주무뿌모(주워 먹어버리면) 그러모 우리가 멫일 무울(먹을) 거 다 무뿌나."

카이,

"아부이, 허이 형님이 채린 김치가 마이 남스입디꺼? 내가 김치 채린 김치가 마이 남스입디꺼? 이래 거 크게 해노이께 손님이 재까치만(젖가락만) 대마 보고 못 묵고, 대만 보고 못 묵고 놔뚜고 갔는데, 행님 핸 건 다 그 마이 지 묵고, 찍어 묵고 안 갔십디꺼?"

그런 쫌실이가(좀팽이가) 있다 카는데, 그래서 어디 갔다가, 하리는(하루는) 그 인자 작은 메느리가 좀 더 심했지. 그란께 작은 메느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요새겉으몬 그 옛날에는 그 뭐꼬, 젓 팔러 마이, 재칩국 사이소 카는 게 안 있소?

"재첩국 사소-."

카고 애고(외치고) 다니니 젓통을 이고. 그라이께 작은 메느리가 한 뱅 바가치로 들고 나가가지고,

"이게 서너 사발 부-보소. 떠보소."

카이 세 사발을, 서너 사발을 바가치에다 부었는 기라. 그래,

"얼마요?"

카이께,

"얼마다."

카이께,

"아이 비싸 못 사겠다."

캄서 동이다 바로 부우줬는 기라. 부우주고 인자 드가가지고 인자 그 한 배기 젓 묻은 거로 씻거가지고 그 날 아침에 국을 낋있는 기라.

국을 낋이가 국을 무보이, 시어머니가 국을 무우보이 국 맛이 다르거든. 맹 물로 가 끓있으몬 국맛이 그래 안 나올긴데, 뭐 쫌 육미 그 뭐꼬 고깃국물 내가(냄새가) 나거든.

"야야, 온 아칙에(오늘 아침에) 국이 다르네."

카이께,

"어무이, 내가 꾀로 내가지고예 이렇게 젓장사가 지내가는데 꾀로 내가 요래가지고 국을 낋있심더."

카이께,

"와이고, 니 이 니하고 살림 못 사겠다."

이기라.

"그 한 배기를 씻거가지고 장독에다 부었으몬 일년 내 묵을 긴데, 하리 아침에 그걸 다 무뿠나?" [웃음]

[조사자: [웃으며] 시어무이가 더.]

그랬는데, 그래가 인자 지는 잘 한다고 잘 했는데, 시어마이 그래 쫓기나가 삽작걸에(삽작이 있는 길에, 즉 대문으로 난 길에) 사립에서 울고 있으이까, 시아버지 오몬 인자 일러가지고, '내가 이런 좋을 꾀를 냈는데, 어무이가 머라 카더라.' 할라고, 그래 삽작걸에 서가 비를 맞고 서가 있으이께, 시아바가 오는 기라.

"야야, 이거 와 이라노?"

카이께,

"아부이, 내가 온 아침에예 젓장사가 지내가서 좋은 시근을 내가지고 이래 국을 낋이 어무이가 쫓가냅디더."

이래.

"그래, 우째서 쫓가내더노?"

카이,

"그래 그래 국을 낋있는데, 그 국을 자셔보더만은 장독에 안 붓고 다 낋있다고 쫓가냅디더."

"쫓가내기만 쫓가내. 그거로 우물에 붔으몬 멫 년을 무울(먹을) 긴데, [조사자 웃음] 장독에 부웄다고. [조사자 웃음] 장독에, 우물에 부웄으면 몇 년을 무울거로 하리(하루) 아침에 다 무뿠는데 안 쫓가내고 우짜겠노."

그런 쫌실이가 있더라요.

[조사자: [웃으며] 아이고, 시아버지가 더 하네요.]

아이, 그 시아버지 자꾸 갈수록 더 하지.

정씨 대신 배씨가 부자 된 사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옛날에 풍수 보던 사람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용한 풍수가 있었는데, 매우 가난했다. 아들이 아버지가 풍수를 잘 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싶어서 아버지에게 좋은 터가 없느냐고 물었다. 풍수는 좋은 터가 있는데, 그 곳은 정가가 살아야 부자가 되지 우리 배가에게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은 그 터에 가서 움막을 짓고 혼자서 살았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잘 살게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살았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자 부인이 사실을 밝혔다. 예전에 한 번 정가 홀애비와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풍수는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며 자신이 자리를 제대로 보았다고 했다.

그래 옛날에 저 아랫 동네 참- 용한 풍수가 있었는데, 저그는 몬 살아.

참 몬 살고 가난하게 사는데, 아들이 생각해도 '울 아부지가 저래 잘 하는 풍순데, 넘 집터로 봐주몬 다 부자 잘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래 못 사노 말이야.'

그래서 저거 아부지한테 물었어.

"아부지, 다 아부지가 집터를 봐주는 데는 다 가가지고 집을 지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리 못 삽니꺼? 어데 집터가 좋은 데가 없십니꺼?"

"있기는 있는데, 우리 터가 아이다."

이기라.

"그래 어른, 어떤 사람 터입니꺼?"

카이께,

"정씨네 터다 이기라. 우리는 배간데, 정씨네가 거게 가서 집을 지가 살몬 큰 부자로 살겠는데, 우리는 배가라서 그 집에 우리 안 맞다."

이기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마 아들이 가서 거게다 막을 칬는 기라. 나무를 산에서, 나무를 비이다가 막을 치고 지 홈차(혼자) 가 사는 기라. 살고 있다 보이까, 뭣이 쪼깨끔 가는 기 잘 되는 기라.

잘 되가, 제법 잘 살아가 인자, 집을 쪼깨 크게 만들고 이래가 저거 아부지를 덥고(데리고) 오고, 저거 엄매를 덥고 오고, 그래가 함께 살다 보이 부자가 되뿠는 기라.

그래가 부자가 되가 잘 사는데, 저거 엄매가 하고 저거 아부지하고 둘이서 인자 오늘 겉이 비가 오는 날에 방에 있다가, 저거 아부지 아-무리 생각히도 배씨가 부자가 될 터가 아이라, 정씨가 부자가 될 터지.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 이래 봐도 안 맞고 저래 봐도 안 맞고 있으이, 그래 저거 엄마가,

"당신, 뭐 때민에 무슨 걱정하고 있소?"

"그래 이기 땅이가 우리가 배가가 부자 살 터가 아이고, 정씨가 부자 살 턴데, 니 우째서 우리가 이리 부자로 사노 말이야. 이래가 봔(본) 기 헷 봔(헛본, 엉터리로 본) 것가. 이 참 이상하다."

카이, 참 맨날 그러싸이 저거 마누라가,

"그래 당신이 그라이께 내가 이야기를 하겄소 이기라. 거 아무데 그 정씨 호불애비가 하도 그래서 하룻밤 잤더마는 거게서 아가 됐는 갑소."

"[확신이 드는 듯한 큰소리로] 그라몬 그렇지. 그라몬 그렇지. 이게(여기에) 정가가 살아야 부자 될 턴데 왜 우리 배가가 부자가 됐노 말이야."

그래, 그런 말도 있더라요.

코에서 나온 쥐를 따라가서 부자 된 부부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8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예전에 코에서 나온 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는 다음 이야기를 바로 기억하여 구술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남편과 부인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바느질을 하고 남편은 자는데, 남편의 코에서 쥐가 나왔다. 부인이 호기심에 쥐를 따라 갔다. 쥐가 고랑을 건너가지 못하자 들고 있던 자를 놓아 건너가게 도와주었다. 그 쥐는 어떤 굴 안에 들어갔다 나온 후 다시 남편의 코로 들어갔다. 남편이 일어나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큰 강을 건너서 굴에 들어가니 금은보화가 많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인이 쥐를 따라 갔던 길을 가서 굴 안에 들어가 보니 금은보화가 가득했다. 부부는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래 옛날에 거 꿈을 꾸이께, 그 자기 부인하고 인자 그 남편하고 사는데, 그거 집에도 몬 사는 모양이라.

자기 부인이 바느질 할라고, 이래 밤에 바느질 할라고 불을 캐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으께, 저거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가마이(가만이) 보이 코에서 쥐가 나오는 기라.

쥐가 나오더만 방을 이래 하더마는 방문을 연께 쏘록 나가뿌거든. 그래서 쥐가 어디로 가는가 싶어서 나오다가 보이께 짓작, 뭐고 그거, 자로 옛날에 와 나무 대자 안 있어예, 자로 들고 나왔어. 나오다 보니까, 그래 쥐가 자꾸 가는데 따라갔는 모양이라. 따라가이 쥐가 자꾸

가는대로 따라갔더마는 그래 가이 쪼맨한(조그만) 고랑이 있는데, 고랑에 쥐가 못 건니서러 대로 놔놓인께 고 쥐가 타넘어 타고 건너갔부는 기라. 건네가 가더만은, 그래 어데 가서 인자 큰 바우 밑에 드갔다가 기다리고 있으이 쥐가 나오는 기라.

그래서 또 돌아오는데 따라와가지고 거기 또 고랑 건너는데, 자를 놔둤디만은 건너 와가지고 방에 가서 인자 또 코로 드가는 거 보고 잤어.

남자가 자고 있으니 바느질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거 남자가 일나더만은,

"야, 이상하다. 꿈을 꿨는데 어데 가니까 큰- 독 안에 은금보화가 들었는데, 어덴고 모르겠다."

이기라.

"틀림없이 큰 강을 건너갔는데, 큰 강을 건너는데 거 강을 건너서 가가지고 강 건네에 가이께 큰 보화가 들은 굴로 드가이, 거 큰 보화가 들었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가 어덴고로 모르겠다."

이기라. 강은 큰 강이다 이기라. 쪼깨는 자를, 강을 건너가는데. 그래 여자가 생각해보니 '차아- 이상하다' 싶어. 그래가 이제 여자가 쥐 간 데로 자기가 인자 가봤는 기라.

가보이께 독 안에다가, 요새 같으모 뭐뭐 금이라 카나 뭣이라 카노, 큰 이런 거로 누가 한 독 갖다 여놨는 기라. 그래가 그걸로 찾아가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이 있대예.

징검다리를 놓아준 효자 삼형제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가 이야기한 목록 가운데 개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라고 하자, 제보자가 개울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난다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아들 삼 형제가 있었다. 하루는 작은아들이 밤만 되면 치장을 하고 도랑을 건너 홀아비 집으로 가는 어머니를 보았다. 작은아들이 형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어머니를 쫓아내자고 했다. 큰아들이 하루는 이를 확인하고, 다음날 동생들을 데리고 도랑에 징검다리를 놓았다. 항상 버선을 벗고 도랑을 건너던 어머니가 버선을 벗지 않고 징검다리를 밟아 도랑을 건널 수 있었다. 어머니는 누가 징검다리를 놓았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어머니가 죽을 무렵, 자식들이 우리가 징검다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 개울 카이 생각이 나는데, 고고이 쓴다이, 그 뭐꼬 질검다리 뭐고 질검다리 호자(효자). 질건다리 호자가 있었어예. 질검다리 호자.

그 고랑가에 인자 돌로 갖다가 건너가도록 만들은, 그게 질건다리라 안 카요? [조사자: 예 예, 징검다리.]

질검다리 호자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 아들이 서이 삼행진데(삼형제인데), 저검매가(자기 엄마가) 밤만 되모 옷을 갈아 입고 화장을 하고 고고 고랑(도랑) 넘에 저 각, 고랑 너메 어느 호불애비가 사는데 호불래비 집에 가는 거야.

그거로 우째 아나 하모, 큰아들이 안 보고 작은아들이 봤는 기라. 밤만 되몬 저검매가 나가사서 '이상하다.' 싶어서 작은 아들이 뒤를 밟으니까 저검매가 옷을 갈아입고 그래 가가, 고랑 가 가가지고 그 넘에 고랑을 건너가 호불애비 집에 가고 이래.

그래서 고랑 가에 가몬, 항상 보몬 고랑 가 가서, 요새는 양발이지만 옛날에는 보선(버선), 보선발로 보선을 빼가 벗고 고랑을 건너가 버선을 신고 그 호불애비 집을 가는 기라. 갔다가 오다가 인자 그걸 작은아들이 보고 저거 새이한테(형한테) 그랬는 기라.

"형님, 엄마가 밤 되모 이라는데, 엄마를 쫓가내지. 우리캉 형님이 사입시더."

"확실히 봤나?"

카이,

"봤다."

이기라.

그래 저거 새이가 인자 하리 저역에(하루 저녁에) 봤는 기라. 보니까 그 잠을 안 자고 숨탐을(염탐을) 하니까 저검매가 밤중 돼 일나가지고 보선을 벗고 가더만은, 그 고랑 가에 가서 고랑을 보선을 벗고 그래 건너가가지고 그 보선을 발로 닦고, 보선을 신고 그 호불애비 집에 갔다 오는 기라.

그래가 인자 그 안날부터는(다음날부터는) 저거 동생 둘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고랑에다가 질검다리로 났는 기라. 돌로 쉬다가, 보선을 안 벗고 지내가도록까지.

그래 질검다리로 놨는 기라. 그래 놔가 나놨는데, 저검매 그날 저녁에 그 가가 보선을 벗고 건너갈라고 보이께 질검질검 굵은 돌로 지어 났거든. 보선을 안 벗어 지내가겠는 기라. 그래서 보선을 안 벗고 지내갔다가 왔는데, 그 돌 난(놓은) 걸 누가 났는지 모르는 기라. '돌을 누가 놨노 말이야.' 그래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돌 난 사램이 없어.

그래가 그러로 몬 캐고 있다가 저거매가 인자 죽을 무렵에(무렵에) 저검매가 죽을 무렵에 저거 아들이 저검마한테 그 이야길 했어.

"엄마, 옛날에 이랜 거 우리가 했십니더. 그 엄마가 거 너무 궁금했을 깁니더. 우리가 했이니까 그래 알고 돌아 가이소."

그 저검마가 해서 알았다 안 카나.

부인 항문에다 호박범벅 먹으라고 한 남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0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과거 제보자가 한 이야기 자료를 보고, 호박범벅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한 남가자 장가를 가서 처갓집에 가서 장인과 부인 셋이서 한 방에서 잠을 잤다. 그날 호박죽을 쑤었는데, 호박죽이 참 맛이 좋아서 남편이 손에 호박죽을 들고 와서 부인에게 먹어보라고 권했다. 그런데 항문에 대고 호박죽을 먹으라고 권하는데 부인이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남편이 “안 뜨겁다. 불지 말고 먹어라.”라고 말했다.

호박범벅 이야기라 카는 거는, 옛날에 그 요새 겉으모 호박죽이요, 호박죽인데.

옛날에 이제 장개로 가가지고 처갓집에 잤는데, 장인이 홈차(혼자)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 인자 저거 딸로 시집, 사우하고(사위하고) 저그 딸하고 장인하고 서이서 한 방에 잤던 모양이지.

한 방에 잤는데, 그래 그날 저녁에 호박죽을 딸이 끓인 게 아니고, [기억을 더듬으며] 아이 딸이 그랬다 카든가 사우가 그랬다 카든가 자기 장모가 그랬다 카든가 그거는 모르겠네.

딸이라 보고. 그래 그랬는데, 그래 딸, 호박죽을 참 맛이 있어. 맛이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거 그 사우가 부엌에 가가지고 호박죽을 손에다 들고 와가지고 저거 마누라를 보고,

“이거 무(먹어) 봐라. 아나 무라.”

카이, 입에다 대고 묵으라 캤으몬 괴않겠는데(괜찮겠는데) 항문에 대놓고 묵으라고 이래 싸이께,

“아나 묵어라. 아나 묵어라.”

카이께 항문에서 인자 방구로 낐던 모양이라. 학 하이께, 피식 하이께, 한단 말이 뭐라 카노,

“안 뚜겁다(뜨겁다) 불지 말고 무라. 안 뚜굽다 불지 말고 무라.” [조사자 웃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안 뚜굽다 불지 말고 무라.

이상하게 들리는 까마귀 소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제보자는 다음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옥이네가 밭을 매고 있었다. 까마귀가 지나가다 '옥이네 옥이네'라고 하며 지나갔다. 옥이네가 까마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에 화가 나서 까마귀를 쫓아냈다. 하루는 까마귀가 봄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 바닷가를 돌다가 홍합을 보았다. 홍합이 입을 벌린 모습이 빨갛게 맛이 있어 보여 쪼아 먹으려는데, 홍합이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까마귀가 근근이 부리를 빼고 산으로 날아갔다. 어떤 처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잠시 누워있는데 까마귀가 지나가다 바다에서 보았던 입 벌린 홍합 모습이 보여, '또 물래, 또 물래'하며 지나갔다.

까마귀는 옛날에 그 그런 게 있어.

까마귀는 이 동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 이 동네 옥어네라고(옥이네라고) 있어예. 옥어네라고 있는데, 옥어네가 밭을 매이께 까마귀가 옆에 와서 우는 기가 자, [동의를 구하듯이] 옛날에는 옥어네 옥어네 안 카요. 옥어네 카고 뭐 자야네 카고 [동의를 구하듯이] 뭐이라 안 하요.

'옥어네, 옥어네' 울거든. 고이 인자 까마구 기국, 가마이 밭을 매다보이 지 이름을 자꾸 '옥어네 옥어네' 하고 우이께, 매 화가 나가지고 가서 마 일나서(일어나서) 마 후찼다(쫓아냈다).

후찼부고 나이, 갔다 오더만은 또 '옥어네, 옥어네' 카고 또 우는 기라. 그래 그런 영리한 까마구가 낼로 우째 옥어네라고 아노 말이야.

아노 캤는데, 그 영리한 까마귀가 봄이 되가 묵울 기 없어가 바닷가로 이래 가이께, 바닷가 담치, 알지요? 홍합이라고. 홍합이 이래 물이 나모 입을 벌기요(벌려요). 입을 벌기는데, [여학생 조사자를 보고] 이해를 하소. [조사자 웃음] 입을 벌기는데, 이거 담치가 입을 벌기고 하모 똑 여자 뭐같이 생겼다 안 카요.

그래서 그거로 인자 빨가이(빨갛게) 해가 맛이 있어 보이는 기라. 입을 가 쪼사가 묵울라고 한께, 담치가 딱 오무라 들어뿌는 기라. 오무라 입을 몬 빼가지고 근근이가(근근이, 겨우) 뺐어.

빼가지고 인자, '아 까마귀는 산중에 사라 카는 까마귀지, 바닷가에 가라 카는 까마귀가 아닌가' 싶어서 산중으로 훌훌 날아가니까, 그때 봄철인가 무울 게 없어가 그랬겠지.

봄철인가 요새는 다 뺀티 좋은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거 여자들 앉으몬 벌어지가 오줌 누는 그런 거 입을 땐데, 그래 산중에 가이께 여자가, 처녀가 가서 나무를 해러 갔다가 하도 마음도 뒤숭숭해서 누부가(누워서) 있으니까 [아래쪽을 가리키며] 이게 떡 벌기(벌려) 있었던 모양이라.

까마구가 지내가매 한단 말이가 '또 물래, 또 물래' 카고, [조사자 웃음] 착각을 해가지고, 담친가 그긴가 몰라가 [조사자 웃음] 착각해 '또 물래, 또 물래' 카고 지내갔다 안 카요.

사돈끼리 소를 바꿔 타고 간 사연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옛날에 사돈끼리 소를 바꿔 타고 간 이야기가 있더라고 하며 이야기를 유도하자, 제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소를 팔기 위해 나온 사돈끼리 장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해가 저물고 술에 취해서 소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소를 바꿔 타고 가게 되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시집간 딸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때서야 소를 바꿔 타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옛날에는 사돈끼리 장에만 되모 제일 반갑다 카거든.

"아이고, 사돈 장에 왔소?"

카고 그러는데, 사돈끼리 장에 가가 만내가지고,

"아이고, 사돈 장에 왔십니꺼?"

"그래. 사돈도 장에 왔어? 나는 소 팔러."

"나도 소 팔러 왔심더."

그래가 마 소는 놔놓고 둘이서 매놓고 술로 한 잔 두 잔 묵다가 보니까 마 술이 취해가지고, 소는 몬 팔고, 저녁에 해가 지가 돌아오는 판인데, 요새는 인자 다 몰고 댕기지만 옛날에는 소를 타고 댕깄던 모냥이지.

소를 바까(바꿔) 탔던 모양이라. 술이 취해가 소를 바까 타놓이께, 소는 저거 집을 알고 다 바까 갔는 기라.

그래가 바깥 마구에다 소를 후쳐 여놓고 잤는데, 자고 아침에 일나니까, 문을 여이께, 저거 딸, 어지(어제) 아래가 시집간 딸이가 마당을 씰고(쓸고) 있거든.

그래 마당을 씨는 딸이가 방을 보이께 저거 시아바이가 있어얄게 저거 친정아바이가 있는 기라.

"아부지, 우짠 일입니꺼?"

카이께,

"야야, 마 나는 이래 됐건냥 우리 집은 우째 됐는공 모르겠다. [일동 웃음] 나는 이래 됐건만은 우리 집은 우째 됐는강 모르겠다."

그래 소를 바까 타가지고.

꿈 이야기 안 한 덕분에 행운을 얻은 머슴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꿈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하며 이야기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 머슴끼리 모이면 어제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어떤 머슴이 전날 밤에 멋진 꿈을 꾸었다고 하고는, 어떤 꿈인지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았다. 다른 머슴들에게 맞고 집으로 오니, 주인이 왜 맞고 왔는지 물었다. 주인이 사정을 듣고 머슴에게 자신에게만 꿈을 이야기하라고 했으나 듣지 않았다. 주인이 머슴을 창고에 가두었다. 창고에 갇힌 머슴이 주인이 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족제비가 와서 밥을 뺏어 먹었다. 그 족제비를 잡아 죽였는데, 다른 족제비가 이상한 풀을 가져와서 비비더니 그 족제비를 살려서 갔다.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머슴이 이상한 풀을 가져온 족제비를 죽여 풀을 빼앗았다. 그후 어느 정승집 딸이 급사하여 용한 의원을 구하자, 이 머슴이 풀을 가져 가서 족제비가 한 대로 하여 그 딸을 살리고 그 집의 사위가 되었다. 대국에서도 공주가 급사하여 이 머슴이 가서 같은 방법으로 공주를 살려서 공주와 혼인을 했다. 그때서야 꿈 이야기를 했다. 한 다리는 해에 걸치고 다른 다리는 달에 걸쳐 잠을 자는 꿈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했다.

그래 꿈 이야긴데, 그래 꿈을 꾸기로 참 멋진 꿈을 꿋어. 꿨는데, 그래 저그꺼정 모이가 낮에 모이몬 머슴끼리 모이가,

"어지는(어제는) 니가 머슨 어떤 꿈을 꾸었노?"

"니는 어지는 뭐 했노?"

마 서로 모임을 하는데,

"나는 어지는 무슨 일을 했고, 언(어제) 지녁에는 어떤 꿈을 꿨고 마, 언 저녁에는 어데 가서 새끼를 꼬았고, 어데 가서 신을 삼았고."

하는데,

"언 저녁에는 꿈을 꾸이께 [강조하여] 참- 이상한 멋진 꿈을 꿨다."

이기라.

"무슨 꿈을 꿨노?"

카이께,

"아이고, 꿈 이야기 몬 하겠다 이기라. 너거한테 꿈 이야기는 좋은 꿈은 못 한다 카더라. 안 한다."

그래 머슴들이 모이가 마 팼어 그만. 그 패가지고 인자 그래가 맞고 나무도 못 하고, 나무

하다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래 주인이 물으이께,

"들고 들와가 니 와 이라노?"

카이께,

"그래 머슴들이 패서 이래 왔십니더. 아무데 아무거시 머슴하고 아무거시 머슴하고 날로 때리가 패서 이래가 맞고 왔십니더."

카더래.

"그래 뭣 때민에 때리더노?"

카이께,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로 안 한다꼬 패더라."

이기라.

"그래 무슨 꿈을 꿨노?"

카이께,

"아이, 꿈 이야기는 몬 하겠다."

이기라.

"와 꿈 이야기로, 그래 머슴들한테는 그래 내한테는 해야 할 거 아니가."

"안 된다 이기라. 몬 하겠다."

카이, 그래 그래 꿈 이야길 안 했더마는 그 길로 우쨌냐 하모 그 주인이 인자 잡아 옇, [집에 전화가 와서 부인이 통화를 하자 잠시 이야기를 중단했다가] 그래 요새 겉으모 옛날에는 뭐 그 이리 그거하지만 옛날에는 좀 잘 사는 집에는 뭐 이래 뭐 창고에다 가두는 갑대.

"창고에다 여가 잡아 옇서, 저놈을 묶어 놔라."

이래 묶어 놨는데,

"바른 말 하도록 꿈 이야기 하도록까지 묶어 놔라."

묶어놨는데, 그래 창고에 묶어 놓고 있으이께, 그래, 그래도 살릴라고 인자 밥을 쪼깨금(조금씩) 줬던 모양이지.

밥을, 주먹밥을 쪼깨끔 주고 이라이께, 밥 묵어 묵을라고 밥을 딱 거머쥐고 있으이까 쪽제비가 오더만은 밥을 탁 털어 무뿌는 기라. 그라이께 그래 이상하다 싶어가 밥을 쪽제비한테 앳기고(뺏기고) 그래 털어가주 물고 가뿌서로 앳기고, 내일도 올랑가 싶어가 들고 있으이께 또 쪽제비가 왔는 기라.

그래가 쪽제비로 인자 잡았어. 잡아가 뚜디리 잡아가지고 쥑이가지고(죽여가지고) 옆에 놔 났는데, 그 안날 보니까, [잠시 통화 내용을 부인에게 물으며 대화함]그래가지고 놔났더만은 또 옆에 쪽제비가 한 마리 오더만은 얄궂은 풀로 가 오더만은 이래 이래 [손으로 새끼 꼬는 흉내를 내며] 하더만은 살리가 가는 기라.

[조사자: 어 그 옆에 쪽제비가.] 딴 쪽제비가 풀로 뜯어가 오더만은 그 풀로 가지고 쪽제비한테 이래이래 하더만은 살리가 가는 기라.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 풀이 무슨 풀인고, 그 풀로 또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 그 안날은 인자 있으니까 또 쪽제비가 또 밥을 털러

왔는 기라.

그래가 옆에 쭉이났는데, 또 쭉이놓고 있으이께 또 쪽제비가 풀로 물고 와 살리 가. 갈라고 풀로 물고 완(왔는) 걸로, 풀 물고 완 쪽제비로 때려가 인자 풀로 뺏들았는 기라.

뺏들어 놓고 나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그날 그해 그때 어는 큰 정승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이래가이 딸로 살리, 딸이 뭐 죽었는데, 언 저녁에 급하게 죽었는데,

"이거는 용한 의사가 있으모 살린다."

고 이래가지고 뭐 그래 했는데,

"그래 내가 살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러내가 가본께, 쪽지비 하는 식으로 딱 그랬는 기라. 방을 하니까 딸이 살아났는 기라.

그래 살아나가지고, 그래 인자 그 집에서 전부 그 처자로 뺏기놓고 자기가 똑 쪽지비 하는 식으로 해노니까, 그 처자가 지 몸 다 뵈이고 핸 때민에 그 사람을 남편을 삼아가, 그 집 사우로 삼아가 사는데, 그 대국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 기라.

큰 대국에서 큰 임금의 딸인가, 이런 데서 있어가 그가 아무거시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카더라 이래가 그 사람이 거 불리 갔어.

불리가(불려가서) 이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렸어. 여자를 살리고 난께 거게서도 인자 대국에서도 남자를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만 안 보내고 그 그 뭐꼬 공주하고 살리, 같이 살기 됐는데, 그때사 인자 꿈 꾼 이야기를 하는 기라.

"내가 꿈을 꿨는데 한 다리는 달에다, 해로 발로 걸치고 잤고, 한 다리는 달에다 걸치고 잤다."

이기라.

"한 다리는 달에다 발로 걸치고, 한 다리는 해에다 발로 걸치고 잤는데, 인자는 내가 다 했다."

이기라.

함안 읍내 문칠네 복과 석숭장제 복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4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함안의 문칠네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요새도 문칠네 복이라는 말을 한다면서 이 말이 나온 유래를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듯 한참을 머뭇거리다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함안 문칠네는 복이 없기로 유명하다. 반면에 석숭장질은 복이 많았다. 어떤 여자가 아비를 모르는 아이를 지나가는 원두막에서 낳았다. 이 아이가 석숭인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돈과 물건을 던져 주었다. 석숭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니, 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 모두 잘 되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많이 갚아주니 큰 부자가 되었다.

함안 읍네 문칠네는 나무를 두 짐을 해놓아도 한 짐이 없어졌다. 하루는 나뭇짐 속에 들어가 있었다.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 나뭇짐을 가져 갔다. 그곳에 가니 복 주머니들이 달려 있었다. 나의 복은 어느 것이냐고 묻자 너의 복 주머니는 없다고 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사정하니 석숭장질의 복을 조금 줄 테니 곧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함양 읍내 문칠네는 그렇게 복이 없었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도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문칠네 복이라는 말을 한다.

문칠네 복이 좁쌀 두 개도 몬 포개 묵고 산다는 게 문칠네 복이라 안 카요.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을 문칠네 복이라고. 제일 복이 없는, 하여튼 고스톱 치가 한 분도 못 이기모 '내는 문칠네 복이다.'고.

문칠네라는 제일 못 살았는데, [조사자: 함안 사람인 모양이죠?] 어.

함안에 문칠네라 카는 사램이, 그래 거기가 문칠네 복이라 카는 기가, [잠시 생각하며] 그 기가 옛날에 문칠네가. 엉 옛날에 그 석순장질이라대. 석순, 이름이 석순인가? 석순, 석순장질이라 하대.

석순장질이라 카는 사램이 어째 석순장질이라 캤나 하모, 요새 겉으모 여자가 어느 남잔곤(남자인가) 모르게 고마 우째가 애가 들었는 기라.

애가 들었는데 길로 가다가 요새 겉으모 그거 원두막겉이 있는 막이 있었는데. 요새는 전부 인자 다 길이 고속도로 뚤피가(뚫려서) 좋지마는 옛날에는 이래 마 길로 오래 걸어야 집이 우쩌다 나타나고 안 이라요. 그런데 원두막 겉은 데는 거 가다가 애가 놓기 됐어. 그래 낳았는데, 그 애가 다 지내, 사람이 지내가다가 여자가 거서 애를 놓으니까 불상타고 젊은 여자가 거서 애를 놓이. 전부 지내가다가 옷도 떤지(던져) 놓고 덮어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돈도 한 잎 떤져 놓고 가고 이랬는데.

그래 누가 이우지서(이웃에서) 그 여자를 더버다가(데려다가) 구원을 해가지고 인자 이래 했는데, 그 돈 떤지난 구로 넘을 채줐더만은(빌려 주었더니만) 그것도 마 채간 사람은 다 잘 돼. 그래도 마 채간 사램은 전부 잘 되니까 백원 채가모 이백원도 가오고, 이백원 채가모 사백원도 가오고, 마 돈을 갖다 주이까 자꾸 마 이래 불어나니까, 그 그이 돈 있는 사람도 그 돈 채와 가는 기라.

장사 할라 카고 사업 할라 카몬, 채만 오모 잘 되고 이래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램이 그래 잘 되가 큰 부자가 석순장재가 사는 부자가 되뿠는데.

함안 읍내 문칠네가 나무를 해다가 이래 동개놓으모 두, 오늘 한 짐 하고, 저녁답에 한 짐 더해 쟁기 놓으모 자고 나면 한 짐빽이 없어.

한 짐은 다른 데 달아올라 갔부. 달애갔부고 안 그라몬 도둑이 가갔부고(가져가 버리고).

두 짐 해놓으모 한 짐은 어델로 누가 가(가져) 가도 가져가뿌고 없고, 똑 한 짐밲에 안 되고, 한 짐 해가 밥 해 묵고 나면 없고. 딱 문칠네, 함안 읍내 문칠네 복이 그래 복이 없다는 기 함안 읍내 문칠넨데.

문칠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우애서(어떻게 해서) 나무로 두 짐 해모 한 짐은 없노.' 이래가 그날 저녁, 나무를 해놓고 나무 속에 드가 잤는 기라, 문철이가.

자이께, 하늘에서 줄이 내리가 나무로 들고 하늘로 올라가뿠는 기라. 그래 그거로 인자 한데 하늘에 나무로 달아 올맀는데, 그거로 몰랐는데 올라가 끌러보이 사람이 나와.

그래서 거 가보이께 전부 복을 달아 놨는데, 보이 복들이 마 크이, 이런 큰 함배기같은 두룸박이 겉은 복이 있고 쪼매는 좁쌀낱 같은 복이 있고 콩낱같은 복이 있고 이란데, 큰 복이 있더라 이기라.

"그 복이 누, 저 복은 누구, 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물으이께,

"니 복은 복이 없다."

이기라. [조사자 웃음]

"니 복은 달아맨 데가 없다 이기라. 그래 큰 복 저거는?"

물어보이,

"문철네 복이다 이기라. [말을 바꾸어] 아 뭐꼬 함안에 저승장대 복이다."

이기라. 석숭장재 복인데,

"그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몬 살아서 이래서 그했다."

하니까,

"저 석순장재 복을 쪼깨이 띠 줄끼니까 그걸로 가 살다가 쪼깨이 살거던 그 복을 니가 다부(도로) 우리가 다부 받아 올 기다."

그래 쪼깨이 띠 주더라 이기야.

그래 함안 읍내 문칠네가 그래 못 살았다요. 그래 함안 읍내 문칠네가 복도 없더라요. 딴데, 딴 사람 복은 작으나따나 있는데, 그 사람 복덩거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함안 읍내 문칠내 복이라 카는 즉, 요새는 어데 젊은 사람도 그라는데, [조사자: 요즘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르지예.) 어? 문철네 복이라 카는데. [조사자: 아, 그래예.] 요새도 문철네 복이라 카는데. 젊은 사람도 어장 하다가 안 되도, 하- 난 문칠네 복이다 카고.

돈 욕심에 아들(남편)을 죽인 어머니와 부인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5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옛날에 욕심이 많은 고부 이야기를 했던데, 무슨 이야기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 셋이서 살고 있었다. 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가서 고부끼리 살았다. 아들이 돈을 벌어서 몇 년 만에 집에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마루에 잠시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 사이 며느리가 들일을 끝내고 와서 보니 누가 자고 있는데 옆에는 돈 보따리가 있었다. 어머니와 작당하여 그 사람을 부엌에서 죽이고 나무 밑에 묻어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죽인 사람이 아들이었다.

마 옛날에 말하기로, 아들하고 메느리하고 엄마하고 서이가 사다가 아들이 돈 벌러 가고, 고부간에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돈 벌러 갖다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래 인자 집을 찾아 왔어.

멫 년만에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돈을 보따리로 마루에 갖다 놓고 이래 그 여름이든가 마루에 누븄는데(누웠는데) 잠이 들어 자뿠어.

자이께 저거 마누라가 먼첨(먼저) 들에 가 일하다가 와보니까, 누가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보따리가 있던데 보이까 돈이라. 돈 보따리라.

그래 뒤에 보이께 저검매가(자기 엄마가) 오더라고. 와서로 그래,

"야야, 저 사람이 눈고?"

카이께,

"모르겠는데, 어무이 저 사람 자는데 옆에 보이소. 보따리 안에 전부 돈입니더."

그래 둘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부엌에 끄고 드가가지고 부엌에서 직있는(죽였는) 기라. 직이가 나무 밑에다가 묻어놨는데, 그래가 묻어놓고 있으니까 저녁에 이우지서(이웃에서) 찾아 옸는데,

"아무거시 안 왔나?"

카고,

"그래 우리 아들이 여어 돈 벌러 가고 안 왔는데."

"오늘 왔는데, 집에 왔는데 와 안 왔다 캅니까?"

그래 나무 밑에 꺼내 보이 저거 아들이라.

돈에 욕심에 지가 아들로 직있어(죽였어).

속병을 고친다며 못된 짓을 한 감 장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6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제보자가 앞에서 한 음담패설도 좋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더 해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이야기를 한 김에 하겠다며 하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 산중에 부모와 딸이 살았다. 하루는 큰집에 제사가 있어 딸을 혼자 두고 제사를 지내러 가다 길에서 감 장사를 만났다. 감 장사에게 집에 우리 딸만 있으니까 그 쪽에는 가지 말라고 부탁했다. 감 장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집에 가서 딸에게 밥을 얻어먹고 잠까지 잤다. 그러면서 딸에게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속병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고쳐주라고 했다며, 그곳에 손을 넣어 나쁜 짓을 했다. 그곳에서 물이 나오자 감 장사가 속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말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가 오자, 감 장사가 와서 내 속병을 고쳐주고 갔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집이 다 이래 산중에 한 채씩 이래 사는데. 그래 사는데, 그 딸로 과연한(과년한) 딸로 놔놓고(놓아 놓고) 세 식구가 이래 사다가, 그날 저녁에는 저거 큰집에 지사가(제사가) 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가는데, 저거 딸만 산중에 인자 홈차(혼자) 놔두고 가는데, 그 뭐꼬 감 장사가 바지개(발채,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 지게를 지고 가을에 감을 팔러 오는 기라.

감을 팔러 왔는데, 그래 '감 사소. 감 사소.' 애고(외치고) 가이께, 그 가는 두 부부간이 한다는 말이,

"그 아무데 거게는(그곳에는) 가지 마라. 우리가 딸밲이 없다. 우리는 오늘 제사 지내러 간다."

카이께네, 그래 그 집을 마 찾아 갔는 기라.

[조사자: 아하, 감 장사가?]

가가지고, 그래 인자 그 집에서 밥을 얻어묵고, 그날 저녁 자게 됐는데,

"그 오늘 너거 아부지하고 너검마하고 큰집에 지사 지내러 감서, 그래 니한테가 자고 니가 뱅이(병이) 있다 카는데, 그 뱅을 좀 내가 보라 카더라."

그래가 인자 그래가 같이 뱅을 본다고 인자 잤는데, 자다 보니까 그래 뱅을 보는데, 그 마 바리(바로) 자고 뱅을 봤이민(보았으면) 될 긴데, 거기에다 손을 너가 막 주무리고 했던 모양이지.

[청중: 아이구! 젊은 사람 있는데.] [일동 웃음]

그라이께 거기서 이래 뭐 물이 났던가, 그래가,

"봐라. 이리 나쁜 물이, 남자 물인가 여자 물인가 몰라도, 이리 나쁜 물이 안에 드가가지고

그래서 니가 이랬다."

카이, 그래가 인자 그이 뒤에 그래놓고, 그 사람은 갔부고, 감골 아저씨는 갔부고, 저거 아부지하고 저거 엄매가 왔는데,

"엄마, 아부지 보소. 이거 당신네들이 말이지, 내 속에 뱅을 이래 여놓고 말이지, 뱅도 안 갈쳐주고, 이래 감골 아저씨가 와서러 내 뱅을 이래 고치놓고 안 갔나 말이야." [일동 웃음]

옹달샘 물맛보다 더 좋은 것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7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재미있는 음담도 좋다고 하자 제보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려면 뒤에서 누가 잡아줘야 물을 마신다. 남자가 먼저 물을 마시고 여자가 물을 마시는데, 남자가 뒤에서 잡아주다 재미를 보았다. 물맛이 좋으냐고 묻자, 물맛보다 그것 맛이 더 좋다고 했다.

그걸 옛날에 그런 게 안 있소.

그래 이래 질로(길로) 가몬 옹당샘이가 있는데, 물로 묵울라 카모 뒤에서 다부(도로) 잡아줘야 엎드리가 물로 묵는 기라. 옹달샘이 물로 엎디리가 빨아묵고 그러는데.

그래 뒤에서, 물로 묵으몬 뒤에서 이래 안고 잡아주모 허리로 꽉 잡아주고 엎디리가 물로 빨아묵고.

그런데 인자 그 인자 남자는 그래 묵고 나서, 여자가 무울 차롄데, 그래 인자 이래 묵고 있으이께 남자가 뒤에 잡고 있으이, 여름이던가 그래 뭐 묵다 보니까, 뭐쫌 뒤에서 뭐 재미가 있거든. [조사자 웃음]

"물맛이 좋나?"

이라니께,

"하이고, 물맛보다 꼬리맛이 좋다." [조사자 웃음]

물맛보다 꼬리맛이 좋다 카더라 캐.

말 천 마리를 구해 묘 쓰고 발복한 막내아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묘터 잘 써서 발복한 이야기에 대해 해달라고 부탁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 아들을 셋 둔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묘 터를 잘 보지 못하는 아들들은 마침 지나가는 도사에게 좋은 묘 터를 알려달라고 했다. 도사는 아들 셋 중에 똑똑한 아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좋은 묘 터를 알려줬다. 그런데 그 묘 터는 말을 천 마리 구해서 매어놓아야 발복하는 터라고 했다. 막내아들이 자신이 말 천 마리를 구해서 매놓을 테니 도사에게 출상하는 날 구경이나 오라고 말했다. 출상하는 날 도사가 와 보니, 막내아들이 그 사이 말 천 마리를 매어놓은 그림을 종이에 그려서 온 산에 뿌려두고 묘를 썼다. 도사는 똑똑한 아들이 막내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막내아들 집안은 훗날 삼정승 육판서를 지냈다고 한다.

옛날에 아들이 서인데, 저거 아부지가 초상이 났는데, 그래 어느 도사가 지내가다 보이까, 그 집에 보이께 쪼금 똑똑한 놈이 있어.

똑똑한 놈이 있겠는데, 어느 놈이 똑똑, 자식이 서인데, 어느 놈이 똑똑하는공 모르겠는 기라.

분명히 아들은 서인데, 똑똑한 놈이 어는 놈인고 모르겠는데, 똑똑한 놈 골루기(고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그래 인자 저거 아버지가 죽어 모터로(묘터로) 볼 긴데, 모터를 못 쓰가 그래싸이께, 도사가 지내가, 그 도사가 저녁을 묵고 한다는 얘기가,

"모터는 [강조하며] 좋은 데가 있는데, 내 그 모에 거게는 아무나 모실 때가 아이다. 말로 천 마리로 매야 땅을 굴리고, 땅을 굴리고 천 마리를 매야 발복을 하고 큰 부자가 되고 잘 된다. 그런데 말로 천 마리로 우째 구해 매꿀꼬 너거가?"

"그라모 그거는 걱정하지 마이소. 말 천 마리 내가 구해야지 도사님이 구핼 거 아이다 아입니꺼. 그래 내가 말 천 마리 구해가 매고 모시낄께(모실 것이니까) 그거 걱정 하지 말고, 그래 메칠 날 우리가 출상을 하겠심니더. 그날 구갱만(구경만) 오이소."

'그래 말 천 마리로 우째 맬낀고?' 싶어가 구경 하러 그날 와보니까, 그래 작은뇜이 말 천 마리로 구해다 맬라 캔 놈이, 그날 사흘만에 말 천 마리로 기맀는(그렸는) 기라.

조우를(종이를) 구해가 말 천 마리로 기리가지고 온 산에 말로 막 흐쳐(흩어) 뿌리놔놓고 그래 모를 씨고 있는 기라.

도사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감탄하듯이] 아! 그,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핸 기, '아, 이놈은 잘 될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램이 뭐 삼정승 육판서 했다는 그런 말이 났대예.

[조사자: 아, 제일 막내이가?] 응, 제일 막내이가. 지혜가. 도사 지도(자기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다 이기라.

파리를 훈련시킨 아기장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KKI_0019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1018번지 김기일 자택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김기일, 남, 82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가덕도에 장사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유도하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제보자에 대한 설화 조사를 마쳤다.
줄 거 리 : 옛날 가덕도에서 이씨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태어난 지 사흘만에 파리를 잡아서 훈련시켰다. 이 사실을 관청에 말하자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아이를 돌로 눌려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가 숨을 쉬니까 돌이 움직였다.

옛날에 거기 거짓말 참말이 옛날에 안 있었소. 있었는데, 옛날에는 여기 가덕에 이씨네 집안에 그래 뭐 아를 나놓고 사흘만에 드가이, 아가 뭐 파리로 불러놓고 파리도 훈련시키더라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그래서 그 아를 고마 저그만(자기들만) 알고 있었으면 될긴데, 관에다(관청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정 때가 돼가지고 그거를 관에 잡아다가 저 뭐 우리, 내가, 우리가 듣고 있기로는 가덕 넘어가몬 큰 이리 뭐꼬 그거 돌산이 있어예.

돌산에 그게 가서러 돌깨장을(돌을 깨는 사람을) 했는데, 돌깨장은 돌로 갖다가 막 쌓아서 직일라고(죽이려고) 돌로 갖다 놔놓이 아가 숨을 쉬이까 돌이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런 말이 있대.

나쁜 말버릇을 고친 며느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KET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을태, 여, 84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며느리 방귀 뀌는 이야기나 효부 이야기 등은 아시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제보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줄 거 리 : 말이 공손하지 못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후 어느 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하길, "소씨가 꺼적씨를 뒤집어쓰고 골목길로 가시고, 개씨도 따라가셔서 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후부터 며느리의 말씨가 공손하게 고쳐졌다.

메느리를 떡 봤거든. 메느리 떡 봤는데, 메느리가 시아바이한테 말로 해도 말이 다시 뻔뻔하니 말이 공손시런 말이 없어서러 그래,

"며느리."

"예."

"우째 그래 말도 그러치 그거 하노."

"예."

그래 한문은 이제 소가 밤에 뛰서 마구서 뛰 가이꺼네, 메느리가 머이 봤던 모양이라. 메누리가,

"아부이예."

"와?"

"소씨가 꺼적씨를 딮이(덮어) 쓰고 골목질로 가시고 개씨로 가시고 공공씨를 찼습니다."

카더라 커대. 어찌기 말이 귀특하든지 나와보이꺼네, 소가 거적지를(거적을) 참 딮이 쓰고 골목길로 가이께네 개가 꽁꽁 짖거든. 그래 인자 메느리가 말이 그때 시작해서러 시아바시한테 말이 참 공손하이 하더래요.

맷돌에 눌려서 죽은 아기장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KJB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1통(동선동 동선마을) 동선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유원

제 보 자 : 김재봉, 남, 78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이 마을에 전해 오는 전설이 없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유도했다. 이때 제보자가 나서서 가덕도에 전해지는 이야기라며 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줄 거 리 : 옛날 가덕도에 장사가 많이 났다. 천씨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를 눕혀놓고 물을 길러 갔다. 물을 길어 오니 방 안에 아이가 없었다. 아이가 천장에 붙어서 파리를 잡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맷돌로 아이를 눌려서 죽였다. 그러자 그 집에서 용마가 울면서 서쪽 하늘로 올라갔다. 가덕도에 장사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안 왜놈들이 가덕도 연화봉의 혈을 끊었다.

그냥 이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거는, [조사자: 몰라도.] 예, 그래 옛날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가덕도라는 이거를 원래 일, 제 일 그러이까 조선이제, 제 일 봉화대라 하는 기 연대봉을 갖다 말하는 기거든.

그래서 연대봉을 갖다 제 일 봉화대라. 거게 대해서 옛날에 이야기가 좀 우떻게 됐다 카는 기 나만(나이 많은) 사람 했고.

그래 여게 뭐 원래 보면은, 여게 원래 천씨, 옛날에 여게가 보면은 저 왜놈들이 들와가지고 요게 지리를 끊었다는 거라.

요 가덕도에서러 인재들이 옛날에는, 그래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은 이 빼대가 굵고 키도 크고 여 장사들이 많이 났어요.

옛날에 보면은, 그래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인자 그 뭐 참 장사라 소리 듣고. 그 옛날에 사람이 못들 정도 성을 쌓고, 그런게 현재까지도 있고. 그래 이기 우리 집안에서도 나고. 요게 원래 천씨 집안이 옛날에 여 보면은, 그래 그거 왜놈들이 맥을 끊었다.

그러께네 천씨 집안에서로 애를 낳았는데, 낳았는데, 그래 인자 그 당시에 뭐 이리 인자, 그래서 그때 옛날에 못 먹고 사니께 인자 뭐 어짤 겁니까? 그 뭐 세일이라 카모 인자 이후로는 노동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야 되고.

그래 옛날에는 전부 이 물을 질어다(길어다) 묵고 이라기 때문에, 그래 애를 뉩히나 놓고 저 물을 질어가지고 집에 오니께 있던 애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께 이 천당에('천정에'를 잘못 말했다.) 그래이께 그 붙어가지고 포리를 갖다 전부, 옛날에는 포리가 많았을 거 아입니까, 그래 작동해 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

[조사자: 파리?] 그러이까 파리지. [조사자: 파리를. 천정에 붙어가지고] 그래이께 그 포리고 인자 쫓고, 어린애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 맷돌을 눌리가지고 그 애를, 왜정시대는 그 그런, 만약에 숨킸다가는 그 어른이 당는 것 아입니까, 이래서러 애를 맷돌을 뭐 눌리서 직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여게 그러이께 이 산이, 그러이께 여기에, 그러이까 꿈에, 그래 요쭉 요쭉 산이죠, 요 요쭉이라요.

서쪽인데, 남해 남서 이래 카는데, 요쪽으로 그러이께 용마가, 그 어린애를 직이고 나니께, 용마가 울고 서로 날라가더라 캐, 그 집에서로.

본인은 용마를 못봤는데, 그래 이웃 사람이 누가 동네에서 그것도 그걸 했겠죠. 그래 용마가 울맨서로 서로 날라서 나갔다는.

그래 인자 그때, 그기 인자 우째 됐노 하모, 그기 왜놈들이 알고 그 인자 지리로 갖다가 인자 그걸로 해가지고 그 지리를 완전 끊었다. 그래 여기가 장사가 났다는, 애들이 보모 그기 어떤 장사겠제.

[조사자: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 저 장사가 아주 나면은 왜 뭐 겨드랑 밑에 날개가 나고.] 천장에 붙었다가 땅에 내맀다가. [조사자: 잘못하모 또 역적이 된다 캐가지고 미리 죽이고 그랬는데.] 그래 그런 전설이 있고. [조사자: 예예. 아이구 할아버지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귀신에게 홀린 처녀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KJH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녹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종해, 남, 80세
구연상황 : 김종해 제보자가 말하던 중 다른 주민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시작했다. 한참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제보자가 자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지금으로부터 60~70년 전 마을 밭.논 근처는 전부 묘터였다. 하루는 마을 사람 중 한 처녀가 일 끝날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온 동네를 찾아다니다 자신의 집 바로 뒤 소나무 밑에 그 처녀가 머리가 깎여 넘어져 있었다. 다음 날, 소나무 끝에 그녀의 머리가 걸려 있고 나무 밑에 녹슨 가위가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 살아있었다.

그 명지에 그때는 마을 논밭 있는 그 근처에 전부 다 묘터였습니다. 묘터였는데, 이분에 시가에 바로 집 뒤에 이분에 바로 시가 집 뒤에 보면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물 거 하는데, 그 그때는 우리가 어릴 때였으니까,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60~70년 가까이 그리 가까이 되겠네, 70년쯤 됐는데 김을 하는 사람집인데.

그 집에 어른들이 상당하게 완고한데 그 집에 처녀가 김을 씻고 널고 하는데, 밤에 일을 하는데 그 처녀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일하는 아가 어데갔노?' 온 식구가 찾아도 없고 나중에는 온 동네사람을 동원해서 그 처녀를 찾았는데, 이 양반 시가에, 그 시가가 있습니다. 그 시가에 바로 뒤에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그 처녀가 넘어져 있어요. 그래 보니 머리가 하 다 깎였어예.

머리가 없어. 그때 처녀들은 머리를 다 길게 했는데, 그러니 다 사람들이 놀래가 그때 뭐 병원에 간다 하는 생각 못하고 집에 와서 뭐 물도 떠믹이고 이래가지고 근근이 살렸는데, 안날(다음 날) 아침에 가니 그 소나무 밑에에 녹슬은 가위가 있고 그 머리가 그 소나무 끝에 걸리가 있더라. [청중 2: 아이구 무시라.]

그래가지고 소나무 끝에 걸려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금시로 죽을 것 같았는데 어 얼마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 김동조 저거 누붑니다. [청중 1: 그렇다 카대.] [청중 2: 아이구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귀신에게 홀린 어부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KJH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녹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김종해, 남, 80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먼저 구연한 이야기가 끝이 나자 조사 분위기가 좋았다. 조사자가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잘한다며 이야기를 하나 더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배를 타는 김소동이라는 사람이 밤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 들이 찾아 나섰는데 바다 벌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같이 가자해서 따라 갔다고 말했는데, 주위 발자국을 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을 뿐 다른 이의 발자국은 없었다.

[조사자: 할배 이야기 재미나게 잘하시네. 할배, 그런 이야기 하나 더 해주십시오.]

소동이라고 작은댁이라고 살았는데, 그 분도 그때만 하더래도 그 지금처럼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자그마한 거룻배로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저녁 때 사람이 들올 것으로 보았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밤이 되도 안 들어오고. 그래보니까 그 객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을 뒤에. 근데 배는 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고 싶어서 찾아도 없고, 온 동네사람들이 등불 횃불을 들고 바닷가 쪽으로 쭉 나가니까 사람이 고개만 들고 전부 다 뻘구더기에 그냥 쳐백히(처박혀) 있어.

그래 사람을 건져내가 살았는데, 건져내가지고 물어보니, 누가 같이 가자 해서 따라 갔는데, 따라 갔는데, 그 사람 발자국만 있고 다른 발자국이 없었어예.

그니깐 그 마 정신이 부실해서 그렇겠지만은 그런 일도 있었어예. 옛날에는 그런 일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청중: 옛날에는 해치도 마이 나왔다.] 그래 마 믿거나 말거납니다.

두문마을의 유래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PD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7통(천성동 두문마을) 두문마을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박동윤, 남, 75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마을 이름에 대해서 묻자 처음에는 할머니가 구연하려고 하자 박동윤 할아버지가 알려주시겠다고 하면서 구연을 해주었다.
줄 거 리 : 두문마을의 옛 이름은 '머거리'인데 그것을 한문식으로 고쳐 두문(두문)마을이 되었다. 예전에 천성과 웅동이 하나의 행정 구역이어서 원님이 한 분이었다. 천성에서 주로 거쳐하던 원님이 웅동에 자주 건너갔는데 바로 이곳 머거리에서 배를 타고 갔다. 거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게가, 이게가 이기 옛날에 요면은 그 뭐고 아이고. 이름이, 뭐 할라 하몬 잊어뿠다. 거 원님, 고을 원님, 여 웅동에를 웅천이라 하는데 하고 진해 하는 데가 있어. [조사자: 진해?]

요 천성 요게. 요하고 천성하고 요게 '머거리'라는 데는 요게 사는 사람이 원님을 실고 웅천까지 건네 주는 기라.

그래서 이 요 머거리라. 머거린데 그걸 갖다가 곤치가지고 말 두(斗)자 글월 문(文)자 그래 '두문'이거든.

근데 그 이기 요개가 옛날에는 이 고을 원, 이게 살은 사람, 이 집은 이게 처음 몇 채 안 돼. [조사자: 원래 몇 분 안 살았네예.] 안 살고. 그런데 인제 원님은 천성에서 있는 기라.

와 옛날에 고을 원님. 그러면은 통성을 갖다가 지금겉으몬 군수잖아. 그 직책에 보면은. 원님이라는 거는 군수 직책이거든. 그러면 이기 가덕하고 웅동하고 통합을 ○○에 혼자서 하는 기라. 그래가 요게서 그때 뭐 배가 있나. 저어서 건니주고 실고 오고 이렇게.

파리로 변한 아기장수를 죽인 부모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PY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옛날에 가덕도에 아기장사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하자, 제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장사가 태어났다. 아기를 방 안에 눕혀두고 가면 사람이 없을 때 파리로도 변하기도 하고 거미로 변하기도 했다. 방 밖에서 그 장면을 몰래 본 부모가 걱정을 하며 파리로 변한 아이를 죽였다.

옛날에, 옛날에 장사가 났는데, 이기 아로 쪼깨는 걸 뉩히(눕혀) 놓고 나면은 바껕에서 적 엄매 적 아배가 나가서 아가 우짜는가 싶어 디다(들여다) 보면은 퍼래이가(파리가) 됐다가 거미가 됐다가 아가 없더래요.

그래 사람 소리가 나며는 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를 인자 저거 부모들이, '저거 안되겠다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를 직이고 나이 포래이라고 포래이를 딱 때리 직이고 나이께네, 피가 한강이 됐삐더란다. 그래 그 아가 죽었다네요.

[청중: 옛날에 여게 장사 났다 안 카든가요. 장사 났단 말이 있대.] 예, 그랬답니다.

[조사자: 그래 그 뭐 이래 애가 거미로 변하고.] 예. 아, 아가 사람만 바깥에 나가고 없으며는, 아는 둥치는 없고, 포랭이가 됐다 거무가 됐다가 마, 이게 붙었다 저게 붙었다 그렇더라 안 합니까. 예.

[조사자: 그거 모르고, 모르고 파리를 죽있는데.] 예. 파리를 직인 게 아를 직인 거야. 세상 밑에 그런 기 어데 있겠습니까. 그지요? 진짜 날라댕기는 그 인간이 됐을 건데.

저승 갔다 와서 적선하여 잘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PYI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저승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고 물어보자, 제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고 하며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공장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장이 갑자기 죽었다. 죽어 저승을 갔더니 다른 고방은 꽉 차 있는데, 자기 고방은 비어 있었다. 저승사자가 이승에서는 잘 살았지만, 이승에서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저승에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저승 와서도 잘 살고 싶으면, 아무개 골짜기에서 방아품을 팔면서 사는 아무개를 찾아가 도와주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누군가 다리에서 미는 바람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염을 다한 상태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장은 꿈에서 본 대로 아무개 골짜기로 찾아갔더니,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을 끓여주고 죽을 대접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사장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잘 지내게 했다. 그 뒤 두 집안 모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인자 저승 갔다 완(온) 거는, 이 중년에 부부가 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들었지.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더랍니다. 공장을 멫 개를 하는데, 딸만 낳았어. 딸만 마이 낳아가 있는데, 서인가 너인가, 서이로 낳았는데, 그마 너무 잘 살았는 거요. 너무 잘 살았는데, 고마 각중에 그 남자가, 사장이 죽었는 거요.

죽어서 인자 그 뭐 사장이니까 한 일주일 그렇게 초상을 안 치겠습니까? 그래놓고 있는데 저승을 떡 가니까너, 예 저승 대왕이 사자가 덕고(데리고) 댕기면서,

"너, 이승에서 뭐하고 왔느냐?"

그럼 고방을 쭉 이렇게 지이놨는데, 고방을 자꾸 뵈주더랍니다(보여주더랍니다).

"요거는 아무 데 누끼고(누구 것이고) 요거는 누끼고."

총총하이 다 딱 재이가(쌓여) 있는데, 제일 끝에 가이 그 사람 고방이 비(비어) 있더랍니다.

"요거는 자네 고방인데, 이승서는 너가 잘 살아도, 지금 저승 오면 니 고방이 비있네. 너무 인심을 잃어서 갈라묵은 일이 없어, 지는 부자라도. 그러니까 지금 니가 살라 하면은, 지금 겉으모 저 용심 골짝에 그런데 인자 아주 자석도 많고 못 묵고 살아서, 방아품 들어묵고 사는데, 그래 쫌 더 살라카모, 아무데 골짝에 가면은 아주 지금 때거리도(끼니도) 없고 사는 사램이 이렇게 고방이 재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찾아가서, 니를 보내주거들랑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덥어다가(데려다가) 이렇게 잘 해주민은 니가 더 살 거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어데 그석에다가 다리 이래 섰는데 확 밀어삤는데, 그래 깨이졌대요.

그래 딱 묶어놔서 사람을 염을 다해놨는데, 소리가 나니까 인자 모두 머 상주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락잘락 다 했더랍니다. 그래 터자가지고 깨나디만은 삼 일로 지내고 나이,

"날로 덕고(데리고) 어디로 가자."

카더라 캐요.

"내 가자 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인자 지금 겉으면 신구겉은 걸로 타고, 옛날겉으모 신구로 타고 얼쭈(거의) 그 골짜기로 가가지고 인자 산을 헤매서 그로(그 곳으로) 갔는데, 꿈에 봔 그대로 갔더랍니다.

가이께네 진짜 머스마가 소도룩하이 해가지고 못 묵고 살아서 방아품을 들어다가 묵고, 칠로(칡을) 파다가 찧어서 묵고 그래 사는데, 그 골짜기에 있으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이(많이) 오는 거요. 지금 말하자면 그 용심골 겉은 그런데 살고 있으이까.

그 사람들 보면은 물이라도 한 그릇, 그 사람들로 낄이 믹이고, 방아품을 들어도 인자 죽이라도 한 그릇 그 사람들 믹이서 보내고, 저거 새끼들은 굶기도. 그리 핸 기 저승 가이 고방이 꽉- 채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덥어다가(데려다가), 그 사람들 그 아들캉 덥어다가 잘 믹이고 잘 하민은 살 길이 생길 것이다 카더랍니더.

그래 가보이 영판 그 죽어서 그 봔 그 자리더라 캐요. 그래가 와가지고, 인자 다부(도로) 가가지고, 거 저거 집에 실고 내려 왔답니다. 함부래 겁을 내가 얼그럭철그럭 가나놔놓으니(가 놓으니), 부자가 가놔놓으니 놀래가지고 붙잡으로, 관에서 붙잡으러 왔나 싶어 안 갈라 하더랍니다. 안 갈라 카는 거로,

"그기 아이니까 내 따라 가자고. 우리 집에 가서 기궁도(구경도) 좀 하고 가자고."

그래가 머스마 서이 하고 공구댈 싣고 와서, 겁이 나서 몬 드가겠더랍니더. 그 집에 들어갈라 카이 으리으리해서 신도 마 못 벗겄더랍니더. 축담이라 카는 데도 발로 벗고 못 가겄더라고 안 하요.

그런데 축담에도 고마 신고 올라오라 하더래요. 그래 드가가지고 가이 모욕을(목욕을) 싹 씻기가지고, 아 어른 없이 씻겨가지고, 음식을 해서 한 사날(사나흘) 믹이서 그렇게 인자 가되, 그 집 아들들로 자석을 삼았는 거요. 삼아가지고,

"그 다 내삐리고 내려 온나. 그라모 우리가 집을 줘서, 그라모 이 집 아들으는 저거 딸하고 큰딸하고 인자 사우를 삼아가, 데릴사우로 삼아가지고, 하고 공장을 주꾸마(주마)."

그래가지고 그 살림을 붙잡아가 그 사람도 잘 살고 다 잘 살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 이 이야기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하는 거 안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 말을 엿듣고 아이 병을 낫게 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PYI_0003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4.28.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박연이, 여, 86세
구연상황 :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끝내자 조사자가 이야기를 잘 한다며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을 더 구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자 제보자가 다음 이야기를 생각하고는 구술을 했다.
줄 거 리 : 옛날에 과객 한 사람이 길을 가다 어두워지고 비도 오자 움막 밑으로 피해 있었다. 그런데 그 과객 위에서 귀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개 집에 아이가 아파서 대접도 잘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낫는 방도도 말을 했다. 밑에서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은 과객이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그 마을로 가서 아무개 집을 찾아갔다. 아이를 고쳐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온갖 음식 대접을 받았다. 음식을 먹으면서 귀신한테 들은 방도를 말해주고 그대로 실행해서 아이의 병을 낫게 했다.

옛날에 들어보면, 지금은 과객이 안 댕기도, 옛날 사람은 신채기(신짝) 짊어지고 머 글 쪼깨 알면은 과객이라고 뭐 짊어지고 안 댕깁디꺼?

그거 짊어지는 거, 그거는 어중간한 과객이거든요. 그럼 아무 곳이라도 가서 제법 양반이라고 이렇게 인자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

그 한분은 한 사람이 인자 가덕같은 데서 넘어오면, 천성을 넘어오는데, 고마 해가 지고 어둡아서, 비가 짤잘 와싸서 못 넘어오고 오다가 보니까 막이 한 개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인자 돼지 울막이 안 있었습니까. 그 돼지 울막이라고 거기 인자 피해서, 비를 피해 들어갔는데, 함매나(하마나, 이제나 저제나) 비가 그칠랑가, 함매나 비가 그칠랑가 해도 도저히 안 그치.

그래 밤중에나 된께, 어데서,

"아무것이."

카이까, 머리 위에서,

"어이."

카거든.

"어이, 그 저 이 사람아, 오늘 저역에 내 입장일인데, 친구 그 저 술이나 한 잔 먹구로 내 따라 가자."

이라거든.

"어, 안 되네. 우리 집에 가든, 질로 가든 해인이 지금 집에 쉬고 있어서 안 되네. 못 가네. 비아놓고 갈 수가 있는가. 그 자네 혼자 갔다 온나."

이라더라 캐. 그래 쪼금 있으니까 오더만은,

"아무거시."

이래.

"어이, 어쨌노. 온(오늘) 저녁에 대접 잘 받았나."

카이,

"아이 이 사람아, 대접이고 뭐시고간에 가이 구링이 잡아 두리두리 세리나서, 어찌 보굴이(화가) 나는지 물이 쩔쩔 끓는데도 손지 머스마로 미트러옇고(밀어서 넣고) 왔는데 큰일났네.

거 거 아무데 골짜기 가몬 솔거챙이가 있는데, 그거로 뜯어다가 톡톡 뚜디리가지고 몲은 오줌에다가 담상담상 적싸서(적셔서) 붙이모 낫을낀데(나을 것인데), 이 내 보굴이 나서 밀어여놓고 오기는 왔는데 기가 차네."

카거든. 아, 들어보이 마 이기 다 들었는 거요, 그 사람이. 그래 인자 날이 새서 보이까 채봉이라. 염장 채봉해놘 데라, 옛날. 그 밑에서 들앉아서 그 소릴 들었는 거요.

그래 인자 그 동네로 내리 가가지고, 오늘 밤에 이 동네, 거기 점쟁이, 거짓말 점쟁이야, 어이. 내리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밤 이 마을에 그 입자리, 아버지 입자리 지낸 집이 없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이고, 아무 집이 있다고."

"아이고, 그 집에 내쫌 데부(데려다) 달라."

"와 그러냐."

이러카이,

"그집이 지금 아가 물에 데있을 긴데, 내가 가서 그 아를 낫아주야 된다 카거든."

"그라몬 가자고."

그 사람들이 덥어다(데려다) 주는데, 가이 아가 할락(홀랑) 벗거지가(벗겨져) 있더래요.

[조사자: 아, 물에 디가지고.] 물에 디이가지고. 마 온 곤구가(식구가) 디다보고 야단이라. 이라는데,

"아이구, 지금 이 사람이 곤치주러(고쳐주려고), 아 낫아주러(낫게 해주려고) 이렇게 가다가 의사가 둘어왔다."

카이, 칙사대접을 하고, 그 뭐 제사 지낸 임석캉(음식하고) 갖다 믹이고 이라는데, 묵으면서 하는 말이,

"그 아무데 거 골짜기 가며는 솔고챙이가 있으이 쫌 뜯어오라."

이라거든. 그리고 오줌을 할매나 누나, 오줌을 누라 캐. 그래 인제 톡톡톡톡 뚜디리가지고 아를 눕히놓고 할딱 삣기놓고, 그놈을 맑은 오줌에다 담상담상 적사서(적셔서) 딱딱 붙이이, 띄며는 곱아지고 띄면은 곱아지고, 귀신이 핸 일이 되노 그렇더래요.

그 아를 낫아놓고 나이, 돈은 돈대로 주고 잘 묵고. 그 거짓말 점쟁이가 영판 귀신이 씌어주서(씌워 주어서) 아도 낫우고(낫게 하고).

[조사자: 그 솔부챙이가 솔까지?] 아입니더. [청중: 저 담배 이파리겉은, 잎은 담배잎겉습니

더.] [조사자: 담배잎같은.] 예. 예. 그런 잎사구 요런데, 냇가 가면 있습니더. [청중: 옛날에 다 그런 거 붙이쌌다.] 그 옛날에는 약이 없으이 그런 거로 가 했거든요.

해치에게 홀려서 고생한 사람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127_PKS_BI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녹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변임순,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예전에 이 지역에서 조사를 할 때는 바다 도깨비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면서 '해치 이야기' 구연을 유도했다. 그러자 변임순 제보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줄 거 리 : 부부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 저 멀리 이야기 소리가 들려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해치 배였다.

우리 영감 할마이 그 바닥에(바다에) 근 이십 몇 년, 이십 한 오 년 근 삼십 년 바닥에 만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는데, 바랄동메 이쪽에 밑쪽에 요 앞에 여다가, 인자 저 칠월 달에 그 꾸무자(곰장어) 주난 잡는다고 쫙 놔가지고. 지금 어데고 하면 저 저 저 녹산 수문터 고 안있는교 우리 막 잡으러 가면 그서 거 밑에꺼정 나아가 이래 올라왔는데, 나아가 올라서 인자 요 와서러 쪼깨 배에서 쪼깨 눕우자고 인자 물이 나뿌면 배가 얹히서 안 되거든. 맞장배돼노이께네.

그래 인자 일나서 가는데, 그날 딱 물기가 막 차는 기라. 와 날짜를 안 잊었뿠나 하면은 칠월 칠석날이라. 딱 이래가지고 인자 보니께 저 내가 자고 일나서 저 물알로 보이께네, 아 수문터 있는데 거 시퍼런 불이 버쩍버쩍 이래 쌌는 기라.

'아 저거 해치 불인데 오늘 지녁에 고요하이 날씨도 운치도 꽉 차이' 이래 감서 그래가지고 인자 버쩍버쩍 이래 쌌든데 마 그래도 마 암 소리도 안하고, 인자 이래 자꾸 그때는 인자 지금은 불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옛날되노이께네, 등 그거 그 안에 호롱불 옇어가지고 그래 우리 영감은 노를 젓고 나는 살살살 이래 가는데, 영판 이바구 소리가 지금 우리 바아(방에) 앉은 요런 이바구 소리 예 그래도 그거를 무서움을 탔으몬 마 굉장하지도 안 했을낀데.

그래 이리이리 자꾸 이리이리 가이께네, '이상하다 사람이 젙에서 이래있으몬 배가 마주칠 긴데' 아마도 그때는 저 후릿배 막 잡아 땡기는 그거 더러 방빼기 있었거든.

'이상하다 사람이 마주칠 긴데 안 마주친다' 싶어서 그래도 사람이라고 내 잡는 괴기만(고기반) 막 자꾸 막 이래 줄로 삼으면서 간다. 가이께네, 아 수문터 인자 밑에 그 다가 가이께

네, 아이구 인자 들으이께네 말이 후이 없어

'아이고 우짜고 이게 뭣이다' 싶어서러 '아 이기 해치다' 싶어서 나중에 자세히 들으이께네, 벌로 들을 때는 이게 사람 소린데, 난중에 들으이께네 말도 [도깨비의 소리를 흉내 내며] '어밀레어벌레' 마 어데예. 말이 후에 없고 이렇대. '아이고 인제 해치는 해친데 큰일났다' 싶어. 지금 겉으몬 뭐 전기불이 좋아서 확 삐촤도(비추어도) 요새같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래 하는데.

아이고 그래가 인제 몇 바쿠를 돌고 인제 이래 다부(도로) 자리 올라와야 되는데, 몇 바쿠 돌고 내려갈 딴에보이 마 물이 무단이 마 파도가 막 쐬- 해가지고 우리 배로 덮칠라고. 마 고요한데 마 물 나불이 마 내 귀에 들리는데 쐬~하는 기라.

'아이고 우짜고 배에 물 덮치겠다' 싶어. 그래고 돌아가지고 마 정신이 바짝, 아 등이 허떡 넘어갈라 카는 기라. 그래 딱 잡았다 아이가. 등이 허떡 딱 잡고 이래가 그때 인자 혼을 빼는 기라.

아이고 그래마 정신이 바짝 해가 '아이고 요게 해치네 해치' 그래 인자 올라와가지고

"해치 소리 아이든교?"

하이께네,

"맞다. 나도 니 놀래까 싶어서."

우리 영감이,

"불이 넘어가는데 니 놀래까 싶어서 말로 못했다."

[청중: 그때 담배로 한 대 피왔으몬.]

보지 보고 성내는 사람 처음 봤다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428_PKS_LNI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통(천성동 서중마을) 서중할머니경로당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정혜란
제 보 자 : 이녹일, 여, 86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청중들의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 알고 있는 설화 한 편을 이야기하고는 누가 이야기 값으로 하나 해달라고 하자, 제보자가 이야기를 한 편 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형과 동생이 들에 일하고 돌아오니, 형수가 속옷 가랑이를 벌리고 누워 자고 있었다. 형이 형수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야단을 쳤다. 그러자 동생이 "보지 보고 성내는 사람 처음 보았다."고 했다.

헝님하고(형님하고) 동생하고 들에 갔다가 오이께네, 저거 형수가 [웃으며] 턱 속옷 가랭이

로(가랑이로) 이래가 누우자고 있거든. 그거로 다 빼놓고 있거든.

그라카네 저거 형님이 본께네, 저거 형수가 그래 있으이, 얼매나 보골이(화가, 보골은 허파의 방언) 나겠노 마. 야단을 치이께네, 저거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보지 보고 성내는 사람 처음 봤다."

카더란다. [일동 웃음] 저거 형님이 보이까 그래 있으이 기가 안 차나 그제. 저거 할마이 이래가 속옷 가랑이 이래가 눕우자고 있으이. 그래가 슬슬 덮어주면서 야단을 치이꺼내, 동생이 그라더란다.

"보지 보고 성내는 사람 처음 봤다."

호랑이가 잠을 자고 간 범여섬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LCY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이차연, 여, 75세
구연상황 : 마을 사람들이 연대봉 산신령을 이야기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냈다. 남중마을 앞의 작은 섬인 범여섬에 관한 지명유래담이다.
줄 거 리 : 범이 연대산에 들어왔는데, 산신령이 "여기 너가 먹을 건 없다 가거라."라고 말했다. 이때 물러난 범이 하룻밤 섬에서 자고 가게 되었는데, 그 곳을 '범여'라 했다.

그러이꺼네 여게서러 돼지가 헤(헤엄쳐) 나가다가, 그 범여 거 가가 하룻밤 자고 갔다고. 그거로 범여, 범여라고..

[조사자: 돼지가 쫓겨가가지고 그거 자고 갔다고예?] 범도 여게 와가지고 자기 호식을 할 만한 산신령님의 미래 자제 호식할 사람 없이이(없으니) 나가라 캐가 범이 헤 가다가 섬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갔다고 해서 그 섬을 범여라고 지었어요.

[청중 1: 범여 있어요.] [청중 2: 그러니까 범여, 범여 하는갑다.] [조사자: 아 범이 여기 와서 산신령님이 잡아무울 때가 없어서.]

우리 연대산에 둘왔거든(들어 왔거든). 범이 둘왔는데, 이곳 산중 도사님이 한단 말이가,

"니는 여게 니 밥그릇이 없다 니는 가거라."

이래나이 가다가 인자 범여라 카는데 하룻밤 잘때 그때 저 생기고 범여이 됐기로 범여이라 카지 저게가. 말로 그래 해줘야 말도 듣기가 좋지. [조사자: 범영이라 하네.] 예. 섬이 범영입니다.

아이를 업은 형상의 할매바위

자료코드 : 04_21_FOT_20100203_PKS_LCY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이차연, 여, 75세
구연상황 : 마을 사람들이 범여 이야기 하던 중에 갑자기 아이 업은 돌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줄 거 리 :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갈미섬에 할머니가 손주를 업고 있는 모습의 바위가 있었다. 마을에 처음 온 사람은 반드시 그 바위에 가서 절을 해야 재수가 좋다고 한다.

갈미섬에 큰 갈미 가면은 바위가 예, 바위가 할매하고 손주로 업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거게 갈미섬에 처음 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가 절로 해야. [조사자: 아 그 바위가 할매가 손주를 업고 있는.] 업고 있는 바윈데, [서로 이야기를 하느라 잠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음] 거게가 아 업은 바위, 아 업은 데라 카거든요.

[조사자: 아이 업은 돌, 아 업은 돌.] [청중: 저도 처음 가가지고 절했다.] 아 거 처음 간 사람은 다 절해. 그런데 거 참 좋아요. 마 천연기물인데 좋는데, 저 그러이께 매미 태풍 때 그 거를 누가 그 돌로 딱 띠가 갔어. [청중 1: 갔다 하더라. 화해 갔단 말이 있더라.] [조사자: 아 그 돌이 갔다고예? 아 그럼 그 돌이 어디 갔을가요? 지가 걸어서.] 아니 인자 누가 돌로 띠갔다고 말이 있는데, [청중 1: 큰 갈미에 샘이 앞에 거 큰 바우다. 화해갖고 아 업은 돌도 지금 화해갖고 이랬다 카더라.] [청중 2: 저 저 매미 전복돼 기해갖고 바다 밑에 넘어갔다 카더라.] 돌이 없어졌어예.

[조사자: 그럼 그 아 업은 돌을 와 사람들이 거 가몬 절을 하고 이래 기도를 하고 이라는데예?] [청중 3: 거기 가서 절을 해야 재수가 좋아갖고.] [조사자: 아, 아를 못밴 사람이 절을 하몬 아를 배고 그런 건 아이고예, 그냥 바우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잘봐 주이소.] 예. 인자 처음 할머이 오이꺼네 잘봐 주이소.

2) 현대 구전설화

비 오는 날의 용오름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127_PKS_BI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마을 녹성노인정
조사일시 : 2010.1.27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변임순, 여, 73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용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
줄 거 리 : 조국 해방된 이후 논산에서 제보자가 실제 겪은 일이다. 제보자는 우물에 물 뜨러갔다가 전봇대만한 뱀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봤어예. 논산서 봤어예. 논산서. 저가 일본서 나와가지고, 해방 돼 나와가지고 저기 논산을 갔거든. 논산서 봤어예.

요런 수문다리가 거 있는데 인자 여름에 저 저 밥을 물라(먹을라) 카면, 옛날에는 냉장고 물이 없은께, 주전자 들고 인자 저저 물 질러(길러) 간다카이께네, 갑자기 마 구름이 마 금시로 가더마는 마 '뚜뚜뚜뚜' 널찌는데예, 하늘에서 뭣이 마 끓는 소리가 나는 기라.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나는 기라.

막 용 올라간다고 과암을(고함을) 지르고 모두 용 봐도 과음을 지르는데, 저 전봇대만 하데예.

공중에 떴는데 큰 전봇대만 한데 마 막 뱀이라 마. 이게 보니께네 마 저 올라간다고 과암을 치는데 막 구불데이 쳤는데 저 큰 전봇대만 하대.

그런데 구름이 밑을 딱 떠받쳐가지고 금-시 어디로 올라 가뿌는지 금시 마. 그러는데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저저 수 밑에 그래 저 한 번 봤다 카대. 근데 내가 용 올라가는 거 봤다 카몬 절대 거짓말이라 칸다. 누가 거 믿겠습니꺼?

못갈 장가 이야기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203_PKS_SJS_0001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신정순, 여, 89세

구연상황 : 조사가의 며느리 이야기에 대한 구연을 유도하니 신정순 제보자가 이 이야기 시작했다. 서사민요 <못갈 장가 노래>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로 구술한 것이다.
줄 거 리 : 처녀 총각이 궁합도 보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처녀가 먼저 죽고 말았다. 그런데 처녀가 죽었다고 해도 총각은 장가가려던 집에 찾아갔다. 장모가 반갑게 맞으며 잠이나 자고 가라고 했지만 총각은 그냥 돌아가 버렸다.

처이 총각이 시집 갈라꼬. 책력도 보고 인자 그 뭣이고 궁합도 보고 봉채가 나갔는데, 나갔는데 딸이 아파가 죽었거든. 결혼도 안 하고 죽었는데.

근데 인자 자기 여자 친구가 죽어다이꺼네 장개 올 남자 친구가 처갓집을 왔어. 처갓집에 장개도 안 한 처갓집을 왔어. 오니께네, 장모가 하는 말이가,

"사우 사우 내 사우야 완(온) 걸음에 이왕지사 완 걸음에 발치잠이나 자거라."

이러니껜 인자 사우가 하는 말이

"자면 자고 말면 말지 발치잠은 안 잘라."

캄서,

"내 줄라꼬 지은 밥은 성북제나 지내주라."

캄서 그래가 그 사우가 돌아서 갔담니더.

부정을 타서 다시 지낸 연대봉의 제

자료코드 : 04_21_MPN_20100203_PKS_SJS_0002
조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9통(천성동 남중마을) 남중할머니회관
조사일시 : 2010.2.3
조 사 자 : 박경수, 정규식, 박지희, 오소현
제 보 자 : 신정순, 여, 89세
구연상황 : 조사자가 남중마을의 뒤에 있는 연대봉에 관한 전설을 유도하자 제보자가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줄 거 리 : 옛날, 제보자의 시삼촌이 섣달 그믐날 밤 연대봉에 올라가서 제를 지냈다. 한 번은 외손녀를 데리고 제를 지내고 내려오는데, 외손녀가 제사 지내던 곳을 설거지하고 뼈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외손녀가 설거지를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 무엇이 따라온다고 소리를 쳤다. 시삼촌은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 제를 지냈다. 그런 다음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우리 시삼촌이가, 제로 저 연대봉 옛날에는 섣달 그믐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제 지내거든.

눌로 덕고(데리고) 갔나 쿠모, 야 우에 주영수라고, 저저 국수 저거 우리 상사 아주버이 큰 누부 아들로 조카라고, 집안 외손지지. 들고 인자, 그날 그믐날 밤에 제 지내러 올라갔는데.

가가지고 제로 지내고 가몬 그 가서 다 목욕하고, 얼매나 정신을 주야, 목욕하고 제로 채

려나놓고. 딱 그 제 지낼 때는 이래 둘이 제일 깨끗한 사람 둘이 가가지고 지내는데 절대 그릇 이런 것도 앗아 주는 것도 말없이 고마 앗아 주고. 이 시장 보러 가몬 마수크 해가지고 그 때는. 안달에 갔습니더, 갔는데, 주영수 그 집안 외손녀라고 카클타꼬(깨끗하다고) 이래가지고 덕고 갔는데, 가가지고 제로 인자 지내고 내려오는데 요 배나무골만치 내려오는데, 가가 하는 하는 말이가, 제 지냄서로 전부 다 인자 설거지 가지고 내리올라꼬 이라는데,

"빼땅구는 우리 돼지를 갖다줄라꼬."

야가 이래 말 하더란다, 주영수가 이라더란다. 그래놓고 설거지 해가지고 내러오는데,

"와이고 할배 내 뒤에 뭐 따라온다."

카이, 외손주이고 집안 외손주가 되노이,

"할배 내 뒤에 뭐 따라 온다."

꼬. 막 아가 막막 막 할배한테 머리를 끌어안고 아가 막 발광을 하더란다.

그래가 할배는, 우리 시삼촌은 암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가를 다부(도로) 덕고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로 다부 덕고 올라가가지고, 새로 목욕 하고 새로 제도 지냈지.

아 거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인자 이래 하는데 그래 하고 내려오이께네 아무치도 안 하더란다. 그만치 연대봉 산신령이 영험 있다고 그래.

※ 이상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21(부산광역시② -서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역락, 2015. 12, 124~188쪽.

Ⅲ. 문헌 소재 설화

명월사의 시말(始末)

가락국 수로왕이 허왕후를 부인당에서 맞이하여 명월산(구량리의 뒷산)의 자락에까지 와서 여러 신하들을 물리치고 단 둘이 산으로 올라가 산골짜기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왕은 나중에 달이 밝게 비쳐주던 이 산을 명월산이라 하고, 암자에 달빛이 비추었던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여 명월사(明月寺)라고 이름 지었다. 왕은 또 명월사를 크게 증축하게 하고 앞들에 있는 토지를 많이 사전(寺田)으로 내려 주었다. 그 때문에 절이 크게 번성하였고, 승도(僧徒)도 삼백 여명이나 되었으며, 그 절에 소속한 암자도 여럿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김해읍으로 가는 길이 그 절 앞으로 나 있었으므로 하루에 수백 명의 손님이 그 길로 왕래하면서 배가 허기지면 절에 오곤 했다. 절의 스님들은 그 손님들을 밥 지어 주기가 귀찮아서 행장과 모양이 좀 이상한 사람만 보면 대접을 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절에 손님이 안 오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물었다.

어느날 행색이 두드러져 눈에 띄는 젊은 과객이 이 절에 들자, 한 스님이 그를 찾아와 역시 어떻게 하면 손님이 안 오겠느냐고 물었다. 젊은 과객은 스님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그렇게 손님이 오는 것이 귀찮거든 이 절 뒤에 쑥 내민 산봉우리를 끊어놓으면 다시는 손님이 안 올 것이오."

하고 일러주고 표연(飄然)히 가버렸다.

스님들은 이튿날 곧 일꾼을 시켜 산봉우리를 끊어버렸다. 그리했더니 그 뒤부터는 정말 손님이 오지 않아서 스님들은 뛰며 기뻐하였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 절에 환란(患亂)이 그치지 않고, 날마다 스님이 몇 명씩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윗절에서 죽은 스님은 윗절 근처에서 화장을 하고, 아랫 절에서 죽은 스님은 아랫 절 근처에서 화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화장터를 가리켜 윗 영장골, 아랫 영장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터에는 불에 그을린 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59쪽.

을축년 홍수 이야기

대저, 명지가 물에 잠기고, 강 동쪽의 사상 모라가 호수가 되었던 을축년(1925년) 홍수 때의 일이다. 낙동강 변에서 유복자인 아들을 20세까지 키웠던 어느 어머니가 있었다. 이 아들이 홍수 때 낙동강을 건너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평소 이웃의 불행을 내 일처럼 여겼던 동네 사람들은 문상하여 이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

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의 비보를 듣고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의를 표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다는 말이냐? 물에 빠졌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니, 내 아들은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평생을 아들만 믿고 살아온 과부가 그 슬픔이 극에 달한 나머지 실성해 버렸다고 측은해 하며 돌아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물에 빠진 지 3일만에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거센 물살과 함께 70여리를 떠내려가던 중 나무 기둥에 매달려 목숨을 건진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몰려와 이 과부의 선견지명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과부는,

"평소 아들을 키우면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가 빠진 그릇을 쓰지 쓰지 않았고, 남의집 음식은 반드시 먼저 맛을 보고 주었으며, 항상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인 정성이 내 아들을 살렸노라."

고 답변하였다. 지극한 정성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미의 지성에 하늘도 감동하여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지극한 어미의 사랑이 아들의 미래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55쪽.

명지도와 공민왕 어필(御筆)

『경상도지리지』 김해부 영이지적(靈異之跡)조에 '명지도는 오래 가물거나 장차 비가 오려고 할 때면 울었고, 또 오랜 장마 끝에 비가 개려고 할 때도 울었으니 그 소리가 우레 같았다.' 라 기술하고 있다.

또 선조 38년 대홍수로 안동의 영호루(映湖樓)의 편액(고려 공민왕의 친필)이 낙동강 하류 지역인 명지도에까지 떠내려 와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이곳에서 서광(瑞光)이 하늘에 가로 비치므로 섬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모래를 파보니 안동에서 떠내려 온 영호루의 편액이 파묻혀 있었다. 이것을 다시 안동의 영호루에 걸었다고 전해온다.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56쪽.

미음 마을 전설

900여 년쯤에는 지금의 미음동(美音洞) 앞의 들이 바다였으며 뒷산인 풍상산(風裳山) 기슭에 선창이 있어 사창걸이라 불렀다. 그 당시 이곳에 한 어부가 백세 노모와 두 남매를 데리

고 살고 있었는데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느날 어부는 바다로 고기잡으러 나가고, 노모는 산으로 나물을 캐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덮히고 세찬 바람과 함께 뇌성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그 때 어부는 노모의 일이 걱정이 되어 허둥지둥 산으로 올라가서 목이 터지게 노모를 불렀으나 노모는 간 곳이 없고 노모의 치맛자락만 가시덩쿨에 걸려 거센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어부는 노모의 치마를 움켜쥐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노모를 불렀다.

그 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풍악소리와 함께 노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승천한 너의 어미이다. 내 아들아!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너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산다면 너의 자손들은 길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풍악소리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어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험악했던 날씨는 개이고, 맑은 하늘이 노모를 잃은 어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 뒤 백 년쯤 지나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니, 마을 이름을 아름다운 풍악소리가 났다고 해서 미음 마을이라 하였고, 노모의 치마가 바람에 휘날렸던 산을 풍상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58~659쪽.

생거죽동 사거수안

옛날 대동면 수안리(水安里)에서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공교롭게도 가락면 죽동(竹洞)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한 사람이 죽었다. 죽동 사람들은 먼저 초상을 쳤으나, 수안 사람은 아직 초상을 치루지 아니하였으므로 죽동 사람의 혼이 수안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다.

이에 수안 사람은 죽은 사람이 깨어났으므로 상주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소생한 사람이 자꾸만 죽동으로 가려고 하면서 "나는 죽동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죽동 상주는 자기 부친의 혼이 수안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부활하였으니, 우리 부친이므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 수안의 상주는 분명히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여 두 집안 간에 싸움이 벌어져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가에 호소하였더니, 관의 판결이 생거죽동(生居竹洞) 사거수안(死居水安)이라고 하여 수안의 상주로 하여금 모시게 하였다.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57쪽.

가덕도와 신호리가 생긴 이야기

원래 가덕도는 용원리쪽 산에 붙어 있었고 신호리는 바다였다. 그런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땅이 꿈틀거리더니 금이 가고 땅과 땅 사이가 벌어져 떨어진 땅 한 덩어리가 움직이다가 남쪽 바다로 떠내려가 가덕도가 되었다.

바로 이 무렵, 녹산동 화전(花田)마을 앞 바다도 해가 질 무렵에 술렁거리며 물빛과 비슷한 흙이 펑퍼짐하게 마치 펴놓은 멍석처럼 되어서 떠내려 오기 시작하였다.

화전과 성산리 쪽에 사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땅 한 덩어리가 남해쪽으로 떠내려가고, 펑퍼짐한 흙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그 때 마침 한 젊은 여자가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이 광경을 보고 부지깽이를 든 채 부엌 밖으로 뛰어나와 그 떠내려가는 모습을 부지깽이로 가리켜면서 "저기 뭣고? 웬 산과 흙이 저리 떠내려 가노? 참 희한한 일도 있네."하고 소리를 지르니, 떠내려가던 산이나 떠내려 오던 흙이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다. 그 지각변동으로 가덕도와 신호리가 생긴 것이다.

만약 그 때 젊은 여자가 방정맞게 그 말만 안했더라면, 신호리는 강 밑의 좋은 흙들을 일구어 훨씬 비옥한 땅을 만들었을 것이며 산과 언덕도 이루어졌을 것이라 한다.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75~677쪽.

신호동 염전밭의 도깨비

신호동은 옛날 소금밭으로 유명했다. 이 소금밭은 원래 우리의 것인데 왜놈이 들어와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갑신년(1944)에 해일이 밀어닥쳐 소금밭에서 일하던 조선사람이 여러 명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나 왜놈들은 위문은 커녕 보상도 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 왜놈한테 재앙(災殃)을 주거나 도깨비가 되어 나와서 왜놈들이 가는 길을 막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처박을 것이라고 말들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밤, 달빛이 어슴프레한데 소금밭 옆을 술에 취한 채 혼자 지나던 왜놈에게 생면부지의 조선 사람이 나타나 친절하게 담배를 건네주며 이야기를 거는 것이었다. 왜놈은 마음 놓고 둔덕에 앉아 같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선 사람이 씨름을 하자고 했다. 왜놈이 쾌히 응하여 씨름을 여러 차례 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소금밭에 곤두박히고는 말았다.

이튿날 날이 새었을 때 가보니 왜놈은 소금밭의 흙탕에 쓰러져 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소금을 쓸어낼 때 쓰는 몽당대빗자루 하나가 손잡이까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또 그해 어느날 달밤에 해일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된 소금밭에 느닷없이 도깨비들이 상여를 메고 나타난 것이었다. 도깨비들은 상여노래를 부르면서 못쓰게 된 소금밭을 왔다 갔다 했다. 왜놈들은 놀라서 잠시 소금밭 주변에서 물러나 떨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팥죽을 끓여 소금밭 여기저기에 흩었더니 상여도 사라지고 상여소리도 멎었다고 한다.

그 뒤 동네 사람들은 해일에 휩쓸려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주고 나니, 마을도 조용해졌고 왜놈들도 조선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못했다고 한다.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74~675쪽.

서천보 다리의 도깨비

옛날 강서구 죽동(竹洞)마을과 송산(松山)간을 내왕하려면 갈대사이의 오솔길로 가다가 나무다리인 서천보(西川洑)다리를 지나야 했다. 이 서천보다리에서는 비내리는 밤이나 어두운 밤에는 도깨비가 나온다 하여 좀채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죽동의 힘센 장정이 비오는 밤에 술에 취하여 돌미삿갓을 쓰고 도깨비를 잡으려 이 다리에 와서 도깨비를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좀 겁이 났었다. 그 때 도깨비 두 놈이 나타났다.

장정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지를수록, 몸을 흔들면 흔들수록 도깨비는 더욱더 날뛰면서 덤벼들었다. 하다하다 기진맥진하여 아무것도 가리지 못할 지경일 때 가족들이 찾아나서 이 광경을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놈 도깨비가 덤벼든다. 나를 친다. 나 죽겠다.”고 마구 뒹굴더니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때 돌미삿갓도 벗겨졌다. 덤벼들던 도깨비는 온 데 간 데 없고, 헌 돌미삿갓의 매듭 양쪽 두 개의 끝만이 눈에 보였다고 한다.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657쪽.

참고문헌

김승찬,『가덕도의 기층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김승찬,『경마장건설부지내 민속조사보고서』, 한국마사회, 2000.

김승찬,『녹산문화유적학술조사보고』,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김승찬,『한국구비문학대계』8-9(경상남도 김해시 김해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박경수 · 정규식 · 서정매,『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8-21(부산광역시②-서부산권), 한국학중앙연구원 · 역락, 2015.

부산직할시 강서구지 편찬위원회,『부산강서구지』, 부산직할시 강서구청, 1993.

제보자 색인

ㄱ

강경애 576
강계정 107, 108, 109, 110
강병이 193
강소남 26
강순선 218, 220
고복연 222
권경태 414, 415, 416, 417, 419
권기영 346, 348,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61, 362, 363, 365
권덕선 194, 195, 196, 197
권차순 88, 89, 577
김검선 170, 171, 172, 173, 174, 176, 177, 178
김경선 45, 46, 47, 48, 49, 50, 51, 55
김금덕 382, 383
김금순 203
김기일 527, 532, 533, 534, 538, 539, 540,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1, 562, 564, 565, 566, 567, 568, 569, 571, 572, 573, 575, 578, 580, 582, 583, 584, 586, 589, 590, 591, 593, 595, 596, 598, 601, 602, 603, 604, 605
김남선 481, 486
김두선 248, 252
김대식 3
김덕렬 63, 64, 65, 66, 68, 69, 70
김도익 308
김동림 90
김복년 178
김복연 206, 207, 208, 209, 211
김봉자 155
김봉진 51, 52, 53, 55
김분녀 135, 136, 137
김석연 177, 178, 179, 180
김소심 76
김순희 476, 477
김쌍순 24
김우철 308, 309, 316, 326, 330, 338, 342
김윤근 385, 390, 397, 406, 409
김옥자 118
김외선 155, 156
김을태 605
김정순 262, 266, 268, 277, 289, 291, 293, 301
김정이 76, 77
김재봉 606
김종만 425, 426, 433, 434, 436, 437, 438, 440
김종해 608, 609
김중환 555, 558
김찬이 264, 268, 284, 287
김판수 256

ㄴ

나정기 26, 27, 28, 31, 33, 34, 36, 37, 38, 40, 41, 42, 43, 44

ㅁ

문필순 150, 151, 152, 153, 154

ㅂ

박기훈 478, 479,
박동윤 609
박말년 77
박말순 240
박부인 181, 182
박상봉 241
박상호 554
박성년 79

박술이 128, 129
박어대자 55, 56, 57, 58, 59
박연이 211, 212, 213, 214, 215, 559, 560, 561, 610, 611, 613
박이쁜 225, 226, 227, 228, 230, 231
박차순 487, 489, 491, 517
배권기 500, 501, 502, 503, 504, 507, 511, 512, 520
배귀분 59, 60, 61, 62
배소열 71, 72
배정순 80
변임순 615, 619

ㅅ

서원순 81, 82
송영자 113, 114, 115, 116, 117
송소금 73, 74, 75
신정순 619, 620
신필애 272, 273, 282, 284, 298

ㅇ

안갑선 368
안순덕 6, 7, 8, 10,
양이덕 204
유금엽 138, 139, 140
윤경애 217
윤병태 235, 236, 237, 239
윤정옥 220, 221
이녹일 616
이두연 140
이미연 83
이봉선 63
이상순 111, 112
이순이 162, 163, 165
이영순 255, 257, 258, 296
이영애 90, 93, 95, 97, 98, 101, 102103, 104, 105
이영임 84, 85, 87
이외조 141, 143
이정년 198
이정순 3, 4
이종연 22, 23
이차연 617, 618
이채련 158, 159, 162
이필례 24
임경출 157
임말년 5

ㅅ

장점덕 130, 131, 132, 133, 134
장유선 165, 166, 168, 169
장필련 372, 373, 374, 375, 376, 389
정경열 11, 12, 13, 14, 15, 16, 17,
정광자 5
정옥련 419, 420
정소임 18, 20
정재수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정준탁 421, 422, 424, 441, 444, 446, 447, 452, 454, 456, 460, 462
조귀주 118, 119
조일선 378, 381
조정원 259, 260, 262, 265, 271, 286
주말율 494, 498
주복순 528
주옥도 372
지성분 157

ㅊ

최병화 246, 247, 248
최복금 126
최복님 6
최복련 269
최봉연 144, 145, 146, 147, 148
최정숙 198, 199, 201, 202
최정자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1
최차선 480
최판돌 231
최필선 157

최필금 231

ㅌ

태금선 218

ㅎ

하시영 22
한자복 304, 305, 307
허 원 254, 255
홍두리 192
홍성연 370, 371, 377
황정성 465, 472, 473

설화 제목 색인

ㄱ

각시 252
각시귀신 305
갈치 73
강태공 16
강피 16, 23, 56, 116, 126, 136, 201, 214
까마귀 546, 593
까마귀 고기 572
개 7, 130, 133, 141, 145, 166, 182, 326
개복 284
개비석 128
개울 128
거짓말 121
건망증 572
겨울 27
결혼 28, 163, 227
계모 289
고기 59
고깃국 4
고동각시 52
고려장 13, 24, 51, 71, 77, 79, 109, 119, 131, 145, 150, 155, 157, 162, 170, 181, 194, 197, 203, 216, 218, 381
고양이 23, 83, 133, 143, 71
골벵이 각시 346
곶감 24, 56, 107, 111, 118, 135, 155, 163, 193
꼬부랑 24, 119, 193, 221
과거 260, 309, 456
과부 228, 260, 309
괴물 446
꾀 12, 316, 486
구두쇠 4
구둘방망이 269
구렁덩덩 신선비 28
구렁이 28, 178, 272, 358, 361
구미호 31
구슬 31
국부 433
굼벵이 색시 406
굼벵이국 59
꿈 112, 551, 596
꿩 301
귀신 108, 109, 139, 169, 197, 198, 222, 608, 613
기도 185
기생 159
근친상간 554
금도끼 151
금부처 377

ㄴ

나물 27, 155
나무꾼 65, 131, 153
나병환자 489
날개 194, 207
남자 545
남녀 227, 548
남편 52, 60, 64, 80, 117, 134, 138, 185, 389, 593
낮거리 126
노모 197
노인 57
노적봉 417
노총각 52
논 217
녹산 232
누나 171
누룽지 547

ㄷ

단칸방 10, 22, 90, 120, 171, 195

달 157
달래강 148
닭 151
당산 130, 173
당산제 171
딸 6, 14, 15, 69, 166, 186, 289, 440, 441
대감 69, 258, 365, 517
대추 416
도깨비 31, 75, 85, 87, 151, 152, 179, 217, 269, 372
도깨비 불 45, 84, 128, 236,
도둑 180, 258, 298, 365, 498
도령 273, 277, 409
도효자 351
돈 112, 352, 601
돌 69
동구시 265
동묘산 256
동생 171, 215
동자 93
돼지 141, 252
두꺼비 42, 62, 137, 207, 370
두문마을 609
똑딱이 79
득남 438

ㅁ

마누라 115
막내딸 268
말 89, 135
망산도 308
매구 362
매립고개 501
매미 201
맷돌 230, 606
맹인부자 534
머리 57
머슴 477, 551, 596
메뚜기 3
며느리 4, 11, 12, 18, 22, 33, 46, 59, 69, 72, 76, 97, 107, 113, 118, 121, 123, 124, 129, 132, 140, 144, 153, 165, 176, 191, 192, 198, 199, 203, 204, 225, 227, 231, 240, 382, 482, 491, 511, 582, 586, 605
명당 355, 481
명월사 625
명지도 626
명판결 115, 538
몸 180
묘 47, 239, 478, 604
묘터 296, 304, 363, 434, 436, 573
뫼 176
무덤 326
무학대사 503
묵 4, 183
묵화 558
문둥병 389
문필봉 248
물 55
미역국 3
미음마을 626

ㅂ

바가지 222
바둑 시합 437
바보 68, 208, 218
바보사위 540
바위 140
바지락 424
밥 43
방귀 22, 97, 107, 122, 123, 140, 192, 198, 231
방귀쟁이 72, 576
방아품 487
방앗공이 262
백정 482
뱀 38, 57, 82, 83, 129, 38, 141
뱃사공 575
버릇 227, 605

버스 182
벌 17, 23, 66, 204
범 266, 271, 286, 422
범벅타령 60
범인 241
벙어리 88, 102, 125, 152, 577
벼슬 3
병 48
베짱이 520
보쌈 338
보은 370
복 15, 49, 136, 215, 264, 265, 268, 350, 598
복숭아 354
봉사 88, 102, 125, 152, 494, 517, 577, 583
부고 3
부모 111, 166, 186, 390, 610
부부 88, 125, 129, 152, 577, 590
부인 16, 26, 47, 51, 56, 64, 80, 116, 117, 126, 136, 138, 185, 201, 601
부자 31, 77, 189, 286, 477, 583, 589, 590
부처 377
부친 282
북두칠성 257
분절리 308, 368
불덩어리 74, 84
빈대 104, 433
빗자루 87
빛 63, 114, 213

ㅅ

사나이 230
사내 330, 338
사돈 147, 542, 595
사돈집 63
사람 3, 23, 55, 75, 77, 81, 82, 85, 112, 151, 163, 168, 178, 179, 189, 197, 209, 211, 212, 260, 264, 375, 376, 580, 611, 613, 615, 616
사랑 10, 20, 90, 120, 171, 195
사명대사 162
사자바위 235
사해용왕 421
산삼 134, 177, 2211
산삼동자 93
산신령 33, 230, 284
삽살개 143
상객 147
삿갓 123
상사뱀 45, 502
상주 77, 420
새 209
새끼 3, 50, 154
색시 291
서처노 다리 629
세산 307, 415
선녀 65, 131, 153
선달바위 231
선비 20
선생 353, 421, 460, 569
성기 227, 548
성씨 148
셋째 딸 28, 49, 268
소 123, 259, 542, 595
소금 268
소금장사 69, 252, 287, 476
소라고동 291
소변 120
손님 36, 58, 575
손자 57, 220
수숫대 266
숙종대왕 248, 512
술 558
술독 52
숯장이 397
쑥떡 장사 61
스님 8, 50, 61, 66, 69, 103, 148, 188, 225, 228
시부 227, 482

시아버지 6, 176, 220, 586
시어머니 4, 11, 46, 59, 76, 93, 113, 118, 121, 124, 129, 132, 144, 153, 191, 199, 203, 204, 511, 582, 586
시주단지 375
시합 121
씨름 75
신랑 37, 38, 47
신발장수 63
신부 358, 382
신호동 628
심봉사 158
심청이 158

ㅇ

아가씨 53
아기장수 40, 194, 207, 211, 254, 255, 256, 385, 414, 605, 606, 610
아내 55, 60, 298
아들 12, 17, 23, 114, 214, 239, 309, 348, 356, 374, 375, 417, 465
아버지 3, 14, 17, 176
아이 11, 41, 44, 58, 101, 110, 132, 141, 145, 174, 182, 618
앉은뱅이 494
애원애기 95
양반 416
양자 376, 555
어미 204, 226, 348, 361
어머니 7, 64, 130, 145, 166, 184, 214, 601
어씨 436, 480
엄마 120
에밀레종 11, 41, 58, 101, 110, 132, 145, 174
여동생 17, 34, 70, 105, 174
여우 17, 34, 55, 70, 105, 174, 371
여자 8, 31, 140, 259, 286
연대봉 255
염라대왕 538
열녀 389
영감 121, 178
오누이 148, 157
오빠 17, 34, 70, 105, 174
옹기장사 564
옹달샘 603
욕심 215, 572, 601
욕쟁이 220
용 272
용오름 619
율곡 선생 353
용궁 230
외손자 262
우렁각시 7, 52
우물 373
원님 115
원수 252, 358
은도끼 151
은혜 3, 42, 62, 133, 137, 207, 365
이삭 293
이율곡 507
인어 287
인연 98, 397
임금 48
임신 129

ㅈ

자손 354
자식 48, 64, 93, 184, 204, 378
잔소리 132
장가 569, 578, 619
장전동 우물 373
장모 90
저승 81, 95, 112, 168, 212, 226, 374, 611
저승사자 196
절 104, 433
점괘 534
점쟁이 187
정승 딸 273, 277, 383, 409
제사 350, 555

제사상 59
제삿밥 108, 109, 139, 169, 198, 222
조왕신 43
좀시래기 562
중 45, 271
쥐 180, 301, 567, 590
지네 549, 580
지렁이 172, 539
지렁이국 11, 46, 76, 113, 118, 124, 129, 144, 153, 191, 204, 220, 582
짐승 18, 20, 55
집안 36, 50, 58, 69, 136, 171
징검다리 591

ㅊ

찰방묘 368
창녕 128
처녀 98, 163, 172, 206, 271, 446, 491, 608
처녀골 233
처녀뱃사공 575
처이바우 419
천벌 240
첩 342
청상과부 397
청조새 95
총각 28, 53, 98, 172, 397, 440, 441
총각바우 419
총각바위 206
충견 181
치매 노인 57
친구 아내 426
친구 아버지 350
친자 555
친정아버지 6, 47, 63, 176

ㅋ

코 38, 567, 590
코바위 559

ㅌ

탑동마을 377
탕건바위 372
태운장군바위 246
토끼 473
통시 26

ㅍ

판결 115, 538
팔달교 184
팔자 16, 26, 37, 44, 56, 103, 116, 126, 136, 201, 330, 338, 374
팥죽 156
포수 305, 566
풍수 304, 363, 425, 465
피 145

ㅎ

하늘 134, 177, 528
하인 486
한석봉 6
할머니 4, 220
할매바위 618
할아버지 152
해 157
해몽 187, 456, 532, 584
해치 74, 222, 615
허깨비 237
헛배 247
혀 121
형 208, 215, 218
형수 547
형제 269, 494
후사 69
후처 182
훈장 578
호랑이 5, 24, 50, 51, 56, 76, 79, 90, 107, 111, 118, 135, 154, 155, 157, 163, 182, 183, 193, 617

호박범벅 540, 593
혼 31, 178
홍수 625
홍합 546
혼령 98
혼례 282
효녀 27, 158
효부 12, 64, 80, 90, 93, 134, 539
효성 479
효자 64, 111, 145, 176, 177, 284,
308, 357, 378, 533, 571, 591

■ **편저자**(현장조사・교열・주석 담당자) **소개**

- **박경수**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론』(삼지원, 1993), 『한국 근대 민요시 연구』(한국문화사, 1998), 『한국 민요의 유형과 성격』(국학자료원, 1998), 『한국 현대시의 정체성 탐구』(국학자료원, 2000),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 세계』(새미, 2004), 『정노풍문학의 재인식』(역락, 2004), 『아동문학의 도전과 지역 맥락』(국학자료원, 2010), 『현대시의 고전텍스트 수용과 변용』(국학자료원, 2011) 등이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6~19(경상남도 함양군①~③)』(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19~21(부산광역시①~③)』(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등 다수가 있다.

- **황경숙**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월인, 2000), 『부산의 민속문화』(세종출판사, 2003)가 있고, 편저로 『부산민요집성』(세종출판사, 2002), 『오래된 마을 미래공동체 -산성마을 사람들』(부산발전연구원, 2014) 등 다수가 있다.

■ **조사보조원**(현장조사 보조・채록 담당, 2014년~2016년)

- 정혜란(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4~2016년 참가), 김남희(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남정(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이상 2016년 참가)
- 김지선(2015년 참가), 박소영(2014, 2016년 참가), 신혜림(2015년 참가), 이소현(2014, 2016년 참가), 최지은 (2014~2015년 참가, 이상 당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재학), 엄홍석(2015년 참가, 당시 부산대학교 국악과 재학)

■ 편집위원

위원장 : 이송희(신라대학교 교수)
위　원 : 박화진(부경대학교 교수)
위　원 : 백승충(부산대학교 교수)
위　원 :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HK교수)
위　원 :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위　원 : 표용수(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부산구술문화총서 5
서부산 문화권 설화(Ⅰ) 강서구 편

발 행 인	강 대 민
편　　저	박 경 수 · 황 경 숙
편집·교열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발 행 일	2016년 10월 31일
인　　쇄	신흥기획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01-10
ISBN	979-11-85308-07-4
	978-89-964675-9-5(세트)

(비매품)

연 락 처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전화 : 051) 888-5056~5058 / FAX : 051) 888-5059

자료검색
부산시 (www.busan.go.kr) 부산소개〉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www.bssisa.com)

※ 표지 자연마을 사진제공: 부산강서문화원